장편소설 《제르미날》에 대하여

장편소설 《제르미날》은 19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프랑스의 비판적사실주의작가 에밀 졸라가 1885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에밀 졸라 (1840－1902년)는 모빠쌍, 아나똘 프랑스 등과 함께 19세기말～20세기초 프랑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의 한사람이다.

졸라는 프랑스의 수도 빠리에서 건설기사의 아들로 태여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처지에서 자라났다. 그는 중학교를 겨우 마친 다음 상점의 점원, 출판사의 책포장공 등으로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창작수업을 하여 19세기 60년대 중엽부터 직업적인 작가생활에 들어섰다.

작가는 초기에 공꾸르와 같은 자연주의작가의 영향을 받고 장편소설 《떼레즈 라껭》(1867년)을 비롯하여 일련의 자연주의적인 소설들을 창작하였으며 처음에는 자연주의작가로서 문단에 등장하였다. 한때 자연주의와 실증주의에 사로잡힌 졸라는 《실험소설론》(1880년)이라는 론문을 발표하여 문학창작에 자연과학적인 실험과 관찰의 방법을 도입할것을 주장해나서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문학예술과 자연과학의 차이를 가려내지 못하고 문학예술창작에서의 전형화의 원칙을 무시한 심히 자연주의적인 주장이였다. 자연주의는 그후 졸라의 창작에 심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졸라의 창작에는 처음부터 반동적인 부르죠아자연주의작가들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것은 계급적모순에 가득찬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적라라하게 그려내려는 강한 지향이였으며 피압박근로대중에 호의를 품은 민주주의적경향이였다. 이 경향은 날이 갈수록 그의 창작에서 우세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작가는 점차 자연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사실주의적인 창작의 길을 탐구하게 되였다.

졸라의 창작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장편소설총서 《루공-마까르일가》(총 20권)에는 작가의 이러한 탐구과정이 잘 반영되여있다. 1868년부터 1893년까지 25년동안이나 걸려 창작한 이 총서에서 졸라는 발자끄의 소설총서 《인간희극》을 본받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물 1 200여명을 등장시켜 19세기 후반기 프랑스의 사회생활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제2제정시기 프랑스민족의 력사를 폭넓게 그려내였다.

총서에 망라된 20권의 장편소설들가운데는 1851년 12월에 있은 국가정변을 반영한 《루공일가의 경력》(1870년),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거부를 축적한 대부르죠아들을 폭로한 《획득물》(1871년), 소부르죠아상인들의 세계를 그린 《빠리의 배》(1873년), 빠리의 빈민굴에 사는 근로자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보여준 《함정》(《선술집》이라고도 한다. 1877년), 매춘부들의 생활을 통해 부르죠아사회의 부패상을 해부한 《나나》(1880년), 탄부들의 파업과 폭동을 형상한 《제르미날》(1885년), 대금융부르죠아의 파산을 내용으로 한 《돈》(1891년), 제2제정의 붕괴를 묘사한 《괴멸》(1892년)과 같이 잘 알려진 작품들이 있다. 특히 졸라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제르미날》은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프랑스로동계급의 계급투쟁을 정면으로 묘사하고 로동계급을 사회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선각자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형상을 잘하지 못하고 이모저모에서 자연주의적경향을 나타낸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장편소설 《루공-마까르일가》를 끝낸 다음에도 작가는 련작장편소설들인 《세 도시》(《루르》-1894년, 《로마》-1896년, 《빠리》-1898년)와 《네 복음서》 (《풍요》-1899년, 《로동》-1901년, 《진리》-1902년)를 창작하였다.

졸라의 창작은 소부르죠아민주주의인테리의 립장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로동계급의 편에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던 작가의 세계관의 제한성과 자연주의수법의 영향으로 하여 생활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인간과 그 생활을 보다 진실하게 그려내지 못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있으나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과 부패상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생존의 권리를 옹호하여 투쟁에 궐

기한 로동계급의 모습을 힘있게 형상하였으며 소설창작의 기교를 높인것으로 하여 프랑스와 유럽 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졸라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제르미날》은 경제가 침체상태에 놓이고 자본가계급의 로동계급에 대한 착취와 압박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로동운동이 장성하였던 19세기말 프랑스의 력사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1873년에 겪은 경제공황과 1870－1871년 프랑스－프로씨아전쟁의 후과로 19세기말 프랑스경제는 침체상태에 있었다. 프랑스부르죠아지들은 이로부터 헤여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에 날뛰는 한편 국내인민들을 기만하고 보다 가혹하게 략탈하려고 발악하였다.

이 시기 프랑스부르죠아지들의 가혹한 략탈과 통치배들의 반동적대내외정책은 사회계급적모순을 더욱 첨예화시켰으며 그에 따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1870～1880년대에 여러 지방들에서 큰 파업투쟁들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 로동자들의 조직체가 나온것은 그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전 7장으로 되고있는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주인공 에띠엔느 랑띠에의 운명선을 따라 전개되고있다. (사건은 어느해 3월부터 다음해 봄까지 1년동안에 벌어진다.)

기계공장에서 해고된 에띠엔느는 직업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몽쑤탄광에 오게 된다. 그는 탄광에서 운반공으로, 채탄공으로 일하는 과정에 사회의 불공정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며 사회주의사상을 담은 출판물들을 부지런히 탐독하는 과정에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되여간다.

그는 마여일가와 온 마을사람들에게 자본가들의 착취행위의 내막을 알려주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며 그들을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킨다. 그는 국제당성원인 쁠류샤르의 지도밑에 로동자들속에서 호상부조금고를 조직하고 그들모두를 국제로동자협회에 가입시킨다.

회사는 로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기로 결정한다.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격분을 느낀 로동자들은 즉시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이 지속됨에

따라 마을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다. 일부 변절자들도 생긴다. 그러자 로동자들은 숲속에 모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파업을 계속하며 변절자들을 징벌할것을 결정한다. 파업은 폭동화된다. 폭동군중은 《부르죠아들에게 죽음을 주라!》고 웨치면서 몽쑤의 탄광들을 파괴하고 지배인과 회사주주인 그레그와르의 집, 간상배인 메그라의 식료상점을 들부신다.

로동자들의 파업에 반동당국은 총탄으로 대답한다. 파업은 폭동에로 발전하였으나 적들의 류혈적탄압으로 실패한다. 비록 파업은 실패하였으나 에띠엔느는 새로운 투쟁의 신심을 안고 탄광마을을 떠난다.

장편소설 《제르미날》은 로동운동이 장성하던 19세기 80년대 프랑스의 자본주의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탄광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통하여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계급투쟁을 정면으로 묘사하고 로동계급이 계급적으로 각성해가던 당대의 시대상을 뚜렷이 반영하였다.

소설의 제목인 《제르미날》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1792년 9월 22일을 기원으로 제정되였던 프랑스공화력의 7월(신력으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에 해당된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초목이 움트는 봄철의 달을 상징한 소설의 제목은 초목이 움트는것을 막을수 없듯이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일떠서는 로동계급의 기세를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리라는 작품의 사상을 표현하고있다.

작가가 이 소설의 초고에 썼던 다음과 같은 말은 이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장편소설은 고용로동자들의 폭동을 취급하고있다. 충격을 받은 사회는 돌연히 균렬이 생긴다. 말하자면 로동과 자본의 투쟁이다. 여기에 이 작품의 모든 중요성이 있는바 나의 구상에 의하면 이 작품은 미래를 예견하여줄것이며 20세기에 가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될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지난날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로동계급의 처지 특히는 탄광로동자들의 비참한 로동조건과 생활처지를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작품은 지난날 프랑스에서 석탄을 캐내는 어려운 일을 맡은 탄광로동자들이 어떻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왔는가 하는것을 주인공들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탄광로동자들의 불행한 처지는 우선 주인공 에띠엔느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밝혀지고있다.

기계수리공으로 일하다가 탄광일을 처음 해본 에띠엔느는 자본가들이 운영하는 탄광일이 너무 힘들고 위험하기에 실업을 당할지언정 그곳을 떠나려고 마음먹기까지 한다. 탄부들은 새벽 3시가 되면 벌써 일어나 4시에는 입갱해야 했는데 초보적인 로동보호시설도 갖추어져있지 않는 막장에서 그 언제 락반사고가 일어나거나 가스폭발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위험한 조건에서 소와 말처럼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일하여도 그들이 받는 임금이란 보잘것 없는것이여서 그 벌이로써는 먹고 살아가기가 어려웠다.

에띠엔느는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탄광로동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가 하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며 이것은 그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케 한다.

탄광로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는 특히 탄부 마여일가사람들의 생활을 통하여 생동하게 반영되고있다.

그들은 할아버지때부터 100여년동안이나 대대로 이 탄광에서 일해온 오랜 탄부일가이다. 마여의 대에 와서 그의 아버지 본느모르와 마여부부, 아들 자샤리와 쟝렝, 딸 까뜨리느 등 가족 6명이 모두 이 탄광에서 땀을 흘리고있다.

그런데 이렇게 뼈빠지게 일해도 그들은 끼니조차 제대로 에우지 못하고 지낸다. 뿐만아니라 본느모르할아버지는 50여년동안이나 지하작업을 하고 몇번이나 사선을 넘어오느라고 불구가 되였으며 필로멘느와 자샤리는 혼기를 맞았으나 가족의 생활유지를 위해 결혼을 하지 못하며 마여의 아이들은 거의다 영양부족과 고된 로동으로 발육이 늦었다.

이 모양이니 마여네 가정에서는 언제나 불행이 그칠새 없다.

하기에 마여네 온 가족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군 한다.

그렇다. 생활은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 사람들은 예전같으면 류

형수들이나 고역으로 수행했을 그런 일을 마소와 같이 수걱수걱 하고있는것이다. 생가죽을 벗기우다싶이 하면서도 점심 한끼 고기도 먹지 못한다. … 겨우 굶어죽을 지경을 면할 정도이다. 사람들은 이르는 곳마다에 빚을 지고있으며 당당한 자기의 빵을 먹으면서도 마치 훔쳐다가 먹는것처럼 박해를 받는다. 일요일이 되면 피곤하여 일어나지를 못한다. … 아니다, 아니다. 이 모든것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작품은 이처럼 탄부들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아무리 근면한 로동자라 할지라도 고역과 기아, 불행과 고통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탄부들의 비참한 처지를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회적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일정하게 밝혀내고 그것자체가 로동자들로 하여금 투쟁의 길로 나서지 않을수 없게 한다는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로동자들의 비참한 처지와 대조적으로 호화주택에 살면서 사치하고 안일부화한 생활을 하고있는 몽쑤탄광회사의 주주 그레그와르부부와 지배인 엔보부부에 대한 비판적묘사와 그들의 막대한 수입의 원천을 까밝힌 세부묘사를 통하여 생동하게 천명되고있다.

작가는 지난 시기 자기가 창작한 장편소설 《함정》(일명 《선술집》—1877년)에서 로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반영하면서도 그들의 빈궁의 원인을 사회적조건에서 찾지 못하고 지나친 음주방탕의 결과로 보았으며 술집을 사회악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술집을 닫고 학교를 열것을 주장하였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년후에 창작된 이 작품에 와서는 로동자들의 적은 술집이 아니라 자본주의적독점이며 로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제놈들의 배를 불리는 부르죠아지들이라는것을 밝혀내고있다. 이것은 작가 졸라자신의 창작과 프랑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과정에서 새로운 현상으로 된다. 장편소설 《제르미날》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로동계급의 형상을 그리면서 그들을 불행과 고통을 말없이 참고 견디는 수난자로만 묘사한것이 아니라 계급적으로 각성해가는 사람들로, 자신의 생존의 권리를 옹호하여 투쟁할줄 아는 사람들로 형상한데 있다.

작품의 이러한 주제사상적내용을 구현한 인물이 바로 주인공 에띠

엔느 랑띠에이다.

소설에서 에띠엔느는 생활의 시련을 거쳐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사회주의사상의 진리성을 깨닫고 로동자들을 사회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로 이끄는 로동계급의 선각자로 형상되고있다.

작가는 실업을 당하고 정처없이 헤매던 전날의 기계수리공인 젊은 에띠엔느가 몽쑤의 탄광마을로 찾아와서 진정한 탄부로 자라나며 드디여는 전체 탄부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게 되기까지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데 큰힘을 기울이고있다.

탄부대렬에 처음으로 들어선 에띠엔느는 암흑과 비참한 로동생활속에서도 앞날에 대한 리상과 꿈을 품고 살아간다. 그는 고된 로동을 하면서도 청년다운 패기와 진취성을 가지고 날마다 사회주의적리상을 담은 출판물들을 탐독하며 자기의 고된 처지뿐아니라 학대받는 로동대중의 불행한 생활과 그들의 해방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다. 이 과정에 그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없애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잘살게 되는 사회, 정의와 평등과 우정으로 인류의 행복을 보장할 미래사회에 대한 리상을 머리에 그려보게 된다.

남보다 먼저 각성한 에띠엔느는 우선 자기가 하숙하고있는 마여네가족들에게 착취없는 미래의 리상의 왕국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며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개념을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았던 마여의 가족들의 심장속에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씨를 지펴준다. 이러한 투쟁의 불씨는 몽쑤의 온 탄부들에게 퍼져간다.

에띠엔느는 자기가 파악한 새로운 사상을 비밀리에 선전하는데만 마음을 쓰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투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그는 다가오는 부르죠아지와의 투쟁을 위해 호상부조금고를 조직할것을 계획한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그러한 금고를 조직하는데 성공한다.

어느덧 마여일가를 비롯한 탄광마을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난한 처지와 고된 로동의 근원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기업주들이 임금을 삭감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자 탄부들은 에띠엔느의 지도밑에 자본가들과 정면충돌을 하게 된다. 몽쑤지방에는 여직껏 보지 못했던 동맹파업의 대선풍이 휩쓸게 된다. 마여와 레바끄를 비롯한 탄부들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당국의 온갖 위협과 회유를 박차고 자기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굶주림을 참으면서 용감하게 싸운다. 파업은 드디여 폭동으로까지 발전한다. 군대의 류혈적인 탄압에 의하여 탄부들의 파업과 폭동은 실패하였으나 몽쑤의 탄부들은 이 투쟁에서 자기들의 위력을 시위하며 부르죠아지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

하기에 에띠엔느는 이번 파업은 실패했으나 그것으로 자기들이 시작한 투쟁이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투쟁을 위하여 탄광마을을 떠나간다.

《만약에 어느 한 계급이 타도되여야 한다면 삶으로 가득찬 청소한 민중이 포만한 부르죠아지를 타도할것이 아닌가?

새로운 류혈이 새 사회를 건설할것이다. 로쇠한 민족들을 재생시킬 야만족들의 공세를 기대하는데서 도래할 진정한 혁명, 근로대중의 혁명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이 되살아났다. 혁명의 화광은 솟아오르는 태양의 붉은빛으로 세기의 종말을 불태울것이다. 에띠엔느는 그것이 피를 흘리는것을 하늘에서 보는것만 같았다.》

물론 작가가 형상한 로동계급의 선각자로서의 에띠엔느의 형상에는 제한성이 많으며 그의 형상에 구현된 사회주의적리상자체도 매우 모호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이 없다. 그것은 주인공이 지향한 리상을 정의와 평등과 우정으로 인류의 행복을 보장할 미래사회에 대한 리상이라고 막연하게 표현하고있는데서 드러나고있다. 과학적사회주의사상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한 비판적사실주의작가 졸라에게는 사회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을 옳바로 그려낼 능력이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에띠엔느의 형상에서 당시 프랑스의 로동계급이 각성하기 시작하였다는것과 사회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이 막을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장성하고있다는것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소설에 그려진 탄부 마여부부의 형상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자기들의 고통과 슬픔을 참아야만 했으며 고용주들에게 순종만 하던 마여부부는 에띠엔느의 영향밑에 점차 각성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자기들의 처지의 불합리성을 자각하고 부르죠아지들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된 마여도 파업을 일으킨 다음 지배인과 담판하기 위한 대표로

선출되는것은 두려워한다. 이러한 그들이였지만 엄혹한 생활과 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되는 과정에 파업을 오래 끌고 먹을것이 떨어져 로동자들속에서 동요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파업을 계속 지탱하자고 주장해나선다.

특히 마여의 안해는 파업로동자들과 군대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죽일테면 죽여봐라!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요구한다.》라고 웨치면서 어린애를 안고 총창을 맞받아나선다. 그는 그냥 보고만 있는 마여를 비겁하다고 핀잔주면서 벽돌장을 들려주며 싸움에 나서게 한다. 그후 남편은 총에 맞아 죽고 딸은 갱속에 묻혀 죽고 아들은 파묻힌 누이를 건지려다 가스폭발에 죽는다. 이처럼 크나큰 불행을 당했으나 그래도 마여의 안해는 락심하지 않으며 남편을 대신하여 갱으로 들어간다. 그의 투지는 꺾이지 않았으며 그는 여전히 복수의 날이 돌아오리라는 확신을 품고있다.

《에띠엔느는 그의 마지막악수에서 굳세고 오래고 말없는 동지로서의 악수를 느꼈다. 그것은 투쟁이 다시 시작되는 그날까지의 작별인듯 했다. 그 녀자의 두눈에는 고요한 확신이 어리여있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나리라! 그때는 판가리싸움을 하게 될것이다.》

소설은 탄부들의 생활과 투쟁을 주선으로 그리면서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부르죠아지와 그 앞잡이들의 생활을 대비적으로 폭로하고있다.

작품에서 부르죠아지의 대표자로 형상되고있는것은 몽쑤탄광의 주주 그레그와르부부와 이 탄광의 지배인 엔보부부 그리고 엔보의 조카인 네그렐기사이다.

돈많은 재산가인 그레그와르부부는 자선가의 탈을 쓰고 착취자, 략탈자로서의 자기 본성을 교활하게 은페하고있는 위선자이다. 그들은 그 일대에서 자선가로 알려져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급할 때 찾아오면 자선을 베풀기도 한다. 그리고 말로는 적지 않은 탄광주들이 자기들의 재부와 권세를 람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것을 탓하면서 자기들이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을 한다고 입버릇처럼 자랑한다. 그러나 그들은 저들이 어찌하여 아무 일도 안하고 놀고먹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잘살고있으며 해마다 재산이 늘어나고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수입의 원천은 탄부들을 가혹하게 착취

한 결과에 차례지는 탄광의 리윤배당금이다. 그러니 이들이야말로 남의 덕에 살아가는 기생충들이며 착취자들인것이다. 자선의 가면을 쓴 탐욕스러운 부르죠아로서의 그레그와르의 본심은 이웃탄갱의 소유자인 사촌동생 데넬랭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그는 식탁을 갈이하고 사뭇 다정스러운듯 동생의 사업을 념려하는 말을 하나 속으로는 자금난에 봉착한 그의 기업이 파산되기를 은근히 바란다. 동생의 기업이 파산되면 그의 탄갱을 헐값으로 자기의 손아귀에 넣을수 있기때문이다.

몽쑤탄광의 지배인 엔보와 그의 처, 엔보의 조카 네그렐기사들도 다 그레그와르와 아무 차이없는 비렬하고 타락한 부르죠아들이다. 지배인 엔보에게는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여 더 많은 탄을 캐냄으로써 자기 돈주머니를 불쿠겠는가, 어떻게 하면 기만과 사기로 자기 재산을 늘이고 안일과 향락을 늘이겠는가 하는 생각밖에 없으며 탄부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처지는 안중에 없다. 탄부들이 사고로 죽건 굶어죽건 그에게는 아무 상관없다는것이다. 그런가하면 엔보의 처는 아무 일도 안하고 놀고먹는 기생충생활에 권태증이 나 죽을 지경이다. 그리하여 이자들은 추잡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속에서 나날이 타락해간다.

소설은 그레그와르부부와 엔보부부 등의 형상을 통하여 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대가로 살쪄가는 부르죠아들, 착취자들의 추악한 면모를 예리하게 폭로하고있다.

작품에서 탄광고용주들의 비호를 받아 점방을 열고 탄부들의 고혈을 짜내며 탄부들의 부녀자들에게 갖은 모욕을 가하던 끝에 응당한 보복을 받은 메그라, 고용주의 손발처럼 움직이는 총감독 당싸에르, 고용주의 앞잡이노릇을 하다가 후에 감독으로 등용되는 타락한 탄부 삐에롱과 그의 처의 형상들은 부르죠아지의 앞잡이들의 추악한 형상들이다.

장편소설 《제르미날》은 졸라의 이전 작품들에 비하여 그 구성이 비교적 째여있다. 소설에서는 사건들과 그것을 둘러싸고 맺아지는 인간관계의 발전과정이 비교적 생활의 론리에 맞게 되여있으며 인간관계설정에서도 주인공의 선을 잘 살리고있다. 소설의 인물배치에서도 작가는 작품의 주제와 사상에 맞게 이러저러한 계급과 계층에 속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골라서 그들의 관계를 맺아주고있다. 소설의 예술적갈등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사이의 적대적대립과 투쟁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사회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여 처음부터 첨예하고 극단적으로 조성되다가 마지막에는 결렬하는데로 나가고있다.

다른 한편 장편소설 《제르미날》에는 작가의 세계관의 제한성과 자연주의적창작수법의 영향으로부터 오는 심중한 결함이 나타나고있다.

작품의 가장 큰 결함은 로동계급에 대한 형상을 잘하지 못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위력은 개별적로동자들이 힘꼴이나 쓰고 주먹이 드센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직되고 단결되여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을 형상하는데서는 개별적로동자들의 드센 주먹을 보여줄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조직성과 혁명성, 강의성을 그려야 하며 그의 단결된 위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설에서 작가는 로동계급의 생활과 투쟁을 그리면서도 로동계급의 본질적특성과 위력을 옳바르게 보여주지 못하고있다.

작가는 로동계급의 비참한 처지를 반영하고 그러한 비참상이 그들로 하여금 투쟁의 길로 나서지 않을수 없게 한다는것을 객관적으로 그려낼수 있었으나 그 투쟁에서 조직되고 단결된 로동계급의 위력과 그들의 혁명성은 그려낼수 없었다. 작가는 로동계급의 투쟁을 많은 경우에 의식적인 행동으로가 아니라 그 어떤 자연발생적인 행동이거나 본능의 결과처럼 묘사하고있으며 폭동장면에서는 폭동을 일으킨 로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마치도 피빛을 보고싶어하는 하나의 생물체처럼 외곡되게 형상하고있다.

이러한 결함은 주인공을 형상하는데서도 드러나고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작가는 에띠엔느를 로동계급의 선각자로 형상하면서도 그를 로동계급의 조직성과 혁명성, 강의성을 구현한 전형적형상으로 그려내지 못하고 자기나름으로 형상하고있다. 그리하여 에띠엔느는 때로는 야심가로, 때로는 술만 취하면 미친 사람처럼 되여 사람을 마구 때리거나 죽이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는 유전적인 병을 가진 사람

으로 형상되고있는가 하면 파업투쟁을 지도하는 그자신이 먼저 굴복하여 작업에 다시 나가는것으로 그려져있다.

그밖에도 소설은 세부묘사와 언어구사에서 일부 자연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있다.

졸라의 장편소설 《제르미날》은 심중한 결함과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19세기 80년대의 시대적조건에서, 그것도 비판적사실주의작가가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계급투쟁을 정면에서 묘사하고 그 정당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한 작품으로서 문학사적의의가 크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왕섭

제 1 장

1

별 하나없이 먹물을 뿌린듯 한 캄캄한 야밤에 황량한 들판으로 한 사나이가 마르쉬엔느에서 몽쑤로 통하는 큰길을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고있었다. 돌로 포장한 길은 사탕무우밭사이로 십여키로메터나 곧게 뻗어있었다. 그는 지척도 분간 못할 어둠속에서 그저 허허벌판을 걷고있다는것만을 느꼈다. 일망무제한 광야에는 맵짠 3월의 바람이 차고 거세찬 바다바람처럼 불어와서 번번한 대지와 진펄들을 휩쓸어갔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나무 한그루도 보이지 않고 포장도로는 방파제마냥 캄캄한 어둠속으로 쭉 뻗어있었다.

그 사나이가 마르쉬엔느를 떠난것은 밤 2시경이였다. 얇은 광목저고리에 비로도바지를 입은 그는 모진 추위에 몸을 떨면서 걸음을 다그쳤다. 그는 바둑판무늬의 보자기로 싼 작은 보따리가 무척 거치장스러워 량쪽겨드랑이에 번갈아 자주 옮겨끼군 했다. 한것은 새바람에 얼어들고 피가 진 두손을 호주머니에 깊숙이 넣어 녹이기 위해서였다. 일자리도 거처할데도 없는 그의 텅빈 머리에는 애오라지 날이 새면 추위가 덜해지리라는 희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이미 한시간을 이렇게 걸어왔었다. 그는 몽쑤를 두키로메터 앞둔 지점에 이르러 왼쪽에서 붉은 불빛을 보았다. 뻘겋게 타오르는 세개의 화독이 공중에 덩실 걸려있는것만 같았다. 그는 처음에 겁을 먹고 주저하였으나 잠시나마 손을 녹이고싶은 욕망을 억제할수 없었다.

패운 길을 따라 깊은 골로 내려서자 모든것이 사라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는 두터운 판자를 댄 울짱이고 그 안쪽으로 기차길이 통해있고 왼켠으로는 풀이 우거진 비탈우에 꼭같은 모양의 납작한 집들이 들어앉은 마을이 드러나보였다. 그는 200보쯤 더 걸어갔다. 굽인돌이에 이르자 갑자기 불빛들이 가까이에서 다시 나타났다. 어떻

게 그 불빛들이 여러개의 희끄무레한 달과도 같이 어두운 하늘에 그처럼 높이 떠서 이글거리고있는것인지 그는 좀해 알수 없었다.
　이때 또 다른 정경이 그의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한곳에 몰켜 서있는 납작한 건물들이였다. 그 건물들우에는 공장굴뚝의 륜곽이 솟아있었고 흐릿한 창문들에서는 드문드문 불빛들이 새여나왔다. 밖에는 대여섯개의 희미한 등불들이 건물의 골조에 걸려 통나무들로 큼직하게 만든 받침대들을 겨우 비치고있었다. 연기와 어둠속에 잠겨있는 이 유령처럼 괴이한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보이라의 세차고 긴 숨소리만이 또렷이 들려왔다.
　그 사나이는 자기앞에 탄갱이 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과연 여기로 올 필요가 있었던가? 여기서도 일자리는 구하지 못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다시금 쑥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건물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세개의 화독에서 석탄불이 타오르면서 작업장을 훤히 비치며 덥혀주고있는 언덕우로 용기를 내여 올라갔다. 계속 나오는 버럭을 치는 로동자들이 밤늦도록 일을 하는것 같았다. 그는 운반공들이 지금 받침대우에서 밀차를 밀고가는 소리를 들었고 매개 불곁에서 탄차를 부리우느라 움직이는 모습들도 알아볼수 있었다.
　그는 한 화독옆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을 보고 《안녕하시우.》 하고 먼저 인사를 했다.
　보라빛모쎄타를 입고 토끼털모자를 쓴 한 늙은 마차군이 화독에 등을 돌려대고있었고 큰 공골말 한필이 장승처럼 우뚝 서서 자기가 끌고온 여섯개의 탄차가 다 비기를 우두커니 기다리고있었다. 머리칼이 불그레한 여윈 한 사나이가 전혀 바쁜 기색이 없이 지레대를 눌러 짐을 부리고있었다.
　우에서는 찬바람이 머리채를 휘두르는듯 윙윙거리며 기승을 부리고있었다.
　《안녕하오.》 하고 로인이 대답했다.
　잠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사나이는 의심스러워하는 이 로인의 눈치를 대뜸 알아차리고 얼른 자기를 소개했다.
　《에띠엔느 랑띠에라고 합니다. 기계공입니다.… 여기에 일자리가 없을가요?》
　불길이 그를 훤히 비쳐주었다. 그는 스물한살쯤 되였겠는데 진

한 밤색머리에 곱게 생겼고 팔다리는 가늘었으나 힘깔이나 쓸것처럼 보였다.

그의 말에 비로소 마음을 놓은듯 그 마차군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기계공의 일이요? 없소, 없어. 어제도 두사람이나 찾아왔댔소. 아무것도 없소.》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두사람은 말을 끊었다. 이윽고 에띠엔느는 버럭더미밑에 몰켜있는 어렴풋한 건물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건 탄갱이지요?》

로인은 인차 대답을 못했다. 심한 기침이 나서 숨이 막혔던것이다. 이윽고 그는 가래를 탁 뱉았다. 불그레한 땅에 떨어진 가래는 검은 얼룩점을 남겼다.

《그렇소, 그건 보료탄갱이요.… 탄광마을이 아주 가까이 있소. 보시우!》 이번에는 로인이 팔을 들어 어둠속으로 그 젊은이가 이미 지붕들을 보고 짐작했던 마을을 가리켰다. 그러나 여섯개의 탄차를 다 부리자 로인은 류마치스때문에 말을 잘 듣지 않는 다리로 절룩거리면서 말에 채찍질 한번 하지 않고 걸어갔다. 큰 공골말은 제스스로 떠나 궤도사이로 무겁게 탄차들을 끌었다. 또다시 인 돌개바람이 말갈기들을 곤두세웠다.

이제는 보료탄갱이 희미하게나마 보였다.

에띠엔느는 화독앞에서 피가 진 두손을 녹일 생각은 잊고 탄갱의 모든것을 눈여겨 세세히 살펴보았다. 거기엔 골탄칠을 한 선탄장 창고며 수직탑이며 넓은 권양기실이며 배수뽐프를 설치한 네모난 소형탑이 있었다. 찌를듯 한 뿔같은 굴뚝들이 쑥쑥 솟아있고 나지막한 벽돌건물들이 골안에 꽉 들어찬 그 탄갱은 이제라도 사람들을 단숨에 삼켜버릴듯 노리고있는 맹수와도 같았다. 그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주일째나 일자리를 구하느라고 방랑객처럼 헤매고있는 제자신을 생각해보았다.

그는 철도공장에서 일하던 일이며 상전의 뺨을 치고 릴르에서 쫓겨나던 일이며 그 이후로는 가는 곳마다에서 배척을 당하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았다. 토요일에 그는 야금공장에 가면 일자리가 있으리라는 소문을 듣고 마르쉬엔느로 나왔으나 포르쥬에서도, 쏜네빌

의 공장에서도 아무런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그는 역마차공장의 목재밑에 숨어서 일요일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밤 2시경에 수위가 와서 그를 거기서 내쫓았다. 지금 그에게는 돈 한푼도, 빵 한쪼각도 아무것도 없었다. 찬바람을 어디서 피할 곳도 모르고 큰길을 그저 싸다니기만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되여 그는 지금 탄갱으로 오게 된것이였다. 드문드문 켜놓은 등불들이 창문들을 비치고 급작스레 열린 문안으로 활활 타오르는 보이라화구를 볼수 있었다. 그는 목을 눌리운 괴물의 숨소리처럼 거세고 길게 끌며 끊임없이 씩씩거리는 줄기찬 뽐프소리를 들었다.

탄차를 부리는 하차공은 등을 구부리고 서서 에띠엔느가 몸을 숙여 땅에 떨어진 작은 보따리를 주어드는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때마침 마차군이 돌아온듯 기침소리가 났다. 마차군이 느릿느릿 어둠속에서 나타나는데 공골말이 새로 석탄을 실은 여섯개의 탄차를 끌고 그의 뒤를 따라왔다.

《그런데 몽쑤엔 공장이 있나요?》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로인은 검은 가래침을 탁 뱉고나서 바람속에서 대꾸를 했다.

《공장이야 많지. 삼사년전의 이 고장을 보았더면 참! 모든것이 잘되였지. 일손은 모자라지. 사람들은 여직 그때처럼 돈을 많이 벌어본적은 없었소. … 그런데 지금은 또 허리띠를 졸라매게 됐단 말이요. 정말 이 고장은 가련하게 됐소. 로동자들을 해고하고 공장들이 하나, 둘 문을 닫아버리니 말이요. … 황제야 잘못이 없을수도 있지. 허지만 어째서 그는 아메리카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말이요. 사람들과 집짐승들이 콜레라로 죽어넘어가는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고…》

두사람은 짤막한 말로 숨을 죽여가며 서로 하소연을 했다. 에띠엔느는 자기가 한주일동안이나 보람없이 방황한데 대해서 이야기했다. 진정 굶어죽는 길밖에 없단 말인가? 머지않아 거지떼가 길가에 차고 넘칠것이다. 그렇다. 로인은 이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신자들이 그처럼 많이 거리에 내쫓기우는것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는것이였다.

《지금은 고기를 매일 먹지 못하오.》

《빵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요, 빵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소!》
그들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침울하게 울부짖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그만 집어삼켜버렸던것이다.
《보우!》 하고 마차군이 남쪽으로 돌아서면서 큰소리로 웨쳤다. 《몽쑤는 바로 저기고…》
마차군은 다시금 손을 내밀고 어두워 보이지도 않는 곳을 하나하나 가리키기 시작했다. 몽쑤에서는 포벨사탕공장이 아직은 별고없이 조업을 하고있으나 오똥사탕공장은 로동자들의 일부를 이미 축소했고 듀띠엘제분소와 광산용쇠바줄을 만드는 블레즈쇠바줄공장만이 유지되고있었다. 이윽고 마차군은 손으로 북쪽의 지평선 반나마를 가리켰다. 쏜느빌의 기계제작공장은 주문을 여느때의 삼분의 이도 받지 못하며 마르쉬엔느의 야금공장은 용광로 셋중에서 하나는 이미 불이 꺼졌고 가즈브와유리공장에서는 임금을 낮춘다는 말이 있어 파업이 일어날것 같다고 말했다.
《알만합니다, 알만합니다.》 하고 젊은이는 마차군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되뇌였다. 《저도 바로 그쪽에서 오는 길입니다.》
《여기선 아직 일은 하오.》 하고 마차군은 덧붙였다. 《전보다 석탄을 덜 캐내긴 하지만… 당신의 저 앞쪽에 있는 빅뜨와르탄갱을 보우. 저기선 두개 해탄로밖에 일을 못하고있소.》
마차군은 침을 또 뱉고나서 잠에 취한 말에 빈 탄차를 메우고 또다시 그뒤를 따라갔다.
이제 와서 에띠엔느는 이 지방전체에 대한 완전한 리해를 가질수 있었다. 여전히 사위는 어두웠는데 커다란 불행을 그려내는 늙은 로동자의 손짓은 그 어둠을 더 짙게 한것 같았다. 지금 젊은이는 둘레의 넓은 공간 어데서나 그 불행을 뚜렷이 감촉했다. 번번한 들판우로 기아의 울음소리가 3월의 찬바람에 실려 들려오는듯 했고 사나운 질풍이 로동의 종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궁핍을 몰아오는듯 했다. 젊은이는 사방 눈길을 보내면서 어둠속을 꿰뚫어보려고 애를 썼다. 그는 모든것을 제 눈으로 보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공포에 사로잡히는것이였다.
그러나 주위는 캄캄칠야의 어둠속에 잠겨있어 그는 아주 멀리서 용광로와 해탄로만을 분간할수 있었다. 많은 굴뚝들이 비스듬히 솟아있

는 여기에서는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활활 타오르고있었다. 왼쪽에서는 두개의 탑이 하늘중천에서 푸른 불빛을 받아 큰 홰불과도 같았다. 모든것이 마냥 불길한 화광에 싸여있는듯싶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없는 석탄과 철의 고장에서 밤의 불빛만이 비치고있었다.

《혹시 벨지끄에서나 오지 않았소?》 다시 돌아온 마차군의 목소리가 에띠엔느의 등뒤에서 들려왔다.

이번에는 마차군이 탄차를 세개밖에 끌고오지 않았다. 석탄을 바삐 부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승강기에서 무슨 나트가 부서져 작업을 15분가량 멈추게 되였던것이다. 아래쪽은 정적이 깃들고 보짱들을 뒤흔들며 석탄을 쏟는 탄차의 요란한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고 깊은 갱도속에서 철판을 두드리는 마치소리만이 먼데서 은은히 들려왔다.

《아니요, 저는 남쪽에서 옵니다.》 하고 젊은이가 대답했다.

로동자는 석탄을 부리고나서 사고로 하여 쉬게 된것이 사뭇 흡족한듯 땅바닥에 쪼크리고앉았다. 그는 의연히 침울해서 잠자코 있었는데 마차군의 수다스러움에 놀란듯 생기없는 두눈을 크게 뜨고 그를 멍하니 올려다 볼뿐이였다.

기실 마차군은 평소에는 말이 무척 적었었다. 그러나 늙은이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는 처음보는 이 사나이의 얼굴이 마음에 든것처럼 혼자서 큰소리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하고 마차군이 말을 뗐다. 《몽쑤사람이요. 내 이름은 본느모르라고 부르오.》

《건 별명인가요?》 하고 놀란듯이 에띠엔느가 물었다.

그러자 로인은 흡족한듯 미소를 지었다.

《그렇소.》 하고 그는 보료탄갱을 가리키며 말했다. 《세번이나 저기서 다 죽을번 한 나를 끌어냈다우. 한번은 온 살가죽에 화상을 입었고 한번은 목까지 흙에 파묻혔댔소. 또 한번은 개구리처럼 배가 뺑뺑하도록 물을 들이켰댔소. … 내가 그래도 죽지 않은것을 보고 사람들은 내게 이런 별명을 달아준거요.》

마차군은 더 유쾌해졌으나 그의 웃음소리는 기름을 치지 않아 삐거덕거리는 바퀴소리와도 같았다. 그 소리마저 심한 기침으로 해서 곧 중단되였다. 화독불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하고 희끗희끗한 그의

커다란 머리와 푸르스름한 얼룩투성이인 펑퍼짐하고 피기없는 얼굴을 환히 비쳐주었다. 그의 키는 크지 않은데 목이 굵직했고 장딴지와 발뒤축이 옆으로 삐였으며 네모진 손에 길다란 팔은 무릎우까지 늘어져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도 한자리에 끄떡않고 서있는 말처럼 로인은 돌같이 단단해 보였는데 추위도 회오리바람도 심상해 하는것 같았다. 그러나 기침은 그의 목구멍을 우벼내며 가슴을 찢어놓는듯 했다. 기침이 멎으면 그는 가래를 탁 뱉아놓는데 화독앞 땅우에는 꺼먼 반점이 나타나군 했다.

에띠엔느는 로인을 흘깃 쳐다보고나서 그 반점을 내려다보았다.

《탄갱에서 일을 오래 하셨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본느모르는 두팔을 쩍 벌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래되지, 참 오래되오. 바로 여기 이 보료에서 내가 탄광에 들어왔을 땐 내 나이가 여덟살이 채 못되였는데 지금은 쉰여덟이니 계산해보우. … 그안에서 난 못해본것이 없소. 처음에 난 여기서 채탄공의 보조공노릇을 했소. 그후에 탄차를 끌수 있게끔 힘이 세여지니까 날 운반공을 시키더군. 그리고 난 또 열여덟해나 채탄공으로 일했소. 그다음엔 이 망할 다리때문에 거기서 옮겨앉게 됐소. 그래서 나는 또 수리공이 되였지. 석탄을 퍼싣는 일도 했고 갱도를 보수하는 일도 해봤소. 날 갱밖에 내보낼 때까지는 그렇게 일했소. 나를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영영 묻히게 되리라고 의사는 말했던거요. 그래서 바로 다섯해전에 난 마차군이 되였소. …그래 어떻소?… 괜찮지? 쉰해나 탄갱에서 일하면서 마흔다섯해는 땅속에 있었으니 말이요.》

그가 이야기를 하고있을 때 이따금 화독에서 굴러떨어진 시뻘건 석탄덩이가 마차군의 창백한 얼굴을 불그레하게 비쳐주었다.

《그들은 모두 나더러 그만 쉬라고 하지만》 하고 로인은 말을 이었다. 《난 그러고싶지 않은걸. 나는 그들이 생각하고있는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진 않단 말이요. … 예순이 될 때까지 아직 두해는 견딜수 있소. 그리고나서 180프랑의 년금을 받아야 하구말구.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그들은 내게 년금을 150프랑밖에 주지 않을게요. 능청맞은 놈들이요! 게다가 또 난 아직 무척 든든하단 말이요. 이 다리가 말썽이긴 하지만. 이건 살속에 지나치게 많은 물이 배여들었기때문이요. 저기 땅밑에서는 줄창 물에 젖어있었으니까. 신

음소리를 내지 않고서는 손발을 움직일수 없는 그런 때도 있소.》
기침이 나서 로인의 말은 또 끊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기침도 깇습니까?》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본느모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숨을 돌리고나서 말했다.
《아니지, 아니여. 이건 지난달에 감기에 걸렸던탓이요. 전에는 기침이란 깇는 법을 몰랐는데 이제는 도무지 떨어지질 않소그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래를 뱉고 또 뱉아도 끝이 없구려.》
가래가 또 목구멍에 끓어올라서 그는 시꺼먼것을 또 탁 뱉았다.
《그건 핍니까?》 하고 에띠엔느가 서슴지 않고 물었다.
로인은 손등으로 입술을 슬슬 훔쳤다.
《석탄이지… 내 몸에는 죽을 때까지 몸을 덥혀주고도 남을 석탄이 들어있지. 난 벌써 다섯해나 땅밑에 들어가지 않고있지만 내 가슴속에는 틀림없이 석탄이 쌓여있을게요, 참. 그것이 쌓여있단 말이요!》
침묵이 또 흘렀다. 멀리 갱속에서 고르로운 마치소리가 들려왔다. 깊은밤 어둠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기아와 피로로 울부짖는것처럼 윙윙거리며 벌판우로 지나갔다. 이글거리는 불길에 환하게 비쳐지고있는 로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지난날을 회상하였다. 그렇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몽쑤회사의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한것은 어제그제일이 아니다. 그들은 탄광의 개발당시부터 일해왔다. 그것은 오래전의, 무척 오래전의 일이다. 벌써 106년전의 일이다. 그의 할아버지 귀욤 마여는 열다섯나는 소년으로 포벨사탕공장부근에 있는 레끼아르에서 기름진 석탄을 발견하였는데 거기에 몽쑤회사의 첫 탄갱(지금은 페갱으로 된)이 개발되였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있었다. 할아버지가 발견한 탄갱은 그의 이름을 따서 《귀욤탄갱》이라고 불렀다. 로인자신은 할아버지를 모르나 그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해주었다. 할아버지는 키가 크고 힘꼴이나 썼는데 예순살에 죽었다고 했다.
다음에는 루즈라는 별명을 지닌 아버지 니꼴라 마여가 대를 이어 일을 했다. 그는 보료갱에 남아서 일하다가 겨우 마흔살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 그때 보료에서도 석탄을 캤는데 붕락되여 갱이 갑자기 무너져앉았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피는 흙속에 다 잦아들고 뼈는 돌에

짓눌려 박산이 되였다. 퍽 후에 그의 두 삼촌과 세 형제들이 역시 그곳에서 죽었다. 이름이 뱅쌍 마여인 이 로인자신은 다리를 상했을뿐 몸은 거의 상한데없이 빠져나왔다. 그래서 그는 꾀바리로 불리우게 되였다. 어떻게 하겠는가? 일은 해야 했다.

지금 맞은편 탄광마을에 살고있는 그의 아들 뚜쌍 마여와 손자들이, 이를테면 온 가족들이 땅밑에서 일을 하고있다. 그들은 대대손손 대를 이어가며 한 주인을 위해 106년동안이나 일을 하고있다. 자, 이만하면 어떤가?

이렇게 세세히 족보를 따질수 있는 부르죠아는 아마도 흔치 않을것이다!

《그래도 먹을것만 늘 있다면야 좋지요.》 하고 에띠엔느가 말했다.

《암, 나도 그래서 하는 말이요. 먹기만 하면 살아갈수야 있지.》

이렇게 말을 하고난 본느모르는 입을 봉하고 집집에서 불을 켜기 시작한 마을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몽쑤의 종루에서 4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왔다. 날씨는 더 추워졌다.

《그런데 당신네 회사는 돈이 많은가요?》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로인은 어깨를 으쓱하였다가 마치도 금화의 무게에 짓눌리운듯이 다시 푹 떨구었다.

《암, 많구말구. 아마 이웃 앙젱회사만치는 많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수백만프랑은 될게요. … 셀수가 없지. … 탄갱만 하여도 열아홉개나 되는데 그중에서 열세개는 석탄을 캐고있소. 보료, 빅뜨와르, 끄레브꿰르, 미루, 쌩—또마, 마들렌느, 퍼뜨리 깡뗄 같은 탄갱들이 그렇소. 그리고 또 레끼아르갱처럼 물을 퍼내거나 통풍을 위한 갱이 여섯개나 있소. 일만명의 로동자가 있고 67개 면에 리권을 가지고있소. 하루 채탄량은 5만톤이나 되오. 탄갱들사이에는 철도가 통하고 수리소와 공장들이 또 있소. 참, 그들이야 돈이 많지!》

기름진 공골말은 받침대우로 굴러가는 탄차소리를 듣고 두귀를 쭈뼛했다.

승강기의 수리가 끝났다. 밀차공들은 또다시 일을 시작했다. 마차군은 되돌아가게 말을 돌려세우면서 부드럽게 뇌까렸다.

《잡담에 맛을 붙여서는 안돼, 이 게으름뱅이야. 엔보씨가 그런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줄 알면 어떻게 할테냐?》

에띠엔느는 생각에 잠겨 어둠속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이 탄광은 엔보씨의 소유인가요?》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아니요, 엔보씨는 지배인일따름이요.》 하고 로인이 설명했다. 《그도 우리처럼 봉급을 받고있소.》

젊은이는 몸짓으로 무연한 어둠속을 가리키면서 또 물었다.

《이건 다 누구의 소유인가요?》

그러나 본느모르는 잠시 대꾸를 하지 못했다. 또다시 기침이 나서 숨이 막혔던것이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숨을 쉬기가 가빴다. 드디여 그는 가래를 뱉고 입술의 꺼먼 거품을 훔쳤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다.

《흠… 이 모든게 누구의 소유인가구? 그건 아무도 모르오.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고있겠지.》

그리고 본느모르는 마여일가가 대대손손 백년이상이나 일해준 그 사람들이 살고있는 알려지지 않은 외딴 곳을 어둠속에서 한손으로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일종의 종교적공포감을 띠였다. 마치도 저들의 살을 모조리 섬겨바치면서도 한번도 얼굴을 본적이 없는 탐욕스런 신이 숨어있는 그 어떤 성당에 대해서 말하는것 같았다.

《빵이라도 넉넉했으면》 에띠엔느는 낯색이 변함없이 세번째로 이렇게 또 뇌였다.

《옳은 말이요, 제기랄! 빵이나 늘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움직이였다. 마차군도 스적스적 아픈 다리를 끌면서 그뒤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로동자는 턱을 두무릎사이에 박고 생기없는 둥그런 눈으로 허공만 멍청하니 바라보면서 몸을 옹크리고 꼼짝하지 않았다.

에띠엔느는 땅에서 보따리를 집어들었으나 아직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는 않았다. 세찬 바람이 불어 등은 오싹오싹 얼어들었으나 가슴은 불길을 받아 훈훈했다. 이왕이면 탄갱에 무슨 할일이나 없는지 물어나 볼가? 로인은 모를수도 있다. 이제 와서 그는 운수에 내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무슨 일이든 할 결심을 가지고있었다. 일자리를 잃고 굶주리고있는 그가 이 고장에서 어데 간들 무슨 수가 있단 말인가? 집없는 개처럼 울타리밑에서 죽고만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망설였다. 그는 밤중의 짙은 어둠속에 잠긴 허허벌판에 있는 이 보료탄갱

이 무서워졌다. 바람은 더욱더 세차게 불어치는데 그것은 일망무제한 광야에서 불어오는것 같았다. 어두운 하늘에는 서광이 전혀 비끼지 않았고 용광로와 해탄로만이 이 낯선 사람을 비쳐주지 않으면서 어둠속에서 홀로 시뻘건 불빛을 뿜으며 활활 타올랐다. 보료탄광은 굴속깊이에 맹수를 채워넣고 사지를 쭉 펴고 누워서 사람의 살고기를 가까스로 소화시키는듯 거칠고도 긴숨을 내쉬고있었다.

2

밀과 사탕무우를 심은 벌판의 한가운데 자리잡은 뒈 쌍 까랑뜨마을이 어두운 밤하늘을 지붕삼아 잠자고있었다. 직선적인 륜곽으로 해서 병영이나 병원건물을 련상시키는 집들이 촘촘히 들어선 네개의 큰 구역을 가까스로 분간할수 있었다. 집들은 죄다 가지런하게 줄지어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세개의 넓은 거리들이 뻗어있는데 그 거리들에는 크기가 같은 정원들이 있었다. 허허벌판에서는 바람이 윙윙 울부짖었고 떨어진 널쪼각들이 판장을 때리고있었다.

제2구역 16호, 마여의 집은 조용했다. 하나뿐인 2층방은 짙은 어둠속에 잠겼다. 어둠은 자는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고있는듯 했다. 가족들은 함께 누워자고있었는데 지쳐서 모두 입을 헤 벌리고있었다. 바깥은 모질게 추웠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온기와 냄새로 그들이 자는 방은 숨이 막히고 후끈후끈했다.

아래층방에서 뻐꾹시계가 4시를 쳤으나 누구도 꿈쩍하지 않았다. 두사람이 코를 드렁드렁 골다가는 무거운 숨을 내쉬는 소리만이 들릴뿐이다. 까뜨리느가 벌떡 일어났다. 피곤속에서도 그는 여느때처럼 아래층에서 시계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넷을 세였다. 그러나 그는 너무 피곤해서 잠에서 아주 깨여날수는 없었다. 그는 이불속에서 두다리를 내놓고 손을 더듬어 성냥을 찾아서 초불을 켰으나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는 머리가 너무 무거워 어찌할수 없어 다시 드러누웠다.

초불이 뿌직뿌직 타면서 두개의 창문이 있는 네모반듯 한 방안을 훤히 비치였다. 방안에는 세개의 침대가 놓여있었고 또 한개의 장과 책상 그리고 낡은 호두나무의자 두개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누르스름한

벽을 배경으로 하여 꺼먼 반점으로 뚜렷이 드러나보였다. 못에는 헌 옷들이 걸려있었고 바닥에는 항아리, 대야로 쓰는 빨간 질그릇이 놓여있었다. 그밖에 더는 없었다. 왼쪽침대에는 스물한살나는 맏아들 자샤리가 열한살나는 동생 쟝렝과 함께 자고있었다. 오른쪽 침대에는 그들보다 아래인 레노르와 앙리가 서로 그러안고 자고있었는데 큰 아이는 여섯살이고 작은 아이는 네살이였다. 세번째침대에는 까뜨리느가 아홉살치고는 너무 허약한 녀동생인 알지르와 함께 누워있었는데 그는 어린 불구자의 등에 난 혹이 옆구리를 짓누르지만 않았으면 자기 옆에 누가 누워있다는것을 느끼지 못했을것이다. 유리문이 열려져있어 층계의 통로가 보이는데 거기엔 부모들이 자고있는 네번째침대가 놓여있었다. 또 거기에는 난지 방금 석달밖에 안되는 딸애인 에쓰뗄의 요람이 매여있었다.

까뜨리느는 졸음을 쫓아버리려고 안깐힘을 썼다. 그는 기지개를 켜고 두손으로 이마며 뒤덜미에 헝클어져내린 머리칼을 바로잡았다. 열다섯살에 나는 처녀지만 무척 약골로 생겼다. 짧은 속옷밑으로는 석탄에 절은듯 퍼렇게 된 다리와 부드러운 팔만이 보였는데 우유처럼 새하얀 두팔은 늘 꺼먼 비누에 씻어서 이미 시들어빠진 생기없고 창백한 얼굴과는 판판 달랐다. 까뜨리느가 마지막으로 하품을 하자 약간 클사한 그의 입이 벌려지고 고운 이발들과 피기없이 새하얀 이몸이 드러나보였다. 졸음이 잔뜩 실리고 눈물에 젖은 그의 흐린 두눈은 고통스럽고 나른하고 피곤하여 부어오른듯 하였다.

층계에서 마여가 성이 난 목소리로 투덜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기랄! 시간이 됐군. … 네가 불을 켰느냐, 까뜨리느?》

《네. 아버지… 아래서 방금 4시를 쳤어요.》

《좀 빨랑빨랑 하란 말이다, 게으른년같으니! 어제 일요일 저녁에 춤을 좀 덜 췄더면 우릴 좀 더 일찌기 깨웠을게 아니냐, 게으름뱅이야!》

그는 욕지거리를 계속 하다가 도로 잠들었다. 그리하여 잔소리는 그치고 코고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처녀는 맨발로 마루바닥에 내려서더니 내의바람으로 방안을 왔다갔다했다. 그는 앙리와 레노르의 침대로 다가가 흘러내린 모포를 다시 덮어주었다. 그들은 어린시절에는 누구나 다 그런것처럼 깊은 잠에

아주 곤드라져있었다. 눈을 뜬 알지르는 잠자코 따스한 언니의 자리로 옮겨누웠다.

《이봐, 자샤리! 얘, 쟝렝!》 까뜨리느는 오라비들 침대앞에서 이렇게 뇌였다. 그들은 얼굴을 베개에 박고 엎드려 자고있었다.

까뜨리느가 큰 오라비의 두어깨를 잡아 흔들자 그는 욕지거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까뜨리느는 그들의 이불을 끌어당겼다. 이러한 장난이 까뜨리느에겐 유쾌했다. 그래서 그는 오라비들이 맨다리로 발버둥질하는것을 보면서 좋아라고 깔깔 웃었다.

《머저리같으니라구, 날 놓지 못하겠니!》 하고 자샤리는 일어나 앉으면서 투덜거렸다. 그는 지금 기분이 언짢았다. 《난 이런 장난이 싫다, 제기랄! 일어나야 한단 말이지!》

길쭉한 얼굴에 턱수염이 드문드문하고 머리칼이 누렇고 몸이 여윈데다가 동작이 굼뜬 자샤리도 다른 식구들처럼 피기라곤 없었다. 그는 샤쯔가 배우로 올라간것을 내리웠다. 그것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추워서 그렇게 한것이였다.

《아래층에서는 벌써 4시를 쳤어.》 하고 까뜨리느가 되뇌였다. 《자, 빨리. 아버지가 노하셨어.》

몸을 옹크린 쟝렝은 다시 눈을 감고 말했다.

《시끄럽게 굴지 말어. 난 더 자겠어!》

까뜨리느는 또 깔깔 웃었다. 가느다란 팔다리에 관절만 툭 불거진 쟝렝의 몸이 어찌나 작았던지 까뜨리느는 두팔로 그를 번쩍 들어올렸다. 그러자 그는 누나에게 발길질을 했다. 두눈이 파랗고 곱슬머리인 그의 창백한 원숭이같은 얼굴은 귀가 큰탓으로 넙적한데 성이 나서 파랗게 질렸다. 그는 자기가 그처럼 병약한데 그만 화가 났던것이다. 그는 아무말없이 누나의 오른쪽젖가슴을 꽉 깨물었다.

《못된 녀석!》 까뜨리느는 비명이 나오는것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그를 마루우에 내려놓았다.

알지르도 잠이 깨여 말없이 턱밑까지 이불을 뒤집어썼다. 그는 불구자다운 령리한 눈으로 옷을 입는 언니와 두 오빠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대야를 둘러싸고 또 싱갱이질이 벌어졌다. 까뜨리느가 세면을 너무 오래 한다고 오라비들이 그를 떠밀었다. 잠이 채 깨지 않은 그들은 같이 자라난 강아지들처럼 내의를 벗어 벌거숭이가 되여서도 조

금도 부끄러운줄 몰랐고 아무런 꺼리낌없이 태연스러웠다. 까뜨리느가 선참으로 옷차림을 하고 나섰다. 그는 탄부바지에 아마포저고리를 입고 파란 모자를 썼다. 작업복을 입은 까뜨리느는 어린 소년같았다. 가볍게 흔드는 엉뎅이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가 녀자라는것을 알아차릴수 있었다.

《령감이 돌아오면》 하고 자샤리가 심술사나운 어조로 말했다. 《잠자리가 다 식어서 아주 좋다고 할게다.… 난 그에게 네가 그렇게 했다구 말할테야.》

령감이란 곧 본느모르할아버지였다. 그는 밤일을 하고 돌아와서 낮에 잠을 자군 했다. 사실인즉 침대에서는 언제나 누군가가 코를 골고 있어서 잠자리는 식는 법이 없었다.

까뜨리느는 그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이불을 들고 잠자리를 거두었다. 얼마전부터 벽 저쪽 이웃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회사가 극력 절약을 해서 지어놓은 이 벽돌집은 벽체가 너무 얇아서 작은 숨소리까지 들리였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서로 나란히 살아서 가정생활에서는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비밀이 없었다. 층계에서 무거운 발걸음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무엇인가 푹신한것이 떨어지는듯 한 소리가 들려왔고 뒤이어 안도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은데!》 하고 까뜨리느가 말했다. 《레바끄가 나가더니 그의 녀편네한테 부뜰루가 나타났군 뭐.》

그러자 쟝랭이 키득거렸다. 알지르의 눈도 반짝거렸다. 아침마다 그들은 이웃집 세사람의 동서생활을 비웃고있었다. 채탄공의 집에 버럭처리공이 하숙을 하고있어서 한 녀인에게 남편이 둘이 생긴셈이였다. 한 사나이는 밤에 같이 살고 다른 한 사나이는 낮에 같이 사는것이였다.

《필로멘느가 기침을 하누나.》 하고 귀를 기울이던 까뜨리느가 말했다.

까뜨리느는 자샤리의 애인인 열아홉살나는 레바끄의 맏딸을 두고 말한것이였다. 레바끄의 맏딸은 이미 자샤리와 관계를 맺어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 그는 페가 약해서 지하작업을 못하고 선탄장에서 일을 하고있었다.

《걱정말어!》 하고 자샤리가 대꾸했다. 《필로멘느는 아무것도 모

르고 방에서 잠만 자고있어. … 몹쓸것같으니! 6시가 다 되도록 자다니!》

그는 바지를 입고나서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듯이 창문을 열었다. 어둠속에서 마을이 잠에서 깨여났고 덧문마다의 틈새들에서 불빛들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두 남매는 또다시 다투기 시작했다. 자샤리는 도감독이 맞은켠 삐에롱의 집에서 나가는것을 살피려고 얼굴을 내밀었다. 소문에 의하면 도감독이 삐에롱의 처와 좋아 지낸다는것이였다. 그런데 까뜨리느는 삐에롱이 전날부터 낮작업을 했기때문에 간밤에는 절대로 당싸에르가 거기서 자지 못했으리라고 우겨댔던것이다. 방안에 찬기가 스며들어왔으나 말다툼에 열중한 두 남매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추측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째는듯 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요람속에서 자던 에쓰뗄이 추워서 깨여난것이다.

마여도 곧 잠에서 깨여났다. 대관절 왜 뼈마디가 이다지도 쑤실가? 그는 게으름뱅이처럼 다시 잠들고말았다. 그가 너무나 무섭게 욕을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잠잠해졌다. 자샤리와 쟝렝은 벌써 지친듯 세면도 느릿느릿했다. 알지르는 눈을 크게 뜨고 여전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린 레노르와 앙리는 떠들썩하는 소리도 들은척 않고 서로 꼭 그러안은채 여전히 새근새근 자고있었다.

《까뜨리느! 초불을 가져와!》 하고 마여가 소리쳤다.

까뜨리느는 작업복저고리의 단추를 채우고나서 층계의 통로로 초불을 가져갔다. 두 형제는 문으로 스며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아래에서 옷들을 그냥 찾고있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느때처럼 굵은 실로 뜬 털양말을 신은채 까뜨리느는 통로에 멈춰서지 않고 층계를 더듬으면서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아래방으로 내려와서 커피를 끓이려고 다른 초불을 켰다. 신발들은 죄다 찬장밑에 있었다.

《그쳐라, 이년아!》 아직도 그치지 않는 에쓰뗄의 울음소리에 화가 발칵 난 마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본느모르로인처럼 키는 크지 않은데 몸만은 뚱뚱했고 머리가 컸으며 넙적한 얼굴은 역시 피기가 없었다. 누런 머리칼은 바투 깎았다. 아버지가 힘줄이 툭툭 불거진 큼직한 손을 휘두르는 바람에 몹시 놀랜 어린아이는 더욱 큰소리로 울어댔다.

《놔둬요. 그치지 않을건 뻔하지 않아요.》 마여의 안해가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이렇게 일렀다.

그 녀자도 이제 방금 잠이 깨였는데 언제나 잠을 푹 자지 못해서 불만이였다. 도대체 그들은 조용히 나갈수 없단 말인가? 그 녀자는 이불속에서 투박하고도 선이 굵은 길쭉한 얼굴만 내밀었다. 그 녀자는 나이가 이제 겨우 서른아홉인데도 가실줄 모르는 빈궁에 쪼들리고 아이를 7남매나 낳는 바람에 벌써 시들대로 시들었다. 그 녀자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옷을 입는 남편에게 느릿느릿 말을 건넸다. 남편도 안해도 이제는 숨이 넘어갈듯 한 어린애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듯 하였다.

《저, 돈이 한푼도 없어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봉급날까진 아직 엿새가 남았는데 견디여내는 수가 없군요. 당신들은 모두해서 아홉프랑밖에 더 가져와요? 내가 그것으로 어떻게 돌려맞추겠어요? 집에는 입이 열이나 되는데.》

《옳지, 아홉프랑이라!》 하고 마여가 큰소리를 쳤다. 《나하고 자샤리가 세프랑씩 받으니 여섯프랑이고 까뜨리느와 아버지가 두프랑씩 가져오니 네프랑이지. 넷에 여섯을 합하면 열이지… 그리고 또 쟝렝이 한프랑을 받고있으니 열한프랑이 아니요.》

《열한프랑이 옳아요. 허지만 일요일과 쉬는 날은 빼지 않나요? 당신한테 말하지만 언제나 아홉프랑이상은 받아본적이 없어요.》

마여는 바닥에서 자기의 혁띠를 찾느라고 더 대꾸를 하지 못했다. 이슥해서 그는 허리를 펴면서 말했다.

《바가지를 긁을건 없소, 난 아직 건강하니까. 마흔두살에 보수작업으로 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여보, 그럴수도 있어요. 허지만 그렇다고 빵이 더 생기는건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발 좀 말해봐요. 당신에게는 한푼도 없지요?》

《두쑤가 있소.》

《그건 가지고있소. 맥주나 한조끼 마시게. … 하느님 맙소사! 어떻게 하라우? 아직 엿새가 남았는데, 막연하구려. 메그라의 가게방엔 아직 60프랑이나 빚이 있어요. 엊그저껜 날 문안에 들여놓지도 않습데다. 그에게 또 가봐야겠어요. 그러나 그가 고집스레 거절한다면…》

안해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희미한 초불밑에 눈을 깜빡이면서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녀자는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은 빵을 달라고 조르지, 커피는 고사하고 맹물만 마시니 속이 쓰리고 삶은 배추로 요기하면서 긴긴 해를 보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점점 큰 소리로 말해야 했다. 에쓰뗄의 울음소리가 그의 말소리를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의 자지러지는 소리는 참을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마여는 이제 새롭게 그 소리를 들은것처럼 성이 나서 요람속에서 그를 번쩍 들어내여 침대우의 제 어미에게 확 밀어뜨리면서 《자, 받소. 그렇지 않으면 메치겠소. … 원, 계집애두. 하느님 맙소사! 저건 그렇게 젖을 빨면서도 무엇이 또 나빠 그러는지 제일 시끄럽게 굴거던!》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에쓰뗄은 이내 젖을 빨기 시작했다. 어린애는 이불속의 따뜻한 잠자리에 들자 잠잠해지면서 게걸스럽게 젖을 빠는 소리만 들렸다.

《삐올랜느의 나리님들이 집에 오라고 했다면서?》 하고 잠시 말이 없던 남편은 다시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는 자신없는 표정으로 입을 비쭉했다.

《글쎄요. 그분들을 만났댔어요. 그분들은 가난한 집 애들에게 줄 옷을 가지고 다니더군요. … 그렇지, 오늘 아침에 레노르와 앙리를 데리고 가보겠어요. 단돈 100쑤라도 주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마여는 차비를 다 하고 잠시 서있다가 웅글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떻게 하겠소, 사정이 그런걸? 당신이 끼니를 마련해보오. … 말공론이나 하면 뭘 하우. 가서 일이나 하는게 상책이지.》

《옳아요.》 하고 안해는 대꾸했다. 《초불이나 꺼요. 이것저것 생각이나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자 마여는 초불을 껐다. 자샤리와 쟝렝은 벌써 층계를 내려가는데 아버지도 그들의 뒤를 따라 내려갔다. 나무층계는 털양말을 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서 삐거덕거렸다. 통로와 방안이 다시금 어둠속에 잠겨들었다. 아이들은 그냥 자고있었다. 알지르도 눈을 감았다. 어머니만이 멀거니 눈을 뜨고 어둠속에 누워있었다. 에쓰뗄은 고양이새끼처럼 가르릉거리며 축 처진 어머니의 젖을 아직도 극성스레

빨고있었다.

아래층에 내려간 까뜨리느는 무엇보다먼저 불을 피우는데 정신이 팔렸다. 한복판에 철망이 있고 량옆에 두개의 연통이 붙은 벽난로에는 언제나 석탄불이 피여있었다. 회사에서는 한달에 세대당 800키로의 석탄을 주었다. 그러나 그 석탄은 갱도에서 주어온 돌탄이여서 잘 타지 않았다. 그래서 처녀는 저녁이면 불을 꽉 덮어두었다가 아침에 헤집고 좋은 탄덩이 몇개를 집어넣군 했다. 까뜨리느는 철망우에 조그마한 가마를 올려놓고 찬장앞에 쪼그리고앉았다.

큼직한 방 하나가 아래층을 거의다 차지하고있었다. 방안벽에는 푸른 뼁끼칠을 했고 판석을 깐 말끔히 씻어낸 바닥에는 흰모래가 깔려있었다.

방은 플랑드르사람들의 집과같이 깨끗했다. 옻칠한 소나무장 이외에 역시 옻칠한 소나무식탁이며 의자 등속의 가구들이 있었다. 벽에는 선명한 채색화들이 붙어있었는데 그것들은 회사가 나누어준 황제와 황후의 초상들이며 그리고 병사들과 울긋불긋한 성자의 그림들이였다. 이런것들이 훤한 벽체를 배경으로 뚜렷이 드러나보였다. 장우에 있는 장미빛마분지곽과 거칠게 칠을 한 문자판이 붙은 벽시계외에는 아무런 장식품도 없었다. 똑딱거리는 시계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층계로 올라가는 문옆에는 움으로 통하는 문이 또 하나 있었다.

방안은 깨끗하였으나 전날부터 차있는 양파냄새가 풍기고있었으며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속에서는 노상 코를 찌르는 역한 탄내를 느낄수 있었다.

까뜨리느는 열려진 장앞에 쪼그리고앉아서 속구구를 하느라고 골똘해있었다. 빵쪼각이 하나 있고 하얀 치즈가 넉넉히 남았지만 빠다가 아주 적었다. 그것으로 네사람분의 겹빵을 만들어야 한다. 드디여 그는 결심을 하고 빵을 더 작은 쪼각으로 자르고 한쪼각에는 치즈를 올려놓고 또 한쪼각에는 빠다를 발라서 그것을 서로 맞붙여놓았다. 이것이 곧 로동자들이 매일 갱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부시돌인 겹빵이였다. 곧 네개의 그런 겹빵이 식탁우에 나란히 놓여졌다. 그것은 가장 큰 아버지의것으로부터 제일 작은 쟝렝의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누어져있었다.

까뜨리느는 주부노릇하기에 여념이 없는듯 했으나 도감독과 삐에롱

의 안해에 대하여 자샤리가 하던 이야기를 생각하던 나머지 방문을 방싯이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마을의 나지막한 집들에는 벌써 불들이 많이 켜지고 잠에서 깨여나 움직이는 어렴풋한 소음이 들려왔다. 문들이 다시 닫기고 로동자들의 꺼먼 행렬이 어둠속으로 멀리 사라져가고있었다. 6시에 일하러 갈 상차공은 잠만 자겠는데 제몸을 이렇게 얼구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나 처녀는 뜨락 건너쪽의 집을 바라보면서 한자리에 머물러있었다. 그 집 문이 열렸다. 그는 호기심이 동했지만 그것은 삐에롱의 어린 딸 리디가 탄갱으로 가는것이였다.

쉬—쉬— 하며 김이 오르는 소리에 까뜨리느는 얼굴을 돌렸다. 그는 문을 닫고 급히 달려갔다. 물이 끓어넘어 불이 죽고있었다. 커피가 다 넘어서 그전날 먹다남은 찌꺼기를 다시 물에 타지 않으면 안되였다. 까뜨리느는 커피주전자에 누런 사탕가루를 탔다. 그러자 곧 아버지와 두 오라비가 내려왔다.

《에익, 빌어먹을!》 자샤리가 자기의 커피잔에 입을 대보고나서 투덜거렸다. 《이런걸 마시면 골치가 지끈지끈해서!》

마여가 할수 없다는듯이 어깨를 으쓱하였다.

《어떻다구그래! 뜨끈한것이 좋기만 한데.》

쟝렝이 빵부스레기를 걷어서 국에 넣었다. 까뜨리느는 커피를 다 마시고나서 주전자에 남은것을 양철통들에 갈라 부었다. 네사람은 모두 초불의 희미한 불빛아래에 서서 바삐 먹었다.

《다 먹었느냐?》 하고 아버지가 물었다. 《다 신사들같구나.》

우에서 어머니가 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층계의 문이 열려있었던것이다.

《빵을 다 들어요. 아이들에겐 국수가 좀 남아있는걸 주겠어요.》

《네, 네!》 하고 까뜨리느가 대답했다.

까뜨리느는 불을 덮고 남아있는 국을 철망의 한쪽모서리에 놓았다. 6시에 돌아오는 할아버지가 덥게 잡숫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저마다 찬장밑에서 나막신을 꺼내신고 끈이 달린 물통을 어깨에 메고는 작업복등솔기밑에 점심을 밀어넣었다. 그리고나서 그들은 집을 나섰다. 사내들이 앞장을 서고 처녀가 그들의 뒤를 따랐다. 처녀는 나가면서 초불을 끄고 자물쇠를 잠갔다. 집은 다시 어둠속에 잠겼다.

《여보게들! 같이 가세.》 문을 채우던 이웃집 사나이가 말하였다.

그는 쟝렝의 친한 동무인 열두살나는 아들 베베르와 함께 나오던 레바끄였다. 까뜨리느는 깜짝 놀라 하마트면 웃음보를 터뜨릴번 했다.

《어떻게 된셈이야?》 하고 그는 자샤리의 귀에 대고 말했다. 《부뜰루는 남편이 나갈 때까지도 기다리지 못했어!》

이제는 마을에서 불들이 꺼졌다. 마지막문이 쾅 하고 닫기자 모든 것이 또다시 꿈속에 잠겨버렸다. 녀인들과 아이들이 넓어진 침대우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 불이 꺼진 마을에서부터 씩씩소리를 내는 보료탄갱으로 통하는 길에서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받아 느릿느릿 움직이는 그림자들의 행렬이 늘어섰다. 그것은 탄부들이 작업장으로 나가는 행렬이였다. 그들은 어깨를 웅크리고 두팔을 가눌바를 몰라 팔짱을 끼였는데 사람마다 등솔기에 빵을 밀어넣어 곱사등이처럼 보였다. 엷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은 그들은 추워서 몸을 떨었으나 서두르지 않고 무질서하게 떼를 지어 길을 따라 걸어갔다.

3

에띠엔느는 마침내 둔덕에서 내려와 보료탄갱에 들어섰다. 그가 일자리를 물어보았던 사람들은 모두 도리질을 하면서 도감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는 하라고 일렀다. 누구도 그를 붙들어세우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컴컴한 통로들이 여럿이 있는 불빛 희미한 건물들사이로 돌아다녔다. 방들과 층들이 복잡한 시꺼먼 구멍투성이인 그 건물들은 근심을 자아냈다. 반나마 무너진 어두운 층계를 올라가서 흔들흔들하는 발판을 넘은 그는 선탄장을 지나갔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에띠엔느는 무엇엔가 부딪칠가봐 두손을 앞으로 내밀고 걸어갔다.

그런데 별안간 그의 앞 어둠속에 두개의 커다란 누런 눈이 나타났다. 그는 수직갱입구탑밑의 저탄장안에 들어선것이였다.

이때 마침 감독의 한사람으로 몸집이 뚱뚱하고 헌병처럼 재빛코수염이 쭈빗한 리숌아저씨가 갱구감시원사무실로 가고있었다.

《여기선 로동자가 요구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좋은데요.》 하

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리숌은 선뜻 《없소.》 하고 말하려다가 생각을 고쳐 걸어가면서 여느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했다.

《도감독 당싸에르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오.》

거기에는 네개의 등불이 고정되여있었다. 수직갱만 비치는 반사경의 모든 불빛은 쇠란간이며 신호장치와 제동기의 손잡이, 두 승강기가 지나가는 궤도를 환하게 비치고있었다. 교회당안같은 넓은 방의 나머지부분에서는 커다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있었다. 안쪽에 있는 등불관리장만이 불빛이 환한데 갱구감시원사무실에는 거의 꺼져가는 작은 등불 하나가 별처럼 깜빡거리고있었다. 채탄작업이 방금 시작되였다. 석탄을 실은 탄차들이 덜커덩거리면서 철판우로 굴러가고 운반공들이 그뒤를 따라가는데 와르릉거리는 모든 검은 물체가 흔들리는 속에서 늘씬하고 구부정한 그들의 등을 분간할수 있었다.

에띠엔느는 귀가 멍하고 눈이 부시여서 그 자리에 잠시 까딱 않고 서있었다. 사방에서 찬기운이 스며들어 그의 몸은 꽁꽁 얼어들었다. 이윽해서 그는 몇걸음 더 앞으로 걸어나갔다. 강철과 구리의 부분품들이 번쩍거리는 기계가 그의 주목을 끌었다. 수직갱뒤로 25메터되는 더 높은 곳에 자리잡고있는 400마력짜리 이 기계는 큰 련결대를 경쾌하게 올렸다내렸다 하면서 전속력으로 움직이고있었다. 이 기계는 벽돌기초우에 아주 튼튼히 설치되여 벽체가 진동하였다. 기계운전공은 조절기의 손잡이를 잡고 수직갱의 각 층들이 그려져있는 표식판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신호종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표식판에서는 수직홈을 따라 노끈으로 맨 조그마한 연추가 오르내렸는데 그것은 승강기의 움직임을 알려주는것이였다. 승강기가 움직일 때에는 기계가 돌아가면서 직경이 5메터나 되는 커다란 바퀴 두개가 돌아가며 두개의 케블선을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감아올리기도 하고 풀어내리기도 했는데 너무 빨리 돌아서 재빛먼지타래처럼 보였다.

《여보, 조심하오!》 하고 세명의 운반공들이 커다란 사다리를 끌고오면서 웨쳤다.

에띠엔느는 하마트면 깔리워서 죽을번 했다. 그는 두눈이 어둠에 익숙되자 30메터가 넘는 강철대같은 쇠바줄이 공중에서 미끄러져가는것을 볼수 있었다. 쇠바줄들은 탑꼭대기까지 단번에 올라갔다가 몇

개의 활차를 넘어서 이번에는 끝에 달린 승강기와 함께 곧추 갱도로 내려갔다. 활차들은 종루의 높은 들보같은 무쇠들보에 고정되여있었다. 열두톤까지의 짐을 초속 10메터의 속도로 들어올릴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쇠바줄이 새들이 날듯이 아무런 소음과 부딪침도 없이 미끄러지며 계속 오르내리는것이였다.

《제길, 조심하오!》 운반공들이 또다시 웨쳤다. 그들은 왼쪽활차를 점검하기 위해 건너쪽에 사닥다리를 세우고있었다.

에띠엔느는 느릿느릿 저탄장으로 돌아왔다. 자기의 머리우에서 벌어지고있는 이 요란한 비행에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마주 통하는 바람에 몸을 떨면서 움직이는 승강기를 바라보았다. 탄차가 움직이는 요란한 소리에 귀가 멍멍했다. 수직갱가까이에 있는 신호기구인 손잡이가 달린 무거운 마치는 아래쪽에서 줄을 잡아당기면 나무통을 때렸다. 한번 때리면 서고 두번 때리면 내려가고 세번 때리면 올라왔다. 그 소리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마치도 소음을 짓누르는 방망이소리처럼 끊임없이 울렸다. 그동안 승강기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운전공이 확성기에 대고 고함을 치며 기계운전공에게 지시를 주고있음으로 해서 주위는 더욱 소란한듯 했다. 이런 소란한 가운데 승강기가 오르내리고있었다. 그것들은 석탄을 가득 싣고 올라와 부리우고는 또 내려가 석탄을 가득 싣고 올라오군 했다. 에띠엔느는 이런 복잡한 작업에서 뭐가 뭔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

그는 수직갱이 20～30명씩의 사람들을 단번에 삼켜버리는데 그것이 너무나 쉽사리 진행되여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것밖에 알수 없었다. 로동자들의 입갱은 4시부터 시작되였다. 그들은 휴계실에서 등불을 들고 맨발로 나와 군데군데 모여서서는 사람들의 수가 다 차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철제승강기가 짐이 슬그머니 나타나듯이 어둠속에서 올라와 제동을 걸고 뚝 멈춰섰다. 승강기의 네개의 칸마다에는 석탄을 가득 실은 탄차가 두개씩 들어있었다. 운반공들은 석탄을 만재한 탄차들을 여러가지 발판을 놓아 끌어내리고 빈 탄차나 혹은 목재를 이미 실어놓았던 탄차들을 그대신 밀어넣었다. 빈 탄차들에는 로동자들이 다섯명씩 타는데 혹시 빈 탄차들만 싣게 되면 단번에 마흔명의 사람들을 내려보낼수 있었다. 거기서는 잘 알아들을수 없는 웅글은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확성기에 대고 지시를 주는 고

함소리였다. 아래로 내려간 신호줄을 네번 잡아당겼다. 그것은 《고기가 내려간다.》는, 다른 말로 사람을 태웠다는 예고였다. 승강기가 가볍게 움직여 소리없이 내려가면서 돌처럼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파르르 떨면서 풀려 내려가는 쇠바줄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깊은가요?》 하고 에띠엔느는 자기 옆에 잠이 채 깨지 않은듯 한 얼굴을 하고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있는 한 탄부에게 물었다.

《554메터요.》 하고 그 로동자가 대답했다. 《허지만 그우로 저탄장이 네개나 있는데 320메터를 내려가면 첫 저탄장이 있소.》

두사람은 말을 끊고 올라오는 쇠바줄을 또 바라보았다.

《저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끊어지면야…》

탄부는 손짓으로 말끝을 맺었다. 그의 차례가 왔던것이다. 승강기가 다시금 가볍게 스르르 올라오자 그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거기에 쭈그리고앉았다. 승강기는 내려가더니 4분이 못돼서 다른 사람들을 또 집어삼키려고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반시간동안 수직갱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층의 깊이에 따라 쉴새없이 게걸스럽게 그들을 삼켜버렸는데 마치도 많은 사람들을 소화해버릴수 있는 엄청나게 큰 주린 창자를 채우려고 하는것 같았다. 승강기는 매번 사람들로 가득찼고 주위는 여전히 먹물을 뿌린듯 캄캄한채로 남아있었다. 승강기는 역시 소리없이 게걸쟁이처럼 심연속에서 올라오군 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에띠엔느는 이미 언덕우에서 느꼈던 불안에 다시 사로잡혔다. 무엇을 얻겠단 말인가? 도감독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할것이다. 에띠엔느는 갑자기 저도 모르는 공포에 사로잡혀 발길을 돌렸다. 그는 보이라실앞에 와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문이 활짝 열려있어서 두개의 화구가 있는 일곱개의 보이라를 볼수 있었다. 쉬쉬거리면서 틈새로 타래져나오는 하얀 증기속에서 화부가 화구에 석탄을 퍼넣고있었다. 이글거리는 불은 문턱에서도 느낄수 있었다. 몸을 녹일수 있게 된것을 기쁘게 여긴 에띠엔느는 가까이 다가갔다. 이때 그는 탄갱으로 향하는 새로운 탄부들의 패를 보았다. 그들은 마여일가와 레바끄부자였다. 앞에서 걸어오는 친절한 소년같은 까뜨리느를 보자 에띠엔느는 행여나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보고싶

은 생각이 들었다.

《여보시오, 여기에 아무 일이건 로동자가 요구되는데는 없소?》

느닷없이 어둠속에서 울린 목소리에 저으기 놀라고 무서워난 까뜨리느는 그를 쳐다보았다. 이때 까뜨리느의 뒤로 걸어오던 마여도 이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대답을 하고 멈춰서서 에띠엔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기서도 할일은 없었고 아무도 요구되지 않았다. 그저 직업을 찾아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이 가련한 로동자가 마여의 흥미를 끌었을뿐이였다. 에띠엔느와 헤여진 마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소. … 하소연할데가 없소. 모두 일자리가 없어서 죽어야 할 판이니까.》

로동자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곧장 휴계실로 향했다. 휴계실은 되는대로 초벽한 넓은 방이였다. 벽에는 자물쇠가 걸려있는 옷장들이 있었고 한복판에는 문이 없는 그 어떤 벽난로같은 무쇠화독이 놓여있었다. 벌겋게 달아오른 화독에는 석탄불이 가득 차있어서 석탄덩어리들이 빠지직거리며 타다가 흙을 다져놓은 바닥에 떨어지군 했다. 이 화독불은 온 휴계실안을 비쳐주어서 빨건 반사광이 더러워진 옷장널판지들이며 꺼먼 먼지가 덮인 천장에서 떨고있었다.

마여네가 더운 휴계실안에 들어섰을 때 거기서는 사람들이 높은 소리로 웃어대고있었다. 서른명쯤되는 로동자들이 화독불에 등을 돌려대고 서서 사뭇 흡족한듯이 불들을 쪼이고있었다. 입갱을 하기 전에 모두 여기와서 눅눅한 갱도에서 견디여내기 위해 불들을 쪼이는것이였다. 이날 아침은 더욱 흥성거렸다. 로동자들이 열여덟나는 녀운반공 무께뜨를 시까스르고있었던것이다. 이 처녀는 젖가슴이 두드러지고 엉치가 너무 커서 저고리와 바지가 금시 터질듯 팽팽했다. 그는 늙은 마바리군인 아버지 무끄와 운반공인 오빠 무께와 함께 레끼아르에서 살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서 무께뜨는 혼자서 탄갱으로 나오군 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것이다. 처녀는 여름이면 밀밭에서, 겨울이면 어느 벽에 의지하여 매주일 이 남자, 저 남자 바꿔치기를 하면서 재미를 보았다. 모든 탄부들이 차례차례로 별일없이 그를 곧잘 데리고 놀았었다. 어느날 마르쉬엔느의 못제조공장의 철공과 놀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비난

했었다. 그러자 무께뜨는 분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자기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타락하지 않았고 누구도 자기가 탄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휩쓸리는것을 결코 볼수 없으리라는것을 장담할수 있다고 큰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젠 키꺽다리 쇄발과는 더 관계가 없지?》 하고 한 탄부가 빈정대며 물어보았다. 《저 꼬맹이와 붙었지? 그에게 사다리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난 너희들을 레끼아르뒤에서 보았어. 옆으로 기여올라간것이 분명하거던.》

《그래서요?》 하고 무께뜨가 기분이 좋아서 응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를 올려놓아달라고 당신을 부른것도 아니지 않아요.》

저으기 거칠기는 하나 악의없는 이러한 롱담이 사람들의 웃음보를 또 터뜨렸다. 그래서 그들은 불을 실컷 쪼인 어깨를 들먹거렸다. 무께뜨자신도 우습강스럽게 부끄러운 표정을 하고 로동자들 틈을 왔다갔다하면서 깔깔 웃어댔다. 그는 거의 병적이라고 할만치 살이 찌고 둥글둥글한 몸집에 야한 옷차림을 하고있었다.

그러나 녀운반공인 키다리 플러랑스가 더는 일하러 오지 못한다는것을 무께뜨가 마여에게 알려주자 삽시에 즐거운 기분은 사라져버렸다. 전날밤에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죽은 플러랑스를 발견했던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파렬로 죽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향나무술 한리터를 단숨에 들이켰기때문에 죽었다고 했다. 마여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기의 녀운반공을 한사람 잃었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 자리를 메꾸는수가 없었다. 그는 청부로 일하였다. 그의 조에서는 그와 자샤리, 레바끄, 쇄발 등 채탄공 네사람이 일했다. 그러니만큼 그들한테 운반공으로 까뜨리느 한사람으로는 작업에 지장이 생긴다. 마여는 갑자기 소리를 쳤다.

《여봐! 아까 일자리를 구하던 사나이가 어디 갔나?》

바로 이때 당싸에르가 휴계실옆으로 지나가고있었다. 마여는 그에게 일어난 사고를 알려주고 그 사나이를 채용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는 회사측에서도 앙젱에서처럼 운반공을 남자로 교체할 의향이 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도감독은 막장에서 녀자들을 없앨데 대한 안이 평상시 탄부들의 반감을 일으키던것을 생각하고 처음에는 쓴웃음을 지었다. 탄부들은 자기네 딸들을 취직시킬것만을 생각하면

서 도덕과 위생문제에는 관심을 덜 돌렸었다.

그는 저으기 주저하다가 최종결론은 네그렐기사가 내린다는 조건밑에 허락을 했다.

《헛일이요!》 하고 자샤리가 말했다. 《그는 멀리 갔을게요. 항상 떠돌아다니니까!》

《아니야.》 하고 까뜨리느가 말했다. 《그가 보이라실앞에 머물러 서는걸 내가 봤어.》

《어서 달려가봐, 게으름뱅이같으니!》 하고 마여가 소리쳤다.

처녀는 부리나케 달려갔다. 한편 화독앞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한 탄부들은 무리를 지어 갱구로 향했다. 쟝렝은 아버지를 채 기다리지 않고 좀 뚱뚱하고 천진한 소년인 베베르와 열살나는 허약한 소녀인 리디를 데리고 등불을 가지러 갔다. 무께뜨가 그들앞에서 걸어가고있었다. 침침한 층계우에서 무께뜨는 그들을 망종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못살게 굴면 뺨을 치겠다고 을렀다.

에띠엔느는 정말 보이라실에 있었다. 그는 화구에 석탄을 퍼넣는 화부와 이야기를 하고있었는데 밤중의 어둠속을 또다시 방황해야 할것을 생각하니 몸이 오싹해왔다. 그러나 거기서 떠나려던참이였는데 그의 어깨에 누가 손을 얹었다.

《날 따라와요.》 하고 까뜨리느가 말했다. 《저기 할 일이 좀 있어요.》

처음에 에띠엔느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이윽해서 그는 누를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는 처녀의 손을 굳게 잡았던것이다.

《고맙소, 친구! 말이 났으니 말이지 임잔 정말 좋은 친구요!》

까뜨리느는 화구의 붉은 불빛이 비치는데서 그를 눈여겨보며 웃음을 지었다. 재미있는것은 젊은이가 자기를 소년으로 잘못 보고있다는 점이였다. 까뜨리느는 아주 날씬했으나 긴 머리칼은 모자속에 집어넣고있었다. 에띠엔느도 흡족해서 웃었다. 두사람은 잠시 마주서서 유쾌하게 웃었는데 그들의 량볼에는 어느덧 발그스름한 홍조가 떠올랐다.

이때 휴계실에서는 마여가 자기의 장앞에 쭈그리고앉아서 신발과 툭한 털양말을 벗고있었다. 에띠엔느가 들어가자 그는 곧 네마디로 결정지었다. 보수는 하루에 삼십쑤이고 작업은 고되지만 곧 익숙해지리

라고 말했다. 마여는 에띠엔느에게 신을 벗지 말라고 이르고 머리에 타박상을 입지 않게 헌 가죽모자를 하나 주었다. 마여부자는 이러한 안전대책을 무시하고있었던것이다. 이윽고 마여는 조그마한 공구함에서 공구들을 꺼냈다. 거기에는 플러랑스가 쓰던 삽도 들어있었다. 그리고나서 마여는 신발과 양말 그리고 에띠엔느의 보따리를 장에 넣더니 갑자기 참지 못해 성을 발칵 내였다.

《그 빌어먹을 솨발이란 자식은 도대체 어델 갔어? 보나마나 또 어떤 계집애를 돌무지우에 자빠뜨렸겠지! 오늘 우리는 삼십분이나 늦었다.》

자샤리와 레바끄는 잔등을 녹이며 심드렁하니 서있었다. 드디여 자샤리가 입을 뗐다.

《솨발을 기다려요?… 그는 우리보다 일찍 와서 이제 방금 갱에 내려갔는데요.》

《뭐, 어째? 넌 그걸 알고도 여직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자, 가자! 빨리!》

불옆에서 두손을 녹이고있던 까뜨리느는 그들을 따라가야 했다. 에띠엔느는 앞서가는 까뜨리느의 뒤로 따라갔다. 그는 또다시 층계와 통로들의 미궁에 들어섰다. 거기에서는 낡은 신이라도 신은것처럼 맨발들이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등불관리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있었다. 그곳은 유리를 끼운 방이였는데 그 전날 검사를 하고 깨끗이 닦아둔 수백개의 다비등들이 여러단으로 된 선반에 나란히 놓여있었고 등마다에는 죄다 불이 켜져있어 눈부신 소례배당안의 초불들 같았다. 로동자들은 입구에서 저마다 번호가 있는 자기 등불을 찾아 그것을 검사해보고나서 제 손으로 씌우개를 씌웠다. 책상앞에 앉아있는 출근부정리원은 로동자들의 입갱시간을 출근부에 기록하고있었다. 마여는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자기 새 운반공의 등불을 자기가 얻어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다음에 또 하나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로동자들은 등불의 씌우개를 잘 씌웠는가를 검사하는 검사원의 앞을 지나가야 했던것이다.

《으흑!… 여긴 그닥 덥지 않군요.》 하고 까뜨리느가 추위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 중얼거렸다.

에띠엔느는 고개를 끄덕거렸을뿐이다. 그들은 넓은 건물안 한복판

에 있는 갱구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바람이 불어왔다. 에띠엔느는 자신을 용감한 사람으로 자처하고있었으나 주위에서 탄차들이 덜커덩거리고 신호마치의 웅글은 바퀴에 의해 전속력으로 감기고 풀리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쇠바줄을 보자 불쾌감이 그의 목을 조이는듯 했다. 승강기가 밤짐승처럼 소리없이 미끄러지면서 사람들을 련이어 실어나르는데 갱구의 아가리가 그들을 삼켜버리는듯 했다. 이제는 그의 차례가 되였다. 에띠엔느는 몹시 추웠고 긴장하여 잠자코 있었다. 자샤리와 레바끄는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낯선 이 사나이를 채용하는데 찬성하지 않았다. 특히 레바끄는 자기의 의견을 미리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모욕을 느꼈던것이다. 까뜨리느는 아버지가 그 젊은이에게 여러가지 설명을 해주는것을 보고 기뻐했다.

《저걸 보오. 승강기우에 락하산같은게 있지 않소. 만약에 쇠바줄이 끊어지면 저 쇠갈구리들이 안내장치에 들어박힌단 말이요. 하긴 그런 일이야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 … 수직갱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있네. 그것들은 우에서 아래까지 사이사이 널판자로 각각 둘러막았는데 가운데로 승강기가 지나가고 왼쪽에는 사다리가 있지. …》

그러나 그는 자기의 설명을 뚝 끊고 낮은 소리로 투덜거렸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게 있다구, 빌어먹을! 이렇게 우리를 얼굴 일이야 없지 않어!》

감독 리숌이 씌우개를 씌우지 않게 되여있는 특수한 등불이 고정된 가죽모자를 쓰고 갱으로 내려가려고 왔다가 마여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좀 조심하라구! 누가 듣겠소!》 그가 동료들에게 의연 친절한 오랜 탄부답게 어버이같은 어조로 말했다. 《매사에 순차가 있는 법이야. … 자, 우리 차례네. 자네 사람들과 함께 타라구!》

철판을 둘러대고 가는 쇠그물을 댄 승강기는 멈춰서서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마여, 자샤리, 레바끄 그리고 까뜨리느는 아래쪽의 한 탄차에 올랐다. 탄차에는 다섯사람씩 들어가야 했으므로 에띠엔느도 거기에 올랐다. 그러나 좋은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서 그는 까뜨리느옆에 겨우 끼워서게 되였는데 처녀의 팔꿈치가 그의 배에 닿았다. 등불이 거치장스러웠다. 누군가가 그것을 웃옷단추에 달아매라고 일렀다. 그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서툴게도 계속 그것을 손에 들

고있었다. 승차는 계속되였는데 사람들을 집짐승처럼 자꾸 밀어넣었다. 승강기는 아직도 내려가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없었다. 에띠엔느는 자기들이 무척 오래 기다리는것 같았다. 드디여 몸이 움찔하더니 모든것이 빛을 잃고 주위의 물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창자가 뒤집히는듯 한 아찔한감이 승강기가 내려가면서 느껴졌다. 그들이 불빛밝은 두층의 저탄장을 지나갈 때까지 이런 상태는 계속되였다. 그들의 주위에서 쇠창틀이 빙빙 돌며 달리는것 같았다. 이윽고 승강기가 탄갱의 어둠속에 잠겨들어갔다. 에띠엔느는 얼떨떨해서 자기의 느낌을 뚜렷이 감각하지 못하였다.

《아, 내려가는군.》 하고 마여가 조용히 말했다.

모두들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고있었으나 에띠엔느는 자기들이 내려가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 이따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듯 한 순간도 있었다. 이것은 승강기가 안내장치를 다치지 않으면서 수직으로 곧바로 내려갈 때였다. 그런 뒤에는 마치도 널판지사이에서 춤이라도 추고있는듯 심한 진동이 뒤따랐다. 그래서 에띠엔느는 무슨 큰 사고라도 일어났나 하여 더럭 겁이 났다. 또한 그는 얼굴을 댄 그물뒤로 지나가는 갱의 간벽들을 분간할수 없었다. 그의 발밑에서는 등불들이 몽켜있는 사람들을 희미하게 비쳐주고있었다. 이웃탄차에서 감독의 특별한 등불만이 등대처럼 밝게 비치고있었다.

《여긴 직경이 4메터나 되오.》 하고 마여가 설명을 계속했다. 《둘러친 널판지는 벌써 오래전에 교체했어야 할것인데— 물이 도처에서 새여나오고있소.… 보오! 마침 우리는 물속으로 내려가고있소. 들리오?》

에띠엔느는 어디서 그런 소음이 나는지 알수 없었다. 마치도 비가 억수로 퍼붓는것 같았다. 처음에는 폭우가 시작될 때처럼 몇개의 커다란 물방울이 승강기 지붕우에 떨어지다가 다음에는 더욱 세차지더니 마침내는 폭우로 변하였다. 승강기의 지붕도 구멍이 송송 난것 같았다. 물줄기가 에띠엔느의 어깨에 떨어져 그를 흠뻑 적셔놓았다. 추위는 더욱 심하여졌고 승강기는 습기찬 어둠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고있었다. 갑자기 그들앞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환한 동굴같은것이 번개처럼 피뜩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니 또다시 모든것이 어둠속에

가라앉고말았다.

《여기가 첫 저탄장이요.》 하고 마여가 말했다. 《우리는 지금 320메터를 내려왔소. … 보오, 얼마나 빠르오!》

마여가 등불을 들고 안내 장치의 판자를 비쳐보았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렬차밑의 궤도처럼 휙휙 지나가는 안내장치외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새 저탄장이 또 피뜩피뜩 나타났고 어둠속에서는 억수로 퍼붓는 비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정말 깊은데!》 하고 에띠엔느가 중얼거렸다.

그에게는 이렇게 내려가는것이 몇시간이나 계속되는것 같았다. 그는 자리를 잘못 잡은데다가 까뜨리느의 팔꿈치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불편했다. 까뜨리느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에띠엔느는 자기옆에 그가 있다는것을 온기를 통해서 느낄뿐이였다. 승강기가 드디여 554메터의 깊이에서 멈춰섰을 때 그는 입갱이 꼭 1분동안 걸렸다는것을 알고 무척 놀랐다. 그러나 빗장이 고정되고 발밑에 굳은 땅이 있다는것을 느끼자 에띠엔느는 갑자기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는 까뜨리느와 너나들이로 롱을 하면서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네 살속에 뭣이 들었기에 그렇게 몸이 덥니? 네 팔꿈치가 내 배에 닿아있었어.》

까뜨리느도 깔깔 웃어댔다. 헌데 에띠엔느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아직도 그는 까뜨리느를 사내애로 알고있는것이다. 도대체 그는 눈이라도 삐뚤었단 말인가!

《제 눈에는 그것이 내 팔로 보이는게지요.》 하고 까뜨리느는 웃으면서 말했다. 젊은이는 이 말에 놀랐으나 역시 눈치채지는 못하였다.

승강기는 텅 비였고 로동자들은 저탄장을 지나갔다. 그곳은 암석을 까내고 아치형으로 천정을 축조하였는데 특수한 세개의 큰 등불이 그곳을 비쳐주고있었고 상차공들이 석탄을 가득 실은 탄차들을 바삐 철판우로 밀어가고있었다.

벽에서는 움속에서처럼 곰팡이내가 나고 갓 돋은 초석이 스며나왔다. 옆에 있는 마구간에서는 이따금 온기가 흘러나왔고 거기로부터 캄캄한 4개의 굴이 갈라져나갔다.

《이리로 오게.》 하고 마여가 에띠엔느를 보고 말했다. 《우린 아직 다 온것이 아닐세, 우린 아직 2키로메터는 실히 걸어가야 해.》

로동자들은 여러 패로 나뉘여져서 이 시커먼 굴들의 안쪽으로 점차 사라져갔다. 열댓명의 사람들이 왼쪽굴로 잡아들었는데 에띠엔느는 마여를 따라 맨뒤에서 걸어갔다. 그들앞에는 까뜨리느, 자샤리 그리고 레바끄가 걸어갔다. 그곳은 석탄을 나르기에 훌륭한 갱도였는데 아주 굳은 암반에 뚫어놓은것이여서 군데군데만 동발을 세웠다. 그들은 하나씩 연해 묵묵히 걸었다. 등불은 길을 겨우 비쳐주었다. 젊은이는 걸음마다 무엇에 부딪치고 발은 레루에 걸채였다. 얼마전부터 그는 멀리서 소나기라도 휘몰아치고있는듯 웅글게 들려오는 소리에 불안해졌다. 그 소리는 더욱더 높아져서 땅속에서 들려오는듯했다. 혹시 붕락되는 소리라면? 그래서 그들을 바깥과 갈라놓고있는 그 두터운 지층이 그들의 머리우에 무너져내린다면? 어둠속에서 무엇인가 번쩍거렸다. 에띠엔느는 땅이 흔들리는것을 느끼고 동료들처럼 벽으로 비켜섰다. 그러자 얼굴을 스칠듯이 육중한 흰말 한필이 탄차들을 끌고 지나갔다. 앞탄차우에는 베베르가 고삐를 잡고 앉아있었고 맨뒤에서는 쟝렝이 마지막탄차의 가장자리를 붙잡고 맨발로 달려갔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얼마후에 교차점이 나타났다. 거기로부터 두개의 새 굴이 갈라져나갔다. 로동자들은 다시 보다 작은 패로 갈라져 점차 매개 갱작업장으로 흩어졌다.

운반갱에는 동발을 대였다. 떡갈나무받침대로 천정을 지지하고 무너질수 있는 암반에 골조를 해세웠다. 동발사이로 운모가 빤짝이는 날이 선 지붕암과 뿌옇고 꺼칠꺼칠한 육중한 사암덩이들이 들여다보였다. 석탄을 실었거나 빈 탄차의 행렬이 끊임없이 덜커덩거리며 지나가고 서로 어기였다. 유령같은 말들이 어둠속에서 그 탄차들을 끌고있었다. 주차장의 어길수 있는 길에서는 동면을 하고있는 검은 뱀같은 탄차의 행렬이 멈춰서있었다. 말이 투레질을 하는데 어찌나 캄캄한지 어렴풋이 보이는 말궁둥이가 마치 천정에서 떨어진 바위덩이 같았다. 통풍기의 문이 끊임없이 열렸다가 천천히 닫기군 했다. 탄부들이 앞으로 걸어나감에 따라 갱도는 더 좁아지고 더 낮아졌으며 천

정이 고르지 못하여 부단히 허리를 구부려야 했다.
에띠엔느는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가죽모자를 쓰지 않았던들 그는 머리가 깨여졌을것이다. 그는 앞에 서서 걸어가는 마여의 모든 동작을 눈여겨 살펴보았다. 등불빛에 그의 륜곽이 드러났다. 다른 로동자들은 아무도 부딪치지 않았는데 그들은 매개 기둥과 동발의 련결부분들, 삐죽 나온 암석들을 잘 알고있었던 모양이다. 에띠엔느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몹시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 나갈수록 갱도는 더 질쩍질쩍했다. 그의 발은 진짜 진펄을 지난듯이 진창투성이가 되였다.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 놀란것은 온도의 급격한 변화였다. 수직갱바닥은 아주 서늘하더니 탄광의 모든 바람이 지나는 운반갱에서는 찬바람이 좁은 두 벽새로 폭풍처럼 울부짖으며 불어왔다. 그런데 통풍기에서 나오는 많지 않은 공기만이 들어오는 다른 갱에 그들이 깊이 들어감에 따라 바람은 차차 멎고 숨이 컥컥 막히면서 견디기 괴로울만치 무더웠다.
마여는 말이 없었는데 오른쪽 새 갱으로 접어들면서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에띠엔느에게 말을 건넸다.
《귀욤탄층이요.》
그들의 작업조가 이 탄층에서 일하고있었던것이다. 에띠엔느는 첫걸음부터 머리와 팔꿈치가 상하였다. 비스듬히 경사진 천정이 낮게 내려드리워서 몸을 한절반 굽히고 20～30메터의 거리를 걸어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하수가 발목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그들이 200메터를 걸어가자 갑자기 레바끄와 자샤리와 까뜨리느가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의 앞에 나타난 좁다란 틈새기로 날아가버린것 같았다.
《저리로 올라가야 하네.》 하고 마여가 일러주었다. 《등불을 단추에 꿰달고 두손으로 통나무를 붙들고 기여올라가게.》
그리고 마여자신도 사라졌다. 에띠엔느는 그의 뒤를 따라가야 했다. 탄층에 난 이 굴뚝같은 틈새기는 탄부들이 드나드는 통로로 되여있었다. 그 통로를 거쳐서야 모든 올리굴로 들어설수 있었던것이다. 틈새기는 탄층의 두께만 한데 겨우 60센치메터밖에 되지 않았다. 다행히도 젊은이몸이 여위여서 이런데서는 괜찮았지만 어쨌든 익숙하지 않아서 무척 애를 쓰며 올라가야 했다.
그는 어깨와 엉뎅이를 좁히고 통나무에 매달려 손목에 힘을 주고 전

진하였다. 15메터쯤 올라가서 그들은 첫 올리굴통로에 이르렀다. 그러나 앞으로 더 빠져나가야만 했다. 마여네가 일하는 막장은 그들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제6탄층에 있었던것이다. 약 15메터의 간격을 두고 올리굴들이 련달아있었다. 이 틈새기에서 등어리와 가슴을 긁히웠는데 오르기는 계속되였다. 에띠엔느는 바위의 무게에 짓눌려 사지가 부서지는듯 숨이 가빴다. 그의 두손은 온통 긁히우고 두다리도 터졌다. 그런데다가 그는 숨이 찼고 살가죽이 터져 피가 솟는듯싶었다. 그는 한 올리굴에서 몸을 구부리고 탄차를 밀고가는 두사람을 어렴풋하게 알아보았다. 한사람은 작고 다른 또 한사람은 뚱뚱했다. 그들은 이미 작업을 시작한 리디와 무께뜨였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두개의 탄층을 더 기여올라가야 했다. 땀이 너무 흘러내려서 눈까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암석을 미끄럽쳐가듯 하는 잽싼 동행자들을 따라가기를 그만 단념하고말았다.

《힘을 내세요. 이젠 다 왔어요!》 하는 까뜨리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에띠엔느가 목적지에 이르자 올리굴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된셈이요? 남을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요? 난 몽쑤에서 2키로메터나 걷고도 당신들보단 먼저 여기에 오잖았소!》

이렇게 웨친것은 솨발이였다. 뼈가 앙상하고 선이 두드러진 얼굴에 키가 늘씬하고 몸이 여윈 25살나는 그는 기다리게 했다고 역증이 잔뜩 났던것이다.

그는 에띠엔느를 보더니 놀란듯 멸시하는 어조로 물었다.

《저건 또 뭐야?》

마여가 그에게 사연을 이야기하자 그는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그렇군. 이제는 사내자식들이 계집애들의 밥줄을 빼앗을셈이군!》

에띠엔느와 솨발은 갑자기 이글이글 타는듯 하는 본능적인 증오의 눈초리를 서로 주고받았다.

에띠엔느는 아직 영문을 모르고 모욕을 느꼈다. 침묵이 흘렀다. 모두 일을 시작했다. 갱도들은 점차 사람들로 가득찼고 매개 탄층, 매개 올리굴의 막장들에서 작업이 시작되였다. 탐욕스러운 수직갱

은 자기의 일상적인 먹이량인 약 700명의 사람들을 삼키였던것이다. 이제는 로동자들이 모두 이 거대한 개미굴에서 구새먹은 나무를 쏠아먹듯 땅속의 여기저기에 길을 내면서 일을 했다. 무거운 침묵과 내리눌리우는 깊은 암층속에서 바위에 귀를 대고있으면 이러한 사람벌레들이 탄을 실은 승강기를 오르내리게 하는 쇠바줄소리로부터 채탄막장에서 석탄을 캐내는 공구들의 음향에 이르기까지 모두 들을수 있을것이였다.

돌아서면서 에띠엔느는 또다시 까뜨리느를 다치였는데 이번에는 까뜨리느의 젖가슴이 봉긋하게 두드러져나온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까뜨리느의 몸에 대일 때 자기의 온몸에 스며들던 그 온기가 어디서 나온것인지를 대뜸 알아차렸다.

《이제 보니 처녀였구만.》 하고 몹시 놀란 에띠엔느는 나직이 말했다.

까뜨리느는 얼굴도 붉히지 않고 도리여 유쾌하게 대답했다.

《그럼요! 그걸 첫눈에 알아보지 못해요! 정말!》

4

4명의 채탄공이 막장의 맨 꼭대기까지 아래우로 층층이 한자리씩 차지했다. 캐낸 석탄을 받게 한, 꺽쇠를 친 널판지들이 그들을 각각 갈라놓고있었다. 로동자들은 저마끔 약 4메터길이의 마구리를 차지했는데 그곳은 탄층이 너무 엷어서 겨우 50센치메터밖에 안되였다. 그래서 채탄공들은 천정과 벽사이에 납작하게 끼워서 팔굽과 무릎으로 기여다녔고 돌아설 때마다 어깨를 상하군 했다. 탄을 캐려면 그들은 옆으로 누워서 목을 돌리고 두팔을 들어 손잡이가 짧은 곡괭이를 비스듬히 휘둘러야 했다.

자샤리가 맨밑에 있었고 그우에 레바끄와 쇠발이 자리를 잡았고 끝으로 제일 높은 곳에서는 마여가 일하고있었다. 그들은 곡괭이로 편암층을 파내고 탄층에 두줄로 수직홈을 낸 다음 곡괭이를 박아 웃부분의 탄덩어리를 뜯어내였다.

기름기가 많은 탄덩이들은 잘게 부스러져 배와 허벅다리우로 굴러

내렸다. 널판지안으로 굴러내린 이런 덩어리들이 다리밑에 쌓이면 채탄공들은 좁은 틈새의 벽에 붙어 보이지 않았다.

마여는 누구보다도 제일 작업조건이 나빴다. 우에서는 온도가 35도까지 오르고 공기도 통하지 않아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였다. 어둠속에서 더 잘 보려고 그는 등불을 바로 머리우에 걸어놓았다. 그런데 그 등불이 어찌도 심하게 머리를 지지는지 온몸의 피를 다 태우는듯 했다. 그러나 가장 괴로운것은 물이였다. 그의 머리에서 불과 4～5센치메터밖에 안되는 높이의 암반에서 지하수가 새여나와 큰 물방울이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한자리에 집요하게 계속 떨어지고있었다. 그는 머리를 돌려 목덜미를 제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물방울은 막무가내로 연신 떨어져 마여의 얼굴을 적시였다. 15분이 지나자 그는 땀에 흠뻑 젖어 삶아 빠는 옷처럼 더운 김을 뿜어올렸다. 이날 아침에는 물방울 하나가 곧바로 그의 눈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는 투덜거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일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고 책갈피에 끼워 압박을 받는 벌레처럼 두 암반사이에서 온몸을 비비대며 있는 힘을 다 써서 곡괭이질을 계속했다.

모두 말 한마디없이 묵묵히 일만 하고있었다. 마치도 먼데서 울려오는듯 한 고르롭지 못한 은은한 공구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통하지 않는 공기속에서 울리지 못하고 거쉰 소리로 들려왔다. 어둠은 떠도는 석탄가루와 눈앞을 흐리게 하는 가스로 해서 더 짙어진것같았다. 쇠그물을 씌운 등불들은 희미하고 불그레한 빛만을 던지고있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려볼수 없었다. 우로 뻗은 시커먼 올리굴은 여러해 검댕이가 케로 앉은 넙적하고 비스듬한 큰 굴뚝같았다. 그 캄캄한 속에서 그 무슨 유령과 같은 형체들이 어물거리고있었다. 가물거리는 희미한 불빛이 어둠속에서 둥실한 엉덩이며 매듭진 팔이며 범죄자들처럼 알아보기 힘들게 새까맣게 검댕이칠을 한 사나운 얼굴을 드러내군 했다. 탄덩어리들이 떨어지면서 수정체의 급작스런 반사광에 벽의 일부와 모서리가 이따금 어둠속에서 번뜩거렸다. 그리고는 다시금 모든것이 어둠속에 잠겨 곡괭이질을 하는 웅글은 소리며 괴로운 숨소리며 지치고 견딜수 없는 더위와 지하수때문에 투덜거리는 말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올뿐이였다.

전날 결혼식에서 너무 술을 마셔서 나른해진 자샤리는 동발을 세우

겠다는 핑게로 곧 일자리를 떴다. 그래서 좀 쉴수 있게 된 그는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며 멍하니 어둠속을 바라보았다. 채탄공들의 뒤에 3메터가량의 공간이 생겼는데도 그들은 위험한 생각은 하지 않고 품을 아끼느라고 거기에 동발을 세우려 하지 않았다.

《이 사람, 이 젊은 선비!》 하고 자샤리가 에띠엔느에게 소리를 쳤다. 《동발을 이리 가져오게.》

까뜨리느에게서 삽 다루는 법을 배우고있던 에띠엔느는 널판지들을 가져다주어야 했다. 널판지들은 전날 쓰던 예비가 조금 있었다. 널판지들은 매 탄층의 크기에 맞게 자른것인데 그것들은 보통 아침에 이리로 내려보내주군 했다.

《빨리 해, 굼벵이같으니, 빌어먹을것.》 자샤리는 새 운반공이 4개의 참나무동발을 들고 석탄더미사이에서 서툴게 몸을 일으키는것을 보자 이렇게 고함을 쳤다.

채탄공은 곡괭이로 천정과 벽에 홈을 하나씩 파내고 암반을 받칠 동발의 두끝을 거기에 맞춰넣었다. 점심후에 버럭을 파내는 로동자들이 채탄공들이 막장에 남겨둔 버럭을 처리하고 동발을 그대로 남겨둔채 다 파먹은 탄층을 메우고 아래우의 운반통로만을 내놓을것이였다.

마여는 더 투덜거리지 않았다. 그는 드디여 한무지 뜯어내였다. 얼굴에 철철 흐르는 땀을 옷소매로 훔치고나서 자기뒤에서 자샤리가 뭘 하는지 보려고 얼굴을 돌렸다.

《그건 그만둬.》 하고 그는 말했다. 《점심을 먹고 보자. 석탄이나 파려무나. 그렇지 않으면 정량을 다 채우지 못해.》

《문제는》 하고 젊은이가 말했다. 《여기가 내려앉기 시작한데 있어요. 보세요. 벌써 틈이 났는데요. 붕락이 될가봐 걱정이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였다. 그렇다! 붕락이 있을수 있다! 그런 일을 처음 겪는것도 아닌데 여하튼 무사하겠지! 드디여 아버지는 성이 나서 아들을 막장으로 쫓아보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일을 하지 않고있었다. 레바끄는 뒤로 벌렁 자빠져서 락반된 돌에 찢기여 피가 터진 왼손을 들여다보면서 투덜거리고있었다. 솨발은 화가 나서 내의를 훌떡 벗어붙이고 몸뚱이를 허리까지 드러내놓았다. 몸을 식히자는것이였다. 그들은 석탄가루에 온몸이 벌써 새까매졌다. 땀에

물반죽이 된 탄가루는 까만 물줄기를 이루며 그들의 몸에서 줄줄 흘러내렸다. 마여는 머리를 암반에 스칠듯이 더 낮추고 선참으로 다시 일에 접어들었다. 물방울이 어찌나 지꿎게 이마우에 떨어졌던지 종당에는 두개골에 구멍을 뚫을것만 같았다.

《저 사람들에게 주의를 돌릴 필요는 없어요.》 하고 까뜨리느가 에띠엔느에게 일렀다. 《저들은 늘 저렇게 아웅다웅해요.》

처녀는 다시금 친절하게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석탄을 싣고 막장을 떠나 밖에 나오는 탄차마다에는 특별한 패쪽이 붙어있는데 그 패쪽을 보고 갱구 감시원이 매 작업조의 채탄량을 계산하는것이다.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깨끗한 석탄만을 가득 실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탄차를 인수하지 않을수 있었다.

어둠에 점차 눈을 익힌 젊은이는 까뜨리느의 피기없는 하얀 얼굴을 쳐다보았다. 에띠엔느는 까뜨리느의 나이를 좀처럼 알아낼수 없었다. 얼핏 보기에는 그가 열둬살되는상싶었다. 그만치 그는 연약했다. 그러나 까뜨리느는 더 나이가 들어보이기도 했는데 사내아이처럼 불임성이 있었고 순진하면서도 당돌하게 굴었다. 그래서 에띠엔느는 저으기 당황했었다. 관자노리까지 모자를 푹 내려쓴 사내아이같은 그의 머리와 조그마하고 창백한 얼굴이 에띠엔느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처녀가 힘이 있고 탄력이 있고 민첩한것이 에띠엔느를 무척 놀라게 했다. 까뜨리느는 고르롭고 빠르게 삽질을 하여 에띠엔느보다 빨리 자기의 탄차를 채웠고 단번에 떠밀어서 탄차를 경사갱도까지 밀고나갔는데 아무데도 걸리지 않고 낮은 천정밑을 슬슬 빠져나가는것이였다. 에띠엔느는 상하기도 하고 탄차가 탈선되여 곤궁에 처하군 했다.

기실 길은 좋지 않았고 막장에서 경사갱도까지는 60메터나 되였는데 버럭처리공들이 아직 넓히지 못한 통로는 천정이 아주 고르지 못했고 울퉁불퉁한 하나의 진짜 참호같았다. 어떤 곳에서는 석탄을 실은 탄차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여서 운반공은 머리를 상하지 않도록 무릎걸음을 하면서 탄차를 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게다가 동발들은 휘여들고 어떤것은 벌써 군데군데 갈라졌는데 그런 동발들은 한복판에 긴 틈이 보일 정도로 부러졌고 지지대는 몹시 약하였다. 몸을 긁히우지 않기 위하여서는 아주 조심해서 지나가야만 했다. 허벅다리만큼 굵

은 참나무동발도 부러뜨릴수 있는 침하된 탄맥의 짐에 눌리여 갑자기 잔등이 부서질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에 휩싸여 배를 땅에 대고 벌벌 기여다니였다.

《또!》 하고 까뜨리느는 웃으면서 말했다.

에띠엔느의 탄차가 통로의 가장 험한 곳에 와서 탈선을 했던것이다. 에띠엔느는 질쩍질쩍한 땅에 박혀있는 궤도우로 탄차를 곧장 밀지 못했다. 그는 화가 나서 바퀴와 씨름을 하였지만 무진 애를 써도 제자리에 올려놓을수 없었다.

《좀 기다려요.》 하고 처녀가 말을 이었다. 《성을 내면 아무것도 안돼요.》

까뜨리느는 재치있게 탄차밑으로 뒤걸음쳐 기여들어가 한번 힘을 불끈 주어 등으로 탄차를 번쩍 들어 궤도우에 올려놓았다. 탄차의 무게는 700키로그람이나 되는것이였다. 저으기 놀라고 무안해진 에띠엔느는 미안하다는 말을 더듬었다.

까뜨리느는 다리를 벌리고 갱도의 량 측면에 서있는 동발에 튼튼히 의지하여 견고한 지지점을 얻어야 한다는것을 에띠엔느에게 가르쳐주었다. 몸을 앞으로 숙이고 두팔을 쭉 뻗치여 어깨와 엉뎅이의 온 근육으로 탄차를 밀어야 한다는것이였다.

한번 나르는 동안 에띠엔느는 탄차를 밀고가는 까뜨리느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자세를 주의해보았다. 까뜨리느는 궁둥이를 내밀고 두주먹은 어찌나 낮추었던지 그것은 마치도 교예에서 보여주는 난쟁이 짐승처럼 네발걸음으로 기여가는것 같았다.

처녀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숨이 차고 뼈마디마다 뚝뚝 소리를 내여도 마치 모두가 가난해서 이처럼 굴종적으로 살아간다는듯이 보통때처럼 랭담해서 한마디 하소연도 없었다. 에띠엔느는 그처럼 할수 없었으니 신발은 거치장스러웠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몸을 웅크린채 움직여야 했기때문에 맥이 푹 빠졌다. 몇분후에는 그러한 자세가 어찌나 괴롭고 참을수 없는 고통으로 되였던지 그는 잠시라도 등을 쭉 펴고 숨을 돌리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다음으로 경사갱에서는 또 하나의 고역을 치르어야 하였다. 까뜨리느는 탄차를 바삐 련결하는 법을 에띠엔느에게 가르쳐주었다. 모든 막장의 저탄장사이를 통하는 이 경사갱도의 아래우에는 한사람씩의 보

조공들이 있었다. 한사람은 탄차를 우에서 아래로 내려보내고 다른 한 사람은 밑에서 그것을 받았다. 열두어살, 열댓살 나는 이 장난꾸러기들은 상스러운 말을 마구 주어댔는데 그들에게 그러지 못하게 하느라면 그보다 더 모진 욕설을 퍼부어야 했다. 빈 탄차가 아래쪽에서 나타나면 갱구감시원이 곧 신호를 한다. 석탄이 가득찬 탄차를 운반공이 련결시키면 제동공은 제동을 풀어준다. 그러면 탄차는 자기의 무게로 다른 빈 탄차를 끌어올리면서 내려간다. 아래쪽막장의 갱도에서는 석탄을 만재한 탄차들이 련결되면 그것을 말들이 수직갱까지 끌고 간다.

《에! 이 못된 놈들아!》 까뜨리느는 동발을 완전하게 들인 길이가 100메터나 되는 갱이 울리게 마치 큰 확성기로 말하듯이 소리를 쳤다. 보조공들은 휴식을 하고있는지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 모든 탄층들에서 운반작업이 정지되였고 가느다란 소녀의 목소리만이 들려왔다.

《한놈이 무께뜨와 장난을 하고있는게 틀림없어!》

사방에서 와— 하고 웃음소리가 터졌다. 모든 갱도의 녀운반공들이 배를 그러쥐고 깔깔 웃어댔다.

《저건 누구요?》 하고 에띠엔느가 까뜨리느에게 물었다.

까뜨리느는 리디라는 어린 소녀라고 대답했다.

리디는 아는것이 많고 인형처럼 팔이 가늘어도 나먹은 녀자들 못지않게 탄차를 민다는것이였다. 무께뜨로 말하면 두녀석과 동시에 노는 솜씨가 있다고 말했다.

때마침 탄차들을 련결시키라는 갱구감시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왔다. 아마 아래쪽으로 감독이 지나가고있는상싶었다. 아홉개의 전체 탄층들에서 운반작업이 다시 시작되였다. 사람을 부르는 보조공들의 규칙적인 목소리와 무거운 짐을 끄는 말처럼 김이 문문나는 운반공들이 씩씩거리며 갱에 도착하는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그것은 웅뎅이에서 헐떡거리는 짐승들같았다.

에띠엔느는 매번 돌아와 무더운 막장으로 들어설 때마다 웅글고 지친 곡괭이질소리와 작업에 겸질기게 달라붙은 채탄공들의 꺼지는듯 한 무거운 한숨소리를 듣군 했다. 네사람이 다 벌거벗다싶이하고 머리에서 발꿈치까지 석탄을 뒤집어써서 새까맣게 되여있

었다. 한번은 석탄을 떨구느라고 숨가빠하는 마여를 끄집어내고 널판지를 들어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자샤리와 레바끄는 탄층이 더욱더 굳어져 그렇지 않아도 손해가 막심한데 더 어렵게 되여 격분하였다. 솨발은 이따금 몸을 돌리고 뒤로 자빠져서 에띠엔느에게 욕질을 했다. 에띠엔느가 나타나서 분명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한 모양이였다.

《저런 늘메기같은 놈 봤나! 계집애들만도 힘이 못하거던. … 그러고도 무슨 탄을 싣는다구, 응? 넌 몸을 아끼는거야! 똑똑히 알아둬. 네 덕분에 우리가 한차라도 접수를 못 시키는 날이면 네게서 10쑤를 뗄테다!》

젊은이는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

고역이지만 이런 일자리를 구할수 있은것을 다행으로 여기고있는 에띠엔느는 기본로동자와 보조공사이에 존재하는 란폭한 차별제도를 받아들이였다. 그러나 그는 더 움직일 힘이 없었다. 발은 피투성이가 되고 사지에 심한 경련이 일었으며 몸뚱이는 그 어떤 무쇠띠로 졸라매놓은것 같았다.

다행히도 10시가 되였다. 채탄공들은 점심을 먹기로 작정하였다.

마여는 시계를 가지고있었으나 그것은 보지도 않았다. 이 빛없는 어둠속에서도 그는 단 5분도 틀리는 법없이 시간을 잘 알아맞혔다. 모두들 벗어제낀 내의와 웃옷들을 다시 입었다. 막장에서 내려온 그들은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발뒤축으로 엉뎅이를 고이고 쪼크리고 앉았다. 이 앉음새가 탄부들에게 어찌나 습관이 되였던지 그들은 갱밖에 나와서도 걸터앉을 돌이나 통나무가 없어도 무방했다. 이윽고 모두가 점심을 꺼내서 빵덩이를 큼직하게 떼여씹으면서 이따금 아침작업에 대하여 한두마디씩 주고받았다. 까뜨리느는 서서 빵을 먹다가 좀 떨어져서 동발에 기대고 궤도우에 드러누운 에띠엔느에게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거의 마른 자리가 하나 있었다.

《무얼 먹지 않아요?》 입에 빵을 한입 물고 한손에 빵쪼각을 든 까뜨리느가 이렇게 물었다. 그다음 까뜨리느는 에띠엔느가 모름지기 돈 한푼없이 빵 한쪼각도 먹지 못하고 온밤 헤매였으리라는것을 상기하였다.

《어때요, 같이 나눌가요?》

에띠엔느는 허기가 져서 목소리까지 떨렸지만 자기는 전혀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했다.

《께름직해서 그러는군요! 가만있어요! 난 한쪽으로만 먹었어요. 이쪽을 떼여주지요.》

까뜨리느는 빵을 절반으로 쪼갰다. 젊은이는 그 절반을 받았다. 그는 빵쪼각을 단번에 삼켜버리고싶은 마음의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그는 후들후들 몸이 떨리는것을 처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느라고 두 손으로 허벅다리를 잡았다. 까뜨리느는 다정한 동무처럼 태연하게 그의 옆에 몸을 쭉 펴고 엎드렸다. 그는 한손으로 턱을 고이고 다른 한 손에 겹빵을 들고 조금씩 떼여먹었다. 그들 둘사이에 놓인 등불이 그들을 훤하게 비치였다.

까뜨리느는 잠시 말없이 에띠엔느를 쳐다보았다. 코밑수염이 새까맣고 얼굴이 부드러운것이 미남자로 여겨졌다.

까뜨리느의 입가에는 즐거워진 미소가 스쳐지나갔다.

《당신은 기계수리공인데 철도에서 쫓겨났다고 했지요. 무엇때메 그랬어요?》

《상전의 뺨을 때렸기때문이지.》

까뜨리느는 그러한 대답을 듣고 아연실색을 했다. 그는 남에게 종속되여 무조건 순종하는것을 조상대대로 물려받았던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난 술에 취해있었어.》 하고 에띠엔느는 말을 이었다. 《난 술에 취하면 미친 사람처럼 되여 누구나 가리지 않고 때리고싶단 말이요. 그래서 술 두잔만 들이키면 누굴 때리고싶어 몸살이 나오. … 그리고는 이틀쯤 누워 앓지.》

《술을 마셔서는 안돼요.》 하고 까뜨리느는 정색해서 말했다.

《걱정마오. 난 자기를 알고있으니까!》

그리고 에띠엔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는 술을 증오했다. 술에 대한 그의 혐오감은 대대로 알콜때문에 자기의 신세를 망친 술주정군들의 마지막세대가 느끼게 되는 그러한 혐오감이였다.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서는 한방울의 술이 독약과 같이 되여버렸다.

《거리에 쫓겨나고보니 어머니가 가엾더라니.》 하고 에띠엔느는

빵쪼각을 떼여 삼키면서 말했다.
《어머니는 넉넉치 못한 생활을 하고있었소. 그래서 나는 이따금 100쑤짜리 한잎씩 보내드렸소.》
《그럼 어머닌 어디 계셔요?》
《빠리… 구뜨 오르거리에… 세탁부요.》
잠시 말이 끊어졌다. 그가 이런것들을 생각할 때면 청년의 긴장한 가슴속에 이름 못할 마음의 상처가 되살아나 그의 검은 두눈이 흐려지고 떨리였다. 잠시 그는 갱도의 어둠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자 숨막히는 짐을 받고있는 이 땅속에서 자기의 어린시절과 아직도 아름답고 씩씩한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우련히 떠올랐다. 아버지의 버림을 받은 어머니가 재가를 하자 그에게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 어머니는 두 남편사이에서 뜯기울대로 뜯기우고 술과 시궁창같은 속에 굴러떨어져 그들과 함께 살아왔다. 에띠엔느는 자기들이 살던 거리며 세탁소안에 쌓인 더러운 내의들, 집안에 악취를 풍기는 술냄새, 광대뼈가 부서지게 뺨을 얻어맞는 매질 등 모든것이 삼삼히 눈앞에 떠올랐다.
《이제는》 하고 에띠엔느는 느릿느릿 말했다.
《호주머니에 들어올 30쑤로 어머니를 도와드릴수도 없을거구 그가 가난에 쪼들릴것은 틀림없소.》
에띠엔느는 절망에 빠져서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금 빵쪼각을 씹었다.
《마시겠어요?》 하고 까뜨리느가 물병의 마개를 뽑으면서 물었다. 《커피예요. 마셔서 해롭진 않을거예요. 마른걸 강다짐으로 먹으면 목이 메지요.》
그러나 에띠엔느는 사양했다. 그의 빵을 절반 먹은것만 해도 과분하였다. 까뜨리느는 상냥한 얼굴로 고집스레 계속 권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내가 먼저 마시겠어요, 그렇게 례절을 지킨다면. … 그대신 이번에는 거절해서는 안돼요. 그렇게 되면 도리여 실례예요.》
까뜨리느는 무릎을 꿇고 일어나서 그에게 물병을 내밀었다. 이때 에띠엔느는 두개의 등불에 비쳐진 그 처녀를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다. 어째서 아까는 그를 곱지 못하다고 생각했을가? 온몸이 새까맣게 되

고 얼굴이 석탄가루투성이로 된 지금 처녀는 에띠엔느에게 류달리 매력있게 보였다. 그늘진 얼굴의 지나치게 큰 입안에서 새하얀 이발들이 반짝거렸다. 크게 뜬 두눈은 고양이눈처럼 파란 불빛으로 빛난다. 밤빛머리채가 모자밑에서 삐여져나와 그의 귀를 간지럽혔고 그로 하여금 생글생글 웃음을 짓게 했다. 그는 그닥 나어린 처녀로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열네살은 된것 같았다.

《정 그렇다면.》 하고 에띠엔느는 물병을 받아 조금 마시고 다시 까뜨리느에게 되돌려주었다.

까뜨리느는 또 한번 꿀꺽 들이키고나서 에띠엔느더러 자기처럼 마시라고 일렀다. 그것은 그가 말한것처럼 두사람이 꼭같이 마시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물병의 좁은 주둥이가 이 입에서 저 입으로 오가는 것이 재미있었다. 갑자기 그의 머리에는 까뜨리느를 덥석 붙안고 입을 맞추고싶은 충동이 일었다. 희미한 장미빛의 도톰한 입술을 보자 에띠엔느는 격렬한 욕망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감히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릴르에서 여러 처녀들과 그것도 천한것과만 관계를 맺았던 그는 부모가 있는 녀성로동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나이가 열네살쯤 되지?》 에띠엔느는 빵을 또 먹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처녀는 놀라서 성을 내다싶이 하였다.

《뭐라구요! 열네살이라니 난 열다섯살인데… 하긴 난 키가 작아요. 여기 처녀들은 발육이 아주 늦어요.》

에띠엔느는 까뜨리느에게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았다. 그러면 처녀는 아무 꺼리낌도 없이 대답했다. 게다가 까뜨리느는 나쁜 공기와 고역속에서 성숙이 늦은 숫처녀, 순진한 아이처럼 보이지만 남성과 녀성에 대하여 모르는것이 없었다. 에띠엔느는 까뜨리느가 난처해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무께뜨의 이야기를 또 꺼냈는데 처녀는 태연하고도 유쾌하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사건을 이야기하였다. 그렇다. 무께뜨는 희한한짓을 하군 하였다. 에띠엔느가 까뜨리느에게 애인이 없느냐고 묻자 까뜨리느는 어머니의 애를 태우고싶지 않으나 조만간 자기에게도 별수없이 그런 사람이 생기리라고 롱삼아 대답했다. 까뜨리느는 옷이 땀에 후줄근히 젖어 추워서 몸을 약간 떨면서 등을 구

부렸다. 처녀는 모든것,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숙명적이고 부드러운 기색을 지었다.

《모두 함께 사느라면 애인도 생기기마련이지. 그렇지 않아?》

《아무렴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해를 주진 않겠지. 허지만 주임사제에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

《원, 주임사젠 무섭지도 않아요! 허지만 검은 사람이 문제예요.》

《검은 사람이란건 또 뭐요?》

《늙은 탄부예요. 탄갱에 나타나서 못된 처녀들의 목을 비틀어놓는단 말이예요.》

에띠엔느는 까뜨리느가 자기를 조롱하는줄로 생각하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런 어리석은 이야길 믿소? 이제 보니 영 무식쟁이로군.》

《어째서요. 난 글을 읽고 쓸줄 알아요. 아버지, 어머닌 어릴적에 배우지 못했기때문에 나를 써먹어요.》

그야말로 까뜨리느는 무척 친절하였다. 그래서 에띠엔느는 까뜨리느가 겹빵을 다 먹으면 곧 그를 그러안고 도톰한 장미빛입술에 입을 맞추리라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망설였다. 그것은 입밖에 낼수 없는 란폭한 생각이였다. 처녀가 몸에 걸친 남자저고리며 바지가 그를 흥분도 시켰고 점직하게도 했다. 그는 마지막빵쪼각을 삼켰다. 커피를 한모금 마신 에띠엔느는 물병을 처녀에게 넘겨주어 그것을 마저 마시도록 했다. 이제 행동에로 넘어갈 순간이 되였다. 그는 저만치 떨어져 앉아있는 탄부들을 불안스레 곁눈질해보았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웬 그림자가 불쑥 나타나서 앞을 막아서는것이였다.

솨발은 이미 몇분전부터 일어서서 멀찌감치에서 그들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가까이로 다가와서 마여가 자기를 보지 못한다는것을 확신하자 땅에 앉아있는 까뜨리느에게 바싹 다가서서 그의 두어깨를 잡고 얼굴을 뒤로 젖히고 처녀의 입에 대고 란폭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는 에띠엔느를 상관함이 없이 아주 태연스레 이런짓을 했다. 이렇게 입을 맞추어서 자기 소유라는것과 일종의 질투심을 보여주었다. 처녀는 화를 발칵 냈다.

《놓아요. 들었어요!》
쏴발은 까뜨리느의 머리를 붙들고 그의 두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홍당무우빛 코밑수염과 턱수염은 큰 매부리코가 붙은 그의 꺼먼 얼굴에서 불타듯 했다. 드디여 쏴발은 그를 놓고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갔다.
에띠엔느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기다린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제 물론 그는 까뜨리느를 모욕하지 않을것이다. 까뜨리느가 그도 다른 사람들과 같다고 아마도 생각할것이기때문이였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진짜 절망을 느꼈다.
《왜 거짓말을 했소?》 하고 에띠엔느가 조용히 물었다. 《저 사람은 애인이 아니요?》
《아니예요. 맹세해요!》 하고 까뜨리느는 웨쳤다. 《우리사이엔 그런 관계가 조금도 없어요. 이건 그저 장난이예요. 저 사람은 여기 사람도 아닌걸요. 그는 빠 더 깔래에서 온지 겨우 반년밖에 안돼요.》
또다시 일이 시작되여 두사람은 일어섰다. 까뜨리느는 에띠엔느가 몹시 쌀쌀해진것을 보고 락심하는것 같았다. 의심할바없이 까뜨리느는 에띠엔느를 쏴발보다 더 미남으로 생각하고있었다. 어쩌면 그가 에띠엔느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그에게 무엇이든 정다운 이야기를 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싶은 생각이 처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희끄무레한 넓은 고리가 달린 등불이 파랗게 타는것을 지켜보고있는 놀란 그를 보고 까뜨리느는 하다못해 그의 기분이라도 풀어주리라 결심했다.
《같이 가세요. 보여드릴게 있어요.》 하고 까뜨리느는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까뜨리느는 에띠엔느를 막장안으로 데리고가서 탄층에 난 틈새를 보여주었다. 거기서는 무엇이 끓고있는 소리가 새들이 지저귀는듯 한 가냘픈 소리처럼 새여나왔다.
《손을 대봐요. 바람이 나오는게 알려요?… 이건 가스예요.》
에띠엔느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바로 모든것을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그 무서운것이였다. 까뜨리느는 오늘 그것이 아주 많아졌으며 바로 그래서 등불이 매우 파랗게 타고있다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그만 지껄이지 못해? 게으름뱅이들 같으니!》 하고 마여가 거친

어조로 웨쳤다.

까뜨리느와 에띠엔느는 자기 탄차에 바삐 석탄을 싣고 허리를 구부리고 갱도의 고르지 못한 천정밑을 빠져서 경사갱도쪽으로 밀고나갔다. 두번 왕복을 하자 그들에게는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뼈마디가 다시금 우직거렸다.

막장에서는 채탄공들이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자주 점심식사시간을 줄였다. 해볕을 멀리 떨어져서 게걸스럽게 먹은 겹빵은 위속에서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되도록이면 더 많은 수량의 탄차를 채우려는 한가지 생각에만 골똘하여 그들은 모로 누워서 더 세차게 석탄을 캐내였다. 모두가 맹렬하게 경쟁적으로 벌이에만 열중하였다. 그들은 팔과 다리들을 퉁퉁 부어오르게 하는 물도, 불편한 자세로 해서 오는 경련도 숨막히는 어둠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어둠속에서 그들은 지하실의 식물처럼 창백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갱내의 공기는 더욱더 독성을 띠고 등불에서 피우는 연기와 숨을 쉴 때 생기는 악취, 질식성가스로 해서 뜨겁게 달아올라 거미줄처럼 눈을 못 뜨게 하였다. 그 공기는 야간통풍을 통해서 맑게 할수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탄부들은 거기 두더지굴같은데서 지압에 눌려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른 가슴을 식히지 못한채 석탄을 파내고 또 파내였다.

5

마여는 작업복주머니에 넣은 시계를 보지도 않고 작업을 멈추더니 말을 건넸다.

《오래지 않아 한시다. 자샤리, 다 됐어?》

젊은이는 얼마전부터 동발을 세우고있었다. 작업이 한창일 때 그는 뒤로 반듯이 누워 눈이 멀뚱멀뚱해서 전날 당구치던 일을 상기하고있었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어 대꾸를 했다.

《이젠 됐어요. 래일건 두고봐야지요.》

그리고 그는 막장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레바끄와 쇄발도 곡괭이를 내던졌다. 휴식시간이 되였던것이다. 모두 벗은 팔굽에 얼굴을 훔치

고 틈이 갈라진 지붕암으로 이루어진 천정의 암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굴러내린 흙더미우에 주저앉게 됐으니 역시 운수가 좋군! 그놈들은 홍정하면서 이런건 고려하지 않았거던.》 솨발이 중얼거렸다.

《협잡군들같으니!》

《어떻게 하든 우릴 골탕먹일 궁리만 한다니까.》 하고 레바끄가 투덜대였다.

자샤리가 웃기 시작하였다. 그는 작업이나 여느 모든 일에 대해선 무관심하였으나 회사에 대한 욕이 나오면 재미있어하였다. 조용한 낯으로 마여는 매 20메터마다 지층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아무것도 예측할수 없는것만큼 정당하게 처신하여야 하였다. 둘이 계속 고용주들을 욕하는 바람에 마여는 근심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용들 하라구, 여보게들! 그만 됐어!》

《임자가 옳아.》 하고 레바끄도 역시 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이건 위험한짓이야.》

밀정에 대한 공포는 이 깊은 곳에서도 그들을 괴롭혔다. 마치 주주의 탄층에 귀라도 있는것 같았다.

《그러나》 하고 솨발이 도전이나 하듯이 큰소리로 말했다. 《 그 더러운 당싸에르놈이 요전처럼 그런 투로 또다시 내게 말한다면 그놈의 배때기에 벽돌장을 처넣을테야. … 그자가 살결이 매끄러운 갈보에게 돈을 쓰고 다니는것을 훼방놓는것도 아닌데.》

이번에도 자샤리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웃었다. 도감독이 삐에롱의 안해에게 정을 두고 다니는것은 갱의 끊임없는 화제거리였다. 올리굴 아래쪽에서 삽을 쥐고 서있던 까뜨리느가 너무 우스워서 허리를 그러쥐였다. 까뜨리느는 그 사연을 에띠엔느에게 간단히 이야기해주었다. 한편 공포감을 감출수 없었던 마여는 발칵 화를 냈다.

《가만있지 못해! 혼나고싶으면 혼자 기다려.》

그가 미처 말을 끝맺기도 전에 웃쪽 올리굴에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곧 도감독 당싸에르가 탄갱기사인 꼬마 네그렐(로동자들은 저들끼리 그를 이렇게 불렀다.)과 동행하여 나타났다.

《내가 말하지 않았어?》 하고 마여가 속삭였다. 《저자들은 늘 땅

속에서 솟아오르듯이 불쑥 나타나거던.》
엔보씨의 조카인 폴 네그렐은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코수염이 갈색인 스물여섯나는 날씬하고 말쑥한 청년이였다. 뾰족한 코와 생기있는 두눈은 상냥하고 지혜로우면서도 회의적인 인상을 주었는데 그것은 로동자들과의 관계에서 권위를 엄격히 세우는것으로 변하군 하였다. 그는 로동자들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있었고 그들처럼 석탄투성이가 되여있었다. 네그렐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을 자아내고저 붕락이나 가스폭발과 같은 위험성이 있는 곳에 언제나 앞장서서 자기 몸을 내대는 용감성을 보여주군 하였다.
《여기가 아니요? 당싸에르?》 하고 그는 물었다.
주먹코에 코구멍을 자주 흠씰거리고 얼굴이 번지르르한 벨지끄인 도감독은 지나치게 공손한 어조로 대꾸했다.
《그렇습니다. 네그렐씨… 오늘 아침에 채용한 사나이는 바로 저 사람입니다.》
두사람은 갱도의 중간까지 내려와서 에띠엔느를 가까이로 불렀다. 기사는 자기의 등불을 들어올리며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에띠엔느를 쳐다보았다.
《좋소.》 하고 그는 드디여 말했다. 《거리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는게 난 질색이요.… 제발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는 해야 할 일이며 녀자운반공을 남자로 바꾸어야 하겠다는 로동자들의 이야기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채탄공들이 다시금 곡괭이를 들자 네그렐은 올리굴의 천정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큰소리로 말했다.
《여보 마여, 당신들은 목숨이 귀중하지 않소? 당신들은 죄다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죽을게요, 제기랄.》
《일없수다. 견디여내겠지요.》 하고 로동자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어떻게 견디여낸단 말이요. 탄층은 벌써 내려앉고있지 않소. 당신들은 2메터이상의 거리에 동발을 하나씩, 그것도 마지못해 박아넣고있단 말이요. 당신들은 모두 한가지야. 머리통이 깨지기 전에 일을 중지하고 동발을 세우시오. 제발 당장 내 말을 듣소. 그리고 동발수를 두곱으로 늘구시오. 알겠소?》

탄부들이 자기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정확히 판단한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자 그는 발칵 화를 냈다.

《그래 자기 머리가 터지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소? 천만에. 그에 대해선 회사가 당신들 아니면 당신들의 처자들에게 년금을 지불해야 한단 말이요. 다시말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잘 알고있소. 저녁마다 석탄 두탄차를 더 캐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댄단 말이요.》

마여는 가슴속에 격분이 치솟았으나 나직이 말했다.

《우리에게 넉넉히 지불해주었다면 동발을 더 잘 세웠을거요.》

기사는 잠자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갱도를 다 지나가서 맨아래에 이르자 이렇게 소리쳤다.

《이제 한시간 남았소. 모두 작업에 착수하오. 당신의 작업조는 3프랑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것을 경고하오.》

기사의 말에 로동자들은 웅얼웅얼 불평으로 대답했다. 오직 상하관등급제도의 힘, 보조공으로부터 도감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상하관계에 따라 호상 종속시키고있는 군사관등급제도만이 탄부들의 불평을 눌러버렸다. 그러나 솨발과 레바끄는 격분을 감추지 못했다. 마여는 눈짓으로 그들을 진정시키였다. 자샤리는 비웃는듯이 어깨를 으쓱하였다. 에띠엔느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흥분한것 같았다. 이 지옥에 들어온 때로부터 그의 가슴에서는 알지 못할 격분이 치솟았다. 그는 등이 구부정한 공손한 까뜨리느를 쳐다보았다. 빵을 살 몇푼의 돈도 벌지 못하면서 죽음의 어둠속에서 고된 로동으로 이렇게 죽어갈수 있단 말인가.

그러는 사이에 네그렐은 그에 수긍하듯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섰던 당싸에르와 함께 물러갔다.

잠시후 그들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그들은 탄부들이 세우고있는 막장뒤 10메터구간의 동발들을 살펴보고있었다.

《당신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모든것을 꿈만하게 생각하고있소!》 하고 기사가 큰소리를 쳤다.

《당신도 일 잘하오. 제기랄!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감시하지 않았구려.》

《감시를 안하다니요.》 하고 도감독이 웅얼거렸다. 《그들에게 그 소리를 하느라고 지칠 정도인데요.》

네그렐은 큰소리로 웨쳤다.

《마여, 마여!》

모두 아래로 내려갔다. 기사는 말을 이었다.

《여길 보오. 이것이 견딘단 말이요?… 모두 되는대로 해놓았소. 이런 동발은 아무 쓸모도 없소. 조급히 박아넣은것이 뻔하오. 어째서 보수비가 비싸게 먹는지 이제 알았소. 당신들에게 책임이 있는 동안만 견디여내면 된다는거지. 그러면 후에 죄다 무너질게고 회사는 대보수부대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단 말이요. … 여길 보오. … 이것은 틀림없이 서툰 솜씨로 못쓰게 해놓은거요.》

쇄발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였으나 네그렐이 말을 못하게 했다.

《그만두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는 알만 하오. 당신들에게 돈을 더 지불하라는거지요? 좋소. 당신들이 관리부에 대책을 요구해보오! 그렇소. 동발세우는 값을 따로 지불하고 그대신 매 탄차에 대한 보수를 그에 비례해서 낮추는수밖에 없소. 이렇게 하는것이 당신들에게 유리한지 어디 봅시다. 그때까지 동발들을 즉시 고쳐세우시오. 래일 와보겠소.》

그리고 네그렐은 자기의 위협으로 해서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 자리에서 물러갔다. 네그렐앞에서 굽실거리던 당싸에르는 몇초동안 멈춰서서 로동자들에게 거치른 어조로 말했다.

《정말 당신들은 날 난처하게 만든단 말이요. 내가 당신들한테서 3프랑의 벌금을 받아내는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주의하란 말이요!》

그가 물러가자 이번에는 마여가 분통을 터뜨렸다.

《정말 천만부당하단 말이야. 난 원래 조용히 말하는것을 좋아해. 그래야만 합의를 볼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종시 사람의 분통을 터뜨려놓고야마는군. … 다들 들었어? 탄차당 보수를 낮추고 동발에 대한 보수를 따로 지불하겠다지 않아! 우리한테서 돈을 빨아내는 새 방법이야! 에이 더러워서!》

그는 분풀이할 사람을 찾다가 팔을 흔들고있는 까뜨리느와 에띠엔느를 보았다.

《너희들은 내게 널판지를 가져올테냐, 안 올테냐? 이 일이 너희들에겐 상관이 없는줄 아느냐? 혼들이 나봐야 알겠니!》

에띠엔느는 이런 거치른 말에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갱목을 가지

려 갔다. 그자신이 고용주들에게 참을수 없는 격분을 느낀 지금 도리여 탄부들이 지나치게 공손한듯이 느껴졌던것이다.

레바끄와 솨발은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나서야 누그러졌다. 모두가, 지어는 자샤리까지도 열심히 갱도에 동발을 세우기 시작했다. 반시간동안은 동발을 두드리는 잦은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씩씩거리고만 있었다. 암반이 그들의 화를 돋구었다. 그들은 할수만 있으면 암반을 두어깨로 힘껏 들이박고싶었다.

《됐어.》 피로와 격분으로 해서 아주 녹초가 된 마여는 드디여 이렇게 말했다. 《한시반이야… 하루가 또 끝났군! 우린 50쑤도 못 받을게야!… 난 나갈테야. 이거야 어디 화가 나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반시간이 남아있었으나 그는 옷을 입었다. 여느 사람들도 그가 하는대로 했다. 올리굴을 보기만 해도 그들은 화가 났다. 까뜨리느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들이 까뜨리느에게 소리를 쳤다. 그의 열성이 그들을 화나게 했던것이다. 석탄도 두다리가 있다면 거기서 제발로 나오고말았을것이다. 여섯사람은 모두 공구들을 겨드랑이에 끼고 아까 왔던 길로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거기까지는 2키로메터를 다시 걸어야 했다.

까뜨리느와 에띠엔느는 올리굴의 좁은 통로에서 지체되여 계속 아래로 내려가던 채탄공들한테서 떨어졌다. 그들은 어린 리디를 만났는데 그는 갱도 한복판에 서서 그들을 통과시키고나서 무께뜨가 없어졌다고 알려주었다. 무께뜨는 코피가 터졌는데 피가 너무 심하게 나와서 물찜질을 하러 달려갔다는것이였다. 그런데 그가 어데로 사라졌는지는 통 모르며 벌써 옹근 한시간이나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에띠엔느와 까뜨리느가 지나가자 온몸에 탄가루를 뒤집어쓴 소녀는 가느다란 팔과 다리를 힘껏 뻗치고 탄차를 다시 밀었다. 그는 마치도 힘에 겨운 짐과 싸우는 연약한 검은 개미같았다. 에띠엔느와 까뜨리느는 이마의 껍질이 벗겨질가봐 두어깨를 움츠리고 등을 바닥에 대고 미끄러져내려갔다. 그들은 탄부들의 몸에 의해 매끈하게 닦아진 바위를 타고 쏜살같이 아래로 내려갔는데 어찌나 가파로운지 때때로 동발에 의지하여 멈춰서야 했다. 그것은 채탄공들이 롱삼아 말하듯이 엉뎅이에서 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밑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그레한 작은 불빛이 멀리 굽인돌이뒤에로 사라지면서 깜빡거렸다. 그들의 기쁨도 사라졌다. 그들은 지친 발을 무겁게 내디디면서 걸어갔다. 까뜨리느가 앞에 서고 에띠엔느가 뒤에 섰다. 등불들이 그을음을 피우고있었다. 에띠엔느는 안개처럼 연기가 자욱한데서 까뜨리느를 겨우 알아보았다. 까뜨리느가 처녀라고 생각하자 에띠엔느는 기분이 언짢았다. 까뜨리느를 입맞춘것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지 몰랐다. 그는 틀림없이 까뜨리느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한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른 사람은 분명히 까뜨리느의 애인일것이다. 처녀는 으슥한 구석에서 그에게 몸을 맡긴것이다. 에띠엔느는 까뜨리느에게 속히우기라도 한듯이 뿌루퉁해서 그를 대했다. 그러나 까뜨리느는 줄창 그에게 돌아서서 위험한 곳을 미리 알려주군 했는데 마치도 자기에게 더 곰살궂게 굴어달라고 그러는것 같기도 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좋은 친구로서 실컷 웃어댈수 있었다. 그들이 드디여 궤도가 있는 갱도에 나왔을 때 에띠엔느는 그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난듯이 후하고 한숨을 내쉬였으나 까뜨리느는 마지막으로 에띠엔느를 쓸쓸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길에는 다시 없을 행운에 대한 애수가 어리여있었다.

그들의 주위에서는 지하생활이 들끓고있었다. 감독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말이 끄는 탄차들이 오갔다. 어둠속에서 끊임없이 등불들이 가물거렸다. 그들은 뜨거운 숨을 얼굴에 끼얹는 말과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면서 바위에 꼭 붙어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쟝렝이 맨발로 자기의 탄차행렬을 따라 달려가면서 그들의 뒤에 대고 그 무슨 상스러운 말을 웨쳤다. 그러나 탄차바퀴소리때문에 그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 걸어갔다. 까뜨리느는 잠자코 있었다. 에띠엔느는 아침에 걸었던 통로나 굽인돌이를 알아보지 못했고 까뜨리느가 자기를 더욱 깊은 땅밑으로 끌고가는것만 같았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것은 출구가 가까와올수록 더욱 심해지는 추위였다. 에띠엔느는 수직갱이 가까와옴에 따라 몸을 더 떨었다. 좁은 벽사이로 공기흐름이 폭풍처럼 또다시 울부짖었다. 그는 자기들이 거기서 영영 빠져나가지 못할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그런데 아주 뜻밖에도 그들은 어느새 승강기앞에 와있었다.

솨발은 의아하게 입을 삐쭉거리며 에띠엔느와 까뜨리느를 곁눈질해 보았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몸이 땀투성이가 된 그들은 차거운 바람을 맞으면서 그처럼 불만을 누르고 덤덤히 서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일찌기 그곳에 와있어서 반시간후에야 올려다줄것이였다. 그뿐아니라 지금은 말을 입갱시키는 복잡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적재공들이 귀청을 째는듯 한 쇠소리를 내면서 또다시 탄차에 짐을 실었고 승강기들이 시커먼 구멍에서 억수로 쏟아져내리는 비를 맞으며 사라졌다. 밑에 있는 물이 가득찬 10메터깊이의 배수용구뎅이에서도 감탕내가 섞인 습기가 올라왔다. 사람들이 수직갱주위를 끊임없이 감돌며 신호끈을 잡아당기고 손잡이를 눌렀다. 물방울들이 그들에게 뿌려져서 옷들이 흠뻑 젖었다. 안전망이 없는 3개의 등불에서 비치는 불그레한 불빛이 움직이는 커다란 그림자들을 던져주어 땅속의 이 방이 악당의 소굴, 비적들의 야장간처럼 보였다. 가까이에서는 지하수가 콸콸 흐르고있었다.

마여는 마지막수단을 쓰기로 결심하고 6시작업에 나온 삐에롱에게 다가갔다.

《여보게, 자넨 우릴 올려보내줄수 있지.》

그러나 어진 얼굴에 몸집이 단단하고 미남자인 적재공은 깜짝 놀라며 거절을 했다.

《안되네, 감독에게 말하게. … 내게서 벌금을 받는다네. …》

마여는 또다시 욕설이 터지는것을 누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까뜨리느는 몸을 기울이고 에띠엔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마구간에 가봅시다. 거긴 좋아요!》 마구간에는 탄부들이 들어 못가게 되여있어서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가야 하였다. 마구간은 왼쪽켠의 짧은 갱도의 끝에 있었다. 그것은 바위를 까내고 벽돌로 천정을 만든 동굴이였는데 길이가 20메터, 높이가 4메터나 되였다. 그속에 20필의 말을 넣을수 있었다. 기실 그곳은 좋았다. 공기가 동물의 체온으로 해서 훈훈했으며 깨끗한 욕초에서는 싱그러운 냄새가 풍기고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등불이 조용히 희미하게 비치고있었다.

쉬고있는 말들이 머리를 돌려 어린아이같이 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는 또다시 천천히 귀밀을 먹는것이 마치도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뚱뚱하고 아주 건장한 일군들같았다.

구유우에 박아놓은 아연판에 쓴 이름들을 큰소리로 읽던 까뜨리느가 외마디소리를 쳤다. 갑자기 그의 앞에서 웬 사람이 일어섰던것이다. 그는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자기가 자던 욕초더미속에서 나오는 무께뜨였다. 일요일에 너무 놀아서 피로한 그는 월요일이면 코피가 나오도록 스스로 제 코를 호되게 때리고 물을 찾아간다는 구실밑에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들사이에 있는 따뜻한 욕초우에 드러누웠던것이다. 딸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기가 봉변을 당할줄 번연히 알면서도 그것을 내버려두었다.

때마침 키가 작고 머리가 홀렁 벗어진데다가 얼굴이 몹시 상한 무끄로인이 들어왔다. 그는 50살의 이전 탄부로서는 보기 드물만큼 아직 뚱뚱하였다. 마부의 직으로 옮겨온 이래 그는 담배를 너무 씹어서 새까만 입안의 이몸에서는 피가 나왔다. 그는 자기 딸과 함께 또 다른 사람 두명이 있는것을 보고 화를 냈다.

《왜들 모두 여기서 빈둥거리고있어? 이 능청스러운 년 같으니, 왜 여기 남자들을 끌고 들어오는거야? 이 짚우에서 그 못된짓을 하려고 했겠지?》

무께뜨는 이런 욕을 기이하게 여기고 배를 쥐고 깔깔 웃어댔다. 에띠엔느는 당황해서 물러갔다. 까뜨리느는 그를 보고 빙긋이 웃었다. 세사람이 저탄장으로 돌아왔을 때 베베르와 쟝렝 역시 탄차행렬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다. 탄차들은 승강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까뜨리느가 말옆으로 다가서서 쓰다듬어주면서 그놈에 대하여 동행자에게 칭찬하였다. 털빛이 하얀 그 말은 탄갱의 모든 말중에서 가장 오랜 바따이였는데 벌써 10년째나 지하에서 살고있었다.

그 말은 이 동굴속에서 줄곧 같은 우리에 살면서 캄캄한 갱도에서 동일한 작업을 되풀이하였으며 그동안 해빛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몹시 살지고 털이 반짝이는데다 좋은 인상을 주는 말은 밖의 불행을 피하여 여기서 현명하게 살아가는듯 하였다. 어둠속에 있는 동안에 그놈은 아주 령리해졌다. 그놈은 자기가 다니는 길에 너무나 잘 익숙되여서 머리로 통풍구문을 열었고 낮은 곳에서는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낮추었다. 그놈은 틀림없이 자기가 나르는 회수도 세는것 같았다. 그것은 규정된 회수의 왕복이 끝나면 더는 탄차를 끌려고 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러면 그놈을 구유로 끌고가지 않을수 없었다. 이젠

말년이 가까와왔다. 고양이같은 두눈은 이따금씩 슬픔의 안개에 가리워졌다. 어둠속에서 그놈은 자기가 난 마르쉬엔느근처 스까르쁘강가에 있는 바람에 항상 설렁대는 록음에 쌓인 물방아간을 멍하니 그려보는듯 했다. 공중에서 무엇인가 불타고있었는데 그것은 커다란 등불같은것으로서 그 똑똑한 표상은 이미 말의 기억에서 사라진것이였다. 말은 늙어서 떨리는 다리로 겨우 걸어가면서 고개를 수그리고 해빛을 상기하려고 공연히 애를 쓰고있었다.

그러나 수직갱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있었다. 신호마치를 네번 두드렸다. 말을 내려보낸다는것이였다. 이 작업은 항상 불안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짐승들이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죽어서 내려가는 일이 이따금 있었기때문이다. 우에서 그물을 쓴 말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다가도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것을 느끼기만 하면 그만 굳어지고 가죽은 조금도 떨리지 않으며 둥그렇게 뜬 두눈은 까딱 움직이지 않는것이였다. 이번에는 말이 너무 커서 안내장치사이로 내려보낼수 없어서 승강기아래에 걸고 몸을 낮추게 한 다음 목을 옆으로 비끄러매놓았다.

조심하느라고 승강기가 내려오는데 거의 3분 걸렸고 점차 기계의 속도가 떠졌다. 역시 밑에서도 불안감이 커졌다. 어떻게 된셈인가? 어둠속에 말을 그냥 매달아둘 작정인가? 드디여 말이 돌처럼 굳어져서 나타났다. 움직이지 않는 그놈의 두눈은 공포로 해서 둥그래졌었다. 겨우 세살나는 그 밤빛말은 뜨롬뻬뜨라고 불렀다.

《주의하시오.》 말을 받는것을 말은 무끄로인이 소리쳤다. 《끈을 풀기 전에 내려놓으시오.》 곧 뜨롬뻬뜨를 중량물처럼 주철판 바닥우에 눕혀놓았다. 그놈은 여전히 까딱하지 않았다. 그놈은 소음이 울리는 이 깊은 칸의 캄캄하고 끝없는 심연속에서 악몽에 시달리는것 같았다. 그놈을 풀기 시작하자 얼마전에 마구를 벗은 바따이가 거기로 다가왔다. 바따이는 목을 쭉 뽑고 밖에서 이렇게 갱으로 내려온 이 동료의 냄새를 맡았다. 로동자들은 롱담을 하며 비켜섰다. 그가 무슨 좋은 냄새를 맡았을가? 그러나 바따이는 조소하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활기를 띠였다. 그놈은 틀림없이 대기의 좋은 냄새와 잊혀졌던 태양과 풀냄새를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명랑한 소리를 내며 기쁜듯이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구슬픈 흐느낌도 느낄수 있었다. 이것은 새

동료에 대한 환영, 지상의 향취를 한바탕 가져온데 대한 기쁨이고 죽기 전에는 거기에 올라가보지 못하게 갇힌 쓸쓸한 마음이였다.

《이 바따이는 엉뚱한 놈이거던!》 자기들의 사랑하는 말의 장난질에 사뭇 유쾌해진 로동자들이 웨쳤다. 《보시우, 저놈이 자기의 새 동료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그러나 풀어놓은 뜨롬뻬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놈은 자기몸이 계속 그물에 얽혀있는것으로 알았던지 공포에 싸여 옴짝달싹 못하고 옆으로 누워있었다. 결국 사람들은 다리를 몹시 떨며 얼떨떨해있는 말을 채찍으로 때려 일궈세웠다. 이윽고 무끄로인이 사이가 좋아진 두 말을 끌고갔다.

《자, 이젠 우리 차례가 됐겠지?》 하고 마여가 물었다.

승강기에 실었던 탄차를 내려놓아야 했다. 뿐만아니라 작업이 끝날때까지는 아직 10분이 남아있었다. 막장들은 하나하나 비여갔다. 모든 갱들에서 탄부들이 돌아오고있었다. 벌써 50명가까이 모였다. 그들은 모두 푹 젖어서 떨고있는것이 페염이라도 걸릴것 같았다. 겉보기에 호인같은 삐에롱은 자기 딸 리디가 시간전에 갱에서 나왔다고 뺨을 때렸다. 자샤리는 몸을 녹이려고 슬그머니 무께뜨를 자기옆으로 끌어당겼다. 사람들의 불만은 늘어갔다. 솨발과 레바끄는 탄차에 대한 보수를 낮추고 동발에 대한 보수를 따로 제정하겠다는 기사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계획은 성난 웨침소리에 부딪쳤다. 지하 600메터깊이에 있는 좁은 갱도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갔다. 이야기는 더욱 번져져 석탄가루투성이로 된 탄부들은 추위에 몸을 떨며 회사가 로동자들의 절반은 지하에서 죽이고 나머지 절반은 굶겨죽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에띠엔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몸을 우들우들 떨고있었다.

《빨리빨리.》 하고 감독 리숌이 적재공들을 보고 말했다.

리숌은 출갱을 서두르면서 너무 엄하게 굴고싶지 않아 탄부들의 말을 못 들은척 했다.

그러나 불평이 너무 심해져서 그는 드디여 참견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의 뒤에서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수는 없으며 어느날에는 작업장이 날아나고야말리라고 웨치고있었다.

《당신은 신중한 사람인데.》 하고 리숌이 마여에게 말을 건넸다. 《저 사람들을 입 좀 다물게 하오. 자기가 가장 강하지 못하다면 적어도 가장 령리해야 하오.》

그러나 진정하고있던 마여는 결국 걱정스러워 참견하지 않았다. 갑자기 말소리들이 그쳤다. 순시에서 돌아오는 네그렐과 당싸에르가 역시 땀투성이가 되여 한 갱도에 나타났던것이다. 규률에 습관된 로동자들은 한옆으로 비켜섰다. 기사는 한마디도 말을 건네지 않고 한복판으로 지나갔다. 그가 한 탄차에 앉았고 도감독이 다른 탄차에 앉았다. 신호끈을 다섯번 당겼다. 그것은 사람들이 고용주에 대해서 말하고있는것처럼 살진 몸뚱이들이 올라간다는것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승강기가 쥐죽은듯 한 침묵속에 허공으로 미끄러져갔다.

6

에띠엔느는 4명의 탄부들과 함께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다시금 굶주린 방랑의 길을 떠날것을 결심했다. 이제 죽어버리는것이나 매일 빵값도 벌지 못하는 이 지옥으로 내려가는것이나 어쨌든 같지 않는가? 까뜨리느는 웃층에 자리를 잡아서 에띠엔느는 따뜻하고 짜릿한 까뜨리느의 체온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떠나가는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보다 넓은 견문을 가진 그는 이 무리처럼 순종할수 없으며 그 어느 고용주의 목을 조이고야말것이기때문이였다.

갑자기 그의 눈이 부시였다. 어찌나 빨리 올라왔던지 그는 벌써 익숙되지 않은 해빛에 놀라고 눈을 깜빡이였다. 그는 승강기의 빗장이 다시 떨어지자 안도의 숨을 쉬였다. 한 운반공이 문을 열자 로동자들이 탄차에서 뛰여내렸다.

《여보게, 무께.》 하고 자샤리가 운반공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오늘 저녁에 볼깡으로 가세, 응?》

몽쑤에 있는 음악을 들을수 있는 차집을 《볼깡》이라고 불렀다. 무께는 왼눈을 끔벅거리며 입을 벌리고 소리없이 웃었다. 무께는 자기 아버지처럼 키가 작고 뚱뚱한데다가 다음날생각은 안하고 모든것을 먹

어치우는 뻔뻔스러운 낯을 한 젊은이였다. 때마침 이번에는 무께뜨가 또 나왔다. 무께는 우애의 표시로 그의 등을 철썩 때렸다.

에띠엔느는 희미한 등불밑에서 걱정스럽게 보았던 높은 저탄장을 겨우 알아보았다. 이제 보니 그것은 그저 스산하고 더러운 건물이였다. 먼지낀 창문으로 흐릿한 해빛이 비쳤다. 구리부분품이 붙은 기계만이 번쩍거리고있었다. 듬뿍 기름칠을 하여 잉크에 잠그었던 띠같은 긴 케블선이 풀려나오고 높이 달려있는 활차와 그를 고정한 틀, 승강기와 탄차들 등 오래되여서 거밋거밋해진 모든 굉장한 금속부분품들이 건물을 컴컴하게 하였다. 철판을 따라 바퀴들이 쉬임없이 덜커덩거리며 굴러갔다. 탄차로 실어온 석탄에서는 먼지가 일어 바닥이며 벽이며 지어는 탑의 골조의 웃들보에까지 내려앉아 까만 층을 이루고있었다.

솨발은 유리로 둘러막은 접수원의 자그마한 사무실에 걸려있는 도표를 들여다보고 성이 나서 돌아왔다. 그들이 실은 두개의 탄차가 접수되지 않았던것이다. 한 탄차는 규정된 량보다 적고 다른 한 탄차는 석탄이 깨끗치 못하다는것이였다.

《참, 재수가 좋은 날이군.》 하고 그는 소리쳤다. 《또 20쑤가 날아났군! 돼지꼬리처럼 손을 움직이는 게으름뱅이를 채용할건 뭐람!》

그리고 그는 자기 말을 보태는듯이 에띠엔느를 곁눈질해보았다. 에띠엔느는 그 대답으로 그에게 된주먹맛을 보여주고싶었으나 떠나갈바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첫날부터 잘할순 없어.》 하고 마여는 화해를 시키려고 말했다. 《래일은 나아지겠지.》

모두들 화가 나서 싸움을 할 구실만을 찾고있었다. 레바끄는 등불을 돌려주면서 등불청소를 깨끗이 하지 못했다고 등불관리공에게 욕지거리를 했다. 그들은 노상 난로를 때고있는 휴계실에 와서야 조금 누그러졌다. 석탄을 지나치게 많이 넣었는지 난로가 시뻘겋게 달아올라 창문없는 큰 방안이 불길에 싸여있는듯 했고 불덩어리의 반사광들이 벽을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모두가 불에 등을 대고 유쾌하게 지껄이였다. 몸에서는 뜨거운 국사발에서처럼 김이 물물 올랐다. 사람들은 등을 녹이자 이번에는 배를 녹이기 시작했다. 무께뜨는 내의를 말리우려고 태연스레 바지를 내리웠다. 무께뜨가 갑자기 엉치를 내밀어서 젊은이들이 익살을 부리며 웃음보를 터뜨렸다. 이것은 무께뜨의 멸

시의 극단적인 표현이였다.
《난 가겠소.》 솨발은 공구함에 공구를 넣고 쇠를 잠그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무께뜨만이 몽쑤로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그를 쫓아 달려갔다. 그러나 롱담은 계속되였다. 그들은 솨발이 그를 더는 좋아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까뜨리느가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아버지한테로 다가와서 소곤소곤 무엇인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처음에 놀란 표정을 했다가 다음에는 수긍하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는 에띠엔느를 자기옆에 불러놓고 보따리를 주면서 말했다.
《여보게, 돈이 한푼도 없으면 로임타기 전에 굶어죽네. 어떤가? 내가 힘을 써서 아무데서나 돈을 꾸도록 할테니?》
첫 순간에 젊은이는 당황했다. 그는 방금전에 30쑤의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떠나려고 했었다. 그러나 처녀앞에서 부끄러움이 그를 붙들었다. 까뜨리느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있었다. 어쩌면 처녀는 에띠엔느가 일을 겁내고있다고 생각하고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꼭 된다고는 조금도 장담할순 없어.》 하고 마여가 말을 이었다. 《혹 거절만 당할수도 있지.》
에띠엔느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거절을 당할것이다. 또한 이것은 그를 조금도 구속하는것은 아니다. 그는 돈을 조금 꾸었다가도 언제나 떠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내 그는 자기가 거절을 하지 못한것이 분하게 생각되였다. 까뜨리느가 기뻐하고 곱게 웃으며 그를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도와주게 되여 좋아하는것을 보았기때문이였다.
이 모든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탄부들은 몸을 녹이는 차례로 하나씩 돌아갔다.
마여네는 신발을 신고 저들의 장을 채운 다음 그들의 뒤를 따라 휴계실에서 나왔다. 에띠엔느는 그들의 뒤를 따라나왔다. 레바끄부자가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선탄장옆으로 지나가다가 성난 욕지거리를 듣고 멈추어섰다.
일은 날아오는 먼지를 새까맣게 뒤집어쓴 들보들과 큰 덧문들이 달린 통풍이 계속되는 넓은 창고안에서 벌어졌다. 석탄을 실은 탄차들

을 저탄장에서 곧바로 이리로 끌어와서 철판으로 만든 긴 자동미끄럼 운반장치의 투입구에 뒤집어놓았다. 그 량쪽 발판우에서 선탄공들이 삽과 갈퀴로 돌들을 골라내고 깨끗한 석탄은 조구통을 거쳐 창고밑에 놓은 철길의 화차에 떨구었다.

몸집이 가늘고 창백하며 량순한 얼굴의 처녀 필로멘느 레바끄가 피를 뱉으며 거기에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푸른 털수건이 처매있었고 새까만 두팔은 팔꿈치까지 드러내놓고 늙은 마녀같은 삐에롱의 모친 브류레밑에서 일하고있었다.

두눈이 올빼미눈같은 무서운 녀자로서 입술은 수전노의 돈지갑처럼 꽉 다물어져있어 그를 브류레라고 불렀다. 그들 둘이 서로 붙어잡고 싸움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젊은 녀자는 로파가 자기 있는데서 돌을 긁어모아갔기때문에 자기는 10분동안에 한바구니도 뫃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를 비난했다. 골라낸 돌의 바구니 수에 따라 돈을 지불했던것이다. 그래서 노상 싸움이 벌어지군 했다. 두 녀인의 머리칼은 마구 헝클어져있었고 빨갛게 상기된 얼굴들에는 다섯손가락자리가 거멓게 찍혀있었다.

《때려, 있는 힘껏 때려!》 우에서 자샤리가 자기의 애인에게 소리를 쳤다.

모든 선탄공들이 큰소리로 웃어댔다.

격노한 브류레는 이번엔 자샤리에게 사납게 달려들었다.

《이 난봉쟁이 같으니! 넌 이년에게 만들어준 아이들이나 인정하는게 좋을게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제 겨우 열여덟살나는 놈이 맥은 벌써 다 빠졌지!》

마여가 아들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야 했다.

그렇지 않았던들 자샤리는 벌써 선탄장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말한것처럼 늙다리 마귀할미에게 자기대로 복수를 했을것이다. 감독이 달려오자 선탄공들은 갈퀴로 또다시 석탄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투입구아래우에서는 등을 구부정하고 돌을 승벽내기로 열심히 그러뫃는 녀인들의 모습만이 보였다.

바람이 갑자기 자고 흐릿한 하늘에서는 차거운 보슬비가 내리고있었다. 탄부들은 어깨를 웅크리고 팔짱을 낀채 뿔뿔이 헤여져 걸어갔다. 몸을 좌우로 흔들 때마다 얇은 천밑으로 앙상한 뼈가 두드러져보

였다. 대낮에는 그들이 감탕에 빠졌던 흑인무리처럼 보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점심을 채 먹지 않고 뒤등의 샤쯔와 웃옷사이에 밀어넣어 곱사등이처럼 보였다.

《보시우! 저기 부뜰루가 오는군요.》 하고 자샤리가 비양조로 말했다.

레바끄는 걸어가면서 자기 집의 하숙인과 몇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부뜰루는 서른다섯살나는 몸집이 좋고 머리가 갈색인 사나이였는데 온순하고 점잖아보이였다.

《국이 다 됐던가, 루이?》

《다 된것 같애.》

《그러면 집사람이 오늘은 상냥해진게지?》

《내 생각엔 그런것 같데.》

다른 버럭처리공들이 도착하여 한조씩 입갱을 하고있었다. 3시교대의 입갱이였다. 또다시 수직갱은 막장에서 도급로동을 하는 채탄공들을 교대하러 가는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탄갱은 휴업하는 때가 전혀 없었고 밤낮으로 사람들이 개미처럼 사탕무우밭밑 600메터나 되는 지하에서 암반을 파헤치고있었다.

역시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걸어갔다. 쟝렝이 4쑤짜리 담배를 외상으로 얻을 복잡한 계획을 베베르에게 말하는 동안 리디는 점잖게 상당히 떨어져 걸었다. 까뜨리느는 자샤리며 에띠엔느와 함께 그뒤로 따라갔다.

모두가 묵묵히 걷고있었다.

바로 술집 아방따즈앞에 와서야 마여와 레바끄가 비로소 그들을 따라잡았다.

《자, 다 왔네.》 하고 마여가 에띠엔느에게 말했다. 《함께 안 들어가겠나?》

까뜨리느는 에띠엔느와 헤여졌다. 그는 샘물처럼 맑고 파랗고 동그란 눈으로 마지막으로 에띠엔느를 쳐다보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두눈은 새까만 얼굴에 박힌 수정같았다. 이윽고 까뜨리느는 빙긋이 웃으면서 여느 사람들과 함께 마을로 통하는 길로 사라졌다.

술집은 마을과 탄갱사이에 있는 도로교차점에 있었는데 하얗게 회칠을 하고 하늘빛테두리를 한 큼직한 창문들이 달린 2층벽돌집이

였다. 문에 붙인 사각형간판에는 누런 글자로 《아방따즈—라스너르의 술집》이라고 씌여있었다. 집뒤쪽에는 생나무울바자를 한 아홉기둥들이 보였다. 회사는 자기의 넓은 령지에 쐐기를 박은 이 한뙈기의 땅을 손에 넣으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들판의 한복판에 솟아있는 이 술집이 보료로 들어올 때면 첫눈에 띄운다는것이 회사로서는 유감스러운것이였다.

《들어오게.》 하고 마여는 에띠엔느를 보고 되뇌였다.

벽이 새하얀 크지 않은 밝은 방에는 세개의 식탁과 열두개의 의자, 찬장만 한 전나무매대가 있었다. 매대우에는 기껏해서 여라문개의 조끼와 세개의 술병, 한개의 물주전자 그리고 아연도금을 하고 놋꼭지가 붙은 맥주통이 놓여있었다. 그밖에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림도, 선반도, 놀음놀이탁상도 없었다. 번쩍이는 무쇠난로에서는 석탄불이 천천히 피여오르고있었다. 바닥에는 축축한 땅의 끝없는 습기를 빨아들이도록 흰모래가 얇게 깔려있었다.

《맥주 한조끼.》 마여가 금발머리처녀에게 이렇게 청했다. 그 처녀는 이따금 여기에 와서 시중을 들어주는 이웃집사람의 딸이였다.

《라스너르가 있소?》

처녀는 맥주를 받으려고 맥주통꼭지를 돌리고나서 주인이 이제 돌아올것이라고 대답했다. 탄부는 목구멍에 앉은 먼지를 가시려고 천천히 반조끼 들이마셨다. 그는 자기의 동행자에게 맥주를 권하지 않았다. 그들외에 홀에는 손님이 한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도 역시 탄부로서 옷이 젖었고 몹시 더러웠다. 그는 잠자코 따로 떨어진 식탁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맥주를 마시고있었다. 이윽고 또 한명의 로동자가 들어와서 손짓으로 맥주 한조끼를 청해서 마시고나서 돈을 치르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바로 이때 나이가 서른여덟되는 둥그런 얼굴에 매끈하게 면도를 한 뚱뚱한 사나이가 사람좋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그가 바로 라스너르였다. 이전에 그는 채탄공으로 일을 했었으나 세해전에 파업이 있은 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다. 그는 우수한 로동자였고 웅변으로 뛰여났으며 모든 요구를 제기할 때마다 선두에 나섰다. 그는 결국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되였다. 그의 안해는 많은 탄부들의 안해들처럼 이미 조그마한 가게방을 하나 가지고있었다. 라스너르는 거

리로 쫓겨나자 자기가 직접 술장사를 하여 돈을 모아서 보료탄갱의 바로 맞은켠에 회사에 도전이나 하듯이 술집을 차려놓았다. 그의 영업은 번성해갔으며 그는 탄부들의 중심이 되였다. 그가 옛 동료들의 심장에 조금씩 불어넣었던 불만은 증대되였다.

《오늘 아침 바로 이 젊은이를 채용했는데.》 하고 마여는 이내 설명하였다. 《임자네 두 방중에 빈 방이 하나 없나? 그리고 다음 봉급날까지 이 사람을 외상으로 들일수 없을가?》

라스너르의 얼굴은 갑자기 커다란 불신을 나타내였다. 그는 이상한 눈으로 에띠엔느를 훑어보고 유감스럽다는 말도 없이 대뜸 《우리 집 두 방은 다 사람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할수 없어.》 하고 대답했다.

젊은이는 그러한 거절을 예견하였지만 괴로왔다. 막상 자기가 이제 떠나야 할것을 생각한즉 괴로왔다.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는 자기의 30쑤를 받으면 떠나갈것이다.

이때 혼자서 맥주를 마시던 탄부가 나갔다. 다른 손님들이 띠염띠염 계속 들어와 목을 씻어내고는 꼭같이 비틀거리면서 물러갔다. 그것은 단순히 목구멍을 가셔내는것으로서 기쁨도 정서도 없이 생활적 요구를 말없이 충족시키는데 불과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지?》 라스너르가 남은 맥주를 조금씩 마시고있는 마여를 보고 류다른 어조로 물었다.

마여는 방안을 휘둘러보고 에띠엔느밖에는 아무도 없다는것을 확인했다.

《아니야, 사람들이 또 소동을 일으켰네. … 그렇네, 동발때문에 말이야.》

마여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이야기했다. 술집주인의 얼굴은 뻘개지고 흥분으로 부풀어올랐으며 온몸과 눈에서는 불이 이는것 같았다.

드디여 그는 말문을 터쳤다.

《그자들이 탄차값을 낮추면 망하지.》

라스너르는 에띠엔느를 꺼리였다. 그러나 라스너르는 에띠엔느를 곁눈질하면서 이야기를 이었다.

라스너르는 말을 줄여서 하였다. 그는 엔보지배인과 그의 안해와 조

카인 꼬마 네그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그는 이런 사태가 계속될수는 없다는것을 재삼 강조했다. 빈궁은 극단한 지경에 이르러서 얼마 안 가서 큰 폭발이 일어날것이다. 라스너르는 공장과 제조소가 몇개 페쇄되였고 로동자들이 얼마나 거리에 쫓겨났는가 하는것을 하나하나 꼽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옹근 한달째나 매일 빈곤한 사람들에게 3키로이상의 빵을 나누어주고있었다. 전날 그는 이웃탄광의 광주인 데넬랭이 어떻게 지탱할지 모르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그외에 그는 불안스러운 이야기를 자세하게 가득 쓴 편지를 릴르에서 받았다.

《알겠나.》 하고 그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 편지는 언젠가 저녁에 자네가 여기서 본 그 사람이 보낸거야.》

이때 홀에 들어온 라스너르의 안해가 말참녜를 들었다. 그는 키가 크고 빼빼마르고 정열적인 녀인이였는데 코가 기름하고 량볼은 자주빛을 띠였다. 그는 정치에 관해서는 남편보다 더 급진적인 견해를 품고있었다.

《아, 쁠류샤르의 편지 말이예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렇지요. 그가 여기 있으면서 일을 지도한다면 모든게 다 잘될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에띠엔느는 모든것을 리해했다. 빈궁과 복수에 대한 생각이 그를 흥분시켰다.

뜻밖에 들려온 이름을 듣고 그는 흠칫 몸을 떨었고 이윽해서 그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여 말했다.

《저는 쁠류샤르를 알고있습니다.》

에띠엔느는 모두가 자기한테서 눈을 떼지 않는것을 보고 이렇게 덧붙였다.

《난 기계수리공이였는데 릴르에서 그분밑에서 일했지요. … 능력이 있는분입니다. 난 그와 담화도 많이 했지요.》

라스너르는 다시금 에띠엔느를 눈여겨보았다.

그의 표정은 대뜸 달라지고 금시에 동정의 빛이 어리였다.

드디여 라스너르는 안해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마여가 데리고왔는데 자기네 운반공으로 일한다오. 2층에 빈 방이 없는지. 그리고 로임날까지 외상으로 하숙을 할수 없겠는가고 부탁을 하는구려.》

그리하여 이 일은 간단히 해결되였다. 2층에 빈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세냈던 사람은 아침에 나갔던것이다. 술집주인은 더욱더 흥분해서 자기 같으면 가능한것만을 고용주에게 요구할것이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얻기 어려운것은 아예 얻으려고 애쓰지 않을것이라고 되뇌이며 자기 속을 더 털어놓았다. 그의 안해는 어깨를 으쓱했는데 자기 권리를 절대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러면 안녕히.》 하고 마여가 그들의 말허리를 끊으면서 말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전과 같이 갱에 내려갈것이고 갱에서 일을 하다보면 송장이 되여버릴게란 말이요. … 자네자신을 보게나. 거기서 나오더니 3년동안에 얼마나 건강해졌나.》

《그래, 난 아주 회복됐네.》 하고 라스너르는 사뭇 만족스러운듯이 맞장구를 쳤다.

에띠엔느는 마여에게 자기를 돌봐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를 문밖까지 바래주었다. 그러나 마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에띠엔느는 문턱에 서서 마여가 마을로 가는 길을 힘겹게 올라가는것을 바라보았다.

라스너르의 안해는 손님접대를 하면서 에띠엔느에게 몸을 씻을 방에 안내해줄테니 잠간 기다려달라고 했다. 머물러있어야 할가?

에띠엔느는 다시금 동요하였다. 방랑자의 자유, 자신의 주인이라는 기쁨과 함께 겪게 되는 로천에서의 굶주림이 그리워졌던것이다. 에띠엔느는 자기가 바람사나운 야밤에 버럭산에 온 때로부터 지하의 캄캄한 갱도로 기여다니면서 지낸 시간이 몇해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는 그 일을 하고싶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한 일이였다. 그는 자기가 로동에서 눈이 흐려지고 무거운 짐을 지는 집짐승처럼 된다고 생각하자 인격의 모욕감을 느낀것이였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에띠엔느의 두눈은 무연한 벌판을 정한 곳없이 바라보다가 점차 탄광에 멎었다.

그는 놀랐다. 본느모르로인이 어둠속에서 몸짓으로 그것을 가리켰을 때 그는 그것이 이런 곳인줄은 상상하지 못했었다. 바로 그의 앞에 있는 좁은 골짜기에는 수많은 목조건물과 벽돌건물들이 들어찬 보료탄광이 보였다. 거기에는 타르칠을 한 선탄장이며 스레트이영을 얹은 탑이며 기계실이며 불그레한 높은 굴뚝들이 보였다. 이 모든것이

한데 뭉켜 나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들의 둘레에 쌓아놓은 석탄무지로 해서 검은 호수와 같이 변한 그렇게 커다란 공지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그곳에는 잔교의 레루를 지지해주는 받침대들이 높이 솟아있었고 한쪽구석에는 채벌장처럼 목재들이 가득 쌓여있었다. 오른쪽은 엄청나게 큰 보루같은 버럭산으로 막혀있어 보이지 않았다. 오래전에 쌓아올린 부분은 이미 풀이 무성했고, 한쪽끝은 한해전부터 계속된 땅속의 화재로 불타버렸다. 화재의 짙은 연기는 희끄무레한 재빛판암층과 사암층의 표면에 그을은 자취를 남겨놓았다. 그뒤로는 밀과 사탕무우밭이 끝없이 펼쳐져있었는데 지금은 텅 비여있었다. 그리고 무성한 떨기나무숲속에 시들어가는 버드나무가 듬성듬성한 진펄과 가늘게 줄지어선 백양나무들뒤로 펼쳐진 초원이 멀리 바라보였다. 아주 멀리에 도시들이 희끗희끗한 반점으로 보였다. 북쪽에는 마르쉬엔느가 있었고 남쪽에는 몽쑤가 있었다. 동쪽에는 방담숲의 앙상한 나무들이 연보라빛선으로 지평선을 이루고 있었다.

겨울날의 해질무렵 뿌연 하늘아래 보료탄갱의 시커먼 석탄먼지가 나무들우에 뿌려지고 길에 깔리고 농경지를 덮으며 온 벌판에 내려앉는듯 하였다.

에띠엔느는 모든것을 눈여겨보았다. 특히 그의 주목을 끈것은 그가 밤에 보지 못한 운하였다.

그것은 바로 운하로 변한 스까르쁘강이였다. 보료에서 마르쉬엔느까지 뿌연 은띠마냥 20리 뻗은 그 운하는 마치도 낮은 지대에 큰 가로수들이 줄지어선 하나의 대통로를 련상케 하였다. 멀리 푸른 언덕을 배경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희끄무레한 물우로는 붉게 물든 짐배들의 고물이 미끄러져 흘러갔다. 탄갱가까이에는 배들이 정박할수 있는 선창이 있어 탄차들이 잔교우에서 직접 배에 탄을 실어주었다.

그 다음에 운하는 구부러져서 비스듬히 진펄을 지나갔다.

석탄과 철을 나르는 큰길처럼 들판을 지나가는 수로가 넓은 들판의 중심을 이루고있었다.

에띠엔느는 높고 평탄한 곳에 자리잡은 마을로 눈길을 옮겼다. 그는 마을의 붉은 지붕만을 분간할수 있었다. 이윽고 에띠엔느는 다시

보료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진흙바탕의 자드락밑에는 거기에서 만들고 구워낸 커다란 두개의 벽돌더미가 바라보였다. 울타리너머로는 탄갱으로 통하는 회사의 철도지선이 지나고있었다. 마지막탄부들이 입갱을 한것 같았다. 다만 사람들이 미는 화차 하나가 귀청을 째는듯 한 삐걱소리를 내며 지나가고있었다. 이제는 어둠과 굉음, 알수없는 천체의 불길과도 같은것을 리해할수 있었다. 높은 용광로들과 해탄로들이 멀리서 려명에 뿌옇게 보였다. 뽐프만이 쉬임없이 여전히 요란한 숨소리를 길게 내면서 이제야 그가 분간해볼수 있는 재빛증기를 내뿜고있었다. 그것은 마치 게걸스러운 식인종의 숨결같았다. 드디여 에띠엔느는 그곳에 남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그가 마을로 돌아간 까뜨리느의 눈을 상기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또 그것은 보료탄갱에서 일어난 반항의 기운인지도 모른다. 그자신도 몰랐다. 그는 그저 고생을 하고 투쟁을 하기 위하여 또다시 갱으로 내려가고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본느모르로인이 이야기해주던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수만의 굶주린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자신을 바치고있는 그 포식하고 웅크리고앉은 신에 대하여 줄곧 생각해보았다.

제 2 장

1

그레그와르일가의 삐올랜느저택은 몽쑤에서 동쪽으로 2키로메터 떨어져서 쥬아젤로 가는 길가에 있었다. 그것은 지난 세기초에 건설한 아무런 양식도 없는 네모난 큰 가옥이였다. 그 언젠가는 넓은 령지가 붙어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를 둘러친 관리하기 쉬운 30헥타르의 땅만이 남게 되였다. 그속에 있는 과수원과 남새밭이 유명했다. 거기서 나오는 과실과 남새는 이 지방에서 가장 좋은것으로 알려졌다. 저택에는 정원이 없고 그대신 늙은 보리수나무잎이 둥근 지붕마냥 우거진 대통로가 남새밭에서 저택현관까지 300메터나 뻗어있었는데 그것은 마르쉬엔느에서 보니까지 큰 나무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번번한 이 고

장에서는 희귀한것이였다.

그날 아침 그레그와르부부는 아침 8시에 일어났다. 보통 그들은 달콤하게 늦잠을 자기를 좋아해서 그보다 한시간은 더 늦게 일어나군 했다. 그러나 이날은 지난밤 바람이 그들의 신경을 돋구었다. 그레그와르씨가 바람에 무슨 피해라도 없는가 해서 령지를 돌아보는 동안 그의 안해는 모달리실내복에 끌신을 신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나이가 벌써 쉰여덟이나 되는 작고 뚱뚱한 이 녀인은 흰머리칼이 눈부시게 빛났으며 얼굴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놀라와하는 표정이 어리여있었다.

《멜라니.》 하고 그레그와르부인은 식모에게 일렀다. 《반죽이 다 됐으니 오늘 아침은 빵과자를 구워내지. 아씨는 아직 반시간은 더 잘것이니 일어나서 쵸콜레트하고 그것을 먹을수 있게 해줘요. 그 애가 깜짝 놀라게 말이요.》

30년이나 그레그와르의 집에서 시중을 들어온 여윈 로파인 식모는 빙긋이 웃음을 지었다.

《네, 정말 놀랄거예요. 빵굽는 가마에 불을 지폈으니 이젠 달았을거예요. 오노리느더러 거들어달라겠어요.》

오노리느는 아이때부터 데려다가 키운 20대의 처녀인데 지금은 이 집에서 방을 거두는 하녀로 일하고있었다. 이 두 녀자외에 또 마차군 프랑씨가 있었는데 그는 힘든 일을 맡아하고있었다. 원예사와 그의 안해는 남새와 과실, 꽃밭을 가꾸고 가금우리를 돌보고있었다. 가부장적인 하인생활로 해서 한가정처럼 된 그들은 화목했다.

벌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부터 과자로 딸을 놀라게 하려고 생각한 그레그와르부인은 반죽을 빵가마에 넣는것을 보려고 기다렸다. 굉장히 넓은데다가 대단히 산뜻하고 남비며 각양각색의 식기며 항아리 등속의 온갖 부엌세간들을 갖추고있는양을 보아 부엌이 중시하는 칸이라는것을 가히 짐작할수 있었다. 훌륭한 음식냄새가 풍기였다. 식료품이 선반과 장에 차고넘쳤다.

《빵을 노랗게 잘 구워요.》

그레그와르부인은 식사칸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일렀다.

온 집안을 덥히는 난방장치가 되여있었건만 다른 탄불이 또 있어 방을 덥히였다. 그런데 사치한것이란 전혀 없고 큰 식탁과 의자들, 마

호가니찬장이 있을뿐이였다. 두개의 깊숙한 안락의자가 있는것으로 보아 그들이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까지 하느라고 오래도록 안온하게 앉았기를 즐긴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면 언제나 온 가족이 손님방으로 옮겨가지 않고 식당에 그냥 남아있었다.

안해와 때를 같이하여 두터운 고르뎅웃옷을 입은 그레그와르씨가 들어왔다.

곱슬곱슬한 머리가 백발이 다 되고 점잖고 무던한 인상을 주는 그의 얼굴은 60살정도의 나이치고는 불그레하였다. 그는 마차군과 원예사를 만나보고 오는 길이였다. 난로굴뚝이 넘어졌을뿐 피해는 없었다. 그레그와르씨는 아침마다 삐올랜느를 돌아보는것을 즐겼다. 령지는 관리하기가 걱정스럽게 크지는 않았으나 그는 거기서 주인으로서의 온갖 행복을 찾았다.

《쎄씰은?》 하고 그레그와르씨가 물었다. 《그래, 오늘은 일어나지 않을셈인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부인이 대답했다. 《그 애가 방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들은것 같은데…》

식탁에는 식기류가 놓여있었다. 하얀 식탁보우에는 세개의 사발이 놓여있었다. 그들은 오노리느를 보내여 아씨가 어떻게 되였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오노리느는 곧 돌아와서 가까스로 웃음을 참으면서 자기가 아직도 2층 쎄씰의 방에 있기나 한듯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참, 주인님들이 아씨를 좀 보셨으면… 주무셔요. … 갓난애기처럼 말예요. … 뭐라고 할가. 보기가 재미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랑스러운 눈길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레그와르씨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였다.

《가보잖겠소?》

《고 귀염둥이!》 하고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아무렴, 가봐야지요.》

그들은 같이 올라갔다. 딸의 방은 집에서 유일하게 화려한 방이였다. 응석꾸러기딸의 변덕을 만족시켜주듯 비단을 내려드리우고 푸른 줄이 죽죽 지나간 락카를 칠한 하얀 가구들을 들여놓았다. 벌어진 창가림사이로 빛이 들어와 어스름한 속에서 처녀는 희끄무레한 침대

에서 드러낸 자기 팔에 볼을 대고 자고있었다. 그는 곱게 생기지는 않았으나 너무나 건장하고 열여덟치고는 조숙했다. 그러나 그는 신선한 우유처럼 살결이 훌륭하고 밤빛머리칼에 얼굴은 동그란데 고집스러운 작은 코가 량볼사이에 잠겨있는듯 하였다. 이불이 미끄러져 떨어져있었고 처녀의 숨결은 너무나 잔잔해서 벌써 볼록해진 젖가슴은 오르내리지 않았다.

《몹쓸 바람이 온밤 자지 못하게 한 모양이지요.》 하고 부인이 속삭였다.

그레그와르씨는 부인에게 말 못하게 손짓을 했다. 두사람은 몸을 구부리고 알몸뚱이를 드러내놓고 네활개를 쭉 펀채 누워자는 딸을 사랑에 겨워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오래동안 바라던 딸을 뒤늦게 보았다.

그때는 이미 그런 희망을 버리게 되였을 때였다.

그들은 그가 탓할데 없는 완벽한 존재로 보였다. 딸이 포동포동 살이 졌건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어쩐지 아직도 영양이 부족한것만 같이 느껴졌다. 쎄씰은 부모들이 자기옆에 와있으며 그들의 얼굴이 자기 얼굴에 닿는것도 모르고 계속 새근새근 자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움직이지 않는 얼굴에 가벼운 잔물결이 일었다.

부모들은 딸이 깨여날가봐 발끝으로 걸어서 방에서 물러나왔다.

《쉿!》 그레그와르씨가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저 애가 자지 못했으면 실컷 자도록 합시다.》

《그래요, 실컷 자도록 해요.》 그레그와르부인이 맞장구를 쳤다.

《우린 아래서 기다립시다.》

그들은 식당에 내려와서 안락의자에 앉았다. 하녀들은 아씨의 늦잠을 우스워하면서 쵸콜레트를 빵가마우에 그냥 둬두었다.

그레그와르씨는 신문을 펴들었고 부인은 커다란 모침대보를 뜨기 시작했다. 집안은 무척 훈훈하고 조용했다.

그레그와르일가의 재산인 약 4만프랑의 수입은 전부 몽쑤탄광의 주권에 있었다. 그들부부는 회사의 창립자체와 관계가 있는 자기네 재산의 출처를 즐겨 이야기하군 했다.

지난 세기초에 릴르에서 발랑씨엔느에 이르기까지 석탄탐사가 열을 띠였다. 후에 앙젱회사를 세운 리권소유자들의 성과가 모든 사람들을

현혹케 했다. 각처에서 지질조사가 진행되였고 회사들이 설립되였으며 하루밤사이에 채굴허가가 이루어졌다.

당시의 완강한 기업가들중에서 데쓰류모남작이 제일 과감한 지혜로 확고한 이름을 남겼다. 40년동안이나 그는 계속되는 난관을 무릅쓰고 약점을 보이지 않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그의 첫 조사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는 몇달을 두고 공을 들이던 끝에 새 탄갱을 버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붕락사고로 통로들이 막혔고 불의에 지하수가 터져서 로동자들이 죽었으며 수십만프랑의 자금이 수포로 돌아갔던것이다. 거기에다 행정당국과의 소동, 공포에 싸인 주주들 또한 자기들과의 사전협의가 없이는 왕의 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한 토지소유자들과의 싸움이 겹쳤다. 드디여 남작은 몽쑤의 탄층개발을 위한 《데쓰류모, 포끄느와회사》를 창립했다. 탄갱들은 약간한 리윤을 내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이웃에 있는 꾸니백작이 소유하고있던 꾸니탄갱과 《끄르닐, 제나르회사》가 소유하고있던 쥬아젤탄갱은 무자비한 경쟁으로 이 회사를 짓뭉개버릴번 하였다. 다행히도 1760년 8월 25일에 세 리권회사들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하나로 통합되였다. 몽쑤탄광회사가 조직됐는데 현재 있는 회사가 바로 그것이였다. 리윤분배를 위해 자본금을 당시 화폐단위인 쑤를 기준으로 하여 24쑤로 갈라놓았다. 한쑤는 12드니에이므로 전부 288드니에였다. 매 드니에의 가격은 1만프랑이였으므로 회사의 전자본은 거의 3백만프랑에 이르렀다. 몰락해가던 데쓰류모는 승리자가 되여 6쑤 3드니에를 차지하였다.

그 당시 남작은 300헥타르를 가진 삐올랜느를 소유하고있었다. 남작은 쎄씰의 아버지 레온 그레그와르의 증조부인 삐까르시청년 오노레 그레그와르를 관리인으로 두었다.

몽쑤계약이 이루어질 때 약 5만프랑의 저축금을 감추어두었던 오노레는 벌벌 떨면서 확고한 신용을 얻은 자기 주인에게 양보하고말았다. 그는 1만프랑의 금화를 내놓고 한드니에의 주권을 샀다. 그는 이만한 액수의 돈을 자식들한테서 훔치는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다. 기실 그의 아들인 에젠은 아주 적은 배당금밖에 받지 못했다. 그는 부르죠아가 되여 아버지의 상속재산의 나머지 4만프랑을 파산된 협회에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짓을 해서 아주 보잘것 없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드니에의 리윤은 점차 늘어가서 손자인 펠리씨엔은 이전 관리인이였던 자기의 할아버지가 품고있던 꿈을 실현할수 있었다. 그는 분할된 삐올랜느령지를 국유지처럼 아주 눅은 값으로 사들였다. 그러나 불경기가 계속되였다.

혁명의 대혼란의 결말 그리고 나폴레옹의 류혈적몰락까지 기다려야하였다. 그리하여 바로 레온 그레그와르대에 증조부가 소심해서 조심스럽게 투자한 몫에서 놀라운 진전이 이루어져 리윤을 얻게 되였다. 회사의 번영과 함께 그 보잘것 없었던 1만프랑의 돈은 계속 새끼쳤다.

1820년부터 100프로의 리윤인 1만프랑을 얻었다. 그 자본이 1844년에는 2만프랑, 1850년에는 4만프랑을 낳았다. 2년전에 결국 리익배당금은 5만프랑이라는 굉장한 액수에 이르렀다. 드니에의 가치는 릴르에 있는 주식취인소의 시세로 100만프랑으로서 100년동안에 100배로 늘었다.

주권시세가 100만프랑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그레그와르에게 드니에를 팔것을 권고했으나 그는 아버지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을 거절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서 산업공황이 일어나 드니에의 가격이 60만프랑까지 떨어졌다. 그레그와르는 여전히 미소를 지을뿐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레그와르일가가 이제는 저들의 탄광에 대한 완고한 믿음을 품고있었기때문이였다.

이러한 믿음은 더 커질것이다. 하느님은 그렇게 확고하지 못한것이다. 이 신앙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세기전부터 가족들을 먹여살릴수 있게 해준데 대한 심심한 감사가 섞여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리기주의에 둘러싸여 우러러 떠받들리는 수호신과도 같은것으로서 그들을 포근한 침대에 재워주고 푸짐한 식탁으로 살찌워주는 가문의 은인이였다.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살아왔다. 무엇때문에 그것을 의심하여 신세를 망치는 모험을 하겠는가?

그리고 그들의 충실성의 바닥에는 백만프랑짜리 드니에를 팔아 돈을 빼람에 넣어두면 그것이 갑자기 녹아 없어질것 같은 미신적인 공포도 들어있었다. 그들은 땅속에 그것을 두어두는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 땅속에서 굶주린 탄부들이 대대로 그들에게 필요한만큼 매일 조금씩 그것을 캐낼것이다.

게다가 이 집에는 복이 쏟아져들어왔다.

그레그와르는 아주 젊었을 때 마르쉬엔느의 약방주인의 딸로 아름답지도 못하고 돈 한푼 없는 처녀와 결혼을 했다. 그는 자기 안해를 무척 사랑했고 안해는 최상의 행복으로 여기고 보답을 했다. 그레그와르부인은 가사에 몰두하면서 남편에게 아주 반했었다. 그리하여 남편의 의사는 부인에게 법으로 되여있었다. 부부는 취미에 있어서도 언제나 한통속같았다. 그들의 리상은 안락한 생활을 하는것이였다. 이렇듯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면서 40년을 살아왔다. 그것은 규칙적인 생활이였다.

그들은 그 4만프랑의 수입을 마구 랑비하지 않았다. 저축한 돈은 쎄씰을 위해 소비되였다. 쎄씰이 뒤늦게 태여나 한동안 그들의 가계가 혼동되였다. 오늘도 그들은 딸의 온갖 변덕을 충족시켜주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두번째 말을 사고 새 마차 두대를 샀으며 빠리에서 화장품들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더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들자신은 자기네의 청춘시절의 류행이 이미 낡았건만 그것을 고스란히 보존하고있었다. 사치한 치장에 대한 그들의 혐오감은 그만치 심했던것이다. 아무것으로도 보상되지 않는 일체 지출이 그들에게는 무모한것으로 느껴졌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큰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절 빼놓고 식사를 하세요?》

그는 쎄씰이였다. 그는 방금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두눈이 부석부석부어있었다. 그는 머리만 간단히 쓰다듬고 하얀 실내옷을 몸에 걸쳤다.

《원, 애두.》 하고 어머니가 대꾸를 했다. 《이렇게 널 기다리고있지 않어. 고약한 바람이 널 자지 못하게 했지? 그렇지?》

처녀는 몹시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정말 바람이 불었어요?… 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요. 온밤 한번도 깨지 않았어요.》

모두가 큰소리로 웃어댔다. 상을 차리던 하녀들도 웃음보를 터뜨렸다. 아씨가 열두시간동안이나 한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다는것이 집안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빵과자를 보자 모두는 희색이 만면했다.

《아이참! 어느새 이런걸 구워냈어요?》 하고 쎄씰이 말했다. 《난

정말 뜻밖이예요. 쵸콜레트에 갓 구워낸 따끈한 빵과자, 아이 참 좋아.》

모두들 식탁에 앉았다. 쵸콜레트차에서는 김이 물물 올랐다. 빵과자이야기만 한참 벌어졌다. 멜라니와 오노리느는 식당에 남아서 빵굽는 법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입이 미여지게 음식을 넣고 입술이 번지르르해서 앉아있는 주인들을 바라보고있었다. 하녀들은 주인들이 맛있게 먹는것을 보면 과자를 만드는 자기들도 참으로 흐뭇하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런데 개들이 크게 짖어댔다. 모두들 마르쉬엔느에서 음악선생이 온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음악선생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이면 왔던것이다. 문학선생도 다녔다. 어린 딸에 대한 모든 교육은 이렇게 진행되였다. 몰라도 무방했고 아이는 변덕을 부려 문제풀이가 싫증나면 책을 창문밖으로 내던지였다.

《데넬랭씹니다.》 오노리느가 방으로 돌아와서 아뢰였다.

오노리느의 뒤를 따라 그레그와르의 사촌동생인 데넬랭이 나타났다. 그는 이전 기병장교의 씩씩한 걸음걸이로 꺼리낌없이 방안에 들어서서 손짓까지 해가며 요란스레 떠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50고개를 넘었으나 머리는 바투 깎았으며 굵직한 코밑수염은 먹칠을 한듯 새까맸다.

《접니다, 안녕하십니까. … 방해가 되는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도 식탁에 와앉았다. 모두들 그를 반가이 맞이하여 앉히고 다시 쵸콜레트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나하구 무슨 할 이야기라도 있나?》 하고 그레그와르가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할 이야긴 없수다.》 데넬랭이 서둘러 대꾸를 했다. 《말을 타고 좀 운동을 하려고 나왔다가 집앞을 지나가는 길에 인사나 하려고 들렸지요.》

쎄씰은 데넬랭의 딸들인 쟌과 류씨의 안부를 물었다. 두 자매는 아주 건강한데 동생은 그림에 열중하고 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아노앞에 앉아서 성악훈련을 하고있다는것이였다. 그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렸는데 마치도 일부러 유쾌한척 하면서 불안한 감정을 누르려고 하는듯 했다.

《탄갱일이 잘되나?》 하고 그레그와르가 물었다.

《참, 그 저주로운 공황때문에 나와 동료들은 뒤죽박죽이 됐지요. 경기가 좋았던 시기의 값을 치르는셈인지! 굉장한 생산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공장들과 철도들을 건설하고 너무 많은 자본을 동결시켰지요. 그래서 오늘은 돈이 사장되여 이 모든것을 돌릴수 없게 되였거던요. 다행히도 전혀 절망적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나는 이 위기를 모면하렵니다.》

데넬랭은 사촌형과 마찬가지로 몽쑤탄광의 주권 한드니에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그러나 진취적인 기사인 그는 방대한 재산을 꿈꾸어오다가 드니에시세가 백만프랑까지 올라가자 서둘러 팔아버렸다. 그는 몇달전부터 하나의 계획을 무르익히고있었던것이다. 그의 안해는 아직 쟝—바르와 가스똥—마리의 두 탄갱밖에 개발하지 않은 방담부근의 석탄채굴권을 삼촌에게서 얻었었다. 이 두 탄갱은 너무나 방임상태에 놓이고 설비가 좋지 못해서 겨우 본전이나 뽑고있었다. 바로 그래서 그는 쟝—바르탄갱을 복구하여 새로운 기계들을 설치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수 있도록 수직갱을 확장하고 가스똥—마리만 배수용으로 남겨둘 꿈을 꾸었다. 거기서 삽으로 황금을 그러모을수 있으리라고 그는 말하군 했다. 그 생각은 옳았다. 다만 100만프랑의 돈이 지출되고 막대한 리윤이 그가 옳다는것을 보여주게 되였을 때 공교롭게도 저주로운 경제공황이 일어난것이였다.

거기다가 서투른 관리자인 그는 자기 로동자들을 곱게 대하지 않았다. 또 안해가 죽은 후에는 누가 자기 재산을 훔쳐도 내버려두었다. 뿐만아니라 그는 자기 딸들의 버릇을 심하게 굳혀놓았다. 맏딸은 무대에 올라설것만 꿈꾸었고 작은딸은 자기의 풍경화 3점이 전람회에서 락선됐건만 여전히 자신을 화가로 자처하고있었다. 파산이 눈앞에 닥쳤건만 두 딸은 곧잘 웃기만 했다. 그러나 빈궁의 위협은 그들을 아주 섬세한 주부로 만들었다.

《보세요, 레온.》 하고 그는 주저주저 말을 이었다. 《형님이 나와 함께 주권을 팔지 않은것은 오산이였습니다. 이제 값이 아주 폭락하게 될겝니다. 형님은 모험을 하고있지요. 내게 그 돈을 맡겼더라면 방담의 우리 탄갱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놓을수 있었는데!》

그레그와르는 쵸콜레트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대꾸했다.

《절대로 안되네. … 내가 투기를 싫어한다는걸 자넨 잘 알고있지 않

나. 내 생활은 평온하네. 나에겐 기업에 대한 근심으로 머리를 쓰는게 아주 어리석은 일이야. 몽쑤에 대해서 말한다면 시세가 계속 떨어질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게 될거네. 지나치게 욕심만 부려선 안되네. 그리고 또 한가지 말하지만 내가 아니라 바로 자네가 언제든 한번 가슴치며 후회할걸세. 몽쑤의 주권시세는 머지않아 또 올라갈테니 말이야. 쎄씰의 손자들도 거기서 역시 흰빵 살 돈을 얻게 될거네.》

데넬랭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내 일에 10만프랑을 투자할것을 제의한다면 형님은 거절하겠단 말이지요?》

그러나 데넬랭은 그레그와르의 불안스러운 얼굴을 보고 자기가 이야기를 성급히 꺼낸것을 후회했다. 그래서 돈을 채용하는것은 절망적인 경우에 보기로 하고 뒤에 미루기로 했다.

《오, 난 아직 그런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난 그저 롱을 해본겁니다. … 그러나 형님이 옳은지도 모르지요. 남이 벌어주는 돈이 가장 안전하게 부유해지는 돈이지요.》

화제는 바뀌여졌다. 쎄씰은 다시금 언니들에 대하여 묻기 시작했다.

언니들의 취미는 쎄씰의 흥미를 끌면서 동시에 그의 마음속을 산란하게 한것이다. 그레그와르부인은 날씨가 좋아지면 딸을 그 귀여운 애들한테 데리고 가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레그와르는 멍하니 앉아서 이야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큰소리로 덧붙였다.

《내가 자네의 립장에 있다면 더 고집을 부리지 않고 몽쑤회사와 담판을 했을거야. … 그들은 그것을 무척 바라고있네. 자네는 돈을 되찾을거구.》

그는 몽쑤와 방담사이에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반목에 대하여 암시하였다. 방담은 세력이 미미하지만 이웃에 있는 큰 탄광은 자기의 67개리안에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이 4평방키로메터의 지역이 박혀있는것이 거슬렸다. 그것을 없애려던 시도가 실패한 후 회사는 그가 곤경에 허덕이게 되면 헐값으로 사들일 음모를 꾸몄다. 싸움은 쉬임없이 계속되였다. 갱들이 서로 200메터의 거리를 두고 채탄을 멈추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배인들, 기사들사이에는 정중한 관계가 유지되여있었지만 그것은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바치는 하나의 격투였다.

데넬랭의 눈은 불탔다.
《절대로 안돼요!》 하고 이번에는 그가 웨쳤다. 《내가 살아있는 한 몽쑤는 방담을 손에 넣지 못합니다. 목요일에 난 엔보씨의 집에서 점심을 같이했는데 내 주위를 에도는것이 뻔하더군요. 벌써 지난 가을 그 모든 중요인물들이 리사회에 모여들었을 때 백방으로 내게 알랑거립디다. 아무렴, 난 그들—후작이요, 공작이요, 장군이요, 대신이요 하는 작자들의 속심을 다 알지요. 강도놈들은 껍데기까지 홀딱 벗겨냅니다.》
그는 더는 말을 끊지 않았다. 또 그레그와르도 1760년의 계약에 의하여 여섯명의 관리인으로 구성되여 전횡을 부리는 몽쑤회사의 리사회를 옹호하지는 않았다. 그들중의 한사람이 죽으면 그때마다 남은 다섯명은 유력하고 부유한 주주들중에서 새로 성원을 선출하군 했었다. 아주 리기적인 취미를 가진 이 삐올랜느의 주인은 이 리사회성원들이 이따금 리윤추구에 있어서 정도를 지나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멜라니가 식탁을 치우려고 들어왔다. 뜨락에서 다시금 개들이 짖어댔다. 오노리느가 문께로 나가려고 하는데 쎄씰이 덥고 배가 너무 불러 숨가빠하며 식탁에서 일어났다.
《필요없어, 나가지 말어. 아마 선생일거야.》
데넬랭도 일어났다. 그는 나가는 처녀의 뒤를 바라보고 벙긋이 웃으며 물어보았다.
《그래, 젊은 네그렐과의 결혼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짓지 못하구 있지요.》 하고 그레그와르부인이 대답하였다. 《허공에 떠있을뿐예요. 좀 생각해봐야 하겠어요.》
《아무렴요.》 하고 데넬랭은 능청맞게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제 생각컨댄 조카와 숙모간에… 엔보부인이 쎄씰에게 그렇게도 달라붙는것이 참 이상하군요.》
그러나 그레그와르는 그 말에 발끈했다. 그런 점잖은 부인이 그것도 젊은이보다 열네살이나 우인데! 될법이나 한 일인가! 그는 자기 앞에서 비록 롱담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말을 하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데넬랭은 계속 웃으면서 그와 악수를 하고 그 집에서 물러갔다.
《이번에도 선생이 아니예요.》 쎄씰이 돌아와서 말했다. 《그 녀

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도 알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탄부의 안해 말이예요. 이리로 부를가요?》

그레그와르부부는 망설였다. 그들이 집을 더럽히지나 않을가? 아니다, 그들의 몸은 지나치게 더럽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막신은 현관에 벗어놓을것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먹은 음식을 삭이려고 의자에 주저앉아있어서 까딱하고싶지 않았다.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지, 오노리느.》

그리하여 마여의 안해가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다. 몸이 얼고 굶주린 그들은 훈훈하고 빵과자의 구수한 냄새가 풍기는 방에 들어서자 겁에 질린듯 했다.

2

문이 닫긴 방에 덧문살창으로 희읍스름한 해빛이 스며들어 천정에 부채살처럼 퍼졌다. 공기가 탁해서 숨쉬기가 괴로왔으나 모두들 깊이 잠들어있었다. 레노르와 앙리는 서로 그러안고 누워있었고 알지르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곱사등에 의지하여 누워있었다. 본느모르로인은 자샤리와 쟝렝이 자던 자리에 홀로 누워서 입을 벌린채 코를 골고 있었다. 마여의 안해가 에쓰뗄에게 젖을 먹이면서 다시 잠든 방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젖은 한쪽으로 처지였고 젖을 배불리 먹은 딸애는 어머니의 배를 가로타고 부드러운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채 함께 잠이 들어버렸다.

아래층에서 뻐꾹새시계가 6시를 쳤다. 마을에서는 문소리에 뒤이어 돌포장도로에 부딪치는 나막신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선탄공들이 갱에 나가는 소리였다. 그리고는 7시까지 또다시 조용해졌다. 7시에는 덧문들이 열리고 벽을 거쳐 하품소리와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오래동안 커피를 가는 소리가 삐거덕거렸으나 방안에서는 누구도 잠을 깨지 않았다.

불시에 크게 웨치는 소리와 뺨을 때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와 알지르가 잠을 깼다. 그는 시간이 퍼그나 늦었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서 뛰여내려 어머니를 깨우려고 맨발로 달려갔다.

《엄마, 엄마. 일어날 때가 지났어. 가야 되지 않아. 주의해, 에쓰뗄을 깔겠네.》

그리고나서 알지르는 어머니의 큼직한 젖가슴에 눌리워 숨가빠하는 어린애를 안아올렸다.

《아이, 죽겠네!》 마여의 안해는 두눈을 비비면서 중얼거렸다. 《어찌 곤한지, 진종일 잤으면 좋겠구나. 레노르하구 앙리에게 옷을 입혀라. 그 애들을 데리고 가야지. 넌 에쓰뗄이나 봐라. 그 앤 끌고다니고싶지 않다. 이런 사나운 날씨에 또 병까지 들라구.》

마여의 안해는 바삐 세면을 하고 헐었지만 가장 깨끗한 파란 치마와 전날 밤에 헝겊을 두쪼각이나 대여 기운 재빛모직적삼을 입었다.

《점심도 없지. 아이, 속상해!》 마여의 안해는 이렇게 다시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붐비며 내려가는 동안 알지르는 울기 시작한 에쓰뗄을 안고 방에 돌아왔다. 그는 동생의 투정질에 익숙되였고 8살의 어린 나이에도 어린애를 달랠줄 아는 녀자의 부드러운 기질이 있었다. 그는 갓난애를 아직 따뜻한 자기의 잠자리에 눕히고 손가락을 빨리우며 잠을 재웠다. 에쓰뗄이 잠들자 이번에는 레노르와 앙리가 깨여나 싸움질하는것을 뜯어말려야 했다.

두 아이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잠잘 때만 정답게 서로 목을 그러안았다. 여섯살나는 계집애는 일어나기만 하면 자기보다 두살아래인 사내애에게 달려들었는데 동생은 얻어맞으면서도 제 누이를 때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두 아이는 머리가 부풀어오른듯 지나치게 컸으며 노란 머리칼은 마구 헝클어져있었다. 알지르는 녀동생을 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그의 두다리를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세면시키고 옷을 입히는데 애들이 발버둥질을 했다.

할아버지를 깨울가봐 덧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이 왁작거리며 야단법석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코를 골고있었다.

《난 차비가 다 됐다! 우에선 다 됐느냐?》 하고 어머니가 소리쳤다.

마여의 안해는 덧문을 열고나서 석탄불을 털고 탄덩이를 더 넣었다. 그는 늙은이가 국을 좀 남겨놓았으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남비는 바닥까지 반반했다. 마여의 안해는 사흘째 예비로 가지고있던 한줌의

마른 국수를 삶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이들은 빠다가 없이도 그것을 먹을것이다. 전날 먹던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까뜨리느가 겹빵을 만들면서 호두알만 한 빠다덩이를 남겨놓은 것을 보고 무등 놀랬다. 찬장은 텅텅 비여있었다. 빵쪼각도, 어떤 음식찌꺼기도, 물어뜯을 뼈다귀도 없었다.

메그라가 외상을 주지 않고 삐올랜느의 나으리가 100쑤의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것인가? 사내들과 큰딸은 탄갱에서 돌아오면 꼭 무얼 먹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아직 먹지 않고 사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내려올테냐, 어쩔테냐?》 마여의 안해는 발칵 화를 내면서 웨쳤다. 《떠날 시간이다.》

알지르와 다른 아이들이 아래로 내려오자 어머니는 조그마한 접시에 국수를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자기는 배고프지 않노라고 했다.

어제 마시던 커피찌꺼기는 까뜨리느가 벌써 물을 타서 마셨건만 마여의 안해는 다시한번 거기에 물을 타서 어찌나 연한지 녹물처럼 말간것을 두잔 마셨다. 어쨌든 그것으로도 견딜수 있을것이다.

《얘.》 하고 마여의 안해는 알지르에게 말했다.

《할아버지를 깨우지 말고 에쓰뗄을 어데 다치지 않게 잘 돌봐라. 만약에 잠이 깨서 많이 울거든 이 사탕쪼각을 물에 타서 숟가락으로 떠먹여라. 넌 착한 애니깐 사탕물을 마시지 않겠지.》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하나, 엄마?》

《학교! 학곤 다음번에 가거라! 넌 집에서 날 도와주어야겠어.》

《그럼 국은 어떡하나? 엄마가 늦어지면 내가 할테야.》

《국… 국… 아니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알지르는 병약한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이 나이에 비해 훨씬 숙성했다. 그는 끼니를 제법 지을줄 알았지만 모든 사정을 짐작하고 고집하지 않았다. 온 마을이 깨여났다. 아이들이 떼를 지어 나막신을 끄는 소리를 내면서 학교에 가고있었다. 시계가 8시를 치자 왼켠벽 저쪽 레바끄의 집에서 말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아낙네들의 하루가 시작되였다. 아낙네들은 커피를 마시고나서 두손을 허리에 짚고 방아간의 돌매처럼 지칠줄 모르고 재잘거렸다. 입술이 두툼하고 코가 납작한 시들은 녀인의 얼굴이 창문유리에 바싹 다가붙더니 이렇게 큰소

리로 말했다.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들을라우. …》

《지금은 안돼! 차차 들읍시다!》 하고 마여의 안해가 대꾸했다. 《난 어딜 좀 가봐야겠소.》 그리고 그는 같이 뜨거운 커피나 마시자는 권고에 넘어갈가봐 레노르와 앙리에게 서둘러 음식을 먹이고는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2층에서는 본느모르할아버지가 방안이 들썩하게 코를 골면서 그냥 자고있었다.

마여의 안해는 바람이 그친것을 알고 놀래였다. 갑자기 눈석이가 시작되였다. 하늘은 흙빛을 띠고 집집의 벽들은 파랗게 누기가 찼으며 길들은 진창투성이였다. 진창은 탄전지대의 류다른것이여서 물에 탄 검댕이처럼 새까맸고 진득진득해서 신발이 벗어질 정도였다. 나오자바람으로 그는 레노르의 뺨을 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레노르가 삽처럼 신으로 진흙을 모으는 장난질을 했던것이다. 마을에서 나온 마여의 안해는 등성이를 따라가다가 운하로 통하는 길을 걸어갔다. 그는 지름길로 가려고 외딴 거리들을 가로질러 이끼가 덮인 울타리를 둘러친 공지를 건너갔다. 창고들과 긴 공장건물들, 높은 굴뚝들이 련이어 나타났다.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타래쳐올라 공업지구 교외의 황폐화된 농촌을 더럽히고있었다. 한데 모여선 얼마 안되는 백양나무너머로 낡은 레끼아르의 탄갱이 보이는데 탑은 무너져서 커다란 뼈대만 서있었다. 마여의 안해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드디여 큰길로 접어들었다.

《가만있거라, 가만있어. 이 돼지새끼같으니!》 하고 마여의 안해는 소리쳤다. 《이제 널 혼쌀낼테다.》

이번에는 앙리가 진흙을 손에 한줌 쥐여 이기고있었다. 사정없이 뺨을 얻어맞은 두 아이는 수그러들어 저들이 만든 진흙무지가운데의 엽전을 곁눈질해보았다. 그들은 걸음마다 신발에 달라붙는 진흙을 떼느라고 무진애를 썼기때문에 벌써 지쳐서 진창길을 걸어갔다.

마르쉬엔느에서 두마일가량은 돌포장도로가 타르칠을 한 띠처럼 불그레한 들판 한가운데를 곧바로 지나갔다. 그러나 다른쪽 길은 들판의 넓은 기복의 경사면에 건설된 몽쑤를 가로질러 구불구불 내려갔다. 공업도시들사이로 곧바로 뻗은 북부지방의 그 길들은 약간한 굽인돌이와 경사가 느린 올리막을 지나면서 점점 좁아지고 마치도 한개 주

전체를 로동자지구로 형성하는것 같았다. 경사지아래까지 오불꼬불 내려가면서 오른쪽과 왼쪽에 벽돌집들이 늘어서있었다. 주변일대에 생기를 돋구어보려고 사람들은 벽돌집들에 누런칠이나 퍼런칠 혹은 검은칠을 했었다. 꺼먼칠을 한것은 어차피 그 집들이 꺼매지리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것 같았다. 공장의 상급직원들이 사는 몇채의 2층집들이 옹기종기 빽빽이 늘어선 작은 집들우에 우뚝우뚝 솟아있었다. 역시 벽돌건물인 교회당은 새로운 형의 용광로와 비슷하였고 네모난 종루는 날리는 석탄먼지로 벌써 새까맣게 되였다. 사탕공장, 쇠바줄공장, 제분소들가운데서 무도장과 다방, 맥주집들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였다. 천세대가 사는 마을에 술집이 500개 이상이나 되였다.

창고와 직장들이 줄지어선 회사작업장이 가까와오자 마여의 안해는 앙리와 레노르의 손을 꼭 잡았다. 건물들의 뒤쪽에 스위스의 산간 농가의 본을 따서 지은 지배인 엔보의 저택이 솟아있었다. 집과 길사이를 울타리로 막았는데 울타리너머로는 애잔한 나무들이 서있는 정원이 보였다. 마차 한대가 입구에 와서 멈춰서더니 거기서 훈장을 단 신사와 털외투를 입은 부인이 내렸다. 빠리에서 오는 손님이 마르쉬엔느역에서 내린것 같았다. 엔보부인이 희끄무레한 현관에 나와서 사뭇 놀랍고 반가운듯이 손님들을 맞이하였다.

《볼것 없어, 어서 걸어라. 게으름뱅이들같으니!》 마여의 안해는 진창에 빠진 아이들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메그라의 가게방으로 다가갔다. 가게방주인은 지배인과 이웃하여 살고있었다. 담 하나가 그의 집과 부유한 이웃집을 갈라놓았을뿐이였다. 거기엔 긴 건물이 있었는데 그안에는 상품창고가 있었고 거리를 정면으로 진렬장이 없는 가게방이 있었다. 가게방에는 식료품, 고기, 과일매대 등 모든것이 갖추어지고 거기서는 빵, 맥주, 남비탕 등을 팔았다. 메그라는 전에 보료탄갱에서 감독으로 일했는데 자그마한 탄광식당을 여는것으로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후에 회사측의 비호를 받아 그의 상업은 확대되였고 점차 몽쑤에 있는 작은 가게방들을 파산시켰다. 그는 모든 상품의 매매를 자기의 수중에 집중시켰는데 다른 가게방보다 더 값싸게 팔고 더 많이 외상을 줌으로써 탄광마을의 많은 구매자를 끌어당겼다. 회사는 그를 장악하

고 집과 상점을 건설해주었다.

《제가 또 왔어요.》 마여의 안해는 문턱에 서있는 가게방주인을 보자 이렇게 공손하게 말했다.

메그라는 잠자코 마여의 안해를 쳐다보았다. 그는 뚱뚱보였는데 누구에게나 랭담하고 점잖았으며 한번 먹은 마음은 절대로 바꾼적이 없노라고 자랑하고있었다.

《여보세요, 당신은 어제처럼 날 쫓아버리진 않겠지요? 우린 어떻게 해서라도 토요일까지 살아야 하겠어요. 하긴 우리는 벌써 두해째나 당신한테 60프랑의 빚을 지고있지만…》

마여의 안해는 짧으면서도 고통스러운 말로 딱한 사정을 말했다. 그 빚이란 지난번 파업때 진 묵은 빚이였다. 마여일가는 그것을 갚겠노라고 몇번이나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은 로임에서 단 40쑤도 저축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엎친데덮친격으로 그들에게는 그저께 또 불행한 일이 생겼었다. 차압을 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하는 제화공에게 20프랑을 쥐여주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한푼의 돈도 없이 앉아있는것이다. 그렇지만 않았어도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토요일까지 두루 살아갈수는 있었을것이다.

메그라는 배를 쑥 내밀고 팔짱을 끼고 녀인이 간청하는 한마디한마디 말에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빵 두개만 주세요. 그이상은 필요없어요. 나리님, 나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예요. 커피는 부탁하지 않겠어요. 하루에 한키로반짜리 빵 두개만 줘요!》

《안돼!》 메그라는 드디여 꽥 소리쳤다. 온종일 장부에서 머리를 들념을 못하는 병약한 녀인인 그의 안해가 나타났다. 메그라의 안해는 이 불행한 녀인이 자기에게 눈길을 돌리며 간청하자 그만 놀래여 몸을 감추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부부잠자리를 구매자들중의 녀운반공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였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서 어느 탄부가 자기의 빚을 무는것을 연기 받으려면 자기의 처나 딸을 가게방에 보내야 했다. 곱든 밉든 상냥하기만 하면 되였다.

마여의 안해는 계속 간청하는 눈으로 메그라를 쳐다보았다. 그는 거북함을 느꼈다. 메그라가 게슴츠레한 작은 눈으로 음탕하게 자기를 쳐다보는것을 알아차린것이다. 마여의 안해는 그 자리에서 격분을 느꼈

다. 그는 젊었을 때, 일곱아이를 가지기 전에 이미 알고있었다. 마여의 안해는 성이 나서 개울에 던진 호두껍질을 주어서 살펴보고있는 레노르와 앙리를 콱 나꿔채가지고 거기서 물러갔다.

《어디 그러다간 무사하지 못할줄 아시우. 메그라씨, 잘 생각해보시우!》

이제 마여의 안해에게는 삐올랜느의 나으리들에게 가보는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그들이 100쑤의 돈을 주지 않으면 그땐 누워서 죽는수밖에 없다. 마여의 안해는 쥬아젤로 통하는 왼쪽길에 접어들었다. 길이 각을 이루는 곳에 리사회의 궁전같은 벽돌건물이 서있었다. 가을이면 거기에서 빠리의 제씨들과 공작, 장군들, 정부인물들이 굉장한 연회를 베풀군 했다. 마여의 안해는 계속 걸으면서 100쑤의 돈을 어떻게 쓸것인가 하는것을 미리 생각하고있었다. 우선 빵을 사고 다음에 커피, 사분의 한쪼각의 빠다, 아침과 저녁국거리로 쓸 감자를 사고 어쩌면 약간의 돼지고기보쌈(아버지는 육붙이를 먹어야 했다.)을 살것이다.

몽쑤의 주임사제인 쥬아르신부가 법의를 걷어올리고 잘 먹어서 피둥피둥 살진 고양이가 제 털을 적실가봐 두려워하듯 조심조심 걸어가고있었다. 이 유순한 사나이는 로동자건 주인이건 척을 지지 않으려고 무슨 일에도 간섭하려고 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사제님.》

마여의 안해는 신자는 아니였지만 그래도 신부가 자기에게 반드시 무슨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했다. 신부는 멈춰서지 않고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어보이면서 길복판에 장승처럼 서있는 녀인의 옆을 그냥 지나가버렸다.

그리하여 마여의 안해는 질척거리는 새까만 진창길을 또 걸어갔다. 아직 두키로메터가 남아있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끌고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은 너무 지쳐서 아무것에도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았다. 길 좌우에는 역시 이끼돋은 울타리로 막은 공지들과 높이 솟은 굴뚝들과 그을음이 앉은 공장건물들이 늘어서있었다. 그뒤로는 등판 한복판에 대해같이 평탄한 밤빛대지가 펼쳐져있었다. 방담숲의 연보라빛선이 보이는데까지 한그루의 나무도 없었다.

《나 안아줘, 엄마.》

그리하여 마여의 안해는 번갈아가면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었다. 신작로에는 물웅뎅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더러운 주제를 하고 나리님앞에 나타날가봐 두려워 치마자락을 걷어올렸다. 그는 세번이나 넘어질번 했는데 저주로운 길은 그만큼 미끄러웠던것이다. 그들이 드디여 목적한 집까지 다가갔을 때 두마리의 대단히 큰 개가 사납게 짖어대며 덤벼들어서 아이들은 겁을 먹고 아우성을 쳤다. 그래서 마차군이 채찍을 들지 않으면 안되였다.

《신을 벗고 들어오시우.》 하고 오노리느가 말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식당에 들어서자 까딱않고 서있었다. 갑작스런 방안의 온기가 그들을 어리둥절케 하였고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자기들을 주의깊게 살피고있는 나이지긋한 나리님과 부인이 그들을 몹시 당황케 한것이였다.

《애야.》 하고 부인이 말했다. 《네가 해야 할 하치않은 일이 생겼다.》

그레그와르부부는 쎄씰에게 자기 집에 동냥 오는 사람들을 맡겼었다. 그것은 옳은 교양을 위해서 좋은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하느님의 집이라고 인정하면서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해오는터였다. 또한 그들은 현명한 자비심을 가지고 기만당하거나 악을 도울가봐 늘 경계했었다.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절대로 주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었다. 단 10쑤의 돈도, 단 2쑤의 돈도 주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이 2쑤를 받으면 당장 그것으로 술을 마셔버릴것은 아주 뻔하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들은 언제나 현물을 주었는데 주로 겨울에 따뜻한 옷들을 빈한한 집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아이, 가엾어!》 하고 쎄씰이 소리쳤다. 《이 애들이 추워서 새파래졌구나! 오노리느, 옷장에서 꾸레미를 어서 꺼내와.》

하녀들도 불행한 이들을 저녁끼니걱정이 없는 소녀들의 동정과 근심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침모가 물건을 가지러 올라간 동안 식모는 멍청하니 남은 빵과자를 식탁에 다시 놓고 팔을 내리드리운채 그냥 서있었다.

《저한테 마침 아직 털옷 두벌과 수건들이 있어요.》 하고 쎄씰이 말을 이었다. 《당신의 저 불쌍한 애들이 그것을 입으면 얼마나 따뜻

하겠는지 이제 알거예요!》
이때 마여의 안해는 정신을 가다듬고 떠듬떠듬 말했다.
《대단히 감사해요, 아씨. … 당신들은 모두 참 좋은 분이예요. …》
그의 두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는 자기가 꼭 100쑤의 돈을 받을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청할것인가 그 한가지만을 곰곰히 생각하고있었다. 침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한순간 흘렀다. 어머니의 치마를 잡고 섰던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빵과자를 눈여겨 바라보고있었다.
《당신은 아이가 둘뿐이예요?》 하고 그레그와르부인이 침묵을 깨뜨리며 물었다.
《아니요. 마나님, 저에겐 아이가 일곱이나 된답니다.》
다시금 신문을 읽기 시작한 그레그와르는 분개해서 펄떡 뛰여일어나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일곱이라니. 아이구, 헌데 어째서 그렇게 많소?》
《그건 무모한짓이예요.》 하고 부인이 중얼거렸다.
마여의 안해는 사과라도 하듯이 애매한 몸짓을 하였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건 생각지도 않는데 자연히 그렇게 된것이다. 그리고 후에 아이들이 커서 일을 하게 되면 가정을 돕게 될것이 아닌가. 만약 집에 몹시 로쇠한 할아버지가 없고 모든 아이들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그들은 지금도 괜찮게 살수 있을것이다. 지금 보면 전부 하여 두 아들과 맏딸만이 탄갱에서 일할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다. 그나저나 어쨌든 아이들을 먹여살려야 한다, 그들은 전혀 벌지 못하니까.
《당신들은 탄갱에서 일한지 오래요?》 하고 그레그와르부인이 물었다.
마여의 안해의 피기없는 얼굴은 묵묵한 미소로 빛났다.
《그럼요! 저는 스무살까지 일했지요. 그러나 두번째아이를 낳자 의사는 내가 일을 계속하면 거기서 죽을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저의 뼈가 어떻게 잘못되였다나요. 게다가 그때 난 시집을 간 몸이다보니 집에도 일이 몹시 많았지요. 저의 시집편에서는 모두가 옛날부터 탄갱에서 일하고있었답니다. 그것은 벌써 우리 애아버지의 고조부때부터 시작한 일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도 언제부터인지 딱히 모르지요. 레끼아르에서 탄층이 발견된 그때부터이지요.》

그레그와르는 마여의 안해와 그의 가엾은 아이들과 그들의 백지장 같은 얼굴과 뿌연 머리칼을 꿈속에서처럼 바라보았다. 피기가 없고 굶주려 보기 흉하게 된 그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여 키가 작았다. 또 다시 침묵이 흘렀다. 난로에서 석탄이 탁탁 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축축한 방안에는 구석구석을 채우고있는 행복한 부자들의 안락의 무거운 공기가 떠돌고있었다.

《뭘 저렇게 꾸물거릴가?》 하고 쎄씰이 참지 못하여 소리쳤다.

《멜라니, 어서 가서 꾸레미가 옷장 아래쪽 왼편에 있다고 일러줘요.》

그레그와르는 이 굶주린 사람들의 모양을 보고 깊이 생각하던 사색을 아퀴지었다.

《세상엔 많은 불행이 있소. 그건 사실이요. 그러나 이보시우. 로동자들은 리지적이지 못하다고 역시 말해야 할거요. 탄부들은 우리 농군들처럼 돈을 저축할 대신에 술을 마시고 빚을 지고 나중에는 가족들도 먹여살릴수 없게 된단 말이요.》

《옳은 말씀이예요.》 마여의 안해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들은 항상 제길로 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게으름뱅이들이 하소연을 할 때면 전 노상 그들에게 그것을 말한답니다.… 전 운이 좋답니다. 저의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아요. 글쎄 이따금 일요일이면 결혼식에 가서 지나치게 마십니다만 극상해서 그 정도랍니다. 그가 결혼전엔, 미안합니다만 돼지처럼 술을 마시군 했다는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된것도 다행이지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절제를 해도 우리 일은 펴일줄 몰라요. 가령 바로 오늘처럼 온 집안을 다 들추어도 한푼의 돈도 찾아내지 못하는 날들이 있으니까요.》

마여의 안해는 100쑤의 돈이 요구된다는것을 암시하고싶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치명적인 빚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것을 설명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처음에 그의 빚은 아주 보잘것 없는것이였는데 곧 늘어나 온 가정을 버리게 되였다는것이였다. 그들은 매번 로임을 받을 때마다 정상적으로 빚을 물어왔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은 로임을 제때에 받지 못한적이 있었다. 그렇게 되자 일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로부터 돈을 당해낼수 없게 되고 그 구멍을 메우는 수가 없게 되여 그들은 절망에 빠졌다. 뼈빠지게 일했건만 빚은 청산할수 없었다. 제기랄, 죽을 곤경에 처한것이다. 뿐만아니라 한

두조끼의 맥주는 탄부들이 목구멍에서 석탄먼지를 가시는데 필요하다는것을 생각하여야 하였고 맥주는 그래서 마시기 시작하는것인데 다음에 괴로운 걱정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은 술집에서 나오지 않는것이다.

누굴 원망하는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로동자들은 아마도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는것이였다.

《회사는 당신들에게 주택과 연료를 주는줄 아는데요.》 하고 그레그와르부인이 말했다.

마여의 안해는 난로에서 황황 타오르는 석탄을 흘끔 바라보았다.

《예, 그래요. 석탄을 주지요. 물론 썩 좋은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타기는 탑니다.… 주택에 대해서 말한다면 집세로 전부해서 한달에 6프랑을 물면 되지요. 보잘것 없는 돈같지만 그것도 물기가 아주 어려운 때가 많답니다.… 가령 오늘같은 날은 내 몸을 쪼각낸대도 2쑤를 빼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서 뭣이 나오겠어요!》

나으리와 부인은 잠자코 쭉 뻗치고 포근하게 앉아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앞에 이러한 빈궁을 늘어놓자 점차 싫증을 느끼고 불쾌해졌다. 마여의 안해는 자기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나 않는가 하여 더럭 겁이 났다. 그리하여 그는 실무적인 녀인처럼 정확하고도 침착한 어조로 덧붙였다.

《그렇지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것은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팔자가 그런걸 어떡합니까? 아무리 갖은 애를 다 써도 그저 그 모양, 그 꼴이지요. 나리님, 마님, 제일 좋기는 하느님이 점지해준 곳에서 정직하게 자기 일을 하는것이 아닐가요?》

그레그와르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찬성했다.

《여보시오. 그렇게 마음먹으면 불행을 이겨낼수 있소.》

오노리느와 멜라니가 드디여 보따리를 가져왔다. 쎄씰은 손수 그것을 끄르고 옷을 두벌 꺼내였다. 그리고 그 옷들에 수건이며 지어는 양말, 장갑까지 덧붙였다. 그 모든것이 아이들에게 꼭 들어맞을것이였다. 물건들을 싸주라고 하녀에게 일렀다. 자기의 피아노선생이 왔으므로 쎄씰은 무척 서둘렀고 마여의 안해와 아이들을 문쪽으로 밀어냈다.

《우리 집엔 전혀 돈이 없답니다.》 하고 마여의 안해는 말을 더듬었다.

《100쑤만 있으면…》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마여일가는 자존심이 높아서 아직

한번도 동냥한적이 없었던것이다. 쎄씰은 불안한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무슨 직분이라도 수행하는듯 한 표정으로 단호히 거절하였다.

《안되오. 그건 우리 관습에 어긋나오. 우린 그렇게 할수 없소.》

어머니의 아연실색한 얼굴에 마음이 움직인 처녀는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쥐여주려고 하였다. 아이들은 줄곧 빵과자를 응시하고있었다. 쎄씰은 그것을 두쪼각내여 아이들에게 내밀었다.

《자! 이걸 받아.》

다음에 그는 그것을 도로 쥐고 낡은 신문지를 달라고 했다.

《좀 가만있어, 오빠랑 언니랑 나눠먹어라.》

그리고 쎄씰은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부모들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고있었다. 빵이 없던 가엾은 아이들은 고사리같은 언손에 이 빵과자를 공손히 받아들고 나갔다.

마여의 안해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신작로를 걸었다. 그에게 텅빈 공지도, 꺼먼 진창도, 빙빙 돌아가는 흐릿한 하늘도 보이지 않는듯 했다.

몽쑤를 다시 지나다가 단연히 결심하고 메그라를 찾아간 그는 어찌나 애원하였던지 드디여 빵 두덩이와 커피, 빠다, 지어는 그토록 바라던 100쑤의 돈까지 얻었다. 메그라가 한주일기한으로 꾸어주었던것이다. 그에게 필요한것은 마여의 안해가 아니라 까뜨리느였다. 식료품이 소용되면 딸을 보내라고 메그라가 말하자 마여의 안해는 그 눈치를 알아차렸다. 두고보라지, 함부로 까뜨리느에게 손을 대다가는 뺨을 맞을테니.

3

사제 쥬아르르가 일요일마다 아침 례배를 드리는 되쌍까랑뜨마을 교회의 벽돌종루에서는 11시종을 쳤다. 교회옆에는 역시 벽돌건물인 학교가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창문들이 꽉 닫혀있었으나 거기서는 아이들이 느릿느릿 글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채의 꼭같은 모양으로 지은 주택들의 정원사이로 지나간 넓은 길우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겨울이 휩쓸고 지나간 정원에는 석회질의 흙이 쓸쓸

하게 드러나보이고 아직 남아있는 남새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부엌들에서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굴뚝들에서 연기가 솟아 올랐다. 이따금 녀인네들이 집주위에 나타났다가는 문을 열고 그안으로 사라지군 했다. 비는 내리지 않았으나 하늘은 의연 찌뿌둥했고 대기는 너무나 습해서 배수관에서는 물방울이 흘러내려 포장한 인도의 나무통으로 떨어지군 했다. 넓고 펀펀한 언덕우에 일거에 건설한 이 마을을 장례띠와도 같은 꺼먼 길이 에돌았으며 비물에 씻기고씻긴 붉은 기와지붕들만이 즐거움을 자아내고있었다. 마여의 안해는 돌아올 때 어느 감독의 처에게서 감자를 사려고 먼길로 돌아왔다. 그 감독의 처는 제가 수확한 감자를 아직 얼마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그곳 벌판의 유일한 나무들인 연약한 백양나무들뒤에 한무리의 독립건물들이 네세대씩 모여섰는데 그 둘레에는 뜨락들이 삥 둘러 자리잡고 있었다. 회사가 감독들을 위해 시험적으로 이 구역을 따로 건설했던 것이다. 그래서 탄부들은 이 구역을 바―더―쓰와(명주양말이라는 뜻)마을이라고 불렀고 저들의 구역은 괴로운 가난을 비웃어 빼―떼―대뜨(빚꾸러기)마을이라고 일컬었다.

《아이구! 다 왔구나!》 보따리를 잔뜩 든 마여의 안해는 다리맥이 풀려서 감탕칠을 한 레노르와 앙리를 앞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알지르가 우는 에쓰뗼을 안고 불앞에 앉아서 흔들어주고있었다. 사탕도 다 떨어져서 알지르는 어린애를 어떻게 달랠지 몰라 젖을 먹이는체 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하면 자주 울음을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보람도 없었다. 알지르가 옷을 헤치고 여덟살의 여윈 자기 가슴에 에쓰뗼의 입을 가져다대여도 어린애는 성나서 젖 한방울 안나오는 젖가슴을 마구 깨물뿐이였다.

《그 애를 이리 줘!》 하고 보따리를 내려놓은 어머니가 큰소리로 말했다. 《이 애때문에 말할 사이도 없구나.》

마여의 안해가 가슴을 헤치고 불룩한 가죽주머니 같은 무거운 젖을 내놓자 시끄럽게 울어대던 어린애는 울음을 뚝 그치고 젖꼭지에 매달렸다. 그제서야 그들은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 집일은 모두 잘되여있었다. 어린 주부는 불을 잘 돌보았고 방을 쓸고 거두었다. 방안이 조용해지자 2층에서 할아버지가 드렁드렁 고르롭게 코를 고는 소리가 쉬임없이 들려왔다.

《아이참, 좋은것들이 많아!》 하고 알지르는 식료품을 살펴보면서 미소를 짓고 말하였다. 《엄마, 내가 이제 국을 끓이겠어.》

식탁우에는 옷보따리, 두개의 빵, 감자며 빠다, 커피, 시꼬레(쑥갓의 일종, 그 뿌리를 닦아서 가루내여 커피에 섞는다.), 250그람의 돼지고기보쌈 등이 놓이였다.

《응, 국 말이냐! 국!》 하고 마여의 안해는 지친 기색으로 말했다. 《가서 싱아를 뜯어오고 파를 뽑아와야겠구나. … 아니야, 어른들 먹을건 내가 이따 만들겠다. … 감자를 올려놓고 삶아라. 우린 빠다를 발라 먹자… 그리고 또 커피, 커피도 잊지 말고 끓여라.》

마여의 안해는 문득 빵과자가 생각났다. 그는 벌써 쉬고나서 생기발랄하여 바닥에서 싸움질하고있는 레노르와 앙리의 빈손을 바라보았다. 이 식충이들이 도중에 슬그머니 그것을 다 먹어버렸단 말인가? 그래서 마여의 안해는 그들의 뺨을 쳤다. 남비를 불우에 올려놓던 알지르가 어머니를 진정시켰다.

《내버려둬 엄마, 나때문에 그런다면. 엄마도 알잖아, 난 못 먹어도 좋아, 그 애들은 너무 멀리 걸어서 배가 고프니까 그랬지 뭐.》

시계가 12시를 쳤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신발소리가 들려왔다. 감자가 익었고 시꼬레를 절반이상 넣어 진해진 커피도 귀맛좋은 소리가 나게 방울방울 걸렸다. 식탁 한쪽을 치우고 어머니가 거기서 먹었고 세 아이들은 무릎우에 놓고 먹었다. 말 못할 게걸이 든 소년은 줄곧 돼지고기보쌈을 잠자코 바라보는데 그것을 싼 기름밴 종이가 그를 무척 자극했던것이다.

마여의 안해가 손을 녹이려고 두손으로 잔을 감싸쥐고 커피를 조금씩 마시는 참에 본느모르아버지가 내려왔다. 노상 그는 퍽 늦어서야 일어났기때문에 그의 조반은 그가 내려올 때까지 불우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로인은 국이 없다고 투덜거렸다. 며느리가 언제나 뜻대로 될수는 없다고 말하자 그는 잠자코 감자를 먹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 일어서서 마루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수북한 재우에 침을 뱉고 다시 의자에 와앉아서 눈을 멍하니 뜬채 고개를 수그리고 감자를 입안에서 우물우물 씹었다.

《참 깜빡 잊었네, 엄마!》 하고 알지르가 말하였다. 《옆집 엄마가 왔댔어.》 어머니는 알지르의 말을 막았다.

《그따윈 귀찮다!》

마여의 안해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꾸어주지 않으려고 전날 저녁에 도리여 자기의 궁한 타령만 하던 옆집 레바끄의 안해를 은근히 미워했던것이다. 마여의 안해는 요즘 레바끄의 안해가 궁하지 않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것은 그의 집에 하숙하고있는 부뜰루가 얼마전에 두주일분 하숙비를 미리 지불한것도 있었기때문이였다. 하긴 마을사람들모두가 서로 꾸어주기를 싫어했다.

《가만있어! 네 말을 들으니 생각나누나.》 하고 마여의 안해가 말했다. 《커피를 종이에 싸라… 삐에롱의 아주머니한테 가져가야겠다. 그저께 꿨댔어.》

알지르가 종이봉지를 싸놓자 어머니는 자기가 곧 돌아와서 어른들의 국을 끓이겠다고 말하고 에쓰뗄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 본느모르로인은 감자를 천천히 씹고있었는데 레노르와 앙리는 떨어진 감자껍질을 저마다 먹으려고 서로 싸우고있었다.

마여의 안해는 레바끄의 처가 자기를 부르지 않게 에돌아갈 대신에 곧바로 뜨락을 질러갔다. 그야말로 그의 뜨락은 삐에롱의 집뜨락에 잇대여있었고 낡은 울타리에는 두 집 사람들이 쉬 나들수 있게 큰 개구멍이 나있었다. 네세대가 같이 쓰는 우물도 거기에 있었고 그옆에는 몇그루의 연약한 정향나무가 있고 그 저쪽에는 낡은 공구들이 가득 쌓여있는 작고 나지막한 고간이 있었다. 거기서는 토끼를 한마리씩 길러서 명절에 잡아먹군 했다. 시계가 1시를 쳤다. 이 시각이되면 사람들은 보통 커피를 마신다. 그래서 문턱이고 창문가에는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버럭처리공 한사람이 탄갱으로 나가기 전에 고개도 안들고 자기 집 터전에서 남새를 심으려고 삽질을 하고있었을뿐이였다. 마여의 안해는 맞은편 집으로 다가가다가 교회당옆에 한 신사와 두 부인이 서있는것을 보고 놀랐다. 그 자리에 멈춰선 그는 곧 그들을 알아보았다. 엔보부인이 손님으로 온 훈장단 신사와 털외투를 입은 부인에게 마을을 보여주고있었다.

《뭘 그렇게 급히 가져왔어요?》 하고 삐에롱의 안해는 마여의 안해가 커피를 내여주자 큰소리로 말했다. 《뭐 그렇게 바쁜것도 아닌데.》

삐에롱의 안해는 나이가 스물여덟인데 마을에서 미인으로 이름이 났

었다. 갈색머리에 이마가 좁고 눈이 크고 입이 작은 그는 암고양이처럼 말쑥했으며 애교를 곧잘 부리군 했다. 그에겐 아이가 없어서 보기좋은 젖가슴이 그대로 불룩했다. 브률레라는 별명을 지니고있는 그의 어머니는 탄갱에서 탄부로 일하던 남편을 여읜 과부였다. 그는 자기 딸을 공장에 내보내고 탄부한테 절대로 시집을 보내지 않겠다고 별렀는데 그가 여덟살난 계집애를 가진 홀아비인 삐에롱과 뒤늦게 결혼하자 성이 가라앉는 날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뒤소리들과 남편의 애정과 안해의 정부들에 대한 소문이 도는 가운데서도 그들부부는 대단히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는 법이 없었고 한주일에 두번씩은 꼭꼭 고기를 먹었다. 그들의 집은 무척 깨끗이 거두어서 어느 남비를 봐도 거울처럼 반들거렸다. 그밖에 삐에롱의 안해는 회사를 후원해준덕에 회사로부터 당과류장사를 할수 있는 허가를 받아 창문가에 두개의 널판자를 놓고 당과류를 담은 유리단지들을 진렬해놓았다. 이런 장사로 하루에 6~7쑤, 어떤 일요일에는 12쑤까지 벌었다. 그들의 행복한 생활에서 애오라지 흠집으로 남아있는것은 죽은 남편의 복수를 탄광주들에게 해야겠다고 미친듯이 분노를 터뜨리는 늙은 브률레로파와 온 가족의 웃음인 어린 리디가 뺨을 얻어맞는것이였다.

《참, 애가 벌써 수태 컸네!》 하고 삐에롱의 안해는 에쓰뗄을 달래면서 말했다.

《아이구, 얼마나 애를 먹인다구, 말두 말아요!》 하고 마여의 안해가 대꾸했다. 《당신은 얼마나 좋아요, 어린것이 없어서. 다른건 몰라도 집이라도 깨끗이 거둘수 있지 않아요.》

마여의 안해는 자기 집도 모든것이 정돈되여있고 토요일마다 마루를 닦으면서도 주부의 부러운 눈으로 대단히 밝고 맵시있게 꾸린 방안을 한번 쭉 훑어보았다. 찬장에는 금빛나는 단지들이 놓여있었고 벽에는 거울과 액틀에 넣은 석점의 판화가 걸려있었다.

젊은 녀인은 때마침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였다. 온 가족이 탄갱에 나가는고로 그는 노상 혼자서 마시지 않으면 안되였다.

《함께 한잔 듭시다.》 하고 젊은 녀인은 권했다.

《아니요, 고마와요. 이제 방금 집에서 마셨는데요.》

《원, 마셨는데 어떻다는거예요?》

기실 그 말도 옳았다. 그리하여 두 녀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창문을 거쳐 당과류들이 들어있는 유리단지사이로 맞은켠에 창가림을 늘인 집들이 내다보였다. 그 창가림들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따라 주부들의 일솜씨를 알수 있었다. 레바끄의 집 창가림들은 무척 더러워서 정말 남비밑바닥을 방금전에 훔쳐낸 걸레같았다.

《저렇게 더러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수 있을가요!》 하고 삐에롱의 안해가 중얼거렸다.

그 말에 마여의 안해가 수다스럽게 지절거리기 시작했는데 그칠줄 몰랐다. 자기 집에 부뜰루와 같은 하숙인이 있다면 살림을 본때있게 꾸렸으리란것이였다. 잘만 하면 하숙인을 두는것이 아주 괜찮은 벌이라는것이다. 다만 그와 동서생활을 할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남편이 망탕 술을 마시고 안해를 때리고 몽쑤에 있는 카페의 녀가수들한테 자주 드나든다고 했다.

삐에롱의 안해의 얼굴에는 어느덧 깊은 혐오감이 어리였다. 아 그 가수년들, 그것들이 온갖 몹쓸 병을 전염시킨다. 쥬아젤에서는 한 녀가수가 온 탄갱에 병을 전염시켰다고 한다.

《집에선 왜 아드님이 레바끄의 딸과 가깝게 지내는것을 그냥 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집뜨락이 서로 맞붙어있지 않아요. 여름이면 자샤리는 노상 필로멘느하구 정향나무밑에 들어가있지요. 부끄러움이라도 좀 타고 헛간에라도 들어갔으면 좋으련만 물길러 우물에 갈적마다 둘이 같이 있는걸 보게 된다우.》

마을에서는 놀랍게도 이와 류사한 일이 보통이였다. 처녀총각들은 타락하기가 일쑤였다. 그들은 저들이 말하고있는것처럼 날이 어둡자마자 낮은 헛간지붕우에서 놀았다. 모든 녀운반공들이 헛간에서 첫아이를 낳았고 어떤 운반공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레끼아르나 밀밭으로 갔다. 그래도 별일 없었다. 곧 결혼하면 그만이였다. 어머니들만이 자기 아들들이 너무 일찌기 이런 놀음을 시작하면 불그락푸르락해서 야단이였다. 장가든 아들들은 집에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기때문이였다.

《나같으면 끝장을 보고야말겠어요.》 하고 삐에롱의 안해는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집의 자샤리는 그 처녀에게 아이를 둘씩이나 낳

게 했으니 그들은 더 붙어돌아갈거예요. 그가 버는 돈은 어쨌든 이젠 바랄수 없는거구요.》

마여의 안해는 성이 나서 두손을 펼쳤다.

《들어봐요, 난 그 애들을 저주해요. 그들이 동서생활을 하면… 자샤리가 정말 우릴 공경하지 않아야 한단 말이예요? 그 애한테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러니 녀편네 생각을 하기 전에 부모들의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요. … 애들이 그만때부터 벌써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우린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죽기 마련이지!》

그러나 마여의 안해는 이내 누그러졌다.

《난 보통 있게 되는것을 말했어요. 후에 두고보아야지요. … 집의 커피는 얼마나 진한지 모르겠군요. 넣을것을 다 넣었군요.》

마여의 안해는 15분가량 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사내들에게 줄 국을 끓이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있었다. 여기저기 문턱에 녀인네들이 나서서 손님들과 함께 한 건물의 정면을 따라가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을에 대하여 설명하고있는 엔보부인을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있었다. 손님들의 방문으로 온 마을이 뒤숭숭해지기 시작했다. 삽질을 하던 버럭처리공은 잠간 일손을 멈추었다. 어느 집 뜨락에서는 암닭 두마리가 놀란듯이 꼬꼬댁거렸다.

마여의 안해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레바끄의 안해와 마주쳤다. 레바끄의 안해는 지나가는 회사의 의사 방데르하겡을 만나려고 밖에 나왔었다. 키가 자그마한 그 의사는 일이 많아서 바빠하였고 진찰도 서둘러 하였다.

《선생님.》 하고 레바끄의 안해가 말을 걸었다.

《전 전혀 잠을 못 잡니다. 온몸이 아파요. 당신의 진찰을 받아야 할가봐요.》

의사는 누구와도 너나들이를 했는데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대꾸했다.

《귀치 않게 굴지 말어!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겠지.》

《저의 남편도 같아요.》 이번에는 마여의 안해가 말했다. 《좀 들어가 봐주었으면 좋겠어요. … 그는 노상 다리때문에 고통을 겪는답니다.》

《그건 임자가 너무 괴롭혀서 그래, 시끄럽게 굴지 말어!》
두 녀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달아나는 의사의 등을 바라보았다.
《좀 들어가요!》 이윽고 레바끄의 안해가 락심해서 어깨를 으쓱해보이면서 말했다. 《이봐요, 새 소식이 있어요. … 겸사겸사 커피두 마시구, 금방 끓인거예요.》
그에게서 벗어나보려던 마여의 안해는 할말이 없어졌다. 하여튼 이웃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가봐 커피를 한모금 마시기로 했다.
방안은 놀랄만치 어지러웠다. 마루와 벽은 기름때에 얼룩이 지고 찬장과 식탁에는 때가 시꺼멓게 묻어있었다. 불결한 가정에서 풍기는 악취에 숨이 막혔다. 난로옆에는 부뜰루가 식탁에 팔꿈치를 고이고 접시에 코를 박고 나머지 삶은 소고기를 요정내고있었다. 어깨가 쩍 버그러지고 몸집이 좋고 유순한 그는 서른다섯치고는 아직 젊어보였다. 맞은편에는 필로멘느의 첫 아이인 벌써 세살잡힌 아쉴이 서서 게걸스러운 짐승이 말없이 애원하듯 부뜰루를 쳐다보고있었다. 짙은 암갈색의 턱수염이 더부룩한 무던하게 생긴 하숙인은 이따금 소고기점을 어린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좀 기다려요, 사탕을 넣구요.》 레바끄의 안해는 커피주전자에 사탕가루를 타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이 녀인은 젖가슴과 배가 축 처지고 얼굴은 넙적하고 언제봐도 헝클어진 머리에는 벌써 흰머리칼이 섞여있었는데 부뜰루보다는 여섯살이나 우이였다. 물론 부뜰루는 머리카락이 빠진 국이라든가 석달나마 홑이불을 갈아대지 않은 잠자리에 대해서보다도 더 그 녀자의 부족점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지 않고 이 집에 하숙을 정하였다. 레바끄의 안해는 부뜰루를 하숙시키고 남편은 회계를 정확히 하여야 친구가 된다고 즐겨말하군 했다.
《이런걸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하고 레바끄의 안해가 말을 이었다. 《어제 저녁에 삐에롱의 처가 바—더—쓰와쪽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봤대요. 당신도 알고있는 그 나으리가 라스너르의 집 뒤에서 그 녀잘 기다리고있다가 함께 운하를 따라 산보하더라나요. 어때요? 남편있는 녀자가 글쎄 그게 뭐예요!》
《뭐긴 뭐겠소.》 하고 마여의 안해가 말했다.
《삐에롱이 결혼하기 전에 감독에게 토끼를 잡아 대접했다면 이제

는 자기 녀편넬 대접하는거지요. 그게 더 값싸니까요.》
부뜰루가 껄껄 웃고나서 빵쪼각을 쏘스에 담그었다가 아쉘의 입에 넣어주었다. 두 녀인은 서로 삐에롱의 안해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다른 녀자들보다 별로 뛰여난것은 아니고 그저 무척 애교를 부릴뿐으로 진종일 거울을 들여다보고 세면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것이다. 결국 그런것을 좋아한다면 이것은 그에게 관계되는것이였다. 한마디의 치하를 듣고저 상전들을 닦아주는 야심가들도 있다. 이웃녀인이 필로멘느의 아홉달내기 막내라는 데지레를 데리고 들어오는 바람에 험담은 그만 끊어졌다. 필로멘느자신은 선탄장에서 조반을 먹어야 했으므로 자기 아이를 그곳으로 데려오게 하고 석탄더미우에 앉아서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군 했다.
《난 어린애한테서 잠시도 떨어질수가 없어요. 떨어지기만 하면 기를 쓰고 울어대니까요.》 마여의 안해는 제 팔에 안겨서 자는 에쓰뗄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마여의 안해는 얼마전부터 《이봐요,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결판져야 하지 않아요.》 하는 레바끄의 안해의 집요한 눈길을 피할수 없었다.
처음에 두 어머니는 이야기해볼것도 없이 자샤리와 필로멘느를 성례시킬 필요가 없다는데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았었다. 마여의 안해는 되도록이면 아들이 타오는 로임을 더 오래 쓰려고 했고 필로멘느의 어머니는 딸의 로임을 단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분했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레바끄의 안해는 자기 딸에게 어린애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 애를 차라리 자기가 데리고있는것이 더 나으리라는 생각까지 했었다. 그러나 첫 아이가 커서 빵을 먹기 시작하고 그사이에 다른 아이가 또 생겨 손해를 보게 되자 제것이 아까와 그는 결혼을 몹시 서두르게 된것이였다.
《자샤리는 결심이 되였어요.》 하고 레바끄의 안해는 말을 이었다. 《이젠 더 걸릴게 없어요. … 그래 언제 할가요?》
《형편이 좀 펴일 때까지 기다립시다.》 마여의 안해는 무안해하면서 대꾸했다. 《시끄럽게 됐어요, 그 일이! 성례할 때까지 그렇게도 못참을가. 정말 까뜨리느까지 그런 못난짓을 했다는 말이 내 귀에 들어오면 난 죽여버리겠어요!》

레바끄의 안해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만둬요, 다른 애들처럼 그 애도 그렇게 될거예요!》
부뜰루는 제 집에서처럼 태연하게 찬장으로 다가가서 빵을 찾기 시작했다. 식탁 한끝에는 레바끄의 국거리남새, 껍질을 벗기다만 감자와 파가 놓여있었다. 주부는 여라문번이나 그것들을 이야기도중에 쥐였다가 놓군 했다. 드디여 그는 남새를 손질하기 시작했는데 또 얼마 안 가서 일감을 놓고 창문가로 다가갔다.
《저건 뭐예요?… 보세요! 엔보부인이 웬 나으리들과 함께 다니네. 저걸 봐요, 삐에롱의 집쪽으로 들어가요.》
두 녀인은 또다시 삐에롱의 안해를 화제에 올렸다. 회사는 손님들에게 마을을 보여줄 때면 한번도 그 집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곧바로 그리로 안내해갔다. 그것은 그 집이 깨끗해서였다. 물론 손님들에게는 도감독과 그와의 관계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천프랑씩 돈을 벌며 주택과 난방시설을 무료로(뢰물은 셈에 넣지 않더라도) 보장받는 정부들을 가지고있으면 집을 깨끗이 거두는것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겉으로 보면 깨끗하지만 그대신 속은 더러운것이다. 손님들이 맞은편 집에 머물러있는 동안 두 녀인은 줄곧 수다를 떨었다.
《나오는군요.》 드디여 레바끄의 안해가 말했다.
《한바퀴 돌아보는군… 이봐요, 저 사람들이 당신네 집으로 가는게 아니예요?》
마여의 안해는 겁이 더럭 났다. 과연 알지르가 식탁에 행주질을 했을가? 그리고 자기 국은 역시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마여의 안해는 《잘있어요.》 하고 한마디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황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집안은 말끔하였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아서 알지르는 앞치마를 입고 아주 심각해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알지르는 밭에 남아있는 파를 뽑아오고 싱아를 뜯어오고 남새를 깨끗이 씻고있었다. 그러는 한편 불우에 올려놓은 큰 솥에는 어른들이 탄갱에서 돌아와서 몸을 씻을 물을 덥혔다. 앙리와 레노르는 여느때와는 달리 참해져서 낡은 력서를 찢는데 정신이 팔려있었다. 본느모르할아버지는 잠자코 대통을 뻑뻑 빨고있었다.
마여의 안해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있을 때 엔보부인이 문을 두드렸다.

《여보세요, 들어가도 일없겠어요?》

키가 크고 갈색머리에 40대에 훌륭히 세련되여 얼마간 무게가 있어보이는 녀인은 친절성을 보이려고 애쓰면서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에는 몸에 걸친 까만 비로도외투밑에 입은 청동빛 명주옷을 더럽히지나 않을가 하는 두려움이 가리워져있는듯 했다.

《들어가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하고 엔보부인은 손님들을 안으로 청했다. 《어려워하실것 없어요. 역시 깨끗하지요? 이 집엔 아이가 일곱이나 된답니다! 이 고장의 모든 집들이 이렇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한달에 여섯프랑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집을 임대해주고있지요. 아래층에는 큰 방이 하나 있고 2층에는 방이 둘씩이나 있고 움과 정원이 달려있지요.》

빠리에서 아침차로 온 훈장을 단 신사와 털외투를 입은 부인은 자기들에게 보여주는 모든것이 그저 놀랍기만 하여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정원까지 있어요?》 하고 부인이 되물었다.

《여기선 모두들 아주 잘 사는군요, 건 참말 훌륭해요!》

《석탄도 우리는 그들에게 때고도 남게 넉넉히 주고있어요.》 하고 엔보부인이 말을 이었다. 《의사는 한주일에 두번씩 그들을 검진하고요, 로임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그들은 늙으면 년금을 타게 되지요.》

《평온한 고장이요! 극락향이요!》 신사는 감탄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마여의 안해는 서둘러 의자들을 권했다. 그러나 부인들은 거절했다. 엔보부인은 갑갑하게 지내다가 이 조교사와도 같은 역을 놀면서 즐기게 되여 한순간 기뻤으나 깨끗한 집들만 선택하여 보았지만 빈궁으로 인한 무미건조한 느낌에 곧 싫증이 났다. 엔보부인은 남에게서 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되풀이했을뿐 결코 자기 주변에서 일하면서 신음하고있는 로동대중에게 관심을 돌리는 일이 없었다.

《이 애들은 얼마나 귀여워요.》 부인은 속으로는 아이들을 끔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의 머리는 엄청나게 컸으며 벼짚처럼 뿌연 머리칼은 더부룩하였다.

마여의 안해는 아이들의 나이가 몇인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손님들은 인사치레로 에쓰뗄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본느모르할아버

지는 점잖게 입에 물었던 대통을 빼내였다. 그러나 40년간의 지하로동으로 몹시 험상해져 다리가 뻣뻣해지고 뼈는 앙상한데다 무섭게 된 얼굴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기침이 심히 나서 밖에 가래를 뱉으려고 방에서 나갔는데 그것은 자기의 시꺼먼 가래침이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줄가봐 두려워서였다. 알지르는 아주 인기를 끌었다. 앞치마를 입은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 꼬마주부인가! 방문객들은 나이에 비해 그렇게 총명한 딸을 가진 어머니를 칭찬했다. 아무도 그의 곱사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동정이 담긴 그러나 어쩐지 어색한 눈길들이 자주 가련한 불구자에게 와서 멎군 했다.

《이젠》 하고 엔보부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빠리에서 이곳 마을에 대해 캐여물어도 당신들은 많은것을 이야기할수 있을거예요. 여기는 평화로운 고장이지요. 보셨지만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지요. 대체로 이 고장은 공기도 좋고 조용하니 당신들이 보양하러 올만 한 곳이랍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신사는 아주 감탄해서 되풀이했다.

그들은 희귀한 물건들이나 본것처럼 환희에 넘친 얼굴로 밖으로 나왔다. 마여의 안해가 손님들을 배웅하고 문턱에 있는 동안 그들은 큰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떠나갔다. 거리는 흥성거렸다. 그들은 저들의 방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집집마다 소문을 퍼뜨리는 한무리의 녀인들가운데로 지나가야 하였다.

레바끄의 안해는 호기심에서 거리로 뛰여나온 삐에롱의 안해를 자기 집 문간으로 불러세웠다. 그들 둘은 불쾌하여 놀란체 하였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방문객들은 마여의 집에서 류숙할셈인가?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기이한것이 아니였다.

《저 집에서는 그렇게 벌어들이면서도 언제나 돈이 없어 야단이지! 글쎄 악습이라니까!》

《내가 조금전에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저 녀편네가 삐올랜느의 나으리에게 동냥하러 갔댔대요. 처음엔 빵을 못 주겠노라고 거절하던 메그라가 후에는 주었다는군요. … 메그라에게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하는지 뻔하지요 뭐.》

《저 녀자한테… 아니예요! 담이 …커야지요… 빚은 까뜨리느가 다 청산하지요.》

《그래요! 그런데 이봐요. 방금 그는 뻔뻔스럽게도 까뜨리느가 그따위짓을 하면 자긴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키꺽다리 솨발이 언제부터 그 애허구 관계하는걸 우리가 모르는줄 아는가베!》
《조용해요! 저 사람들이 가는군요.》
레바끄의 안해와 삐에롱의 안해는 몰렴치한 호기심은 품지 않은채 태연한 얼굴로 집에서 나오는 방문객들을 슬그머니 엿보는것으로 그치였다. 이윽고 그들은 에쓰뗄을 안고 문밖으로 나온 마여의 안해를 눈짓으로 불렀다. 그들 세 녀인은 까딱하지 않고 서서 멀어져가는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엔보부인과 손님들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서른발자국쯤 물러가자 전보다 더 활발한 뒤공론이 시작되였다.
《저 사람들이 입은건 값싼것이 아니예요. 아마 그들자신보다 더 값이 나갈거예요!》
《더 비쌀수도 있지요! 난 그 녀잔 모르겠지만 여기 사는 저 녀자는 어찌나 뚱뚱한지 4쑤값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저 녀자에 대해선 말이 많아요. …》
《그래? 무슨 이야긴데요?》
《저 녀자에게 서방이 몇인가 하는거지요. 첫째로 기사구…》
《그 자그마한 말라꽹이 말이예요?… 그는 너무 작아서 이불속에서도 잃어버리고말거예요.》
《마음에 들면 그만이지 그런거야 문젠가요. … 잔뜩 얼굴을 찡그리고 제 처지에 전혀 좋아하는 기색이 없는 마님은 의심스럽단 말이예요. 보세요, 저 녀자가 엉뎅일 내두르는걸. 우리모두를 깔보는거지 뭐예요. 당신생각엔 이것이 좋단 말예요?》
방문객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느린 걸음새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륜마차 한대가 교회당 앞길에서 멈춰서더니 거기서 검은 례복코트를 입은 48쯤 된 한 신사가 내렸다. 그는 아주 거무스레하고 권세있고 단정한 얼굴을 한 사나이였다.
《남편이군요!》 레바끄의 안해가 그가 듣기라도 하는듯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지배인이 자기의 만명 로동자들에게 주입하고있는 주인에 대한 공포가 어려있었다. 《어쨌든 저 사람도 녀편넬 떼운건 사실이지요!》
이제는 온 마을사람들이 거리로 밀려나왔다. 녀인들의 호기심은 늘어

갔고 무리에 무리가 합쳐지고 코를 훌쩍거리는 조무래기들이 떼를 지어 입을 쩍 벌리고 걸음길에서 어슬렁거리고있었다. 학교울타리뒤에서 교원의 창백한 얼굴이 언뜻 보였다. 뜨락에서 삽질을 하던 사나이는 일손을 멈추고 발에 삽날을 댄채 두눈을 휘둥그래 떴다. 중얼대던 험담이 점차 마치 마른 나무잎을 날리는 바람소리처럼 새된 소리로 커졌다.

레바끄의 집부근에 사람들이 그중 많이 모였다. 처음에는 두 녀인이 왔고 다음에는 열명, 스무명이 몰려왔다. 삐에롱의 안해는 신중하게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너무나도 귀가 많았던것이다. 가장 분별있는 사람들중의 하나인 마여의 안해도 구경하는것으로 그치였다. 에쓰뗄이 깨여나 울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를 달래려고 처진 젖을 여럿이 보는데서 태연하게 드러내놓았다. 젖이 불어서 부풀어오르기때문에 그 젖이 길게 늘어진듯 했다. 엔보씨가 부인들을 태우자 마차는 마르쉬엔느를 향하여 달렸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수다스러운 잡담이 터졌다. 그들은 헤쳐놓은 개미굴처럼 부산을 피우면서 일시에 손짓을 해가며 서로 얼굴에 대고 떠들어대였다.

시계가 3시를 쳤다. 부뜰루와 다른 버럭처리공들이 작업에 나갔다. 갑자기 탄갱에서 돌아오는 첫 탄부들이 교회당굽인돌이에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은 새까맸고 옷들은 흠뻑 젖어있었다. 그들은 등을 구부리고 팔짱을 끼였다. 집일을 다 버리고 지나치게 커피를 마시며 남의 뒤공론을 하다가 덜미를 잡힌 녀인들은 모두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심하게 다투는 불안스러운 고함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맙시사! 내 국은 어떻게 됐어? 국이 준비되지 않았단 말이야!》

4

마여가 에띠엔느를 라스너르의 집에 남겨두고 집에 돌아왔을 때 까뜨리느와 자샤리, 쟝렝은 식탁에 앉아서 국을 마시고있었다. 몹시 허기진 탄부들은 탄갱에서 돌아와서는 젖은 옷을 그냥 입은채로 얼굴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군 했다. 아무도 무엇을 차려줄것을 기다리지 않았다. 식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차려놓은채 있었으며 작업시간의 구분에 따라 항상 누군가가 식탁에 앉아서 자기 몫을 먹고있었다.

마여는 방에 들어서자 식료품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의 근심스러워하던 얼굴은 밝아졌다. 아침내 그가 숨막힐듯 한 막장에서 탄을 캐는 동안 그를 몹시 고통스럽게 괴롭힌것은 찬장이 텅 비였고 집에는 커피도 빠다도 없다는 생각이였다. 녀편네가 두루 마련하지 않을가? 그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그런데 알고보니 모든것이 다 있지 않는가. 후에 안해는 어떻게 얻어온것인지 전말을 그에게 이야기해줄것이다.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까뜨리느와 쟝렝은 벌써 식탁에서 일어나서 선채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국을 마시고도 배가 부르지 않은 자샤리는 빵을 큼직하게 잘라서 거기에 빠다를 발랐다. 그는 접시에 담은 돼지고기보쌈을 보았으나 그것을 다치지는 않았다. 육붙이가 한사람몫밖에 없을 때에는 늘 아버지것이였다. 국을 마신 후에 모두들 찬물을 한잔씩 마셨다. 언제나 로임이 나오기 전 마지막 며칠동안은 이 훌륭한 맑은 물을 음료로 마셨다.

《맥주는 없어요.》 아버지가 식탁에 앉자 어머니가 말했다. 《난 돈을 죄다 없애고싶지 않았어요. 정 마시겠다면 알지르가 달려가서 한 파인트(프랑스의 낡은 용량단위, 1파인트는 0.9리터) 사오게 하지요.》

남편은 안해를 쳐다보았다. 남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아니! 돈도 있단 말인가?

《아니, 일없소.》 하고 마여는 대꾸했다. 《난 이미 한조끼 마셨으니 그만 됐소.》

그리고나서 마여는 접시대신 사발에 떠놓은 빵, 감자, 마늘, 싱아를 버무려 넣은 국을 한술한술 천천히 떠먹었다. 안해는 에쓰뗄을 안은채 알지르가 식탁을 차려놓는것을 거들어주었다. 그는 남편에게 빠다와 고기를 가까이 놓아주고 커피가 뜨겁도록 불우에 다시 올려놓았다.

이러는 사이에 난로옆에서는 나무통을 톱으로 절반 켜서 만든 함지에서 목욕이 시작되였다. 까뜨리느가 먼저 씻었다. 그는 함지에 더운 물을 채워넣고 태연히 옷을 벗었다. 모자, 저고리, 바지 그리고 내의까지 죄다 벗었다. 처녀는 여덟살때부터 이렇게 버릇이 되여 조금도 부끄러운것을 모르고 자라났다. 그는 배만 불앞으로 돌리고 서서 꺼

면 비누로 열심히 몸을 씻기 시작했다. 누구도 까뜨리느를 보지 않았다. 레노르와 앙리까지도 까뜨리느가 어떤 모양을 하고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몸을 다 씻은 까뜨리느는 젖은 내의며 다른 옷들을 모두 방바닥에 무져놓아둔채 홀랑 벗은채로 층계를 올라갔다. 그러자 형제끼리 싸움이 시작되였다. 쟝렝은 자샤리가 아직 식사를 다 하지 못했으므로 제가 먼저 함지속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자샤리는 동생을 밀쳐내고 이번에는 자기 차례라고 우겨댔다. 그가 까뜨리느가 먼저 몸을 씻게 한것만도 충분한데 어린아이가 씻고난 구정물에 목욕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더우기 쟝렝이 몸을 씻은 물은 학교 잉크병에나 부어넣을수 있게 더럽다. 결국 자샤리와 쟝렝은 함께 몸을 씻게 되였는데 그들은 불앞으로 돌아서서 서로 밀어주기까지 하였다. 이윽해서 그들은 누이동생처럼 알몸으로 2층으로 올라갔다.

《이렇게두 더럽힌다구야!》 어머니는 방바닥에서 옷들을 말리우려고 거두면서 중얼거렸다. 《알지르, 바닥을 닦어.》

벽 저쪽 이웃집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와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사내의 욕지거리와 녀자의 울음소리가 마치 벽을 두드리는듯이 웅글게 타격하는 발길질소리와 함께 들리였다.

《레바끄의 처가 매를 맞는군.》 마여는 숟가락으로 사발의 밑바닥을 박박 긁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이상한데, 부뜰루는 국을 끓였더라고 했는데.》

《끓이긴 뭘 끓여요!》 하고 안해가 말했다. 《내자신이 식탁우에서 다듬지도 않은 남새를 봤는데요.》

고함소리는 더 커졌다. 벽체가 흔들리게 무섭게 밀치는 고함소리가 났다. 그리고는 쥐죽은듯이 고요해졌다. 그러자 마여는 마지막으로 국한술을 삼키고나서 태연하고도 공명정대한 어조로 아퀴를 지었다.

《국을 끓이지 않았다면 맞아 싸지.》 마여는 이렇게 말하고는 물을 한잔 마시고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그는 고기를 네모나게 잘게 썰어서 포크없이 칼끝으로 꿰서 빵에 얹어 먹었다.

아버지가 식사할 때에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마여는 허기진김에 잠자코 식사를 했다. 돼지고기가 보통 메그라한테서 가져오던것과 다른걸 보면 필시 어데 다른데서 가져온것 같았다. 그러나 마여는 안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로인이 우에서 자고있는

가 하는것만을 물었다. 그렇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이미 여느때와 같이 산보를 나갔다. 그다음에는 다시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고기냄새가 나자 쏟아진 물로 바닥에 시내물을 그리면서 장난을 하고있던 레노르와 앙리가 머리를 들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한테로 다가왔는데 동생이 앞장을 섰다. 그들은 아버지가 접시에서 고기쪼각을 들 때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아버지가 그만 먹기를 바랐다. 그러다가 고기쪼각이 입안으로 사라지면 울상이 되였다. 아버지는 드디여 아이들이 얼마나 게걸스럽게 자기를 바라보는가를 알아차렸다. 아이들은 지어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에서는 군침을 꿀꺽꿀꺽 삼키고있었다.

《아이들에겐 주었소?》 하고 마여가 물었다. 안해가 떠듬거리자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것 보오, 난 불공정한걸 싫어하오. 저 애들이 내옆에 와서 고기를 바라고 선걸 보면 난 입맛이 다 사라져버리오.》

《아니예요, 저 애들에게두 주었어요!》 하고 안해가 성이 나서 웨쳤다. 《그 애들의 말을 듣다간 당신의 몫은 물론이구 또 여느 사람의 몫까지도 다 줘야 해요. 저 애들은 배가 터질 때까지 그냥 쑤셔넣을거예요. … 정말 그렇지, 알지르. 우린 모두 고기를 먹었지?》

《그러찮구, 엄마.》 하고 어린 곱사등이가 대답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가 어른처럼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거짓말에 부아가 난 레노르와 앙리는 어이가 없어 멍해있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 매를 안기지 않았던가. 그들의 어린 마음은 미여지는듯 했다. 그들은 그 말에 반박하여 모두 고기를 먹고있을 때 자기들은 방에 없었다고 무척 말하고싶었다.

《썩 물러가!》 어머니는 아이들을 방안의 다른 한쪽끝으로 떠밀면서 꽥 소리쳤다. 《아버지가 잡수시는데 옆에 서서 지켜보는게 너희들은 부끄럽지도 않느냐! 고기를 아버지에게만 놓았다면 어때! 누가 일을 하니? 아버지가 일을 하지, 너희들이야 아무일도 안 하지. 대구 먹을줄만 알지. 피둥피둥해서 더 먹겠다고 해!》

아버지는 아이들을 불러서 레노르를 왼쪽무릎에, 앙리를 오른쪽무릎에 앉히고 그들과 함께 고기를 마저 먹었다. 그는 그것을 작게 쪼각을 내여 아이들에게 주었다. 아이들은 기뻐서 맛있게 그것을 삼켰다.

식사를 끝낸 그는 안해에게 일렀다.
《됐소, 내게 커피를 붓지 마오. 먼저 몸을 씻겠소. … 이 구정물이나 같이 버립시다.》
남편과 안해는 함께 손잡이를 쥐고 물통을 들어다가 문밖의 도랑에 물을 버렸다. 이때 웃층에서 쟝렝이 마른 옷을 입고 내려왔다. 모직바지와 작업복저고리는 형이 입어서 퇴색된데다가 그에게 너무 컸다. 어머니는 쟝렝이 열려진 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가려고 하는것을 보고 멈춰세웠다.
《어델 가?》
《저기로 가요.》
《저기가 어디냐?… 저녁에 생채나 만들게 가서 민들레를 뜯어오너라. 들었니? 뜯어오지 않으면 혼을 낼테다!》
《좋아요, 좋아요!》
쟝렝은 두손을 호주머니에 지르고 나막신을 질질 끌면서 밖으로 나갔다. 그는 늙은 탄부의 흉내를 내며 열살나는 난쟁이의 여윈 몸을 흔들거리면서 걸어갔다. 쟝렝의 뒤를 이어 보다 멋진 옷차림을 한 자샤리가 웃층에서 내려왔다. 그는 푸른 줄이 간 모직검정쎄타를 입었다. 아버지는 지나치게 늦게 돌아오지 말라고 큰소리로 일러주었다. 자샤리는 입에 대통을 물고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고개만 끄덕하였다. 함지에는 다시금 더운물이 가득찼다. 마여는 느린 동작으로 웃통을 다 벗었다. 눈짓을 하자 알지르는 얼른 레노르와 앙리를 데리고 밖으로 놀러 나갔다. 아버지는 마을의 대다수 집들에서처럼 모두가 있는데서 몸을 씻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로 누굴 꾸짖는 일은 없었고 다만 아이들이나 함께 목욕을 하는것이라고 할뿐이였다.
《넌 2층에서 뭘하니?》 하고 어머니가 층계에 대고 소리쳤다.
《옷을 기워요. 어제 좀 찢어졌어요.》 하고 까뜨리느가 대답했다.
《좋아… 이리로 내려오지 말아, 아버지가 목욕을 하신다.》
내외간이 남았다. 안해는 드디여 에쓰뗄을 의자에 올려놓았다. 따뜻한 난로옆에 누운 계집애는 이상하게도 보채지 않고 아무 생각없는 어린것의 멍청한 눈길로 부모들을 바라보고있었다.
아주 홀랑 벗은 마여는 함지앞에 다리를 쪼크리고 앉아서 먼저 머리를 물에 잠그고 까만 비누를 칠했다. 로동자들의 머리카락은 늘 까

만 비누를 써서 퇴색하여 노랗게 되여갔다. 이윽고 그는 물속에 들어가서 가슴과 배와 팔과 다리에 비누칠을 하고 두손으로 냅다 문지르기 시작했다. 안해는 옆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이봐요.》 하고 안해는 말을 뗐다. 《난 당신이 돌아왔을 때 유심히 봤어요. … 당신은 정말 지쳤더군요. 그런데 빵을 보자 유쾌해지더군요… 생각해봐요, 삐올랜느의 그 나으리들은 한푼의 돈도 주지 않더군요. 그이들은 아주 친절해서 아이들에게 옷을 선사했어요. 그이들에게 시끄럽게 졸라대기가 부끄럽더군요. 언제나 간청을 할라치면 거북스러워요.》 에쓰뗼이 떨어지지 않게 다시 눕히려고 안해는 잠시동안 입을 다물었다. 마여는 안해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몸만 계속 씻었다. 그는 빵의 출처를 알고싶어 몹시 궁금하였으나 안해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를 참을성있게 기다리고있었다.

《메그라가 딱 거절을 하고 개처럼 쫓아내다싶이 했다는걸 말하지 않을수 없군요. … 내 마음이 어떠했겠는지 가히 짐작할수 있겠지요. 이런 털옷들은 모두 따뜻하겠지만 배는 곯아야 한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마여는 아무 말없이 고개를 쳐들었다. 삐올랜느에서도 메그라에게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어데서 얻어왔단 말인가, 안해는 여느때와 같이 남편의 등을 밀어주려고 소매를 걷었다. 마여는 안해가 비누칠을 해주고 온몸을 문질러주는것을 좋아하였다. 안해는 비누를 쥐고 남편의 어깨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편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꿋꿋이 섰다.

《바로 그래서 나는 또다시 메그라한테 가서 사정이야길 했지요. …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인들 하지 않았겠어요. 그에겐 인정이 없다는둥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그는 꼭 무슨 변을 당하리라는둥 이런 말까지 했지요. 그는 내가 막 귀찮아서 눈길을 돌리고 들어가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안해는 남편의 등을 씻어주고나서 온몸을 빠진데가 없이 작은 주름살 하나 남기지 않고 토요일청소가 끝난 후의 부엌남비처럼 반짝거리도록 열심히 문지르기 시작했다. 자기자신은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 땀이 흐르고 숨이 차서 가까스로 말을 할수 있었다.

《나중엔 그가 날 늙다리 찰거머리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 집엔 토

요일까지 먹을 빵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기쁜건 메그라가 돈까지 100쑤를 꾸어준 일이예요. … 그에게서 빠다, 커피, 시꼬레를 가져왔어요. 내가 고기와 감자도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투덜거리더군요… 난 돼지고기보쌈값으로 일곱쑤를 물고 감자값으로 열여덟쑤를 물었어요. 그래서 국거리와 찌개를 살 3프랑 75쌍떰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 어때요? 내 생각엔 오전시간이 보람없이 지나간것 같진 않은데요.》

안해는 수건으로 남편의 몸을 물기없이 깨끗이 닦기 시작했다. 남편은 새로 진 빚에 대하여선 생각지 않고 아주 흡족해 웃으면서 안해를 꽉 부둥켜안았다.

《놔요, 바보같으니! 당신의 그 젖은 몸에 내 몸이 젖겠어요. … 한가지 두려운건 메그라가 딴 생각을 하지나…》

안해는 까뜨리느에 대한 자기의 위구를 말하려고 했으나 그만 입을 다물고말았다. 무엇때문에 미리부터 남편을 근심시키겠는가! 이 이야기는 끝을 보지 못할것이다.

《무엇을 생각한단 말이요?》 하고 마여는 물었다.

《우리를 털어낼 생각이지요. 까뜨리느에게 증서를 다시 잘 보도록 말해야 하겠어요.》

마여는 안해를 꽉 그러안고 다신 놓지 않았다.

늘 목욕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안해는 힘있게 문질러 기분좋게 해준 다음 겨드랑이와 팔의 털을 간지럽히면서 내의를 입혀주었다. 또한 온 마을의 동료들도 역시 이 시간에 바라지 않는 아이가 생겨나게 하는 어리석은짓을 하였다. 밤에는 온 집안사람이 다 있기때문이다. 그는 사람좋게 빈정대며 안해를 식탁으로 밀고갔다. 이렇게 그는 하루에 한번밖에 없는 이 순간을 즐기면서 이것을 전혀 돈이 들지 않는 식후다과라고 불렀다.

안해는 몸통과 젖가슴을 흔들면서 롱질삼아 약간 몸부림을 쳤다.

《정신있어요, 하느님 맙시사. 정신나갔군요, 에쓰뗄이 보아요. 그애를 돌려눕힐테니 기다리세요.》

《천만에, 석달짜리가 뭘 안다고 그래?》

그는 다시 마른 바지만 입었다. 목욕을 하고 안해와 롱질을 한 후 그의 기쁨은 한동안 웃몸을 드러내놓고있는것이였다. 피기없는 처

녀처럼 새하얀 그의 피부에는 탄에 긁히고 베여진 자리가 탄부들이 이식이라고 말하는것처럼 입묵자리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이것을 자랑하였다. 그는 푸른 결이 간 번쩍이는 대리석같은 굵은 팔과 넓은 가슴을 드러내놓기를 좋아하였다. 여름에는 모든 탄부들이 이런 모양으로 문간에 서있군 했다. 마여도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잠간 문가에 나와 역시 웃동을 벗고 뜨락 저쪽에 서있는 동료에게 걸죽한 말을 한마디 웨쳤다. 다른 탄부들도 나타났다. 걸음길에서 뛰놀던 아이들도 일에 지친 몸을 밖에서 쉬우고있는 그들의 유쾌한 기분에 휩쓸려 고개를 쳐들고 깔깔 웃는것이였다.

마여는 아직 샤쯔를 입지 않은채로 커피를 마시면서 기사가 갱도의 동발을 잘 세우지 않았다고 화를 내던 이야기를 안해에게 들려주었다. 그의 흥분은 가라앉았다. 그는 이런 일에서 사리를 분별할줄 아는 안해의 현명한 조언을 들으면서 동감인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안해는 여전히 회사와 엇서서는 얻을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되뇌였다. 다음에 안해는 마여에게 엔보부인이 다녀간 이야기를 했다. 말없는 가운데 그들은 속으로 이에 대한 긍지감을 느꼈다.

《이젠 내려가도 좋아요?》 까뜨리느가 층계꼭대기에 서서 물었다.

《오냐, 아버지는 지금 몸을 말리우는중이야.》

처녀는 나들이옷인 검푸른빛의 낡은 뽀쁘링달린옷을 입었다. 옷은 물이 날고 혼솔이 닳아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얇은 검정천으로 만든 수수한 모자를 썼다.

《웬 치장이 그리 요란하냐? 어델 가니?》

《몽쑤에 모자댕길 사러 가요. … 낡은건 떼냈어요. 너무 더러워서요.》

《그래, 돈은 있니?》

《없어요. 무께뜨가 열쑤를 꿔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까뜨리느를 내보냈다. 그러나 까뜨리느가 문을 열자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다.

《얘, 댕기를 사도 메그라한텐 가지 말아. … 놈은 너한테서 세곱이나 더 비싸게 받아낼게구 우리 집에 돈이 많아서 물쓰듯 한다고 생각할게다.》

아버지는 뒤덜미와 겨드랑이가 빨리 마르도록 불앞에 다리를 쪼그

리고앉아서 덧붙였다.

《그리고 밤에 거리를 빈둥거리지 말아.》

오후면 마여는 항상 자기 집 터밭에서 일을 했는데 그는 이미 감자, 콩, 완두를 심었다. 전날부터 그는 양배추와 상추모를 옮기려고 결심하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는것이였다. 뜨락의 이 밭뙈기에서 그들은 감자를 제외하고 절대 새나지 않는 남새를 충당하였다. 게다가 마여는 남새재배법을 아주 잘 알고있어서 엉겅퀴까지도 가꾸었다. 이웃들은 그것을 자기를 뽐내려는것이라고 치부하였다. 그가 두둑을 짓고있을 때 레바끄도 대통을 물고 자기 터밭에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아침에 부뜰루가 심은 상추를 들여다보고있었다. 하숙생이 아니였던들 그의 터밭에는 쐐기풀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았을것이다. 두사람은 울너머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피곤을 풀고 안해를 두들겨패여 흥분한 레바끄는 라스너르의 집으로 마여를 끌고가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맥주 한조끼가 그리도 무섭단 말인가? 아홉막대기놀음을 한판 하고 동무들과 건들거리며 거닐다가 저녁먹으러 돌아오자는것이였다. 이것이 갱작업을 끝낸 후의 생활이였다. 물론 거기에 나쁠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마여는 굳이 거절을 했다. 오늘 상추를 옮기지 않으면 래일은 그것이 시들어버릴것이였다. 사실인즉 그는 신중히 생각해서 거절한것이였다. 안해에게 남은 돈을 조금도 빼앗아내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어느덧 시계가 5시를 쳤다. 삐에롱의 안해가 그들한테로 다가와서 자기 집 리디가 쟝렝과 함께 어디로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레바끄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짐작케 하는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베베르도 어데론가 사라졌는데 이 졸망구니들은 언제나 함께 싸다닌다고 했다. 마여는 쟝렝에게 생채 만들 민들레를 뜯어오라고 했다는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나서 레바끄와 마여는 온갖 추잡한 말로 젊은 녀인을 놀려주기 시작했다. 삐에롱의 안해는 화를 내면서도 물러가지는 않았다. 한것은 그가 손을 배에 대고 소리치지 않을수 없게 하는 걸죽한 롱담을 마음속으로는 좋아했기때문이다. 빼빼 마른 한 녀인이 다가와서 삐에롱의 안해를 궁지에서 구원해주었다. 그 녀인이 떠듬거리며 성내는것은 마치도 암닭이 병아리를 찾느라고 꼬꼬거리는 소리같았다. 여느 녀인들은 멀리 자기 집 문간에 기대여서서 삐에롱의 안해

의 배심에 놀래였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서 아이들이 뿔뿔이 집으로 흩어져가고있었다. 어린이들의 종알대고 딩굴고 싸움을 하는 소리들이 뒤섞여 들려왔다. 맥주집으로 가지 않은 탄부들은 울타리결 여기저기에 갱내에서처럼 다리를 쪼그리고 서너명씩 모여앉아 모두 한두마디씩 말을 주고받으면서 대통을 빽빽 빨고있었다. 삐에롱의 안해는 레바끄가 그의 넙적다리가 포동포동한가 쓸어보려고 하자 성이 나서 달아났다. 이윽고 레바끄는 혼자서 라스너르의 집으로 가고 마여는 계속 모종을 했다. 어느덧 황혼이 깃들어 마여의 안해는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등불을 켰다. 그는 의례히 그렇게 될줄을 알았었다. 하루동안에 모두가 함께 식탁에 모여앉을 유일한 기회는 저녁인데 도무지 그렇게 되지 않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마여의 안해는 쟝렝이 가져올 생채거리 민들레도 기다리고있었다. 빌어먹을 놈같으니! 이렇게 어두운데 이녀석이 무엇을 뜯을수 있단 말인가!

볶은 양파와 함께 지진 감자, 파, 싱아를 서서히 익힌 맛없는 찌개에는 생채가 있어야 하였다. 볶은 양파냄새가 온 집안에서 풍겼다. 그 냄새는 빨리 퍼져 마을의 벽돌집들에 배여있어 멀리 들판에서도 가난한 부엌에서 나오는 이 센 냄새를 맡을수 있었다.

땅거미가 들자 마여는 터밭에서 집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벽에 기대고 끄덕끄덕 졸기 시작했다. 저녁마다 그는 앉기만 하면 인차 잠들군 했다. 뻐꾹새시계가 7시를 쳤다. 앙리와 레노르는 알지르가 식탁차리는 일을 거들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그만 접시를 깨여버렸다. 할아버지가 제일먼저 돌아와서 또 작업에 나가려고 서둘러서 저녁을 먹었다. 마여의 안해는 남편을 깨웠다.

《우리끼리 먹읍시다. 참 안됐군요!… 다 큰 애들이 집을 못 찾겠어요. 한가지 생채가 없는게 섭섭하지만!》

5

에띠엔느는 라스너르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나서 자기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방은 보료탄갱 맞은켠에 있었다. 이틀동안에 네시간도

자지 못해 지치고 녹초가 된 그는 옷도 벗지 않은채 침대에 몸을 던졌다. 어둑어둑해서야 잠이 깬 에띠엔느는 자기가 어데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한순간 얼떨떨해있었다. 그는 너무나 머리가 무거워서 가까스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식사를 하기 전에 맑은 공기를 좀 마시고 자리에 눕기로 했다.

날씨가 풀리고 어두운 하늘은 북방의 기나긴 비를 머금고 구리빛색조를 띠였다. 사람들은 온화하고 습한 날씨를 보고 이 비가 다가왔다는것을 느끼군 했다. 솜뭉치같은 짙은 안개가 저 멀리 무연한 벌판을 덮으며 어둠이 다가왔다. 낮은 하늘은 망망한 바다같은 진흙빛광야에 꺼먼 먼지로 녹아내린것 같았고 이 시각 어둠속에 원기를 돋굴수 있는 바람 한점 없었다.

에띠엔느는 애오라지 피로를 풀려고 어림대고 걸어나갔다. 아직 등불 하나 비치지 않고 벌써 입구가 컴컴해진 보료탄갱옆을 지나던 젊은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탄갱에서 나오는 낮교대자들을 바라보았다.

시계가 6시를 친 모양이다. 그것은 운반공, 적재공, 마차군들이 무리를 지어 나오고있었기때문이다. 그중에 섞여있는 녀선탄공들의 희미하고 웃는 모습을 알아볼수 있었다.

브률레와 그의 사위 삐에롱이 여느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로파는 자기가 선별한 석탄량을 가지고 감독과 다툴 때 사위가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에게 푸념을 하고있었다.

《에! 못난 사람아, 그래 우릴 밤낮으로 못살게 구는 그 더러운 놈앞에서 그렇게도 못나게 쩔쩔맨다구야!》

삐에롱은 대꾸를 하지 않고 조용히 로파의 뒤만 따라가더니 드디여 입을 뗐다.

《그럼 상부에게 달려들어야 옳겠소! 시끄러운 일이 생기게 해 고맙수다!》

《그들앞에서 실컷 알랑거리게!》 하고 로파는 웨쳤다. 《빌어먹을! 고년이 왜 내 말을 안 들어가지구! 그놈들이 내 남편을 죽였는데 아직 모자라서 그들한테 감사까지 드려야 한단 말인가! 아니야, 이것봐. 그놈들이 나한테 혼쌀나구야말걸!》

이 목소리는 멀리 퍼져갔다. 에띠엔느는 매부리코에 흰 머리가 마

구 헝클어지고 여위고 길다란 두팔을 성이 나서 휘두르는 로파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의 뒤에서 두 젊은이의 이야기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어서 그는 귀를 장구었다. 그는 자샤리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자샤리는 자기한테로 다가오는 무께를 기다리고있었다.

《가겠어?》 하고 무께가 물었다. 《요기를 좀 하고 볼깡으로 가세.》

《좀 기다리게. 난 좀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얼굴을 돌린 운반공은 선탄장에서 나오는 필로멘느를 보았다.

《그래? 그럼 좋아. … 나 먼저 가겠네.》

《먼저 가게, 뒤따라가지.》

무께는 길에서 아버지 무끄로인을 만났다. 아버지도 보료에서 돌아오는길이였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을뿐 아들은 큰길로 가는데 아버지는 운하를 따라 걸어갔다.

자샤리는 싫다고 하는 필로멘느를 인적이 없는 길쪽으로 끌어당기는것이였다. 필로멘느는 자기가 지금 바쁘니 다음기회에 보자는것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부부간처럼 다투었다. 특히는 땅에 누기가 차고 누울만 한 밀밭이 없는 겨울에 밖에서 이렇게 만난다는것은 이상할것이 없었다.

《아니야, 그것때문이 아니야.》 하고 자샤리가 성급히 말했다. 《나 좀 할말이 있어.》

그는 필로멘느의 허리를 그러안고 조용히 끌고갔다. 그들이 버럭무지뒤에 갔을 때 자샤리는 필로멘느에게 돈이 없느냐고 물었다.

《돈은 왜요?》 하고 필로멘느가 되물었다. 자샤리는 2프랑의 빚을 졌는데 집에서 알면 노발대발할것이라고 말했다.

《말말아요!… 난 무께를 봤어요. 그 구역질이 나는 가수년들하구 놀려고 또 볼깡으로 가는거지요.》

자샤리는 그렇지 않다고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며 다짐을 했다. 필로멘느가 어깨를 으쓱하자 그는 불시에 이렇게 권했다.

《생각이 있으면 같이 가자구. … 임잔 조금도 방해될게 없어. 그깐놈의 가수년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야! 같이 갈테야?》

《어린앤 어떻거구요?》 하고 필로멘느가 대꾸했다. 《그렇게 빽

빽 우는걸 데리구 어딜 간단 말이예요?… 날 집에 보내줘요, 보나마나 그 애들은 꼭 싸우고있을거예요.》

그러나 자샤리는 필로멘느를 붙잡고 조르기 시작했다. 그가 무께에게 약속을 한 이상 그앞에서 바보가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사내자식으로 태여나 매일 저녁 암닭처럼 잠만 자야 한단 말인가? 드디여 자샤리는 필로멘느를 설득시켰다. 필로멘느는 저고리의 앞자락을 헤치고 손가락으로 앞섶을 뜯더니 열쑤짜리 엽전들을 꺼내였다. 필로멘느는 거기다 탄갱에서 시간외 작업을 하고 받은 돈을 어머니 몰래 감추어두었던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내겐 5프랑밖에 없으니 3프랑을 주겠어요. 그대신 어머니를 조르세요. 우리가 결혼을 할수 있도록 말이예요. 거리바닥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것이 이젠 진저리가 났어요. 그래요, 우리 어머닌 말끝마다 지청구예요. … 맹세해요, 먼저 맹세부터 해요.》

필로멘느는 생활에 시달려서 아무런 열정도 없이 병든 녀자의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자샤리는 맹세를 하고 그것은 약속되여있다고 큰소리로 말했다. 자샤리는 3프랑을 받고나서 필로멘느에게 입을 맞추고 구슬리고 웃기면서 그들의 오랜 동서생활에서 겨울에 방처럼 여기는 버럭무지뒤에서 다른 일까지 마저 하려고 했다. 그러나 필로멘느는 딱 거절을 했다. 이런 놀음은 그에게 아무런 만족도 주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이윽고 필로멘느는 홀로 마을에 가고 자샤리는 동무를 따라잡으려고 들판을 달려갔다.

에띠엔느는 그들이 그저 간단히 만나는줄로만 생각했을뿐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면서 멀리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지켜보고있었다.

탄갱의 처녀들은 모두 성숙이 빨랐다. 에띠엔느는 릴르에 있을 때 자기가 공장뒤에서 기다리군 하던 녀성로동자들을 상기했다. 그곳 처녀들은 생활은 가난하고 단속은 없고 하여 열네살이면 벌써 잘못된 길로 빠지군 했다. 에띠엔느는 더욱 놀라운 광경에 부딪쳤다. 그는 그 자리에 그만 멈추어섰다.

돌을 내다버린 버럭무지아래쪽의 구뎅이에서 어린 쟝렝이 좌우에 앉은 리디와 베베르를 모질게 욕하고있었다.

《자, 또 말해봐! 너희들이 찍소리를 했다간 둘 다 뺨을 칠테다. … 이런걸 생각해낸건 누군데, 응?》

기실 그들 셋이 운하옆 벌판에서 민들레를 뜯고있을 때 쟝렝은 모아놓은 생채거리무지를 보고 집에서는 어쨌든 그걸 다 먹지 못할것이니 마을로 가지 말고 몽쑤에 가서 파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리하여 그는 베베르에게 망을 보게 하고 리디를 시켜서 부자집문들을 두드리며 민들레를 팔도록 했던것이다. 그는 경험에 의해 사람들이 무엇이든 계집애에게서 사기를 좋아한다는것을 알았다. 장사에 신바람이 난 그들은 생채감을 몽땅 팔아버렸다. 리디는 열한쑤의 돈을 벌었다. 그래서 지금 세 아이는 번 돈을 나누는중이였다.

《그건 옳지 않아!》 하고 베베르가 말했다.

《꼭같이 노나야 해. 네가 자기앞으로 일곱쑤를 가지면 우린 두쑤씩밖에 못 가지지 않니.》

《무엇이 옳지 않단 말이냐?》 성이 난 쟝렝이 반박을 했다. 《첫째로,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뜯었지!》

겁이 많고 믿기 잘하는 베베르는 대체로 군말없이 순종해왔다. 항상 남을 쉽게 믿는 성질이 그를 희생물로 만들군 하였다. 베베르는 나이가 우이고 힘도 더 셌으나 쟝렝한테서 뺨까지 얻어맞군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돈이 적다는 사정이 그에게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그렇지 않니, 리디? 우리에게 조금 주겠대. … 우리와 꼭같이 논지 않으면 저 애 어머니한테 일러주자. …》

쟝렝이 베베르의 코앞에 주먹을 들이대였다.

《그래, 어디 다시 말해봐! 난 너희들 집에 가서 너희들이 어머니의 생채를 팔았다고 말할테다. … 그리고 에이, 이 바보같으니. 열한쑤를 셋으로 꼭같이 나눌수 있니? 네가 그렇게 똑똑하거든 어디 좀 해봐라. … 자, 받아라. 두쑤씩 준다. 빨리 받아,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내 주머니에 죄다 넣을테다.》

수그러든 베베르는 두쑤를 받았다. 부르르 떨고있던 리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쟝렝이 무서워서였다. 쟝렝이 리디에게 두쑤를 내밀자 리디는 미소를 지으며 공손히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쟝렝은 갑자기 생각을 바꾸었다.

《무엇때메 이 돈이 네게 필요하겠니? … 네가 이 돈을 잘못 건사하면 너의 어머니가 꼭 앗아낼게다. 차라리 내가 네대신 건사해두는

게 좋겠어. 돈이 필요하면 내게 말하려무나.》

그리하여 아홉쑤가 사라져버렸다. 쟝렝은 웃으면서 리디를 덥석 그러안았다.

에띠엔느는 거기서 백걸음쯤 더 가서 여러쌍과 또 마주쳤다. 그는 레끼아르에 이르렀다. 거기 낡은 폐갱주변에는 모든 처녀들이 자기의 애인들과 함께 거닐고있었다. 그곳은 만나는 공동장소로 되여있었던것이다. 운반공들은 첫 아이를 감히 자기 집 헛간에서 낳을수 없을 때 그곳 인적없는 외딴 곳으로 오군 했다. 쓰러진 울바자 저쪽에는 공지가 펼쳐졌는데 거기에는 판석바닥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곳은 두개의 무너진 창고의 잔해들과 서있는 골조로 막혀있었다. 그곳에는 못쓰게 된 탄차들이 널려있고 한절반 썩은 낡은 동발목들이 쌓여있었다. 흙이 있는데는 식물들이 빽빽하게 자라고있었다. 무성하게 자란 풀이 펼쳐지고 애숭이나무들도 솟았다. 때문에 어떤 처녀도 여기서 한적한 곳을 찾아낼수 있었고 그래서 처녀들을 따라다니던 녀석들은 들보우나 동발목뒤에서 그리고 탄차속에서 그들을 건드리군 하였다. 그들은 곁에서 사람들이 하는짓을 상관하지 않고 여하튼 비좁게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무끄로인이 이 고장의 수위로 살고있었다. 회사는 파괴된 탑의 아주 가까이에 일부 골조가 겨우 붙어있어 무너질 위험이 있는(그래서 천정 한구석에 받침목까지 세우게 되였다.) 두개의 방을 그에게 제공해주었다. 그의 가족은 거기서 함께 살고있었다. 한 방에는 그가 아들과 같이 살았고 다른 한 방에는 무께뜨가 살았다. 창문의 유리가 죄다 깨여져서 널판지를 잘라 대였다. 방안은 어둑침침했으나 그대신 훈훈했다. 그러나 이 수위는 아무것도 경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돌보러 보료에 다녔을뿐 이웃탄갱의 통풍구로 리용되는 수직갱밖에 없는 레끼아르의 파괴된 탄갱에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듯 무끄할아버지는 탄갱청년들의 사랑이 벌어지는 속에서 늙었다. 무께뜨는 이미 열살때부터 페허의 구석구석에서 딩굴었다. 그는 놀라서 달아나는 애숭이가 아니였으며 경험은 없었으나 턱수염이 자란 총각들에게는 벌써 좋은 성숙한 처녀로 되였다. 아버지는 딸이 자기를 존경해서 절대로 총각을 집으로 끌고오는 법이 없었기때문에 딸

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그는 이미 그런 일에 습관되여있었다. 그는 보료탄갱으로 갈 때나 거기서 돌아올 때 집에서 나서기만 하면 수풀속에 있는 남녀의 쌍과 마주쳤다. 그런데 그가 멀리 떨어진 울타리 한끝에서 땔나무를 하거나 토끼풀을 뜯으려면 더 한심한것을 보았다.

저녁마다 본느모르할아버지가 무끄로인한테 마실을 오군 했다. 그는 언제나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바람을 쏘이군 했다. 로인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 30분 함께 있는 동안에 겨우 열마디의 말을 주고받을뿐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둘이 함께 있는것이 즐거웠다. 그들은 함께 지난날을 회고했는데 거기엔 말이 필요치 않았다. 레끼아르에서 그들은 통나무우에 나란히 앉아서 이따금 짧은 말을 주고받을뿐 땅만 내려다보며 공상에 잠기군 했다. 틀림없이 그들은 다시 젊어지는것 같았다. 회상에 잠긴 로인들은 자주 작별인사도 잊고 고개를 흔들면서 헤여지군 했다.

그러나 에띠엔느가 그들옆으로 지나간 이날 저녁에 본느모르할아버지는 마을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면서 무끄에게 이렇게 말했다.

《령감! 안녕히 계시우! 그런데 루씨를 아오?》

무끄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어깨를 가볍게 흔들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잘 가오, 잘 가오. 령감!》

이번에는 에띠엔느가 통나무우에 앉았다. 어째선지 그는 더욱더 서글퍼졌다. 그는 물러가는 로인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자기가 보료로 오던 일을 상기하고 세찬 바람에 저으기 흥분한 말수 적은 로인의 입에서 줄기차게 흘러나오던 말들을 회상했다. 얼마나 극심한 빈궁인가! 그런데다가 또 밤이면 사내를 보러 달려와 고역에 시달릴 생명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짓을 하고있는 기진맥진한 이 처녀들!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극빈한 아이들을 낳는다면 빈궁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것이다. 불행이 닥쳐오고있는만큼 아이도 낳지 말아야 할것이 아닌가? 어쩌면 다른 남녀들이 주위에서 쌍을 지어 쾌락을 맛보러 갈 때 그만은 홀로 있어서 이런 침울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어렴풋이 사로잡았는지도 모른다. 포근한 대기가 습기를 머금어 그는 저으기 숨쉬기가 가빴다. 이따금 비방울이 달아오른 그의 손에 똑똑 떨어졌다. 그렇다, 모

든 처녀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것은 리성보다 강한것이였다.

에띠엔느가 이렇게 어둠속에 까딱않고 앉아있는데 마침 몽쑤에서 레끼아르의 공지로 내려오던 한쌍의 남녀가 그를 거의 스치다싶이 하면서 옆으로 지나갔다. 틀림없이 숫처녀인듯 한 처녀가 몸부림을 치면서 속삭이는 목소리로 반항하였다. 젊은이는 말없이 썩은 바줄이 더미로 쌓여있는 창고의 어두운 구석으로 처녀를 떠밀고있었다. 그것은 까뜨리느와 키다리 솨발이였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그들이 지나갈 때 알아보지 못하고 줄곧 지켜보았다. 지금까지 하던 생각을 잊고 쾌감에 사로잡혀 그는 결말을 기다리고있었다. 무엇때문에 방해하겠는가? 처녀들이 싫다고 하는것은 자기를 건드려주기를 바란다는것을 의미한다.

뒈 쌍 까랑뜨마을을 떠난 까뜨리느는 포장도로를 따라 몽쑤로 갔다. 처녀는 스스로 탄갱에서 벌이를 시작했던 열살때부터 탄부들의 집들을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여태 한 남자도 그를 건드리지 않은것은 단지 그의 육체적발육이 더디여서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것으로써 설명될뿐이였다. 까뜨리느는 회사구역에 들어서자 무께뜨를 꼭 만나리라는것을 믿고 거리를 건너서 세탁소에 들렸다. 무께뜨는 밤이고 낮이고 다른 녀인네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여기에 들어박혀있었다. 그러나 분하게도 무께뜨는 이날 동무들에게 턱을 낸답시고 그에게 꾸어주기로 약속한 열쑤를 이미 써버렸다. 녀인들은 위로하느라 까뜨리느에게 뜨거운 커피 한잔을 권했으나 헛일이였다. 까뜨리느는 동무가 자기때문에 다른 녀인에게서 돈을 꾸는것도 바라지 않았다. 돈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언뜻 떠올랐다. 이제 댕기를 사면 반드시 불행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그 어떤 미신적인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까뜨리느는 바삐 마을로 되돌아섰다. 그가 몽쑤의 마지막집에까지 이르렀을 때 술집 삐께뜨문가에 서있던 웬 사나이가 그를 불러세웠다.

《까뜨리느, 어델 그렇게 바삐 달려가?》

그는 키다리 솨발이였다. 까뜨리느는 이 상봉이 달갑지 않았는데 그것은 솨발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웃고싶지도 않기때문이였다.

《들어와서 뭐 좀 마시지… 달콤한걸 한잔 안하겠어?》

까뜨리느는 날이 어두웠으니 집에서 자기를 기다릴것이라면서 친절

하게 거절했다. 쇠발은 까뜨리느한테로 다가와서 거리의 한복판에 선채 은근히 졸라댔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술집 뻬께뜨의 2층에 세내고있는 자기 방(그것은 커다란 침대가 놓여있는 부부용방이였다.)으로 까뜨리느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했다. 그냥 거절하는걸 보면 까뜨리느는 그를 무서워하는 모양이였다. 까뜨리느는 상냥한 웃음을 지으며 다음주에 올라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나서 까뜨리느는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과정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사지 못한 푸른 댕기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래, 내가 사주지!》 하고 쇠발은 부르짖었다.

까뜨리느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거절하는것이 좋으리라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댕기를 가지고싶은 마음은 누를수 없었다. 까뜨리느는 쇠발에게서 돈을 좀 꿀수는 있겠다고 다시 생각하고 그가 자기를 위해 쓰는 모든 돈을 갚겠다는 조건밑에 동의를 하고말았다. 그들은 또다시 롱을 시작했으며 쇠발은 까뜨리느가 그의 애인으로 되지 않으면 돈을 도로 돌려준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런데 이때 쇠발이 메그라한테로 가자고 말하여 또다시 말썽이 생겼다.

《아니예요. 메그라에게만은 안 가겠어요. 어머니가 가지 말랬어요.》

《그만둬, 어델 가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 몽쑤에서 제일 고운 댕기가 그 집에 있는데.》

메그라는 가게방으로 들어오는 쇠발과 까뜨리느를 보자 그들을 결혼선물을 사러 온 애인들로 생각했다. 그는 얼굴을 붉히고 조소받은 사람처럼 성이 나서 그들에게 푸른 댕기를 보여주었다. 젊은이들이 댕기를 가지고 돌아갔으나 메그라는 가게방문턱에 서서 어스름한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안해가 소심하게 그에게 무슨 말을 묻자 그는 안해에게 욕설을 퍼붓고 은혜를 모르는 이 더러운 인간나부랭이들은 언제든 후회할 때가 있을것이며 그땐 그들이 자기 발등에 입을 맞추게 될것이라고 큰소리로 주어치기 시작했다.

키다리 쇠발은 까뜨리느를 바래워나섰다. 그는 활개치면서 까뜨리느와 나란히 걸었는데 그 녀자를 자기가 바라는 곳으로 슬그머니 이끌어가고있었다. 까뜨리느는 자기들이 큰길에서 좁은 오솔길로 떨어져서 레끼아르로 향하고있다는것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까뜨리느는

미처 성도 내지 못했다. 쇠발은 까뜨리느의 허리를 그러안고 상냥스러운 말로 처녀를 얼떨떨하게 만들었다. 바보같으니, 뭘 무서워하는가? 명주처럼 부드럽고 너무나 유순하여 삼켜버리기라도 할듯 한 사람에게 자기가 나쁜짓이야 할라구! 그는 입술을 까뜨리느의 목과 귀에 가져다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쇠발의 말을 듣자 까뜨리느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까뜨리느는 할딱거릴뿐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실지로 까뜨리느를 사랑하는것 같았다. 토요일 저녁마다 까뜨리느는 초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서 그가 자기를 차지하면 자기는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것을 생각했으며 다음에는 그에게 몸을 맡기고 쾌감을 느끼는 꿈을 꾸군 하였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그는 쇠발에 대하여 일종의 유감과도 같은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것일가? 쇠발의 코밑수염이 그의 뒤덜미를 너무나 부드럽게 간지럽혀서 그는 지어 눈까지 감았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아침에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젊은이의 그림자가 피뜩 떠올랐다.

갑자기 까뜨리느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쇠발은 그를 무너진 레끼아르탄갱으로 이끌어가고있었다. 까뜨리느는 침침한 무너진 창고를 보자 펄쩍 뛰여 뒤로 물러섰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안돼요, 제발 나를 놓아주어요!》 하고 까뜨리느는 속삭였다.

까뜨리느는 남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지어 처녀들이 스스로가 자기 몸을 맡기려고 하고 남자가 접근하여 자기를 점령하는것을 느낄 때 저항을 위해 온 근육을 본능적으로 긴장시키는 그러한 공포였다. 아직 처녀의 몸이지만 까뜨리느는 모든것을 알면서도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주는 상처라도 갑자기 입을것만 같아 겁이 났다.

《안돼요, 난 싫어요! 난 너무 어리다고 하지 않아요. 정말이예요! 후에, 적어도 내가 큰 다음에요.》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까뜨리느를 꽉 부둥켜안고 창고밑으로 확 떠밀었다. 까뜨리느는 낡은 바줄우에 넘어져 저항하지 못하였다.

에띠엔느는 그 자리에 까딱않고 앉아서 그 모든 소리를 들었다. 또 한 처녀가 계선을 넘었다.

이 모든것을 본 지금 그는 분노가 치미는 일종의 질투의 발작으로 인한 불쾌감에 휩싸여 일어났다. 그는 꺼리낌없이 통나무들을 건너뛰였다. 그 두사람은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심할 경황조차 없는듯 했다. 그러나 백걸음쯤 가서 돌아섰을 때 그는 두사람이 이미 일어서서 자기와 꼭같이 마을을 향하고있는것을 보고 놀래였다. 사나이는 고마운 표정으로 다시 처녀의 허리를 꽉 그러안고 무엇인가를 몸에 대고 속삭이고있었다. 그러나 처녀는 너무나 늦은것에 대해 특히 화를 내면서 집으로 서두르고있는것 같았다.

불시에 에띠엔느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싶은 누를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였다. 그래서 그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더 빨리 걸어갔다. 그러나 두다리는 저절로 더디여졌다. 그리하여 첫 등불옆에 와서 에띠엔느는 그림자속에 숨었다. 그는 까뜨리느와 키다리 솨발이 지나가는것을 알아보고 너무 놀래여 그만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고말았다. 처음에 그는 주저하였다. 검푸른 달린 옷에 조그마한 모자를 쓴 그 처녀가 정말 까뜨리느인가 하고 제 눈을 의심했다. 이 처녀가 바로 바지를 입고 아마포모자를 썼던 그 소년이란 말인가? 그것때문에 에띠엔느는 그가 자기에게 몸을 대였을 때에 그가 처녀라는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에띠엔느는 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참으로 맑고 깊은 샘물같이 파르스름한 그의 눈을 알아보았다. 아, 참말 너절한 녀자로군! 그에게는 어느덧 까닭없이 그 처녀에게 복수하고싶은 맹렬한 욕망이 솟구쳤다. 그는 처녀를 멸시했다. 그런데다가 그가 처녀라는것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처녀는 정말 역스러웠다.

까뜨리느와 솨발은 천천히 옆으로 지나갔다. 그들은 누가 자기들의 뒤를 살피고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있었다. 솨발은 까뜨리느를 붙들고 그의 귀에 입을 맞추었다. 까뜨리느는 멈춰서서 솨발의 애무를 받으면서 웃고있었다. 에띠엔느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이 그의 앞길을 막는것이 무척 화가 났다. 그는 부득불 모든것을 다 보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부아가 났던것이다. 그러고보면 까뜨리느가 아침에 자기한테 맹세한 말은 옳았다. 그 처녀에게는 아직 애인이 없었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아까 본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려다가 그만 그를 잃어버렸던것이다. 방

금전에 바로 그의 면전에서 그 처녀를 빼앗아갔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도 그들을 엿보고있지 않았는가! 미칠 지경이 된 에띠엔느는 그 사나이에게 달려들기라도 할듯 주먹을 꽉 틀어쥐고있었다. 그는 격분한 나머지 살인이라도 칠것 같았다.

산보는 이미 반시간이나 계속되였다. 까뜨리느와 솨발은 마을이 가까와지자 걸음을 늦추었고 운하옆에 두번, 버럭무지를 따라가면서 세번이나 멈춰섰다. 지금 그들은 아주 유쾌해져서 정다운 놀음으로 즐기고있었다. 에띠엔느는 자기를 발견할가봐 두려워 그들과 꼭같이 멈추어서야 했다. 그는 더는 모질게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렇다, 앞으로는 그렇게 점잖게 처녀들을 상대하지 않을것이다. 보료를 지나서 마음대로 라스너르의 집에 저녁먹으러 갈수 있는 그는 계속 그들을 따라 마을까지 갔다. 거기서 그는 솨발이 까뜨리느를 집에 놓아보낼 때까지 어둠속에 서서 15분동안이나 기다렸다. 에띠엔느는 그들이 헤여졌다는것을 확신하자 다시금 걸어 마르쉬엔느로 가는 길을 퍼그나 멀리 갔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걸었다. 방에 처박히기에는 너무도 답답하고 쓸쓸하였다.

한시간이 지나 9시쯤 되여서야 에띠엔느는 아침 4시에 일어나려면 이젠 저녁을 먹고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은 캄캄한 어둠속에 벌써 잠들고있었다. 꼭 닫겨진 덧문들짬으로는 한가닥의 불빛도 새여나오지 않았다. 직선으로 뻗은 길다란 건물들안에는 깊은 잠이 드리워있었다. 병영같은 그안에서는 갇혀있는 사람들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루가 끝났다. 일에 지친 로동자들은 얼추 배를 채우고 식탁에서 일어나자 시달리고 기진한 몸을 잠자리에 던져버리고말았다.

라스너르의 집의 훤한 홀에는 그 어떤 기계공과 두명의 로동자가 맥주조끼를 쥐고 앉아있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띠엔느는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어둠속에 시선을 던졌다. 그가 이리로 오던 바람이 몰아치던 아침과 같이 또다시 바람이 넓은 들판에 불어왔고 그의 앞에는 커다란 어두운 공간이 펼쳐져있었다. 몇개의 등불이 던지는 희미한 불빛속에서 겨우 분간할수 있는 보료탄갱이 맹수처럼 숨어있었다. 버럭산앞에는 세개의 화독불이 공중에 걸려 피의 달처럼 붉게 타오르고있었다. 그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본느모르할아버지와 그의 흰 말의

커다란 그림자가 피뜩피뜩 나타나군 했다. 그리고 그 저쪽에는 몽쑤며 마르쉬엔느며 방담숲이며 가없는 사탕무우밭이며 밀밭 등 모든것이 들판의 어둠속에 잠겨있었다. 용광로들이 먼곳의 등대마냥 푸른 불빛으로 비치고있었고 해탄로는 붉은빛으로 비치고있었다. 모든것이 점차 하나로 어울리고 부슬부슬 끊임없이 비가 내리면서 온 주변을 삼켜버린다. 밤의 고요속에서 유독 한가지 음향만이 들려왔다. 그것은 밤낮으로 작업을 멈추지 않는 배수뽐프의 늘어지고 세찬 호흡소리였다.

제 3 장

1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에띠엔느는 탄갱작업에 나갔다. 그는 그 생활에 익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에 자기를 괴롭히던 새 환경을 즐기게까지 되였다. 최근 두주일동안에 한가지 사건만이 그의 단조로운 생활을 파괴했었다. 심한 열병이 발작했던것이다. 그는 이틀동안을 꼬박 침대에 누워있었다. 손발이 쑤시는듯 아프고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자신도 기여나갈수 없는 그렇게 좁은 막장에서 탄차를 미는 꿈을 꾸면서 헛소리를 쳤다. 그것은 다만 견습기간의 과로, 극도의 피로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는 곧 회복되였다.

하루하루가 언뜻언뜻 지나갔으며 몇주일이 지나고 또 몇달이 흘렀다. 에띠엔느는 모든 자기 동무들과 같이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전날 저녁에 라스너르의 부인이 그를 위해 만들어놓는 겹빵을 가지고 일하러 나갔다. 에띠엔느는 매일 아침 탄갱으로 가는 길에서 쉬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본느모르를 만났고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는 오후 교대작업에 나가는 부뜰루와 부딪치군 했다. 그는 누구나가 다 쓰고 입고다니는 그런 모자에 그런 바지와 아마포저고리를 입고있었다. 그는 여느 사람들과 같이 추위에 몸을 우들우들 떨었고 바라크의 화독불앞에서 등을 녹였다. 다음에 그는 통풍이 세차게 불어

오는 저탄장에 맨발로 서서 승강기에 오를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 이제는 매끈하게 닦은 구리부분품이 반짝이는 기계도, 밤새의 소리없는 검은 날개마냥 미끄러져가는 쇠바줄도 그리고 신호종소리에 따라 피뜩피뜩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승강기도, 지령하는 웨침소리도, 궤도를 굴러가는 탄차의 덜커덩소리도 에띠엔느의 흥미를 끌지 않았다. 그의 안전등은 잘 비치지 않았다. 게으른 안전등관리공이 그것을 소제하지 않은듯싶었다. 무께가 장난으로 처녀들을 철썩철썩 갈기면서 그들모두를 승강기로 쫓아보낼 때만은 에띠엔느도 유쾌해졌다. 승강기가 움직여 돌처럼 갱안으로 떨어져내려갔다. 그러면 해빛은 에띠엔느가 미처 머리 돌려볼 사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것이였다. 승강기가 끊어질수 있다고 생각한적이 없었고 억수로 퍼붓는 비를 맞으며 어둠속으로 내려가는 일도 심상히 여기게쯤 되였다. 아래쪽저탄장에서 삐에롱이 일부러 간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내리워주면 그들은 힘없는 걸음으로 무리를 지어 올리굴들로 뿔뿔이 헤여져갔다. 이제 와서 에띠엔느는 탄갱의 모든 갱도를 몽쑤의 거리보다 더 잘 알고있어 어디서 돌아가고 어디서 몸을 낮게 굽히고 어디서 물웅뎅이를 피해가야 하는지 잘 알고있었다. 그는 두키로메터나 되는 땅속의 길을 너무나 잘 알고있어서 등불이 없이 량손을 호주머니에 지르고도 다닐수 있었다. 그는 매번 꼭같은 사람들을 만났다. 감독이 로동자들의 얼굴을 등불로 비치면서 지나가기도 했고 무끄로인이 말을 끌고가기도 했으며 베베르가 투레질하는 바따이를 몰고가기도 했고 쟝렝이 통풍구를 막으려고 탄차행렬뒤에서 달려가기도 했고 살진 무께뜨와 여윈 리디가 탄차를 밀어가기도 했다.

이제 에띠엔느는 갱내의 습기와 무더움에 훨씬 적게 시달렸다. 좁다란 올리굴이 그에겐 나들기에 아주 편리한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살이라도 내린듯 전에는 팔도 감히 들이밀수 없던 틈새를 이제는 능히 기여나갈수 있을것 같았다. 그는 석탄먼지속에서도 불편없이 숨을 쉬였고 어둠속에서도 잘 보았고 땀투성이가 되여도 개의치 않았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젖은 옷을 입고있는데도 습관이 되였다. 뿐만아니라 에띠엔느는 부질없이 힘을 쓰지 않았고 막장내의 모든 동무들을 놀라게 할만 한 민활성과 속도를 터득했던것이다. 세주일이 지나자 사람들은 벌써 에띠엔느를 탄갱에서 가장 우수한 운반공의 한사람으로 인

정하게 되였다. 누구도 탄차를 에띠엔느처럼 경사갱도까지 빨리 밀어가지 못했으며 누구도 탄차를 쇠바줄에 그렇게 잽싸게 련결시킬줄 몰랐다. 에띠엔느는 키가 그닥 크지 않아서 어데라도 기여들어갔고 녀자처럼 가늘고 새하얀 그의 팔은 살갗이 부드러우나 강철같았고 비상한 힘을 지니고있었다. 그는 피로로 해서 맥이 진한 경우에도 자존심으로 해서인지 결코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직 그가 롱을 모르며 누가 그를 건드리기만 하면 대뜸 성을 낸다는 점에서 그를 비난할뿐이였다. 탄부들은 에띠엔느를 자기네 사람으로 받아들였으며 진짜채탄부로 인정했다. 날이 갈수록 그는 더욱 일손이 익어갔으며 기계처럼 되여갔다.

마여는 언제나 일 잘하는 사람을 존중했기때문에 에띠엔느를 유별스레 친절히 대했다. 뿐만아니라 마여는 여느 사람들과 같이 운반공 에띠엔느가 지성의 발전에 있어서 자기보다 우월하다는것을 느꼈다. 그는 에띠엔느가 글을 읽고 쓰고 도면을 그리는것을 보았다. 또한 마여는 에띠엔느가 여러가지 사실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도 들었는데 그로서는 모두 처음 듣는 말들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마여를 조금도 놀라게는 하지 않았다. 탄부들이란 원래 단순하며 그들의 머리는 기계공들보다 굳은것이다. 그를 감동케 한것은 이 젊은이의 용감성과 또한 굶어죽지 않으려고 탄부의 로동을 계속하는 완강성이였다. 그는 로동자가 그렇게 빨리 탄갱에 익숙한 경우를 아직 기억하고있지 못했다. 때문에 마여는 올리굴에 동발을 급히 세워야 하겠는데 자신이 채탄작업에서 떨어질수 없을 때는 의례히 젊은이에게 그 일을 맡기군 했다. 그는 젊은이가 동발을 실속있게 튼튼히 세우리란것을 믿었다. 회사측에서는 이 저주로운 동발작업을 가지고 마여에게 시끄럽게 굴었다. 그래서 마여는 언제 네그렐기사가 당싸에르와 함께 또 나타나지 않을가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또 큰소리를 치고 다투고 하면서 모든 일을 다시 시킬것이였다. 마여는 이 나으리들이 동발작업에 아주 불만인체 하면서 회사가 이제 결정적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내내 말하고있으나 이 운반공이 세운 동발에는 그들이 만족하고 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탄갱에서는 숨은 불만이 성숙되여갔다. 노상 온순한 마여까지도 울분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때로는 두주먹을 꽉 틀어쥐기도 했다.

첫날부터 자샤리와 에띠엔느사이에 적의가 드러났다. 어느날 저녁엔 주먹싸움까지 벌어질번 했었다. 그러나 에띠엔느가 자샤리에게 한조끼의 맥주를 친절하게 권하자 자기 만족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착한 젊은이 자샤리는 이내 누그러졌다. 자샤리도 곧 신입로동자의 우점을 인정했다. 레바끄도 에띠엔느를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으며 그와 자주 정치담을 하고나서는 에띠엔느가 그 문제에 대하여 자기 견해를 가지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작업조에서 키다리 솨발만이 운반공에 대하여 그 어떤 적의를 품고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서로 다투는것은 아니였다. 도리여 그들은 다정한 벗이였다. 그러나 서로 롱담을 하는 때에도 두사람사이에는 서로 짓밟아버리려는듯 한 험한 시선이 오가군 했던것이다. 까뜨리느는 일에 지치기는 했으나 여전히 공손한 처녀였다. 처녀는 전이나 다름없이 허리를 구부리고 탄차를 밀었으며 자기의 동무를 호의적으로 대했다. 또 에띠엔느는 자기대로 까뜨리느를 거들어주었다. 다른 한편 까뜨리느는 자기 애인의 모든 욕망에 군말없이 복종하면서 내놓고 그의 애무를 받아들였다. 모두가 그들의 관계를 인정했다. 까뜨리느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의 관계를 모른체 했다. 솨발은 매일 저녁 까뜨리느와 함께 버럭산뒤로 갔으며 다음에는 그를 부모네 집 문앞까지 바래다주고 온 마을이 보는데서 헤여지면서 처녀와 입을 맞추었다. 에띠엔느는 그 일이 자기에겐 아무런 상관도 없는척 했으며 깊은 탄갱속에서나 젊은 남녀들이 하는 그런 상스러운 말들을 이따금 던지면서 그들이 함께 산보하는것을 비웃었다. 까뜨리느도 그런 말로 그에게 대꾸하면서 저의 애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었다는것을 뽐내여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이 젊은이와 눈이 마주치면 처녀는 무안하여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러면 두사람은 서로 외면했으며 때로는 몇시간씩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속에 품고있으면서도 한번도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한 그 감정으로 해서 서로 증오하는것 같았다.

봄이 왔다. 어느날 갱에서 나온 에띠엔느는 4월의 훈훈한 숨결과 생신한 대지며 부드러운 풀빛이며 깨끗한 대기의 향기가 얼굴에 확 풍겨오는것을 느꼈다.

그가 여름을 모르는 침침한 지하의 랭기와 영원한 어둠속에서의 열시간의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마다 봄은 더욱 향그러워졌고 더

욱 따뜻해졌다. 해가 길어졌다. 그리하여 5월이 되자 에띠엔느는 해가 솟으면서 주홍빛으로 물든 하늘이 새벽먼지속의 보료를 밝혀주고 배출되는 흰 증기가 장미빛으로 오르는 때에 탄갱으로 내려가게 되였다. 아무도 더는 추위에 몸을 떨지 않았고 먼 들판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높은 하늘에는 종달새가 지종지종 울었다. 3시면 그는 눈부시게 불타는 태양을 보았다. 태양은 지평선을 붉게 물들였으며 석탄으로 더러워진 벽돌건물들에 불그레한 반사광을 던져주었다. 6월이 되자 푸른 밀이 벌써 크게 자라서 사탕무우잎사귀들은 거멓게 드러났다. 그것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설레이는 가없는 푸른 바다였다. 그 바다는 날이 갈수록 더 넓게 펴져갔다. 그리고 저녁이면 에띠엔느는 아침보다도 그것이 더 푸르러진것을 보고 자주 놀라는것이였다. 운하옆에 선 백양나무들에도 잎들이 고르롭게 피여났다. 버럭산에는 풀이 무성했고 초원에는 꽃들이 덮였다. 여기저기서 새삶이 소생했고 그가 괴로움과 피로로 해서 기진하군 하던 바로 그 땅밑에서 삶이 솟아오르고있었다.

이제는 에띠엔느가 저녁녘에 산보를 나가도 버럭산뒤에서는 사랑하는 남녀들을 볼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자취를 따라 밀밭으로 갔다. 젊은이들은 자유롭다. 때문에 에띠엔느는 이 점에서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까뜨리느와 샤발이 만나는 날 밤만은 격분했다. 한번은 그가 좁은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까뜨리느의 영채도는 두눈이 언뜻 그의 앞에 보였다가 사라졌다. 그때 그에겐 무연한 들판이 좁은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그날 저녁시간을 라스너르의 아방따즈에서 보내고말리라 생각했다.

《부인, 한조끼 주시우. … 난 오늘 저녁엔 산보나가지 않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에띠엔느는 방안의 다른 한구석 벽옆의 식탁앞에 앉아있는 동무에게 물었다.

《쑤바린, 임잔 생각이 없나?》

《고맙네, 아무것도 생각이 없네.》

에띠엔느는 쑤바린과 서로 이웃해 살면서 그와 친숙해졌다. 그는 보료탄갱에서 기계운전공으로 일했는데 2층에 있는 에띠엔느의 옆방을 세내고있었다. 얼핏 보기에 30살쯤 되여보이는 그는 여윈 금발머

리 사나이였다. 긴 머리카락과 성글성글한 수염으로 테두리를 한듯 한 그의 얼굴은 말쑥했다. 하얗고 뾰족한 이발들이며 가느다란 입과 코며 장미빛 도는 량볼때문에 그는 처녀같았다. 그는 유순하면서도 강직한 얼굴표정이였으며 철회색눈에서는 사나운 불꽃이 이따금 튀여오르군 했다.

이 가난한 로동자의 방에는 책과 종이가 든 커다란 궤짝이 하나 있을뿐이였다. 쑤바린은 로씨야인이였는데 그는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많은 소문이 돌았다. 외국사람들을 의심쩍게 대하는 탄부들은 그의 크지 않은 손을 보고 그가 다른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그가 형벌을 피해온 살인자로서 그에게는 아주 괴이한 사건이 있었으리라고 상상했었다. 그러나 쑤바린은 조금도 교만한 티를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다정스럽게 대했으며 로동자들의 자식들에게 돈도 얼마간씩 나누어주군 했다. 그리하여 탄부들은 결국 그를 인정하게 되였다. 그들은 그가 망명객이라는것으로서 안심했었다. 그러한 판단이 애매한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눈앞에서 쑤바린을 충분히 변명해주었다. 지어 쑤바린이 그 어떤 범죄를 범했다손치더라도 그들은 그를 용서할수 있었다. 탄부들은 자기들과 같이 불행한 점에서 그를 동지로 보았다.

첫시기에 에띠엔느에게는 쑤바린이 침울하고 사교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에띠엔느는 그의 래력을 후에야 알았다. 쑤바린은 뚤라현의 귀족가문의 후예였다. 그는 뻬쩨르부르그에서 의학을 배웠다. 그곳에서 그는 당시 로씨야의 모든 청년들을 사로잡았던 사회주의사상에 열중했었다. 그 어떤 직업을 배우기로 결심한 그는 후에 인민들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더 가까이 알고 그들에게 친절한 방조를 주기 위해 기계운전공의 직업을 택했다. 그래서 그는 황제암살기도가 실패한 후 로씨야에서 망명해와서 지금 바로 그 직업으로 생활을 하고있는것이였다. 옹근 한달동안 그는 과실점의 지하실에 살면서 거리를 가로 지나는 갱도를 팠고 집과 더불어 날아날 영원한 위험을 무릅쓰고 폭탄을 만들기 시작했었다. 가족들은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밀정으로 의심을 받은 그는 프랑스의 공장들에서 요시찰명단에 올라있어 돈 한푼 없이 굶다싶이 지내다가 마침 로동력부족이 생긴 몽쑤회사에 고용되였던것이다. 그는 여기서 벌써 옹근 일년째 일하고있었

다. 한주일은 낮에 일하고 한주일은 밤에 일했다. 그는 꾸준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고 말이 없고 단정했다. 그래서 탄갱관리인들은 그를 다른 사람들앞에 모범으로 내세웠다.

《정말 임잔 마시고싶은적이 한번도 없던가.》 하고 에띠엔느는 웃으면서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쑤바린은 거의 억양이 없는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난 식사를 하느라면 이따금 갈증이 날 때가 있네.》

에띠엔느는 쑤바린의 정실관계를 놀려주면서 그가 바－더－쓰와 마을에서 머지않은 어느 보리밭에 녀운반공과 같이 있는것을 보았다고 했다. 쑤바린은 아주 태연하고 심상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무엇때문에 그에게 녀운반공이 필요하단 말인가? 녀자가 그에게 우정으로 대하고 남자처럼 용감하면 그는 그 녀자를 동지로 대해주었다. 무엇때문에 그런 비렬한짓을 하겠는가? 그는 아무도 안해도 벗도 바라지 않았다. 자신이 자유로운 그는 가까운 사람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다.

저녁마다 9시쯤 되여 술집이 비게 되면 에띠엔느는 거기 남아서 쑤바린과 이야기를 했다. 에띠엔느는 맥주를 조금씩 마셨고 쑤바린은 련이어 궐연을 피웠다. 쑤바린은 담배를 너무 피워서 가느다란 손가락들이 누렇게 절어갔다. 그는 꿈속에서처럼 신비주의자의 멍한 눈으로 타래져올라가는 연기의 동그라미들을 하나하나 주시하고있었다. 그는 무엇을 찾는듯 발작적으로 왼손을 허공으로 추켜올렸다. 그리고 보통 그는 이 집에서 자유롭게 놓아기르는 살찌고 무거운 암토끼를 무릎우에 올려놓았다. 쑤바린이 《뽈스까》라고 부르고있는 이 토끼는 그를 무척 따랐다. 그의 바지의 냄새를 맡으면서 뒤발로 그의 앞에 오똑 서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안아올릴 때까지 마구 허비는것이였다. 토끼는 그의 몸에 꼭 안기면 두귀를 처뜨리고 눈을 스르르 감는것이였다. 쑤바린은 저도 모르게 정이 북받쳐 명주같이 부드러운 재빛털을 계속 쓰다듬어주었다. 포근하고 생기있는 그 동물을 안고있으면 그도 마음이 진정되는듯 했다.

《여보게.》 하고 어느날 저녁에 에띠엔느가 말을 건넸다. 《난 쁠류샤르에게서 편지를 받았네.》

방안에는 라스너르 이외에 아무도 없었다. 마지막손님은 모두가 이미 잠들어버린 마을로 향했었다.

《옳지!》 하고 술집주인은 자기 집 하숙인에게 다가오면서 웨쳤다. 《그 사람 일은 어떻게 되여간다오?》

에띠엔느는 자기가 몽쑤에서 취직했다는것을 쁠류샤르에게 알리고 이미 두달째 그와 활발한 서신거래를 하고있었다. 탄부들사이에서 선전을 할수 있다는것을 알아차린 쁠류샤르는 이 문제에 관한 여러가지 지시를 에띠엔느에게 주었다.

《당신이 이미 알고있는 협회의 사업은 아주 잘되여가는것 같습니다.》

《그들의 협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라스너르가 쑤바린에게 말을 건네며 물었다.

쑤바린은 입에서 담배연기를 내뿜고 뽈스까의 머리를 부드럽게 긁어주면서 조용히 대꾸를 했다.

《헛된 일이요!》

그러나 에띠엔느는 흥분하고있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의 투쟁을 꿈꾸었다. 그는 경험없는 사람으로서 아주 열중했다. 그들은 방금 런던에서 조직된 국제로동자협회 즉 유명한 인터나쇼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과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의가 승리를 가져올 훌륭한 노력, 투쟁이 아니란 말인가? 국경이 더는 존재하지 않고 전세계의 근로자들은 로동자들에게 그들자신이 로동으로 획득한 빵을 보장하기 위해 봉기를 일으키고 단결할것이다. 얼마나 평범하고 위대한 조직인가. 처음에는 리를 대표하는 분회가 나오고 다음에는 그 지방의 분회들을 통합하는 조직이 나오고 다음에는 국가적인 조직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것의 우에서는 총리사회라는 전인류적인 조직이 생긴다. 총리사회에서는 매개 국가를 련락서기가 대표한다. 반년이내에 전세계는 정복될것이며 기업가들이 반항하면 그들에게 법령을 강요할것이다.

《공연한짓이요!》 하고 쑤바린이 되풀이했다. 《당신들의 칼 맑스는 자연의 힘을 발동시킬것을 바라고있소. 정치나 음모는 모르거던, 그렇지 않소? 모든것은 공개적으로 하려구 하지. 그리고 유일하게 로동임금의 인상을 위해서… 당신들은 자기의 그 진보를 붙잡고 나아가시오! 도시에 불을 지르고 인민들을 살륙하고 자기의 길우에 있는 모든것을 쓸어버려야 하오. 이 부패한 세계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그때야 훌륭한 세계를 건설할수 있소.》
에띠엔느는 웃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동무의 말에 언제나 동의하지도 않았다. 전반적파괴의 리론이 그에게는 그저 모험적인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보다 실천적이며 상식이 풍부한 라스너르는 자기 주장이 있는 인간으로서 그러한 말에 지어 성도 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문제를 명확히 하려 할뿐이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거요? 당신은 몽쑤에도 분회를 조직하려는거요?》
북부련맹의 비서인 쁠류샤르는 바로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것이다. 그는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에 협회가 탄부들에게 방조줄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했었다. 에띠엔느는 불가피한 파업을 예견했다. 그는 동발사건이 좋지 않게 끝날것인즉 회사측이 또다시 자기 요구를 강요하면 모든 탄갱들에는 소동이 일어날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일 안타까운것은 맹비요.》 하고 라스너르가 위신있는 어조로 말했다. 《공동기금으로 해마다 50쌍띰하고 분회를 위해서 2프랑을 낸다는것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난 장담할수 있소. 많은 사람들이 못 내겠다고 할거요.》
《더우기》 하고 에띠엔느가 덧붙였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여기에 예금은행을 창설해야 합니다. 유사시에 우리는 그것을 파업기금으로 돌릴수 있을겁니다. 어차피 이것을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만 준비된다면 나로서는 준비가 다되여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매대우의 석유등잔이 그을음을 피우고있었다. 열려진 문으로 삽질하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그것은 보료탄갱의 보이라공이 화구에 석탄을 퍼넣는 소리였다.
《무슨 일에나 돈이 많이 드는군요!》 하고 방안에 들어와서 침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있던 라스너르의 부인이 덧붙였다. 노상 검은 옷을 입고있는 그는 아주 키가 커보였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닭알 한알에 22쑤나 주었어요.… 언제든 이놈의 세상이 뒤집힐 날이 있을테지.》
남자들도 꼭같은 의견을 말했다. 불평들이 쏟아져나왔다. 그들은 방이 꺼지게 한숨을 쉬면서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했다. 로동자들은 그런 생활을 견디여낼수 없다. 혁명은 로동자의 빈궁을 악화시켰을뿐이

고 1789년이후로 부르죠아만이 피둥피둥 살이 졌다. 그들은 로동인간들에게는 자기들의 먹고 남은 찌꺼기도 남겨놓지 않았다. 깨끗한 량심에 비추어 말해보라! 백년동안에 축적된 무진장한 재부와 복리중에서 무엇이든 로동자들의 몫으로 차례진것이 있는가? 로동자들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선포한것은 그들에 대한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그들에게는 굶어죽는 자유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전에도 그들은 그런 자유는 빼앗기지 않았던것이다. 로동자들을 저들의 낡은 장화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 어떤 탐욕스러운 협잡군을 위해 투표한다. 하여 그들의 함지박에 빵이 생기는것은 아니다. 그렇다, 점잖은 호상합의에 의한 합법적방법에 의해서든 아니면 모든것을 불사르고 서로 찔러죽이는 야수적방법에 의해서든 끝장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그런 세상을 보게 될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기는 반드시 다른 혁명－로동자들의 혁명에 의해 끝나게 될것이기때문이다. 정의와 성실성에 기초하여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모든 계층에 걸쳐 온 사회를 뒤집어엎을 파괴가 올것이다.

《언제든 이 모든것은 파멸될것이예요.》 하고 라스너르부인이 단호히 되풀이했다.

《그렇구말구, 모든것이 파멸되고말고!》 하고 남자들이 그 말을 받았다.

쑤바린은 뽈스까의 두귀를 쓰다듬고있었다. 암토끼는 만족해서 코를 찌프렸다. 쑤바린은 멍한 눈길로 허공을 바라보면서 혼자말처럼 낮은 소리로 입을 뗐다.

《로동임금을 올릴수 있을가요? 강철같은 법령에 의해서 로동자들은 마른 빵껍질을 먹으며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게 되여있소. … 만약에 임금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로동자들은 굶어죽을게고 그러면 새로운 로동력이 요구되고 로동임금은 다시 올라가는거요. 만약에 로동임금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로동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로동임금은 다시금 떨어지오. 이것은 말하자면 로동자들을 영원한 굶주림의 감옥형에 처형하여 배가 고프게 균형을 맞추는것이지요.》

쑤바린이 학식있는 사회주의자로서의 자기 견해를 열심히 전개하기 시작하면 에띠엔느와 라스너르는 불안에 잠겨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쑤바린의 절망적인 결론은 그들을 당황케 했다. 에띠엔느와 라스너르는 어떻게 반박할바를 몰랐다.

《들었소?》 하고 쑤바린은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여느때처럼 조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모든것을 소탕해버려야 하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굶주릴거요. 그렇구말구! 무정부,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없소! 피에 씻기고 불로써 깨끗하여진 땅! … 두고보시오.》

《쑤바린씨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아요.》 하고 라스너르부인이 말했다. 그는 폭동자처럼 말씨는 거칠어도 매우 례절이 바른것으로 뛰여났었다. 자신이 무식함으로 해서 절망상태에 빠진 에띠엔느는 더는 론쟁에 참가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일어서서 말했다.

《가서 잡시다. 어쨌든 래일은 3시에 일어나야지요.》

쑤바린은 에띠엔느와 같이 담배꽁초의 불을 끄고 살찐 토끼의 배밑을 살짝 쳐들어 마루에 내려놓았다. 라스너르는 문을 닫았다. 모두들 말없이 헤여져갔다. 그들은 귀속이 윙윙 울고 머리는 불안을 자아내는 중요한 문제들로 해서 부풀어오른것 같았다.

날마다 그들은 텅 빈 홀에서 에띠엔느가 옹근 한시간동안 마시는 한조끼의 맥주를 둘러싸고앉아 꼭같은 이야기를 했다. 여태껏 에띠엔느의 머리에서 졸고있던 애매한 갖가지 생각들이 활기를 띠게 되였고 그의 시야는 넓어졌다. 에띠엔느는 지식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느끼면서도 오래동안 감히 이웃동무한테 책을 빌리라고 하지 못했었다. 공교롭게도 그에게는 도이취어와 로어로 된 책밖에 없었다. 드디여 에띠엔느는 어디서 협동단체에 관한 프랑스어책을 얻었다. 쑤바린의 말에 의하면 그 책은 어리석은것이였다. 그외에 에띠엔느는 제네바에서 발간되는 무정부주의출판물《투쟁》을 일상적으로 읽었다. 쑤바린이 그것을 받았던것이다. 그들은 매일 상종하고있었으나 기계운전공은 여전히 교제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그는 열정도 사랑도 없이 어떠한 행복의 맛도 보지 않으면서 자기의 생활의 길을 걷고있는것 같았다.

7월초의 에띠엔느는 형편이 좋아졌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끝없이 단조로운 탄갱생활을 파괴했다. 로동자들은 갑자기 귀욤탄층에서 광층의 혼잡, 탄층에서의 대혼란을 발견했던것이다. 이것은 균렬

이 생길 틀림없는 징조였다. 아니나다를가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균렬에 부닥쳤다. 지질에 박식한 기사들까지도 거기에 균렬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이 사건은 온 탄갱을 당황케 했다. 사람들은 균렬의 저쪽켠으로 내려앉은듯싶은 사라진 탄맥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했다. 오랜 탄부들은 사냥개처럼 도처에서 석탄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사이에 로동자들이 팔짱을 끼고있을수는 없었다. 그래서 회사는 새로운 청부를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를 냈다. 입찰을 실시한다는 공시문을 게시했다.

어느날 마여는 에띠엔느와 함께 탄갱에서 돌아오면서 그더러 다른 작업조에 넘어간 레바끄를 대신하여 채탄부의 일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마여는 이미 도감독 및 기사와 협의했던것이다. 그들은 이 젊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있었다. 에띠엔느는 자기를 승격시키겠다는 이 제의를 접수하기로 했다. 그는 마여가 표시한 이러한 신임이 무척 기뻤다.

저녁에 탄부들은 공시문을 보려고 같이 탄갱으로 갔었다. 입찰을 한다는 채탄장은 보료의 북쪽갱도의 필로니에르탄층에 있었다. 그 구역들은 그닥 좋은 곳이 아니였다. 마여는 에띠엔느가 읽어주는 예약조건을 들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뿐이였다. 아닌게 아니라 다음날 그들이 개발장소를 돌아보러 갔을 때 마여는 구역들이 경사갱도에서 멀며 땅이 무르고 탄층이 메말랐다는것 그리고 탄층이 몹시 굳다는데 대해서 에띠엔느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일요일에 그들은 휴계실에서 당국의 검열관이 없이 탄갱기사와 도감독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러 나갔다.

구석에 놓은 조그마한 단앞에는 500～600명의 탄부들이 모여있었다. 입찰은 탄부들의 웅글은 목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였다. 앞을 다투어 큰소리로 수자들을 부르면 곧 다른 수자들이 나왔다. 한순간 마여는 자기가 회사에서 제의한 40개 구역중에서 한 구역도 얻지 못할것만 같아 근심했다. 공황과 조업중지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공포에 싸인 경쟁자들은 가격을 낮추었다. 원래가 성급한 네그렐이건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가격을 가장 낮은 한계에까지 떨구려고 애를 썼으며 아첨쟁이 당싸에르는 입찰에 붙인 구역들을 찬양하면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마여는 50메터의 구역을 가지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역시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는 동무들과 다투게 되였다. 그들은 서로 탄차당 한쌍띰씩 값을 깎아내렸다. 마여는 이기긴 했으나 값을 아주 낮추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래서 뒤에 서있던 감독 리숌까지도 그를 쿡 찌르고나서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는 그가 한푼도 벌지 못하리라고 내뱉듯이 말했던것이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다. 에띠엔느는 까뜨리느와 함께 벌판을 거닐고 돌아오는 쇄발을 보자 참지 못하여 로인이 이런 중대한 일을 하는데 저들은 빈둥거린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제기랄!》 하고 에띠엔느가 웨쳤다. 《사람들의 멱살을 틀어쥐거던. … 지금 저자들은 로동자들끼리 서로 물어뜯어 없애게 하려들거던!》

쇄발은 화가 나서 자기는 결코 가격을 낮추지 않았을것이라고 말했다. 호기심을 품고 다가온 자샤리도 그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격분한 에띠엔느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끝장이 날테지! 때가 오면 우리가 주인이 된단 말이요!》

입찰이 끝났을 때부터 잠자코 있던 마여는 잠에서 깨여난듯 이렇게 말했다.

《주인!… 엥이, 팔자두! 진작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하는거야!》

2

몽쑤에서는 7월의 마감일요일이 지방명절로 되여있었다. 토요일저녁이면 온 마을의 주부들이 물통으로 물을 끼얹으며 방바닥과 벽들을 씻어냈다. 가난뱅이들의 손에는 쉽게 들어오지 않는 사치품인 흰 모래를 깔아놓아도 바닥은 아침까지 마르지 않았다. 그날은 아주 더울것 같았다. 하늘이 소나기를 잔뜩 머금고 무연한 벌판이 더위에 허덕이는 북방의 여름날이였다.

일요일이면 마여의 가정에서는 모두가 각이한 시간에 일어났었다. 아버지는 5시부터 잠자리에서 투덜거리더니 어느새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9시까지 잠자리에 누워서 딩굴고있었다. 이날 마여는 뜨락에 나가서 담배를 한대 피우고 집에 들어와서 혼자

서 빵쪼각에 빠다를 발라 요기를 한 다음 다른 식구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는 무슨 일로 아침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물이 새는 함지를 고치고 아이들에게 선물로 준 황태자의 초상화를 시계밑에 붙였다. 드디여 다른 식구들이 하나둘 2층에서 내려왔다. 본느모르할아버지는 해빛을 쪼이려고 의자를 가지고 밖에 나갔다. 어머니와 알지르는 이미 조반을 만들기 시작했다. 까뜨리느는 옷을 입고 레노르와 앙리를 데리고 내려왔다. 시계가 11시를 쳤다. 온 집안에서 감자를 넣고 볶는 토끼고기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지막으로 자샤리와 쟝렝이 부석부석한 눈을 하고 하품을 하면서 나타났다.

명절을 맞이하여 온 마을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나와서 몽쑤로 빨리 떠나려고 일찍 만드는 점심을 기다리고있었다. 아이들이 날뛰였고 사내들은 저고리를 입지 않고 내의바람으로 실내화를 끌면서 일요일 휴식이나 하는 사람처럼 느릿느릿 나다녔다. 바깥은 날씨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모든 창문과 문들이 활짝 열려져있었다. 웅근 말소리와 웨치는 소리 그리고 발걸음소리가 집집의 방들에서 울려나왔다. 집집마다에서는 볶은 토끼고기냄새가 풍겨나왔다. 이 상쾌한 향기가 이날만은 이미 인이 박힌 파냄새를 몰아버렸다.

마여의 가족들은 정각 12시에 점심을 먹었다. 그들의 집은 무척 조용했다. 그대신 주위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웃사람들은 자기 집 문간에들 서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녀인네들은 여기저기 모여서서 공담도 하고 그 자리에서 온갖 살림살이 도구들을 서로 빌리기도 하고 아이들을 철썩철썩 때려 방에서 내쫓든가 끌어들였다. 마여의 가족들은 자샤리와 필로멘느때문에 이웃 레바끄네와 석주일째 긴장된 관계속에 있었다. 사내들은 서로 이야기를 했으나 녀자들은 서로 모르는척 했다. 이 불화는 삐에롱의 안해와의 관계를 더 두텁게 했다. 그런데 이날 삐에롱의 안해는 남편과 리디를 어머니가 돌보게 하고 아침일찌기 마르쉬엔느에 있는 사촌언니한테로 떠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있었다. 사촌언니라는것이 누구인지는 모두가 알고있었던것이다. 그 사촌언니란 코밑수염이 있는 사람으로 보료에서 도감독으로 있었다. 마여의 안해는 명절날에 가족을 아주 잊어버리고 떠나는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웅근 한달동안 헛간에서 기른 집토끼고기와 감자이외에 마여네 점

심상에는 소고기와 고기국이 또 있었다. 명절 전날인 토요일에 마침 두주일분의 급료가 나왔었다. 그들은 이런 성찬을 이미 오래전부터 잊어버리다싶이 하고있었다. 지어는 최근에 있었던 성 바르브절—사흘동안이나 쉬는 탄부들의 명절에도 토끼고기는 오늘처럼 그렇게 기름지고 연하지 못했었다. 벌써 이가 나오기 시작한 어린 에쓰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가 빠질 위험이 있는 본느모르로인에 이르기까지 열개의 턱이 어찌도 부지런히 움직였던지 뼈 하나도 남지 않았다. 고기는 좋았으나 탄부들의 위는 그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육붙이를 너무 오래간만에 먹기때문이였다. 모든것을 깨끗이 먹어버려서 저녁을 위한 소고기점이 남아있을뿐이였다. 그리고 배고파할 사람을 위해서 겹빵을 또 만들수 있었다.

맨먼저 쟝렝이 집에서 사라졌다. 베베르는 학교부근에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리디를 꾀여낼 때까지 오래동안 빈둥거렸다. 집에서 나가지 않기로 결심한 브률레는 리디가 자기한테서 한걸음도 떠나지 못하게 했다. 브률레는 소녀가 달아난것을 알자 뼈만 앙상한 팔을 내휘두르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로파의 넉두리에 진저리가 난 삐에롱은 밖을 거닐려고 집을 나섰다. 그는 안해도 지금 자기 만족을 위해 시간을 보낸다는것을 알고 태연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남편의 기색이였다.

다음에는 본느모르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갔다. 마여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가려고 했다. 그는 먼저 안해에게 자기와 함께 가지 않겠는가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안해는 어찌할수가 없었다. 그것은 아이들을 가지고있음으로 해서 받는 처벌이였다. 혹시 그는 좀 늦어서 빠져나올수 있을것이다. 그래도 물론 남편을 찾을수 있는것이다. 마여는 집에서 나오다가 생각에 잠겨 문앞에 잠시 서있었다. 이윽고 그는 레바끄가 준비되였는지 알아보려고 옆집으로 갔다. 그는 레바끄의 집에서 필로멘느를 기다리고있는 자샤리를 만났다. 레바끄의 안해는 그를 보자 언제가도 끝이 없을 그 결혼문제를 가지고 또 말하기 시작했다.

레바끄의 안해는 결혼을 그렇게 끄는것은 사람을 우롱하는것이며 자기는 마여의 안해와 이 문제를 깨끗이 해명해야겠다는것이였다. 어머니는 애비없는 외손자들을 돌보고 딸은 자기대로 자기 사나이와 돌아

다닌다면 과연 그것도 생활인가?

필로멘느는 아주 태연하게 모자를 썼다. 자샤리는 자기 어머니만 승인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필로멘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레바끄자신은 벌써 집에 없었다. 마여는 자기 안해와 이야기해보라고 레바끄의 안해에게 권고하고 곧 거기서 나와버렸다. 부뜰루가 식탁에 팔을 짚고 앉아 치즈쪼각을 마저 먹고있었다. 그는 충실한 남편처럼 함께 가서 맥주를 한조끼 하자는 마여의 권고를 거절했다.

마을은 점차 텅 비여갔다. 사나이들이 하나둘 련이어 떠나가고 처녀들은 문가에서 자기의 애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과 팔을 끼고 반대쪽으로 사라졌다. 마여가 교회당모퉁이뒤로 돌아서자 벌써부터 멀리서 솨발을 보고있던 까뜨리느는 몽쑤로 함께 가려고 그에게로 걸음을 서둘렀다. 어머니는 우글거리는 아이들속에 혼자 남았다.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뜨거운 커피를 또 한잔 부어서 홀짝홀짝 마셨다. 마을에는 녀인네들만이 남았다. 그들은 서로 마실을 오라고 불러다가 기름때가 묻어서 얼룩얼룩한 식탁보우에 먹던 음식찌꺼기들이 널려있는 지저분한 식탁앞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마여는 레바끄가 아방따즈에 갔으리라고 믿고 천천히 라스너르의 집으로 향했다. 레바끄는 동무들과 함께 술집옆에 있는 울타리를 친 소정원에서 아홉막대기놀이를 놀고있었다. 거기에는 본느모르할아버지와 무끄로인도 있었는데 그들은 공을 주시하느라고 서로 팔굽으로 쿡쿡 찌르는 일도 잊고있었다. 해가 내려쬐였다. 바로 집옆에 좁은 그늘이 져있었다. 조그마한 식탁에는 에띠엔느가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있었는데 그는 방금전에 쑤바린이 자기를 남겨두고 제 방으로 올라간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있었다. 거의 매주 일요일마다 기계운전공은 자기 방에 들어박혀서 글을 쓰든가 책을 읽고있었다.

《놀겠나?》 하고 레바끄가 마여에게 물었다. 그러나 마여는 거절했다. 그는 덥고 갈증이 나 견딜수 없었다.

《라스너르!》 하고 에띠엔느가 불렀다. 《한조끼 더 가져오우.》

그리고나서 에띠엔느는 마여에게 말했다.

《내가 턱을 내지.》

지금 그들은 모두 허물없는 사이가 되였다. 라스너르는 서두르지 않

았다. 그래서 세번이나 그에게 고함을 쳐야만 했다. 드디여 라스너르의 부인이 미지근한 맥주를 가져왔다. 젊은이는 목소리를 낮추고 주인내외에 대한 불평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좋고 다투지도 않고 훌륭한 견해도 가지고있는데 맥주만은 말이 아니며 국도 아주 너절하다는것이였다. 그는 몽쑤로부터의 거리만 멀지 않았어도 벌써 주인을 바꿨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조만간에 마을에서 자기를 하숙시켜줄 집을 찾아봐야겠다는것이였다.

《아무렴.》 하고 마여가 여느때처럼 천천히 말하였다. 《보통살림집이 임자에겐 더 좋을거야.》

그러나 이때 웨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레바끄가 놀음에서 모든 막대기를 단번치기로 넘어뜨렸던것이다. 모두가 떠들썩하는 속에서 무끄와 본느모르만이 무언의 지지를 표시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서있었다. 능란한 타격에 뒤이어 쏟아져나오기 시작한 롱담은 울타리우로 무께뜨의 유쾌한 얼굴이 나타나자 류달리 심해졌다. 무께뜨는 이미 한시간동안이나 이곳을 헤매다가 웃음소리와 웨치는 소리를 듣고 드디여 용기를 내여 가까이 다가왔던것이다.

《아니, 혼자 왔어?》 하고 레바끄가 웨쳤다.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쫓아버렸어요.》 하고 무께뜨는 명랑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대꾸를 했다. 《새 사람을 찾고있어요.》

모두가 앞을 다투어 예리한 표현을 써가면서 자기가 봉사하겠노라고 자청해나섰다. 무께뜨는 짐짓 얌전한체 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이렇게 롱을 주고받고할 때 무께뜨의 아버지도 있었는데 그는 넘어간 아홉막대기놀이의 막대기만 줄곧 바라보고 있었다.

《옳지!》 하고 레바끄가 에띠엔느쪽에 눈길을 던지면서 말했다. 《누굴 노리고있는지 알겠어! …그 사람은 목을 매여 끌어야 할걸.》

에띠엔느는 유쾌해졌다. 기실 녀운반공은 에띠엔느를 찬찬히 쳐다보고있었다. 그것이 에띠엔느를 즐겁게 했으나 그는 무께뜨와는 전혀 가깝게 사귀고싶지 않았다. 무께뜨는 몇분동안 울타리옆에 더 서서 그 큰 눈으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천천히 물러갔다. 처녀의 얼굴

은 더위에라도 지친듯 대뜸 침착해졌다.

에띠엔느는 다시 낮은 소리로 마여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몽쑤의 탄부들이 호상부조금고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세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회사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다고 다짐하는데》 하고 에띠엔느는 말했다. 《무서울게 뭐요? 회사는 우리들에게 년금만 주지만 급료에서 여하한 공제도 하지 않는다는걸 구실삼아서 그것을 제 마음대로 정하고있소. 그래서 회사의 동정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선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기대할수 있는 공동의 호상부조금고를 창설할 필요가 있소.》

그리고 에띠엔느는 모든 시끄러운 일은 자기가 맡겠노라고 약속하면서 금고조직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난 반대없네.》 하고 드디여 에띠엔느의 론증을 굳게 믿게 된 마여가 입을 뗐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겠는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게.》

레바끄는 놀음에서 이겼다. 놀음군들은 맥주를 마시는것을 거절했다. 해는 아직 많으니까 차차 보아가며 마시자는것이였다. 마여는 삐에롱을 생각했다. 그는 지금 어데 있을가? 아마도 랑팡의 다방에 앉아있을것이다. 마여는 에띠엔느와 레바끄에게 권해서 몽쑤에 같이 가기로 했다.

놀음군들이 아방따즈의 아홉막대기놀이장을 차지했다.

세사람은 도중에 신작로가에 있는 까시미르의 술집에 먼저 들리고 다음에 쁘로그레다방에 들렸다. 열려진 문옆에 서있던 탄부들이 그들을 불렀다. 물론 그들은 거절할수 없었다. 매번 맥주를 한두조끼씩 마시였다. 그것은 이편에서도 자기대로 동무들을 대접해야 하기때문이였다. 그들은 한 10분쯤 지체해서 몇마디의 말을 주고받고하다가 또 걷군 했다. 그들은 경험에 의해서 샘물같이 맑은 이 맥주는 얼마든지 마실수 있지만 그 결과는 변소에 자주 드나들게 하는것밖에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정말 그들은 랑팡의 다방에서 두조끼째 마시고있는 삐에롱을 만났다. 삐에롱은 그들과 함께 세번째 조끼를 마시게 되였다. 물론 그들도 한조끼씩 마셨다. 이제는 일행이 네명으로 되였는데 모두 함께 자샤리가 없는지 알아보려고 다방 띠종으로 향했

다. 홀이 텅 비여있어서 그들은 한조끼씩 받아놓고 기다리기로 했다. 문득 그들은 다방 쌩 엘로와가 있다는것을 생각했다. 거기서는 감독 리숌이 그들에게 한턱을 내였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들뜬 기분으로 술집에서 술집으로 돌아다녔다.

《볼깡으로 가야 하겠네!》 벌써 거나하게 취한 레바끄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껄껄 웃고나서 잠간 생각해보더니 동무와 동행하기로 했다. 그들은 유쾌하게 떠들썩하는 군중을 뚫고나가기 시작했다. 술집 볼깡의 길고 좁은 홀안에는 널판자로 만든 가설무대가 있어 그우에서는 어깨를 온통 드러내놓은 다섯명의 녀가수들이 애교를 부리면서 노래를 부르고있었는데 그들은 릴르의 저급한 매춘부들속에서 뽑아온 녀자들이였다. 만약에 손님이 그들중의 한 녀인과 가설무대의 칸막이뒤로 사라지면 10쑤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로 밀차공과 운반공, 권양기공들이 오며 지어는 열네살나는 소년까지 온다. 한마디로 말해서 탄갱의 전체 청소년들이 오는것이다. 그들은 맥주보다 향나무술을 더 마셨다. 이따금 가정생활을 할 능력이 없는 방랑아인 몇몇 늙은 탄부들도 용기를 내여 이러한 모험을 하는것이였다.

마여일행이 식탁둘레에 앉자 에띠엔느는 레바끄를 붙잡고 호상부조금고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이 사업에 이바지하는것을 제사명으로 보고있는 사람처럼 열심히 선전을 했다. 《호상부조금고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달에 20쑤를 내야 하오. 그러면 4～5년이 지나면 상당한 금액으로 될게 아니요. 그리고 돈이란 어떤 정황속에서도 힘으로 되는거요. … 그렇지 않소? 어떻게 생각하오.》

《나는 반대없네만》 하고 레바끄는 귀찮은듯이 대꾸를 했다. 《좀 토론은 해봐야 하겠네.》

키큰 금발머리녀인이 레바끄의 주의를 끌었던것이다. 그래서 마여와 삐에롱은 맥주를 한조끼씩 마시고는 다음곡목을 기다리지 않고 나가려고 했으나 레바끄는 기어코 거기 남으려고 했다.

에띠엔느는 동무들과 함께 나오다가 또다시 무께뜨를 보았는데 아마도 처녀는 그를 따라다닌것 같았다. 무께뜨는 가는 곳마다에서 에띠엔느의 옆에 나타나서 그 큰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데 마치도 《싫어요?》 하고 말하는듯 했다. 젊은이는 빈정대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

러자 무께뜨는 성난듯이 손을 홱 내젓고 군중속으로 사라졌다.

《솨발은 어데 있소?》 하고 삐에롱이 물었다.

《참말?》 하고 마여가 말했다. 《삐께뜨에 있을테지. 삐께뜨로 가세.》

그들 셋은 다방으로 가까이 가면서 떠들썩하는 싸움소리를 들었다. 자샤리가 문엽에 서서 발롱사람인 다부지고 랭담한 젊은 못제조공에게 주먹질을 하고있었다. 솨발은 호주머니에 두손을 지르고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있었다.

《저기 솨발도 있군!》 하고 마여가 태연하게 말했다. 《저기 까뜨리느와 함께 있어.》

녀운반공과 그의 애인은 옹근 5시간이나 몽쑤로 가는 길옆에 자리잡은 시장으로 돌아다녔다. 시장은 얼룩덜룩하게 색칠을 한 나지막한 집들이 두줄로 쭉 늘어선 넓은 거리였다. 번번한 들판을 기여가는 개미무리같은 군중이 내려쪼이는 해빛을 받으며 그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진탕은 바싹 말라 시꺼먼 먼지로 변하여 소낙비를 몰아오는 검은구름처럼 날아올랐다. 거리의 량옆에 있는 술집들에는 손님들이 빼곡이 찼는데 그들은 길옆에 내놓은 식탁까지 모조리 차지하고있었다. 문앞의 보도에는 목판을 멘 행상들이 두줄로 죽 늘어서서 처녀들에게는 머리수건과 거울을 권했고 사나이들에게는 칼과 모자와 그리고 갖가지 군입거리와 과자들을 권하고있었다. 교회당옆에는 궁술경기장이 설치되여있었다. 창고 바로 맞은켠에서는 공을 차고있었다. 길이 쥬아젤로 돌아드는 곳에 있는 리사회건물앞 담장안에서는 닭싸움이 벌어지고있었다. 큰 수닭 두마리가 싸우고있었다. 닭들에게는 무쇠같이 단단한 발톱들이 있었다. 닭들의 목에서는 피가 흐르고있었다. 메그라의 가게방에서는 당구를 치고있었다. 이긴 사람들은 상품으로 양복바지들을 탔다. 때때로 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잠자코 마시고 먹고 했다. 무더운 대기속에는 맥주와 감자볶음냄새가 떠돌았다. 직접 로천에서 음식을 만드는 화로불때문에 대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솨발은 까뜨리느에게 19쑤짜리 거울과 3프랑짜리 머리수건을 사주었다. 그들은 자주 무끄며 본느모르와 부딪치군 했다. 로인들도 명절놀이에 와서 무거운 다리를 가까스로 옮기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이리저리 거닐고있었다. 그러나 두사람은 자기들을 격분케 하는 다른 일

에도 부딪쳤다. 그들은 공지의 한끝에 쳐놓은 술집천막에서 향나무술병들을 훔쳐내오도록 베베르와 리디를 부추기고있는 쟝렝을 보았던것이다. 까뜨리느는 겨우 동생의 뒤통수를 한대 갈기고 놓쳐버렸다. 리디는 벌써 병을 쥐고 도망쳤다. 장난꾸러기들은 감옥에 갇힐 일을 하고있었다.

애인과 함께 술집 떼뜨 꾸뻬앞을 지나가던 쇼발은 문득 거기에 들어가서 꽃참새의 경기를 보기로 했다. 이 경기를 선전하는 광고가 한주일전부터 술집문에 붙어있었다. 마르쉬엔느에서 15명의 못제조공들이 왔는데 저마다 12개씩의 새장을 들고왔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참새들이 까딱않고 앉아있는 조그맣고 까만 새장들이 술집뜨락 울바자에 주런이 걸려있었다. 한시간동안에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는 꽃참새가 이기는것이다. 매 못제조공이 자기 새장옆에 석판을 들고 서서 옆사람의 꽃참새를 주시하면서 기록을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들의 검열을 받았다. 꽃참새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떤 놈들은 보다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귀머거리》라고 불렀다. 다른 꽃참새들은 귀청을 째는듯 한 소리로 노래불러서 《울보》라는 별명을 지녔다. 처음에는 모두 동안이 뜨게 소심하게 노래를 부르다가 다음에는 서로 뒤질세라 더욱 기를 쓰며 노래를 부르는것이였다. 그러다가 드디여는 어떤 새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넘어지고만다. 못제조공들은 꽃참새들을 더욱 부추기면서 발롱의 사투리로 조금이라도 노래를 더 부르게 하려고 애를 쓴다. 거의 백명이나 되는 관중은 경탄하여 180마리의 꽃참새가 노래부르는 이 지옥의 음악에 말없이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꽃참새들은 꼭같은 노래를 앞을 다투어 되풀이했다. 어느 한 울보가 처음으로 금속제커피주전자를 상품으로 받았다.

자샤리와 필로멘느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까뜨리느와 쇼발은 이미 거기 와있었다. 두쌍의 젊은 남녀들은 서로 악수를 하고 나란히 섰다. 문득 자샤리는 동무들과 함께 이 경쟁을 구경온 한 못제조공이 까뜨리느의 넙적다리를 꼬집는것을 보고 울컥 화가 치밀었다. 낯이 온통 빨개진 까뜨리느는 쇼발이 자기 편역을 들게 되면 싸움이 벌어지고 전체 못제조공들이 그에게 달려들것이 두려워 오빠더러 잠자코 있으라고 애원했다. 까뜨리느는 그 사나이가 자기한테 치근거리는것을 느꼈으나 분별있게 침묵을 지켜왔다. 다행히도 까뜨리느의 애인은 그저 히

쭉 웃을뿐이였다. 네사람은 모두 밖으로 나왔다. 일은 그것으로 끝난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맥주를 마시려고 다방 뻬께뜨에 들어가자 바로 아까 그 못제조공이 거기에 나타나서 시비조로 그들을 비웃으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자샤리는 누이동생을 편역들어 뻔뻔스러운 그자에게 달려들었다.

《이 앤 내 누이동생이야. 자식, 정말 돼지새끼같군그래!… 좀 기다려, 빌어먹을것!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점잖게 굴도록 말이다!》

모두가 달라붙어서 그들을 말렸다. 솨발만은 태연한 어조로 말했다.

《그만둬. 이건 내게 관계되는 일이야.… 임자께 말하지만 난 그따위 자식은 꿈만해.》

이때 마여가 동행자들과 함께 나와서 울먹울먹해 서있는 까뜨리느와 필로멘느를 진정시켰다.

모두가 일시에 웃기 시작했다. 못제조공은 자취를 감추었다. 다방 뻬께뜨를 자기 집처럼 아는 솨발은 한조끼씩 들도록 여럿에게 권하였다. 에띠엔느는 까뜨리느와 잔을 찧게 되였다. 아버지, 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애인들이 모두 맥주를 마셨는데 점잖게 《성실한 우리 일행의 건강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잔을 들었다. 이윽고 뻬에롱도 자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한턱을 썼다. 자샤리가 무께를 발견하고 다시 기세를 올렸다. 자샤리는 못제조공에게 앙갚음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무께를 불러왔다.

《난 그자식을 쳐죽이고말테야, 이봐! 솨발, 임자에게 필로멘느허구 까뜨리느를 맡기네. 곧 돌아올테니.》

이번에는 마여가 한조끼씩 권했다. 오라비가 누이동생의 편역을 드는것인즉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된것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필로멘느는 무께를 보자 마음이 놓여 고개만 가로저을뿐이였다. 두 젊은이는 볼깡으로 가는것 같았다.

명절날은 보통 술집 봉 쥬와이어에서 여는 무도회로 끝났다. 무도회는 쉰고개를 넘은 과부 데지르가 조직했다. 물통처럼 몸집이 둥근 그 녀인은 마음은 아직 젊어서 여섯명의 정부를 가지고있었는데 여느때에는 순번으로 매일 한사람씩을 대하고 일요일에는 그자신의 말과같이 여섯사람을 한꺼번에 대했다. 그는 30년동안이나 자기 집에서 그토록 많은 맥주를 마셔준 탄부들에게 사의를 표하는 뜻에서 그

들을 자기 집 젊은이들이라고 불렀다. 그는 어떤 녀운반공도 자기 집에서 미리 춤을 추지 않고서는 아이를 낳은 례가 없다고 뽐내였다. 봉 쥬와이어는 방이 둘 있었다. 첫 방은 선술 마시는 곳으로 거기에는 식탁과 매대가 있었고 그에 잇닿아 이른바 무도장이 있었는데 그사이에는 넓은 아치가 하나 있을뿐이였다. 무도장은 넓은 방이였는데 바닥은 가운데만이 널로 되고 량옆에는 판석들을 깔았다. 방안장식으로는 천장밑에 꽃테프를 십자로 두줄 늘여놓았고 사면 벽에는 금속공 수호신 성 엘로와, 제화공 수호신 성 끄레뺑, 탄부 수호신 성 바르브 등 성자들의 이름이 씌여진 금물 올린 조그마한 널판자들이 걸려있었다. 천장이 너무 낮아서 형태와 크기가 교회당 장단같은 가설무대우에 앉은 세명의 악사들의 머리가 거기에 닿을 지경이였다. 저녁마다 춤을 출 때는 구석에 걸어놓은 네개의 석유등잔이 방을 비치였다.

이날은 5시에 춤이 시작되였는데 창문너머로 보이는 바깥은 아직 훤했다. 7시에는 두 방안에 손님들이 꽉 들어찼다. 밖에서는 세찬 바람이 불며 시꺼먼 먼지구름이 일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지짐판에 들씌워졌다. 봉 쥬와이어에 앉으려고 들어간 마여와 에띠엔느, 삐에롱은 까뜨리느와 춤을 추고있는 솨발을 보았다. 필로멘느는 홀로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있었다. 레바끄도 자샤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홀에는 긴의자가 없었다. 그래서 까뜨리느는 매번 춤을 추고나서는 아버지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다가가서 숨을 돌리군 했다. 사람들이 필로멘느를 춤판에 불렀으나 그는 그냥 서있기만 했다. 땅거미가 질어갔다. 세 악사는 신이 나서 연주를 했다. 홀은 혼잡했다. 허벅다리며 젖가슴이며 얽혀진 팔들이 움직이고있었다. 드디여 사람들이 환성을 올리는 가운데 네개의 등잔에 불이 켜지고 모든것이 밝게 드러났다. 시뻘건 얼굴이며 마구 헝클어지고 살에 착 달라붙는 머리칼이며 코를 찌르는 땀냄새를 퍼뜨리며 펄럭거리는 치마자락들이 홀에 드러나보였다. 마여는 에띠엔느에게 기름덩이처럼 살이 지고 몸집이 둥글둥글한 무께뜨를 가리켜보였다. 무께뜨는 키가 성큼하고 빼빼마른 로동자와 짝을 무어 미친듯이 돌아가고있었다. 아마도 다른 벗을 찾아 자신을 위안하는 모양이였다. 8시에 드디여 마여의 안해가 에쓰뗄을 안고 나타났다. 어머니의 뒤로 알지르, 앙리, 레노르가 따라왔다. 마여의 안해는 남편이 틀림없이 무도장에 있을줄 짐작하고

곧바로 여기로 왔던것이다. 모두들 커피와 맥주를 배가 부르도록 마신터여서 저녁은 좀 늦게 할수 있었다. 다른 녀인네들도 왔다. 마여의 안해의 뒤를 따라 필로멘느의 아이들인 아쉴르와 데지레의 손을 잡은 부뜰루와 레바끄의 안해가 들어왔다.

그래서 모두들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두 녀인은 아주 사이가 좋은것 같았다. 그들은 자주 말을 건네며 이야기를 했다. 오는 도중에 그들사이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마여의 안해는 자샤리의 급료를 잃는것이 무엇보다 괴로운 일이였지만 그 급료가 이제는 법적으로 그의것이 아니라는 상대방의 론증을 인정하고 자샤리와 필로멘느의 결혼에 동의했다. 마여의 안해는 마음이 불안했으나 유쾌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는 돈지갑이 자꾸 말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가사의 수지를 맞출것인가를 스스로 묻고있었다.

《이봐요, 여기 앉아요.》 하고 마여의 안해는 자기 남편이 에띠엔느며 삐에롱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있는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집주인은 여기 없나요?》 하고 레바끄의 안해가 물었다.

동무들은 그에게 레바끄가 곧 돌아온다고 말했다. 부뜰루와 아이들 그리고 모든 사나이들이 두 식탁을 한데 합쳐놓고 비좁게 앉아 조끼들을 들었다. 맥주를 더 청했다. 필로멘느도 어머니와 두 아이를 보고 그리로 다가갔다. 필로멘느는 사람들이 권하는 의자에 앉았는데 자기의 결혼문제가 마지막으로 결정됐다는것을 알고 매우 만족해하는듯했다. 사람들이 자샤리를 찾기 시작하자 필로멘느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그를 기다리는중이예요. 그는 저기 있어요.》

마여는 안해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런즉 안해는 동의를 했단 말인가? 마여는 얼굴을 찌프리고 잠자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도 지금 래일에 대한 근심에 싸여있었는데 그는 부모를 빈궁속에 몰아넣으면서 장가들며 시집가는 자식들의 배은망덕이 못마땅했다.

이러는 사이에도 춤은 계속되였다. 카드릴춤이 끝나가고있었다. 온 장내가 진흙빛먼지속에 잠겼다. 벽체가 흔들리고 코르네트가 기관차의 기적소리같은 째지는듯 한 날카로운 소리를 내였다. 춤추는 사람들이 멈춰서자 그들한테서는 말에서처럼 김이 물물 올랐다.

《생각나요.》 하고 레바끄의 안해가 마여의 안해의 귀에 대고 말했다. 《당신은 까뜨리느가 못된짓을 하면 죽이겠다고 말했지요?》

솨발이 까뜨리느를 가족들의 식탁으로 데리고왔다. 둘은 아버지의 의자뒤에 서서 조끼의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거야 한번 말해본거구요. …》 마여의 안해는 공손한 어조로 대꾸를 했다. 《허지만 그 애한텐 아이가 생길수 없으니 안심돼요. 난 그걸 확신해요. … 그 애가 아이를 낳으면 시집을 보내야겠지요! 그러면 우린 뭘 먹어요.》

코르네트는 뽈까를 연주했다. 전과 같이 또다시 떠들썩해지자 마여는 하숙인을 한사람 받아들이면 어떠냐고 안해와 의견을 교환했다. 에띠엔느가 마침 하숙할 집을 구하고있는데 그 사람이라도 받아들이면 어떠냐는것이였다. 방은 낼수 있다. 기실 자샤리는 멀지 않아 집에서 나갈것이 아닌가!

그들이 잃은 돈의 일부가 다른 방법으로 보충될것이다. 안해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렇다, 좋은 생각이다,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

마여의 안해에게는 자기들이 다시한번 아사에서 구원되는것처럼 느껴졌다. 마여의 안해는 곧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는 여럿앞으로 또 맥주를 청했다.

한편 에띠엔느는 삐에롱을 설득하려고 애쓰면서 호상부조금고의 창설에 대한 자기 계획을 그에게 세세히 설명하고있었다. 에띠엔느는 이미 삐에롱을 가입하도록 완전히 설득하다싶이 했던것인데 그만 금고의 진정한 사명을 드러내놓고말았다.

《혹시 파업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때에 이 금고가 어떤 리익을 가져오겠는지 아시오? 그때엔 회사같은건 무섭지 않단 말이요. 금고는 첫시기에 투쟁을 견지하도록 돈을 주거던. … 어떻소, 동의하오?》

삐에롱이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여 두눈을 내리깔았다.

《생각해보겠소.》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좋은 일이구 훌륭한 금고요.》

이때 마여가 에띠엔느더러 그를 자기 집에 하숙을 시키겠노라고 솔직하고도 대담하게 제의했다. 젊은이는 즉석에서 동의했다. 그는 마을에 살면서 동무들과 더 가깝게 어울려보기를 무척 희망했던것이다. 모든것이 단마디로 결정되였다. 마여의 안해는 이사하는것은 자샤리가 결혼할 때까지 얼마동안 기다리라고 말했다.

이때 드디여 자샤리가 무께며 레바끄와 함께 돌아왔다. 그들이 돌

아오자 불깡에서 묻혀온 향나무술냄새와 불결한 매춘부들이 치는 독한 향수냄새가 풍겼다. 거나한 세 사나이는 자기들의 정사에 무척 만족하여 서로 팔굽질하며 눈웃음을 짓고있었다.

자샤리는 자기의 결혼이 드디여 결정되였다는것을 알자 너무나 유쾌해서 키득키득 웃기까지 했다. 필로멘느는 자기가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그가 웃는것을 보니 유쾌하다고 태연히 말했다. 빈 의자들이 없어서 부뜰루는 자리를 좁혀 자기 의자의 절반을 레바끄에게 양보하였다. 레바끄는 자기 가족이 한데 모인것을 보고 감동하여 모두를 위해서 다시한번 맥주를 청했다.

《이렇게 즐거운 기회는 흔치 못하단 말야, 제기랄!》 하고 레바끄는 큰소리로 말했다. 모두들 10시까지 술집에 앉아있었다. 남편들을 찾아서 집에 데리고가려고 녀인네들이 자주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뒤로는 의례 아이들이 따라왔다. 어머니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귀밀주머니같이 척 늘어진 흰 젖가슴을 그냥 드러내놓고있었다. 토실토실한 어린애들의 얼굴에는 젖이 묻어있었다. 걷는 아이들은 맥주를 마시고 식탁밑을 네발로 기여다니면서 꺼리낌없이 오줌을 누었다. 과부데지르의 나무통에서 받아낸 맥주바다는 배를 부풀어오르게 하고 코, 눈 할것없이 어디서나 흘러내렸다. 자리가 좁아서 모두 어깨나 무릎으로 옆사람에게 의지하고있었다. 이런 복새통에도 모두 유쾌했다. 끊임없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으며 입들이 귀밑까지 벌어졌다. 난로안이기라도 한듯이 더웠고 땀이 시내물처럼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단추들을 벗겨놓았다. 뽀얀 담배연기속에서 그들의 맨몸은 금물이라도 올린듯이 보였다. 식탁에서 일어서기만 하면 실례로 인정되였다. 이따금 어떤 처녀가 뜨락의 우물가로 나가서 치마를 들었다가 이윽해서 다시 홀로 돌아오군 했다. 청년들은 서로 상대방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그만치 모두 땀을 흘렸다.) 알락달락한 꽃테프밑에서 계속 춤을 추고있었다. 방종한 사내애들은 이 기회를 리용해서 녀운반공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군 했다. 어떤 처녀가 자기 짝을 뒤로 끌면서 넘어지면 코르네트는 귀청을 째는 소리를 내여 그것을 환영했고 춤추는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밟고 나갔다.

누구인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삐에롱에게 그의 딸 리디가 문앞의 보도에서 자고있더라고 알려주었다. 리디는 훔쳐온 향나무술병에서

자기 몫을 마시고 취해 쓰러져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였다. 쟝렝과 베베르는 꿋꿋이 서서 저들의 렵기적행동에 무척 만족하여 약간 거리를 두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이 떠난것이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신호로 되였다. 사람들이 봉 쥬와이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마여와 레바끄는 마을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때 본느모르할아버지와 무끄로인도 몽쑤에서 떠났었다. 그들은 묵묵히 회상에 잠겨서 꿈속에서처럼 어정어정 걸어갔다. 모두들 함께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장거리를 걸었다. 음식이 담긴 지짐판이 식었고 술집에서는 남은 맥주가 내물처럼 길에 흘러나왔다. 대기는 소낙비가 내릴듯 여전히 무더웠으며 불빛밝은 집들은 뒤에 남았고 어두운 들판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곡식이 익어가는 전야에서는 더운 숨기가 풍겨왔다. 모두들 흩어져서 마을까지 왔다. 레바끄도 마여도 저녁을 먹고싶지 않았다. 그들은 비몽사몽간에 점심에 남은 소고기볶음을 마저 다 먹었다.

에띠엔느는 맥주를 또 마시려고 쏴발을 라스너르의 집으로 끌고갔다.

《좋아!》에띠엔느가 호상부조금고의 조직과 그 사명을 설명하자 쏴발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지, 자넨 똑똑한 청년일세.》

에띠엔느는 취기가 돌아 두눈이 게슴츠레했다. 그는 웨쳤다.

《그래, 우리 함께 행동하자구.… 보다싶이 옳은 일을 위해 나는 모든것을—술판도 처녀도 희생할 준비가 되여있네. 부르죠아를 소탕해버린다는 한가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후련해지네.》

3

8월 중순에 에띠엔느는 마여의 집으로 옮겨왔다. 자샤리는 이미 결혼을 하고 마을에 자기자신과 필로멘느와 두 아이를 위한 빈집을 얻었다. 초기에 에띠엔느는 까뜨리느가 있는데서 어쩐지 서먹서먹해했다.

젊은이는 까뜨리느의 침대 맞은편에 있는 자샤리의 침대를 쟝렝과 함께 차지하게 되여 항시 처녀와 가깝게 있게 되였다. 그는 잠자리에 들거나 일어날 때면 까뜨리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입어야 했으며 또

한 처녀가 옷을 벗고 입는것도 보게 되였다. 에띠엔느는 까뜨리느를 볼 때마다 흥분을 느꼈다. 그는 외면을 하는척 하면서도 모든것을 보고있었다. 그러나 까뜨리느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는 몹시 서두르며 불과 몇초 안되는 동안에 옷을 벗고 뱀처럼 재빨리 잠자리에 미끄러져들어가서 알지르와 나란히 누우면서 등을 돌려댔다.

그리고 까뜨리느는 에띠엔느를 원망할 일이란 없었다. 이따금 에띠엔느는 뜻하지 않은 감정이 솟구쳐 처녀가 누울 때를 기다리군 했다. 그러나 그는 여하한 롱담이나 무례한짓도 하지 않았다. 부모들이 옆에 있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에띠엔느는 우정과 은근한 모욕이 뒤섞인 야릇한 감정으로 처녀를 대했다. 그렇게 좁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세면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일을 하는 사이에 그들은 서로 아무것도, 지어는 가장 내막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비밀이 없게 되였다.

첫달이 끝나갈무렵에는 두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전혀 개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것 같았다.

그들은 이것을 아주 천연스러운 일로 생각했었다. 그것은 그들이 무슨 량심에 꺼리끼는 일도 하지 않은때문이였고 또한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통털어 방 하나를 쓰게 된것도 그들의 잘못이 아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해서 안될 일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지만 이따금 어째서인지 점직해지는것이였다.

초불이 꺼지면 그들은 지쳤으니 잠을 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자기들이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고있거니 하는 지릅에 싸여있군 했다. 이런 이튿날에는 에띠엔느와 까뜨리느는 마치 싸우고난 사람들처럼 어떻게 할바를 몰라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오직 동무로서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을 그런 저녁을 바랐다.

에띠엔느는 잠이 몹시 험한 쟝렝만을 좀 언짢게 생각했다. 알지르는 들릴락말락한 숨소리를 내였고 레노르와 앙리는 잠들 때 서로 꼭 그러안고 자기 시작한것이 아침까지 그러고 잤다. 집안의 어둠속에서는 씩푹거리는 야장간 풀무소리인양 마여부부의 코고는 소리만이 고르롭게 울렸다.

대체로 에띠엔느는 여기를 라스너르의 집보다 좋게 여겼다. 잠자리

도 나쁘지 않았고 홑이불도 한달에 한번은 갈아주었으며 음식도 더 좋았다. 고기는 이따금 줄뿐이였으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먹는것이고 또 한달에 45프랑을 내면서 매일 점심에 토끼고기를 볶으라고 요구할수도 없는 일이였다. 45프랑이란 돈이 가정에서는 여간 큰것이 아니였다. 마여의 집에서는 드디여 수지를 맞출수 있게 되였고 빚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다. 마여의 가족은 하숙인을 고맙게 생각하여 그의 내의를 제때제때 빨아주고 기워도 주고 단추도 달아주었으며 모든 소지품들을 알뜰하게 건사해주었다. 그리하여 드디여 에띠엔느는 녀성들이 보살펴주는 정갈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였다.

이 시기에 에띠엔느는 자기의 머리속에 여러가지로 아리숭하게만 떠돌던 생각들을 비로소 의식하게 되였다. 여직껏 그가 품고있던 의분은 동무들의 불만과 함께 본능적으로 일어난것이였다. 모호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 파묻혀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가?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억눌려 고생하면서도 어느때건 그들의 위치를 차지할수 있다는 희망조차 가지지 못하는가? 그러나 그는 첫걸음부터 자기가 무식하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때로부터 그는 남모르는 수치감과 숨은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로서는 자기를 그처럼 흥분시키는 문제인 사람들의 평등과 지상의 행복의 분할을 요구하는 정의에 대하여 대담하게 말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에띠엔느는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괴로움을 받는 무식자로서의 온 정열을 기울여 아무런 체계도 없이 학습을 시작했다. 지금 에띠엔느는 자기보다 교양이 있고 사회주의운동문제에 경험이 있는 쁠류샤르와 정상적인 서신거래를 가지고있었다.

젊은이는 서적을 주문하여 리해하기가 까다로운대로 그것을 읽었다. 책은 그를 몹시 흥분시켰다.

《탄부위생학》이라는 어떤 의학서적이 그를 류달리 놀라게 했다. 벨지끄의 의사인 필자는 탄갱속에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모든 질병을 이 저서에 인용했었다. 다음으로 에띠엔느를 놀라게 한것은 무미건조한 술어때문에 리해할수 없는 정치경제학에 관한 많은 론설들과 그로 하여금 갈피를 못 잡게 하는 무정부주의적인 책자들 그리고 있을수 있는 론쟁의 경우에 반박할수 없는 론거를 가지기 위해 그가 보관해두었던 낡은 신문들이였다. 쑤바린도 자기대로 그에게 책들을 나

누어주었다. 에띠엔느는 협동조합에 관한 책을 읽고는 한달동안이나 화폐가 페지되고 모든 사회제도가 로동에 의거하게 될 전세계적인 교환협회를 꿈꾸었다.

에띠엔느는 자기가 무식하다는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되였다. 사색하는 법을 배운 오늘 그는 긍지감이 생겼다.

첫시기에 에띠엔느는 새 견해를 금시 섭취한 사람답게 의기양양했다. 그의 심장은 억압자들에 대한 고상한 분노로 가득찼었다. 그는 앞으로 피압박자들이 완전히 승리할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있었다. 물론 무질서한 독서는 그에게서 그 어떤 일정한 세계관을 형성시킬수 없었다. 에띠엔느의 머리에는 라스너르의 실천적요구와 쑤바린이 설교하는 폭력과 파괴의 사상이 서로 엉켜있었다. 그들이 매일 술집 아방따즈에 모여앉아 회사를 비난하다가 나올 때면 에띠엔느는 꿈속을 걷는것 같았다. 자기의 눈앞에서 파괴와 류혈이 없이 인민들이 근본적으로 갱생되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질것인가는 명확히 알수 없었다. 모든 일이 아주 잘되리라고 믿고싶었으나 마음속으로 사회개조의 계획을 얼추 그려보기만 하면 매번 당황하는것이였다. 그는 지어 조리없는 견해까지 표명하였으며 때로는 사회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치를 아주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어데선가 그런 문구를 읽고 무관심한 탄부들과의 담화에서 그 말을 되풀이하기를 즐겨했다.

지금 마여의 집에서 사람들이 여느때보다 반시간이나 늦게 잠자리에 눕는다. 에띠엔느는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군 했다. 점점 발전함에 따라 그는 년령이나 성별을 무시한 마을사람들의 무질서한 동거생활이 모욕적인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들판 한가운데의 이런 우리속에 마구 몰아넣어 옆사람에게 엉뎅이를 보이지 않고서는 내의도 갈아입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대체 그들이 집짐승이란 말인가! 그리고 처녀, 총각들이 배좁은 속에서 걷잡을수없이 타락해가는데 그것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 일인가 !

《참말이야!》 하고 마여는 대답했다. 《돈만 있으면 낫게 살수 있을텐데… 그러나 물론 서로 등쳐먹구사는 이 세상을 달갑게 여길 사람은 없는거구.》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사나이들은 술을 마시고 처녀들은 임신을

한단 말이야.》

온 가족이 이야기판에 휩쓸려 제가끔 한마디씩 하였다. 석유등잔불은 그렇지 않아도 파볶음냄새가 스며있는 공기를 더 흐리터분하게 만들었다. 그렇다, 생활은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 사람들은 예전같으면 류형수들이나 고역으로 수행했을 그런 일을 마소와 같이 수걱수걱 하고있는것이다. 생가죽을 벗기우다싶이 일하면서도 점심 한때 고기도 먹지 못한다. 물론 배를 곯아 죽을 지경은 아니지만 겨우 굶어죽을 지경을 면할 정도이다. 사람들은 이르는 곳마다에 빚을 지고있으며 당당한 자기의 빵을 먹으면서도 마치 훔쳐다가 먹는것처럼 박해를 받는다. 일요일이 되면 피곤하여 일어나지도 못한다. 유일한 기쁨은 만취하도록 실컷 술을 마시든가 안해와 더불어 자식을 하나 더 보는 일이다. 그리고 배는 맥주때문에 부풀어오르고 아이들은 자라면 부모들을 홀시한다. 아니다, 아니다, 이 모든것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이때 마여의 안해가 이야기에 참여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게 없으니 그게 야단이예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언제든 한번은 호강할 날이 오리라고 무슨 미련을 가지지만 아무리 두고봐야 그저 가난뿐이구 통 거기서 헤여나질 못하니 … 누굴 원망하고싶진 않지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걸 보면 어떤 땐 분해서 이가 막 갈리군 해요.》

침묵이 깃들었다. 모두가 저들이 지금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괴로운 의식으로 한숨을 짓고있었다.

본느모르할아버지만이 혹시 방에 함께 있을 때면 놀란듯이 여럿을 쳐다볼뿐이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그의 당대에는 그와 같은 론쟁이 없었던것이다. 사람들은 석탄속에 태여나서 탄층을 뚫었을뿐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탄부들에게 용감성을 주는 새로운 사조가 흐르고있는것이다.

《무엇이든 꿈만 하게 생각해야 해.》 하고 본느모르는 중얼거렸다. 《좋은 맥주는 어디까지나 좋은 맥주야. 나으리들— 물론 그들은 불한당이지. 그러나 나으리들이란 언제나 있기 마련이 아닌가! 공연한 일로 머리쓸건 없어.》

그 말에 에띠엔느는 참을수 없었다. 도대체 그건 무슨 얼토당토않

은 말인가!

로동자들은 론의도 못한단 말인가? 아니다, 이 모든것은 멀잖아 청산될것이다. 로동자도 이젠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예전 탄부는 탄갱에서 석탄을 캐는 기계나 마소처럼 살았고 언제나 땅밑에 있어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는 소경이나 귀머거리로 되여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부자들은 로동자들을 제 마음대로 팔고사고 했고 그에게서 가죽을 벗겨낼수 있었던것인데 로동자자신은 자기를 그렇게 하는줄은 알지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탄부는 저밑에서 각성하고있으며 땅속에서 진짜낟알처럼 새싹을 키우고있다. 때가 되면 그것이 전야에 돋아나는것을 보게 될것이다! 그렇다, 정의를 복구할 사람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고있다. 과연 혁명이 있은 그때로부터 모든 공민은 평등하지 않단 말인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선거권을 가진다면서 어찌하여 로동자들은 자기에게 보수를 주는 주인의 노예로 남아있어야 한단 말인가? 자기의 기계들을 가진 대회사들이 이 모든것을 짓누르고있는 오늘에 와서는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동업조합에 뭉쳐 자신들을 옹호하는 방법을 알고있던 옛날과 같은 그런 담보조차도 못 가지는것이다. 백번 그래 싼 일이지만 바로 이런 사정과 또 다른 많은 원인으로 하여 어느날 이 모든것은 붕괴되고말것이다. 로동자들이 문명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될것이다. 그들의 마을을 들어보더라도 할아버지들은 제 이름자도 적지 못했지만 아버지들은 벌써 자신의 손으로 서명을 했으며 아이들은 학자들못지 않게 글을 읽고 쓰게 되였다. 모두가 점점 자라나고있는것이다. 대풍을 약속하는 전야의 오곡과도 같이 사람들의 대부대가 해볕에서 바야흐로 자라나고있다.

그들이 평생 그 자리에 얽매여있지 않게 될 때, 나아가서는 이웃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들은 자기가 강자로 되기 위해서 주먹을 휘둘러야 한다.

마여는 이런 연설에 감동은 하면서도 역시 의심을 품는것이였다.

《조금만 움직여도 당장 해고당할게요.》 하고 마여는 말했다. 《령감말이 옳아. 탄부들은 두고두고 고통을 받을것이구 그러면서도 실컷 먹지도 못할걸세.》

마여의 안해는 그동안 잠자코 있더니 비로소 잠에서 깨여난듯 이렇

게 말했다.

《신부들의 말대루 가난뱅이는 저승에 가서 부자가 된대두 모르겠는데!》

요란한 웃음소리가 그의 말을 끊어버렸다. 아이들도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 하긴 그들이 탄갱속의 유령을 은근히 두려워하는것도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천당을 조롱했다.

《에이, 그 신부놈들이라구야!》 하고 마여가 웨쳤다. 《그들자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곳 천당에서 좋은 자리를 받기 위해서라두 적게 처먹고 많이 일했을거요. … 아니요, 죽으면 그만이요.》

안해가 무겁게 한숨을 지었다.

《아유 맙시사!》그리고 그는 두손을 무릎우에 내려놓고 우울해서 덧붙였다.

《정말 그 말이 옳아요.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말겠어요.》

모두들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본느모르할아버지는 자기의 손수건에 가래를 뱉았다. 마여는 불이 꺼진 대통을 물고있었다. 알지르는 식탁에 기대여 잠든 레노르와 앙리의 사이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까뜨리느는 손으로 턱을 받치고 앉아서 그들앞에 미래의 희한한 사회적극락의 세계를 의기양양해서 이야기하는 에띠엔느에게서 크고 빛나는 두눈을 떼지 않고있었다. 마을사람들은 죄다 잠들어버렸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니면 술주정군의 상소리만이 들려올뿐이였다. 방에서 시간을 알리는 시계소리가 들려왔다. 방은 무더웠으나 모래를 깐 판석에서는 습기를 머금은 랭기가 올라왔다.

《얼마나 엉터리없는 말이요!》 하고 젊은이가 말을 이었다. 《과연 행복을 위해선 당신들에게 꼭 하느님과 극락이 있어야 한단 말이요? 과연 당신들은 이 땅우에 자기의 행복을 창조할수 없단 말이요?》

에띠엔느는 한참동안 열변을 토하였다. 그의 말은 끝이 없었다. 이 가난뱅이들의 암흑의 생활에는 빛나는 희망이 열려졌다. 영원한 빈궁과 고역 그리고 털을 잘리우고 죽어버리는 집짐승의 운명—이 모든 불행이 지지는듯 한 해별에 타버린듯 어데론가 사라지고 정의가 매혹적인 빛을 뿌리며 하늘에서 내려온것이다. 하느님이 없은즉 정의가 사

람들의 행복을 굳건히 해줄것이고 이 땅우에는 평등과 우정이 지배하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공민이 자기의 로동으로 생활하며 만사람이 다같이 기쁨을 누리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꿈속에서 솟아나듯이 눈깜짝할 사이에 새 사회가 눈앞에 일떠섰다. 낡고 부패한 세계는 산산이 부서지고 범죄를 모르는 청소한 인류가 《각자는 공적에 따라, 매개 공적은 그의 로동에 의해 평가된다.》는 신조를 지닌 유일한 로동인민으로 합류된다. 이런 공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였고 그것은 가능성의 한계를 멀리 벗어날수록 더욱 아름답고 더욱 매혹적인것으로 되여갔다.

마여의 안해는 처음에 몸서리를 치며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너무도 분에 넘치는 말이다. 그런 말을 곧이 들어서는 안된다. 그러다간 후에 생활이 너무나 비참하게 여겨질것이고 행복을 바라는 한가지 마음에서 모든것을 내여맡길수 있다. 마여의 안해는 자기 남편이 두눈에 영채를 띠며 그 말에 흥분하고 탄복하는것을 보고 불안을 느끼며 큰소리로 에띠엔느의 말을 꺾어버렸다.

《여보, 저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란것을 당신은 몰라요. … 아무러면 부르죠아가 우리처럼 일하겠다고 할것 같아요?》

그러나 그도 조금씩 에띠엔느의 말의 매력에 끌리지 않을수 없었다. 마지막에 가서는 마여의 안해도 벌써 빙긋이 웃고있었다. 그의 공상은 나래쳐서 그자신이 희망의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섰던것이다. 한시간이라도 비참한 현실을 잊어버린다는것은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그들과 같이 돼지처럼 코로 땅을 뒤져가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것을 공상하면서 잠시나마 허구의 위안을 받는것이 필요한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의에 대한 사상이 마여의 안해의 마음을 끌었다. 마여의 안해는 그 점에 있어서 젊은이와 완전히 동감이였다.

《그래요, 옳은 말이예요!》 하고 마여의 안해는 웨쳤다.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면 난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 사실 말이지 우리도 사람답게 살 때가 됐어요.》

그러자 마여가 격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제기랄, 난 부자가 아니지만 그런걸 다 볼 때까지 죽지 않게 해

준다면 100쑤를 군말없이 내놓겠네! 그땐 굉장할걸. 그런 일이 인차 일어날가? 그리구 어떻게 시작되나?》

에띠엔느는 다시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낡은 사회는 이미 혼솔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 사회가 2～8개월이상은 더 유지되지 못한다고 확언을 했다. 그는 실행방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말하지 못했다. 책에서 읽은것이 그의 머리속에 마구 뒤엉켜있었지만 무식한 사람들과의 담화에서는 자신이 주저하는 그런 문제도 이야기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체계들을 차례차례 설명하고 그에 가미해서 멀잖은 장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 그 어떤 전세계적통합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통합은 주인들과 부르죠아들중에서 약간의 완고한 자들을 고려에 두지 않는다면 (그들은 힘으로써 깨닫게 해야 할것이다.) 계급적모순에 종지부를 찍을것이다. 마여의 가족들은 첫 그리스도교시대의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기대하던것처럼 옛세계의 폐허우에 새롭고 완전한 제도가 곧 세워지리라고 믿었다. 어린 알지르도 자기의 의견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충했다. 그는 행복이란 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놀고먹는 아주 따뜻한 집으로 알고있었다. 까뜨리느는 까딱하지 않고 앉아서 손으로 턱을 받치고 에띠엔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있었다. 에띠엔느가 입을 다물자 까뜨리느는 얼굴이 창백해서 춥기라도 한듯 가볍게 몸을 떨었다.

마여의 안해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너무 늦었구나. 벌써 아홉시가 지났어. 이러다간 래일 일어나지 못하겠어.》

그리하여 모두들 거의 절망에 싸여 무거운 마음으로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방금전까지 부자였는데 불시에 또다시 거지로 된것 같았다. 본느모르할아버지는 탄갱으로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감자국이 다 걸어지는것은 아니라고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들은 유해로운 곰팡이냄새를 풍기는 물기있는 벽을 바라보면서 한줄로 서서 2층으로 올라갔다. 2층방에서 모두가 깊은 잠에 잠겼을 때 에띠엔느는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까뜨리느가 마지막으로 누웠다. 처녀는 초불을 끄고는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하면서 오래동안 잠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판에는 이따금 이웃사람들도 모여들었다. 레바끄는 재산분배에 관한 사상에 감동되군 했다. 삐에롱은 회사에 대한 비난

이 시작되면 분별있게 잠자러 돌아가군 하였다. 이따금 자샤리도 들리군 했지만 워낙 정치는 그에게 진저리가 났었다. 그래서 그는 아방따즈에 가서 맥주를 한조끼 마시군 했다. 솨발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는 남보다 앞서려고 애를 썼고 피의 제재를 요구했다. 거의 매일 저녁 그는 마여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가 꾸준히 찾아오는데서는 자기가 까뜨리느를 빼앗기지 않을가 하는 위구와 숨은 질투심이 엿보였다. 요즘 솨발에게는 자기가 이미 저으기 싫증을 느끼기 시작한 그 처녀가 더 귀중하게 여겨졌다. 그것은 다른 남자가 그 처녀의 옆에서 자게 된 때부터였는데 그가 임의의 시각에 처녀를 자기의것으로 만들수 있기때문이였다.

에띠엔느의 영향은 날로 커갔다. 그는 점차 온 마을에 투쟁의 정신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비밀선전의 성과는 에띠엔느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으며 그 존경은 나날이 커간다는 사정으로 하여 더 확고한것으로 되고있었다. 신중한 주부인 마여의 안해는 대체로 사람들을 의심쩍게 대했으나 하숙비를 정확하게 지불하는 이 젊은이만은 공손하게 대했다. 그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도박도 하지 않았으며 항상 집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마여의 안해는 주위사람들에게 그가 교양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자자하게 돌려놓았다. 그리하여 이웃 부인들은 그것을 리용해서 편지를 써달라고 자주 그에게 부탁하군 했다. 에띠엔느는 무슨 대서인과도 같았는데 그가 하는 일이란 편지를 고쳐쓰는것이였다. 사람들은 신중성을 요하는 가정문제에 관해서도 그와 의논을 했다. 9월에 드디여 에띠엔느는 그처럼 의견이 구구하던 호상부조금고를 창설할수 있었다. 아직 그닥 토대가 견고하지 못한만큼 지금은 마을의 주민들만이 거기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여태 간섭하지 않은 회사가 앞으로도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탄갱의 탄부들을 망라시키리라 타산하고있었다. 사람들은 에띠엔느를 동맹의 비서로 선출하고 사무를 맡아보는 대가로 얼마간의 보수까지 지불하였다. 에띠엔느는 자기가 무슨 부자라도 된것 같았다. 결혼한 탄부는 생활의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지만 아무 근심없는 평범한 미혼자는 다문 얼마라도 저금할수 있는것이다.

이동안에 에띠엔느에게서는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 빈궁한 시기에는 수그러들었던 멋진 옷차림과 안락한 생활에 대한 본능적인 지향이

머리들고 일어났다. 그는 라사직양복을 사고 얇은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주문했다. 그리하여 그는 곧 자기 주위에 온 마을을 거느린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게 되였다.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충족되였다. 그는 자기의 인기에서 오는 첫 기쁨에 도취되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직 평범한 운반공이였던 젊은 그가 지금은 탄부들의 선두에 서서 지시를 할수 있게 된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부심에 충만되여 자기가 큰 역할을 하게 될 앞날의 혁명을 더 열렬히 꿈꾸게 되였다. 지어는 그의 얼굴마저도 달라졌다.

그는 전에없이 점잖아지고 자기자신의 연설에 탄복하였다. 새로 생겨난 야심은 그를 투쟁의 사상에로 이끌어갔다.

그러는 사이에 가을이 닥쳐왔다. 10월의 추위가 마을의 정원들에 가랑잎을 뿌려놓았다. 사나이들은 더는 녀운반공들과 함께 시들어든 라이락꽃나무뒤에서 놀지 않았다. 밭이랑들에는 늦은 남새들—서리가 앉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양배추와 마늘과 상추들만이 남았다. 다시금 폭우가 지붕의 붉은 기와를 때리고 비물이 홈통을 따라 나무통에 흘러들었다. 집들에서는 난로에 석탄을 가득 피웠는데 그것은 꽉 닫은 방안의 공기를 흐리터분하게 만들었다. 극심한 빈궁의 한때가 왔다.

추위가 심한 10월 어느날 밤 이야기에 흥분된 에띠엔느는 한참동안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는 까뜨리느가 이불밑으로 얼른 들어가서 초불을 끄는것을 보았다. 까뜨리느도 흥분한것 같았다. 처녀는 이따금 심한 수치감이 북받쳐 서둘러 옷을 벗다가 뜻하지 않게 몸을 더 드러내보이는것이였다. 까뜨리느는 어둠속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었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처녀가 자지 않고있다는것을 느꼈으며 자기가 그를 생각하고있는것처럼 그쪽에서도 자기를 생각하고있으리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말없는 접촉이 그들을 그렇게 흥분시킨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 시간은 흘렀으나 에띠엔느도 까뜨리느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4

《여보.》 하고 마여의 안해가 남편에게 말을 건넸다. 《로임타러 몽쑤에 가거든 커피 한폰드하구 사탕 한키로를 사와요.》

마여는 자기 구두를 수리소에 주고싶지 않아 자신이 꿰매고있었다.
《좋소!》 하고 그는 일손을 놀리면서 말했다.
《그리고 육고집에 들려요. … 송아지고기를 좀 사와요, 네? 우린 그걸 구경한지도 벌써 오랬어요.》
마여는 머리를 쳐들었다.
《당신은 내가 수백수천프랑이나 받는줄로 생각하는 모양이군. … 최근 두주일은 벌이가 그닥 많지 않았소! 회사가 제멋대로 쉬고있으니 말이요.》
부부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이것은 10월말 어느 토요일에 아침을 마치고나서 하는 말이였다. 회사는 자금난을 구실로 그날 또다시 모든 탄갱들에서 석탄채굴을 중지시켰다. 회사는 닥쳐오는 산업공황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상당한 예비가 있는 석탄을 더 캐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회사는 온갖 기회를 다 리용하여 1만명의 탄부들을 일없이 놀리고있었다.
《여보, 에띠엔느가 라스너르의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있어요.》 하고 안해가 말을 이었다. 《그를 데리고 가요. 일한 시간을 다 계산해주지 않더래도 그가 도와줄거예요.》
마여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할아버지문제도 그 나으리들과 의논해봐요. 의사는 회사측과 단짝이 되여있어요. … 아버님, 그렇지 않아요? 의사는 정말 잘못 봤어요. 아버님은 더 일할수 있지요?》
본느모르할아버지는 벌써 열흘째 의자에 앉아서 꼼짝 못하고있었다. 그자신이 말하고있듯이 그는 손발이 곱아들었던것이다. 마여가 다시 같은 말을 이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무렴, 난 일할테다. 사람이 다리를 앓는다고 페물이 되는건 아니지. 그건 죄다 거짓말이야. 회사는 180프랑의 년금을 주기 싫으니까 그런 나발을 부는거야.》
마여의 안해는 로인이 다시는 그 40쑤의 돈을 가져오지 못하리라는것을 생각하자 저도 모르게 절망적인 웨침소리가 불쑥 튀여나왔다.
《맙시사! 이렇게 나가다간 우린 오래 못 가서 죄다 죽어버릴거예요.》
《죽으면》 하고 마여가 말했다. 《배고픈줄 모르지.》

그는 자기의 구두에 몇개의 못을 더 박고 밖으로 나갔다. 뛔 쌍 까랑뜨마을은 4시이후에 임금을 받게 되여있었다. 그래서 로동자들은 길에서 오래동안 지체하면서 길게 늘어서서 천천히 걸어갔다. 안해들은 그들의 뒤를 바싹 붙어서서 따라가며 인차 집으로 돌아오라고 신신부탁들을 하고있었다. 많은 녀인네들이 남편더러 술집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라고 애타게 이르고있었다.

라스너르의 집에서는 새 소식이 에띠엔느를 기다리고있었다. 불안스러운 소문들이 떠돌고있었다.

회사가 동발문제에 대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더 이러쿵저러쿵 시끄럽게 말하고있다는것이였다. 회사가 로동자들에게서 벌금을 짜내고있어서 충돌은 불가피한것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에 나타난 알륵에 지나지 않았고 그뒤에는 남모르는 중요한 원인의 커다란 그물이 얽혀있었다.

에띠엔느가 들어가자 맥주조끼를 쥐고 앉아있던 한 친구가 방금전에 몽쑤에 들려왔다면서 출납원앞에 그 무슨 광고가 걸려있는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씌여있는지는 잘 알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윽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세번째로 또 한사람이 들어왔는데 모두 그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했다. 그러나 한가지 사실만은 뚜렷했으니 회사가 그 어떤 결정을 채택한 모양이였다.

《임자의견은 어때?》 하고 에띠엔느는 조그마한 식탁에 담배 한곽을 놓고 앉아있는 쑤바린의 옆에 앉으면서 물었다.

기계운전공은 천천히 담배를 말면서 말하였다.

《그만한것은 쉽사리 예견할수 있었을텐데. 그들은 자네들을 심히 괴롭히려는거야.》

모든 동무들중에서 조성된 사태를 판단할수 있으리만큼 발전한 사람은 쑤바린뿐이였다. 그는 여느때처럼 태연하게 사태가 어떠한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불시에 공황을 만난 회사는 부득불 지출을 축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당할 위험이 있는것이다. 그런데 허리띠를 조일 사람은 물론 다름아닌 로동자들인것이다. 회사는 로동임금을 인하시키려고 갖가지 꾸며댈것이다.

탄갱창고에는 이미 두달째 석탄이 그대로 쌓여있다. 거의 모든 공장들이 휴업한것이다. 그러나 회사자체는 탄갱이 무너질수 있기때

문에 석탄채굴을 중지할 결심을 하지 못하는것이다. 그래서 회사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어쩌면 파업까지도 생각할수 있는것이다. 그렇게 하면 탄부들은 수그러들고 보다 적은 임금에 동의하는것이다.

끝으로 회사는 새로운 호상부조금고를 불안스럽게 생각하고있는데 그것은 금고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위협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런데 파업은 이 금고를 말끔히 털어없애버릴것인즉 그것은 아직 금고에 돈이 적기때문인것이다.

라스너르는 에띠엔느의 옆에 앉았다. 두 사나이는 수심에 잠겨 쑤바린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술집에는 매대뒤에 라스너르의 안해가 있을뿐 다른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큰소리로 이야기할수 있었다.

《명철한데!》 하고 술집주인이 말했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가 말이요? 회사는 파업에 리해관계가 없소. 로동자들은 더욱 그렇지요. 협상하는게 상책이라니.》

이것은 사물에 대한 현명한 견해였다. 라스너르는 언제나 분별있는 요구를 지지했다. 그는 자기의 이전 하숙인이 그처럼 빨리 인기를 끈 이후로 점차적으로 진보의 가능성을 더 열심히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것을 일시에 성취하려는 사람은 보통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는것이였다. 속에 맥주가 가득찬 이 뚱뚱보는 원래가 선량한 사람이지만 자기 집이 텅 비여가고 보료의 로동자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들으려고 자기한테 드물게 찾아오는데는 은근히 부아가 났다. 그래서 그는 해고당한 탄부로서 품었던 오래전의 모욕을 잊어버리고 회사를 옹호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럼 당신은 파업을 반대해요?》라스너르의 안해가 매대뒤에서 이렇게 웨쳤다.

라스너르는 그렇다고 단호히 대답했다. 그러자 그의 안해는 남편을 꾸짖었다.

《정말 당신은 담력이 없어서! 이분들의 말을 좀 들어요.》

에띠엔느는 자기앞에 놓인 맥주조끼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 앉아있었다. 드디여 그는 고개를 쳐들었다.

《당신의 말이 옳은것 같소. 부득이한 경우엔 물론 파업으로 나가

야지요! 마침 쁠류샤르도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오는데 과연 옳게 썼거던. 그도 파업에는 반대요. 로동자는 그때문에 주인과 꼭같이 피해를 입을것이고 또한 결정적인것을 아무것도 쟁취 못한다는거요. 그러나 쁠류샤르는 파업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커다란 조직에 들어가게끔 설득시키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인정하고있지요… 그렇소, 이것이 그의 편지요.》

기실 인터나쇼날에 대한 몽쑤탄부들의 불신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있는 쁠류샤르는 그 어떤 알륵이 로동자들로 하여금 회사와의 투쟁에 떨쳐나서게 한다면 그들모두가 일제히 그 조직에 가입하리라고 기대하고있었다.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띠엔느는 한사람도 인입할수 없었다.

그런데 그것은 에띠엔느가 로동자들이 자진하여 들어온 호상부조금고를 바로추켜세우는데 자기의 모든 영향력을 소비한때문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금고는 아직 너무 빈약해서 쑤바린이 말하는것처럼 인차 고갈될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파업자들은 자기의 동지들인 각국의 로동자들로부터 방조를 받기 위해 어차피 로동자협회에 달려가게 될것이다.

《당신네 금고에는 얼마나 있소?》 하고 라스너르가 물었다.

《겨우 3천프랑이 있소.》 하고 에띠엔느는 대답했다.《헌데 회사에서 엊그제 날 부르더군. 그들은 로동자들이 저축기금을 창설하는것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아주 정중하게 말합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 기금을 통제하려고 한다는것을 눈치챘소. 이러나저러나 우리는 이 측면에서 싸우게 될거요.》

술집주인은 어이없는듯 휘파람을 불면서 한구석에서 다른 구석으로 거닐기 시작했다.

3천프랑! 그래 그만한 돈으로 오래 견디여낼수 있겠는가? 빵을 산다고 해도 일주일도 못 먹을것이다. 외국사람들 즉 영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 지금 파업을 조직한다는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하여 두사람사이에 처음으로 신랄한 말이 오갔다. 이전에는 론쟁을 하다가도 합의에 이르군 했었다. 그것은 둘이 다 자본을 증오하기때문이였다.

《그럼 임자의 의견은 어떤가?》 하고 에띠엔느는 쑤바린에게 말을 건넸다.

쑤바린은 여느때처럼 경멸적인 어조로 대꾸했다.

《파업? 어리석소!》

격분한 침묵가운데 쑤바린이 천천히 덧붙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것이 임자의 마음에 든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겠네. 그것이 한쪽사람들을 파산시키고 다른 한쪽사람들을 망치게 하지만 역시 그만큼 청산은 되지. …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나간다면 이 세계를 갱신하는데 천년은 실히 잡아야 할걸. 우선 첫시작으로 당신들모두가 고역을 치르는 도형장같은 곳을 먼저 폭파하게나!》

쑤바린은 가느다란 손을 들어 활짝 열린 문으로 건물들이 보이는 보료쪽을 가리켰다. 이때 뜻밖의 일이 쑤바린의 말을 중단시켰다. 살진 집토끼 뽈스까가 밖으로 나갔다가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졸망구니무리를 피해 깡충 뛰여 되돌아들어왔던것이다. 집토끼는 놀란김에 두귀를 착 붙이고 꼬리를 쳐든채 쑤바린의 발앞으로 뛰여들어 자기를 들어달라고 조르기라도 하듯이 두발로 그를 허비기 시작했다. 쑤바린은 집토끼를 제 무릎우에 올려놓고 두손으로 그러안았다. 보드랍고 따뜻한 털이 살에 닿자 그는 저도 모르게 어느새 끄떡끄떡 졸기 시작했다.

거의 이때를 같이하여 마여가 들어왔다. 그는 라스너르의 안해가 제 맥주를 팔면서도 마치 턱이라도 쓰는것처럼 상냥한 어조로 집요하게 맥주를 권했으나 전혀 마시려고 하지 않았다. 에띠엔느는 곧 일어섰다. 그리하여 두사람은 몽쑤로 떠났다.

탄부들이 로임을 받는 날이면 몽쑤는 장이 서는 일요일처럼 명절기분을 띠였다. 여기저기 여러 마을에서 탄부들이 무리지어 모여들었다. 출납계사무실이 좁아서 로동자들은 문밖에서 기다렸다.

무리로 돌포장도로에 머물러서서 길을 메우며 줄지어 서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뀌였다. 눅거리행상인들이 이 기회에 한몫보려고 장사달구지들을 끌고와서 자리를 잡고 질그릇과 고기까지 펼쳐놓았다. 특히 이런 날에는 다방들과 술집들이 제일 벌이가 좋았다. 그것은 탄부들이 로임을 받기 전에는 매대앞에서 꾹 참고 서있다가도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로임날을 축하해서 한잔 마시려고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였다. 그들이 술집 불깡에서 돈을 다 써버리지 않으면 그래도

다행이였다.

마여와 에띠엔느는 그 복새통으로 비비고 들어갈수록 로동자들속에서 은근한 불만이 조장되여감을 더욱더 뚜렷이 느꼈다. 그날 탄부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술집에서 다 까발리던 때처럼 그렇게 태평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주먹들을 꽉 틀어쥐고 입에서 입으로 독기에 찬 말들을 옮기고있었다.

《그래 그게 정말인가?》 마여는 다방 삐께뜨의 문앞에서 쇼발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끝내 그런 비루한짓을 했단 말인가?》

쇼발은 에띠엔느를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성이 나서 중얼중얼 무어라고 대꾸했다. 그들의 작업조가 새로운 구역의 석탄채굴을 맡은 때부터 쇼발은 다른 조에서 일을 하고있었다. 자신을 지도자로 자처하고있는 새로 온 동료에 대한 질투가 쇼발을 괴롭혔던것이다. 그의 말을 빌면 온 마을이 에띠엔느에게 발라맞추고있었다. 이러한 반목관계는 처녀를 둘러싼 암투로 해서 더 복잡해졌다. 쇼발은 까뜨리느와 함께 레끼아르나 버럭산뒤로 갈 때마다 그 처녀가 어머니의 하숙인과 함께 잔다고 가장 상스러운 말로 비난을 했다. 그런 다음에 쇼발은 자기의 애무로써 처녀를 성가시게 굴었다.

마여는 쇼발에게 다른 말을 또 물었다.

《보료사람들의 차례지?》

그러자 쇼발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에게 등을 돌려대고 돌아섰다. 에띠엔느와 마여는 건물안으로 들어서기로 결심했다. 출납계는 살창으로 절반 갈라놓은 크지 않은 정방형의 방이였다. 벽옆에 놓은 긴 의자에서는 대여섯명의 탄부들이 기다리고있었다. 출납원이 모자를 손에 쥐고 출납구앞에 서있는 로동자에게 급료를 내주고있었다. 사무원 한사람이 그를 거들고있었다. 왼쪽켠 장의자우 그을은 재빛벽에는 누런 공시문이 선명하게 나붙어있었다.

아침부터 이 공시문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가왔었다. 그들은 두명 또는 세명씩 들어와서 못박힌듯이 멈춰섰다가 떨떠름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어깨만 으쓱하고는 물러갔다.

에띠엔느와 마여가 거기 들어갔을 때는 공시문앞에 두명의 탄부가 서있었다. 한사람은 모가 난 얼굴에 어리숙한 표정을 한 젊은이였고

다른 한사람은 여윈 로인이였는데 둘은 멍하니 공시문을 바라보고있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글을 읽지 못했다. 젊은이는 입술을 우물거리며 써놓은것을 한자한자 뜯어읽어보려고 했으며 로인은 공시문을 그저 바라볼뿐이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것도 리해 못하면서도 그저 얼핏 들여다보려고 들어왔다.

《임자가 우리에게 읽어주게.》

역시 읽고 쓰기를 잘하지 못하는 마여는 자기의 동행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에띠엔느는 공시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회사가 전체 탄광의 탄부들에게 알리는것이였다. 회사는 동발세우는데 관심이 없는데 대한 무익한 벌금은 징수하지 않고 그대신 채굴된 석탄에 대한 새로운 지불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것을 탄부들에게 공포했다. 앞으로 회사는 동발에 대하여 따로 지불할것인즉 질적인 동발작업에 요구되는 목재수량에 기초하여 갱에 들어와서 사용된 목재의 매 립방메터에 대하여 지불한다는것이였다. 자연히 이에 비례하여 채굴된 석탄의 매 탄차에 대한 보수는 50쌍띰으로부터 40쌍띰으로 낮추는데 물론 막장까지의 거리와 탄층을 고려한다는것이였다.

다음으로 이 10쌍띰이 낮아진것은 동발세우는 값으로 보상되는듯이 애써 증명하려고 아주 까다로운 계산을 들고나왔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각자가 새 방법의 우월성을 확신하도록 12월 1일 월요일부터 그것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것을 지적했다.

《여보, 좀 조용히 읽을수 없소!》 하고 출납원이 소리쳤다.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소.》

에띠엔느는 출납원의 말에는 주의도 돌리지 않고 끝까지 소리내여 마저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그가 다 읽었을 때에는 모두 계속 공시문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있었다. 늙은이와 젊은이 두 탄부는 무엇인가를 또 기다리는것 같더니 이윽고 어깨가 처져서 물러갔다.

《제기랄!》 하고 마여가 중얼거렸다.

마여와 그의 동행자는 같이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고개를 낮게 떨구고 여념없이 무엇인가를 계산하고있었다. 련이어 사람들이 누런 공시문께로 다가왔다. 그래 그들을 조롱하는것인가? 그들은 결코 탄차한대당 낮아진 10쌍띰을 동발세우는 값으로 보충해내지 못할것이다.

탄부들은 제일 많아서 8쌍떔을 받을것이다. 두쌍떔은 회사가 치밀한 동발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훔쳐가지는것이다. 회사가 노린것은 바로 눈에 띄지 않게 임금을 낮추자는것이였다. 탄부들의 주머니에 돈이 적게 들어가게 하려는것이다.

《빌어먹을, 빌어먹을…》 하고 마여는 고개를 쳐들면서 되뇌이였다.

《우리가 여기에 동의한다면 정말 바보지!》

그런데 이때 출납구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로임을 받으려고 그리로 다가갔다. 거기서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돈을 작업조 조장에게 내주었다. 그러면 조장이 직접 조내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것이다.

《마여작업조.》 하고 사무원이 말했다.

《필로니에르탄층, 제7호 막장.》

사무원은 감독들이 매개 작업조가 채굴한 탄차수량을 그날그날 기입한 전표들을 들추고나서 되뇌이였다.

《마여작업조, 필로니에르탄층, 7호 막장… 135프랑이요. …》

출납원이 돈을 내놓았다.

《미안하지만 여보시우!》 흥분한 채탄공이 웅얼거렸다.

《이게 틀림없소? 계산이 틀리지나 않았소?》

마여는 가슴에 소름이 끼쳐 몇푼 안되는 돈뭉치를 바라보기만 할뿐 그것을 감히 쥐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큰돈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적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그가 그 돈에서 자샤리와 에띠엔느와 그리고 솨발대신 들어온 동료에게 줄 돈을 다 치러주고나면 자신과 아버지와 까뜨리느와 쟝렝의 몫으로는 기껏해서 50프랑이 남게 된다.

《천만에, 난 틀리지 않았소.》 하고 사무원이 대꾸했다.

《공일 이틀허구 일을 못한 나흘을 공제하면 로동일은 전부하여 아흐레요.》

마여는 입속으로 매 사람별로 계산을 하고 합해보았다. 아흐레동안에 그는 약 삼십프랑을, 까뜨리느는 열여덟프랑을 그리고 쟝렝은 아홉프랑을 받아야 한다. 할아버지로 말한다면 그는 전부하여 사흘밖에 안된다. 이렇든저렇든 자샤리와 다른 두 로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90프랑을 첨가한다면 총액은 더 많아야 하는것이다.

《그리고 또》 하고 사무원이 덧붙였다.

《쓰지 못할 동발에 대한 20프랑의 벌금을 잊지 마시오.》

마여는 절망적으로 손벽을 탁 쳤다. 20프랑의 벌금과 4일간의 휴일! 그렇다면 물론 그들의 계산은 옳은것이다! 본느모르할아버지가 일을 하고 자샤리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두주일분으로 150프랑을 집에 가져간적도 있지 않았는가!

《그래, 돈을 받겠소, 안 받겠소?》 하고 출납원이 기다리다못하여 웨쳤다.

《당신은 자기뒤에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알텐데… 받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시오.》

마여가 돈을 받으려고 큰 손을 후들후들 떨면서 내밀었을 때 사무원이 또 이렇게 말했다.

《가만있소. 여기 당신의 이름을 적어두었는데 뚜쌩 마여지요?… 서기가 당신과 이야기하겠다오. 그이한테 들려보시오. 지금 그이 방엔 아무도 없으니까.》

로동자는 어리둥절하여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 방은 퇴색한 푸른 천으로 벽을 장식하고 구식마호가니가구를 삥 둘러놓았다.

마여는 5분동안 키가 성큼하고 얼굴이 창백한 서기의 이야기를 들었다. 서기는 문서들이 그득 쌓인 책상앞에 앉아있었다. 마여는 너무나 귀가 잉잉 울려서 서기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다만 서기가 아버지에 대해서 운운하고있다는것만을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50살의 나이와 40년간의 근무를 고려하여 150프랑의 년금을 주는것을 연구해보겠다는것이였다. 다음에 마여에게는 서기의 말이 엄해진것같이 느껴졌다. 그 말은 꾸중이였다.

서기는 마여가 정치에 관계하고있다는것을 지적하고 하숙인문제와 호상부조금고에 대해서 암시를 주는것이였다. 더우기 마여는 탄갱의 우수한 로동자의 한사람으로 인정받고있는만큼 그런 어리석은짓으로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라고 타이르는것이였다.

마여는 반박을 한다는것이 두서없는 말을 몇마디 했을뿐이였다. 그는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가락으로 모자를 구겨쥐고 나오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물론이지요, 서기나으리. 장담하지만 서기나으리…》

에띠엔느가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를 보더니 마여는 분한듯 말했다.
《내가 바보였어. 그에게 응당 대답을 했어야 하는걸!… 우리에겐 먹을것이 없는데 또다시 어리석게 놀았거던. 서기는 자넬 나쁘게 보데. 그는 우리의 온 마을이 불온사상에 감염되여있다는거야. …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거야, 제기랄! 허리를 굽실거리며 감사하다고 하라는건가? 하긴 그의 말이 옳아, 그렇게 하는것이 제일 무난하지.》
마여는 분한 한편 겁도 나서 입을 다물었다.
에띠엔느는 침울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또다시 온 거리에 가득찬 군중을 헤치고 지나갔다. 여느때는 조용하던 사람들속에 울분이 커져 폭력적인 행동은 없었으나 이 무게있는 군중의 머리우에서는 분개하여 웅성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사가 동발세우는 값을 구실로 탄차당 2쌍띰의 리득을 봄으로써 얼마나 되는 리윤을 짜내는가 하는것을 그 자리에서 계산한 사람도 몇명 있었다. 그 수자들이 군중에게 쫙 퍼져서 완고한 사람들까지 흥분시켰다. 무엇보다 그들을 격동시킨것은 얼마되지 않는 로임이였다. 그것은 휴업과 벌금으로 해서 일어난 기아소동이였다. 그들은 그러잖아도 먹을것이 없는데 이제 로임마저 낮추면 어떻게 산단 말인가?
술집들에서는 사람들의 떠들어대는 소리가 더욱 높아갔다. 그들은 분노에 목이 너무 말라들어 이미 받은 얼마 안되는 돈마저 매대우에 몽땅 털어놓았다.
몽쑤에서 마을까지 오는 도중에 에띠엔느와 마여는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마여가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있던 그의 안해는 남편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것을 곧 알아차렸다.
《참 잘하는군요!》 하고 안해가 말했다.
《커피, 사탕, 고기는 어디 있어요? 송아지고기 한덩이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텅 비게 할리는 없지 않아요.》
마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흥분한 마음을 누르려고 애를 썼다. 갱작업에 단련된 탄부의 침울한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어리고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50프랑의 돈을 식탁우에 내던지고 의자우에 풀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이거요!》 하고 마여는 겨우 입을 뗐다.

《이게 당신한테 가져온 전부요… 이것이 우리모두의 로임이요!》

안해는 에띠엔느를 힐끔 쳐다보았다. 에띠엔느는 잠자코 있었으나 분명히 상심하고있었다. 그러자 마여의 안해도 울기 시작했다. 50프랑으로 아홉식구가 두주일동안을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맏아들은 그들한테서 떨어져나갔다. 로인은 두다리가 변변치 않아 단돈 한푼 벌지 못한다. 어머니가 우는데 걱정이 된 알지르는 그의 목에 매달렸다.

에스떼이 큰소리로 울고 레노르와 앙리가 훌쩍거렸다.

뒤미처 이와 꼭같은 빈궁의 통곡소리가 온 마을에서 터져나왔다. 남편들이 돌아오자 집집마다에서는 돈이 너무 적다는 슬픈 하소연이 터져나왔다. 그 신음소리에 방안의 천정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내리는듯 문들이 확 열리며 녀인네들이 통곡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왔다. 보슬비가 내렸으나 그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보도에 서서 서로 부르면서 손바닥우에 올려놓은 얼마 안되는 돈을 내보이는것이였다.

《뭘 줬는지 좀 봐요! 이게 사람들을 업수이 여기는게 아니고 뭐예요?》

《나는요! 난 두주일 먹을 빵이나 겨우 사겠어요!》

《난 어떻거구요! 계산해봐요! 난 또 이 적삼을 팔아야 할가봐요.》

마여의 안해도 여느 사람들과 같이 거리로 나왔다. 누구보다 많이 떠들어대는 레바끄의 안해를 둘러싸고 한무리의 녀인들이 모여있었다.

그의 술주정뱅이남편은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 남편은 로임이 얼마되든간에 그것을 술집 볼깡에서 다 써버릴것이라고 생각했다.

필로멘느는 마여를 엿보고있었는데 그것은 자샤리가 아버지한테 돈을 떼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삐에롱의 안해만이 무척 태연한것 같았다. 여우같은 삐에롱은 언제나 감독의 수첩에 자기가 여느 동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것처럼 기입해넣군 하였다. 그대신 브률레는 자기의 사위가 비루하게 행동한다는것을 알고 전적으로 격분한 사람들의 편역을 들었다. 로파의 곧고 여윈 몸매는 녀인네들중에서 두드러져보였다.

그는 몽쑤쪽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있었다.

《생각만 해보오.》 하고 그는 엔보의 이름은 대지 않으면서 웨쳤다.

《난 오늘 아침에 그 집 하녀가 마차를 타고 가는걸 봤소. … 그렇소, 식모가 두필의 말을 메운 사륜마차를 타고 마르쉬엔느로 갔단 말이요. 물론 물고기를 사러 갔을테지.》

두덜거리는 불평을 하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위협하는 말소리가 울려왔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주인집마차에 앉아 이웃시장으로 간 식모는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로동자들은 굶주려 죽는판에 저들은 싱싱한 물고기만 들여다먹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 그런 물고기를 계속 먹지는 못할것이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차례가 반드시 올것이기때문이다.

에띠엔느가 뿌린 씨앗은 싹이 텄다. 그의 모든 사상이 이 분노의 웨침속에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약속된 황금의 시대에 대한 성급한 기대였으며 더 빨리 자기의 행복의 몫을 받으며 무덤처럼 쓸쓸한 빈궁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이였다.

세상은 너무도 불공평했다. 그들의 입에서 이미 빵쪼각을 빼앗아내기 시작한 이상 탄부들은 자기 권리를 요구하고야말것이다.

녀인네들이 류달리 흥분했었다.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더는 없게 될 리상적인 진보의 왕국에 당장 돌입하기를 바랐다.

날은 벌써 어두워지고 비가 더 세차게 내렸으나 마을에서는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주위에는 아이들이 모여서서 아우성을 치고있었다. 저녁에 술집 아방따즈에서는 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라스너르는 더 반대하지 않았다. 쑤바린은 처음과 같이 그에 동의했다. 에띠엔느는 한마디로 정세를 요약하였다! 회사가 기어코 파업을 원한다면 파업은 일어날것이다.

5

한주일이 지났다. 작업은 제대로 계속되였으나 탄부들은 침울하여 각일각으로 충돌을 기다리고있었다.

마여는 전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였다. 그의 안해는 침착하고 사려깊은 녀인이였으나 자주 화를 내기 시작했다. 과연 이전에 언제 까뜨리느가 집에서 자지 않은 일이 있었던가? 밤이 새도록 놀고 다음날 아침에야 집에 돌아오는 처녀는 너무 시달리고 지쳐서 탄갱에도 나가지 못했다. 까뜨리느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솨발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만약 그가 자기한테서 떨어져가면 때려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다는것이였다. 솨발은 미친듯이 질투를 해서 까뜨리느를 집으로(에띠엔느의 침대로) 보내지 않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까뜨리느는 부모의 승낙밑에 그 침대에서 밤을 보낸다는것이였다.

격분한 마여의 안해는 그 짐승같은 놈과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딸에게 말하고 자신이 몽쑤로 가서 그자의 뺨을 갈겨놓겠다고 위협을 했다. 어쨌든 하루로동일은 잃어버린것이였고 또 처녀는 일단 정을 맺은 이상 전혀 그를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틀후에 또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다. 일요일과 화요일에 쟝렝은 보료에서 일할 대신에 베베르와 리디를 데리고 진펄과 방담의 숲으로 새버렸다.

이 조숙한 아이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그들 셋이서 어떤 잡놀음에 빠졌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쟝렝은 되게 벌을 받았다. 어머니는 깜짝 놀란 마을아이들이 보는 거리에서 그를 사정없이 족쳤다.

일찌기 이런 일이 있었던가? 그의 생활에서 아이들은 날 때부터 값비싼 대가를 치르었으니 이제는 벌이를 해야 한다. 그의 웨침속에서는 자신의 어렵던 청춘시절에 대한 회상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절망적인 빈궁은 그로 하여금 모든 어린것들을 앞날의 로동력으로 보게 했던것이다.

이튿날 남자들과 딸이 탄갱에 나가자 마여의 안해는 자리에서 일어나 쟝렝에게 이렇게 말했다.

《몹쓸놈같으니, 또 새여나갔다간 혼쌀날테니 그렇게 알아둬!》

마여가 맡은 새 작업구역에서는 일이 힘들었다. 그 구역의 필로니에르탄층은 너무 엷어서 천정과 벽사이에 끼운 채탄부들이 일을 할라치면 팔꿈치의 살가죽이 벗겨지군 했다. 땅에서 물이 스며나왔고 이제라도 물줄기가 터져서 콸콸 쏟아져내려와 탄층을 무너뜨리고 사람

들을 밀어갈것만 같았다. 전날 에띠엔느는 곡괭이질을 하다가 샘에서 물줄기가 뿜어나와 물벼락을 맞았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의 그 불안은 공연한것이였다.

막장은 습기가 더 심해지고 썩은 냄새가 더 지독하게 코를 찌를뿐이였다. 또한 에띠엔느는 있을수 있는 불상사를 한번도 생각한적이 없었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동료들과 함께 계속 일을 했다.

그들은 가스속에서 눈시울이 무거워지고 거미줄같은 막이 눈을 멀게 하는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이따금 등불이 지나치게 희미해지든가 파랗게 보일 때에만 가스에 대하여 상기하는것이였다. 탄부들중의 누군가가 탄층에 귀를 대고 틈새마다에서 기포처럼 부글거리는 낮은 가스소리에 귀를 도사리군 했다. 뿐만아니라 붕락사고가 언제나 사람들을 위협했다. 대강대강 동발을 세운데다가 물을 먹은 흙은 견디여내지 못하기때문이였다.

그날 마여는 세번이나 동발을 고쳐세워야 했다. 거의 세시가 되여갔다. 로동자들은 밖으로 나갈 차비들을 했다. 에띠엔느는 옆으로 누워서 마지막석탄덩이를 까내고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와르릉하는 소리가 들려와 온 탄갱을 뒤흔들었다.

《이건 뭐야?》 하고 그는 소리치며 곡괭이를 내던지고 귀를 기울였다. 그에게는 뒤쪽의 갱이 무너진것만 같았다.

그러나 마여는 이미 막장의 비탈을 미끄러져내리며《붕락사고요. … 빨리! 빨리!》 하고 소리치고있었다.

모두다 동료들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쏜살같이 밑으로 달려내려갔다. 주위는 쥐죽은듯 고요했다. 그들이 손에 쥔 등불들이 몹시 흔들렸다. 네발걸음을 하듯이 허리를 구부린 그들은 한줄로 갱도를 달려갔다. 그들은 속력을 늦추지 않으면서 짧은 말을 몇마디씩 주고받았다.

《어디요? 어느 막장이 아니요?》

《아니요, 밑이요! 아마 어느 운반갱인것 같소!》

탄부들은 본선까지 달려오자 타박상을 입는데는 주의도 돌리지 않고 서로 엎치고덮치고 하면서 달려들었다.

어제 매를 맞고나서 살가죽에 아직 멍이 그대로 있는 쟝렝은 이날 탄갱에서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통풍구를 하나하나 닫으면서 자기의

탄차행렬의 뒤를 따라 맨발로 종종걸음을 쳤다.

소년은 감독을 만날 위험이 없을 때면 마지막탄차에 기여오르군 했다. 그것은 엄금되여있었는데 그가 거기서 잠을 잘수 있기때문이였다. 탄차행렬이 마주오는 탄차들을 통과시키느라고 멈춰설 때면 그는 앞으로 슬그머니 나가서 말을 몰고가는 베베르한테로 갈수 있었다. 이것은 쟝렝이 심심할 때 가장 즐겨하는짓이였다. 노란머리에 귀가 처지고 원숭이같은 여윈 얼굴에 어둠속에서 반짝이는 파란눈을 한 쟝렝은 등불도 없이 슬그머니 다가가서 피가 나도록 동료를 꼬집고 함부로 악의에 찬 롱을 던지군 했다.

탈이다싶이 조숙한 쟝렝은 원시적인, 동물적인 상태로 돌아간 조산아의 기민한 민첩성을 지니고있는것 같았다.

오후에 무끄로인은 일할 차례가 된 바따이를 그들에게로 끌고왔다. 말은 예비선로에 멈춰서서 투레질을 하고있었다. 쟝렝이 베베르한테 달려가서 물었다.

《이 늙다리말이 웬일이냐? 왜 멈춰선거야? 이놈이 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얘.》

베베르는 쟝렝에게 대답도 못하고 고삐만 더 억세게 잡아당기고있었다. 그것은 바따이가 앞에서 탄차행렬이 마주옴을 느끼고 좋아서 날뛰였기때문이였다.

그 말은 처음 입갱하던 날부터 제가 가장 살뜰한 정을 품고있는 동료 뜨롬뻬뜨의 냄새를 멀리서 맡고 인차 알아차렸다. 그처럼 살뜰한 정은 자기의 어린 벗을 그저 순하게 복종하고 참고견디라는 교훈으로 진정시키려고 갈망하는 늙은 철학자의 진정어린 련민의 정과도 같았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어둠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뜨롬뻬뜨는 늘 태양을 그리워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마지못해 탄차를 끌었다. 그래서 바따이는 뜨롬뻬뜨를 만날 때마다 그에게 머리를 내밀어 애무를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려는듯이 투레질을 하고 핥아주군 했다.

《빌어먹을것!》 하고 베베르가 게두덜거렸다.

《이것참, 입까지 맞추네!》

뜨롬뻬뜨가 옆으로 지나가자 베베르는 바따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에이, 늙은것이 버릇도 고약해. 저건 돌이나 구뎅이 같은것을 심상치 않게 느낄 때면 언제나 저렇게 멈춰서거던. 깔리워죽지 않으려고 조심하는거야. 지금 통풍구 저쪽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저놈의 말은 발로 문을 밀면서도 까딱하지 않는단 말야. 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니?》

《못 봤어.》 하고 쟝렝은 대꾸했다.

《거긴 그저 물이 무릎까지 올라오더라.》 탄차들은 또다시 움직였다. 바따이는 머리로 통풍구를 열고도 앞으로 나가지는 않고 온몸을 떨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드디여 그놈은 마음을 다잡은듯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쟝렝은 문을 닫느라고 뒤에 떨어졌다. 그는 등을 구부리고 발밑에서 철썩거리는 물웅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나서 등불을 쳐든 그는 지하수가 계속 새나오고 동발이 몹시 삐여져나온것을 보았다.

이때 쉬끄라는 별명을 가진 채탄부 베를로끄가 다가왔다. 그는 안해가 해산하게 되여 빨리 집에 돌아가려고 서두른 까닭에 막장에서 시간전에 나온것이였다. 그도 멈춰서서 동발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쟝렝이 탄차를 뒤쫓아 달려가려고 하는 순간 우직우직하는 무서운 소리가 나더니 느닷없이 갱이 무너져 그 로동자와 소년을 삼켜버렸다.

괴괴한 적막이 깃들었다. 갱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바람에 갱은 먼지구름으로 가득찼다. 사방에서, 막바지에 떨어져있는 구역에서도 탄부들이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헐떡헐떡 달려왔다.

등불들이 그들의 손에서 떨면서 이 두더지굴속으로 달려가는 까만 사람들을 희미하게 비치고있었다. 맨먼저 무너진 장소에 당도한 로동자들은 동료들을 부르면서 웨치기 시작했다. 막장 안침에서 나오던 다른 한패의 사람들은 무너져 갱도를 막아놓은 흙무지의 저쪽켠에 와있었다.

10메터불과한 구간에서 천정이 내려앉았다는것이 즉시 판명되였다. 피해는 그닥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모두의 가슴이 선뜩해졌다. 그것은 무너진 흙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기때문이다.

베베르가 자기의 탄차들을 내던지고 달려오면서 《거기에 쟝렝이 있

어요! 쟝렝이 있어요!》 하고 소리쳤다.

이때 막장에서 마여가 달려오고 그와 함께 자샤리와 에띠엔느가 달려왔다.

마여는 《빌어먹을것! 빌어먹을것! 빌어먹을것!》 하고 욕설만 되뇌였다.

그곳으로 달려온 까뜨리느며 리디며 무께뜨는 어둠이 짙어가는 무서운 혼란속에서 공포에 질려 목메여 울고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놀래여 신음소리가 날 때마다 더 크게 엉엉 울었다.

감독 리숌이 달려왔다. 기사 네그렐도 당싸에르도 탄갱에 없었기때문에 리숌은 절망속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는 석탄덩이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다.

아니다, 그 신음소리는 어린아이의 신음소리같지 않았다. 의심할바없이 거기에는 어른이 있다. 마여는 계속 쟝렝을 불렀다. 그러나 아무런 음향도 대꾸하지 않았다. 아마도 어린아이는 깔려죽은 모양이다.

그러나 단조롭게 들리는 가쁜 숨결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과 말을 해보려고 했으며 이름을 불러보았다. 그러나 대답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가쁜 숨결소리뿐이였다.

《빨리! 빨리!》 흙에 묻힌 사람을 파내도록 벌써 지시를 내린 리숌은 이렇게 재촉했다.

《말은 후에 하고.》

탄부들은 량쪽에서 곡괭이와 삽으로 무너진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쇄발은 마여며 에띠엔느와 함께 일했다. 자샤리는 흙을 치우는 작업을 맡아했다. 퇴근시간이 되였다. 모두들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어느 한 탄부도 동료를 죽음의 위험속에 그냥두고 집에 돌아갈념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을에서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것을 보고 근심할수 있었다. 그들은 녀인들을 마을로 보낼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까뜨리느도 무께뜨도 지어는 리디까지도 모든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무너진 탄층을 제거하는것을 도와나섰다. 사람들은 레바끄에게 건천에 나가서 굴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피해는 크지 않으며 그것을 정리하는중이라고 알려줄것을 위

임했다.

네시경이 되였다. 로동자들은 한시간도 못되는 사이에 벌써 옹근 하루분의 일을 했다. 그리하여 천정이 또 내려앉았으니 말이지 흙의 절반은 이미 파낸셈이였다. 마여는 아주 열성적으로 계속 일손을 놀렸는데 누가 그에게로 다가와서 교대하자고 하면 무섭게 손을 내저어 쫓아버렸다.

《조심하오!》 하고 리숌이 드디여 말했다.

《거의 다 들어갔소. 그들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오.》

사실 숨가쁜 소리가 더 또렷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아까부터 일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었다. 지금 그 소리는 바로 곡괭이밑에서 들려오는것 같았다. 그런데 그 소리가 갑자기 뚝 멎었다.

모두들 어둠속에서 차디찬 죽음의 숨결을 감촉하고 몸을 떨며 잠자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탄부들은 땀투성이가 되여 마지막힘을 다 쓰면서 땅을 팠다. 드디여 발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은 파묻힌 사람의 몸을 점차 드러내놓으면서 두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머리는 상하지 않았었다. 등불들이 얼굴을 비치자 여럿의 입에서는 쉬꼬라는 이름이 튀여나왔다. 그의 몸은 아직 따뜻했으나 척추가 부러졌었다.

《그를 싸서 탄차에 올려놓으시오.》 하고 감독이 지시했다.

《그리고 어린애를 찾읍시다. 빨리! 빨리!》

마여는 마지막곡괭이질을 하여 다른쪽에서 흙을 파던 사람들과 서로 통할 맞구멍을 뚫었다. 저쪽사람들이 의식을 잃은 쟝렝을 찾아냈는데 다리는 부러졌으나 아직 살아있다고 큰소리로 알려주었다. 아버지는 두팔로 아이를 안았다. 그는 이를 갈면서 연신 욕설을 퍼부었다. 까뜨리느와 다른 녀자들이 다시금 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재빨리 운반준비를 했다. 베베르는 바따이를 끌고와서 두개의 탄차에 말을 메웠다. 첫 탄차에는 에띠엔느가 쉬꼬의 시체를 올려놓았고 둘째 탄차에는 마여가 쟝렝을 무릎에 안고 앉았다. 소년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통풍구에서 찢어낸 모직천쪼박을 쟝렝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나서 매우 서서히 떠났다.

탄차들에는 등불이 하나씩 있어 붉은별처럼 비치고있었다. 쉰명쯤 되는 탄부들이 뒤따라갔는데 그것은 그림자의 행렬같았다. 이제 비로

소 심한 피로를 느낀 그들은 전염병에 걸린 무리처럼 침울하고 우울하니 진창에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가까스로 발을 옮겨놓고있었다. 저탄장까지 가려면 약 30분을 걸어야 했다. 어둠에 싸인 행렬은 두 갈래로 갈라져 구불구불한 갱도를 따라 끝이 없이 늘어섰다. 저탄장에 먼저 온 리숌은 빈 승강기를 예비로 남겨두도록 지시했다.

삐에롱은 곧 두 탄차를 거기에 실었다. 한 탄차에는 상처입은 자기 아들을 안은 마여가 그대로 앉아있었고 다른 한 차에는 에띠엔느가 쉬꼬의 시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받들고 앉았다. 승강기의 다른 층에 로동자들이 자리를 잡자 승강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올라가는데 2분이나 걸렸다. 갱도벽에서는 찬비가 쏟아져내렸다. 로동자들은 모두 다시 해빛을 보려고 안타깝게 우를 쳐다보고있었다.

다행히도 의사 방데르하겐한테 보낸 보조공이 집에서 그를 만나 곧 데리고왔었다. 쟝렝과 죽은 사람을 사철내내 벽난로를 피우고있는 감독실로 옮겨갔다. 거기에는 발을 씻을 더운물을 마련한 물통이 있었다.

돌바닥우에 두개의 깔개를 펴놓고 그우에 로동자와 소년을 눕혔다. 방에는 마여와 에띠엔느만이 들어갔다. 밖에는 운반공이며 탄부며 보조공들이 모여서서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다.

의사는 쉬꼬를 힐끔 쳐다보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다됐소!… 씻어도 좋소.》

두명의 감독이 아직 온몸에 석탄이 새까맣고 땀에 더러워진 시체에서 옷을 벗기고 해면으로 몸을 씻었다.

《머리는 다치지 않았군.》

쟝렝의 깔개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던 의사가 다시 말을 뗐다.

《가슴도… 다리를 제일 많이 다쳤군.》

의사가 손수 어린아이의 옷을 벗기고 모자끈을 끌러놓았다. 그는 보모처럼 솜씨있게 저고리며 바지며 내의를 벗겼다. 까만 먼지와 누런 흙에 더러워지고 온통 멍이 든 벌레처럼 작고 여윈 몸이 드러났다. 아무것도 알아볼수 없어서 그를 깨끗이 씻지 않으면 안되였다.

해면으로 문지르자 쟝렝은 더 여위여진것 같았다. 창백하고 해맑은 살가죽안으로 뼈가 들여다보이는것만 같았다. 그것은 가난한 가문 후예의 여윌대로 여윈 가련한 몰골이였다. 이 보잘것없는것이 바위에

깔려 한절반 찢겨 고통을 겪고있었다.

소년을 깨끗이 씻어놓자 피기없는 피부우에 붉은 반점으로 보이는 타박상이 넓적다리에 두군데나 드러났다. 쟝렝은 정신이 들어 신음하기 시작했다. 마여는 두팔을 맥없이 드리우고 아들의 발치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당신은 이 애의 아버지요?》 하고 의사가 말했다.

《울지 마오. 보시오, 살아있지 않소. … 그러지 말고 날 좀 거들어주오.》

의사는 두개소에서 심하지 않은 골절을 발견했다. 오른쪽다리는 불안을 자아냈다. 틀림없이 절단을 해야 할것 같았다.

이때 드디여 불상사를 알게 된 네그렐과 당싸에르가 리숌과 함께 방에 들어왔다. 기사는 짐짓 격분한척 하면서 감독의 보고를 들었다. 드디여 그는 분을 터뜨렸다. 언제나 그놈의 동발이 말썽이 아닌가! 사람들의 목숨을 내댄다고 자기가 얼마나 말했던가! 그러나 이 짐승같은 놈들은 저희들더러 동발을 잘 세우라고 하면 파업소리만 한다! 회사가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무엇보다 더 격분할 일이다! 두말할것 없다. 엔보씨는 아주 만족해할것이다!

《이건 누구요?》 하고 네그렐은 백포에 싼 시체를 보고 서있던 당싸에르에게 물었다.

《우리의 우수한 로동자의 한사람인 쉬꼬입니다.》 하고 도감독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안되였습니다!…》

의사 방데르하겐은 쟝렝을 즉시 집으로 보낼것을 요구했다. 시계가 여섯시를 쳤다. 벌써 황혼이 깃들었다. 죽은 사람도 실어가야 한다. 기사는 유개화물마차에 말을 메우고 담가를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부상을 입은 어린아이는 담가에 눕히고 죽은 사람의 시체는 깔개채로 유개화물마차에 옮겨놓았다.

녀운반공들은 아직도 문앞에 서서 웬일인지 알려고 멈춰서는 탄부들과 지껄이고있었다. 감독실문이 열리자 모두들 곧 입을 다물었다. 다시금 행렬이 늘어섰다. 마차가 앞장서고 담가가 그뒤를 따라가고 또 그뒤로 한무리의 사람들이 따라갔다. 행렬은 탄갱에서 나와서 마을을 향하여 비탈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동지달 첫추위는 무연한 벌판을 벌

거숭이로 만들었다. 밤은 납빛하늘에서 떨어져내려온 수의처럼 천천히 대지를 감싸고있었다.

에띠엔느는 소년의 어머니가 너무 놀라지 않도록 까뜨리느를 먼저 보내여 미리 일러주고 그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하라고 마여에게 귀속말로 일렀다. 마여는 슬픔에 잠겨 담가의 뒤를 따라가면서 잠자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자 까뜨리느가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집에 다가가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있는 어두운 색의 상자―유개마차를 벌써 보았던것이다. 놀란 녀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들중에서 맨머리바람의 녀인 서너너덧명이 극도의 불안에 싸여 앞으로 달려나왔다. 얼마후에는 그들이 30명으로 되고 50명으로 되였다. 모두가 꼭같은 공포에 사로잡혀있었다. 누가 죽었는가? 누굴가? 레바끄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했던 그들은 이제와서는 한사람이 아니라 열사람이나 죽었다는둥, 마차가 죽은 사람들을 련이어 실어오리라는둥 잡꼬대같은 말들을 하고있었다.

까뜨리느는 불안에 잠긴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무서운 예감에 사로잡혀있었다. 까뜨리느가 첫마디를 떼기가 바쁘게 어머니는 《아이구, 아버지가 죽었구나!》 하고 부르짖었다.

딸이 어머니를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쟝렝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나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마여의 안해는 딸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부리나케 집에서 뛰여나갔다. 그는 교회당뒤에서 나타난 마차를 보자 그만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여 졸도하여 쓰러졌다. 집집의 문앞에는 녀인들이 목을 길게 뽑고 공포에 질려 묵묵히 서있었다.

또 어떤 녀인들은 몸을 떨면서 행렬이 어느 집앞에서 멎는지 살피고있었다.

마차는 지나갔다. 마여의 안해는 그뒤로 담가와 나란히 걸어오고있는 남편을 보았다. 사람들이 쟝렝을 집문앞에 내려놓자 어머니는 그가 살아있다는것, 그러나 두다리가 부러졌다는것을 알았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한 충동을 받았다. 너무나 분해서 그저 씨근거리며 떠듬떠듬 이렇게 말했다.

《옳지, 이젠 그놈들이 우리 아들을 병신으로 만드는구나!… 두다

리가, 맙시사! 이제 저 애를 어떻게 한담?》
《여보, 잠자코 있소!》 하고 쟝렝에게 붕대를 감아주러 온 의사 방데르하겐이 말했다.
《이 애가 탄갱에서 죽었더면 당신은 마음이 편했겠소?》
그러나 마여의 안해는 알지르며 레노르며 앙리가 울어대는 가운데 더 화를 냈다. 그는 함께 거들어 부상입은 아이를 집에 들여놓고 필요한 모든것을 의사에게 내여주면서 무슨 돈으로 병신을 먹여살리겠느냐고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는것이였다.
늙은이의 두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것도 모자라서 또 어린아이까지 두다리를 잃는단 말인가! 마여의 안해는 진정하지 못했다.
이웃집에서도 귀청을 찢는듯 한 웨침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쉬끄의 안해와 아이들이 시체우에 엎드려 우는 소리였다.
밤이 깊었다. 피곤한 탄부들이 드디여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마을은 괴괴한 정적에 잠겼는데 소리높은 울음소리가 그 정적을 깨뜨릴뿐이였다.
세주일이 지났다. 다리의 절단은 요행 피할수 있어서 쟝렝에게는 두다리가 그냥 남게 되였으나 그는 다리를 절었다. 회사는 조사를 한 후에 50프랑의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뿐만아니라 소년이 회복되면 곧 로천에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빈궁이 조금이라도 덜어진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아버지가 이 일을 겪고나서 아주 심한 열병을 앓았기때문이다.
목요일부터 마여는 다시 일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날은 일요일이다. 저녁에 에띠엔느는 다가오는 섣달 초하루날에 대해서 말했다. 회사가 자기들의 위협을 실행하겠는지 흥미가 있었다.
이날 저녁에 마여의 집에서는 까뜨리느를 기다리느라고 열시까지 자리에 들지 못했다. 아마도 처녀는 솨발과 함께 돌아다니는것 같았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화가 나서 문에 빗장을 질렀다.
에띠엔느는 오래동안 잠들수 없었다. 알지르가 자리를 조금 차지해서 거의 비다싶이한 침대가 그를 괴롭혔다.
까뜨리느는 다음날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여네는 낮에 탄갱에서 돌아왔을 때에야 솨발이 까뜨리느를 자기

집에 데려갔다는것을 알았다. 솨발은 까뜨리느가 드디여 자기와 동서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게끔 갖은 추태를 부렸던것이다.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려고 솨발은 조급히 보료탄갱을 떠나 쟝―바르에 있는 데넬랭씨의 탄갱에 채용되였다. 까뜨리느는 그를 따라 운반공으로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젊은 한쌍은 여전히 몽쑤의 술집 삐께뜨에서 살기로 했다.

처음에 마여는 솨발을 혼쌀을 내고 까뜨리느를 매질을 해서 끌어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얼마 못 가서 할수 없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언제나 그렇게 되기마련이다. 처녀가 동서생활을 바라는 이상 그것을 막을수는 없는것이다. 조용히 결혼을 기다리는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안해는 사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다.

《그 애가 그 솨발이란 놈하구 밀려다닐 때 내가 때리기나 했겠소?》

마여의 안해는 잠자코 자기 이야기를 듣고있는 창백한 에띠엔느에게 큰소리로 말했다.

《내게 좀 대답해줘요! 당신은 신중한 사람이니… 우리는 그 애에게 완전한 자유를 줬지요. 하느님 맙소사! 모두가 그런 일을 겪지요. 나만 보더라도 저 어른이 나에게 장가들 때 난 벌써 임신중이였어요. 그러나 나는 부모의 집에서 도망치지는 않았어요. 나는 때가 되기도 전에 번 돈을 구차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주는 그런 비루한짓을 결코 하지 않았지요. … 그건 추태예요, 두말할것 없지요. 그래서 결국 아무도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거예요.》

에띠엔느는 고개를 끄덕일뿐이였다. 마여의 안해는 말을 이었다.

《그년은 매일 저녁 생각나는데로 나가군 했어요! 그 앤 무얼 생각하는지! 왜 그 앤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게 도와주면서 내가 시집보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거예요? 딸이란건 응당 일을 해야지요. … 언제나 그래야 하는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애에게 너무 곱게만 대했단 말이예요. 그 애가 사내와 즐기지 못하게 해야 했을거예요. 그들은 손가락 하나를 내밀면 손을 통채로 삼키려들어요.》

알지르는 그렇다는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러한 꾸짖음에 겁에 질린 레노르와 앙리가 훌쩍훌쩍 울고있었다. 어머니는 자기들의 불행

을 하나하나 꼽아나갔다. 우선 자샤리를 장가보내야 하는 일, 본느모르할아버지가 다리에 경련이 일어서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일이 그것이고 또 쟝렝이 뼈가 아물어붙어 걸어다니게 되려면 적어도 열흘은 걸려야 할 일이였다. 끝으로 또 하나의 타격은 까뜨리느가 사나이와 함께 도망친 일이다! 온 집안이 전멸상태에 있다. 아버지 혼자 탄갱에서 일해야 한다. 에쓰뗄을 수에 넣지 않고도 그들은 일곱인데 아버지가 가져오는 세프랑으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모두가 함께 운하에 가서 투신자살이라도 하는것이 더 나을것이다.

《당신이 암만 그렇게 악을 써야 아무 소용이 없소.》 마여가 웅글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막다른 지경에 처한것은 아니지 않소.》

에띠엔느는 앉아서 땅을 응시하고있었다.

그는 머리를 쳐들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직이 말했다.

《때가 왔다, 때가 왔어!》

제 4 장

1

월요일에 그레그와르부부와 딸 쎄씰은 엔보씨댁의 점심식사에 초청을 받았다. 모든 계획이 미리 세워져있었다. 식사가 끝나면 뽈 네그렐이 부인들에게 호화롭게 새 설비를 갖추어놓은 쌩 또마탄갱을 보여주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좋은 구실에 불과했을뿐이고 엔보부인이 쎄씰과 뽈의 결혼을 추진시키고저 일부러 생각해낸것이였다.

그런데 바로 그날 월요일 아침 네시에 불시에 파업이 일어났던것이다. 회사가 선달 초하루부터 새로운 지불제도를 실시했을 때 탄부들은 조용하였다. 두주일분의 임금을 받는 날 누구 하나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지배인으로부터 감독에 이르기까지 전체 직원들은 이 가격이 접수된것으로 확신하고있었다. 그러나 이 아침 유

력한 지도를 말해주는 이 파업의 선언에서 전술과 행동의 일치성에 대단히 놀래였다.

아침 다섯시에 당씨에르가 지배인 엔보를 깨우고 보료탄갱에서는 아무도 작업에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가 지나온 뛔 쌍 까랑뜨마을은 깊은 잠에 잠겨있어서 창문과 문들은 모두 꼭 닫겨있었다. 지배인은 방금 잠에서 깨여나 아직 부석부석한 두눈을 비비면서 자리에서 뛰여내리자 사방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15분이 지나기 바쁘게 배달부가 나타났고 전보가 우박처럼 책상우에 쏟아져왔다. 처음에 그는 반항이 보료탄갱에만 국한되였으면 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정보는 더 엄중해졌다.

미루, 끄레브꿰르, 마들렌느에서는 말시중군들만이 작업에 나왔다. 어디보다도 규률이 잘 준수되던 빅뜨와르와 퍼뜨리 깡뗄에서는 탄부들이 삼분의 일밖에 나오지 않았다. 쌩 또마에서만은 로동자들전원이 작업에 나왔다. 그 탄갱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것 같았다.

아홉시까지 엔보는 전보문을 아래사람에게 받아쓰게 해서 사방으로 띄웠다. 릴르 현지사와 회사의 리사들에게 사건을 알리고 지시를 요구했다. 엔보는 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네그렐을 시켜 이웃탄갱들을 돌아보게 했다.

문득 엔보는 점심식사에 대해 상기했다.

그는 마부를 보내여 그레그와르부부에게 유람을 연기한다는것을 예고하려다말고 잠시 망설였다. 방금전까지 간결한 말로 군대식싸움을 준비하던 그는 그 어떤 의지의 부족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엔보는 안해한테로 갔다. 화장실에서 하녀가 그의 머리를 빗겨주고있었다.

《흥, 그들이 파업을 일으켰다구요?!》

엔보부인은 남편이 자기에게 의향을 묻자 태연하게 말했다.

《어떻게 하구 뭐구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있어요? 그때문에 오찬을 그만둘수야 없지 않아요?》

엔보부인은 자기 의견을 계속 주장했다. 엔보가 오찬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것이며 쌩 또마에 구경을 갈수도 없다는것을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

오찬은 벌써 준비되였는데 무엇때문에 그만둔단 말인가? 탄갱구경

이 정 경솔한짓이라면 취소할수 있다.
《그리고》 하고 엔보부인은 하녀가 나가자 덧붙였다.
《어째서 내가 오늘 이 훌륭한분들을 우리 집에 그렇게도 모시려고 하는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네 로동자들의 그 무슨 어리석은 파업보다도 이 결혼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할거예요. … 어쨌든 내가 하고싶은 일이니 반대하지 마세요!》
엔보는 가볍게 몸이 떨리는것을 느끼면서 흥분하여 안해를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을 억제하는데 습관이 되여있었으나 그의 엄하고 굳어진 얼굴에는 괴로운 마음의 숨은 비애가 비껴있었다. 부인은 어깨를 드러내놓고있었다. 이미 때가 지났으나 그의 어깨는 아직 가을의 해빛에 금빛으로 빛나는 쎄레스(로마의 농업의 녀신)처럼 화려하고 매혹적이였다.
한순간 그는 육체의 자극적인 향수냄새가 배인 이 따뜻한 방에서 안해를 덥석 그러안고 얼굴을 그의 가슴에 가져다묻고싶은 욕망을 느꼈으나 꾹 참았다.
이미 십년간이나 그들은 방을 따로 하고 생활해왔던것이다.
《좋소.》 하고 그는 물러가면서 말했다.
《취소하지 맙시다.》
엔보는 아르덴느현에서 태여났다. 그는 빠리의 거리에 버림을 받은 고아로서 가난하고 고된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는 겨우 광산대학과정을 마치고 스물네살때 그랑 꽁브로 가서 쌩뜨 바르브탄갱에 기사로 들어갔다. 세해후에 그는 빠더 깔래에 있는 마를르탄갱의 담당기사로 되였다. 거기서 그는 아라스의 부유한 방사공장주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것은 탄광업체에 있어서는 본보기로 되는 행운이였다. 부부는 이 지방도시에서 열다섯해를 살았는데 그동안 그들 생활의 단조로운 흐름을 깨뜨릴 그 어떤 중요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한테는 아이도 없었다. 엔보부인의 커가는 초조감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돈을 존중하는 속에서 자라나 돈을 꿈꾸는 그는 자기의 허영심 많은 요구를 아무것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극히 적은 돈을 힘들여 벌고있는 남편을 멸시했다. 몹시 고지식한 엔보는 어떤 투기도 하지 않았고 초소에 선 병사처럼 일했다.
부부간의 불화는 커갔다. 가장 열정적인 사람의 정열도 식게 하는

육체적관계의 단순한 오해는 그것을 더욱 악화시켰다. 엔보는 육감적인 금발미인인 안해를 몹시 사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의가 맞지 않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 이미 방을 따로하고 살고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안해는 남편이 모르게 정부를 가졌다. 드디여 엔보는 빠 더 깔래에서 빠리로 자리를 옮기고말았다. 거기 가서 그는 국에서 한자리 차지하게 되였다. 이렇게 하면 그는 안해가 자기를 감사히 여기리라고 기대했던것이다. 그러나 안해가 소꿉놀이할 때부터 그처럼 꿈꾸던 빠리는 그들의 사이를 아주 갈라놓았다. 거기서 안해는 한주일동안에 시골티를 씻어버리고 졸지에 우아한 부인으로 되여 시대의 사치한 생활에 뛰여들었다.

그가 빠리에서 보낸 십년간은 한 사나이와의 열렬하고 공공연한 애정관계로 가득찼다. 정부한테서 버림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려고까지 했었다. 이번에는 남편이 모를수 없게 되였다. 그러나 남편은 어데서 행복을 발견하기만 하면 마구 그것을 자기것으로 하는 이 녀인의 태연스러운 철면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추행을 어찌할 방법이 없어 모든것을 꾹 참고 견디였다. 정부와 갈라진 후에 안해는 화병으로 앓기 시작했다. 그러자 엔보는 한적한 탄전지대에 가면 안해의 행실을 고쳐줄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몽쑤탄갱의 총관리를 맡는데 동의했다.

몽쑤로 옮겨온 엔보부부는 결혼초기와 같이 다시금 초조한 권태증에 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 엔보부인은 무연한 벌판의 단조로움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면서 이 적막으로 하여 마음이 가벼워진것 같았다. 그는 모든것이 끝장난 녀성으로 묻혀버렸고 정열도 다 식고 세상과도 너무나 인연이 멀어져서 지어는 육체의 비대증도 괴로와하지 않는듯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의 배후에서 생에 대한 열렬한 마지막갈망이 머리를 쳐들었다. 반년동안 엔보부인은 크지 않은 자기의 지배인저택을 자기의 취미대로 꾸리고 가구들을 배치하면서 그러한 갈망을 일시 잊었다. 현재그대로의 지배인저택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벽장식용품이며 골동품따위의 온갖 사치품들로써 저택을 가득 채워서 리르시에까지 그 소문이 자자했다. 이제는 그 지방이 엔보부인의 부아를 돋구었다. 가없이 펼쳐진 쓸쓸한 벌판, 나무 한그루 없고 언제보나 새까만 길, 그 길우에 욱실거리는 무시무시

한 주민들— 이 모든것이 그에겐 역스럽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다. 그는 류형수의 신세나 다름없이 된 자기의 운명을 한탄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용에나 겨우 쓸만 한 4만프랑의 보잘것없는 돈을 바라고 자기를 희생시켰다고 남편을 책했다. 엔보는 여느 사람들과 같이 배당금을 요구하고 주권을 획득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무슨 성공을 했어야 할것이였다.
엔보부인은 재산을 가지고온 상속자라는것을 몰강스러울만치 검질기게 남편에게 강조했다. 엔보는 랭정한 지배인의 위선적인 가면밑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늙어가는 녀인의 때늦은 그처럼 강한 욕망때문에 주름살이 늘어갔다.
안해는 그를 한번도 자기의 정부를 대하듯 살뜰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노상 한가지 공상이 그를 괴롭혔는데 그것은 안해가 다른 사람에게처럼 한번이라도 자기의 품에 안겨주었으면 하는것이였다. 매일 아침 엔보는 저녁엔 안해의 고집을 꺾어버리리라고 꿈꾸었다. 그러나 안해가 차디찬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며 변함없이 거절한다는것을 느끼면 그는 안해의 손마저 다치기를 삼갔다. 그 무엇도 이 고통을 풀어주지 못했다. 그는 겉으로는 엄격했지만 천성이 어진 사람으로서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은근히 고민하고있었다.
반년후에 저택이 완전히 꾸려져 더는 할 일이 없게 된 엔보부인은 권태감에 빠져 죽기만도 못한 류형수의 신세가 된 자기를 한탄하기 시작했다.
마침 이즈음에 뽈 네그렐이 몽쑤에 왔던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프로방쌀출신 륙군대위의 미망인으로서 얼마 안되는 년금으로 아비뇽에서 살았는데 오직 아들을 공업종합대학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오래동안 변변히 먹지도 못하면서 구차하게 지냈다. 뽈 네그렐은 대학을 졸업하자 대수롭지 않은 직위를 얻어 일하게 되였다. 그래서 엔보씨는 조카에게 권고해서 사직하고 보료탄갱에 기사로 오게 했다.
그때로부터 뽈은 친아들처럼 옮겨와서 거기 엔보의 집에 자기 방을 가지고 살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3천프랑이나 되는 자기 봉급의 절반을 어머니에게 보낼수 있었다. 엔보씨는 자기의 이러한 은덕을 보이지 않기 위해 젊은이가 탄광기사들에게 배정되는 조그마한 집에서 살림을 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군 했다. 엔보부인은 이

내 뽈에게 너나들이를 하면서 무던한 삼촌어머니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보살펴주었다. 처음 몇달동안 엔보부인은 류별나게 어머니다운 감정을 보이면서 세세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로 조언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녀성이였다. 그는 슬그머니 리기적인 비밀교제를 시작하였다. 젊고 실천적이며 사랑을 철학으로 꺼리낌없이 주장하는 지혜로운 이 젊은이는 코가 뾰족하고 여윈 자기 얼굴을 저으기 엄격하게 보이게 하는 뚜렷한 비판주의를 품고있음으로 해서 엔보부인의 마음에 들었다. 예기했던대로 어느날 저녁 네그렐은 그의 품에 안기고야말았다. 엔보부인은 호의로 몸을 허락하는 척 하면서 자기는 이미 감정이 없으며 다만 그의 벗으로만 되고싶다고 말했다. 기실 부인은 샘을 하지 않았고 자주 녀운반공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를 시까스르기도 했다.

그러나 네그렐은 녀운반공들을 추악한 존재로 보고있었다. 그래서 엔보부인은 네그렐이 자기한테 이야기해줄만 한 젊은 남자의 행실이 없는데 대하여 도리여 그에게 화까지 내였다.

그러더니 엔보부인은 그를 결혼시킬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자진 희생하며 그를 어느 부유한 처녀에게 넘겨줄것을 꿈꾸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계속되였다. 그것은 엔보부인이 거기에 무위도식속에 시들어가는 녀인의 마지막애정을 기울이고있는 놀음이였다.

두해가 지나갔다. 어느날 밤 엔보씨는 자기 방문앞으로 누가 맨발로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집에서 어머니벌이 되는 자기 안해와 조카간에 그런 관계가 있을수 있다는 이 새로운 사건으로 해서 분격하였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안해는 조카의 신부감으로 바로 쎄씰 그레그와르를 택했다는것을 그에게 확정적으로 알려주었던것이다. 안해가 그 결혼의 성립을 위해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섰기때문에 엔보는 자기가 극단한 의심을 품었다고 생각하며 도리여 제편에서 얼굴을 붉히였다.

엔보는 뽈이 오자부터 집안이 그닥 침울하지 않게 된데 대하여 젊은이를 감사하게 생각할뿐이였다.

엔보씨는 위생실에서 나와 아래로 내려오다가 현관에서 네그렐을 만났다. 그는 방금 돌아왔는데 파업소동이 그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듯 했다.

《어떻던가?》 하고 삼촌이 물었다.

《온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탄부들은 아주 령리하게 처신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대표단을 이리로 파견할 모양이더군요.》

이때 2층에서 엔보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냐, 뽈?… 여기 들려서 어떤 새소식이 있는지 좀 말해주려무나. 그놈들이 들고일어나다니. 어리석은짓이야, 그만하면 잘사는거지 뭐야!》

지배인은 자기에게 알려주러 온 그를 부인이 데려가는 바람에 그이상 자세한것을 알수 없었다. 엔보는 새 긴급전보가 수두룩이 쌓여있는 책상앞에 다시 와앉았다.

11시에 그레그와르부부가 도착했다. 그들은 보초병처럼 문앞에 서 있던 하인 이뽈리뜨가 불안스럽게 길좌우를 흘깃흘깃 살피면서 그들을 조급히 집안으로 안내하는데 놀래였다. 손님방에는 창가림이 내려져있었다. 손님들은 곧바로 서재로 안내되였다.

엔보씨는 이렇게 접대를 하게 된데 대해서 량해를 구했다. 문제는 손님방이 거리를 향해있었기때문인데 사람들을 공연히 자극할 필요가 없었던것이다.

《아니! 당신들은 아직 모르십니까?》

엔보는 그레그와르부부가 놀라는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레그와르씨는 파업이 실지로 일어났다는것을 알자 온화한 표정을 띠고 어깨만 으쓱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것이, 즉 탄부들이란 정직한 사람들이라는것이였다. 그레그와르부인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자기도 탄부들이 언제까지나 온순하리란것을 믿고있다고 확언했다. 화려한 오렌지빛옷을 입은, 건강미로 빛나는 쎄씰은 아침부터 아주 명랑했다. 처녀는 파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생글생글 웃기만 했다. 그는 로동자마을을 방문하고 동냥을 나누어주던 일을 상기했던것이다.

이때 새까만 비단옷을 입은 엔보부인이 네그렐을 데리고 나타났다.

《참 싫증나게 됐어요!》 하고 엔보부인은 문가에서부터 큰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들은 하필 이런 때 일어날건 뭐람! 이봐요, 뽈은 우릴 쌩또마에 안내하지 못하겠대요.》

《우린 여기 남아있기로 하지요.》 하고 그레그와르씨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래도 그에 못지 않게 유쾌할겁니다.》

뽈은 쎄씰과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을뿐이였다. 그런 랭담성에 불만을 느낀 숙모는 눈으로 네그렐에게 처녀를 가리켜보였다. 그런 후에 엔보부인은 그들이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자 어머니다운 눈으로 그들 둘을 바라보는것이였다.

그사이에 엔보씨는 전보를 다 읽고 답전을 썼다. 그의 옆에서는 활발한 이야기가 벌어지고있었다. 엔보부인은 서재를 꾸리는데는 별반 관심을 돌리지 않았노라고 손님들에게 말했다. 기실 서재에는 낡고 퇴색한 붉은 도배지며 무거운 마호가니가구와 오래동안 리용하여 닳아빠진 서류함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45분쯤 지나서 주인과 손님들이 식탁에 앉으려고 하는데 하인이 들어와서 데넬랭씨가 왔다고 알려주었다.

데넬랭은 흥분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와서 엔보부인에게 인사를 했다.

《아, 당신들도 계시는군요?》 데넬랭은 그레그와르부부를 보자 이렇게 말하고나서 곧 지배인에게 말을 건넸다.

《결국 일이 일어난셈이지요? 난 방금전에 우리 기사한테서 듣고 알았지요. … 오늘 아침 우리 탄갱에선 전체 로동자들이 입갱을 했습니다만 파업은 다른 탄갱들에 퍼질수 있지요. 난 대단히 근심됩니다. … 당신네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는 말을 타고 달려왔는데 그로 하여금 퇴역기병장교처럼 보이게 하는 우렁우렁한 말소리며 격한 몸짓에는 불안이 엿보였다.

엔보씨는 사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이뽈리뜨가 식당문을 열었다. 그래서 엔보는 이야기를 그치고 이렇게 말했다.

《아침을 함께 합시다. 식후에 다과를 먹으면서 죄다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데넬랭은 어찌나 제 생각에 골똘해있었던지 다른 격식이 없이 찬성의 뜻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무례했다는것을 알고 이내 엔보부인에게 변명

을 했다. 엔보부인은 아주 상냥스러웠다. 엔보부인은 일곱명분의 상을 차리도록 분부하고 손님들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는 그레그와르부인과 쎄씰은 자기 남편의 좌우 량쪽에 앉히고 그레그와르와 데넬랭을 자기의 좌우에 앉히였다. 그리고 뽈은 처녀와 그의 아버지사이에 앉히였다.

손님들이 잡채를 들자 엔보부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꺼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굴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만… 월요일이면 언제나 마르쉬엔느에는 오스땅드에서 신선한 굴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나는 식모를 마차에 태워서 굴을 사러 보내려고 했답니다. … 그런데 식모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질가봐 무서워서 말이예요. …》

모두가 큰소리로 웃는 바람에 그의 이야기는 그만 끊어졌다. 모두 그 이야기를 아주 기이하게 생각했다.

《쉿!》

엔보씨가 거리를 향한 창문을 불안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오늘 아침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와있다는것을 그자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런 순대를 결코 먹어보지 못할걸요.》 하고 그레그와르씨가 말했다.

모두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점잖게 웃었다. 손님들은 플랑드르벽장식을 하고 낡은 참나무장이 놓여있는 그 방에 앉아있는것이 유쾌했다. 찬장의 유리안에서는 은식기들이 번쩍거리고있었다. 천정에는 구리로 만든 커다란 장식등이 드리워있었다. 윤이 나는 둥그런 등의 바깥쪽에는 법랑도자기화분에 심은 푸른 종려나무와 나리꽃이 그려져있었다. 섣달의 바깥날씨는 추웠고 살을 에이는듯 한 차거운 북동풍이 휘몰아치고있었다. 그러나 방안에는 한점의 바람기도 없이 온실안처럼 포근했고 고급유리접시에 쪼개놓은 파이내플이 야릇한 향기를 풍기였다.

《창가림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가요?》 하고 네그렐이 불쑥 말했는데 그는 그레그와르부부를 좀 놀래우려는것이였다. 그는 그렇게 하는것이 재미났던것이다.

하인을 거들어주고있던 하녀가 네그렐의 말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

창문의 창가림을 내려놓았다.

그때부터 끝날줄 모르는 롱담이 벌어졌다. 그들은 모두 잔을 들거나 포크를 잡는데 몹시 조심하게 되였고 새로 료리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강점당한 도시에서 요행 략탈을 면하여 남아있는 물건처럼 환영했다.

그들의 이 인위적인 즐거움의 뒤에는 공포가 숨겨져있었다. 마치도 굶주린 무리가 밖에서 식탁을 엿보기라도 하는듯이 시선들은 저절로 창문쪽으로 쏠리는것이였다.

버섯에 닭알을 섞은 료리가 나오고 다음에는 송어가 나왔다. 화제는 일년반전부터 심해지는 경제공황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지요.》 하고 데넬랭이 말했다.

《최근 수년간 경기가 지나치게 좋았던만큼 그러한 결과에 이르지 않을수 없었지요. 철도며 항구며 운하들을 창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자본들이 투하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얼빠진 투기업에 탕진되였습니까. 이 고장을 례로 들더라도 그렇지요. 현 전체적으로 사탕무우를 한해에 세번 거두어도 모자라게 사탕공장이 많이 섰거던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누구에게도 돈이 없단 말입니다. 투하된 수백만프랑의 돈이 리윤을 가져올 때를 기다려야지요. 그런데 기업은 극도의 부진과 종국적인 침체상태에 있지요.》

엔보씨는 그러한 설명을 반박했으나 호경기가 로동자들의 버릇을 궂히였다는것은 인정했다.

《그자들은 우리 탄광에서 하루에 여섯프랑까지 벌수 있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버는것의 두곱이나 되지요. 그들은 생활이 좋아서 지어는 사치한 맛까지 들이기 시작했던걸요. … 그래서 이젠 이전의 구차한 생활로 돌아가기가 싫다는겁니다.》 하고 그는 웨쳤다.

《그레그와르씨.》 하고 엔보부인이 그의 말을 끊었다. 《어서 송어를 더 드세요. … 아주 맛이 좋지 않아요? 안그래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겠습니까?》 하고 지배인이 말을 이었다.

《우리자신도 심한 타격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 공장들이 련이어 문을 닫게 되여서 축적된 석탄을 파는것도 아주 어렵게 되였지요. 주문이 자꾸 줄어드니 우리는 부득이 채굴비를 낮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 그러나 로동자들은 그런 사정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는

단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하인이 구운 자고새새끼고기를 가져오고 하녀가 손님들에게 붉은포도주를 따르기 시작했다.
《인디아에는 기근이 있었지요.》 하고 데넬랭이 혼자말처럼 낮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메리카는 주철과 선철에 대한 주문을 중지해서 우리의 용광로들이 타격을 받고있지요. 모두 참고있습니다. 먼곳의 진동이 세계를 뒤흔들고있지요. 그런데 황제는 이 왕성한 산업열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엔보는 구운 자고새새끼의 날개죽지를 먹기 시작했다.
《우선 딱한것은》 하고 엔보는 더 큰소리로 덧붙였다.
《채굴비를 낮추려면 론리적으로 볼 때 채탄량을 증가시켜야 할것입니다. 다른 한편 원가를 낮추는것은 로임에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탄부들이 채굴비를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말할 근거를 가지게 되지요.》
이 솔직한 고백이 마침내 론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는 부인들에게 전혀 흥미가 없었다.
하긴 모두 첫 입맛이 좋아서 료리를 먹는데 열중하고있었다. 하인이 또 들어왔다. 그는 무엇인가 할말을 못하고 망설이는것 같았다.
《무슨 일이요?》 하고 엔보가 물었다.
《전보요? 이리 주오! 몇군데 회답을 기다리던 참이요.》
《아닙니다, 나리님. 당싸에르씨가 오셨습니다. …
현관에 계십니다. … 그는 나리님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가 걱정합니다.》
지배인은 량해를 구하고 도감독을 데려오도록 했다. 도감독은 들어와서 식탁을 몇걸음 앞에 두고 멈춰섰다. 그러자 모두 무슨 새 소식인지 궁금하여 헐떡거리는 이 키 큰 사나이에게 얼굴을 돌려 쳐다보았다. 마을은 조용했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지배인한테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었다. 어쩌면 몇분후에 대표단이 도착할수도 있었다.
《됐소, 고맙소.》 하고 엔보가 말했다.
《아침과 저녁에 나에게 보고를 해주오, 알겠소?》
당싸에르가 물러가자 롱담은 다시 벌어졌다. 모두가 로씨야쌀라드

에 달라붙었는데 그것을 다 먹으려면 일초도 헛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였다.

네그렐은 하녀에게 빵을 가져오도록 분부했다. 그러자 하녀는 마치 살인과 강간을 하려는 무리가 자기의 뒤를 따라오기라도 하는듯이 몹시 겁을 먹은 낮은 목소리로 《알았습니다, 나리님.》 하고 대답했다.

《아주 마음놓고 이야기할수 있어요.》 하고 엔보부인은 상냥하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한묶음의 편지와 전보를 지배인에게 가져왔다.

지배인은 편지 한통을 소리내여 읽으려 하였다. 그 편지는 삐에롱에게서 온것이였는데 그는 동료들이 자기를 박대할수 있기때문에 할수없이 파업에 참가하게 되였다는 사정을 공손히 아뢰여왔다. 그는 그와 같은 교섭에는 반대이지만 대표단에 참가하는것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로동의 자유란 바로 그런것이군!》 하고 엔보가 부르짖었다.

또다시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지고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지배인의 의견을 물었다.

《오!》 지배인이 대답했다.

《우리는 여직껏 별의별 파업을 다 보아왔지요!… 전번 파업때처럼 이번에도 한주일, 기껏해야 두주일을 빈둥거리겠지요. 술집에나 싸다니다가 배가 출출해지면 다시 탄갱으로 돌아올걸요.》

데넬랭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딴에는 사태가 그렇게 단순한것 같지 않은데요. … 이번에는 그들이 보다 조직적으로 행동하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들에겐 호상부조금고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허지만 그 금고의 돈은 3천프랑을 넘지 못하지요. 그것으로 오래 견디여낼줄 아십니까? 에띠엔느 랑띠에라는자가 그들의 두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훌륭한 로동자지요. 그래서 나는 자기 사상과 맥주로 지금도 계속 보료에 해독을 끼치고있는 이름난 라스너르처럼 그를 해고시키고싶지는 않습니다. … 어쨌든 한주일후에는 로동자의 절반이 작업에 나올게고 두주일이 지나면 1만명의 로동자전부가 입갱을 할겝니다.》

엔보는 그것을 확신하고있었다. 그를 불안케 한것은 리사회가 파업에 대한 책임을 자기한테 지우면 자기 명예가 훼손될수 있다는것이였다. 얼마전부터 그에 대한 리사회의 태도가 좋지 않았다.

그는 로씨야쌀라드를 뜨려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빠리에서 받은 답전을 다시 읽으면서 한자한자의 뜻을 파악하려고 애를 썼다. 그는 손님들에게 량해를 구했다. 이제와서 식사는 전장에서 전투개시를 앞두고 하는 군인들의 점심식사를 방불케 했다. 부인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레그와르부인은 앞으로 굶주리게 될 불행한 사람들을 가엾이 생각했다. 쎄씰은 자기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빵과 고기전표를 나누어주게 될것을 벌써부터 예견하고있었다. 그러나 엔보부인은 몽쑤탄부들의 빈궁에 대한 말이 나오자 아주 놀라와했다. 그들은 참말로 행복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회사의 부담으로 주택이며 연료며 의료상 방조를 받고있지 않는가!

엔보부인은 이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여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빠리에서 온 방문객에게 남에게서 듣고 외운 말을 되풀이하던 그 정도밖에 알지 못했다. 그자신이 그 말을 사실로 믿고있던터여서 지금 그 사람들의 배은망덕에 격분한것이였다.

한편 네그렐은 계속 그레그와르씨를 놀래우고있었다. 쎄씰은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숙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쎄씰과 결혼할 각오가 되여있었다. 그러나 그는 쎄씰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랑의 감정도 기울이지는 않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더는 열광적으로 사랑할줄 모르는 경험있는 총각이라는것이였다. 네그렐은 자신을 공화주의자로 인정하고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로동자들을 지극히 엄혹하게 대하지 않거나 부인들이 있는데서 그들을 교묘하게 조롱하지 않는것은 아니였다.

《나는 아저씨처럼 락관하지 않습니다.》 하고 네그렐은 말했다. 《나는 엄중한 혼란이 조성되지 않을가 근심됩니다.… 그레그와르씨, 삐올랜느의 집에 더 든든히 자물쇠를 잠글것을 권고합니다. 당신의 집을 략탈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네그렐이 말할 때 그레그와르씨는 어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탄부들에 대한 어버이다운 감정에서 안해보다 한수 더했다.

《략탈한단 말이요? 나를?》 하고 그레그와르는 놀란듯이 웨쳤다.

《무엇때메 나를 략탈한단 말이요?》

《그러면 당신은 과연 몽쑤탄갱의 주주가 아니란 말입니까?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로동으로 살고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자본의 파렴치한이란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략탈당하기엔 충분하지요. … 혁명이 승리하면 당신으로 하여금 재산을 모조리 바치게 할 줄 아십시오. 그것은 략탈한 돈이니까요.》

그러자 그레그와르는 자기의 순박한 침착성과 여느때의 평온한 태도를 잃어버렸다.

《나의 재산이 략탈한 돈이란 말이요?》 하고 그레그와르는 중얼거렸다.

《그럼 우리의 선조는 자기가 이전에 투자한 그 돈을 고된 로동으로 벌지 않았단 말이요? 그 모든것이 우리가 기업에서 갖은 모험을 한 결과가 아니란 말이요? 지금 내가 자기의 수입을 그 어떤 추악한 일에라도 쓰고있단 말이요?》

엔보부인은 어머니와 딸이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진것을 보고 불안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곧 이야기에 참여했다.

《뽈은 롱담을 하고있어요, 존경하는 그레그와르씨.》

그러나 그레그와르씨는 노기가 등등했다. 하인이 접시에 가재를 먹음직하게 담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권하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세개를 집어 씹기 시작했다.

《오, 나는 롱담을 하지 않습니다. 주주들중에는 자기의 지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례컨대 몇몇 대신들이 회사를 도와주고 그에 대한 뢰물로서 주권을 받았다는 말을 나는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주주들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공작은 대귀족처럼 아주 추악한 생활을 하고있다는겁니다. 녀성과 흥성한 주연과 불필요한 사치에 수백만프랑의 돈을 탕진하고 있지요. … 우리는 투기도 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자기에게 있는것으로 수수하게 살아가고있으며 더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지요. … 아니, 아니, 그런 일은 있을수 없습니다! 당신네 로동자들이 우리 집에서 빈침 하나라도 빼앗아간다면 그들은 무서운 강도들이지요.》

그가 화를 내는데 아주 유쾌해진 네그렐은 자신도 그레그와르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인은 계속 돌아다니며 가재를 대접했다.

바삭바삭 껍질을 씹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였다. 그레그와르는 아직도 공포에 몸을 떨면서 자유주의적견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루이 필리프왕을 애석해했다. 데넬랭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는 공고한 정권을 주장했는데 황제가 위태로운 양도의 길에 들어섰다는것이였다.

《89년도를 상기하십시오.》 하고 그는 말했다.

《혁명은 귀족이 공모하고 그들의 새로운 철학적취미로 해서 가능하게 되였던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였습니까! 지금 부르죠아지는 꼭같은 바보놀음을 하고있단 말입니다. 자유주의에 아주 열중하고 파괴를 갈망하고 인민에게 아첨을 하고있지요.… 그렇고말고요. 당신들은 괴물이 우리를 깡그리 먹어버리도록 그 이발을 갈아주고있습니다. 그 괴물이 우리를 깡그리 먹어버릴테니 안심들 하십시오!》

부인들이 그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나서 화제를 돌리기 위해 그의 딸들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류씨가 마르쉬엔느에서 한 친구와 함께 노래련습을 하고있다고 알려주었다. 쟌은 늙은 거지의 머리를 그리고 있다는것이였다. 그러나 데넬랭은 즐거운 기분으로 이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지배인한테서는 눈을 떼지 않았다.

지배인은 손님들을 잊어버리고 전보를 읽는데 여념이 없었다. 얇은 종이장들을 통하여 그는 파업의 결말을 결정할 빠리에서 보내는 상부의 지시를 미루어 알수 있었다.

데넬랭은 역시 불안을 숨기지 못했다.

《결국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하고 데넬랭은 느닷없이 물었다.

엔보는 흠칫 놀라며 애매한 어조로 대꾸를 했다.

《차차 봅시다.》

《물론 당신네야 토대가 튼튼하니까 기다릴수 있을겝니다.》 하고 데넬랭은 자기가 생각하는바를 입밖에 내여 말했다.

《그러나 파업이 방담에 파급되면 나는 마지막입니다. 내가 쟝 바르의 설비를 갱신한것이 소용없습니다.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하나의 탄갱으로는 랑패를 면치 못하지요.… 내 처지가 곤난하게 되였다는것을 당신앞에 확언할수 있습니다.》

데넬랭의 무의식적인 고백은 엔보씨를 놀라게 한듯싶었다. 엔보는

귀를 기울이였다. 그의 머리에는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파업이 악화되면 그것을 리용하여 이웃탄갱주를 완전히 파산시키고 다음에는 그에게서 헐값으로 탄갱을 살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년간 방담을 손에 넣을것을 그토록 꿈꾸어온 상부의 호의를 또다시 살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수단인것이다.
《쟝 바르갱이 당신에게 그렇게 귀치 않다면》 하고 지배인은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어째서 그 탄갱을 우리한테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데넬랭은 벌써 자기의 하소연을 뉘우쳤다.
《절대로 안됩니다!》 하고 그는 웨쳤다. 그가 격분하는 바람에 모두가 흥겨워졌다.
다과가 나오자 드디여 파업에 대해서는 모두들 잊어버렸다. 사과쨤빵이 여럿의 찬양을 받았다. 부인들은 역시 맛좋은 파이내플의 조리법을 론했다. 푸짐한 점심을 훌륭히 끝내게 한것은 포도와 배였다. 모두 일제히 이야기를 하는데 몹시들 감동되여있었다. 하인은 평범한것으로 인정되여있는 샴팡주대신에 빛갈이 있는 포도주를 따랐다.
뽈과 쎄씰의 결혼문제는 의심할바없이 훨씬 추진되였다. 식후다과가 그들 호상간의 호의를 더 조장시켰던것이다.
숙모가 어찌도 다급한 눈으로 바라보는지 네그렐은 그바람에 싹싹해져서 략탈담으로 진짜 의기소침해진 그레그와르부부의 마음을 자기의 애교로 또다시 정복했다.
엔보는 안해와 조카간에 긴밀한 의사가 통하고있는것을 눈앞에 보고 잠시 무서운 의혹이 다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것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주고받고 하는 시선에서 그 어떤 숨은 관계를 포착한것 같았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시 그를 진정시켰다. 기실 그의 눈앞에서는 혼인이 성립되여가고있었다.
이뽈리뜨가 커피를 가져왔을 때 하녀가 몹시 겁에 질려 뛰여들어왔다.
《나리님, 나리님, 그들이 왔습니다!》
대표들이 왔던것이다. 탕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울리며 다른 옆방들에 공포의 바람이 지나갔다.
《손님방으로 안내하오.》 하고 엔보씨는 분부했다.

식탁앞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다소 불안에 싸인 눈으로 서로 얼굴들을 쳐다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들은 방금전의 롱담을 다시 계속해보려고 했다.

그들은 식당의 식기들을 치워야겠다고 하면서 남은 사탕을 호주머니에 넣는척 했다. 그러나 지배인은 변함없이 신중해있어서 그들의 웃음소리는 점차 멎었다. 이야기는 입속말로 넘어갔다.

한편 손님방에서는 주단우를 걸어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대표들이 들어오는 소리였다. 엔보부인은 낮은 소리로 남편에게 말했다.

《커피를 마시세요.》

《아무렴.》 하고 남편은 대꾸를 했다.

《그자들은 좀 기다리라지!》

그는 커피잔에만 관심이 있는척 했지만 실은 흥분해서 귀를 기울였다.

뽈과 쎄씰은 식탁에서 일어났다. 뽈은 쎄씰에게 자물쇠구멍으로 내다보라고 권했다.

《보입니까?》

《네… 뚱뚱보가 있고 그의 뒤에 키가 좀 작은 사람이 둘 있군요.》

《그래 어떻습니까? 무서운 얼굴들을 하고있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점잖아요.》

갑자기 엔보씨는 커피가 뜨거워서 후에 마시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방에서 나가면서 손가락을 입에다 가져다대고 조심하라고 했다. 모두 다시 식탁에 자리잡았다. 그들은 감히 움직일념을 못 내고 덤덤히 앉아서 문밖에서 들려오는 거치른 남자의 목소리에 긴장해서 귀를 기울였다.

2

그전날 에띠엔느와 몇몇 동무들이 라스너르의 집에서 회의를 열고 이튿날 지배인한테로 보낼 대표들을 선출했다. 저녁에 마여의 안해는 자기 남편이 그속에 끼여있다는것을 알자 가슴이 아파 가족들을 거지

로 만들고싶으냐고 그에게 야단을 쳤다. 실은 마여자신도 마지못해 대표단에 참가할것을 승낙했던것이다. 그들 둘은 저들의 가난한 팔자가 억울하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행동을 해야 할 때 래일을 생각하면서 굽신거리며 운명에 순종해왔다.

보통 마여는 안해가 주는 좋은 충고에 따라 처신하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가 발끈 화를 냈는데 자신도 은근히 안해와 같은 위구를 품고있어서 더구나 부아가 났던것이다.

《제기랄, 시끄럽게 굴지 마오.》

그는 자리에 누워서 안해에게 등을 돌려대면서 말했다.

《동무들을 버리면 과연 그게 잘하는 일이겠소! 난 응당 할 일을 할뿐이요.》

안해도 누웠다. 서로 잠자코 있었다. 퍼그나 시간이 흘렀다.

《당신 말이 옳아요, 가세요.》

안해가 드디여 입을 뗐다.

《그러나 우린 화를 면치 못할거예요. 여보, 그런줄이나 알아요.》

시계가 열두시를 치자 그들은 점심을 먹었다.

한시에 아방따즈에 모여서 엔보한테 떠나기로 되여있었다. 식탁에는 감자가 나왔다. 빠다덩어리가 아직 남아있었으나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저녁에 겹빵을 만드는데 써야 했다.

《저, 우리는 당신이 발언을 했으면 하는데요.》 하고 에띠엔느가 느닷없이 마여에게 말을 건넸다.

깜짝 놀란 마여는 가슴이 두근거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안돼요, 그건 너무해요!》 하고 안해가 부르짖었다.

《그가 가는데는 나도 동의하지만 당신들의 우두머리로 되는데는 반대예요. … 어째서 여느 사람이 아니하고 그가 말을 해야 한단 말이예요?》

에띠엔느는 마여가 탄광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가장 우수한 로동자이며 본받을만 한 사람이라는것을 열렬한 웅변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만큼 탄부들의 요구가 그의 입을 통하여 제기되면 결정적무게를 가지게 된다. 애초에는 에띠엔느가 말하기로 되여있었으나 그는 몽쑤에서 일한 기간이 너무 짧다.

이 고장에서 오래 산 사람의 말일수록 더잘 들어줄것이다. 하여튼

동무들은 제일 믿음직한 사람에게 자기들의 리익을 옹호하여나서도록 위임한것이다.
마여는 거절을 할수 없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안해는 절망적인 몸짓을 하였다.
《가요, 어서 가요. 여느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세요. 정 그렇다면 나도 동의해요!》
《허지만 나야 언변이 있어야지.》 하고 마여가 중얼거렸다.
《난 어리석은 말이나 잔뜩 늘어놓을게란 말이요.》
에띠엔느는 마여를 설득시킨것이 흡족해서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느낀것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아주 훌륭한것으로 돼요.》
부었던 다리가 좀 가라앉은 본느모르할아버지는 입에 음식을 가득 물고앉아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감자를 먹을 때 아이들은 아주 얌전하게 앉아서 조용히 먹었다. 그런데 로인은 감자를 꿀떡 삼키고나서 천천히 중얼거렸다.
《하고픈 말을 다해보려무나. 뭐 달라지는게 있을줄 아느냐. 정말 난 일생동안 그런 일을 수태두 봤지! 40년전에는 지배인의 집엘 갔더니 문밖으로 쫓아내질 않겠니. 칼까지 휘둘러서 말이야! 지금은 너희들을 만나는 줄게야.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을걸, 벽창호처럼 말이야. … 정말이야! 그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모든게 꿈만 하단 말이야!》
다시금 침묵이 흘렀다.
마여와 에띠엔느는 식탁에서 일어났다. 온 가족이 빈 접시를 앞에 놓고 그대로 침울하게 앉아있었다. 에띠엔느와 마여는 집을 나와서 삐에롱과 레바끄를 찾아가지고 넷이 함께 라스너르의 집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이웃마을의 대표들이 모여들고있었다.
드디여 20명의 대표성원들이 모여서 회사의 요구조건에 대처할 안을 결정하고 몽쑤로 출발했다.
신작로에는 맵짠 북동풍이 휘몰아치고있었다. 대표들이 도착했을 때는 낮 두시였다.

하인은 우선 그들에게 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렸다. 이윽고 그가 돌아오더니 로동자들을 손님방으로 안내하고 창가림을 걷었다. 희미한 해빛이 레스를 뚫고 방안에 스며들었다. 거기에 자기들끼리만 남게 된 탄부들은 점직해서 앉을념을 못하고있었다.

라사직양복을 입고 아침에 면도까지 한 그들은 누르끼레한 머리칼과 코수염과 더불어 모두들 아주 말쑥했다.

그들은 모두 모자를 움켜쥐고 흘끔흘끔 가구들을 곁눈질해보고있었다. 그 가구들은 낡은 취미와 류행의 각가지 양식이 뒤섞인것이였다. 헨리2세시대의 안락의자, 루이15세시대의 의자, 17세기의 이딸리아책장, 15세기의 에스빠냐탁상들이 있었으며 벽난로우에는 제단을 가리는 막이 걸려있었고 문휘장으로는 술달린 구식교회법의가 걸려있었다. 오래된 황금, 낡은 황갈색의 비단—례배당의 이 모든 사치한 장식품들은 거북한 존경심을 자아냈다.

동방주단의 긴 털은 그들의 발목을 붙잡아매는것 같았다. 류달리 그들을 놀라게 한것은 온몸을 휩싸는 난로의 고르로운 온기였다. 오는 도중에 그들은 찬바람에 량볼이 온통 얼었었다. 5분이 지났다. 호화롭고 아담한 그 방안은 그들을 더욱 위압할뿐이였다.

드디여 엔보씨가 나타났다. 그는 군대식으로 단추를 꼭 채우고 작은 훈장댕기가 단정하게 드리워있는 례복코트를 입고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뗐다.

《아, 당신들이요!… 들고일어났다지. …》그리고나서 그는 문득 말을 끊고 랭정하면서도 점잖게 덧붙였다.

《앉소, 난 이야기하는것보다 더 좋은게 없다고 생각하오.》

탄부들은 앉을 자리를 찾노라고 뒤를 돌아보았다. 몇몇 사람이 용기를 내여 의자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수를 놓은 비단씌우개를 보고 소심해져서 그냥 서있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엔보씨는 자기의 안락의자를 벽난로쪽으로 좀 옮겨놓고 탄부들을 재빨리 세여보면서 그들의 얼굴을 기억에 새겨두려고 애썼다. 그는 마지막줄에 숨어있는 삐에롱을 보았다. 다음에 그의 눈길은 자기앞에 앉아있는 에띠엔느한테서 멎었다.

《그래.》 하고 엔보는 물었다.

《뭘 말하려는거요?》

그는 에띠엔느가 말하리라고 예견했는데 마여가 앞으로 나서는것을 보고는 너무도 놀라와 참지를 못하고 부언하였다.

《어떻게 된 일이요? 당신은 언제나 분별있고 몽쑤에서 가장 오랜 훌륭한 로동자가 아니요? 당신네 온 가족이 탄광개발초기부터 탄갱에서 일하지 않았소. … 참 좋지 않소! 당신이 불평분자들의 선두에 서다니. 섭섭하구만, 섭섭해!》

마여는 눈을 내리깔고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이윽고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려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수 없었다.

《지배인나으리, 동무들이 나를 선출한것은 내가 온순한 사람이고 나무랄데가 조금도 없다는 바로 그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소동이나 무질서를 빚어내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것을 당신에게 증명해줍니다. 우리는 오직 정의를 바랄뿐이지요. 우리는 더는 굶주릴수 없습니다. 적어도 빵이라도 먹을수 있도록 대책을 취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점점 확신성을 띠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들어 지배인을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다.

《우리가 당신의 새로운 지불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것은 당신도 잘 아는바입니다. 우리는 동발을 잘 세우지 못한다고 시비를 받고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일에 필요한 시간을 들이지 않지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소비한다면 하루에 들어오는 돈이 더 적어지는군요. 그러찮아도 우리는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는 형편인데 이제 또 그렇게 해놓으면 당신네 모든 로동자들은 다삽니다. 돈을 우리에게 더 지불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벌이가 되는 유일한 작업인 채탄에만 매달리지 않고 동발을 더잘 세우는데도 필요한 시간을 넣겠단 말입니다. 다른 방도가 있을수 없습니다. 일을 시키려면 그만한 지불을 해줘야지요. … 그런데 당신들은 무엇을 생각해냈습니까. 우린 뭔지 알지도 못할걸 꾸며냈지요. 당신들은 탄차 한대에 대한 보수를 낮추고 그대신 동발에 대하여 별도로 지불함으로써 그것을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설사 그것이 정말이라 해도 우리는 어차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동발을 세우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들테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분격케 하는것은 이 모든것이 정말이 아니라는 그것입니다. 회사는 조

금이나마 보상해주는것이 아니라 그저 탄차 한대에서 2쌍띰씩을 뗴여서 자기 주머니에 넣을뿐이지요. 그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지요!》
《옳소, 옳소, 정말 그렇소!》 하고 다른 대표들은 엔보가 불그락 푸르락하여 마여의 말을 막으려고 하는것을 눈치채고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마여는 지배인에게 말 한마디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이제는 신이 나서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는 이따금 깜짝 놀래여 자기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군 했는데 마치도 자신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하고있지 않는가싶었던것이다.
그 모든 말들은 그가 자기도 모르게 가슴속에 품었던것들인데 가슴이 벅차올라 흘러나오는것이였다.
그는 저희들모두의 빈궁과 고된 일, 짐승같은 생활과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안해와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얼마전의 보잘것없는 로임마저 벌금과 작업중지로 인한 공제금을 잘라내여 눈물속에 가져갔다는것을 례들었다. 정말 회사는 로동자들을 파멸시키려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배인나으리.》 하고 마여가 말을 맺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렵니다. 어쨌든 힘드니까… 이것을 당신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탄갱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우리의 요구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회사는 탄차에 대한 보수를 낮추고 동발작업에 대하여 따로 지불하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것을 종전그대로 두는것을 바랍니다. 그뿐만아니라 또 탄차 한대에 대하여 5쌍띰을 더 지불해줄것을 바랍니다.… 이제는 당신이 정의와 로동을 지지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을 어디 좀 보여주어야겠습니다.》
탄부들속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모두가 생각하는바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일이 공정하기를 바랄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긍정하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치한 방안은 금품, 수예품, 신비로운 옛날물건들과 함께 이미 그들의 안중에 없었다. 그들은 지어 자기들의 발밑에 깔린 주단도 의식하지 못하고 무거운 신발로 그것을 짓밟고있었다.
《대답하겠소.》 드디여 엔보씨가 성이 나서 웨쳤다.

《첫째로, 회사가 탄차 한대에서 2쌍띰씩 리득을 본다는것은 사실과 맞지 않소. … 계산해보오.》

무질서한 론쟁이 계속되였다. 지배인은 탄부들사이에 분렬을 조성하려고 삐에롱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삐에롱은 동무들의 등뒤에 숨으면서 아지 못할 말을 뭐라고 중얼거렸다. 레바끄는 반대로 가장 과격한 사람들의 앞에 나서서 자신도 아지 못할 말을 두서없이 연신 떠들어댔다.

휘장을 친 벽들이 크게 떠드는 말소리들을 삼켜버려 목소리들은 온실처럼 따뜻한 손님방의 공기속에 사라져가는듯 했다.

《당신들모두가 이렇게 일시에 떠들어서야》 하고 엔보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절대로 합의를 보지 못하오.》

그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그것을 존중하게 하는 관리인으로서 역정을 내지 않고 자기의 침착성과 엄격한 례의범절을 회복하고있었다. 그는 첫마디부터 에띠엔느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면서 굳게 다문 그의 입을 열려고 애썼다. 그래서 엔보는 2쌍띰에 대한 론쟁을 그만두고 갑자기 문제를 더 광범히 제기했다.

《그러지 말고 솔직히들 말하오. 당신들은 졸렬한 선동에 넘어가고있소. 이것은 전체 로동자들속에 퍼져 훌륭한 로동자들을 못쓰게 만드는 하나의 전염병이요. 난 누구의 참회도 필요없소. 누가 이전에는 그토록 온순하던 당신들을 아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놓았는지 잘 아오. 누군가가 당신들에게 빵보다도 빠다를 약속하고 당신들이 주인이 될 차례가 되였다고 지껄인거요. 인정하시오. …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들은 그 유명한 인터나쑈날에, 사회의 파괴만을 꿈꾸는 그 강도들의 무리속에 끌려들고있소. …》

그러자 에띠엔느가 엔보의 말을 막았다.

《지배인선생, 당신은 오해를 하고있습니다. 몽쑤의 탄부는 아직 한사람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황이 그들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면 모든 탄갱의 로동자들이 들어갈겝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회사자체에 달려있지요.》

이때부터 여느 탄부들은 거기에 없는듯 론쟁은 엔보와 에띠엔느사이에서만 진행되였다.

《회사는 로동자들의 보호자요. 그것을 위협하는것은 잘못이요. 올해 회사는 탄갱마을의 건설을 위해 30만프랑을 지출했는데 이 돈은 2프로도 회수되지 않고있소. 회사가 지불하는 년금이니, 회사가 주는 석탄이니, 의약품이니 하는것들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소. … 당신은 령리해보이고 몇달 안되는 기간에 능숙한 로동자의 한사람으로 되였소. 그런 당신이니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신을 파멸시킬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선전하는것이 좋지 않겠소? 물론 난 라스너르를 두고 하는 말이요. 우리는 우리의 탄광을 사회주의의 부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그를 해고하지 않을수 없었소. … 당신은 그의 집에 늘 가있다는데 물론 그가 당신에게 호상부조금고를 조직하도록 부추겼을거요. 우리는 그 호상부조금고가 단순한 저금소라면 쾌히 그를 승인할 용의가 있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무기로서 싸움이 일어날 때의 예비기금으로 되여있단 말이요. 말이 난 김에 회사는 이 금고를 장악하려고 한다는것을 덧붙여 말해야겠소.》

에띠엔느는 지배인의 말을 막지 않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지배인은 신경질적으로 입술을 가볍게 떨고있었다. 지배인의 마지막말을 듣자 에띠엔느는 웃음을 지으면서 간단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새로운 요구이군요. 여태 지배인선생은 그러한 장악을 선포하는것을 소홀히 했으니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요구는 회사가 우리 걱정은 작작하시고 보호자의 역을 놀 대신에 리윤에 근거하여 응당 지불해야 할것을 지불하여 정당함을 보여달라는겝니다. 공황이 있을 때마다 주주들은 저들의 리익배당금을 빼내기 위해 로동자들을 굶겨죽이는데 과연 그게 옳단 말입니까?… 지배인선생, 당신은 아무렇게나 말할수 있을것입니다만 새 지불제도는 기만적인 로임인하 이외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고일어난겁니다. 회사가 절약을 해야 할 때면 유일하게 로동자들의 희생으로써 그것을 달성하는데 그것은 아주 옳지 않단 말입니다.》

《옳지, 이젠 이야기가 다 나왔소!》 하고 엔보가 부르짖었다.

《사람들을 굶주리게 한다, 그들의 피땀으로 산다! 그런 비난이 나올줄로 생각했댔소! 그런 어리석은 말을 어떻게 할수 있소? 자본이 산업분야에서, 례를 들면 탄광부문에서 어떤 모험을 하는지 당신은 알것 같은데. 완전한 설비를 갖춘 갱 하나의 값이 15만프랑내지 2백만

프랑까지요. 지출된 이러한 금액에서 얼마 안되는 리윤을 짜내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오! 프랑스의 전체 석탄회사의 거의 절반이 파산되였소. … 그런데 성공한 탄광주의 가혹성을 비난한다는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로동자들이 고통을 겪을 때는 회사도 고통을 겪는거요. 이번 공황에서 회사는 당신들보다 손해가 적다고 생각하오? 회사는 임금을 좌지우지 못한단 말이요. 그가 파산되지 않으려면 경쟁에 복종해야 하오. 현실을 탓해야지 회사를 나쁘다고 할게 아니요. 그러나 당신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리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단 말이요!》

《아니요.》 하고 젊은이가 대꾸했다.

《사태가 지금처럼 계속되는 한 자신들의 처지가 개선될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로동자들은 만사가 달리 되도록 조만간에 다른 대책을 취할겁니다.》

낮으면서도 확신에 차있고 위협조로 떨리는 이 말이 겉으로는 어찌나 온화하였던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몸둘바를 모르고 겁먹은 숨소리가 조용한 방안에 흘렀다. 다른 대표들은 동료의 이야기를 잘 리해하지는 못했으나 어쨌든 그가 이 안락한 방에서 자기들의 몫까지 요구했다는것은 알았다. 그들은 다시금 따뜻한 색조를 띤 휘장들이며 푹신푹신한 안락의자 등 모든 사치품들을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거기 있는 하찮은 물건도 그들의 한달분의 식비와 맞먹을것 같았다.

엔보씨는 얼마동안 생각에 잠겨 앉아있더니 드디여 이야기가 끝났다는것을 암시하는듯 일어섰다.

탄부들도 일어났다. 에띠엔느가 팔꿈치로 마여를 가볍게 툭 쳤다. 그러자 마여는 조리없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지배인나으리, 당신이 우리한테 할 대답은 그게 전부인가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요구조건을 거절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텝니다.》

《내가?》 하고 지배인이 웨쳤다.

《여보게, 나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소!… 나도 당신들과 같이 고용된 사람이요. 여기서 내 권한은 당신네 마지막협조공의 권한보다 크지 못하오. 나는 지시를 받는 사람이요. 나의 유일한 임무는 그 지시가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감독하는 일이요. 나는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을 당신들에게 말했지만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오. …
당신들은 나에게 자기들의 요구를 제기했소. 나는 그것을 리사회에 보고하겠소. 그리고 후에 대답을 당신들한테 전합시다.》

그는 점잖은 관리처럼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례절을 지키면서도 랭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권력의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탄부들은 미심쩍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도대체 그가 어디서 온 사람일가,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무슨 리득이라도 본단 말인가, 자기들과 진짜 주인들과의 사이에 서서 얼마나 도적질을 할 작정인가 하고 자문하고있었다.

아마도 그는 사기군이외의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로동자들과 같이 보수를 받는듯이 말하고있지만 그자신은 얼마나 잘살고있는가!

에띠엔느는 또다시 이야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배인선생, 우리자신이 직접 우리 변호를 할수 없는것이 참으로 섭섭한데요. 우리는 많은것을 설명할수 있고 당신이 억지로 피하는 론거들을 가지고있소. … 우리가 어데로 찾아가야 하는지 그것만 알아도 좋겠는데요.》

엔보씨는 조금도 성을 내지 않았다. 그는 지어 웃음까지 지었다.

《허, 당신들이 나를 신임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복잡하오. 당신들은 저기로 가야 하오.》 하고 그는 손을 애매하게 들어 창문너머 어딘가를 가리켰다.

대표들은 손을 들어 창문 하나를 가리키는 그의 애매한 동작을 지켜보았다.

그 《저기》라는 곳은 어딜가? 그것은 분명히 빠리같았다. 그러나 딱히는 알수 없었다. 그것은 공포를 자아내는 먼곳, 접근할수 없는 종교의 고장에 자리잡고있는데 거기에는 자기 소굴에 깊숙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지 못할 신이 군림하고있었다. 그들은 결코 그 신을 보지 못할것이고 다만 몽쑤의 1만명 탄부들을 억누르고있는 그의 힘을 멀리에서 느낄수 있을뿐이였다. 그리고 지배인이 바로 그 힘을 등에 업고 권위를 세워 말했던것이다.

탄부들은 사기가 떨어졌으며 에띠엔느도 어깨를 으쓱하며 물러가는것이 상책이라는것을 암시했다.

한편 엔보씨는 다정스럽게 마여의 팔을 건드리면서 쟝렝의 건강을

물었다.

《당신들은 거기서 뼈저린 교훈을 찾고 바로 당신들이 동발을 되는대로 세우지 못하게 해야 하오! … 잘 생각해보시오. 친구들, 당신들은 파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난으로 된다는걸 알게 될거요. 일주일이 지나지 못해서 굶어죽을게요.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소?… 그러나 나는 당신들의 현명성을 믿소. 나는 당신들이 늦어도 월요일에는 다시 갱에 들어가리라고 확신하오.》

탄부들은 자기들이 순종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 지배인에게 일언반구도 대꾸를 하지 않고 등을 구부정하고 손님방에서 욱 밀려나왔다.

엔보는 그들을 바래우면서 자기의 새로운 가격을 그냥 두려는 회사측과 한탄차에 5쌍띰씩 보수를 올릴것을 요구하는 로동자측과의 담판의 내용을 요약해보았다. 엔보는 로동자들의 그 어떤 환상도 깨뜨리기 위해 리사회가 십중팔구 그들의 요구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리라는것을 그들에게 예고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잘 생각하고 어리석은짓은 하지 마시오.》

로동자들의 침묵에 불안을 느낀 엔보는 이렇게 되풀이했다.

현관에서 삐에롱은 고개를 낮추 수그려 인사를 했고 레바끄는 모자를 다시 썼다. 마여는 엔보에게 할 인사말을 생각하고있는데 에띠엔느가 다시금 팔꿈치로 그를 쿡 찔렀다. 그리하여 모두가 위협적인 침묵을 지키면서 밖으로 나왔다. 그들의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졌을뿐이였다.

식당에 돌아온 엔보씨는 손님들이 술을 앞에 놓고 말없이 까딱않고 앉아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두마디로 회담의 본질을 데넬랭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데넬랭은 아까보다 더 침울해졌다. 엔보가 다 식은 커피잔을 들고있는 사이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화제를 딴데로 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레그와르부부는 스스로 파업이야기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로동자들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법이 없는데 놀라는것이였다. 뽈은 이제 곧 헌병이 온다는 말로 쎄씰을 진정시키고있었다.

드디여 엔보부인이 하인을 불렀다.

《이뽈리뜨, 손님방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잘해. 우리는 그리로 옮겨가겠어.》

3

두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사무실에 제출된 출근부는 세번째주일의 월요일에 입갱한 로동자수가 또다시 적어졌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날 아침에는 작업이 다시 시작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리사회는 완고하게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탄부들을 격분케 하였다. 지금은 보료갱, 끄레브꿰르갱, 미루 및 마들렌느갱만이 휴업상태에 있는것이 아니였다. 빅뜨와르갱, 퍼뜨리 깡뗄갱에서는 지금 겨우 4분의 1의 성원이 갱에 들어갔고 쌩 또마갱까지도 그 운동에 휩쓸려들어갔다. 파업은 총파업으로 전환되였다.

보료갱지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드리웠다. 공장이 숨을 거두고 작업이 정지된 작업장은 텅 비고 버림을 받았다. 섣달의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잔교우에 보이는 내버려둔 몇대의 탄차가 서글픔을 자아냈다. 아래쪽에 있는 삼각다리들사이에는 저장된 석탄이 없이 새까만 바닥을 드러내놓고있었다. 그런가하면 예비동발목들은 소낙비를 맞으며 썩어갔다. 운하의 부두에는 절반 짐을 실은 짐배 하나가 출렁이는 물에 조는듯 떠있었다. 비가 내려도 분해된 류황에서 김이 물물 오르고있는 황량한 버럭산우에는 작은 수레 한대가 앞채를 힘없이 추켜들고 서있는것이 보였다. 무엇보다 쓸쓸하게 보인것은 건물들이였다. 덧문을 꼭 닫은 선탄장, 탄차들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탑, 불이 꺼진 보이라실과 이따금 오르는 연기에 비하면 지나치게 넓은 굴뚝들이 그러했다. 권양기의 보이라화구에는 아침에만 불을 지폈다. 마바리군들이 사료를 가지고 입갱을 했다. 갱내에서는 다시 평로동자로 된 감독들만이 일을 했다. 그들은 보수가 중지되여 통로들이 멜수 있는 구역들을 감시했다. 9시부터 나머지 봉사는 사다리로 진행되였다. 모든 건물들이 꺼먼 먼지를 뒤집어쓰고있었다. 괴괴한 정적속에서 탄갱에 마지막 남은 생명인 배수뽐프의 느릿느릿한 깊은 호흡소리만이 들려왔다. 뽐프가 멎으면 탄갱은 지하수로 해서 침몰되는것이였다.

탄갱 맞은편 언덕우에 자리잡고있는 뒈 쌍 까랑뜨마을도 역시 죽은듯 고요했다. 릴르에서 지사가 왔고 헌병들이 도로들을 순시했다.

그러나 파업로동자들이 조용한것을 보고 지사와 헌병들은 물러가기로 결심했다. 여태껏 이 넓은 평야일대에서 어느 한 마을도 이보다 더 모범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했었다. 사나이들은 술집에 가지 않으려고 온종일 잠만 잤으며 녀인들은 신중해져서 커피도 적게 마시고 잡담질이나 다툼질도 적게 하였다. 어린아이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있는듯 했다. 그들은 아주 착해져서 맨발로 뛰여다니고 싸움을 해도 떠들지 않았다. 처신들을 알아차려 하라는 호소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마여의 집은 계속 나드는 사람들로 가득찼다.

에띠엔느는 비서로서 호상부조금고의 3천프랑을 빈곤한 가정들에 나누어주었다. 여러곳에서 수백프랑의 기부금과 희사금이 또 들어왔다. 그러나 지금 그 자금은 다 고갈되여서 탄부들에게는 파업을 지탱해나갈만 한 돈이 더 없었다. 기아의 위험이 닥쳐왔다. 처음에는 메그라가 반달동안 외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한주일이 지나자부터 그는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 식량보급을 중지했다. 그는 일상적으로 회사에서 지시를 받고있었던것이다. 회사는 온 마을을 기아에 빠뜨림으로써 이 일을 곧 끝장내려는것이였다. 그런데 메그라는 변덕이 많은 폭군처럼 행동을 했다. 그는 부모들이 식료품을 얻으러 보내는 딸의 얼굴생김새에 따라 빵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했다. 그는 특히 마여의 안해앞에서는 늘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그는 자기한테 까뜨리느를 제공해주지 않은데 노염을 품고 화풀이를 하려는것이였다. 가난우에 맵짠 추위까지 겹쳤는데 조금 남아있던 석탄도 다 떨어지게 되였다. 녀인들은 남정들이 작업에 나가지 않는 한 탄갱에서 석탄을 줄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했다. 굶어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는데다가 또 얼어죽게 된판이다.

마여의 집에서는 벌써 모든것이 다 떨어졌다. 레바끄의 가족들은 부뜰루에게서 꾼 20프랑의 돈으로 아직 살아가고있었다. 삐에롱부부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돈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와서 돈을 꾸어달랄가 두려워 여느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굶어죽게 된체 했다. 그래서 그들은 메그라에게서 외상으로 식료품을 가져오군 했다. 사실인즉 메그라는 삐에롱의 안해가 치마자락을 한번 흔들기만 해도 자기의 가게방을 내맡길수 있었던것이다. 토요일부터

는 많은 집들에서 저녁을 못한채 잠자리에 눕게 되였다. 무서운 나날이 닥쳐오건만 누구도 하소연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태연하고도 용감하게 결정에 복종했다. 그것은 어쨌든 절대적인 믿음이며 신앙심이였다. 그것은 교를 믿는 주민들의 맹목적인 자기희생성이였다. 정의의 시대가 그들에게 약속이 되여서 그들은 세계적인 행복을 이룩하고저 고초를 당할 준비가 되였던것이다. 굶주림은 사람들을 강하게 자극했다. 이런 빈궁의 아리숭한 환상속에서 그들의 좁은 시야가 지금처럼 그렇게 넓어진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들은 몸이 쇠약해져서 눈이 어두워질 때면 꿈속에 그리던 리상의 도시를 다시 보는것이였다. 그 도시는 점차 눈앞에 가까와오더니 현실적인것으로 되였다. 거기서는 화목한 인민이 살고있는데 그것은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먹는 황금의 시대였다.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실현하고야 말리라는 로동자들의 확신을 그 무엇도 움직일수 없었다. 금고의 돈은 다 써버렸으나 회사는 양보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사태는 더욱 악화되였으나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조소했다. 그들의 발밑에서 대지가 꺼진다면 기적이 그들을 구원할것이다. 이러한 신념이 빵을 대신하여 그들의 배를 덥혀주고있었다. 마여의 일가와 다른 사람들은 맹물같은 국만 마시고 한절반 현훈증에 빠져 제몸을 짐승의 먹이로 내던지는 순교자와 같이 가장 훌륭한 황홀경을 톺아오르는것이였다.

지금 에띠엔느는 공인된 지도자였다. 학습을 통하여 세련되고 모든것이 뚜렷해짐에 따라 그는 저녁마다 나누는 이야기에서 권위자가 되였다.

그는 밤을 밝혀가면서 독서를 하였으며 많은 편지를 받았다.

그는 지어 벨지끄사회주의신문 《복수자》도 예약했다. 이는 탄갱마을에서 첫 신문이여서 동료들의 눈앞에서 에띠엔느의 위신을 훨씬 더 높여주었다. 매일같이 이 커가는 인기는 그를 날마다 더욱더 극도로 흥분시켰다. 에띠엔느는 광범한 편지거래를 하면서 주내 여러곳의 로동자들의 운명문제를 토의했고 보료의 탄부들에게 조언을 주군 했다.

특히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그 어떤 중심으로 되였다는것을 느끼자 이전의 기계공이며 지금은 손에 기름과 석탄이 묻은 채탄부인

그는 긍지에 넘치게 되였다. 그는 한계단 더 높이 올라서서 자인할수 없는 지혜와 안락의 만족감을 가지고 가증스러운 부르죠아계층속에 들어갔다.

그에게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오는 불유쾌한 감정만이 남아있을뿐이였다. 그래서 그는 코트차림의 신사와 부딪치게 될 때면 당황하고 소심해졌다. 그는 닥치는대로 모든것을 열심히 읽으며 공부를 계속하였다. 방법을 모르는 그는 읽은것을 인차 소화하지는 못했고 혼란이 생겨 결국은 자기가 리해할수 없는것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옳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될 때면 에띠엔느는 자기가 기대되는 그런 사람이 못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임무에 대하여 근심하였다. 여기서는 이야기도 할줄 알고 행동도 할줄 알고 동무들을 곤경에 빠뜨리지도 않을 학문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것이 아닐가? 그러나 그는 격동되여 곧 차고일어났다. 아니다, 아니다. 변호사만은 안된다. 모두가 악한들인 그들은 저들의 학문을 인민을 희생시켜 자기들의 배를 기름지우는데 써먹고있는것이다! 앞으로는 전변이 일어날것이며 로동자들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인민의 지도자로 된다는 꿈이 다시금 그를 위로해주었다. 몽쑤는 그의 발밑에 있고 빠리는 까마득히 먼곳에 있다. 그 어느날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그가 화려한 회의장의 연단에 서서 부르죠아지를 반대하여 폭탄과 같은 연설을 하게 될지 누가 알랴. 그것은 로동자가 국회에서 하는 첫 연설로 될것이다.

며칠전부터 에띠엔느는 당황하였다. 쁠류샤르는 연신 편지를 보내여 파업로동자들의 열성을 부추기기 위해 몽쑤로 오겠다는것을 제의해왔다. 기계공이 의장을 하게 될 개인적인 회의를 조직하려는것이였다. 이 계획의 목적은 파업을 리용하여 탄부들이 아직도 의심쩍게 대하고있는 인터나쇼날의 대렬에 그들을 인입시키는데 있었다. 에띠엔느는 그것이 지나치게 큰 소동을 야기시킬가봐 걱정이였다. 그러나 그는 라스너르가 그러한 개입을 맹렬히 비난하지만 않았더면 쁠류샤르를 오게 했을것이였다. 젊은이는 자기 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봉사도 해주었고 자기 손님들중에 벗들을 가지고있는 술집주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래서 에띠엔느는 어떻게 회답을 보내야 할지 몰라서 주저했다.

월요일 4시경 집에는 때마침 에띠엔느와 마여의 안해만이 아래층에 남아있었다. 릴르에서 다시금 편지가 왔다. 할일없이 초조해난 마여는 낚시질을 하러 나갔다. 요행 그가 운하의 수문아래쪽에서 좋은 물고기를 낚으면 그것을 팔아서 빵을 살수 있는것이다. 본느모르로인과 어린 쟝렝은 자기들의 두다리가 얼마나 든든해졌는지 시험해보려고 밖으로 나갔다. 알지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들은 몇시간씩 버럭산에 가서 타다남은 석탄덩어리들을 주었다. 마여의 안해는 가물거리는 불앞에 앉아서 결개단추를 끄르고 에쓰뗄에게 젖을 먹였는데 브라우스밖에 나온 그의 젖통은 배까지 내리드리웠다. 그들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다.

에띠엔느가 편지를 접자 마여의 안해가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돈을 보내준대요?》

에띠엔느는 도리질을 했다. 그러자 마여의 안해가 말을 이었다.

《이번주일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견디여내야지요. 자기가 정당하면 용기가 생기는거예요. 그렇지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강자로 될걸요.》

마여의 안해도 이제와서는 어지간히 파업을 지지하게 된것이였다. 작업을 중지하지 않고 회사로 하여금 옳은 립장을 취하도록 했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다. 그러나 이왕 작업을 중지한바에는 정의가 성취될 때까지는 나가서는 안된다. 이 점에 대하여 마여의 안해는 확고부동했다. 자기가 정당한 이상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자기가 잘못한듯이 보여서는 안된다.

《아, 아.》 하고 에띠엔느가 부르짖었다.

《갑자기 그 심한 콜레라라도 발생해서 회사의 그 착취자들로부터 벗어났으면!》

《아니예요, 아니예요.》 하고 마여의 안해가 반대했다.

《그 누가 죽기를 바래서는 안돼요. 그들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 처지가 더 좋아지지는 않을거예요. 또 다른자들이 그 자리에 앉을걸요. … 나는 다만 그들이 좀더 분별있게 생각하길 바라요. 난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란 어디나 있으니깐요. … 당신도 알지만 당신이 말하는 온갖 정치에 전혀 동의할수 없어요.》

기실 마여의 안해는 보통 그의 과격한 언사를 비난했고 에띠엔느를

싸움군으로 생각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응당한 값을 지불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무엇때문에 부르죠아지니, 정부니 하면서 온갖 다른 문제들을 운운해야 한단 말인가? 무엇때문에 남의 일에 간섭하겠는가? 그 대가로 차례지는것은 오직 주먹뿐이 아닌가? 그러나 마여의 안해는 에띠엔느를 존경했다. 그것은 에띠엔느가 술을 마시지 않으며 45프랑의 하숙비를 정확하게 지불하기때문이였다. 사람이 처신을 잘하면 다른 허물은 스쳐지난다.

에띠엔느는 모두에게 빵을 줄 공화국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마여의 안해는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48년(1848년 프랑스 2월혁명시기)을 상기했던것이다. 그 무서운 해에 그는 남편과 함께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었던것이다. 그는 당시 자기들이 겪은 진절머리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라고 자신을 잊었다. 그의 목소리는 서글펐고 두눈은 초점을 잃었으며 젖가슴은 드러낸 그대로였다. 에쓰뗄은 어머니의 무릎우에서 젖을 쥔채 잠들었다. 에띠엔느는 못쓰게 되고 누래진 얼굴과는 아주 대조적인 희고 부드러운 젖을 줄곧 바라보았다.

《한푼의 돈도 없었고》 하고 마여의 안해는 중얼거렸다. 《먹을것도 없었고 탄갱이란 탄갱은 죄다 작업을 중지했지요. 그러니 어찌되겠어요! 가난뱅이들이 죽어갔지요, 지금처럼 말이예요!》

이때 문이 열리였다. 그들 둘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다. 까뜨리느가 방에 들어왔던것이다. 처녀는 쑈발과 함께 달아난 후에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었다. 까뜨리느는 너무나 당황하여 문을 닫는것도 잊고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전혀 말을 못했다. 까뜨리느는 어머니만 있을줄로 생각했었다. 그는 에띠엔느를 보자 도중에 오면서 생각했던 말을 깡그리 잊어버리고말았다.

《여긴 뭣때문에 왔어?》 하고 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소리쳤다.

《너같은년은 이젠 보고싶지도 않다. 썩 물러가!》

까뜨리느는 단 몇마디라도 말하려고 애썼다.

《어머니, 커피와 사탕이예요. … 그래요, 아이들을 주려고… 시간외 일을 하고 받은거예요. 난 집사람들을 생각했어요. …》

까뜨리느는 주머니에서 반키로씩의 커피와 사탕을 꺼내여 용기를 내

서 식탁우에 올려놓았다. 보료갱에서의 파업은 까뜨리느를 괴롭혔었다. 그는 쟝 바르탄갱에서 일하는만큼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구실외에는 량친을 도와줄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수 없었다. 그러나 까뜨리느의 선의는 어머니에게 여하한 작용도 하지 못했다.

《그따위 사탕부스레길 가져오느라 말고 집에 있으면서 밥벌이를 했더면 더 좋았을게 아니냐.》 하고 어머니는 대꾸했다.

그리고나서 그는 까뜨리느에게 욕설을 잔뜩 퍼부었다. 그는 한달전부터 되풀이해온 딸에 대한 반감을 그의 면전에서 죄다 털어놓으며 화풀이를 하였다. 가족들이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 때에 열여섯살나이로 도망을 쳐서 사나이녀석과 어울리다니! 아주 타락한 너절한 처녀가 아니고서는 그런짓을 할수 없다. 어리석은짓을 용서받을수 있겠지만 이런 비행은 어머니로서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글쎄 쇠사슬로 매여두었다면 알만한 일이다. 그러나 천만에, 딸애는 바람처럼 자유로왔다.

다만 집에 돌아와 잘것만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좀 말해봐라, 어떻게 된 감투끈이냐? 네가 벌써 그 꼴이니 앞으로 뭣이 되겠니?》

까뜨리느는 식탁앞에 까딱않고 서서 고개를 숙인채 어머니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여위고 발육이 늦은 그의 몸은 떨고있었다. 까뜨리느는 떠듬거리며 무슨 말이든 대꾸를 하려고 했다. …

《아이참, 나 혼자일이라면 오죽 좋겠어요. 정말 나도 즐거운건 아니예요. … 모든것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가 원하면 나도 강요에 못이겨 그렇게 해야 하는거예요. 그는 힘이 제일 세지 않아요. … 무슨 일을 저지를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젠 깨여진 사발이니 어쩌는수 없어요. 그가 아니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랬을거예요. 그가 나와 결혼하게 해야지요.》

까뜨리느는 지나치게 일찌기 남자를 겪은 처녀들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것처럼 공손히 자기 변명을 했다. 이것은 보통 있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까뜨리느는 한번도 그런 일은 생각한적이 없었다. 그는 열여섯살에 힘에 못이겨 버럭산뒤에서 몸을 허락했고 그가 자기에게 장가들면 가난에 쪼들리는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것이다. 그는 수치감에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가 당황하여 몸을 떨었다면 그것은 이 젊

은이앞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매춘부처럼 대하고있기때문이였다. 에띠엔느가 있는 까닭에 까뜨리느는 괴로왔고 실망에 빠졌던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에띠엔느는 일어나서 스러져가는 탄불을 터는척 하고있었다. 그는 처녀의 이야기를 방해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까뜨리느와 에띠엔느의 시선은 마주쳤다. 에띠엔느가 보기에 까뜨리느는 몹시 창백해지고 시달렸지만 어쨌든 거무스레한 얼굴에서 반짝이는 두눈과 더불어 아름다왔다. 그는 야릇한 감정을 느꼈다. 어느덧 나쁜 감정은 사라지고 그저 까뜨리느가 자기보다 마음에 더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낼것을 바랄뿐이였다.

에띠엔느는 까뜨리느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싶었다. 바로 몽쑤로 가서 그 사나이로 하여금 처녀에게 살뜰하게 대하도록 해주고싶었다. 그러나 이 정다운 태도가 까뜨리느에게는 동정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저런 눈으로 바라보는 그는 자기를 경멸하는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의 가슴이 어찌나 죄여들었던지 목이 메여 그는 자기변명의 말을 더 할수 없었다.

《됐다, 잠자코 있는게 날게다.》 진정되지 못한 어머니가 말했다.

《여기 있으려고 왔다면 들어오너라. 그렇지 않거든 썩 물러가. 그리고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걸 다행으로 알아라. 그렇지만 않으면 발로 차버렸을거야.》

그런데 갑자기 까뜨리느는 그 위협이 실현되기나 한듯이 뒤에서 자기를 발로 세차게 들이차는것을 느꼈다. 그는 뜻밖의 타격과 아픔에 그만 머리가 어리둥절해졌다. 그것은 솨발이였다. 그는 닁큼 열린 문으로 뛰여들어와서 야수처럼 까뜨리느에게 달려들었다. 들어오기 전에 솨발은 얼마동안 문밖에서 엿듣고있었던것이다.

《에익, 더러운년!》 하고 솨발은 고함을 쳤다.

《난 네뒤를 밟아다녔다. 저놈을 보려구 여기 올줄 알고있었어! 그리고 또 한턱을 써? 내 돈으로 산 커피로 발라맞춰?》

마여의 안해와 에띠엔느는 뜻밖의 일에 놀래여 옴짝달싹 못했다. 솨발은 약이 올라 까뜨리느를 문쪽으로 쫓았다.

《못 갈테야, 빌어먹을년?》

그러나 까뜨리느는 구석에 들어박혔다. 그러자 솨발은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두말할게 있소? 딸년이 저 자식하구 노는 동안 망이나 보겠지.》
드디여 솨발은 까뜨리느의 팔목을 붙잡아 나꾸채서 밖으로 끌고나갔다. 문앞에서 그는 다시 얼굴을 돌리여 의자에 못박힌듯이 앉아있는 마여의 안해를 바라보았다. 그 녀자는 젖가슴을 가리우는것도 잊고있었다. 에쓰뗄은 어머니의 치마에 코를 박고 엎드려 잠자고있었다.
《딸이 없을 땐 에미가 대신하겠지!》 하고 솨발이 웨쳤다.
에띠엔느는 대번에 그의 뺨을 치고싶었다. 그는 싸움이 탄갱마을에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가 두려워서 솨발의 손에서 까뜨리느를 빼내는것을 참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분이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두사람은 눈에 피발이 서서 마주섰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품어온 질투였다. 그것이 이제와서 폭발된것이다. 이제는 둘중의 누구 한사람은 살아서 돌아갈것 같지 않았다.
《주의해!》 하고 에띠엔느가 더듬거렸다.
《죽이고말겠어.》
《어디 해봐!》 하고 솨발이 대꾸했다.
몇초동안 그들은 또 서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들은 어찌나 가깝게 서있었던지 서로 상대방의 뜨거운 숨결에 얼굴이 타는것 같았다. 까뜨리느가 애원하듯 애인의 팔을 잡아 이끌고나갔다. 그는 그를 동구밖으로 이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하였다.
《짐승같은 놈!》 에띠엔느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화가 나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는 너무나 분해서 다시 주저앉았다.
마주앉아있는 마여의 안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팔을 한번 내저었을뿐이였다. 괴로운 침묵이 흘렀다. 에띠엔느는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한 하얀 살이 늘어진 그의 젖가슴으로 다시 눈이 갔다. 지금 번들거리는 그 젖가슴을 보자 그는 어색해졌다. 마여의 안해는 틀림없이 마흔이였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몸매가 곱지 못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를 탐내였다.
그는 몸이 끌끌하고 튼튼했으며 살이 오르고 갸름한 얼굴은 예전의 아름다움의 자취를 그대로 남기고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천천히 두손으로 젖을 쥐여 옷속에 밀어넣었다. 장미빛의 한쪽젖꼭지가 잘 들어가지 않아 그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밀어넣고 단추를 채웠다. 이제는 아주 새까매지고 낡은 적삼을 입은 지친

녀인이 앉아있을뿐이였다.
《저놈은 돼지예요.》 하고 마여의 안해가 드디여 입을 열었다.
《저런 더러운 돼지니까 그런 못된 말만 걸게 퍼붓거던. 난 그런 놈은 꿈만 해요. 대꾸를 할 필요도 없지요.》
이윽고 마여의 안해는 젊은이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솔직하게 덧붙였다.
《물론 나도 저지른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지요.… 나를 건드린 사나이라군 통털어 두사람밖에 몰랐어요. 열다섯살때의 어떤 운반공과 그다음 마여예요. 얘 아버지가 첫번 사나이처럼 나를 버렸더라면 난 어떻게 되였겠는지 정말 모를 일이예요. 그리고 나는 결혼한 후 행실이 좋았다고 전혀 자랑하고싶지는 않아요. 아무런 나쁜 일도 하지 않은것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때문이지요. 나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웃에 자기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것을 알아요. 그러찮아요?》
《그렇지요.》 하고 에띠엔느는 일어서면서 맞장구를 쳤다.
에띠엔느는 밖으로 나왔다. 마여의 안해는 서로 맞붙인 두개의 의자우에 에쓰뗼을 눕히고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는 남편이 물고기를 낚아다 팔기라도 하면 죽이라도 끓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바깥에는 이미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추운 바람이 몰아치고있었다. 에띠엔느는 침울한 슬픔에 잠겨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다. 그것은 벌써 솨발에 대한 격분도 아니였고 학대받는 가련한 처녀에 대한 동정도 아니였다. 란폭한 광경은 사라지고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가증스러운 가난에 대하여 또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그는 빵을 구경할수 없는 탄갱마을과 저녁끼니가 없는 녀인들과 아이들, 주린 창자를 안고 싸우는 주민들을 머리에 그려보았다. 이따금 그를 사로잡군 하던 의혹이 황혼의 심한 애수속에 되살아났다. 그 의혹은 일찌기 그처럼 강렬하게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으로 그를 괴롭혔다. 얼마나 무서운 책임을 걸머지고있는가!
돈도 없고 빚도 더 낼수 없는 이때 계속 이 사람들을 추동하여 완강하게 항거하도록 할것인가? 만약에 그 어데서 원호금도 오지 않고 기아 그자체가 그들의 기세를 꺾어버린다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끝날것인가? 느닷없이 그의 앞에는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하고 허약해진 사나이들이 다시금 탄갱으로 내려가는 파멸적인 종말의 광경이 떠올랐다. 에띠엔느는 돌부리에 발을 걸어채우면서 걷고 또 걸었다. 그는 회사가 강자로 되고 자기가 동무들의 불행의 장본인으로 될것을 생각하자 참을수 없는 근심에 휩싸였다.

에띠엔느가 고개를 쳐들었을 때 그앞에는 보료갱이 있었다. 짙어가는 땅거미속에 우중충한 건물들이 한데 뭉켜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그늘에 둘러싸여있는 황량한 구내는 버림받은 성새의 한구석같았다. 권양기가 멎자마자 모든것이 죽어버렸다.

때늦은 이 밤시간에는 모든것이 죽어버려 등불 하나 보이지 않았고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뽐프소리는 페갱속 어딘가 멀리에서 들려오는 가쁜 숨소리같았다.

에띠엔느는 탄갱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로동자들은 굶주리고 있다면 회사는 수백만프랑의 돈을 잃고있다. 어찌하여 로동과 자본의 이 투쟁에서 회사가 승리해야 한단 말인가? 여하튼 그 승리는 비싼 대가로써만 얻어질것이다. 손실은 후에 계산될것이다. 에띠엔느는 지어 생명을 바쳐서라도 빈궁을 영원히 청산하려는 불같은 욕망과 투쟁열에 다시금 휩싸였다. 기아와 부정의로 해서 느릿느릿 죽어가는것보다 온 마을이 일시에 파멸되는것이 나을것이다. 그는 자기가 잘 리해 못한것이나마 책에서 읽은 모든것을 상기했다. 인민들이 적들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해 자기들의 도시를 희생적으로 불살라버린 이야기며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노예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 돌포장한 도로에 그들의 머리를 짓조긴 이야기며 사나이들이 기진해서 쓰러지면서도 압제자의 빵만은 먹으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어슴푸레하게 생각키웠다. 이 모든것이 에띠엔느를 흥분시켰고 불타는 희열이 침울한 슬픔을 누르고 일어섰고 의혹들이 사라졌다. 그리하여 그는 일시 비겁해졌던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에게는 예전의 그 확신이 되살아난 속에 갑자기 긍지가 생겼고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복종하는 지도자가 되는 기쁨, 자기 위력이 커지는 꿈, 승리하는 저녁에 대한 상상은 그를 더 높은 곳에 올려세웠다.

에띠엔느는 꿈에서 깨여나 몸을 흠칫 떨었다. 그는 자기의 운수좋은 고기잡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마여의 목소리를 들었던것이다. 마

여는 아주 훌륭한 송어를 잡아서 세프랑에 팔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먹을것이 생긴것이다. 에띠엔느는 마여에게 마을로 먼저 돌아가도록 이르고 자기도 뒤따라가겠노라면서 아방따즈에 들어가 식탁에 앉았다. 에띠엔느는 손님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자기가 쁠류샤르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곧 오도록 하겠다는것을 라스너르에게 명확하게 말했다. 드디여 그는 비공개회의를 조직할것을 결심했다. 그에게는 몽쑤의 탄부들이 대중적으로 인터나쇼날에 가입하면 승리가 확실해보였기때문이였다.

4

비공개회의는 목요일 낮 2시에 과부 데지르의 술집 봉 쥬와이어에서 열기로 되여있었다. 자기의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탄부들이 겪어야 할 가난에 분개한 과부는 특히 자기의 술집이 텅 비게 된 때로부터 불만이 커졌다. 아무리 파업이라지만 사람들이 이번처럼 술을 적게 마신적은 아직 한번도 있어본 일이 없었다. 주정뱅이들마저 신중하라는 지시를 위반할가 두려워 집에 그냥 붙박혀있었다. 장날마다 사람들이 득실거리군 하던 몽쑤도 아주 조용해졌고 길게 뻗은 넓은 거리는 침울하고 쓸쓸했다. 매대에서도 배속에서도 맥주가 한방울도 흐르지 않았고 도랑들도 말라버렸다. 거리의 술집 까지미르와 다방 쁘로그레에서는 녀주인들이 자기 집앞에 창백한 얼굴로 서서 근심어린 눈으로 길쪽을 바라보고있었다. 바로 몽쑤에서도 랑팡으로부터 시작해서 띠종까지, 삐께뜨, 뗴뜨 꾸뻬를 지나며 술집이란 술집은 죄다 련이어 텅 비였으며 감독들이 다니는 쌩 엘르와다방에서만 몇조끼씩 맥주가 팔리였다. 볼깡도 텅 비여서 녀인들은 일없이 앉아있었다. 어려운 시기를 고려하여 값을 10쑤에서 5쑤로 낮추었으나 그래도 손님은 없었다. 온 지역이 가슴을 허비는 슬픔에 휩싸였다.

《제기랄!》 하고 과부 데지르는 자기의 넙적다리를 탁 치면서 소리쳤다.

《이건 죄다 헌병들때문이야! 날 감옥에 가둘테면 가두라지. 놈들을 실컷 골려줄텐데!》

그에게는 당국이나 기업주가 다같이 헌병으로 되여있었다. 그는 모든 인민의 원쑤를 통털어 이러한 일반적인 경멸로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에띠엔느의 부탁을 들어 기꺼이 자기 집을 탄부들에게 내여주고 무도장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자신은 법이 요구하는대로 초대장을 사방에 띄우기로 했다. 법이 좋아하지 않으면 잘되였다. 그의 부르짖음을 듣게 될것이다. 이튿날부터 에띠엔느는 마을에서 글을 아는 사람들이 베껴쓴 약 50통의 초대장에 서명을 받기 위해 그한테로 가져왔다. 초대장들은 각 탄갱의 대표들과 믿을만 한 사람들에게 발송되였다. 명백한 일정은 파업을 계속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것이였다. 실지에 있어서 그는 쁠류샤르를 기다리고있었으며 그의 연설에 기대를 걸고있었다. 그의 연설을 들으면 로동자들이 인터나쇼날에 대중적으로 가입하리라고 타산한것이였다.

목요일 에띠엔느는 아침부터 불안에 싸여있었다.

그것은 그의 이전의 직장장인 쁠류샤르가 수요일 저녁에 오겠다고 전보를 보내왔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대관절 무슨 일이 생겼는가? 에띠엔느는 집회를 열기 전에 쁠류샤르와 합의를 볼수 없는것이 유감스러웠다. 에띠엔느는 9시가 되자 벌써 몽쑤로 떠났다. 그는 기계공이 보료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몽쑤로 갔을수도 있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아니요, 난 당신의 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하고 과부 데지르가 말했다.

《허지만 준비는 다됐어요. 어디 좀 들어가봐요.》

데지르는 에띠엔느를 무도장으로 안내했다. 장식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꽃테프로 천정밑에 종이꽃화환을 늘어뜨리고 벽에는 성자들의 이름을 쓴 마분지로 만든 금빛패쪽들이 붙어있었다. 오직 구석에 악사들의 연주대대신에 책상 하나와 의자 셋이 놓이고 그것들과 비스듬히 줄을 지어 장의자들이 놓였을뿐이였다.

《훌륭합니다.》 하고 에띠엔느가 말했다.

《그리고 말이예요.》 하고 과부가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여길 자기 집처럼 생각하세요. 얼마든지 떠들어도 좋아요! 헌병들이 오면 내가 말아 처리할테니까요.》

불안에 싸인 에띠엔느건만 젖가슴이 불룩 나온 우람찬 그를 보고서

는 웃음을 누를수 없었다. 소문에 의하면 지금 한주일에 여섯명의 사나이를 대상하는데 일이 바빠서 매일 저녁 두명씩 부른다는것이였다.
그런데 이때 라스너르와 쑤바린이 안으로 들어와서 에띠엔느는 깜짝 놀래였다. 과부는 거기서 물러갔다. 그리하여 텅 빈 방에는 그들 세사람만이 남았다.
《아니, 이건! 당신들이 벌써 왔소?》 하고 에띠엔느가 웨쳤다.
기계운전공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아서 쑤바린은 전날 밤 보료갱에서 야간작업을 했었다. 그는 그저 호기심에 끌려 와보았던것이다. 라스너르는 이틀전부터 기분이 좋지 않은것 같았다. 그의 피둥피둥한 얼굴에서는 사람좋은 웃음이 사라졌다.
《쁠류샤르가 오지 않아서 난 지금 걱정이 대단하오.》 하고 에띠엔느가 말했다.
《난 놀라지 않소. 난 그 사람을 더는 기다리지 않으니까.》 하고 술집주인은 눈길을 돌리고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기다리지 않다니?》
그러자 라스너르는 결심을 한듯 에띠엔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담하게 말했다.
《알고싶다면 말하지. 나도 그에게 편지를 썼소. 그리고 그에게 오지 말라고 했지.… 그렇소, 우리는 우리 일을 여느 사람에게 부탁할것이 아니라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에띠엔느는 성이 났다. 그는 분노로 해서 후들후들 몸을 떨었다. 그는 라스너르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떠듬떠듬 되뇌였다.
《당신이 그렇게 했군! 당신이 그렇게 했어!》
《암 그렇지, 내가 그렇게 했소! 내가 쁠류샤르를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지는 당신도 알게요! 그는 령리하고 믿을만 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의거할수 있소. 그러나 나는 당신네 사상과는 인연이 없소. 정치니 정부니 하는것은 내게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이요! 내가 바라는건 탄부들을 더잘 대우하는 일이요. 나는 스무해동안이나 땅밑에서 일을 했고 그동안에 너무나 가난을 맛보며 지칠대로 지쳐 막장에서 땀을 흘렸으므로 아직 그속에서 일하고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안락을 쟁취하려고 다짐했던거요. 당신들의 그 소동으로써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란걸 난 잘 아오. 도리여 당신들은 로동자들의 생활을 더 비참하게 할

게요. 로동자들이 굶주리다못해 또다시 입갱을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대우는 전보다 더 나빠질거요. 회사는 도망갔던 개를 우리에 몰아넣듯이 몽둥이찜질로 로동자들에게 앙갚음을 할게요. … 나는 바로 그러한 일을 허용하고싶지 않단 말이요, 알겠소?》

라스너르는 배를 내밀고 실한 두다리를 뻗치고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감성적이면서도 리성적인 사람으로서의 그의 모든 성격은 명백하고 풍부한 말을 헐하게 하는데서 표현되였다. 과연 이것이 무모한짓이 아니겠는가? 단번에 세계를 개조하고 로동자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사과를 나누듯이 돈을 골고루 나누어준다는것을 믿는다는것이 어리석지 않은가? 그것이 실현되려면 수천년이 걸릴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같은 말로 그를 시끄럽게 굴지 마시라! 제 코를 깨지 않으려거든 일을 잘 진척시켜 가능한 정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온갖 기회를 리용하여 근로자들의 운명을 개선하여야 한다. 지금의 경우도 제발 고집을 부려 모두 죽게 만들지 말고 회사로 하여금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것이 상책인것이다.

에띠엔느는 그의 말을 막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격분해서 한마디도 말을 할수 없었다.

《제기랄!》 에띠엔느는 드디여 이렇게 웨쳤다.

《그래 당신의 혈관속에선 피가 흐르오, 아니면 물이 흐르오?》

한순간 그는 라스너르의 뺨을 칠번 하였다. 에띠엔느는 그런 충동을 억제하느라고 방안을 성큼성큼 거닐면서 걸상에다 분풀이를 했다. 그리하여 걸상가운데로 통로를 만들었다.

《문이나 닫을것이지.》 하고 쑤바린이 말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야 없지 않소.》

쑤바린은 자신이 문을 쾅 닫고 돌아와서 조용히 책상앞에 앉았다. 그는 담배를 말면서 부드럽고 가느다란 눈길로 두사람을 쳐다보았다. 그의 입술에는 가벼운 조소가 떠돌았다.

《암만 성을 내도 소용이 없소.》 하고 라스너르는 훈시조로 말을 이었다.

《나는 처음에 임자가 똑똑한 젊은인줄 알았소. 임자가 그들에게 조용히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건 아주 잘한 일이요. 질서를 유지하는데 자기 권한을 리용한것은 잘했소. 그런데 이제와서 임자는 일을 망

치도록 그들을 부추기려 한단 말이요!》

에띠엔느는 여전히 긴 의자사이를 왔다갔다했다.

그는 술집주인한테 다가올 때마다 그의 량어깨를 붙잡고 흔들면서 얼굴에 대고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제길! 그러나 나는 평온하기를 바라오. 그렇소, 나는 그들을 규률에 복종케 했소!그렇소, 나는 지금도 그들에게 조용히 행동할것을 권하고있소! 그러나 궁극에 가서 우리를 우롱해서는 안된단 말이요. 당신은 그렇게 랭담하니 참 행복하오. 난 때때로 머리가 핑핑 돌아가오.》

이 말은 그로서의 고백이였다. 그는 자기의 햇내기환상, 형제가 된 사람들사이에 정의가 곧 지배하게 되는 한심한 종교적꿈을 비웃었다.

사람들이 마지막 죽는 날까지 승냥이처럼 서로 물어뜯는양을 보고 싶다면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것이다! 아니다! 투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의는 영원히 존재할것이며 부자는 빈자의 피를 계속 빨아먹을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언젠가 사회문제에서 정치를 제외해야 한다고 한 어리석은 발언을 용서할수 없었다. 그때 그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후에 많은것을 읽고 많은것을 배웠다. 이제 그의 사상은 무르익었고 그는 체계가 섰다고 자부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체계를 그릇되게 해석하였다. 그가 읽은 모든 리론이 뒤범벅이 되여있었다. 그 모든 리론들중에서도 자본은 착취의 산물이며 로동은 략탈당한 재부를 되찾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칼 맑스의 사상이 역시 지배적이였다. 그는 실천에 있어 첫시기에는 온갖 중개자를 없애게 할 대규모의 교환은행과 호상 신용대부에 대한 망상에 유혹되여 프루동을 지지했었다. 다음에 라쌀이 주장한 지구를 점차 유일한 산업도시로 전변시켜 국가가 만들어놓은 협동사회에 열중하였다. 그것은 그 통제가 어려우리라는 혐오감이 그에게 떠오를 때까지 계속되였다. 최근에 와서 그는 집단주의에 접근하여 모든 생산수단을 집단에 넘길것을 요구하게 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꿈도 막연한것이였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것인가를 몰랐다. 아직 감수성과 리성으로부터 오는 소심성이 그를 방해하였다. 광신적신봉자들이 절대적으로 따르는 모험을 할 용단을 내리지 못했던것이다. 그는 단순하게 무엇보다도먼저 정권을 쟁취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

다음에 볼것이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어째서 부르죠아편으로 넘어가오?》

에띠엔느는 다시금 술집주인앞에 와서 멈춰서서 노발대발하여 말을 이었다.

《당신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것이 끝장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소?》

라스너르는 얼굴을 약간 붉혔다.

《그렇소, 난 그렇게 말했소. 그리고 모든것이 끝장나게 될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겁하지 않다는것을 보게 될게요. … 허지만 나는 자기 개인의 그 어떤 지위를 쟁취하고저 무질서를 격화시키는 사람과 손을 잡고 나가고싶진 않소.》

이번에는 에띠엔느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은 더는 소리를 치지 않았으나 그들의 이야기는 신랄해지고 악의에 차있었다. 두사람은 상대방의 쌀쌀한 태도에 압도되여있었다.

실은 이 점이 그들 두사람을 두 극단에로 멀어지게 했던것이다. 한사람은 혁명을 과장하게 했고 다른 한사람은 신중한 태도를 꾸미게 만들었다. 이것은 또한 그들자신도 모르게 저들의 진짜견해를 벗어나 본의아닌 숙명적인 역을 놀게 하였다. 쑤바린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금발머리처녀같은 얼굴에는 말없는 경멸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수난자의 영예도 얻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목숨을 희생할 준비가 되여있는 인간의 경멸이였다.

《그래 당신은 날 두고 하는 말이요?》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샘이 나오?》

《무엇이 샘난단 말이요?》 하고 라스너르가 대꾸했다.

《난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내세우지도 않으며 몽쑤에 분회를 세우고 그 비서로 되려고 분주히 돌아치지도 않아.》

에띠엔느가 그의 말을 막으려고 했으나 라스너르는 또 덧붙였다.

《그런즉 솔직하오! 임자는 인터나쇼날에는 아무 상관도 없소. 그저 지도자연하고 대단한 인물인체 하고 유명한 북부련맹과 서신거래를 하려는거지.》

침묵이 흘렀다. 에띠엔느가 몸을 떨면서 입을 뗐다.

《그래 좋소. … 나는 자신을 탓할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소. 나

는 매양 당신과 협의를 해왔소. 나는 당신이 내가 여기로 오기 전에 벌써 오래동안 이 고장에서 투쟁을 했다는것을 알기때문이였소. 그러나 당신은 누가 자기와 나란히 또 있는것을 참지 못하는구려. 좋소, 앞으로 나는 혼자서 행동할테요. … 무엇보다먼저 당신에게 예고하지만 쁠류샤르가 오지 않아도 회의는 어차피 열릴것이고 당신이 반대를 해도 동무들은 인터나쇼날에 가입할게요.》

《그들이 가입한다고 일이 다 되는건 아니요.》 하고 술집주인이 중얼거렸다.

《그들로 하여금 맹비를 내게 해야 할게요.》

《전혀 그렇지 않소. 인터나쇼날은 파업로동자들에게는 기한을 연기해주는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에 납부하면 된단 말이요. 지금은 인터나쇼날자신이 우리를 도와주러 올게요.》

라스너르는 갑자기 발끈했다.

《좋소, 어디 보기요! 난 임자네 회의에 참가하여 토론하겠소. 난 임자가 동무들을 기만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참된 리익을 설명해줄테요. 그들이 누굴 따르나 보기요. 그들이 30년전부터 알고있는 날 따르나 1년도 못되는 사이에 모든걸 혼란시킨 당신을 따르나 보잔 말이요. 아니요, 아니요! 닥치시오. 이제 누가 누구를 물리치는지 어디 보자구!》

그리고 라스너르는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갔다. 천정에 내리드리운 꽃테프와 벽에 붙은 금빛패쪽들이 흔들거렸다. 그리고 넓은 방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쑤바린은 식탁앞에 앉아서 부드러운 기색으로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에띠엔느는 얼마동안 잠자코 왔다갔다한 후 진정되였다. 이 뚱뚱한 건달군을 오게 한것이 자기 잘못인가?

그는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애썼다는것을 부인하였다. 그는 지금 온 마을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탄부들이 신임해주고 그들속에서 권한이 생기게 된 이 모든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조차 몰랐다. 야심으로 해서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는 비난은 에띠엔느를 격분케 했다. 그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우애심을 주장했다.

갑자기 그는 쑤바린의 앞에 뚝 멈춰서서 웨쳤다.

《여보게, 이것이 어느 한 동무에게 한방울의 피라도 흘리게 한다

면 난 당장 아메리카로 도망가겠네!》
기계공은 어깨를 으쓱하고 또다시 입술에 미소를 띠웠다.
《오!》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소? 대지는 피를 요구하오.》
에띠엔느는 마음을 진정하고 의자를 끌어다가 쑤바린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앉아 식탁에 팔꿈치를 짚었다. 이따금 붉은빛이 번뜩이며 야생적으로 보이는 공상적인 두눈과 더불어 그의 금발머리얼굴은 에띠엔느를 불안케 하였고 그의 의지에 일정한 작용을 했다. 동료가 말이 없어 그 침묵마저 그를 끌어당겨 점차 마음을 사로잡는다는것을 그는 느꼈다.
《어때?》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임자가 내 립장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나? 과연 내가 행동에로 호소하는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좋기는 협회에 가입하는거네. 안 그런가?》
쑤바린은 천천히 입에서 담배연기를 내뿜으면서 늘 즐겨하는 말로 대꾸를 했다.
《어리석은짓이야! 그러나 초기에는 그것이 역시 필요해.… 더우기 그들의 인터나쇼날은 머지않아 제 솜씨를 보여줄거야. 그이가 그것을 맡아보네.》
《누가 말인가?》
《그이 말이지!》
쑤바린은 동쪽으로 시선을 던지면서 종교적인 열광을 띤 표정으로 낮게 말했다. 그것은 자기 스승인 무정부주의자 바꾸닌을 두고 한 말이였다.
《그이만이 결정적타격을 줄수 있어.》 하고 쑤바린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진화설을 주장하는 임자네 학자들은 겁쟁이들이구… 세해가 못 가서 인터나쇼날은 그이의 지도밑에 낡은 세계를 파멸시킬거네.》
에띠엔느는 아주 주의깊게 귀를 기울였다. 지식욕에 불타는 그는 기계공이 이따금 뇌까리는 파괴숭배사상을 파악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쑤바린은 자기만이 그 비밀을 간직하려는듯이 이야기를 애매하게 했다.

《결국 자네 목적은 무엇인지 내게 좀 설명해주게.》
《모조리 파괴하는거야. 민족도 정부도 소유도 신도 우상화도 있어선 안된단 말이네.》
《알겠어.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아무런 형식도 없는 원시공동체로, 새 세계로 이르게 하고 모든 것이 새로이 시작되게 한단 말이네.》
《그러면 수행방도는? 자넨 어떻게 시작하려나?》
《수단이란 불과 독약과 칼이네. 강도는 진짜 영웅이고 인민의 복수자이고 책에서 빌려온 문구따위는 모르는 실천적혁명가이지. 일련의 폭력적행동으로 유력자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인민을 각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네.》
쑤바린은 이렇게 말하면서 무서운 모습을 띠였다. 그는 흥분해서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의 흐릿한 눈에서는 야릇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여윈 손으로 식탁이 부서져라하고 모서리를 힘있게 움켜잡았다. 에띠엔느는 공포에 싸여 쑤바린을 쳐다보았다. 그는 쑤바린이 자기에게 하던 비밀에 속하는 이야기들을 상기했다. 짜리궁전밑에 굴을 뚫고 묻은 폭탄이야기며 메돼지처럼 칼로 찔러죽인 경찰서장의 이야기며 그가 사랑하는 안해가 어느 비오는 날 아침 모스크바에서 교수형을 당할 때 군중속에 끼여 눈짓으로 마지막포옹을 했다는 이야기 등을 상기했다.
《아니야, 아니야!》 하고 에띠엔느는 무서운 유령이라도 내쫓듯이 팔을 내저으면서 말했다.
《우린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 살인, 방화… 절대로 안돼! 그건 소름이 끼치는 일이야, 그건 소름이 끼치는 일이야. 그건 옳지 않아. 모든 동지들이 일어나서 범죄자들의 목을 조이게 될거네!》
그는 쑤바린의 이야기를 여전히 리해하지 못했고 대밑까지 베여버린 보리밭처럼 세계를 전멸시킨다는 애매한 공상을 자기류로서는 받아들일수 없었다. 파괴한 다음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인민들을 어떻게 추동할것인가? 에띠엔느는 대답을 요구했다.
《임자의 계획을 설명해주게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싶네. …》
쑤바린은 깊은 생각에 잠긴듯 한 시선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대답했다.

《미래에 대한 어떠한 추리도 다 죄악이야. 그것은 완전한 파괴를 방해하고 혁명의 전진을 저지시킬뿐이야.》

에띠엔느는 이러한 대답을 듣고 소름이 끼쳤으나 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에띠엔느는 무척 단순한 까닭에 그의 마음을 끈 이 사상에는 그자체로서 좋은 측면이 있다는것을 인정할 용의도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해주면 다만 라스너르에게 절호의 기회를 줄수 있었다. 실천적인것이 문제였던것이다.

과부 데지르는 점심식사를 하라고 권했다. 그들은 사의를 표하고 식당칸으로 건너갔다. 여느날에는 이 방을 이동식칸막으로 무도장과 갈라놓았다. 닭알부침과 치즈를 먹고나서 기계공이 돌아가려고 할 때 에띠엔느는 그를 붙잡았다.

《무슨 소용있나?》 하고 쑤바린이 대꾸했다.

《쓸모없는 어리석은 소리를 들으려고!… 난 그걸 진절머리가 나도록 보았네. 잘있게!》

그리고 쑤바린은 여느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고집스러운 태도로 권연을 피워물고 돌아갔다.

에띠엔느의 불안은 커갔다. 벌써 오후 1시였다. 쁠류샤르는 확실히 약속을 어긴것 같았다. 1시반이 되자 대표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에띠엔느는 그들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회사에서 여느때처럼 밀정을 보내지 않을가 우려되여 문간에 서서 살피려는것이였다. 에띠엔느는 초대장을 한장한장 검열하고 얼굴들을 주의깊게 살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장이 없이 나타났다.

에띠엔느는 자기가 알고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들여보냈다. 시계가 2시를 쳤을 때 그는 라스너르가 온것을 보았다. 그는 매대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대통의 담배를 다 피웠다. 조소가 섞인듯 한 그의 태연한 태도는 에띠엔느의 약을 올렸는데 자샤리며 무께며 다른 장난군들이 순 장난을 하려고 나타난것으로 해서 그의 격분은 더 커졌다.

그들은 파업과 상관이 없었으며 일을 하지 않는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식탁에 앉은 그들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두쑤짜리 맥주 한조끼를 청하고 히히덕거리면서 확신을 품고 파업을 하고있는 동료들을 희롱하고있었다. 그들은 지루하여 입을 다물게 될것이였다.

15분이 또 지났다. 방에서는 초조해하였다. 그래서 실망한 에띠엔느는 결심한듯 한 몸짓을 해보였다. 에띠엔느가 막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찰나 밖을 내다보고있던 과부 데지르가 부르짖었다.

《저기 와요, 당신이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 말예요.》

정말 그는 쁠류샤르였다. 그는 헐떡거리는 말에 메운 마차를 타고 왔다. 몸이 가늘고 희멀쑥한 그는 포석도로우에 뛰여내렸다. 모가 난 머리가 지나치게 큰 그는 검은색라사직코트밑에 부유한 나들이옷차림을 하고있었다. 그는 벌써 다섯해째 줄칼을 들지 않았는데 자기의 외관에 무척 류의하여 류달리 머리에 빗질을 했으며 자기의 웅변의 성과를 몹시 뽐내였다. 그러나 그의 팔다리는 뻣뻣한채로 남아있었고 그의 큼직한 손의 손톱들은 쇠에 닳아서 자라지 않았다. 활동적이고 야심가인 그는 부단히 지방을 돌아다니며 자기의 사상을 선전하였다.

《내가 이렇게 늦었다고 책하지 말게.》 그는 질문과 비난을 밀막으려고 이렇게 말했다.

《어제 아침엔 프렐리에서 강연이 있었고 저녁엔 발랑싸이에서 회의가 있었네. 오늘은 마르쉬엔느에서 쏘반나와 함께 점심을 했지. 그래도 마차를 살수 있었네. 나는 지쳤네. 목소리를 들어보게나. 그러나 일없어. 어쨌든 이야기는 하겠네.》 봉—쥬와이어에 들어가다말고 그는 다시 생각했다.

《제기랄, 맹증들을 잊었군! 순결한 우리뿐이겠는데.》

그는 마부가 지금 막 고간에 넣으려고 하는 마차에 되돌아가서 검은 나무로 만든 작은 함을 트렁크에서 꺼내여 겨드랑이에 끼였다.

에띠엔느는 희색이 만면하여 그의 뒤로 따라갔다. 깜짝 놀란 라스너르는 감히 인사도 하려고 하지 못했다. 그러나 쁠류샤르자신이 그에게로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편지에 대하여 서둘러 겨우 한마디하였다.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생각인가? 어째서 집회를 조직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할수만 있다면 언제나 집회를 조직해야 한다! 과부 데지르가 요기를 좀 하라고 권했지만 쁠류샤르는 거절했다. 필요없다! 그는 마시지 않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것이다. 그는 바빴다. 저녁까지 쥬아젤에 가서 러구제와 상론해야 하기때문이였다. 모두 욱 밀려 무도장으로 들어왔다. 마여와 레바끄는 늦어서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마음놓고 말하도록 문에는 쇠를 걸었다. 롱담군들은 그것을

두고 더욱 큰소리로 조롱했다. 자샤리는 무께에게 그들이 분명 그안에서 아이를 만들려는 모양이라고 웨쳤다.

백여명의 탄부들이 장의자에 앉아 기다리고있었다. 공기가 탁했다. 바닥에서는 마지막무도회밤의 열기가 풍겼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 온 사람들이 빈자리를 차지할 때 모두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릴르에서 온 이 선생은 검은 코트를 입은것으로 해서 놀라움과 어색함을 자아냈다.

그러나 에띠엔느의 제의에 따라 곧 집행부가 구성되였다. 그가 이름을 부르면 참가한 사람들은 찬성을 표시하여 손을 들었다. 의장으로 쁠류샤르가 선출되고 마여와 에띠엔느자신은 집행부 성원으로 되였다. 의자들이 움직였다. 집행부가 자리를 차지한것이였다. 사람들은 순간 식탁뒤로 사라진 의장을 찾았다. 알고보니 그는 몸에서 떼여놓지 않는 함을 식탁밑에 놓기 위해 몸을 수그렸던것이다. 그는 일어서자 주의를 집중시키느라 주먹으로 식탁을 가볍게 두드리고 갈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때 작은 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는 잠시 말을 끊지 않으면 안되였다. 과부 데지르가 부엌으로 에돌아 여섯조끼의 맥주를 쟁반에 들고 왔다.

《어서 계속하세요.》 하고 과부 데지르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목을 추기고싶은거예요.》

마여가 그에게서 쟁반을 받았다. 쁠류샤르는 말을 계속할수 있었다. 그는 몽쑤의 로동자들이 자기를 환영해주는데 지극히 감동되였다고 말하고 피로하고 목이 아파 자기가 늦어진것을 사죄했다. 그다음에 그는 발언을 요구한 라스너르씨에게 언권을 주었다.

라스너르는 이미 맥주조끼를 놓은 식탁옆에 서있었다. 등받이를 군중쪽으로 돌린 의자가 그의 연탁이였다. 라스너르는 무척 감격한것 같았다. 그는 기침을 깆고나서 큰소리로 말을 했다.

《동무들!…》

그가 로동자들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된것은 말을 잘하고 여러시간 지칠줄 모르고 말하는 친절성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는 전혀 손짓을 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미소

를 짓고있었다. 그는 모두가 한사람처럼 《옳소, 옳소. 그게 사실이요. 당신말이 옳소.》 하고 웨칠 때까지 그들을 쥐락펴락하였다. 그러나 이날은 그가 첫마디를 떼면서부터 말없는 반박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조심하여 말하게 되였다. 그는 인터나쇼날을 건드리기에 앞서 파업을 계속하는 문제만을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지지해주기를 기다렸다. 물론 회사의 요구에 양보하는것은 명예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오래동안 버티여야 한다면 어떤 빈궁과 무서운 앞날이 닥쳐올것인가! 라스너르는 굴복할것을 주장하지는 않으면서 로동자들이 용기를 잃게 하려고 했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굶어죽는 정경을 묘사하고 파업의 선각자들이 어떠한 원조를 기대하고 있는가고 물었다. 서너명의 친구들이 라스너르의 말에 찬성을 표시하려고 했다. 대다수 사람들의 침묵과 점차 격분하여 그의 말을 대하는 반감은 더해졌다. 그렇게 되자 라스너르는 그들을 다시 쟁취하려던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여 격노해서 만약에 탄부들이 남의 선동에 넘어가면 불행을 겪게 되리라고 예언하였다.

참가자들의 3분의 2는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다. 그것은 라스너르가 그들을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대함으로써 모욕을 했기때문이였다. 라스너르는 맥주를 꿀꺽꿀꺽 마시고나서 모두가 떠들어대는 가운데 자기 임무수행을 방해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요란스레 웨쳤다.

쁠류샤르가 일어났다. 종이 없으므로 그는 주먹으로 식탁을 두드리고 갈린 목소리로 《여러분… 여러분…》 하고 되풀이했다.

드디여 그는 군중으로 하여금 얼마간 조용하게 할수 있었다. 협의끝에 집회는 라스너르에게서 언권을 박탈하였다. 굶주림으로 악에 받친 로동자들은 지배인과 회담을 했던 대표들의 영향으로 머리속에 새로운 사상이 생겨났다. 결국 모든것은 미리 결정된셈이였다.

《당신은 모든것이 꿈만 할거요, 당신은 먹을것이 있으니깐!》

레바끄가 라스너르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으르렁대였다.

에띠엔느는 의장의 등뒤로 몸을 굽히고 술집주인의 위선적인 연설을 듣고 노해서 얼굴을 붉히고있는 마여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여러분.》 하고 쁠류샤르가 말했다.

《저에게 언권을 주십시오.》

그가 말을 시작하자 물을 뿌린듯이 조용해졌다.
그의 쉰 목소리는 겨우 밖으로 울려나왔다. 그러나 그는 자기 계획에 따라 후두염에 걸린 목으로 늘 분주히 뛰여다니면서 이에 습관되여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져 감동적인 어조로 울렸다. 그는 두팔을 벌리고 때에 따라 어깨까지 흔들면서 설교나 하는듯 한 능란한 말재간을 가지고있었다. 종교식으로 말끝을 낮추어 단조롭게 울리는 그의 말은 사람들을 끝내 설복하군 하였다.
그는 인터나쇼날의 방대한 규모와 그로부터 입게 되는 혜택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자기가 처음으로 맞다들리는 지역에서는 우선 이것부터 설명했다.
그는 이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 로동자들을 해방하는데 있다는것을 설명하고 아래에는 시, 그우에 주, 또 그우에 전국 그리고 수위에 전인류를 대표하는 인터나쇼날의 요란한 조직구조를 알려주었다.
그의 손은 천천히 움직여 앞으로 세우게 될 그 세계의 웅장한 대사원을 한층한층 쌓아올리는것 같았다. 다음에 그는 내부운영문제로 넘어갔다. 그는 규약을 읽고 대회며 협회의 커가는 의의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임금을 론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임금제를 끝장내기 위한 사회적청산문제를 다루게 된 폭이 넓어진 강령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민족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것이며 전세계의 로동자들은 정의에 대한 공통적인 요구로부터 단결하여 퇴폐한 부르죠아를 쓸어버리고 일하지 않는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유의 사회를 건설할것이다!
그는 웨쳤다. 연기에 그을린 천정밑에 있는 종이꽃들이 그의 숨결에 흔들리는것이 천정이 내려앉아 그의 목소리를 집어삼킬것 같았다. 탄부들은 흥분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옳소, 그 말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하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쁠류샤르는 말을 이었다. 세해가 못 지나서 세계는 정복될것이다. 그는 전취한 인민들을 쭉 들었다. 사방에서 조직에 가입하겠다는 청원이 들어오고있다. 그 어떤 새로운 교리도 아직 그만한 신봉자들을 가진적이 없다. 그리하여 후일에 그들이 주인이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법령을 고용주들에게 강요하여 그들을 굴복시킬것이다.
《옳소! 옳소!… 그들자신이 탄갱에 내려가서 일하게 합시다!》
쁠류샤르는 몸짓으로 조용할것을 요구했다. 다음에 그는 파업문제

로 넘어갔다. 대체적으로 그는 그것을 찬성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지나치게 완만한 수단인것이다. 그것은 로동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킬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피한것으로 될 때에는 파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파업은 자본을 붕괴시키는 우월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인터나쇼날은 파업자들의 보호자로 된다. 례를 들면 빠리에서 동제련공들의 파업때에 인터나쇼날이 파업자들에게 구제금을 보낸다는 소식에 기업주들은 겁을 먹고 즉시 양보했다. 런던에서는 광주가 모집해온 벨지끄로동자들을 인터나쇼날이 자기 비용으로 귀국시켜 파업한 탄부들은 구원되였다. 기업주들을 전률케 하기 위해서는 인터나쇼날에 가입하는것으로써 넉넉하다. 로동자들은 자본주의사회의 노예로 남아있기보다 차라리 동무들을 위해 죽기로 결심하고 근로자대군의 대렬에 들어간다.

박수소리가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쁠류샤르는 마여가 권하는 맥주조끼를 굳이 거절하면서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가 다시 말을 이으려고 하는데 박수소리가 또다시 그를 막았다.

《다 됐소!》 하고 쁠류샤르는 에띠엔느에게 급히 말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만하면 충분하오. … 맹증을 빨리 이리 주오!》

그는 식탁밑에 몸을 수그리고 검은 함을 꺼내놓았다.

《여러분!》 하고 그는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누르면서 크게 웨쳤다.

《여기 맹증이 있습니다. 대표들이 나와주시오. 나는 대표들에게 이 맹증을 내주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들이 그것을 당신들에게 나누어 줄겝니다… 나머지수속은 우리가 후에 하지요.》

라스너르가 또 반대를 하려고 앞으로 뛰여나왔다. 에띠엔느도 연설을 하려고 일어났다. 대혼란이 일어났다. 레바끄가 싸움이라도 하려는듯이 주먹을 앞으로 내밀었다. 마여가 일어서서 뭐라고 말을 했으나 한마디도 알아들을수 없었다. 혼란은 더 커지고 바닥에서는 전번 무도회때의 먼지가 일어 운반공들과 난봉군들의 코를 찌르는듯 한 냄새로 방안공기를 오염시키는것 같았다.

갑자기 작은 문이 열리였다. 과부 데지르가 자기의 온몸으로 문이 비좁게 비비고 나타나서 쟁쟁 울리는 목소리로 웨쳤다.

《제발 조용들 하세요!… 헌병들이 와요!》

헌병대장이 나타났다. 그는 조서를 꾸미고 집회를 해산시키려고 네명의 헌병을 데리고 뒤늦게 나타난 군경찰서장이였다. 과부는 5분동안이나 그들과 문앞에서 롱담을 하면서 이것은 자기 집이기때문에 자기가 친구들을 부르는것을 누구도 말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밀쳐버렸다.

그래서 과부 데지르는 젊은이들에게 알려주려고 달려왔던것이다.

《이 문으로 몰래 빠져나가야 되겠어요.》 하고 그가 말을 이었다.

《악당같은 헌병놈이 마당을 지키고있지만 그쯤은 대수롭지 않아요. 나무헛간이 골목으로 통해요, 어서 빨리요!》

경찰서장은 벌써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있었다.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는 문을 부시겠다고 위협을 했다. 그 어떤 밀정이 밀고한것 같았다. 그것은 그가 집회가 비법적이며 많은 로동자들은 초대장도 없이 왔다고 소리쳤기때문이였다.

한편 방안의 혼란은 더 심해졌다. 그대로 물러갈수는 없었다. 그들은 협회가입문제나 파업을 계속할 문제에 대하여 아직 투표를 하지 못했던것이다. 모두가 일시에 입을 열었다. 드디여 의장은 손을 들어 가결할 생각이 들었다. 손들을 들었다. 대표들은 자기들이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동무들의 이름으로 가입한다는것을 바삐 언명했다. 그리하여 몽쑤의 1만명탄부들이 인터나쇼날의 맹원으로 되였다.

모두들 급히 헤여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물러가는것을 보장하기 위해 과부 데지르는 헌병들이 총탁으로 세차게 들이치는 문을 등으로 버티고있었다. 탄부들은 줄지어 장의자를 뛰여넘고 부엌과 나무헛간을 지나서 빠져나갔다. 라스너르는 제일먼저 사라진 사람들중의 하나였다. 자기가 하던 욕설을 잊어버린 레바끄가 그의 뒤를 따랐다. 지금 그는 기운을 내기 위해 맥주를 한조끼 마실 생각을 하였다. 에띠엔느는 조그마한 함을 꽉 쥐고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는 쁠류샤르며 마여와 함께 모두가 다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체면상 마지막으로 물러가야 한다고 생각한것이였다. 그들이 떠나가자 빗장이 벗겨졌다. 경찰서장은 젖가슴과 배로 막아나선 과부와 맞서게 되였다.

《당신들은 우리 집을 몽땅 부셔놓고도 소득이 없군요!》 하고 과부가 말했다.

《보시오, 아무도 없소.》

참사에 싫증이 난 사나이인 경찰서장은 그저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과부를 위협할뿐이였다. 그리고 그는 조서나 꾸미려고 가버렸다. 네명의 헌병들은 자샤리와 무께의 조소를 받으면서 서장의 뒤를 따라 나갔다. 자샤리와 무께는 동무들이 꾸민 훌륭한 연극에 감탄하면서 무장한 경찰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거치장스러운 작은 함을 가지고 밖에 나와 골목에 들어선 에띠엔느를 다른 사람들이 따랐다. 갑자기 그는 삐에롱을 상기하고 어째서 그가 보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마여는 달려가면서 삐에롱은 앓고있는데 그의 병은 체면이 깎이울가보아 두려워서 앓는 꾀병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쁠류샤르를 더 붙들어두려고 했으나 그는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러구제가 자기의 지시를 기다리고있기때문에 쥬아젤에 곧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그와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모두 급한 걸음을 늦추지 않고 몽쑤를 가로질러갔다. 탄부들은 숨이 턱에 닿아 이따금 띠염띠염 말을 주고받았다. 에띠엔느와 마여는 앞으로의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의 웃음을 지었다. 인터나쇼날이 원호금을 보내오기만 하면 회사측이 작업에 나와주십사고 그들에게 애걸하게 될것이다. 이렇게 솟구치는 희망과 포석도로를 울리는 신발소리속에는 또한 그 어떤 알지 못할 음산하고 무서운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이 지방 곳곳에서 마을들을 휩쓸 폭력이였다.

5

두주일이 또 지났다. 정월초였다. 가없는 벌판은 차거운 안개속에 얼어있었다. 그런데 궁핍은 더욱 심해졌고 마을들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죽을 지경이 되였다. 인터나쇼날이 런던에서 보내온 4천프랑의 돈은 겨우 사흘분의 빵값밖에 안되였다.

다음에는 아무것도 오는것이 없었으며 크낙한 희망은 실현되지 않아 사기가 떨어졌다. 형제들마저 그들을 버리니 이제는 누구를 믿는단 말인가? 세계로부터 고립된 그들은 한겨울에 갈길을 잃은것 같은 감을 느꼈다.

화요일에 뒈 쌍 까랑뜨마을에서는 마지막예비가 동이 났다. 에띠엔

느와 대표들은 활약을 했으나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도시들과 지어는 빠리에까지 기부금을 청했고 의연금을 모집했으며 협의회들을 조직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

처음에 격동되였던 사회여론도 파업이 질질 끌게 되고 흥분할만 한 극적사건도 없이 아주 평온하게 진행되자 무관심해졌다. 얼마 안되는 희사금은 가장 곤난한 가정들을 도와주는데나 겨우 자랐다.

다른 사람들은 옷가지들을 저당잡히고 가장집물들을 하나둘 팔아서 생활을 유지했다. 침대깔개에 넣었던 털, 식기를 비롯해서 지어는 가구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고물상으로 나갔다. 그들은 잠시나마 구원이 된듯이 느껴졌다.

메그라와의 경쟁에서 파산된 몽쑤의 소상인들이 그에게서 고객을 빼앗으려고 외상을 주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옹근 한주일동안 베르동끄식료상점주인과 까르블과 스멜땡 두 빵집주인은 실제로 상점을 경영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재고품도 거덜이 나서 그들 셋은 문을 닫았다. 집달리들이 이것을 좋아하였고 탄부들은 오래동안 빚에 눌려 고통을 겪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어디서도 외상을 주지 않았고 내다팔만 한 헌 남비같은것도 없이 되였다. 병든 개처럼 한구석에 엎드려서 죽을수밖에 없었다.

에띠엔느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그동안 봉급을 받아 저축해두었던 돈을 다 바치고 자기의 바지와 라사직코트를 마르쉬엔느에 가지고 가서 저당을 잡혔다. 그는 마여네가 아직 무엇을 끓이는것을 다행으로 여기고있었다. 장화만이 그에게 남아있었다. 발이 든든해야겠기에 그것을 보존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가 실망한것은 호상부조금고에 돈을 채울 사이가 없이 너무 일찌기 파업이 시작된 사실이였다. 이 점을 에띠엔느는 불행의 유일한 원인으로 보았다. 로동자들에게 항거에 필요한 돈이 저축되여있었던들 그들은 의심할바없이 고용주들을 타승했을것이기때문이였다. 에띠엔느는 호상부조금고의 첫 자금을 없애버리려고 회사가 파업에 추동했다고 회사를 비난하던 쑤바린의 말을 상기했다.

에띠엔느는 빵도 없고 땔것도 없는 탄갱마을과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편할수 없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멀리 산보하면서 피로

해지는것을 좋아하였다. 언젠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레끼아르의 옆을 지나다가 길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한 로파를 발견했다. 틀림없이 그는 영양실조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로파를 안아올린 후에 울타리뒤에 보이는 한 처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 무께뜨요!》 하고 그는 무께뜨를 알아보고 말을 건넸다.

《날 도와주오. 이 할머니에게 뭘 좀 마실것을 드려야겠어.》

눈물이 날 지경으로 동정이 간 무께뜨는 곧 페허속에 자기 아버지가 지어놓은 오막살이로 달려갔다. 그는 향나무술과 빵쪼각 하나를 들고 이내 달려왔다. 술은 로파의 의식을 회복시켰다. 로파는 아무말 없이 게걸스럽게 빵을 씹었다. 그 로파는 꾸니쪽마을에 사는 어느 한 탄부의 어머니로서 단 10쑤의 돈이라도 꾸어볼가 하여 쥬아젤에 있는 동생의 집을 찾아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쓰러졌던것이다. 로파는 허기증을 면하고나서 떠나갔다.

에띠엔느는 무너진 창고들이 가시나무에 덮인 레끼아르의 공지에 그냥 서있었다.

《그래 어때요. 좀 들어와서 한잔 마시지 않겠어요?》 하고 무께뜨가 쾌활하게 물었다.

에띠엔느가 망설이는것을 보자 《역시 날 무서워하는군요?》 하고 무께뜨가 말을 이었다.

에띠엔느는 무께뜨의 웃음에 끌려 그를 따라갔다. 에띠엔느는 로파에게 빵을 가져다준 무께뜨의 선의에 감동되였다. 무께뜨는 아버지의 방에 손님을 모시고싶지 않아서 에띠엔느를 자기 방으로 안내하고 곧 향나무술을 두개의 작은 고뿌에 따랐다. 에띠엔느는 방안이 아주 깨끗하다고 무께뜨를 칭찬했다.

처녀의 가정은 조금도 살림이 옹색한것 같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보료갱에서 마차군으로 일했고 무께뜨자신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가 싫어서 내의를 빨러 다녔는데 하루에 30쑤의 돈을 벌었다. 그는 사나이들과 놀기는 했으나 결코 게으름뱅이라고는 할수 없었다.

《저.》 하고 무께뜨가 갑자기 상냥스럽게 에띠엔느의 허리를 그러안으면서 속삭였다.

《말해봐요, 어째서 날 사랑하기 싫어해요?》

에띠엔느도 웃음을 참을수 없었다.

처녀가 너무나 상냥스러운 말로 물었기때문이였다.

《난 정말 무척 사랑하는데.》 하고 에띠엔느는 대답했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내가 바라는만치 그렇게 사랑해주지는 않아요. … 난 막 안타까와 죽을 지경이예요. 어때요? 사랑해주면 정말 난 얼마나 기쁠가요?》

그것은 사실이였다. 무께뜨는 반년동안이나 에띠엔느에게 사랑을 요구했다. 에띠엔느는 계속 그 처녀를 쳐다볼뿐이였다. 그에게 바싹 붙으며 떨리는 두팔로 그를 껴안고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얼굴을 쳐든 처녀는 에띠엔느를 몹시 감동시켰다. 석탄때문에 누르스름해진 처녀의 살진 얼굴은 전혀 고운데가 없었으나 두눈은 타오르는 불처럼 빛났고 피부는 매혹적이였다. 정욕으로 몸을 떨고있는 그는 빨갛게 상기되고 젊음에 넘쳐있었다.

그리하여 에띠엔느는 그처럼 소박하고 열렬한 사랑을 거절할수 없었다.

《동의했군요!》 하고 무께뜨는 기뻐서 속삭였다.

《당신은 동의했지요?》

그리하여 무께뜨는 전에는 아직 아무도 다른 남자를 몰랐으며 이제 처음으로 그런 일을 겪는 숫처녀인양 당황해하면서 어색하게 그에게 몸을 맡겼다. 에띠엔느가 돌아갈 때 무께뜨는 감사의 정에 넘쳐 고맙다고 하면서 그의 두손에 입을 맞추었다.

에띠엔느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저으기 부끄러웠다. 무께뜨를 점령했다는것을 자랑으로 여길수는 없었다. 그는 돌아오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맹세했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그에 대한 그리운 회상을 간직하게 되였다. 그는 친절한 처녀였다.

에띠엔느는 마을로 돌아오자 중요한 소식을 듣고 이 일을 잊어버렸다. 대표들이 다시 지배인과 교섭하면 회사는 아마도 양보할것이라는 소문이 돌고있었다. 하여튼 감독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린것이였다. 벌어진 싸움에서 탄광측이 탄부들보다 더 손해를 보고있는것은 사실이였다.

쌍방이 완고하여 파멸만 겹쌓였다. 로동자들은 굶주려 죽게 되였다면 자본은 파괴되고있었다. 파업은 매일 수십만프랑의 손해를 가져왔

다. 멈춰진 기계는 죽은 기계와 같다. 자재와 기계설비가 못 쓰게 되였고 사장된 자금은 모래속에 물이 스며들듯이 사라져갔다. 탄갱창고속에 남아있던 얼마 못되는 석탄예비는 떨어져서 고객들은 벌써 벨지끄에서 석탄을 사와야겠다고 말들을 하고있었다. 이것은 앞날에 대한 위협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회사를 놀라게 한것은 갱도와 막장에서 증대되는 피해였는데 회사는 조심스레 이것을 숨기고있었다.

감독들은 워낙 수가 적어서 그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다 보수할수 없었다. 도처에서 동발목들이 부러지면서 한시간이 멀다하게 락반이 되였다. 드디여 재해는 이제 다시 석탄을 채굴하려면 수개월은 수리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벌써 이 지대에 여러가지 풍문이 돌았다. 끄레브꿰르에서는 300메터구간의 갱이 무너져 매몰되여 쌩크 뽐탄층에로 나가는 길이 막혔고 마들렌느에서는 모그레뚜탄층이 매몰되여 물에 잠겨버렸다는것이였다. 탄광당국은 그것을 부인해나섰지만 갑자기 두가지 사고가 련이어 일어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날 아침에 뻬올랜느에서 머지 않은 미루의 북쪽갱이 전날에 무너져 땅이 갈라진것을 발견하였다. 이튿날에는 보료탄갱내부가 내려앉으면서 교외의 한 구역 전체를 뒤흔들어놓았는데 하마트면 두채의 집이 무너질번 했다.

에띠엔느와 대표들은 리사회의 의도를 미리 알기 전에는 교섭하는 모험을 하는것을 주저하였다. 그들한테서 질문을 받은 당싸에르는 대답을 피했다. 물론 리사회는 그 어떤 합의도 보지 못한것을 개탄하고있으며 합의를 이룩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리란것이였다. 그러나 당싸에르는 아무런 확정적인 말도 하지 않았다. 드디여 대표들은 엔보씨한테로 가서 자기들의 정당함을 주장하기로 작정했다. 탄부들은 회사가 자기의 부당성을 인정할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후날에 비난을 받고싶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들은 추호도 양보를 하지 말며 유일하게 정당한 자기들의 요구조건들을 강경히 주장할것을 오직 맹세했다.

담판은 화요일 아침에 있었다. 이즈음에 마을에서는 빈궁이 극도에 이르렀다. 담판은 먼저번보다 분위기가 나쁜 속에서 진행되였다. 이번에도 마여가 발언을 했다. 그는 그들이 탄부들에게 무슨 새로운 말을 전할것이 없는지 알아보라는 위임을 동무들한테서 받았다고 설

명했다. 처음에 엔보씨는 놀란척 하면서 자기는 어떠한 지시도 받지 못했으며 탄부들이 고집스레 혐오스러운 란동을 계속하는 한 사태는 조금도 달라질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의 전횡을 부리는 거만성은 대표들의 강한 분노를 자아냈다.

화해하려고 온 대표들은 그러한 접대를 받고는 자기들의 의견만 더 완강히 주장할뿐이였다. 이윽해서 지배인은 호상 양보할수 있는 범위를 찾으려고 애썼다. 로동자들은 동발세우는 값을 따로 지불하는것을 접수하라, 그러면 탄부들이 회사가 리익을 본다고 하는 그 2쌍띰을 올려주겠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이것은 자기자신의 제의이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빠리로부터 이러한 양보를 얻을것을 기대하고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표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종전의 지불제도를 유지하되 탄차당 5쌍띰을 더 올리라는 저들의 요구를 되풀이했다. 그러자 지배인은 자기가 즉시에 처리할수 있다는것을 사실대로 말하고나서 굶주려 죽는 안해와 아이들을 위해 양보하라고 대표들을 재촉했다. 그러나 탄부들은 눈을 내리깔고 격분해서 완고하게 계속 반대하였다. 그들은 곧 헤여졌다. 엔보씨는 문을 쾅 하고 닫았다. 에띠엔느와 마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궁지에 몰린 패배자의 말없는 분노속에 뚜벅뚜벅 발자국소리를 내면서 포석도로를 걸어갔다.

낮 2시경에 마을의 녀인들은 자기들대로 메그라와 교섭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마지막희망이였다. 다시 한주일분의 외상을 주도록 그를 설복하는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너무 자주 믿는 마여의 안해의 생각이였다.

그는 브률레와 레바끄의 안해와 함께 가려고 작정했다. 삐에롱의 안해는 앓는 남편을 혼자 남겨둘수 없다고 하면서 량해를 구했다. 다른 녀인들은 스무명이 잘되게 무리를 지었다.

몽쑤의 부르죠아지들은 길을 메우고 침울하고 가난에 쪼들린 얼굴을 한 그들을 보자 근심스레 머리를 흔들었다. 문들이 닫기였고 한 녀인은 자기의 은제품을 감추었다. 아낙네들이 그렇게 몰려가기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징조였다. 녀인들이 이처럼 길거리에 나서면 보통 불상사가 일어났던것이다. 메그라의 가게방에서는 란폭한 장면이 벌어졌다. 처음에 메그라는 그들을 들여놓으면서 그들이 빚을 갚으러 온 모양이라고 비양조로 말했다. 단번에 돈을 가

져다가 빛을 청산하는것은 서로 리해할수 있어 좋다는것이였다. 마여의 안해가 말을 떼기 시작하자 메그라는 성을 냈다.

그들은 조롱하는것이 아닌가? 또다시 그들에게 외상을 주다니? 글쎄 그들은 자기를 알거지로 만들 작정인가? 안된다, 이제 더는 한알의 감자도, 한쪼각의 빵도 줄수 없다!

그리하여 메그라는 그들에게 식료상점주인 베르동끄나 빵집주인들인 까르블이나 스멜땡에게 가서 사정해보라고 말했다. 요사이 그들은 모든것을 그 가게방들에서 가져오고있지 않는가. 녀인들은 메그라의 눈에서 동정해줄것인가를 엿보면서 공손하고 소심한 얼굴들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메그라는 다시금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는 브률레에게 자기의 정부로 되여주면 자기의 가게방을 몽땅 주겠다고 했다. 녀인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보를 터뜨렸다. 레바끄의 안해는 한수 더 떠서 자기자신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그라는 곧 무례하게 그들을 내몰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메그라에게 간청을 했다. 그러자 그는 성이 나서 한 녀인에게 달려들었다.

길에 나선 다른 녀인들은 그를 배신자로 취급했다. 한편 마여의 안해는 복수심을 안고 격분해서 허공에 두팔을 쳐들고 벼락을 맞을 놈이라느니, 그런 놈에겐 빵이 아깝다느니 하며 웨쳐댔다.

그들은 침울한 얼굴로 마을에 돌아왔다. 안해들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자 남편들은 그들을 쳐다보고 고개를 푹 수그렸다. 모든것이 마지막이였다. 하루가 또 저물어가는데 그들은 국 한술도 뜨지 못하는것이다. 그리고 희망의 빛이 없는 차디찬 어둠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갈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자신이 택한 길이여서 투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극도의 빈궁은 말없는 가운데 자기 굴속에서 죽으면 죽었지 나오지 않는 쫓기운 짐승처럼 그들을 더욱 완강하게 만들었다. 누가 감히 굴복에 대하여 먼저 말할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들중의 누가 탄갱이 붕락되여 묻혔을 때처럼 모두가 함께 있을것을 맹세했었다. 응당 그래야 되는것이다. 그들은 지하의 막장에서 운명에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학교를 거쳐왔던것이다. 그들은 12살때부터 불과 물이 있으면 8일간 허리띠를 졸라맬수 있었다. 거기에 또 군인다운 자존심과 죽음이 항상 뒤따르는 저들의 투쟁

속에서 생긴 긍지높은 희생과 같은 헌신성이 배가되였다.

마여의 집 저녁은 어수선하기 그지없었다. 모두들 마지막 남은 석탄이 타는 불이 꺼져가는 난로앞에 말없이 앉아있었다. 침대깔개속의 털을 조금씩 꺼내 팔아버린 그들은 전날에는 뻐꾹새시계를 3프랑에 팔았다. 그래서 지금은 다정스레 재깍거리는 시계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고 방안은 휑뎅그렁하고 죽은것 같았다. 이제는 찬장가운데 오래전에 남편이 선물한 장미빛마분지곽만이 남아있었다. 마여의 안해는 보물처럼 그것을 아끼였다. 두개의 좋은 걸상들은 이미 팔아버렸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이들은 뜨락에서 들여온 낡고 이끼가 낀 긴걸상에 서로 비좁게 앉아있었다. 어두워오는 납빛의 황혼은 추위를 더해주는것만 같았다.

《어떻게 한다?》 난로옆에 쪼그리고 앉았던 마여의 안해가 이렇게 되뇌였다.

에띠엔느는 일어서서 벽에 걸려있는 황제와 황후의 초상화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오래전에 그것들을 떼여냈을것이지만 그 집식구들이 그것들을 장식으로 여기고 말리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있었다.

《2쑤도 받지 못할 이 멍텅구리들은 우리가 굶주려 죽는것을 보고있군그래!》 하고 에띠엔느는 이를 사려물고 중얼거렸다.

《곽을 팔면 어떨가요?》 몹시 창백한 마여의 안해가 주저하다가 말했다.

책상모서리에 앉아서 두다리를 내려드리우고 고개를 푹 숙이고있던 마여가 몸을 다시 일으켰다.

《안되오, 그렇겐 하고싶지 않소!》

마여의 안해는 가까스로 일어나서 방안을 한바퀴 돌았다. 하느님 맙소사! 사람을 이처럼 곤궁에 몰아넣을수 있는가. 찬장에는 빵부스레기 하나 없고 팔아먹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빵을 가져올 구멍도 없다! 그런데 불을 피울것마저 떨어졌다! 마여의 안해는 알지르에게 화풀이를 했다. 그는 아침에 석탄덩어리들을 주어오라고 딸애를 버럭산에 보냈었다. 그런데 회사가 석탄을 줏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애는 빈손으로 돌아왔던것이다. 회사는 보잘것 없는 떨어진 석탄부스레기를 줏는것이 마치 도적질하는것 같은가. 어린것은 절망에 빠져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뺨을 때리겠다고 위협하더라는것, 그러나 자기는 매

를 맞더라도 다음날 또 거기로 가겠다고 다짐을 했다.
《헌데 그 몹쓸 쟝렝놈은 어디 갔을가?》 하고 어머니는 야단을 쳤다. 《그놈은 어디로 사라졌느냐 말이예요? 상추를 뜯어오라고 했는데. 그거라도 있으면 짐승처럼 뜯어먹을수 있을텐데! 두고봐요. 그놈은 오지 않을거란 말이예요. 어제도 집에서 자지 않았어요. 뭘하고있는진 모르겠지만 배는 늘 불러가지고있거던요.》
《어쩌면 길손들에게서 비럭질이라도 하고있는지 모르지요.》 하고 에띠엔느가 말했다.
대번에 마여의 안해는 노발대발해서 두주먹을 내흔들었다.
《내가 그런걸 알았더라면!… 내 아이들이 동냥을 하다니! 그럴바엔 차라리 모조리 죽여버리고 나자신도 죽고말지.》
마여는 다시 책상 한끝에 앉았다. 먹을것이 없는데 놀란 레노르와 앙리는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본느모르로인은 말없이 굶주림을 면해보려고 입안에서 혀를 굴리고있었다.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모두가 고통이 심하여 마비되였다. 할아버지는 기침을 깇으며 새까만 가래를 뱉었다. 그에게서는 또 수종으로 된 류마치스가 도졌다. 천식을 앓는 아버지는 무릎이 물에 퉁퉁 부어있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선병과 유전적인 빈혈로 고통을 겪고있었다. 물론 이것은 고된 로동의 후과였으나 아무도 하소연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무서운것은 모진 굶주림이였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벌써 파리처럼 죽어가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먹을것을 얻어와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황혼이 짙어져서 방안은 더 침침해지고 심히 쓸쓸해졌다. 에띠엔느는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다. 그는 잠시동안 망설이더니 무엇을 결심한것 같았다.
《좀 기다리시오.》 하고 그가 말했다. 《내가 어딘가 가보지요.》
그리고 에띠엔느는 밖으로 나왔다. 그는 무께뜨생각이 떠올랐다. 그에겐 빵이 있을것이며 그것을 기꺼이 줄것이다. 레끼아르로 다시 가지 않으면 안되여 그는 화가 났다. 처녀는 사랑에 빠진 하녀처럼 그의 손에 입을 맞출것이다. 그러나 벗들을 고통속에 내버려둘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다시금 무께뜨를 친절하게 대할것이다.

《나도 나가보겠어요.》 하고 마여의 안해가 말했다.

《팔짱을 끼고 앉아있으면 뭘해요.》

그는 에띠엔느의 뒤를 따라나오면서 쾅 하고 힘껏 문을 닫았다. 집사람들은 모두 알지르가 켜놓은 초꽁다리의 불빛이 희미한 방안에 말없이 까딱않고 앉아있었다. 밖에 나온 마여의 안해는 잠시 생각에 잠겨 멈추어섰다가 레바끄의 집으로 들어갔다.

《저, 일전에 내가 빵을 꿔주었는데 그걸 좀 돌려줄수 없어요?》

그러나 마여의 안해는 저도 모르게 그만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의 눈에 띈것은 더 비참한 광경이였기때문이다. 그 집은 자기네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것 같았다.

레바끄의 안해는 무표정한 눈으로 불이 꺼진 난로를 우두커니 바라보고있었다. 친구들인 못제조공들한테서 취하도록 술을 얻어먹은 남편은 빈속으로 식탁우에 누워서 자고있었다. 부뜰루는 벽에 기대고 기계적으로 어깨를 거기에 문질러대고있었다. 이 호인은 당황해서 레바끄의 가족이 그의 저금을 모조리 먹어버려 자기자신이 이제 배를 졸라매게 된데 놀란듯 했다.

《빵이요! 아이참!》 하고 레바끄의 안해가 대답했다. 《 그렇잖아도 내가 빵을 또 하나 꿔달라고 하려던 참이예요!》

레바끄가 잠을 자면서 괴로운듯이 뭐라고 중얼거렸다. 안해는 그의 얼굴을 식탁에 대고 짓눌렀다.

《잠자코 있어요, 돼지같으니! 밸이 타들어 싸요. 남의 돈으로 술을 처마시지 말고 친구들에게서 돈이라도 20쑤 꾸어올것이지!》

레바끄의 안해는 계속 욕설을 퍼부으면서 분풀이를 하였다. 그의 집 살림살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두지 않아 방안은 너무도 더러워서 바닥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겼다. 될대로 되라. 자기도 꿈만하다는것이다. 몹쓸놈의 그의 아들 베베르도 역시 아침부터 나가서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가 영 돌아오지 않았으면 근심도 덜어지고 좋겠다고 웨쳐댔다. 이윽고 그는 눕겠다고 말했다. 다른건 몰라도 몸이라도 녹일수 있다는것이다. 그는 부뜰루를 떠밀었다.

《자, 올라가요! 불이 꺼졌는데 초불을 켤 필요는 없어요. 빈 접시를 보겠어요! 그래, 올라가지요. 루이? 함께 누워요. 꽉 그러안으면 좀 낫겠지… 이 빌어먹을 술주정뱅이는 여기서 혼자 얼라고

하지!》
마여의 안해는 레바끄의 집에서 나와서 결단성있게 뜨락을 지나 삐에롱의 집으로 향했다. 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마여의 안해가 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조용해졌다. 한참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아, 당신이예요?》 하고 삐에롱의 안해는 깜짝 놀란듯 부르짖었다. 《난 의산줄 알았군요.》
삐에롱의 안해는 훈훈하게 불을 땐 벽난로옆에 앉아있는 남편을 가리키면서 마여의 안해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했다.
《참, 저이는 아직도 앓고있어요. 아직도 몸이 추서지 못하고있어요.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은것 같은데 어쩐지 배가 좋지 않대요. 저이에게는 따뜻한게 필요해요. 그래서 있는걸 모조리 때는거예요.》
실지에 있어 뚱뚱보 삐에롱은 환자인체 암만 괴롭게 숨을 쉬려고 애써도 아주 건강하고 혈색이 좋아보였다. 마여의 안해는 방안에 들어서자 대뜸 토끼고기 볶은 냄새를 맡았다. 물론 료리를 치운것이였다. 식탁에는 빵부스레기가 흩어져있었고 식탁 한복판에는 미처 치울 생각을 못한 포도주병이 눈에 띄였다.
《어머니는 빵을 얻으러 몽쑤에 갔어요.》 하고 삐에롱의 안해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를 기다리기가 막 애가 타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그는 이웃녀인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역시 병이 눈에 띄였던것이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이내 이야기를 꾸며댔다. 그것은 의사가 처방한 포도주를 삐올랜느의 나으리가 앓는 남편에게 가져다주었다는것이였다. 그리고나서 삐에롱의 안해는 수없이 찬사를 늘어놓았다. 얼마나 훌륭한분들인가! 특히 거만하지 않은 아가씨는 로동자들의 집에 직접 들어와서 손수 그들에게 동냥을 나누어주고있지 않는가!
《암, 그렇구말구요.》 하고 마여의 안해가 말했다. 《나도 그이들을 알고있어요.》재부는 언제나 덜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례진다는 생각에 마여의 안해는 가슴이 죄여들었다. 기회를 놓친적이 없었다. 삐올랜느의 나으리들은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넣고있다. 어째서 마여의 안해는 마을에서 그들을 보지 못했을가? 어쨌든 그는 그들한테서 무엇이든 받을수도 있었을것이였다.

《내가 온건》 하고 마여의 안해는 드디여 말을 꺼냈다. 《당신네도 우리처럼 그렇게 어려운지 알려고… 국수를 다문 얼마라도 꾸어줄수 없을가?》

삐에롱의 안해는 갑자기 우는소리를 하였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싸라기 한알 없어요. … 어머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것을 보면 일이 잘 안되는것 같아요. 이제 저녁도 못먹고 자리에 누울판이예요.》

이때 지하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삐에롱의 안해는 발칵 화가 나서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것은 말썽꾸러기 리디였다. 온종일 그 애는 어디 돌아다니느라고 5시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그 벌로서 가두었다고 하였다. 그 애는 길들일수가 없었고 계속 없어지군 하였다.

그러나 마여의 안해는 방안에 서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훈훈한 온기가 포근하게 그를 엄습하면서 괴롭혔다. 이 집에서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산다고 생각한즉 그는 고픈 배가 더욱 못견디게 쓰려왔다. 삐에롱의 부부가 저들끼리 따뜻한 음식을 먹기 위해 로파를 내쫓고 계집애를 가두어둔것이 뻔했다. 녀자가 처신을 그릇되게 하면서 집에 행복을 가져오는데 말해서 소용있겠는가!

《편안히 주무시우!》 하고 마여의 안해가 갑자기 말했다.

바깥은 벌써 어두운 밤이였다. 구름속의 달은 대지를 희미하게 비치고있었다. 마여의 안해는 다시 뜨락을 지나갈 대신에 길을 에돌아갔다. 그는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갈념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집집마다 문에서는 굶주림이 느껴졌고 공허감을 자아냈다.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었다. 거기에도 빈궁은 매한가지였다. 사람들은 몇주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멀리 벌판에서도 탄갱마을이 있는것을 알수 있게 하던 그 파냄새도 풍기지 않았다. 지금은 낡은 움과 숨가진 모든것이 죽어버린 습한 빈민굴의 냄새만 풍겼다. 울음소리도 욕설도 그쳐버렸다. 점점 짙어가는 정적속에서 사람들이 되는대로 마구 자리에 몸을 던진채 주린 창자를 그러안고 악몽속에 졸고있는 시간이 닥쳐왔다.

마여의 안해는 교회당앞을 지나다가 누군가의 그림자가 급히 지나가는것을 보았다. 뜻하지 않았던 희망이 솟아 힘을 얻은 그는 걸음을 다우쳤다. 그것은 일요일마다 마을의 례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몽쑤의

쥬와르신부를 알아보았기때문이였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서 례배당의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임이 분명했다. 그는 등을 구부정하고 바삐 걸었는데 살이 지고 선량해보이는 그는 누구와도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였다. 그가 제 일을 보려고 밤길을 떠난것은 탄부들사이에 나타남으로써 자기의 명예를 손상시키고싶지 않기때문인것 같았다. 게다가 그가 최근에 승급을 했다는 풍문이 떠돌았다. 사람들은 그가 자기의 후임자와 함께 다니는것까지 보았는데 그 후임자는 불타는듯 한 눈을 가진 여윈 사나이라고들 했다.

《사제님, 사제님.》 하고 마여의 안해는 떠듬거리면서 말했다. 그러나 사제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중얼거렸다.

《안녕하오, 안녕하오, 부인!》

마여의 안해는 자기 집 문앞에 와있었다. 그의 두다리는 지쳐서 휘청거렸다. 그래서 그는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여는 맥이 빠져 여전히 책상의 한끝에 앉아있었다. 할아버지와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몸을 녹이려고 서로 몸을 꼭 붙이고 긴걸상우에 앉아있었다. 그들은 한마디도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 초불은 다 타들어 작은 불찌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그들은 불마저 보지 못하게 되였다. 마여의 안해가 문을 열자 아이들이 머리를 돌렸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온것을 보자 욕을 먹지 않으려고 눈물이 나오는것을 꾹 참으면서 마루바닥을 또다시 내려다보기 시작하였다. 마여의 안해는 불이 꺼져가는 난로옆의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집사람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여전히 침묵이 흘렀다. 모두들 이야기를 하여 자신을 피로케 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제는 어쩌면 에띠엔느가 무엇이든 얻어올수 있지 않을가 하는 구원의 마지막기대, 바랄수 없게 된 기대를 락심해서 가지게 되였다. 시간이 좀 흐르자 그들은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였다.

드디여 에띠엔느가 돌아왔다. 그는 벌써 식어버린 여라문개의 삶은 감자를 보에 싸가지고 왔다.

《이게 내가 얻어온 전부요.》 하고 에띠엔느는 말했다.

무께뜨네 집도 역시 빵은 남지 않았었다. 처녀는 자기의 저녁식사를 그에게 억지로 싸주고 충심으로부터 그에게 연신 입을 맞추었다.

《그만두겠습니다.》 마여의 안해가 한몫을 권하자 에띠엔느는 이렇게 말했다. 《난 거기서 먹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였다. 그는 아이들이 음식에 달라붙는것을 침울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더 많이 차례지도록 참았다.

그러나 로인은 게걸스럽게 먹었다. 그래서 그들은 로인에게서 알지르에게 줄 감자 한알을 도로 빼앗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윽고 에띠엔느가 여러가지 새 소식을 이야기했다. 파업자들의 완강성에 화가 난 회사는 파업에 련루된 탄부들을 해고시킬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것이였다. 회사는 결정적으로 싸우려고 하였다. 더 중요한 풍문이 또 하나 돌고있었다. 그것은 회사가 마치도 많은 로동자들이 입갱을 결심한듯이 떠들고있는것이였다. 다음날 빅뜨와르갱이며 퍼뜨리 깡뗄같은 갱들에서는 전원이 작업에 나가며 마들렌느갱과 미루갱에서도 3분의 1이 작업에 착수하리라는것이였다.

마여네 가정은 격분했다.

《빌어먹을것들!》 하고 아버지가 소리쳤다. 《변절자가 끼여있으면 되게 혼쌀을 내야 해!》

그는 벌떡 뛰여일어나서 격분에 찬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래일 저녁에 숲으로 가세! 우리가 봉 쥬와이어에선 토의할수 없지만 숲속에서는 누구도 우릴 건드리지 못하네.》

그렇게 웨친 소리는 요기를 하고나서 끄덕끄덕 졸고있던 본느모르 로인의 잠을 깨워버렸다. 예전에도 탄부들은 왕의 병사들을 격퇴하기 위해 숲속에 모여 그런 집회를 가지군 했었다.

《옳아요, 옳아요. 방담에 모입시다. 그곳에 모이기로 되였다면 나도 가겠어요!》

마여의 안해는 단호히 주먹을 내여둘렀다.

《우리모두가 갑시다. 아무때건 이 모든 부정의와 변절행위는 끝장날테지!》

에띠엔느는 다음날 저녁에 집회가 열린다는것을 모든 마을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벽난로의 불은 레바끄의 집과 같이 사그라졌으며 초불도 갑자기 꺼졌다. 석탄도 석유도 더는 남지 않아서 어둠속을 더듬으며 몸이 얼어드는 속에서 자리에 눕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이들은 울고있었다.

6

쟝렝은 회복이 되여 걸어다니기 시작했으나 뼈가 바로 붙지 않아서 두다리를 절름거렸다. 그는 전에 못지 않게 나쁜짓과 도적질을 하느라 짐승처럼 잽싸게 싸다녔으나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했다.

그날 저녁녘에 쟝렝은 자기가 늘 데리고다니는 동행자들인 베베르며 리디와 함께 레끼아르로 가는 길목에 매복하고있었다. 그들은 골목모퉁이에 있는 애꾸가 경영하는 가게방 맞은켠 울타리뒤의 공지에 자리잡고있었다. 가게방에는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로파가 먼지로 새까매진 제비콩과 강남콩 서너너덧마대를 펼쳐놓았고 문앞에는 파리똥에 더러워진 묵은 마른 대구가 걸려있었다. 그 물고기가 쟝렝의 마음을 끌었던것이다. 그래서 그는 눈을 쪼프리고 줄곧 그것을 바라보고있었다. 쟝렝은 이미 두번이나 물고기를 훔쳐오라고 베베르를 보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길의 굽인돌이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내처 방해를 해서 그들은 이짓을 할수 없었다!

말을 탄 사나이가 나타나서 아이들은 곧 울타리밑에 엎드렸다. 그들은 그가 엔보지배인이라는것을 알아차렸던것이다. 파업이 시작된 때로부터 그는 자주 홀로 말을 타고 반란을 일으킨 탄갱마을들을 돌아다녔다. 조용하고 대담하게 그는 이 지역사태가 어떠한가를 몸소 확인하려는것이였다. 아직 돌멩이 하나 그의 귀가를 스쳐지나가지 않았으며 그는 다만 조용히 느릿느릿 지나가며 인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뿐이였다. 그가 누구보다 자주 만난것은 정치를 조롱하며 서로 사랑만 속삭이고있는 남녀들뿐이였다. 그들은 한적한 곳에서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엔보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려고 말을 전속력으로 몰아 옆으로 지나가군 했다. 자유로운 사랑을 탐스럽게 즐기는것을 지나며 충족되지 않는 욕망으로 해서 그의 가슴은 부풀어올랐다. 그는 졸망구니들도 똑똑히 보았는데 사내애들이 한 계집애를 데리고 놀고있었다. 아이들까지도 저들의 가난한 생활을 유쾌하게 하는 길을 찾고있었다!

엔보는 두눈에 눈물이 글썽해서 안장우에 꼿꼿이 앉은채 옆으로 지

나가군 했다. 그의 코트는 군대식으로 단추가 꼭 채워져있었다.

《제기랄!》 하고 쟝렝이 말했다.

《끝이 없구나. 자, 베베르, 빨리! 꽝지를 잡아당겨!》

그러나 또 행인 두사람이 길목에 나타났다. 그래서 쟝렝은 또다시 욕설이 나오는것을 참았다.

그것은 자샤리와 무께였다. 자샤리는 안해가 치마에 꿰매놓은 40쑤짜리 엽전을 어떻게 발견해냈는가를 동무에게 이야기하고있었다. 두 사나이는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실컷 조롱대고있었다. 무께는 이튿날 대규모의 크로스를 한판 크게 하려고 생각했다. 2시에 그들은 아방따즈에서 떠나서 마르쉬엔느에서 가까운 몽뜨와르로 가자는것이였다. 자샤리는 동의했다. 파업인데 무엇이 그들을 방해하겠는가? 할일도 없는만큼 놀아보자! 그들이 길모퉁이를 돌아서자 운하쪽에서 오는 에띠엔느가 그들을 멈춰세우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은 여기서 자려는건가?》 하고 쟝렝은 분격해서 되풀이했다.

《이젠 밤이군. 로파가 자루를 거두지 않아.》

또 한명의 탄부가 레끼아르쪽으로 내려왔다. 에띠엔느는 그와 함께 멀리 갔다. 그들이 울타리앞으로 지나갈 때 아이들은 그들이 숲속에서 열릴 회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것을 들었다. 하루동안에 전체 마을들에 다 알릴수 없을것 같아서 회합을 래일로 미루지 않을수 없다는것이였다.

《아, 그렇군! 래일 큰일이 있군그래.》 하고 쟝렝은 동무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거기로 가야겠다, 알았니? 우린 낮에 떠나자.》

드디여 길목에 인기척이 사라지자 쟝렝은 베베르를 내보냈다.

《빨리! 꽝지를 잡아당겨라! 조심해, 로파에겐 비자루가 있어!》

다행히도 밤이 되여 캄캄해졌다. 베베르가 껑충 뛰여올라 대구에 매여달리자 곧 끈이 뚝 끊어졌다. 그는 연처럼 그것을 흔들면서 내달렸다. 다른 두 아이도 그의 뒤를 따라 달려갔다. 깜짝 놀란 로파는 가게방밖으로 나왔으나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통 몰랐고 벌써 어둠속에 사라진 아이들도 알아볼수 없었다.

이 건달군졸망구니들은 이 일대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되여있었다.

그들은 진짜 도적패들처럼 점점 습격의 범위를 넓혀갔다. 처음에 그들은 보료 한 지역으로 만족하고 석탄속에서 뒹굴다가는 깜둥이처럼 새까매서 나오군 했다.

그들은 마치 처녀림속에라도 들어간듯이 쌓아놓은 통나무사이에서 숨박곡질을 했다. 그다음에 그들은 버럭산에 옮겨가서 놀았는데 땅밑의 화재로 해서 아직도 따뜻한 번번한 곳에 엉뎅이를 대고 썰매타듯 지쳐내리든가 아니면 버럭산의 보다 오래된 곳에 자라난 가시덤불속에 기여들어가서 장난꾸러기 쥐새끼들처럼 조용히 놀군 했다.

아이들은 계속 놀음터를 넓혀나갔다. 벽돌더미우에서 피가 나도록 싸움질도 하고 들판을 달려다니면서 즙많은 각종 풀을 빵이 없이 씹기도 하고 운하의 기슭을 뒤져 감탕속에서 물고기를 잡아 날것으로 먹기도 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더 멀리 수키로메터 떨어진 방담의 숲까지 가서 봄이면 딸기를, 여름이면 개암과 들쭉을 실컷 따먹었다. 곧 광대한 벌판이 그들의것으로 되였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승냥이새끼눈을 해가지고 몽쑤에서 마르쉬엔느에 이르는 길을 끊임없이 헤매게 한것은 날로 커가는 훔치려는 욕망이였다.

쟝렝은 여전히 이 패거리의 대장으로 되여있었다. 그는 각종 로획물을 노리고 아이들을 내몰아 파밭을 짓뭉개놓고 과수원을 략탈하며 상점매대를 털었다. 이 지방에서는 이 모든 일을 파업탄부들의 잘못으로 치부하고있었으며 커다란 조직적인 강도단이 있다는 풍문이 떠돌았다. 어느날 쟝렝은 리디로 하여금 자기 어머니의 물건까지 도적질하게 했는데 그의 집 창턱에 놓인 유리단지속에서 보리사탕을 스무개나 가져오게 했다. 이때문에 매까지 맞았으나 쟝렝의 권력이 어찌나 무서웠던지 그에 대해선 일러바치지 못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안된것은 쟝렝이 엄청나게 큰몫을 차지하는 일이였다. 베베르도 자기가 훔친것을 그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그는 모든것을 독차지하는 대장이 자기를 때리지만 않으면 다행으로 생각했다.

얼마전부터 쟝렝은 정도가 지나쳤다. 그는 마치도 자기의 안해나 되는듯이 리디를 때렸으며 남을 쉽게 믿는 베베르의 성미를 리용하여 불쾌한 모험에 그를 끌어들이군 했다. 그자신을 단매에 넘어뜨릴수 있을만큼 그보다 센 이 뚱뚱한 소년을 바보로 만드는것이 쟝렝은 재미

있었다.
  쟝렝은 이 두 아이를 경멸하여 노예처럼 대했으며 그들은 자기의 안해인 공주의 면전에 나타날 자격도 없다고 했다. 기실 그는 자기의 동행자들에게 거리의 끝이나 길 굽인돌이 등 아무데서나 무서운 표정으로 마을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한주일동안이나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군 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우선 그들에게서 훔쳐온것을 몽땅 빼앗군 했다.
  이날 저녁에도 일은 그렇게 되였다.
  《이리 줘.》
  셋이 드디여 레끼아르근처의 굽인돌이에 멈춰섰을 때 쟝렝은 동무의 손에서 물고기를 빼앗으면서 이렇게 명령했다.
  베베르가 반박을 했다.
  《나도 먹어야겠어. 정말이지 이건 내가 얻어온게 아니냐.》
  《뭐 어째?》 하고 쟝렝이 부르짖었다.
  《넌 내가 주는거나 받아. 그러나 오늘은 절대로 안돼. 남으면 래일 줄수도 있다.》
  쟝렝은 리디를 떠밀어 두 아이를 총을 멘 병사처럼 한줄로 세워놓고 그들의 뒤에 서서 호령을 내렸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5분동안 여기 서있을것. … 제기랄, 돌아보기만 하면 짐승이 달려와서 너희들을 삼켜버려. … 그리고는 곧바루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나서 쟝렝은 맨발소리도 들리지 않게 살그머니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쟝렝에게서 뺨을 얻어맞을가봐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5분동안 까딱않고 서있었다. 서로 느끼는 공포는 어느덧 두 아이를 접근시켰다.
  바로 이때 에띠엔느는 레끼아르에 왔었다. 그전날 무께뜨가 그에게 다시 오라고 간청했던것이다. 그는 자기를 예수처럼 흠모하는 처녀에게 고백을 거절할 생각과 수치감을 가지고 왔다. 한편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에띠엔느는 그를 만나 동무들앞에서 좋지 않으니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다. 사람들이 굶어죽고있는 때 쾌락을 즐기는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집에서 무께뜨를 만나지 못한 그는 기

다리기로 작정하고 길가에 나타나는 그림자마다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허물어진 권양탑밑에는 절반 매몰된 옛 탄갱의 입구가 있었다. 그 시커먼 갱구우에는 지붕의 일부를 떠받들고있는 곧은 들보가 교수대모양으로 보였다. 갱입구둘레의 무너진 벽에는 마가목과 플라타나스 두그루가 마치도 땅속에서 솟아난듯이 자라났다. 그곳은 되는대로 버려둔 곳이였는데 낡은 통나무들로 막힌 풀이 무성한 갱구에는 산오얏나무들과 아가위나무들이 자라나 봄이면 솔새들이 거기에다 둥지를 트는것이였다. 회사는 막대한 보수비를 피하고저 이미 십년전에 못쓰게 된 이 탄갱을 매몰할것을 결심했었다. 그들은 보료에 통풍기를 설치할 때를 기다렸다. 왜냐하면 서로 련결되여있는 두 탄갱의 통풍구가 레끼아르밑에 있고 그의 낡은 배수용굴이 굴뚝으로 되여있기때문이였다. 회사는 판자를 댄것을 지주목으로 가로 버티기만 했는데 갱구도 그것들이 막고있었다. 거기서는 석탄이 더미로 활활 타면서 공기를 너무 세차게 빨아들여서 린접한 갱에서 폭풍이 울부짖고있는것만 같았다. 만일의 경우에 오르내릴수 있도록 사닥다리가 설치된 통로는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 사다리는 습기에 썩어갔고 많은 발판들이 이미 무너졌다.

우에는 커다란 가시나무가 입구를 막았고 첫 사닥다리에는 많은 가름대들이 떨어져나가서 가름대가 있는 지점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마가목의 뿌리를 잡고 매달렸다가 어림대고 어둠속으로 떨어져야 했다.

에띠엔느는 풀숲뒤에 몸을 감추고 참을성있게 기다렸다. 이때 그는 나무아지들사이에서 길게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늘메기가 놀래여 도망가는줄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성냥불이 켜지고 양초에 불을 켜가지고 땅속으로 사라지는 쟝렝을 알아보고는 아주 아연실색했다.

에띠엔느는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갱구로 다가갔다. 소년은 벌써 자취를 감추었고 두번째 발판에서 희미한 불빛만이 반짝거렸다. 에띠엔느는 잠시 주저하다가 나무뿌리를 쥐고 밑으로 미끄러져내려갔다.

그는 524메터나 되는 갱을 단번에 뛰여내리는것 같이 생각되였다.

드디여 발밑에 가름대가 닿자 그는 조심해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쟝렝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것 같았다.

에띠엔느는 자기밑에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불빛을 보았으며 절

름거리는 걸음걸이에 따라 춤을 추는 소년의 커다란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보았다. 쟝렝은 원숭이처럼 잽싸게 기여내려갔는데 가름대가 없으면 두손과 두다리, 지어는 턱까지 써서 자기 몸을 지탱하는것이였다.

길이가 각각 7메터인 매개 사닥다리는 서로 련달려있었는데 어떤것은 아직 아주 견고했으며 어떤것은 당장 부러질듯 흔들리며 우직거렸다. 그 사닥다리들사이에는 푸르스름하게 되고 너무 썩어서 이끼우를 걸어가는듯 한감을 주는 좁은 발판이 있었다.

에띠엔느가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 공기는 난로안처럼 뜨거워 숨막힐 지경이였다. 그 열기는 다행히도 파업이 일어난 때부터 조용해진 통풍갱도에서 나오는것이였다. 통풍기가 매일 5천키로그람의 석탄을 삼키면서 작업할 때에는 산채로 구워질 위험을 겪지 않고서는 여기로 도저히 내려갈수 없었다.

《정말 두꺼비같은 놈이군!》 하고 에띠엔느는 헐떡거리며 투덜거렸다.

《제기랄, 저놈은 어디로 가는거야!》

에띠엔느는 두번이나 넘어질번 했다. 그의 두발이 축축한 통나무에서 미끄러졌다. 쟝렝처럼 초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것이였으나 그는 멀리서 깜빡거리는 조그마한 불빛을 따라가야 했으므로 줄곧 무엇에 부딪치군 하였다. 분명 벌써 스무번째의 사닥다리인데 내려가기는 그냥 계속되고있었다. 그래서 그는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하고 사닥다리를 세기 시작했다.

쟝렝은 자꾸 내려갔다. 에띠엔느는 머리가 불속에 있는것처럼 뜨거웠다. 그는 달아오른 난로의 화구에 떨어지는듯 한 느낌이였다.

드디여 그는 저탄장에 이르러 불빛이 갱도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것을 보았다. 사닥다리가 30개인즉 약 210메터였다.

《아직도 한참 날 끌고다니려나?》 하고 에띠엔느는 생각했다.

《저놈이 마구간으로 들어가는게 분명해.》

그러나 왼쪽의 마구간으로 통하는 통로는 무너져 매몰되여있었다. 더욱 어렵고 위험한 길이 다시 시작되였다. 놀랜 박쥐들이 사방으로 날아가 저탄장천정에 붙군 했다. 그는 불빛을 시야에서 잃지 않기 위해 걸음을 다우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에띠엔느는 쟝렝과 같은 갱도를 걸어가건만 소년이 뱀처럼 슬슬 빠져가는 곳을 팔다리를 상하지 않고는 지나갈수 없었다. 갱도는 오랜것들이 다 그러하듯이 부단히 땅이 솟아올라 날이 갈수록 더욱 좁아졌고 어떤 곳에서는 관보다 약간 넓을사 했으며 이제라도 통로가 막힐것 같았다. 동발들이 부러지고 터져 좁은 통로로 전진하기가 더욱 위험하게 되여갔다. 뾰족한 나무꼬챙이들이 긴 칼처럼 삐져나와서 길을 막고있었는데 줄곧 그에 부딪쳐서 심한 상처를 낼수 있었다.

에띠엔느는 자기앞에 생기는 그림자를 손더듬하면서 혹은 네발걸음으로 혹은 배밀이로 조심조심 전진했다. 갑자기 무엇에 쫓기운 한무리의 쥐떼가 그의 목덜미로부터 발까지 온몸을 밟으며 지나갔다.

《제기랄, 인차 끝이 나려나!》

에띠엔느는 지쳐 헐떡거리면서 투덜거렸다.

그는 온몸이 녹초가 되였다. 통로는 1키로메터 지나서 넓어졌다. 여기는 갱도가 놀랍게도 잘 보존되여있었다. 그곳은 이전에 탄차들을 굴려가던 갱도의 끝이였다. 그 갱도는 바위층을 까낸 곳이였는데 흡사 자연동굴같았다.

에띠엔느는 거기서 멈춰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멀리서 소년이 초불을 두개의 돌틈에 세워놓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제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히 자리잡는것을 보았다. 그 갱도의 끝은 완전한 설비를 갖춘 하나의 집같이 되여있었다.

바닥 한쪽구석에는 잠자리로 쓰이는 푹신한 건초더미가 있었고 식탁모양으로 박아놓은 낡은 동발목우에는 빵이며 사과며 향나무술병같은 별의별 음식물들이 죄다 놓여있었다. 그곳은 정말 도적의 소굴이였는데 수주일간에 걸쳐 온갖 획득물을 가져다놓았다. 지어는 장난삼아 훔친 불필요한 비누며 구두약같은 물건들까지도 있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이 모든 략탈물가운데 홀로 앉아서 제멋대로 산적처럼 즐기고 있었다.

《이건 뭐냐, 넌 사람들을 조롱하는거냐?》 하고 숨을 돌린 에띠엔느가 웨쳤다.

《우에서 우린 굶어죽게 됐는데 넌 진탕치듯 먹으러 여기 내려온단 말이냐?》

쟝렝은 깜짝 놀래여 몸을 떨었다. 그러나 쟝렝은 그가 에띠엔느라

는것을 알자 곧 안심했다.

《나하고 저녁이나 하지 않겠어요?》

드디여 쟝렝은 입을 열었다.

《좀 기다려요. 군 대구쪼각이 어때요?…》

그는 대구를 놓지 않고 날이 시퍼런 새칼로 파리똥을 깨끗이 긁어내기 시작하였다. 그 칼은 조그마한 단도의 일종으로서 뼈로 된 손잡이에 《사랑》이라는 글이 새겨져있었다.

《좋은 칼을 가지고있구나.》 하고 에띠엔느가 말했다.

《이건 리디의 선물이예요.》 하고 쟝렝은 대답은 했으나 자기가 시켜서 리디가 때뜨 꾸뻬앞에서 장사를 하고있던 몽쑤의 행상에게서 그것을 훔쳐왔다는것은 말하지 않았다.

쟝렝은 계속 물고기를 긁으면서 자랑삼아 덧붙였다.

《여긴 정말 괜찮지요?… 우에보다 약간 덥고 훨씬 공기가 좋지요!》

에띠엔느는 쪼그리고 앉았다. 쟝렝이 하는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겼던것이다. 노여움은 사라졌다. 나쁜짓을 하는데서 대담하고 재치있는 이 방랑아가 그의 흥미를 끌었다. 사실인즉 그 굴속은 좋았다. 지나치게 덥지도 않고 그 어떤 계절과도 관계없이 기온이 고르로왔다. 땅우에서는 섣달추위가 사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거기는 목욕탕처럼 훈훈했다. 유해로운 가스가 없어지고 폭발성가스는 다 날아난 낡은 갱도에서는 에테르냄새가 부패된 갱목에서 진한 정향냄새처럼 풍겼다. 통나무들도 보기에 흥미있었는데 대리석처럼 새하야면서도 누른빛을 띠고 얇은 레스처럼 희끄무레한 이끼로 덮여있었다. 그것은 마치도 구슬이 달린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것 같았다. 다른 통나무들에는 버섯들이 돋아있었다. 새하얀 나비들과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눈갈이 흰 거미들이 기여다녔는데 이 동물들은 영원히 태양을 보지 못하는탓으로 빛갈을 잃었었다.

《무섭지 않느냐?》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쟝렝은 놀랍다는듯 그를 쳐다보고 말했다.

《뭐가 무서워요? 여기엔 나 혼자 있는데요.》

드디여 대구는 아주 깨끗하게 되였다. 쟝렝은 나무부스레기를 모아 크지 않게 불을 피우더니 밑불을 헤쳐놓고 물고기를 구웠다.

이윽고 그는 빵을 두쪼각으로 잘랐다. 그것은 몹시 짠것이였으나 건

강한 위에는 진미였다.

에띠엔느는 자기에게 차례진것을 받았다.

《모두 여위고있는데 너만은 왜 살이 지는지 이젠 놀랄것 없다. 이봐, 이렇게 배불리 먹는건 돼지와 같애! 넌 남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느냐?》

《뭘요!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들이예요?》

《네가 숨어있는건 령리한짓일게다. 도적질을 하는걸 아버지가 알면 주리대를 안길게다.》

《부르죠아는 우리한테서 도적질을 안하나요?

당신은 몇번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메그라한테서 빵을 몰래 가져오지만 그것은 물론 그자가 우리한테 빚진것을 가져올뿐이예요.》

에띠엔느는 잠자코 있었다. 그의 입은 먹을것으로 한입 가득찼고 얼떨떨해졌다. 그는 눈이 파랗고 귀가 큰 얼굴을 가진 이 소년을 바라보았다. 발달되지 못한 지능과 미개한 교활성은 쟝렝을 점차 이전의 동물계로 되돌아가게 했다. 탄갱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쟝렝의 다리를 부러뜨림으로써 그를 아주 망쳐놓은것이였다.

《그래 리디는?》 하고 에띠엔느는 또 물었다.

《때때로 그 애도 여기 데려오나?》

쟝렝은 어이없다는듯이 크게 웃었다.

《계집애 말이예요? 천만에, 아니지요!…녀자란 수다스럽지요.》

그리고 쟝렝은 리디와 베베르를 한없이 멸시하면서 계속 웃어댔다.

그는 어느때도 아직 그런 바보들을 보지 못했다는것이였다. 자기가 홀로 따뜻이 앉아서 가령 대구같은것을 맛나게 먹고있을 때 그들은 그의 거짓말을 참말로 듣고 맨손으로 집에 돌아간다는것을 생각한즉 쟝렝은 우스워 죽을 지경이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린 철학가처럼 점잔을 빼면서 말하였다.

《혼자 있는것이 더 좋지요. 괜히 누구와도 다투게 되지 않으니까요.》

에띠엔느는 빵을 다 먹었다. 다음에 그는 향나무술을 한모금 마셨다. 그는 자기가 소년의 귀를 붙잡고 밝은 곳으로 끌고가서 아버지에게 모든것을 일러바치겠다고 위협하면서 앞으로 더는 도적질을 못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쟝렝의 이 환대에 대한 더없는 보답이 아닐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지하에 있는 이 피난처를 살펴보면서 밖에서 일이 잘되지 않는 경우 이 굴이 자기자신이나 동무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에띠엔느는 쟝렝한테서 그가 더는 거기 남아서 자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쟝렝은 이따금 건초우에 누워서 딩구는것이 유쾌할 때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자버렸던것이다. 에띠엔느는 쟝렝이 마음놓고 자기의 살림살이를 정돈할수 있도록 남은 초꽁다리를 가지고 먼저 나와버렸다.

무께뜨는 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들보우에 앉아서 인내성있게 에띠엔느를 기다렸다. 그는 에띠엔느를 보자 그의 목에 확 매달렸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마치 그의 심장에 칼을 박듯이 더는 다시 그와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느님 맙소사. 헌데 무엇때문일가? 과연 자기가 그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

에띠엔느는 자기가 유혹에 견뎌내지 못하고 무께뜨의 집으로 끌려들어갈가봐 두려워서 그를 데리고 신작로쪽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그는 자기들의 관계가 동무들앞에서 그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또한 정치문제에까지 해를 끼친다는것을 되도록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해주었다.

무께뜨는 놀래였다. 이것이 정치에 무슨 관계가 있을수 있단 말인가? 이윽고 그에게는 에띠엔느가 그저 자기를 가까이하는것을 수치로 알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무께뜨는 그것을 모욕으로는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례사로운 일이기때문이였다.

무께뜨는 에띠엔느더러 아무때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번 자기 뺨을 쳐달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그들사이에서는 만사가 끝장났다고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따금 잠간이나마 만날것이다. 처녀는 열렬하게 간청하면서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즉 자기는 그를 5분쯤, 그 이상은 지체시키지 않겠다는것이였다.

에띠엔느는 무척 감동되였으나 여전히 거절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것이다. 그러나 헤여질 때 그는 어쨌든 그를 포옹하고싶었다.

둥글넙적한 달아래서 그들은 서로 팔을 끼고 한걸음 한걸음 걸어서 몽쑤의 첫집들이 있는데까지 왔다. 이때 그들옆으로 웬 녀인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돌에라도 채인듯이 놀랬다.

《누구요?》 하고 에띠엔느는 불안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까뜨리느예요.》 하고 무께뜨가 대답했다.
《쟝－바르에서 돌아오는 길이예요.》
까뜨리느는 머리를 숙이고 몹시 지친 기색으로 연약한 다리를 옮겨놓으면서 사라졌다.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에띠엔느는 자기가 그에게 발각되였다는것으로 해서 락심천만해있었다.
그는 까닭없는 량심의 가책때문에 마음이 괴로왔다. 과연 그 처녀는 다른 사나이와 함께 있지 않았단 말인가? 과연 처녀는 그곳 레끼아르에서 나오는 이 길에서 그 사나이에게 자기의 몸을 맡길 때 그러한 고통을 자기에게 주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나 에띠엔느는 자기가 그에게 그와 꼭같은 방법으로 앙갚음을 했다는것이 괴로왔다.
《이봐요, 내 말 들어보겠어요?》
까뜨리느가 물러갔을 때 무께뜨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당신은 다른 녀자를 좋아하기때문에 날 사랑하지 않는것 같아요.》
이튿날은 날씨가 아주 좋았다. 희한한 겨울날의 하루여서 얼어붙은 대지는 발밑에서 수정같은 소리를 내였으며 차디찬 하늘은 맑게 개였다. 쟝렝은 낮 1시쯤에 집에서 도망쳐나왔으나 교회당뒤에서 베베르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리디는 어머니가 그냥 움속에 가두어두었으므로 그들은 저들끼리 떠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때 계집애를 움속에서 내놓고 민들레를 뜯어오라고 바구니를 맡겼다. 그러면서 만약에 바구니를 가득 채워오지 않으면 또다시 온밤 쥐와 함께 가둬두겠다고 했다. 리디는 너무나 무서워서 곧 민들레를 뜯으러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쟝렝은 그에게 차차 보자고 하면서 집으로 가는것을 단념케 했다. 쟝렝의 생각은 오래전부터 라스너르의 살진 암토끼 뽈스까에 쏠려있었다. 아이들이 아방따즈옆으로 지나가는데 집토끼가 마침 길로 나왔다. 쟝렝은 단숨에 껑충 뛰여 따라가서 토끼의 두귀를 잡아 리디의 바구니속에 넣었다. 그리고 세 아이는 같이 달려갔다. 암토끼를 개처럼 숲이 있는데까지 몰아간다는것은 재미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걸음을 멈추고 자샤리와 무께가 다른 두 동무와 함께 맥주를 한조끼씩 마시고나서 크로스경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내기를 할 물건은 라스너르의 집에 맡긴 새 모자와 붉은 명주목도리였다.

두명씩 패를 가른 네명의 경기자들은 보료갱에서 빠이오농장까지 약 3키로메터되는 첫 경기구간에서 흥정을 했다.

자샤리는 일곱번 치면 갈수 있다고 했고 무께는 여덟번을 쳐야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자샤리가 경기를 시작하기로 되였다.

그들은 회양목으로 만든 팽이모양의 나무공을 뾰족한 한쪽끝이 우로 가게 포석도로우게 놓았다.

경기자들은 모두 방망이를 하나씩 들었다. 그것은 굽은 끝에 쇠를 붙인 막대기였는데 긴 손잡이에는 노끈을 든든히 감아놓았다.

시계가 2시를 치자 경기가 시작되였다. 자샤리는 세번 치게 되여있는 첫 타격으로 솜씨있게 사탕무우밭을 지나 400메터이상이나 공을 쳐던졌다.

길가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서 마을과 도로에서 경기를 하는것은 금지되여있었다. 역시 숙련된 경기자인 무께도 한팔로 어찌나 힘있게 쳤던지 단 한번에 공을 150메터나 뒤로 되돌려보냈다.

경기는 계속되였다. 한편은 앞으로 공을 치고 다른 한편은 뒤로 쳤다. 모두가 달려가면서 경기를 했는데 경기자들은 갈아놓은 땅의 얼어붙은 흙덩어리모서리에 발을 상하였다.

경기자들이 세차게 공을 치는데 도취된 쟝렝과 베베르며 리디는 처음에 그들의 뒤를 따라 달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바구니속에서 흔들리고있는 뾸스까를 상기했다. 그들은 한창인 경기구경을 그만두고 암토끼가 빨리 뛰는가를 보려는 호기심에서 꺼내놓았다. 암토끼는 앞으로 내달리고 아이들은 그뒤를 따라갔다.

약 한시간이나 부리나케 뛰여다니며 그들은 사방으로 토끼를 쫓았다. 이따금 그들은 토끼를 놀래우느라고 큰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두팔을 쩍 벌렸다가 허공을 덮치기도 했다. 암토끼가 새끼를 가지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그놈을 따라잡지 못했을것이다.

그들이 숨이 차서 멈춰섰을 때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래서 그들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또다시 경기자들의 바로 옆에 와있었다. 자샤리는 하마트면 동생의 머리를 깔번 했다.

네번째 승부가 진행되고있었다. 경기자들은 빠이오농장에서 까뜨르슈멩으로 갔다가 다음에 까뜨르슈멩에서 몽뜨와르로 갔었고 이번에는 여섯번을 쳐서 몽뜨와르에서 쁘레 데 바슈까지 가야 했다.

이것은 그들이 한시간동안에 25리를 지나온것으로 된다. 그리고 그들은 뱅쌍과 뜨르와 싸쥬카페에서 맥주를 또 마셨었다. 이번에는 무께가 앞장서있었다. 그는 목적지까지 아직 두번은 칠수 있어서 그의 승리는 확정적이였다.

그런데 순번이 된 자샤리가 시물거리면서 아주 솜씨있게 공을 쳤다. 공은 깊은 도랑에 굴러들어갔다. 무께의 짝패는 그 공을 거기서 꺼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질것 같았다.

네사람은 모두 안달이 나서 소리를 쳤다. 두패는 서로 성적이 같아서 승부를 다시 겨루지 않으면 안되였다. 쁘레 데 바슈로부터 에르브 루쓰의 경계선까지는 2키로메터가 못되여서 다섯번을 치면 되였다. 거기로 가면 더러나르의 가게에서 한잔 할수 있었다.

한편 쟝렝은 새로운 장난을 생각해냈다. 경기자들이 사라지자 그는 호주머니에서 노끈을 꺼내여 뽈스까의 왼쪽뒤다리를 비끄러매놓았다.

이것은 참 재미있었다. 암토끼가 이 세 장난군의 앞으로 뛰여가면서 다리를 끌고 어찌나 애처롭게 엉뎅이를 씰룩거렸던지 아이들은 아직 한번도 그렇게 웃어본적이 없었다.

다음에 그들은 암토끼가 깡충깡충 뛰여서 달아날수 있도록 그의 목을 처매놓았다. 뽈스까가 지쳤으므로 아이들은 조그마한 손수레를 끌고가듯이 혹은 배밀이로 혹은 뒤로 눕혀서 끌고갔다.

이런 장난이 한시간이상이나 계속되였다. 암토끼는 할딱거렸다.

이때 크루쇼의 수풀근처에서 경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들을 또 훼방하지 않기 위해 암토끼를 서둘러 바구니속에 넣었다.

이번에는 자샤리와 무께 그리고 나머지 두 경기자들이 목적지로 삼았던 술집들에서 맥주를 마셨을뿐 다른 휴식이 없이 수키로메터를 계속 달려왔다. 그들은 에르브 루쓰에서 부슈로, 거기서 끄르와 더 삐

에르로, 다음에는 샹블레이로 향했다.

그들이 공을 따라 멈추지 않고 달릴 때면 발밑에서는 언땅이 쿵쿵 울렸다. 공은 얼어붙은 물웅뎅이들에 떨어졌다가는 튀여오르군 했다. 날씨가 좋아서 경기자들은 아무데도 빠지진 않았으나 그대신 다리를 부러뜨릴 위험이 있었다.

메마른 겨울의 대기속에서 공을 치는 소리는 총소리처럼 울렸다. 근육이 울근불근한 손들은 끈을 감은 손잡이를 꽉 틀어쥐고있었다. 이런 때면 경기자들은 온몸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황소라도 한마리 일격에 죽이려는듯 한 기세였다. 경기는 도랑이며 울타리며 언덕이며 높지 않은 남새밭의 울바자를 지나서 한끝에서 다른 한끝까지 온 들판을 횡단하면서 몇시간동안 계속되였다. 이 경기를 하려면 든든한 가슴과 무쇠돌쩌귀 같은 무릎이 필요했다. 탄부들은 갱에서 작업을 필한 후에 열중해서 이런 방법으로 굳어진 몸을 풀기를 좋아했다. 스물다섯쯤되는 어떤 젊은이들은 이 놀음에 열중해서 백여리를 달리기도 했다. 사십대에 들어서면 탄부들은 이런 경기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지나치게 몸이 무거워진때문이였다.

시계가 5시를 치고 황혼이 벌써 깃들었다. 마지막으로 누가 모자와 목도리를 가질것인가 하는것을 결정하기 위해선 방담의 숲까지 또 한 승부를 해야 했다.

여느때처럼 정치에 아주 무관심하고 비웃기 좋아하는 자샤리는 공이 숲까지 날아가서 거기에 모인 동무들속에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죽거렸다. 쟝렝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는 마을에서 벌써 자기들의 놀음의 마지막목적지를 숲으로 정했던것이다.

량심의 가책과 공포로 해서 괴로와하는 리디가 보료로 돌아가서 민들레를 뜯겠다고 하자 쟝렝은 성이 나서 자기들이 지금 집회에 가는것이 아닌가고 그를 위협했다. 그는 어른들이 하는 말을 꼭 듣고싶었다. 쟝렝은 베베르를 앞으로 떠밀고 숲가까지 남은 길을 더 유쾌하게 가기 위해 뽈스까를 놓아주고 그놈이 도망칠 때 돌을 던져 몰아가자고 했다. 쟝렝은 암토끼를 죽이려는 숨은 생각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레끼아르에 있는 자기의 은신처에 그것을 가지고가서 배불리 맛있게 먹으려는것이였다.

암토끼는 두귀를 딱 붙이고 흙냄새를 맡으면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

다. 그러자 그놈에게 돌들이 날아갔다. 돌 하나는 암토끼의 등의 껍질을 벗겼으며 다른 하나는 꼬리를 잘라놓았다.

땅거미가 질어갔는데 아이들은 숲속의 공지 한복판에 서있는 에띠엔느와 마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암토끼를 죽였을것이다.

두사람을 보자 그들은 미친듯이 토끼에게 달려들어 다시 바구니에 잡아넣었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자샤리와 무께와 다른 두 로동자가 마지막으로 공을 날려보냈다. 그리하여 공은 숲속의 공지에서 불과 몇메터밖에 안 떨어진 곳까지 굴러갔다.

그들은 집회장의 한가운데에 뛰여들었다.

황혼이 깃들기 시작하자 넓고 번번한 들판의 모든 도로와 오솔길들에는 말없는 사람들의 그림자들이 혹은 한사람씩 혹은 무리를 지어 연보라빛의 큰 나무들이 서있는 숲을 향하여 늘어섰다. 모든 마을들이 텅 비였다. 녀인들과 아이들까지도 맑은 저녁에 산보라도 하는듯 집을 나섰던것이다.

길이 어두워서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군중을 분간할수 없었다. 다만 군중이 혼란된 심정으로 같은 생각을 품고 걸어가고 있다는것이 느껴질뿐이였다. 풀숲과 나무들사이에서는 가벼운 스침소리와 밤에 웅성거리는 어렴풋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각에 엔보씨는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있었다. 그는 들릴락말락한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훌륭한 겨울날 저녁 그는 사랑하는 남녀들의 쌍과 산보하는 사람들의 긴 행렬을 볼수 있었다. 입맞추고 벽뒤에서 쾌락을 보는 젊은이들은 계속되였다. 거기서 그들은 정상적으로 만나고 처녀들은 웅뎅이마다 누워있었으며 거지들은 누거리로 배를 채우는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았다.

이 어리석은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유일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생활에 대한 불평을 하고있다!

그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녀인과 다시 생활을 시작할수 있다면 자기도 그들처럼 굶주리는것을 마다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의 불행은 위안이 없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러웠다.

말을 탄 그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갔다. 말은 터벅터벅 걸어갔다. 어두운 들판으로 사라져가는 이 기다란 소리로 해서 그는 절망에 빠

져있었다.
그는 그 소리들을 입맞추는 소리로밖에 듣지 못했다.

7

집회는 비스듬히 경사진 커다란 숲속, 채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생긴 쁘랑 데 담공지에서 진행되였다. 공지는 하얀 기둥들마냥 곧게 쭉쭉 뻗어오른 이끼낀 너도밤나무들로 둘러싸여있었다. 숲속에는 큰 나무들이 아직 넘어져있었고 왼쪽에는 찍어놓은 나무들이 네모반듯하게 쌓여있었다.
황혼이 깃들면서 날씨는 더 쌀쌀해지고 얼어붙은 이끼가 발밑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내였다. 땅우는 아주 캄캄해졌다. 높이 뻗어있는 아지들이 희미한 하늘에 뚜렷이 드러나보였고 지평선으로 둥근달이 솟아오르며 별빛을 희미하게 했다.
집회에는 약 3천명의 탄부들이 모였다. 그리고도 사람들이 연신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다. 사나이들과 녀인들과 아이들이 공지를 채웠고 멀리 나무밑까지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늦어진 사람들이 계속 도착했다. 어둠에 휩싸인 사람들의 물결이 린접한 떡기나무숲까지 차지하였다.
태고연한 쌀쌀한 수림에서는 폭풍우같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공지의 경사면을 다 바라볼수 있는 높은 곳에는 에띠엔느가 라스너르며 마여와 함께 서있었다.
그들사이에는 론쟁이 붙어서 갑자기 터져나오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주위에 모인 사나이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레바끄는 주먹을 불끈 쥐였고 삐에롱은 등을 돌리고 서서 자기가 더 꾀병을 앓지 못한것을 대단히 근심스러워하였다. 본느모르할아버지와 무끄로인도 깊은 생각에 잠긴 낯으로 그곳 나무그루터기우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그뒤쪽에는 좀 떨어져서 놀음삼아 여기로 온 자샤리와 무께와 그리고 다른 익살군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 맞은편에는 녀인들이

생각에 잠겨서 교회당에서처럼 신중한 표정으로 무리를 지어 서있었다.

마여의 안해는 레바끄의 안해가 쏭알쏭알 퍼부어대는 욕지거리에 잠자코 고개만 끄덕이고있었다. 필로멘느는 기침을 깇고있었다. 겨울이 되면 그는 기관지염이 재발하군 하였다. 무께뜨만이 자기 딸을 욕하고있는 브률레할머니를 보고 유쾌하게 웃고있었다. 브률레할머니는 자기 딸이 토끼고기볶음을 혼자 먹으려고 어미를 내쫓았으며 남편이 비렬한 덕에 살이 진 더러운년이라고 욕설을 퍼붓고있었다. 쟝렝은 누구보다 높이 목재더미우에 자리를 잡고 리디를 끌어올리고 베베르를 그리로 올라오게 했다.

론쟁은 정식으로 집행부를 선출하려고 한 라스너르에 의하여 일어났다. 봉 쥬와이어에서의 패배가 그의 부아를 돋구었던것이다. 그래서 라스너르는 대표들이 아니라 탄부대중과 상면하게 되면 앙갚음을 하고 자기의 이전 권위를 회복하리라 은근히 별러왔었다.

격분한 에띠엔느는 이러한 숲속에서 집행부를 선출하려는 생각은 어리석은것이라고 인정했다. 자기들이 승냥이처럼 추격을 받고있는 형편일진대 단호히 혁명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론쟁은 끝이 없으리라고 생각한 에띠엔느는 통나무우에 올라가서 《동지들, 동지들!》 하고 웨쳤다. 그는 곧 군중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뒤숭숭한 사람들의 웅글은 소리가 긴 한숨으로 변하면서 잦아들었다. 마여는 라스너르의 주장을 막아버렸고 에띠엔느는 찌렁찌렁 울리는 소리로 말을 이었다.

《동지들, 놈들이 우리가 토론을 못하게 하고 우리를 강도들처럼 여기고 헌병을 끌어오는만큼 우리는 여기서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선 우리가 자기 집에서처럼 자유롭습니다.

새나 짐승들의 입을 막을수 없는것처럼 우리가 말하는것을 누구도 막으러 오지 못합니다.》

군중은 함성으로 호응해서 여기저기서 고함소리들이 울렸다.

《그렇소, 그렇소. 숲은 우리의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마음대로 이야기할수 있소. 시작하시오!》

에띠엔느는 잠시 까딱않고 나무그루우에 서있었다. 지평선우에

아직 낮게 솟아오른 달은 여전히 높은 나무의 정수리만을 비쳐주었다. 어둠속에 잠긴 군중은 점차 진정되고 잠잠해졌다.

역시 어둠에 휩싸인 에띠엔느는 검은 그림자처럼 경사면우 군중우에 우뚝 서있었다.

그는 천천히 팔을 올리며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는 크게 울리지 않았다. 에띠엔느는 대중앞에서 보고를 하는 보통 탄부대표처럼 침착하게 말을 했다. 드디여 그는 봉 쥬와이어에서 경찰서장때문에 하지 못했던 말을 계속할수 있었다.

에띠엔느는 사실을, 순수한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서 파업의 경위를 간단히 개괄하는것으로 말을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파업에 대한 자기의 반대의사를 이야기하였다. 탄부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았으나 탄광당국이 동발에 대한 새로운 가격을 제정하여 탄부들로 하여금 파업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다음에 그는 대표들이 처음으로 지배인을 찾아갔던 일이며 리사회의 무성의에 대해서, 그후 두번째 교섭때에 리사회는 략취하려던 10쌍띰을 돌려주는데 동의를 함으로써 늦게나마 양보를 했다는것을 상기시켰다. 지금 이 상태인데 호상부조금고가 텅 비였다. 에띠엔느는 수자를 들어 그것을 확증하고 원호금들을 무엇에 썼는가를 알려주고나서 인터나쇼날과 쁠류샤르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국제적규모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탄부들을 위해 더는 무엇을 할수 없었다고 몇마디 변명을 했다.

그러므로 사태는 나날이 악화되고있으며 회사는 로임수첩을 돌려주고 벨지끄에서 로동자들을 고용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회사는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공갈하고있으며 이미 몇명의 탄부들을 입갱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에띠엔느는 이 좋지 못한 소식들을 강조하는듯 일부러 꼭같은 어조로 이 모든 이야기를 계속하고나서 기아가 우세를 보이고 희망은 사그라져가고있는만큼 투쟁은 비상한 용기를 요구하고있다는것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지 않고 결론을 지었다.

《동지들, 사태가 이러니만큼 오늘 저녁 우리는 결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파업을 계속하는것을 원합니까? 이 경우 회사를 타승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별이 반짝이는 하늘밑은 깊은 적막에 잠겨있었다.
어둠속에서 보이지 않는 군중은 에띠엔느의 말에 기가 눌리여 잠자코 있었다. 나무들사이로 그의 실망한 한숨소리가 들려올뿐이였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벌써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랐다.
지금 그는 협회의 비서로서가 아니라 대오의 책임자로서, 진리를 전달하는 사도로서 말하고있었다. 자기의 맹세를 어기는 비겁분자들이 과연 있을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럴수 있겠는가?
머리를 수그리고 탄갱에 돌아가서 또다시 전과 같은 가난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한달동안 헛되이 고생했단 말인가! 생명을 희생하고서라도 로동자들을 굶주리게 하는 자본의 압박을 뒤집어엎는것이 좋지 않단 말인가?
기아가 가장 온순한 사람들을 다시금 궐기시킬 때까지 그것을 계속 참고 견뎌야 한단 말인가? 더는 지속되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짓이 아니란 말인가? 그리고 에띠엔느는 공황의 후과를 혼자 걸머지며 경쟁으로 해서 원가를 낮추느라 먹을것도 차례지지 않는 착취받는 탄부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아니다. 동발세우는 값은 접수할수 없는것이다. 거기에는 매개 탄부들에게서 매일 한시간씩의 로동시간을 착취하려는 타산만이 숨어있는것이다. 이것은 너무도 지나친것이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정의를 위하여 싸울 때가 된것이다.
에띠엔느는 두팔을 쳐든채 서있었다. 《정의》라는 말에 군중이 한참동안 설레이더니 박수갈채가 마른 나무잎소리와 함께 터졌다.
《정의요! 정의를 쟁취할 때는 왔소!…》
에띠엔느는 점점 흥분해갔다. 그는 라스너르처럼 풍부하고도 쉬운 표현을 가지고 류창하게 말할줄 몰랐다. 그는 자주 말이 모자라서 손짓과 몸짓으로 보태면서 가까스로 말을 만들었다. 이러한 애로에 계속 부딪치면 그는 청중들의 마음을 끄는 익숙된 힘있는 동작들을 생각해내기도 했다. 건설장로동자의 몸짓, 구부렸다폈다하는 팔꿈치, 내흔드는 두주먹, 마치 물기라도 할것처럼 갑자기 내미는 턱은 동무들에게 놀라운 작용을 하였다. 모두 그가 큰 인물은 아니지만 자기 연설을 듣게 한다고 말하였다.
《고용로동—이것은 새로운 노예제도의 한 형태입니다.》 하고

에띠엔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바다가 어부들의것이고 토지가 농민들의것인것처럼 탄갱은 탄부들의것입니다. … 알겠습니까?… 탄갱은 당신들의것입니다. 온 한세기동안 그때문에 땀과 피를 흘린 당신들모두의것입니다!》

그는 대담하게 론의의 대상으로 되여있는 권리문제들을 론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탄광관계의 특별법을 렬거하였다.

지하자원도 바로 토지와 같이 전체 인민의 소유인데 이러저러한 회사들이 오직 추악한 특권에 의해서 독점하고있는것이다. 몽쑤에 대해서 말한다면 소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석탄채굴권이 애노의 낡은 관례에 따라 이전 령지소유자와 이미 오래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말미암아 복잡해지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탄부들은 오로지 자기의 재산을 다시금 찾아야 하는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에띠엔느는 숲너머에 있는 온 지방을 손을 들어 가리켰다. 때마침 솟아오른 달은 높은 나무가지새로 그를 비쳐주었다. 재부를 나누어주는듯이 훤한 달빛에 비치여 두팔을 벌리고 서있는 그의 자태를 보자 어둠에 싸여있는 군중은 다시금 계속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렇소, 그렇소, 옳소! 옳소!》

그러자 에띠엔느는 자기가 좋아하는 문제인 로동도구의 공동소유에 대한 사상을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라도 자기를 유쾌하게 자극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풀이했다.

이 시각 그에게 있어서 변화발전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였다. 그리스도교신봉자들의 박애와 임금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한 그는 임금제도를 완전히 철페해야 한다는 정치적사상에까지 이르렀다. 봉 쥬와이어에서의 회의이후 아직 정식화되지는 못했으나 인도주의적인 집단주의에 대한 그의 견해는 복잡한 강령으로 규정되였고 그 강령의 매개 조항을 그는 과학적으로 론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먼저 국가기구가 파괴됨으로써만 비로소 자유를 쟁취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다음에 인민이 정권을 장악하면 개혁은 시작될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원시적 공동체에로의 복귀, 관습에 얽매여 억압받던 가족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족관계에로의 전환, 완전한 공민적, 정치경제적평등, 생산도구와 모든 로동생산물의 향유에 의한 개

성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의 부담에 의한 무상직업교육과 같은 개혁들이 시작될것이다. 이것은 낡고 부패한 사회의 전면적개조를 가져온다. 에띠엔느는 결혼제도와 상속권에 대하여 언급하고 개인재산정도를 규제하였으며 침체한 세기들의 그릇된 기념물을 뒤집어엎는듯 한 동작을 한팔로 크게 하였다.

그것은 마치 다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의 동작같았다. 그리고 다른 한팔로는 20세기 려명기에 자라나는 미래의 인류, 진리와 정의의 전당을 세우는 시늉을 하였다.

정신적긴장으로 그의 리성은 안정을 잃었고 그에게는 광신적신봉자의 굳어진 사상만이 남았다. 감수성과 훌륭한 지각에 의한 소심성은 사라졌다.

이제 와서 그러한 새 세계를 건설하는것보다 더 수월한 일은 없을것 같았다. 그는 모든것을 예견하였었다. 에띠엔느는 두시간동안이면 조립할수 있는 기계에 대하여 운운하는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피도 그는 아끼지 않았다.

《우리의 차례가 왔습니다.》 하고 에띠엔느는 갑자기 말을 맺았다. 《앞으로 권력과 재부는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웨치는 환호소리가 깊은 숲속에서 울려나와 에띠엔느에게까지 들려왔다. 이제는 달빛이 멀리 떨어져있는 숲속의 떨기나무숲까지 온 공지를 비치면서 재빛이 도는 커다란 나무줄기사이로 물결치는 사람들의 머리들을 뚜렷이 드러내보였다.

그것은 차디찬 대기속에서 몹시 굶주리고 흥분되여 오래전에 빼앗긴 재산을 탈취하려고 일떠선 눈을 반짝이며 입을 벌린 사나이들과 녀인들과 아이들의 격노한 얼굴이였다. 그들은 에띠엔느의 열렬한 연설에 흥분이 되여 추위를 더는 느끼지 않았다. 광신자와 같은 희열이 그들을 대지우에 추어올렸다. 그들은 갓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교도들과 같이 머지않은 장래에 도래할 정의의 왕국에 대한 열렬한 희망으로 가득차있었다. 그들은 많은 어려운 말을 리해하지 못했고 학술적이며 추상적인 리론은 잘 해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리숭한것 그 자체와 추상성이 더욱더 그들을 약속으로 현혹케 했다. 얼마나 훌륭한 꿈인가!

스스로 자기자신의 주인이 되고 고통을 받지 않고 생활을 향락한다

는것이다!…

《그렇소, 제기랄!… 우리의 차례가 왔소! 착취자들에게 죽음을!》

녀인들은 몹시 흥분하였다. 여느때의 그 평온을 잃은 마여의 안해는 굶주림으로 해서 현훈증이 일었고 레바끄의 안해는 큰소리로 울부짖었으며 브률레로파는 제정신이 아닌듯 마귀할미처럼 팔을 휘둘렀고 필로멘느는 기침이 발작하여 몸을 떨었으며 흥분한 나머지 무께뜨는 연설자에게 정에 겨운 말로 웨쳐댔다.

사나이들중에서 그의 말에 매혹된 마여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그를 사이에 두고 삐에롱은 두려워서 몸을 후들후들 떨었고 레바끄는 지나치게 떠들어댔다. 한편 익살군들인 자샤리와 무께는 조롱을 하려고 해보았으나 어색해졌다. 그들은 자기들의 동무가 한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오래동안 이야기를 한것이 놀라왔다. 그러나 쟝렝은 리디와 베베르를 사촉하여 목재더미우에서 뿔스까를 담은 바구니를 내흔들면서 누구보다 요란하게 떠들어댔다.

다시금 청중은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에띠엔느는 자기의 인기에 도취되여있었다. 그는 이 3천명군중의 마음속에 자기의 말 한마디로 그들의 심장이 높뛰게 할수 있는 권위를 획득하는것을 실현한듯 했다.

만약에 쑤바린이 여기 나타나서 에띠엔느의 말을 들었다면 그의 사상을 지지하고 그것을 인정할수록 자기 제자의 무정부주의적발전과 교육에 관한 조항을 제외한 강령에 만족했을것이다. 쑤바린은 무식이 신성하고 유익한것으로서 사람들을 다시금 단련시키는것으로 될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에 교육에 관한 조항을 어리석은 감상의 잔재로 인정했던것이다. 라스너르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는 멸시와 격분에 차서 어깨를 으쓱했다.

《나에게 언권을 주오!》 하고 에띠엔느에게 웨쳤다.

에띠엔느는 통나무에서 뛰여내렸다.

《말하시오. 당신의 말을 들어주나 봅시다.》

라스너르는 어느새 그 자리를 차지하고 몸짓으로 조용할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웅성거리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라스너르의 이름은 그를 알아본 앞줄의 사람들로부터 너도밤나무밑에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 신도들이 보기만 해도 격노하여 자빠뜨린 우상

같았다.

이전에 모든 사람들을 그처럼 매혹케 했던 그의 손쉬운 웅변과 미끈하고 호인다운 말은 이제 와서는 비겁분자들이나 마취시키는데 쓰는 미지근한 약물같았다. 라스너르는 그 소음속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헛되게 애썼다. 그는 새로운 법령의 발포만으로는 사회제도를 변경시킬수 없다는것과 사회적발전을 위해선 시일이 필요하다는것을 태연하게 설명하려고 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며 코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그리하여 봉 쥬와이어에서의 참패는 더욱 커져서 만회할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결국 사람들은 얼어붙은 이끼를 한줌씩 그에게 던졌고 어떤 녀인들은 새된 목소리로 웨쳤다.

《변절자를 타도하라!》

라스너르는 직기가 직포공의 소유로 될수 없는것처럼 탄갱이 탄부들의 소유로 될수 없다는것을 설명하고 주주가 되여 리해관계를 가진 로동자로서 리윤분배에 참가하는것이 더 좋다고 확언을 했다.

《변절자를 타도하라!》수천의 목소리가 반복되고 뒤이어 돌멩이들이 휙휙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절망의 눈물이 눈에 가득찼다. 그의 온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스무해동안의 큰뜻을 품었던 동지적우의는 군중의 배은망덕으로 인해서 무너지고말았다. 그는 가슴이 터지는것 같고 더 말할 힘이 없어서 통나무에서 내려왔다.

《우스울게요.》 하고 라스너르는 득의양양한 에띠엔느를 향하여 중얼거렸다. 《좋소, 당신도 꼭같은것을 체험하게 되길 바라오.… 그렇게 될게요. 알겠소?…》

그리고 라스너르는 자기가 예견한 앞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듯 한 시늉을 해보이고 훤히 트인 조용한 벌판을 홀로 걸어갔다.

욕설로 가득찬 웨침소리가 높아갔다. 그러나 이때 모든 사람들은 이 소란속에서 통나무우에 올라 한창 이야기를 하고있는 본느모르할아버지를 보고 놀래였다. 이때까지 그와 무끄로인은 줄곧 지나간 일들에 대한 회상에 잠겨있었다.

본느모르할아버지에게는 갑자기 말하고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지난날이 어찌나 생동하게 떠올랐던지 회상은 몇시간이고 계속되고 말을 할수 있었다. 모두가 잠자코 로인의 말을 들었다. 달빛에 비친 그는

유령처럼 얼굴이 창백했다. 그의 이야기는 집회에서 이야기된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으므로 리해하기 힘든 장황한것이였으나 흥분을 자아냈다.

그는 청춘시절을 상기하고 보료탄갱에서 깔리워죽은 두 삼촌에 대하여 말하고 다음에는 폐염으로 죽은 자기 안해를 회상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놓치지 않았다. 전에도 자기들의 처지가 좋아진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좋아지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였다. 어느날 황제가 작업시간을 줄여주지 않으려고 했기때문에 그들도 500명이나 이 숲에 모였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로인은 말을 갑자기 끊었다가 다른 파업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런 파업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것인가? 모든 파업은 쁘랑 데 담 공지인 이 나무밑에서 그리고 저곳의 샤르본느리, 아니면 더 멀리 떨어진 쏘 듀루에서 진행되였다. 어떤 때는 추웠고 어떤 때는 더웠다. 어느날 밤은 비가 너무 퍼부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해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황제의 병사들이 나타났고 일은 발포로써 끝났었다.

《우리도 역시 손을 쳐들고 입갱을 하지 않겠다는것을 맹세했댔소. … 나도 맹세를 했고. 그렇소, 정말 맹세를 했소!…》

군중은 유심히 귀를 기울여들으며 기분이 좋지 않아했다. 그러나 이때 벌어진 사태를 주시하고있던 에띠엔느가 통나무우에 뛰여올라 로인의 옆에 섰다. 그는 첫줄에 동무들과 함께 서있는 쇄발을 알아보았다. 까뜨리느가 거기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에띠엔느의 가슴을 불태웠다. 까뜨리느가 있는데서 탄부들이 환호성을 올렸으면 하고 바랐다.

《동지들, 당신들은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가 바로 우리 조상들중의 한사람이며 이것이 그가 겪은 고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적놈들과 교형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고통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에띠엔느의 모습은 무서웠다. 그는 어느때도 이번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이야기를 한적이 없었다. 그는 한손으로 본느모르를 부축하고 빈궁과 비탄의 기발인양 그를 가리키면서 복수를 호소했다.

그는 짧은 말로 마여일가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그들의 일가가 탄갱에서 쇠약해지고 회사에게 먹히웠으며 백년동안 로동

을 하면서 굶주려왔다는것을 설명하며 돈들을 함부로 처먹은 리사회의 배부른 리사들이며, 규방 규수처럼 백년이상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육체적쾌락을 즐기고있는 주주의 무리들과 빈궁한 탄부들을 대비했다. 대신들에게 뢰물을 먹이고 귀족들과 부르죠아지들이 주연을 베풀고 따뜻한 방에서 안락하게 살면서 비대해지도록 대중은 대대로 막장에서 죽어가야 하거늘, 과연 이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는 탄부들의 질병을 연구한터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낱낱이 렬거할수 있었다. 그는 빈혈증, 선병, 폐병, 숨이 차는 천식병, 중풍을 일으키는 류마치스까지 들었다. 불행한 사람들은 기계밥으로 되고 짐승처럼 쫓기여 마을에 몰려들어가는것이다. 대회사들은 천여명의 놀고먹는자들의 재산을 위하여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온 나라의 로동자들, 수백만의 일손을 징집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들을 점차로 삼키고있다. 그러나 탄부들은 이미 무식쟁이가 아니며 땅속에 짓눌리여있는 짐승들이 아닌것이다. 탄갱의 깊은 땅속에서는 위대한 태양의 빛을 받아 땅을 터치고 싹튼 씨앗에서 거두게 될 공민의 수확물인 대부대가 자라나고있다. 그런즉 40년간이나 일한 끝에 석탄먼지를 토하며 탄갱의 습기로 해서 두다리가 퉁퉁 부어오른 60나는 로인에게 감히 150프랑의 년금을 지불하겠는가를 알게 될것이다. 그렇다! 로동은 기이한 자기 소굴 어딘가에 웅거해서 자기를 먹여주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로동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이 신적존재인 자본에게 결산을 요구할것이다!

사람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불을 지르고 그 불빛으로 그의 낯짝을 비쳐보고 사람의 고기로 배를 채운 간악한 우상인 이 추악한 존재를 피에 잠그어버릴것이다!

에띠엔느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여전히 허공에 쳐든 팔은 어딘가 저쪽, 지구 한끝에 있을 원쑤들을 가리켰다. 그러자 군중의 웨침소리가 어찌나 높았던지 몽쑤의 부르죠아지들이 어떤 놀라운 붕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근심스럽게 방담쪽을 바라보았다. 밤새들이 숲우에 날아올라 가없는 훤한 하늘로 사라졌다.

에띠엔느는 곧 결속을 지으려고 하였다.

《동지들, 당신들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파업을 계속하는데 동의합니까?》

《그렇소! 그렇소!》 분노의 목소리들이 울렸다.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까?… 비겁분자들이 래일 입갱을 한다면 패배는 피치 못합니다.》

우뢰와 같은 함성이 또 울렸다.

《비겁분자를 죽여라!》

《그러면 당신들은 그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맹세를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탄갱에 나가서 우리들이 있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배신자들을 돌려세우고 우리모두는 의견이 일치하며 양보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할것이라는것을 회사에 보여주는것입니다.》

《옳소! 탄갱으로 갑시다! 탄갱으로!》

에띠엔느는 말을 시작한 때로부터 자기를 둘러싸고 큰소리로 웨치고있는 창백한 사람들사이에서 까뜨리느를 눈으로 찾았다. 분명히 까뜨리느는 없었다. 그는 줄곧 솨발을 보았다. 솨발은 그의 인기가 좀 높아져 복수할 준비가 되여있었고 질투심으로 어깨를 으쓱하면서 비웃고있었다.

《동지들, 우리들사이에 개가 있다면》 하고 에띠엔느가 말을 이었다. 《그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고있습니다… 나는 작업을 계속하고있는 방담의 탄부들을 알고있습니다.》

《넌 나를 두고 말하는거냐?》 하고 솨발이 도전하듯이 물었다.

《너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수도 있다.… 그러나 말이 났으니 말이지 배부른자는 굶주린 사람을 리해하지 못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넌 쟝 바르에서 일을 하고있지.…》

《아무렴, 일하고있지.… 저자는 자기를 위해 일하는 계집이 있단 말이야.》 누군가의 비웃는 목소리가 말을 끊었다.

솨발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제기랄! 그러면 일을 하지 말란 말이냐?》

《그렇다!》 하고 에띠엔느가 웨쳤다. 《동무들이 모두의 행복을 위해 빈궁을 참고있을 때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고 주인에게 아첨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파업이 총파업으로 되였더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주인이 되였을것이다. 몽쑤에서 파업을 하고있을 때 방담의 탄갱에서 한사람이라도 입갱을 할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와 같이 데벨

랭의 탄갱에서도 일어남으로써 온 지방이 작업을 중지하는것이 큰 타격으로 된다. 알겠어? 쟝 바르의 탄갱에는 모두 변절자들뿐이다. 너희들모두가 변절자다!》

쏴발주위의 군중이 주먹을 쳐들고 위협하며 소리쳤다.

《그놈을 죽여라! 죽여라!》 하고 웨치기 시작했다. 쏴발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에띠엔느를 타승하겠다는 일념이 쏴발에게 한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했다.

《내 말을 들어주오! 래일 쟝 바르에 오시오. 그러면 내가 일을 하는가, 안하는가를 보게 될게요!… 우리도 당신들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는것을 말하라고 날 여기 파견했소. 화구의 불을 끄고 기계운전공들도 파업을 하게 해야 하오! 뽐프도 멎게 하면 더욱 좋소! 물이 탄갱에 꽉 들어차면 탄갱은 마지막이요.》

사람들은 이번에는 미친듯이 쏴발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는 그때부터 지어 에띠엔느보다 우세했다. 연설자들이 련이어 통나무우에 올라서서 심한 소음속에서 손짓, 몸짓을 하면서 횡포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것은 기적을 기다리다못해서 드디여 스스로 그것을 일으키려고 결심한 한 종교분파의 초조감과 같은 광란이였다. 그들은 허기져서 현훈증이 일어 앞이 붉게 보이는 속에서 만인의 행복이 이룩되는 신격화된 영광가운데 불과 피를 꿈꾸고있었다. 고요한 달빛은 흥분된 사람들의 무리를 비쳐주었고 깊은 숲의 정적은 살륙의 웨침소리를 감싸고있었다. 얼어붙은 이끼만이 발밑에서 바삭바삭 소리를 내였다. 훤한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가느다란 아지들이 거멓게 보이는 너도밤나무들만은 힘있게 뻗치고서서 자기 발밑에서 흥분하고있는 가난뱅이들을 알아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듯 했다.

군중이 밀치락뒤치락하였다. 마여의 안해는 남편의 옆에 와 서게 되였다. 리성을 잃은 그들 둘은 몇달동안 축적된 분노로 너무 흥분하여 기사들의 머리를 잘라올것을 요구하며 한수 더 뜨는 레바끄의 의견에 맞장구치고있었다. 이미 삐에롱은 사라졌다. 본느모르와 무끄는 가려들을수 없는 막연하고 란폭한 소리를 동시에 하고있었다.

자샤리는 시시덕거리면서 교회당을 파괴할것을 요구했고 무께는 소음을 더 내기 위해서 공연히 크로스막대기로 땅을 두드렸다. 녀인들

은 격분하였다. 레바끄의 안해는 두손으로 허리를 짚고 필로멘느가 웃었다고 비난하면서 서로 욕설을 퍼부었다. 무께뜨는 헌병을 임의의 장소에서 발길로 차 당황케 할 이야기를 했다. 브률레할머니는 바구니도 생채감도 없는 리디를 보자 그의 뺨을 때리고 마치도 눈앞에 자기가 때리고싶은 고용주들이라도 서있는듯이 허공에 대고 귀쌈치기를 했다.

베베르는 어떤 보조공에게서 아이들이 뾜스까를 훔치는것을 라스너르의 부인이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쟝렝은 잠시 당황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는 길에 암토끼를 아방따즈의 문가에서 슬그머니 풀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칼을 들고 고함을 치면서 번쩍이는 칼날을 기세높이 휘둘렀다.

《동지들, 동지들!》목이 쉬고 지친 에띠엔느가 결정적인 합의를 보려고 잠간 조용하도록 큰소리로 웨쳤다.

드디여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

《동지들! 래일 아침에 쟝 바르로 갑시다. 동의하지요?》

《옳소, 옳소. 쟝 바르로 갑시다. 변절자들을 처단합시다!》

3천명의 우뢰같은 웨침소리는 하늘에 꽉 찼고 밝은 달빛속으로 사라져갔다.

제 5 장

1

새벽 4시경에 달이 졌다. 밤은 먹물을 뿌린듯 캄캄해졌다.

데넬랭의 집에서는 모두들 아직 꿈속에 있었다.

문과 창문들을 든든히 잠근 낡은 벽돌집이 쟝 바르탄갱이 잇닿은 넓다랗고 황페한 정원의 한끝에 꺼멓게 침울하니 서있었다. 집뒤에는 숲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방담의 큰 탄갱마을로 뻗은 3~4키로메터되는 인적없는 길이 지나갔다. 전날 막장에서 얼마동안 날을 보낸 데넬랭은 기진맥진해서 벽을 안고 돌아누워 드렁드렁 코를 골고있었다. 문

득 그는 꿈속에서 자기를 부르는듯 한 소리를 들었다. 드디여 잠이 깬 그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가 창문을 열어젖혔다. 정원에는 그의 탄갱에 감독으로 있는 한 사나이가 창문앞에 서있었다.

《무슨 일이요?》 하고 데넬랭이 물었다.

《주인님, 우리 탄갱에서도 들고일어났습니다. … 거의 절반이나 되는 로동자들이 파업을 일쿠고 딴 사람들까지도 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데넬랭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있었다. 금시 잠에서 깨여나서 무거운 머리가 그저 윙윙거렸다. 그는 창문으로 흘러드는 선뜩한 랭기에 찬물이라도 뒤집어쓴듯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제기랄, 그놈들을 강제로라도 들여보내란 말이요!》 하고 그는 내뱉았다.

《벌써 한시간전부터 그러고있습니다만 어디 말을 들어줍니까.》 하고 감독이 말했다. 《그래 저희들은 주인님을 찾으러 올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님께서만이 그놈들을 정신차리게 하실수 있을겝니다.》

《그럼 좋소, 가보겠소.》

데넬랭은 부리나케 옷을 주어입었다. 그는 이제는 제정신이 똑바로 들고 몹시 근심스러워졌다.

하인이고 식모고 꿈쩍 없는데 집안을 몽땅 털어가도 모를것 같았다. 그러나 층계의 휴단판 저쪽에서 불안에 싸여 속삭이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데넬랭이 나가려는 찰나에 딸들의 방문이 열리고 흰 실내복을 급히 걸친 그의 두 딸이 나타났다. 큰딸 류씨는 나이가 벌써 22인데 키가 크고 밤빛머리의 화려한 모양을 한 처녀였으며 겨우 19살의 작은딸 쟌느는 자그마한 키에 금발머리를 한 아릿다운 처녀였다.

《아버지, 무슨 일이예요?》

《중한게 아니다.》 데넬랭은 딸들을 안심시키느라고 이렇게 말했다. 《아마 부랑배들이 소동을 일으킨가부다. 좀 가보구 오마.》

그러나 딸들은 소리를 지르며 아무거나 따끈한걸 좀 마시기 전에는 그를 못 나가게 하였다. 위가 약하니 앓는 몸으로 돌아올거라는것이였다.

아버지는 솔직한 말로 자기가 급히 가보아야 할 일이 생겼노라고 하면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썼다.

《이것 보세요, 아버지.》 하고 쟌느는 아버지의 목에 매달리며 말

했다. 《람술이나 한잔 하시구 비스케트나 둬쪼각 드시래두요, 그렇잖으면 아버지를 놓아주지 않을터예요. 날 이 모양대루 데려가시려믄 가시구요.》

아버지는 비스케트야 목이 멜텐데 하고 중얼거리면서도 하는수없이 딸의 말에 순응했다. 딸들은 어느새 초불들을 켜들고 앞서서 층계를 내려갔다.

아래층식당에 내려간 그들은 하나는 잔에다 람술을 따르거니, 다른 하나는 비스케트를 꺼내려 찬장으로 달려가거니 하면서 부리나케 부산을 피웠다.

일찌기 어머니를 여읜 두 처녀는 아버지슬하에서 응석받이로 자라났기때문에 퍼그나 버릇이 없었다. 큰딸은 극장의 가수가 될 꿈을 꾸고있었고 작은딸은 그림에 정신이 팔려있었는데 그는 대담한 취미를 가지고있음으로 해서 남달리 보였다. 그런데 극심한 불경기로 말미암아 부득이 살림이 줄게 되자 이 엉뚱한 처녀들은 일조에 령리하고 리지적인 주부가 되여 회계에서 푼전 한잎도 놓치지 않고 따져내는 안목이 생기게 되였다. 이제 와서 그들은 남자예술인같은 겉모양을 해가지고 돈주머니를 틀어쥐고 돈 한잎한잎을 아끼며 장사군들과 다투기도 하고 헌옷들을 기울대로 기워입기도 하면서 살림살이가 점점 궁해져도 옷차림을 깨끗이 하였다.

《아버지, 드세요.》 하고 류씨가 다시 근심에 싸여 침울해서 말없는 아버지를 보고 되풀이했다. 처녀는 겁이 더럭 났다.

《아버지신색이 좋지 않은걸 보니… 정말로 중한 일이 생긴게로군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우린 가지 않고 아버지하고 함께 있겠어요. 그 점심식사에는 우리가 안 가도 괜찮아요.》

류씨는 오전에 있을 야유회말을 하고있었다. 엔보부인은 처음에 사륜마차를 타고 그레그와르씨댁에 들려서 쎄씰을 데리고 자기들을 찾아오기로 했다. 그다음 지배인 부인이 초청한대로 마르쉬엔느에 가서 포르쥬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여있었다.

그것은 직장들과 용광로, 해탄로들을 구경할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물론 남아있구말구.》 하고 쟌느가 수긍했다.

그러나 데넬랭은 버럭 화를 냈다.

《자, 내게 생각이 있다. 다시 말한다만 그건 별일이 아니니다.… 제발 부탁이니 어서들 잠자리에 들어가 더 푹 쉬고나서 약속한대루 아침 9시까지는 차비를 해라.》

그는 딸들을 포옹해주고나서 바삐 집을 나섰다.

정원의 언 땅을 밟는 그의 장화소리가 뚜벅뚜벅 들리더니 이윽고 발걸음소리는 멀리 사라졌다.

쟌느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람술병에 마개를 막았으며 류씨는 비스케트들을 도로 가져다 찬장에다 넣고 자물쇠를 잠그었다. 상을 빈약하게 차린 식당이 모두 그러하듯이 그 방안은 깨끗하고 추웠다.

두 처녀는 일찌기 내려온김에 어제 저녁에 거두지 않은것이 없는가해서 두루 살펴보았다. 식탁수건 하나가 나딩굴고있었다. 하녀를 톡톡히 꾸짖어야 할 일이였다. 마침내 그들은 웃층의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데넬랭은 남새밭의 좁은 길로 질러가면서 위태롭게 된 자기의 재산, 10배로 늘구려고 꿈꾸면서 몽쑤의 주권을 현금으로 바꾼 100만프랑이 그토록 위험을 겪고있는데 대하여 생각하고있었다. 계속 운수가 나빠서 예견치 않았던 대보수, 파멸적인 채굴조건 그리고 바야흐로 리윤이 생기기 시작할무렵에 일어난 무서운 산업공황, 여기에 파업까지 겹치면 그는 영영 파멸해버리는것이다. 그는 조그마한 문을 떠밀고 들어갔다. 밤의 어둠속에서 탄갱건물들의 시커먼 륜곽이 어렴풋이 알리였고 반짝이는 몇개의 등불빛에 그림자가 크게 보였다.

원래 쟝 바르갱은 그 크기에 있어서는 보료갱과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탄갱의 시설들을 갱신한 결과 기사들의 말그대로 아름다와진 탄갱이 되였다. 수직갱의 폭을 한메터반이나 넓히고 깊이를 708메터에까지 팠을뿐만아니라 갱을 새로운것으로 장비했었다. 새 기계도 설치하고 로동자들을 나를 새 승강기도 설치했으며 모든 설비를 최신기술로 일신했었다. 지어 건물까지 품위있게 꾸렸으며 선탄장은 꼭대기에 두드러지게 장식조각을 하고 권양탑에는 시계를 걸어놓았고 저탄장과 기관실은 흡사 문예부흥기에 류행하던 례배당모양으로 둥그렇게 만들었다. 이 모든것우에 붉고 검은 벽돌을 라선형으로 쪽무이식으로 붙여서 멋을 돋군 굴뚝이 솟아있었다. 오직 배수용으로 쓰이는 뽐프만 낡은 가스똥 마리갱의 채굴권을 받은 다른 수직갱에 설치되여있었다.

쟝 바르에는 기본갱도의 좌우로 두개의 본선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통풍을 위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닥다리를 설치한 비상출구였다.
  솨발은 새벽 3시에 맨먼저 나와서 몽쑤탄부들의 본을 따라 밀차 한대당 5쌍띰씩 보수를 올려줄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복하면서 동료들을 선동하고있었다. 400명의 막장로동자들이 삽시간에 휴계실들에서 쏟아져나와 팔을 휘두르고 고함을 지르며 저탄장으로 밀려들었다.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맨발로 삽이나 곡괭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등불들을 들고 서있었으나 그밖의 탄부들은 날씨가 추워서 나막신에 외투까지 걸치고 수직갱의 입구를 막아서고있었다. 감독들은 목이 쉬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나 질서를 바로잡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들은 로동자들에게 리성을 잃지 말고 일하려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가는것을 막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다.
  솨발은 남자덧저고리에 바지를 입고 파란 모자를 쓴 까뜨리느를 보자 결이 났다. 솨발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에게 그냥 누워있으라고 엄하게 일러두었었다. 그러나 까뜨리느는 일을 그만둔다는데 실망하여 어쨌든 그를 따라나왔던것이다. 솨발은 결코 까뜨리느에게 돈을 주는 일이 없었으므로 까뜨리느는 종종 제것도 제것이지만 남편의 비용까지 자기 혼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벌이를 못하면 자기는 어떻게 될것인가?
  빵과 거처가 없는 녀운탄공들이 생을 마치는 마르쉬엔느의 유곽에 자기도 굴러떨어지지나 않을가 하는 위구심이 그를 괴롭혔다.
  《빌어먹을것!》 하고 솨발이 소리를 질렀다.
  《무엇하러 이런 판에 어정어정 기여나온거야?》
  까뜨리느는 자기야 수입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겠다고 중얼중얼 대답했다.
  《그럼 네년이 나하고 엇서보자는거야? 썩 물러가지 못해, 괜히 볼기짝을 후려갈기기 전에…》
  까뜨리느는 흠칫 놀라 한쪽구석으로 물러서더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보려고 마음먹었다.
  데넬랭은 선탄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해서 다가왔다. 등불빛이 희미했건만 그는 재빠른 눈초리로 이 모든 정경과 아울러 어둠속에 잠겨있는 운집한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그는 어느 채탄공이고 상차공이

고 권입공이고 운탄공이고 할것없이, 지어는 보조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얼굴을 알고있었다.

아직도 새뜻하고 말쑥한 기본건물에서는 중지된 작업이 마치도 사람들의 일손을 기다리는듯 불을 땐 기관이 식식 증기를 내뿜고있었다. 쇠바줄에 매여달린 승강기는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주철판우에는 내던지고 간 탄차들이 잔뜩 나딩굴고있었다. 겨우 80개의 등불들이 출고되였을뿐 나머지는 등불보관고에서 깜빡이고있었다.

그러나 데넬랭의 말 한마디면 전체 로동생활이 다시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여보게들, 대관절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그는 큰소리로 물었다. 《자네들은 무엇이 불만인가? 내게 설명을 해주게, 곧 우리는 서로 리해하게 될거네.》

데넬랭은 평상시 로동자들에게 일을 많이 할것을 요구하면서도 어버이다운 태도를 가지군 했다. 위엄있고 저으기 거칠기까지 한 그는 군대의 나팔소리처럼 높이 울리는 선한 목소리로 우선 그들의 마음을 끌려고 애쓰군 했다. 로동자들은 흔히 그를 좋아했고 항상 자기들과 함께 갱도에 있으면서 사고가 생기면 제일먼저 위험한데 나서는 용감한 사람으로 특히 존경하였다.

그는 폭발이 있었을 때 가장 용감한 사람들도 뒤걸음질을 칠 때에 겨드랑밑에 바줄을 매고 두번이나 갱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다.

《그래 어떤가? 임자들은 내가 임자들을 보증한걸 후회하게 만들지야 않겠지? 임자들도 알지만 난 헌병대초소를 하나 내오는것을 반대한 사람이네. 조용히들 말해보게! 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세.》

모두 당황해하면서 그의 옆에서 물러나 잠자코 있었다. 드디여 솨발이 입을 뗐다.

《실은 이런 사정입니다. 나리님, 우리는 탄차 한대당 5쌍띰씩 삯전을 올려주지 않으면 더는 일을 못하겠다는겝니다.》

데넬랭은 그 말이 놀라왔다.

《무슨 소리요? 5쌍띰이라구? 어떻게 돼서 그런걸 요구한단 말이요? 난 임자네가 동발을 잘못 세워도 군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난 몽쑤의 국가기업처럼 새로운 가격을 자네들한테 요구하지 않았단 말일세!…》

《그럴수 있겠지만 몽쑤의 동무들이 그래도 옳지요. 그들은 이 가

격을 접수하지 않고 5쌍띰씩 삯전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있거던요. 그도 그럴것이 지금의 삯전으로는 도무지 일을 할수가 없으니까요. … 그래서 우리는 삯전을 5쌍띰 높여줄것을 요구하지요. … 어디 여보게들, 그렇지 않은가?》

여러 목소리들이 찬동을 표시하고 다시 소동이 일고 사람들은 란폭한 몸짓을 하게까지 되였다. 그러면서 모두들 차츰차츰 좁다란 원으로 죄여들었다.

데넬랭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으며 강한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인 그는 누구의 멱살이라도 움켜쥐고싶은 충동을 억제하느라고 주먹을 꽉 쥐였다. 그는 토의하며 리성에 호소하는편이 나을것이라고 생각했다.

《5쌍띰을 더 내란 말이지? 나도 작업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네. 하지만 나는 임자네들에게 그만한 값을 줄수가 없네. 만약 그랬다가는 파산을 면치 못할테니까. … 자네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한다는걸 알아줘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야. … 내겐 이 이상 어찌할 힘이 없네. 석탄채굴원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날이면 파산을 면치 못해. … 생각나지 않나, 이태전에 파업이 있었을적에 나는 양보를 했지. 그때만 해두 그럴수 있었네. 그러나 그때 삯전을 올린탓으로 난 령락해서 지금 이태째나 천신만고를 한단 말일세. … 그러니 일을 그만두는것이 다음달 자네들에게 치를 돈을 마련하느라고 골을 썩이는것보다 좋을걸세.》

솨발은 자기들앞에서 그처럼 솔직히 실정을 토로하는 주인을 맞대놓고 적의에 찬 웃음을 지었다. 완고하고 의심이 많은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 로동자들을 부려서 수백만금을 벌수 없다는것을 믿지 않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데넬랭은 더욱 검질기게 나왔다. 그는 자기가 실수를 해서 파멸되면 집어삼키려고 줄창 노리고있는 몽쑤와의 싸움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무서운 경쟁은 그로 하여금 절약을 하지 않을수 없게 하며 더우기는 쟝 바르의 갱도가 깊기때문에 채탄비가 더 먹는데 탄층이 두터워 겨우 그것을 보상하는 불리한 조건이라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전번에 파업이 있은 이후로 그는 몽쑤의 수준을 따라잡아야 할 부득이한 경우만 아니면 그리고 로동자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우려가 있는 경우만 아니면 절대로 보수를 올리지 않을 작정이였다. 그리고

그는 래일을 놓고 로동자들을 위협하였다. 그가 모조리 팔아버리게 되고 그들이 몽쑤회사의 무서운 멍에를 걸머지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 그는 머나먼 미지의 성당에서 조종하는것도 아니요, 또 자신은 탄부들이 한번도 보지 못한 로동자의 고혈을 짜내기 위해 관리인들을 두고있는 그러한 주주도 아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뿐만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것, 자기의 지혜와 건강과 지어는 생명까지도 내걸고 모험하는 주인에 불과하다, 작업중지는 그에게 있어서 죽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비가 없는데 어차피 주문은 조달을 해야만 하기때문이다, 그리고 설비에 투하된 자본을 사장시킬수는 없다, 체결된 계약을 리행해야 할것이 아닌가? 벗들이 자기에게 맡긴 돈의 리자는 누가 지불하겠는가? 이것은 다름아닌 파산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러니 친구들…》 하고 데넬랭은 말을 맺았다.

《내가 임자들에게 사정을 리해시키려고 했지만… 사람보고 제 목숨을 끊으라고 할수야 없지 않겠나? 자네들에게 5쌍띰을 올려주든지, 자네들의 파업을 용인하든지 하라는건 나보고 제 목을 따라는거나 같은 말이지.》

그는 입을 다물었다. 툴툴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일부 탄부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들이 수직갱결으로 다가갔다.

《어쨌든.》 하고 한 감독이 말했다.

《누구나 제 소견대루 행동할수 있어. 누가 일할테요?》

까뜨리느는 맨먼저 나선 사람의 하나였다. 그러나 샤발은 머리끝까지 성이 나서 그를 떠밀치며 소리쳤다.

《우린 모두 일심동체야. 비렬한 자식들만이 동무들을 배반한단 말이야!》

이 순간부터 타협은 불가능한것으로 보였다. 다시금 사람들이 떠들썩했다. 밀치락닥치락하며 수직갱에서 사람들을 떠밀어냈는데 그들은 벽에 짓눌려 죽을번 하였다. 한순간 지배인은 실망하여 혼자서 그 군중을 상대하여 란폭하게 그 수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무익한 짓이였다. 그는 물러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데넬랭은 갱구감시원사무실 한구석 의자에서 헐떡거리며 얼마동안 더 머물러있었다. 그는 자기의 무력함에 어찌나 제정신을 잃었던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그는 한 감독을 시

켜 솨발을 불러오게 했다. 솨발이 들어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동의를 하자 주인은 몸짓으로 다른 사람들더러 물러가도록 분부했다.

《우리 둘만 있게 해주오.》

데넬랭은 이 젊은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아내고싶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첫마디부터 자기의 상대편이 불같은 질투심에 사로잡힌 허영심이 강한자라는것을 느꼈다. 데넬랭은 그를 회유하기로 작정하고 어쩌면 그렇게도 유능한 로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전도를 망치는지 모를 일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눈여겨 보아오며 그를 등용하려고 생각하고있었다고 말했다. 데넬랭은 머지않아 그를 감독으로 임명하겠노라고 터놓고 말했다. 솨발은 주먹을 부르쥐고 묵묵히 듣고있었다. 그런데 움켜쥔 그의 주먹은 차츰 펴졌다.

솨발의 머리속에는 착잡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만일에 파업을 고집한다면 그는 다만 에띠엔느의 조수나 될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전혀 다른 길이 열리고있다. 그는 감독의 대렬에 들어설수 있는것이다. 자존심의 불길이 그의 얼굴에 피여올랐고 그를 불태웠다. 그런데 그가 새벽부터 기다리고있는 파업자들의 대오는 이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것이다. 아마도 그 무슨 일이 있어서, 어쩌면 헌병들에게 걸려서 못 오는지도 모른다. 굴복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러나 그는 도리질을 하고 자기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청렴한 인간행세를 하였다. 결국 솨발은 자기가 몽쑤의 동무들과 만나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자기 동료들을 진정시키고 입갱을 결심하도록 할것을 약속했다.

데넬랭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어는 감독들까지도 한쪽에 물러서있었다. 그들은 한시간동안 솨발이 저탄장의 탄차우에 올라서서 열변을 토하며 토의하는 소리를 들었다. 일부 로동자들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휘파람을 불어댔고 120명은 바로 그가 처음에 제기한 의견을 고집하면서 격분해서 물러갔다.

어느덧 7시가 넘어서 맑디맑으면서도 맵짠 날이 새기 시작했다. 별안간 막장에서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였다. 중단되였던 일이 계속되는것이였다. 먼저 기계의 련결대가 내려가면서 권양기의 쇠바줄을 풀었다감았다하였다. 그러자 소란한 신호종소리에 따라 로동자들의 입

갱이 시작되였다. 승강기들은 연신 로동자들을 가득가득 싣고 사라졌다가는 다시 나타나군 했다. 수직갱은 필요한만큼의 보조공과 운반공, 채탄공들을 받아삼켰다. 한편 밀차공들은 바퀴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철판우로 탄차들을 밀고다녔다.

《제기랄! 넌 거기서 뭘 해?》

솨발은 제 차례를 기다리고있는 까뜨리느에게 꽥 소리를 질렀다. 《얼른 내려가래두! 게으름을 피우지 말구!…》

아침 9시에 엔보부인이 쎄씰과 함께 마차로 도착했을 때 쟌느와 류씨는 스무나문번이나 고쳐한 우아한 옷차림으로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데넬랭은 말을 타고 마차를 따라온 네그렐을 보고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 남자들도 초대를 받았단 말인가? 이때 엔보부인이 자기는 길에 나쁜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호위병을 데리고왔노라고 어머니다운 기색으로 설명해주었다. 네그렐은 껄껄 웃으면서 그것은 늘 그러하듯이 시끄러운자들의 공연한 위협이니 근심할것 없다고, 그중 어느 한놈도 감히 유리창에 돌을 던지지 못할것이라고 안심을 시켰다. 데넬랭은 자기가 쟝 바르에서 반란을 저지시킨 그 성공한 일을 아직도 기뻐하며 이야기를 했다. 이제는 아주 평온해졌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방담의 도로에서 아가씨들이 청명한 날씨를 기뻐하며 마차에 올라타고있을 때 저 멀리 들판에서 길게 떠는 소리가 커지는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것은 땅에 귀를 대면 알아들을수 있는 걸어오는 주민들의 발구름소리였다.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하지요.》 하고 엔보부인이 되뇌였다. 《저녁에 당신이 이 아씨들을 모시러 와서 우리하고 식사를 하시지요. 그레그와르부인도 쎄씰을 데리러 오겠노라고 약속했으니까요.》

《어김없이 가지요.》 하고 데넬랭이 말했다.

마차는 방담쪽으로 떠나갔다. 쟌느와 류씨는 또 한번 얼굴을 내밀고 길가에 서있는 아버지에게 미소를 보냈다. 네그렐은 달리는 마차바퀴뒤에서 점잖게 말을 달리였다.

숲을 지나 방담으로부터 마르쉬엔느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따르따레부근에서 쟌느는 엔보부인에게 꼬뜨 베르뜨(푸른 언덕이라는 뜻.)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엔보부인은 그 고장에 온지 다섯해나 되였건만 자기는 아직 한번도 그곳을 가보지 못했노라고 고백했다. 그

래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따르따레는 숲변두리에 있었다. 그곳은 화산으로 해서 생긴 황폐하고 척박한 고장이였다. 그곳 땅속에서는 이미 수세기동안 탄층이 불타고있었다. 이와 관련한 전설이 있었다. 이 지방 탄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바로 녀운반공들이 이 쏘돔(팔레스티나의 옛 도시, 성서에 의하면 도시가 부패되여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의해서 타버렸다 한다.)의 지하에서 추잡스럽게 음탕한짓을 하고있을 때 하늘에서 거기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들은 미처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고 지금도 그들은 그 지옥에서 타고있다는것이였다. 검붉은 암석들은 문둥병처럼 풍화된 명반으로 엷게 뒤덮여있었다. 바위틈으로는 노란 꽃송이마냥 군데군데 류황이 드러나보였다.

밤중에 감히 그 틈을 들여다본 용사들은 그속에서 죄인들의 넋이 타는 불길을 보았노라고 단언하는것이였다. 불빛이 겉면을 따라 움직이였고 냄새 역한 뜨거운 김이 감돌아오르기도 하는데 귀신들의 더러운 부엌에서는 쉴새없이 내를 피우더라는것이였다. 그런데 이 저주받을 따르따레의 황무지 한복판에 사시장철 푸르른 풀밭과 항상 아지들이 무성해있는 너도밤나무들과 한해에 세번씩이나 수확을 내는 밭이 있는 꼬뜨 베르뜨가 마치 영원한 봄의 기적처럼 솟아있었다. 이는 깊은 탄층이 타는 열에 덥혀지는 천연의 온실이였다. 눈은 곧 녹아버렸다. 앙상하게 벌거벗은 수림의 나무들과 나란히 있는 이 커다란 푸른 나무들은 잎사귀의 가장자리조차 추위에 상하지 않고 이 섣달에도 무성해있었다.

마차는 쏜살같이 들판을 달려갔다. 네그렐은 전설을 일소에 붙이고 자기 설명을 하기를 갱에서 자주 불이 붙는것은 변화된 석탄가루때문이며 따라서 그 불을 끄지 못하면 계속 붙는다고 했다. 그리고나서 네그렐은 벨지끄의 어느 탄광에서 수직갱에 강물을 끌어다대고 물을 가득 채웠다는 례를 들었다. 그리고는 문득 입을 다물었다. 무리를 지은 탄부들이 얼마전부터 마차와 어기였던것이다. 탄부들은 자기들로 하여금 길을 비켜서지 않을수 없게 하는 이 사치한 마차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말없이 지나갔다. 탄부들의 수는 점점 늘어서 조그마한 스까르쁘강의 다리를 건늘 때에는 말들이 평보로 가지 않을수가 없었다. 대관절 무슨 일이 생겼기에 사람들이 길에 나왔을가? 아가씨들은 겁이 났다. 네그렐은 이 불안스러운 움직임에서 무엇인가 불길한것을 예감했다. 일행은 마르쉬엔느에 당도해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늘어선 용광로와 해탄로들은 마치 태양이라도 꺼버릴듯 끊임없이 검은 비처럼 공중에 흩날리는 그을음을 내뿜으면서 연기를 토하고있었다.

2

쟝 바르에서 까뜨리느는 벌써 한시간이나 인계장까지 탄차를 밀고있었다. 그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잠간 멈춰서서 얼굴을 훔치였다.

막장에서 자기 작업조동무들과 함께 탄층을 까고있던 샤발은 바퀴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놀랐다. 등불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다가 석탄가루까지 떠돌아서 아무것도 가려볼수가 없었다.

《거기선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샤발은 소리를 쳤다.

까뜨리느가 자기는 틀림없이 녹아버리고 심장이 막 터질것 같다고 대답하자 샤발은 벽력같이 고함을 질렀다.

《머저리야, 우리처럼 샤쯔를 벗어!…》

이것은 데지르탄맥 갱의 북쪽 저탄장에서 3키로메터되는 708메터 깊이의 지하에서 있은 일이다. 탄부들은 갱내의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낯이 파랗게 질리며 마치 지옥의 이야기라도 하는듯이 목소리가 저절로 죽어들었다.

그들은 불이 이글거리는 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것이였다.

갱은 북쪽으로 따르따레에 접근하면서 지상의 암석을 거멓게 태우는 지하의 불길속으로 들어가고있었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갱온도는 평균 45도였다. 들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위틈으로 보았다고 하는, 류황과 증기를 내쏘는 그 저주로운 곳이 바로 거기 있었다.

까뜨리느는 이미 웃옷을 벗어던지고 좀 주저하다가 바지마저 벗어버렸다. 그는 두팔과 허벅다리를 드러내놓은채 샤쯔를 작업복처럼 허리에 노끈으로 동여맨 후 다시 탄차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하니까 역시 한결 낫군요.》 하고 그는 큰소리로 말했다.

까뜨리느는 숨가쁜 속에서 어렴풋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닷새를 여기서 일하는 동안 그는 줄곧 어린시절에 들은 옛말, 사람들이 말하

기조차 두려워하는 죄를 짓고 그 벌로 옛날옛적부터 따르따레의 지하에서 불타고있다는 녀운탄공들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었다. 물론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믿기엔 너무나 자란 그였다. 그러면서도 벽에서 불덩어리처럼 눈알이 이글거리고 달아오른 난로처럼 온몸이 시뻘개진 그 처녀가 불쑥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그는 곱절이나 땀을 흘리였다.

막장에서 80메터쯤 떨어져있는 인계장에서는 다른 운반공들이 탄차를 넘겨받아가지고 또 경사갱도까지 80메터를 밀고갔는데 거기서는 갱구감시원들이 우에서 내려오는 다른 탄차들과 함께 그 탄차를 떠내보내는것이였다.

《참 편리하게 차렸는걸!》 하고 샤쯔 하나만 걸친 까뜨리느를 보자 한 30에 나는 여윈 과부가 말했다. 《난 그러지 못하겠더라. 보조공들이 별별 추잡한짓을 다하자고 덤벼들텐데 뭐.》

《그렇구말구요!》 하고 까뜨리느가 대답했다.

《하지만 난 사나이들같은건 꿈만 하게 여겨요!… 더워서 어쩌지 못하겠는걸요.》

까뜨리느는 빈 탄차를 밀고 다시 떠났다. 무엇보다도 불리한 점은 따르따레가 가깝다는것 이외에 더위를 견딜수 없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그것이였다. 작업장은 낡은 탄갱인 가스똥 마리의 페갱에 거의 접근해있었다. 대단히 깊은 그 갱은 10년전에 일어난 가스폭발로 말미암아 탄층에 불이 달렸는데 참사가 확대되지 않게 세운 흙벽의 저쪽에서는 아직도 계속 불이 붙고있었다.

흙벽은 항시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공기가 없으니 불은 꺼질법도 하건만 알지 못할데서 흘러드는 기류로 해서 불은 10년째나 타고있었다. 그 불에 벽은 얼마나 달았는지 벽돌을 굽는 로처럼 뜨거워 그곁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열에 델 정도였다. 바로 그 벽을 따라 60도의 온도에서 탄차를 100메터나 밀고다녀야만 했다.

두번 거퍼 왕복을 하자 까뜨리느는 다시금 숨이 찼다. 이 지역에서 가장 두터운 데지르탄맥은 다행히도 갱이 넓어서 편리했다. 탄층의 높이가 1메터 70센치나 되니 서서 일할수 있었다. 그러나 탄부들은 아무리 힘든 작업장이라도 더 서늘하기만 하면 그곳을 택하려고 하는것이였다.

《이봐! 그래 잠이 들었어?》 하고 쇄발은 까뜨리느가 꼼짝하지 않

는것을 보고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대관절 어디서 저런 비루먹은 암말이 내게 굴러들었을가. 냉큼 탄차를 채워서 어서 내가래두!》
까뜨리느는 삽을 의지하고 갱아래쪽에 서있었다. 그는 점점 더 몸이 불편해지는것을 느끼며 그들을 멍청하니 바라볼뿐 시키는대로 하지 않았다.
탄부들은 불그스름한 등불밑에서 노상 짐승처럼 벌거벗고 일했는데 땀과 석탄가루에 어떻게나 몸이 꺼매지고 더러워졌던지 그들이 벌거벗은걸 보고도 까뜨리느는 점직한줄을 몰랐다. 이런 고된 로동, 원숭이 비슷한 등골들, 웅글게 울리는 곡괭이소리와 한숨속에서 맥이 빠진 석탄가루투성이의 몸뚱이들―이 모든것은 그대로 지옥의 광경이였다. 하지만 그래도 사나이들은 까뜨리느를 똑똑히 볼수 있었으므로 곡괭이들을 놓고 그가 바지를 벗었다고 조롱들을 했다.
《조심하라구, 감기들지 말구!》
《저 처녀의 다리를 보라구, 다리를! 여보게 솨발, 아마 두사람의 다리를 합친만큼 실한것 같군그래!》
《아무렴! 볼만 한걸! 좀더 높이 들라구, 좀더 높이!》
그러자 솨발은 빈정거리는 말에는 탓하지 않고 까뜨리느에게 행패를 했다.
《왜 꿔온 보리자루처럼 서있는거야? 썩 물러가지 못해, 빌어먹을것… 저렇게두 시시한 말을 듣기 좋아하거던… 아침까지 서서 들을 작정이야.》
까뜨리느는 있는 기운을 다 내서 탄차에 석탄을 채우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밀고갔다. 량쪽동발에 의지해가기에는 너무나도 갱이 넓었다. 그의 벗은 발은 아득바득 궤도사이에서 디딜 곳을 찾고 있었다. 까뜨리느는 몸을 굽히고 두팔을 쭉 뻗고 밀고나갔다. 그는 흙벽이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그 뜨거운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소낙비가 내리듯이 그의 온몸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인계장까지 3분의 1되는 거리를 겨우 지나서부터 그의 온몸은 땀에 흠뻑 젖었을뿐만아니라 온통 깜둥이가 되였으며 눈이 보이지 않았다.
먹물에 담갔다꺼낸것 같은 작은 샤쯔는 몸에 착 달라붙어 허벅다리가 움직일적마다 허리까지 올라가군 했다. 그는 이러한 구속이 너무나 괴로와 또다시 멈추어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오늘은 웬일일가? 그는 여적 한번도 이렇게 온몸이 나른한것을 느껴본적이 없었다. 그것은 꼭 공기가 나쁜때문일것이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있는 갱까지는 통풍이 되지 않았던것이다. 석탄에서 샘물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와 함께 나오는 각종 증발물들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때로 그것은 등불이 꺼질만큼 포화상태에 이르군 했다. 갱내 가스쯤은 로동자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왜냐면 그것은 왕왕 뒤주일씩 내내 그들의 코를 찌르기때문이였다. 까뜨리느는 탄부들이 죽은 공기라고 하는 그 유독스러운 공기를 잘 알고있었다. 밑에는 무거운 질식성가스들이 깔리고 우에는 한 탄갱의 모든 작업장과 수백명의 생명을 번개치듯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자연발화하는 가스가 떠돌고있었다. 까뜨리느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마셔왔기에 일없을것 같은데 어째서 지금 자기가 그 공기에 이다지도 견디기 어려운지, 어째서 자기의 귀안이 그처럼 윙윙거리고 목이 타들어오는지 알수가 없었다.

더는 견딜수가 없어서 샤쯔를 벗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조그마한 구김살도 몸뚱이를 지지고 어이는것 같았다. 그래도 그는 마음을 다잡고 그냥 탄차를 밀려고 했으나 끝내 허리를 펴고 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인계장에서 다시 입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허리에 맸던 끈이며 샤쯔며 몸에 걸친 모든것을 훌훌 벗었다. 보매 그는 할수만 있다면 제 몸의 살가죽까지도 벗겨버릴듯 했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러운 길가에서 비럭질을 하는 거지와도 같이 가련한 알몸뚱이로 되였다. 그리고는 짐을 끄는 말처럼 엉뎅이를 땀으로 매닥질한데다가 배까지 진흙매대기를 하고서 네발걸음으로 다시 탄차를 밀고나갔다.

그러나 절망이 그를 사로잡았고 벌거벗은것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것이다. 무엇을 더 벗어야 하는가? 그는 귀안의 소리때문에 귀머거리가 된것 같았다. 그는 머리가 바작바작 죄여드는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탄차의 석탄에 고정해놓은 등불이 꺼지는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몽롱한 의식속에는 심지를 돋구어야겠다는 한가지 생각만이 떠올랐다. 까뜨리느는 두번이나 등불을 손질하려고 했으나 등불을 땅우에 놓을 때마다 그 불빛은 마치 숨이 막힌듯 희미해지는것이였다. 그러다가 등불은 마침내 꺼지고말았다. 그 순간 모든것은 암흑속에 싸여버렸다. 머리속에서 매돌이 돌고 심장이 마

비되여 고동을 멈춘것 같았다. 한없는 피로가 그의 온몸을 마비시켰다. 뒤로 벌렁 자빠진 까뜨리느는 질식되여 의식을 잃었다.

《제기랄, 저년은 또 건달을 부리고있어.》 하고 솨발이 욕질을 하였다.

그는 막장꼭대기에서 귀를 기울였으나 바퀴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봐! 까뜨리느, 빌어먹을 굼벵이같은것!》

그의 목소리는 시커먼 갱멀리로 사라져버렸을뿐 숨소리조차 대꾸가 없었다.

《괜히 내가 가서 혼쌀을 내기 전에 정신차려!》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고 의연히 죽은듯 한 침묵이 흐를뿐이였다. 성이 난 그는 내려와 자기의 등불을 들고 미친듯이 달려가다가 그만 길바닥에 가로 누워있는 운반공의 몸에 걸채여 하마트면 넘어질번 했다. 그는 입을 쩍 벌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이것은 아무래도 한잠 자려는 속임이 아니다. 그러나 등불을 숙여 얼굴을 비쳐보려 하자 등불이 꺼지려고 했다. 그는 도로 등불을 쳐들었다가 숙이여보고 하다가 마침내 가스에 중독되였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자 그의 분노는 씻은듯이 가셔지고 탄부다운 희생성이 되살아났다. 그는 자기의 샤쯔를 가져오라고 소리치면서 감각을 잃은 벌거벗은 처녀를 두팔에 안아 되도록이면 높이 추켜올렸다. 사람들이 어깨에 옷을 걸쳐주자 그는 한손으로는 처녀를 껴안고 다른 한손으로는 두개의 등불을 들고 달려나갔다. 그의 앞에는 깊은 갱도가 꼬불꼬불 뻗어있었다. 그는 연신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돌면서 어서 바삐 삶이 있는 곳으로, 통풍기가 보내주는 찬공기가 있는 곳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는 마침내 암층에서 새여나오는 물소리를 듣고 멈추어섰다. 그곳은 이전에 가스똥 마리에서 리용하던 커다란 갱도와의 교차점이였다. 그곳은 통풍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데 솨발의 몸이 떨릴만큼 공기가 차가왔다. 그는 처녀를 땅에 내려놓은 다음 동발에다 기대여앉히였다. 처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을 감고있었다.

《까뜨리느! 제기랄! 이게 무슨 꼴이람! 잠간만이라도 몸을 가누란 말이야, 내가 이것을 추길 동안만.》

그는 까뜨리느가 그렇게 축 늘어진것을 보고 더럭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샤쯔를 샘에 적실수 있었고 그것으로 얼굴을 닦아주었

다. 까뜨리느는 흡사 죽어서 땅속에 묻힌 사람같았다. 성숙이 늦은 처녀의 가냘픈 몸은 아직 사춘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 때이르게 시들은 이 불행한 처녀의 어린애같은 가슴과 배와 허벅다리가 부르르 떨리였다. 까뜨리느는 눈을 뜨며 중얼거렸다.
《아이, 추워!…》
《끝내 살아났구나! 참 다행이다!》
쇄발은 마음이 놓이는듯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는 까뜨리느에게 샤쯔를 편안하게 입혀주고나서 바지를 입혀줄 때에는 그가 너무 옴짝을 못한다고 잔소리까지 좀 했다. 까뜨리느는 아직도 떨떠름해서 자기가 어디에 와있으며 왜 벌거벗고있는지 영문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방금전의 일이 생각키우자 그는 부끄러웠다. 어떻게 자기는 옷을 몽땅 벗어던질 생각을 했을가! 그는 쇄발에게 허리에 손수건 하나 두르지 않은 자기의 발가숭이를 누구 본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쇄발은 놀려주느라고 이야기를 여러가지로 꾸며내여 자기가 그를 여기로 안고 올라올 때 동무들이 길게 늘어서서 구경을 했다고 말했다. 그가 하라는대로 옷을 벗은것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였다. 계속해서 그는 동료들이 그의 엉뎅이가 둥그런지, 모가 났는지 모를 정도로 전속력으로 달렸다고 했다. 《빌어먹을! 추워죽겠군!》 하고 쇄발이 옷을 입었다.
그는 이제껏 까뜨리느에게 이처럼 살뜰히 군적이 없었다. 평소에 까뜨리느는 쇄발의 다정한 말 한마디를 듣자면 숱한 욕설을 들어야만 했다. 정말 화목하게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까뜨리느는 피곤하여 맥이 빠진 속에서 정다운 감정이 북받쳐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였다.
《날 포옹해줘요!》
쇄발은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가 일어설수 있게 되기를 곁에 누워 기다렸다.
《글쎄》 하고 까뜨리느는 말했다.
《당신이 거기서 내게 소릴 지른건 공연한짓이였어요, 난 정말 기운이 진했었는데요 뭐! 당신들이 일하는 막장은 그렇게 무덥지 않지만 그아래쪽은 정말 도가니속이야요!…》
《암, 그렇지!》 하고 쇄발이 말했다. 《나무그늘밑은 한결 더 서늘

해… 아, 이 불쌍한 사람아! 이런데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왜 모르겠어!》

까뜨리느는 이러한 고백에 너무나도 감동되여 더 용기를 내여 말했다.

《사실 몸이 불편한데다가 오늘은 공기가 독성을 띠였어요. … 당신은 내가 절대루 게으름뱅이가 아니라는걸 알게 될거야요! 일을 해야할 때엔 난 일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죽었지 일손을 놓진 않는대두요.》

침묵이 깃들었다. 솨발은 한팔로 까뜨리느의 허리를 안아서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자기 품에 꼭 끼여안았다. 까뜨리느는 이미 작업장에 되돌아갈만 한 기운이 생긴것을 느꼈지만 달콤한 맛에 자신을 잊고있었다.

《내가 한가지 바라는건》 하고 처녀는 아주 낮은 소리로 계속했다.

《당신이 내게 좀더 살뜰히 대해줬으면 하는거예요. … 조금이나마 서로 사랑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야 임잘 사랑하지 않나!》 하고 솨발이 부르짖었다.

《그렇지 않다면야 뭣때문에 임잘 데리고 살겠어?》

까뜨리느는 다만 고개를 저을뿐이였다. 남자들은 흔히 녀자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단지 점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산다. 처녀는 만약 자기가 다른 총각을 만났더라면, 자기가 항상 그의 손길을 자기 허리에 느낄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자기의 생활이 행복했을가 하는 생각을 하니 눈물은 점점 더 뜨거워만 졌다. 다른 사람? 그러자 그의 흥분된 머리속에는 그 다른 사람의 막연한 영상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깨여진 사발이였다. 이젠 죽는 날까지 이 사람과 살아야 했다. 그저 이 사람이 너무 때리지만 않았으면 하는것이 소원이였다.

《이따금이나마 지금같이 되여주세요!》

까뜨리느는 울음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솨발은 다시 그를 그러안았다.

《바보같은것!… 내 맹세해! 살뜰하게 대하지. 나도 남보다야 악한 사람이 아니지!》

까뜨리느는 눈물을 머금고 그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기는 그의 말이 옳은지도 모른다. 도대체 어디에 행복한 녀자들이 있단 말인가? 쏴발의 맹세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까뜨리느는 그가 지금 이렇게 살뜰한것이 반가왔다. 오, 하느님이시여! 다만 이것이 끝없이 계속되여주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들은 다시금 포옹하여 서로의 몸을 꽉 그러안았다. 그러나 그들은 문득 다가오는 발걸음소리에 후닥닥 뛰쳐일어났다. 쏴발이 까뜨리느를 안고 달려가는것을 본 세 동무가 그들이 어떻게 되였는지 알아보려고 나타난것이였다.

그들은 모두 함께 되돌아갔다. 어느덧 아침 10시가 가까왔다. 그들은 또 막장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기 전에 시원한 모퉁이에서 우선 점심요기를 했다. 그들이 이미 마지막빵쪼각을 마저 입에 털어넣고 물통에 든 커피를 한모금씩 마시려는데 멀리 작업장에서 근심스러운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선 무슨 일이 생겼을가? 또 불상사가 생긴것이나 아닐가?

그들은 뛰쳐일어나서 달려갔다. 그들은 채탄공이며 운반공이며 보조공들을 끊임없이 만났지만 아무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다. 모두가 아우성을 치는 품이 큰 불행이 생긴것이 분명했다. 차츰 온 탄갱이 어쩔줄 몰라했다. 갱도들에서 당황한 사람의 그림자들이 쏟아져나와 어둠속을 달려갔고 등불들이 춤을 추었다. 어디인가?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가?

갑자기 한 감독이 고함을 지르며 지나갔다.

《쇠바줄을 끊고있다! 쇠바줄을 끊어!》

그러자 공포가 휩쓸었다. 모두들 어두운 통로들에서 미친듯이 성나서 갈팡질팡하며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무엇때문에 쇠바줄을 끊는단 말인가?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끊을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몸서리치는 일로 생각되였다.

이때 다른 감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곧 사라졌다.

《몽쑤사람들이 쇠바줄을 끊고있다! 모두 나가라!》

영문을 알아차린 쏴발은 얼른 까뜨리느를 멈춰세웠다. 그는 우에 올라가서 파업로동자들과 만날 생각을 하니 다리맥이 풀렸다. 헌병의 손에 걸린줄로만 알았던 그 불한당놈들이 몰려온것이였다. 한순간 그는

다시 되돌아가 가스똥 마리로 해서 나가려고 생각해보았으나 그곳은 이미 작업이 중지되였었다. 그는 혼자 욕지거리를 하면서 멈춰서서 망설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리석게 이처럼 뙬 일이야 있는가, 아무러면 자기들을 갱밑에 내버려두기야 하겠는가 등의 꼭같은 말을 곱씹으면서 자기의 공포심을 숨기려고 애썼다.

이번에는 가까이에서 감독의 목소리가 또 울렸다.

《모두 밖으로 나가라! 사다리로 나가라! 사다리로!》

솨발은 동무들에게 끌리여나갔다. 그는 까뜨리느를 밀치면서 빨리 뛰지 않는다고 욕질을 했다. 자기들끼리만 여기 남아서 굶어죽게 되기를 바라는것이 아닌가? 몽쑤의 강도들은 사람들이 다 나오기도 전에 사다리를 부셔버릴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몸서리나는 지레짐작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완전히 혼란시켜놓았다. 갱에는 미친듯 한 사람들이 저마다 먼저 사다리로 가겠다고 서로 밀치면서 내달렸다. 모두들 사다리가 부서져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아우성을 쳤다. 그런데 겁에 질린 탄부들이 무리를 지어 저탄장으로 밀려들어가느라고 또 일대 혼잡을 이루었다. 그들은 수직갱쪽으로 달려들어 사다리가 있는 곳으로 나가는 좁다란 문에서 밀집되였다. 늙은 마부는 조심스레 마구간에 말들을 들여보내고나서 대수롭지 않은듯 태평스러운 기색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갱안에서 밤을 밝히는데 이골이 되여 언제나 자기를 구출해간다는것을 확신하고있었다.

《제기랄! 앞서가라니까!》 하고 솨발이 까뜨리느에게 말했다.

《넘어지면 내가 부축해주겠어.》

3키로메터나 달리고나서 또다시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까뜨리느는 놀라서 헐떡거리며 무의식적으로 군중의 움직임에 복종하고있었다. 그래서 솨발은 힘껏 까뜨리느의 팔을 잡아끌었다.

까뜨리느는 두눈에 눈물이 글썽해서 애처롭게 비명을 질렀다. 벌써 그는 자기의 맹세를 잊었다. 아니, 까뜨리느는 결코 행복할수 없을것이다.

《어서 걸으라니까!》 하고 솨발이 고아댔다.

그러나 까뜨리느는 너무나도 솨발을 무서워하고있었다. 만일 자기가 앞서 오른다면 솨발은 줄곧 을러댈것이였다. 그래서 그가 버티고

있는 동안 제정신을 잃은 탄부들의 물결은 그들을 한옆으로 밀어내고 말았다. 수직갱의 지하수가 새여나오며 굵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저탄장의 널바닥은 군중의 무게에 못이겨 깊이 10메터나 되는 감탕이 많은 하수장의 너겁우에서 흔들거리고있었다. 바로 쟝 바르에서 이태전에 무서운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쇠바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승강기가 하수장에 곤두박혀 두사람이 빠져죽었었다. 그래서 모두들 그 일이 생각키워 만약에 널판자우에 사람들이 밀집되면 자기들도 그 웅뎅이의 귀신이 되리라는 생각을 했다.

《넨장, 이런 빌어먹을 민충이라구야!》 하고 솨발이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뒈지고말려무나! 너같은것때문에 고생이라두 안하게!》

그리고는 자기가 앞서가고 까뜨리느는 그를 따라갔다. 막장에서 갱밖에까지 나가자면 7메터길이의 사다리를 102개 올라가야만 했다. 매 사다리는 본선갱의 넓이만 한 좁다란 중간발판에 의지하고있었는데 거기에 난 네모난 구멍은 겨우 어깨가 빠질만 했다. 그것은 높이 700메터의 밋밋한 굴뚝을 련상시키는것이였다. 이것은 수직갱의 간벽과 마구리의 간막이사이로 나있는 축축하고 캄캄한 끝이 없는 관모양으로 되여있었는데 거리가 일정한 층마다 거의 수직으로 사다리들을 련이어 곧추 세워놓았다. 힘꼴이나 쓰는 장정도 그런 거창한 사다리를 오르자면 25분이 걸리였다. 더구나 이것은 사고가 나는 경우에만 사용되였다. 까뜨리느는 처음에 힘차게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벗은 발은 갱의 예리한 바닥에 단련이 되여서 든든하게 하느라고 철을 댄 네모난 갱도사다리의 가름대를 밟고 올라도 아프지 않았다. 탄차를 다루기에 거칠어진 그의 손은 그에게는 손쉽게 굵은 사다리의 기둥을 틀어잡았다. 그는 지어 뜻하지 않게 이처럼 오르는데 정신이 팔려서 서글픈 생각을 잊어버렸다. 사다리마다 세명씩 올라가는 사람들의 구불구불하고 길다란 종대는 끝없이 뻗어있어서 선두가 밖으로 기여나가도 그 꼬리는 아직 밑바닥 배수물웅뎅이우에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었으며 앞장선 사람들은 겨우 수직갱의 3분의 1을 올라갔을뿐이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 웅글은 발소리만이 들리였다. 등불들은 밑에서 우까지 움직이는 별들처럼 계속 커지는 한줄로 간격을 두고 늘어섰다.

까뜨리느는 자기뒤를 따라오는 보조공이 사닥다리를 세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세기 시작했다.

열다섯개사다리를 이미 올라 저탄장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쇄발의 다리와 부딪쳤다. 쇄발은 욕질을 하며 한눈을 팔지 말라고 꽥 소리를 질렀다. 종대는 점차 멈춰섰다. 웬일인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사람마다 무엇을 물어보거나 공포심을 드러낼 때만 말을 할뿐이였다. 밑에서부터 근심은 더해갔다. 밖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까닭에 사람들은 밝은 빛이 다가올수록 점점 마음이 죄여들었다. 누구인가 사닥다리가 부러졌으니 되내려가는것이 낫겠다고 말을 했다.

이것은 모두의 근심거리인 허공에 있게 된다는 공포감이였다.

그런데 채탄공 한사람이 미끄러져 사닥다리에서 떨어졌다는 다른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아래에 전해졌다. 고함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 정확히 알수는 없었다. 정말 여기서 밤을 새울수야 없지 않는가! 끝내 아무것도 똑똑히 알아내지 못한채 다시금 느리고 고통스러운 동작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발걸음소리가 들리고 등불들이 춤을 추었다. 사다리는 분명히 좀더 올라가 부러졌는지도 모른다.

세번째 저탄장을 지나 서른두번째 사다리에 이르렀을 때 까뜨리느는 자기의 손발이 마비된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에 피부가 약간 따끔따끔하더니 마침내는 손발도 무쇠와 나무를 감각하지 못하게 되였다. 그러자 근육들이 쑤시기 시작했다. 엄습해오는 어지럼속에서 문득 그는 본느모르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열살짜리 소녀들이 란간도 없는 맨 사다리로 석탄을 져날랐다는 그 시대가 생각키웠다.

그들은 어느 한 아이라도 계단에서 떨어지거나 바구니에서 석탄덩이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그때마다 서너아이가 밑으로 곤두박히군 했다는것이였다.

까뜨리느는 팔다리에 일어나는 경련을 참을수 없었다. 아무래도 끝까지 올라갈것 같지 않았다.

그는 멈춰설 때마다 숨을 돌릴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로부터 전해오는 공포는 그를 얼떨떨하게 만들었다. 우에서도 밑에서도 점점 숨소리들이 가빠졌으며 이처럼 한정없이 오르기만 하다보니 머리가 핑핑 돌고 많은 사람들은 속이 메스꺼웠다. 어둠에 취하고 간막이벽에 살이 눌리워 화가 난 까뜨리느는 숨이 차서 씨근거렸다. 굵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에서 땀투성이가 된 그는 습기때문에 몸이 오슬오슬한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이미 우로 거의 올라가고있었다. 비는 어떻게나 억수로 퍼붓는지 등불들이 막 꺼지려고 했다.
쇼발이 둬번 까뜨리느에게 말을 걸었으나 아무 대꾸도 없었다. 대체 그는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있는가? 혀라도 떨어졌단 말인가? 괜찮다는 말이라도 할수 있지 않겠는가? 근 반시간을 올랐건만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지 이제 겨우 쉰아홉번째 사다리에 당도했다. 아직도 43개가 남아있었다.
까뜨리느는 드디여 여하튼 견딜만 하다고 중얼거렸다. 만약 그가 자기는 지쳤다고 실토한다면 쇼발은 또 게으름뱅이로 취급할것이였다. 쇠가름대가 그의 발바닥을 어이는듯 하였고 지어는 뼈까지 톱으로 켜는듯 했다. 매번 팔을 옮길 때마다 손가락을 구부릴수 없을 정도로 벗겨지고 뻣뻣해진 손은 사다리를 놓쳐버리는듯 하였다. 그는 힘을 줄 때마다 어깨와 허리가 빠져나가 금시 뒤로 자빠지는것만 같았다. 그는 거의 수직으로 된 사다리를 오르는것이 특히 힘들고 고생스러웠다. 그는 배를 가름대에 대고 손목에 힘을 주고 오르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헐떡거리는 가쁜 숨소리가 이제는 발걸음소리를 뒤덮어버렸다. 요란하게 숨가쁜 소리가 본선갱의 간막이를 울리면서 밑에서 올라와 우로 사라지군 했다. 신음소리가 났다. 어느 보조공이 층계참모서리에 머리가 빠개졌다는 말이 돌았다.
까뜨리느는 계속 올라갔다. 또 하나의 탄층을 지나갔다. 비는 멎었다. 안개로 하여 지하의 공기는 무거웠다. 녹쓴 쇠내와 누기찬 나무냄새가 풍겼다. 그는 기계적으로 여든하나, 여든둘, 여든셋… 아직도 열아홉하고 나직이 그냥 세여나갔다. 그는 이렇게 수자를 되풀이함으로써 그 률동에 맞춰 자신을 지탱하고있었다. 까뜨리느는 자기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못했다. 눈을 들어보니 등불들이 라선형으로 돌아가고있었다. 그는 자기 몸이 피투성이가 되였으며 자기는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자기는 떨어질것 같았다. 가장 무서운것은 밑의 사람들이 올리미는것과 급히 덤벼드는것이였다. 전체 종대가 분노와 피로와 어서빨리 태양을 보려는 간절한 욕망에 굴복하였다. 드디여 선두에 섰던 동무들이 밖으로 나갔다. 그런즉 사다리는 부러지지 않은것이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벌써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있지만 그래도 사다리를 부시고 밑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훼방을 놓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머지사람들은 미칠듯 했다. 그리하여 다시 가던 길이 멎기만 하면 사람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앞으로 내달려 서로 밀치고 덮치고 하면서 저마다 빠져나가려고 야단법석을 했다.

까뜨리느는 쓰러졌다. 그는 절망끝에 비명을 지르며 솨발을 불렀다. 솨발은 듣지 못하였다. 그는 한 동료의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그를 앞서려고 싸우고있었다. 사람들은 까뜨리느를 마구 짓밟았다. 그는 의식을 잃고 꿈을 꾸었다. 그는 마치도 자기가 옛적의 그 어린 소녀운반공인듯이, 자기가 바구니에서 굴러떨어진 석탄덩이에 맞아서 돌에 맞은 참새마냥 수직갱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해 떨어지는듯이 생각되였다. 이제 오를 사다리는 5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오르는데는 약 한시간이 걸리였다. 까뜨리느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어느 누구의 어깨에 떠받들리여 좁은 통로의 벽을 의지하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였는지 도저히 알수 없었다. 그가 해빛밝은 세상에로 나오자 군중은 아우성치듯 하며 그에게 조소를 퍼부었다.

3

날이 새기 전 아침부터 탄광마을들은 흥분에 휩싸였다. 그 흥분상태는 이 시각 길을 따라 온 들판에 퍼져갔다. 그러나 약속된 진출은 하지 못했다. 벌판에는 룡기병들과 헌병들이 쭉 깔렸다는 소문이 퍼진것이였다. 그들은 이미 지난밤에 두에에서 왔다고들 했다. 비난을 받은것은 라스너르였다. 바로 그가 동무들을 배반하고 엔보지배인에게 고자질을 한때문이란것이였다. 한 녀운반공은 찍어서 말하기를 지배인의 하인이 전신국에 지급전보를 가지고가는것을 보았노라고 했다.

탄부들은 주먹을 부르쥐고 이른아침의 어스름한 속에서 덧창문뒤에서 병사들이 지나가는것을 엿보고있었다. 아침 7시반쯤 해가 뜨자 성미가 급한 축들을 안심시켜주는 다른 소문이 쫙 퍼졌다. 그들의 불안은 공연한것으로서 그것은 파업이 시작된이래 장군이 릴르지방 장관

의 요구에 따라 가끔 실시해오던 군인들의 순찰이였다. 파업로동자들은 자기들을 회사측과 화해하도록 중재하겠다는 약속으로 저들을 기만한 이 관리를 증오하고있었다. 도리여 그자는 한주일에 한번씩 몽쑤로 군대를 파견하여 로동자들을 위협하고있었다. 그리하여 룡기병과 헌병들이 언 땅을 구르는 말발굽소리에 로동자들이 위압당했으리라고 흐뭇하게 여기며 마르쉬엔느의 도로쪽으로 돌아섰을 때 탄부들은 그 순진한 지방장관과 금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때에 그곳을 떠나가는 지방장관의 병사들을 놓고 실컷 비웃어댔다.

이렇게 그들은 멀어져가는 순진한 헌병들의 뒤모습을 집앞에서 바라보며 9시까지 기뻐했다. 이즈음에 몽쑤의 부르죠아지들은 침대에 깔아놓은 이불속에 푹 파묻혀 편안히 잠들을 자고있었다. 사람들은 엔보부인이 남편을 일보게 남겨두고 혼자 마차를 타고나가는것을 조금전에 보았다. 문들이 닫긴 괴괴한 집안은 죽은듯 했기때문이였다. 어느 한 탄갱에도 군대의 경비가 없었다. 이것은 위험한 시각에 치명적인 부주의였으며 재난을 스스로 몰아오는 어리석은짓이였다. 이것은 제반사건들을 현명하게 처리하는것이 문제시되자마자 정부가 범할수 있는 모든 과오였다. 시계가 9시를 치자 드디여 탄부들은 방담의 도로로해서 전날에 집합장소로 결정했던 숲으로들 떠나갔다. 에띠엔느는 한편 자기가 믿었던 3천명의 사람들이 쟝 바르에 가지 않으리라는것을 곧 알아차렸다. 많은 사람들은 시위가 연기된것으로 인정하고있었으며 제일 나쁜것은 이미 길을 떠난 뒤서너패의 사람들은 에띠엔느가 그들의 선두에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을 망쳐먹을수 있는것이였다. 새벽에 떠난 100여명 사람들은 너도밤나무숲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것이였다. 에띠엔느가 의논하러 쑤바린을 찾아갔는데 그는 어깨만 으쓱할뿐이였다. 그의 의견은 10명의 과감한 장정들이 전체군중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는 다시금 자기앞에 놓인 책을 들여다보며 그 일에는 관여하기를 거절했다. 몽쑤는 아주 간단하게 불태워버리면 족할것인데 또다시 감정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는것이였다. 그 집을 나오던 에띠엔느는 난로곁에 앉아있는 라스너르를 발견했다. 라스너르는 낯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변함없이 검은 옷을 입고있는 그의 안해는 이날따라 한결 더 키가 커보였다. 그는 신랄하고도 점잖은 말로 자기 남편에게 핀잔을 주고있었다.

마여는 자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이러한 모임은 신성한것이다. 그러나 밤사이에 그들모두의 열의는 식었다. 지금 그는 불행을 두려워하면서 누구나 그곳에 가서 동무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것을 설명했다. 마여의 안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수긍했다. 에띠엔느는 어느 누구의 생명도 건드리지 말고 혁명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말을 기꺼이 되풀이했다. 그는 집을 나설 때 전날 자기에게 차례졌던 향나무술 한병과 한개의 빵중에서 빵은 거절하고 다만 춥지 않도록 술만 석잔 연거퍼 들이키고나서 그것을 물통에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갔다. 알지르가 아이들을 보게 했다. 본느모르할아버지는 어제 걸어다닌 후과로 다리가 아파나서 자리에 누워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심하느라고 함께들 가지 않고 따로따로 걸어갔다. 쟝렝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였다. 마여와 그의 안해는 몽쑤방향으로 가고 에띠엔느는 동료들과 합류하기 위해 숲으로 향했다. 도중에 그는 한떼의 녀자들을 따라잡았다. 그는 그들속에 브률레로파와 레바끄의 안해가 끼여있는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께뜨가 가져온 밤을 먹으면서 걸어가고있었는데 배를 더 불리느라고 껍질채 씹고들 있었다. 그런데 숲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동료들은 이미 쟝 바르로 떠나갔었다. 에띠엔느가 부랴부랴 탄갱으로 가보니 레바끄와 그밖의 탄부 100여명이 구내로 들어가고있었다. 여기저기서 탄부들이 나타났다. 마여내외는 큰길로 오고 녀자들은 들판으로 해서 오고있었다. 기슭을 넘쳐난 물이 비탈진 언덕으로 흘러내리듯이 모든 사람들은 지휘자가 없이 적수공권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오고있었다. 에띠엔느는 잔교의 란간에 기여올라가 있는 쟝렝을 보았다. 소년은 구경이라도 하러 온 사람의 자세로 앉아있었다. 에띠엔느는 좀더 빨리 달려 앞장선 동무들과 함께 들어갔다. 모두 해서 겨우 300명쯤 되였다.

그런데 저탄장으로 가는 계단우에 데넬랭이 나타나서 동요가 일어났다.

《어떻게들 하자는건가?》 하고 그가 큰소리로 물었다.

그는 마차우에서 자기에게 미소를 보내는 딸들을 눈으로 배웅하고나서 뒤숭숭한 불안에 싸여 탄갱으로 돌아왔었다. 탄갱안은 모든것이 정상적인것 같았다. 로동자들의 입갱도 끝나고 석탄채굴이 계속되

고있었다. 그는 저으기 마음이 놓여 도감독과 이야기를 하고있었는데 뜻밖에도 파업로동자들이 다가온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선탄장의 창문으로 달려간 데넬랭은 점차 불어가면서 벌써 구내에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무력하다는것을 곧 깨달았다. 사방으로 널려있는 건물을 어떻게 방비할것인가? 고작해서 그는 자기 주위에 20명가량의 로동자들을 집결할수 있을것이다. 모든것은 파멸이였다.

《어떻게들 하자는건가?》

그는 분노를 억제하기에 낯이 해쓱해져서 닥쳐온 불행을 용감히 맞이하려고 있는 애를 쓰면서 이렇게 물었다.

군중속에서 밀치닥거리며 욕설이 들리였다. 에띠엔느가 드디여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다.

《데넬랭씨, 우리는 당신에게 나쁜 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어디서나 중지시켜야겠습니다.》

데넬랭은 에띠엔느를 명백하게 머저리로 취급하였다.

《그럼 당신들은 우리 탄갱의 일을 중지시키는게 내게 좋은 일을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오? 그건 내 뒤잔등에 면바로 대고 총을 쏘는거나 한가지네. … 그렇네! 나의 로동자들은 탄갱안에 있어. 그들은 올라오지 않을거네. 먼저 나를 죽여야 할걸!》

란폭한 이 말은 그야말로 분노를 폭발시켰다. 마여는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나가는 레바끄를 붙잡았다. 에띠엔느는 저들의 혁명적 행동의 합법성을 데넬랭에게 설득시키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데넬랭은 로동에 대한 권리도 또한 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그는 이런 실없는 토론은 하고싶지 않으며 자기 탄갱의 주인으로 행세하려고 할뿐이라고 했다. 그가 단 한가지 후회한것은 이 부랑배들을 쓸어버릴 서너명의 헌병을 두지 않았다는것이였다.

《그것은 내 실책이지. 나는 지금 이런 경우를 당해서 마땅하네. 당신들과 같은 장정들에겐 오직 힘으로 대항해야 하지. 그런데 정부는 양보로써 당신들을 매수할수 있으리라고 상상하고있거던. 정부가 당신들을 무장시키기만 하면 당신들은 당장 정부를 뒤집어엎을걸세.》

에띠엔느는 전신을 우들우들 떨면서 아직은 자신을 억제하고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데넬랭씨, 당신네 로동자들을 올라오도록 지시하시오. 나는 우리

동료들을 제지하겠다고 보증하지 못하겠소. 당신은 불행을 피할수 있으니까.》

《아니, 닥치시오! 난 당신들을 모르오. 당신들은 내 탄갱의 로동자가 아니니 당신들은 나와 아무것도 다툴것이 없소. 이렇게 마을로 싸다니며 남의 집을 략탈하는건 강도들이나 할짓이야.》

분노에 찬 고함소리들이 그의 목소리를 뒤덮어버렸다. 특히 아낙네들의 욕질이 대단했다. 그러나 데넬랭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자신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였던 울분을 그들앞에 쏟아놓는데서 일종의 위안을 느끼는것이였다. 이왕 파산의 위험을 피할수 없는 이상 부질없이 비렬한 행동을 한다는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한것이다. 한편 군중은 점점 불어나 이미 500명이나 정문으로 밀려들었다. 그러다간 데넬랭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울 판이였다. 도감독은 강제로 그를 뒤로 끌어당겼다.

《주인님, 자비심을 베푸십시오! 이러다간 사람잡이가 벌어집니다. 무엇때문에 하찮은 일을 가지구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데넬랭은 그를 뿌리치고 군중에게 마지막고함을 질렀다.

《이 강도놈들아! 우리 힘이 강해질 때 네놈들이 뭐라고 수작을 하나 어디 두고보자!》

그는 끌리여나갔다. 이 혼잡속에서 앞줄에 선 군중은 계단쪽으로 밀려들어 란간들을 다 우그려놓았다. 아낙네들이 밀치고 요란하게 아우성을 치면서 사나이들을 부추겼다. 자물쇠가 없이 그저 빗장만을 질렀던 문은 곧 열리였다. 그러나 계단은 너무 좁았다. 밀려든 군중이 한참동안이나 들어가지 못해 비비적거리고있는데 뒤꼬리에 섰던 파업로동자들이 다른 통로로 들어갈 생각을 해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휴계실, 선탄장, 보이라실 할것없이 사방으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5분이내에 탄갱을 점령했다. 그들은 미친듯이 고함을 지르며 3층으로 뛰여올라가 반항하던 주인에 대한 승리의 개가를 올렸다.

마여는 맨 선참으로 뛰여든 사람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겁에 질려 에띠엔느에게 말했다.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네!》

에띠엔느는 이미 그의 뒤를 쫓아가고있었는데 데넬랭이 감독실에 들여박혔으리라는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만약 죽인다면 과연 그게 우리의 잘못이겠소? 그런 미친 놈을 가지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에띠엔느는 매우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랭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치미는 분노를 억제하고있었다. 지도자로서의 모욕당한 자존심이 그를 괴롭히고있었다. 그는 군중이 자기의 수하에서 빠져나가 침착하게 민중의 의사를 집행하려던 의도를 벗어나 분별없이 행동하고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침착하게 행동할것을 헛되이 요구하면서 무익한 파괴적행동으로 원쑤들에게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보이라실로 가자!》 하고 브류레로파가 새된 소리를 질렀다.

《불을 꺼야 하오!》

레바끄는 줄칼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것을 단검처럼 휘두르며 무서운 목소리로 떠들썩하는 소음을 뒤덮었다.

《쇠바줄을 끊자! 쇠바줄을 끊자!》

모두들 곧 이 말을 되받아 웨쳤다. 유독 에띠엔느와 마여만이 귀가 멘듯이 반대했으나 이 복새통에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드디여 에띠엔느는 겨우 이런 말을 했다.

《동무들! 밑에는 아직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소!》

소음은 더욱 커지며 사방에서 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참 안됐구만. 내려가긴 뭣하러 내려갔는가 말야!… 변절자들, 잘됐다! 그래그래, 거기들 들어박혀있으라지… 그들에겐 또 사다리가 있잖나!》

사다리가 있다는 생각은 그들을 더 완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에띠엔느는 양보할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큰 파괴를 우려하여 승강기라도 끌어올려보려고 기계실로 달려갔다. 사실 우에서 쇠바줄을 끊어버린다면 그 무거운 쇠바줄이 내리덮치여 승강기를 산산쪼각낼수 있었다. 운전공들은 몇명의 당직원들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었다.

에띠엔느는 손잡이를 틀어잡고 기계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레바끄와 다른 두명의 탄부는 이미 바퀴를 유지하고있는 쇠바줄우로 기여올라갔었다. 승강기에 빗장을 받쳐놓기가 바쁘게 줄칼로 강철을 켜는, 귀청을 째는듯 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괴괴한 침묵이 깃

들어있어서 소음은 온 탄갱안에 울리는듯 했다. 모두들 고개를 쳐들고 흥분에 싸여 쳐다보며 그 소리를 듣고있었다.

앞줄에는 희열에 충만된 마여가 서있었다. 그는 누구도 다시는 내려가지 못하게 될 이 저주로운 함정의 쇠바줄을 끊어버리는 톱날이 마치도 로동자들을 그 모든 불행에서 영원히 해방하여주는것 같았다.

브류레로파는 그냥 아우성을 치며 휴게실계단쪽으로 사라졌다.

《보이라실로 가자! 보이라실로 가자! 불을 꺼라!》

그 로파의 뒤를 따라 다른 녀자들이 달려갔다. 마여의 안해는 그들이 닥치는대로 들부시지 못하도록 하려고 서둘렀다. 그의 남편도 동료들이 리성을 잃지 않게 하려고 했던것이다. 마여의 안해는 녀인들속에서 가장 침착하게 행동하고있었다.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기 권리를 요구할수 있는것이다. 그가 보이라실로 들어가니 아낙네들은 벌써 두명의 화부를 거기서 내쫓은 뒤였으며 브류레는 쭈그리고앉아 화구에서 커다란 삽으로 채 타지 않은 석탄덩이들을 꺼내던지고있었는데 벽돌바닥에서는 그것들이 계속 검은 연기를 피우며 타고있었다. 보이라실에는 다섯대의 발전기를 돌리는 몇개의 화구가 있었다. 곧 아낙네들은 거기에 달라붙었다. 레바끄의 안해는 두손으로 삽을 휘두르고 무께뜨는 불이 달리지 않게 허리까지 치마를 걷어올렸었다.

불빛에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같았다. 땀에 젖고 맨머리가 헝클어진 그들은 흡사 안식일에 부엌에서 날치는것 같았다. 석탄더미는 점점 더 높아져서 그 무서운 열때문에 커다란 건물의 천정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만하면 됐어요.》 하고 마여의 안해가 소리쳤다.

《창고가 다 타요.》

《타면 더욱 좋지.》 하고 브류레가 대꾸했다.

《이쯤하면 되긴 됐어… 에이, 망할 놈들! 놈들이 내 남편 죽인 값을 톡톡히 치를게라구 한 내 말이 괜한 소린줄 알어!》

이때 쟝렝의 찢는듯 한 목소리가 났다.

《가만들 있어요! 내가 이제 불을 끄구 내 손으로 증기를 뽑을테니!》

선참으로 들어온 그는 이 싸움에 마음이 끌리여 무슨 나쁜짓을 할

수 있을가 궁리를 하며 혼잡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는 문득 배출변을 돌려 증기를 몽땅 뽑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증기는 포화처럼 뿜어나왔다. 다섯개의 보이라는 폭풍이 인듯이 귀청에서 피가 터지게 벼락치는듯 한 소리를 내면서 증기를 내뿜었다. 거기 있는 모든것이 증기에 휩싸였다. 석탄도 뽀얗게 되고 녀자들은 움직이는 그 무슨 기괴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오직 갱도우에 올라간 소년의 모습이 보일뿐이였다. 증기가 휘감도는 뒤에 있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흘러넘치고있었다. 태풍을 일으킨 기쁨으로 그의 입은 귀밑까지 째졌다.
이러한 상태는 약 15분간 계속되였다. 석탄더미우에 몇바께쯔의 물을 퍼부어 불을 완전히 꺼버리였다. 모든 화재의 위험은 제거되였다. 그러나 군중의 격분은 진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고조되였다. 사나이들은 망치를 들고 내려갔으며 녀인네들은 쇠몽둥이들로 무장했다. 발전기를 부셔야 하며 기계들을 박산을 내야 하고 온 탄갱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소리들이 들렸다.
에띠엔느가 련락을 받고 마여와 함께 달려왔다. 실은 그자신부터 복수를 하고싶은 절절한 욕망에 휩싸여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억제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할것을 간청하였다.
쇠바줄도 끊어지고 불도 꺼지고 보이라도 텅 빈 이제야 아무 작업도 할수 없는것이 아닌가? 여전히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한계를 또다시 넘어서려고 할 때 사다리로 통하는 나지막한 문 저쪽밖에서 함성이 높아졌다.
《변절자들을 죽여라! 이 비겁한 개자식들아! 죽여라! 죽여라!》
탄갱안에서 로동자들이 나오기 시작한것이였다.
맨 먼저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해빛에 눈이 부시여 서서 눈만 꺼벅꺼벅하다가 행길로 빠져 달아나려고 했다.
《비겁분자들을 죽여라! 가짜형제들을 죽여라!》
파업자들은 모두 달려갔다. 3분도 되나마나한 사이에 건물안에는 한사람도 남지 않게 되였다. 몽쑤에서 온 500명의 로동자들은 두줄로 늘어서서 입갱했던 방담의 변절자들로 하여금 그사이로 빠져나가게 했다. 그들은 누데기들을 걸치고 일을 하느라고 검은 흙투성이가 된 탄부들이 새로이 나타날 때마다 함성이 높아지고 모진 조소를

퍼붓군 했다.

《꼴 좋다! 세치짜리 다리에 제창 엉뎅이가 붙었군그래! 이놈은 〈볼깡〉 계집에게 코를 떼웠구나. 저 친구를 보게. 눈에서 여라문개의 교회당에 켜고도 남을 초가 흘러내리는걸. 이 궁둥이없는 말라꽹이 꺽다리를 좀 보지!》

이때 젖통이 축 늘어지고 배가 남산만 한데다가 엉뎅이가 매판같은 체대 큰 녀운반공이 엉금엉금 나타났다. 그의 외모는 맹렬한 폭소를 일으켰다. 누구나 저마다 몸을 한번씩 만져보려고 했다. 조소는 신랄해지다가 차츰 적의로 변했다. 조금만 더하면 매찜질이 시작될것 같았다. 그러나 말없이 모욕을 받으며 이제나저제나 얻어맞을세라 덜덜 떨고있는 이 가련한 사람들의 행렬은 그냥 계속될뿐이였다. 그들은 마침내 갱을 벗어나 달아날수 있게 된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몰랐다!

《아니, 대체 그밑에 사람이 얼마나 있단 말이요?》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그는 사람들이 계속 줄지어나오는데 놀랐다. 그는 이것이 감독들의 위협도 있고 배도 고프고 하여 할수없이 투항한 몇사람의 로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결이 났다. 그러면 숲에서는 이들이 자기를 기만한것이 아닌가! 쟝 바르탄갱에서는 거의 전체 로동자가 일에 착수한것이다. 문턱에 나타난 솨발을 보자 그는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이 악마같은 놈아! 바로 이따위 모임을 가지자고 네놈이 우리를 오게 했단 말이냐?》

저주의 목소리가 터졌다. 변절자에게 달려들려고 밀치락닥치락하였다. 어떤 자식인가 보라! 바로 그전날 자기들과 함께 맹세하고도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갱에 들어간단 말인가? 그런즉 이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것이다.

《수직갱에 처넣으라! 수직갱으로 끌어가라!》

솨발은 공포에 질려 무어라고 중얼거리며 변명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군중의 분노에 감응된 에띠엔느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에띠엔느는 머리끝까지 성이 났다.

《일단 우리 편이 되겠다고 했으면 우리 편이 되는것이지… 미련한 자식.》

새로운 함성이 그의 목소리를 뒤덮었다. 이번에는 까뜨리느가 나타났다. 해빛에 눈이 먼 그는 자기가 이 적의에 찬 사람들속에서 쓰러질가봐 겁이 났다. 102개의 사다리를 올라온 그의 두다리는 휘청거리고 손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였다. 그는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마여의 안해는 그를 보자 주먹을 쳐들고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이년아! 너도 들어갔단 말이냐!… 어민 굶어서 죽어가는데 네년은 그 더러운 개자식때문에 제 어미를 배반한단 말이지!》

마여는 따귀를 치려는 마누라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그 역시 마누라처럼 딸의 행동에 격분하여 그를 마구 쥐여흔들었다. 부모는 펄펄 뛰면서 앞을 다투어 딸을 꾸짖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야단을 쳤다.

에띠엔느는 까뜨리느를 보자 더는 자신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그는 연신 같은 말을 웨쳤다.

《자, 가자! 다른 탄갱으로 가자! 그리고 너도 우리하구 함께 가자, 개자식같으니.》

쇠발은 휴계실에 들어가서 겨우 자기의 나막신을 주어신고 얼어든 어깨에 털실로 뜬 저고리를 걸치고 끌리워나갔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뛰지 않으면 안되였다. 까뜨리느는 아연실색하여 나막신을 주어신고는 추위가 시작되면서 입고다니는 헌 남자저고리의 앞깃을 여미고서 제사람의 뒤를 따라 뛰였다. 그는 쇠발이 이 사람들의 손에 죽을것만 같아 그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것이였다.

불과 2분동안에 쟝바르는 휑뎅그렁하니 텅 비였다. 쟝렝은 어디서 신호나팔을 구해가지고 그 거쉰 나팔소리로 마치 소들을 부르기나 하듯이 불어댔다. 브률레로파, 레바끄의 처, 무께뜨 등 아낙네들은 치마까지 걷어올리고 달리였다. 레바끄는 고수가 방망이로 북을 치듯이 신바람이 나서 도끼를 휘두르고있었다. 다른 동무들이 끊임없이 그들과 합류했다. 이미 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기슭을 넘어난 강물이 벌판으로 흘러퍼지듯이 무질서하게 흩어져갔다. 그들은 나가는 길이 너무나도 비좁아서 울바자들을 짓부시며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탄갱으로 가자! 배반자들을 죽여라. 일을 중지해라!》

쟝 바르는 갑자기 쥐죽은듯이 고요해졌다. 사람 하나 얼씬하지 않

고 바스락소리도 없었다. 데넬랭은 감독실에서 나오자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고는 혼자 탄갱으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나 아주 침착해보였다. 그는 수직갱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들고 끊어진 쇠바줄을 쳐다보았다. 강철제바줄은 쓸모없이 끝이 늘어져있었다. 줄칼에 끊어진 자리가 시커멓게 기름이 묻은 속에서 갓 입은 상처처럼 번뜩이고있었다. 그다음 그는 기계실로 올라가 마비된 그 어떤 거대한 몸뚱이의 손발처럼 보이는 움직이지 않는 련결대를 바라보다가 차거운 무쇠에 손을 대보고는 마치 싸늘한 시체라도 만진듯이 부르르 몸을 떨었다. 이윽고 그는 보이라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불이 꺼진채 입을 쩍 벌린 물이 가득찬 화구의 곁을 지나서 웅글게 울리는 발전기들을 발로 걷어차보았다. 이렇게 됐구나! 이제는 끝장이 났다. 완전한 파산이다. 설혹 쇠바줄들을 수리하고 불을 피운다 하더라도 어디서 사람들을 구한단 말인가? 이제 두주일만 파업이 더 계속되면 그는 파산상태에 놓이게 된다.

데넬랭은 자기의 재난을 확신하면서도 몽쑤의 불한당들에 대하여 증오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범죄, 전반적인 세기적과오를 느꼈다. 의심할바없이 무지몽매한 무리, 지어 글도 모르고 굶어죽어가고있는 무리인것이다.

4

군중들은 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희미한 겨울해빛이 흘러넘치는 밋밋한 벌판으로 밀려가면서 행길이 비좁아 곧장 사탕무우밭을 가로질러갔다.

에띠엔느는 푸루슈 오 버프에서부터 자기가 지휘를 맡았다. 그는 걸으면서 지시도 주고 대렬도 정돈시키군 했다. 선두에는 쟝렝이 괴상한 나팔소리를 내면서 달려갔다. 그다음에는 아낙네들이 서서 갔는데 더러는 몽둥이들을 들고있었다. 그중에는 마여의 안해도 끼여있었다. 그는 마치 저 멀리 자기앞에 벌써 정의로운 행복한 땅이 보이기라도 하는것처럼 눈이 달떠있었다. 브률레와 레바끄의 처와 그리고 무께뜨는 누데기를 걸치고 전장으로 출동하는 병사들처럼 발을

들며 걸었다. 잘못 맞다드는 경우에 헌병들이 감히 아낙네들을 시비질하겠는지 그것은 두고보아야 할 일이였다. 혼잡을 이룬 무리속에서 남자들이 따라가고있었다. 뒤로 가면서 옆으로 퍼진 종대우에는 쇠몽둥이들이 솟아있었고 레바끄의 유일한 도끼가 해빛에 번쩍이고 있었다.

에띠엔느는 복판에 서서 가고있었는데 그는 줄곧 자기가 앞세우고 가는 솨발을 눈길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뒤에는 마여가 까뜨리느를 침울한 눈으로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따라오고있었다. 까뜨리느로 말하면 자기 솨발과 가까이 있기 위해 고집을 써서 남자들대렬에 끼여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사나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가 우려하고있었다. 모두들 맨머리바람이여서 머리칼들이 헝클어져 흘러내려와있었다. 쟝렝이 부는 귀가 멜듯 한 나팔소리와 더불어 들리는 나막신소리는 우리에서 놓여나온 집짐승의 발굽소리를 련상케 했다.

또다시 웨치는 소리들이 들렸다.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때는 한낮이였다. 파업을 한지 여섯주일동안 굶주린 빈 창자속에서는 배고픔이 되살아나 이 허허벌판을 달리면서 더 심해졌다.

아침에 먹은 빵껍질과 무께뜨가 가져다준 몇알의 밤은 이미 기억에도 없었다. 기아의 고통은 군중들로 하여금 변절자들에 대한 격분을 더욱더 느끼게 했다.

《탄갱으로 가자! 작업을 중지하라! 빵을 달라!》

마을에서 빵을 사양한 에띠엔느는 견딜수없이 속이 쓰려왔다. 그는 투덜거리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물통을 꺼내여 추위에 언 몸을 우들우들 떨면서 가끔 거기에 입을 가져다대군 했다. 그는 향나무술을 한모금씩 마시지 않고는 탄갱까지 가닿을수 없을것 같았다. 그의 두볼은 상기되고 눈에는 불이 일었다. 그러나 그는 리성을 잃지 않아 아직도 불필요한 파괴는 피하려고 노력하고있었다.

쥬아젤도로에 이르렀을 때 주인에게 앙갚음을 하려는 욕망에서 이 대렬에 가담한 한 탄부가 동무들을 오른쪽으로 이끌어가려고 이렇게 웨쳤다.

《가스똥 마리로 가자! 배수뽐프를 세우자! 쟝 바르갱에 물을 채우

자!》
그의 말에 끌린 군중들은 물은 계속 푸게 해야 한다고 사정하는 에띠엔느의 말은 들은척도 않고 그쪽으로 벌써 돌아섰다. 무엇때문에 갱도를 못쓰게 만든단 말인가? 비록 그자신도 분노에 싸여있기는 했지만 그의 심장, 로동자의 심장은 이에 분개했다. 마여도 역시 기계에 손을 대는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탄부는 여전히 복수할것을 웨쳐서 에띠엔느는 부득이 더 크게 고함을 지르지 않을수 없었다.
《미루갱으로 가야 한다… 거기엔 아직도 변절자들이 있다. 미루로 가자! 미루로!》
그는 손짓을 해서 군중들을 왼쪽길로 돌려세웠다. 쟝렝은 대렬선두에 서서 더욱 요란스럽게 나팔을 불어댔다. 하나의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이리하여 이번에는 가스똥 마리탄갱이 구출되였다.
파업로동자들은 미루갱까지 4키로메터나 되는 거리를 무연한 벌판으로 거의 달리다싶이 하여 반시간동안에 가닿았다. 그 벌판에는 얼어붙은 운하가 얼음댕기처럼 기다랗게 이쪽으로 째여져있었다. 다만 운하의 량기슭에 서있는 앙상한 나무들만이 서리에 덮여 커다란 초대처럼 연하여 망망한 대해와도 같이 지평선에서 하늘과 잇닿은 평평한 계곡의 단조로운 정경에서 이채를 띠고있었다. 몽쑤와 마르쉬엔느는 구릉이진 대지에 가리워 보이지 않고 주위에는 오로지 가없는 벌판이 펼쳐져있을뿐이였다.
탄갱에 다달은 파업로동자들은 선탄장에서 자기들을 맞으려고 말뚝처럼 서있는 감독을 보았다. 몽쑤에서 제일 늙은 감독인 그는 피부와 털이 모두 새하얀 모두가 잘 아는 꾱디에아저씨였다. 그 로인은 올해 나이 70인데 탄광에서 진짜 기적이라고 할만큼 유별스럽게 몸이 건강했다.
《이 뻔뻔스러운 자식들, 여기에 무슨 볼일이 있어 왔어?》 하고 그는 소리를 쳤다.
파업로동자들은 우뚝 멈추어섰다. 그는 주인이 아니라 바로 동료였으며 따라서 늙은 로동자에 대한 존경심이 부지불식간에 그들을 억제했다.
《갱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있지요?》 하고 에띠엔느가 말했다.

《그들을 나오게 해주시오.》
《거기에 사람들이 있지.》 하고 깡디에아저씨가 대답했다.
《약 60명가량 되네. 나머지사람들은 자네네 같은 건달들이 두려워서 못 들어갔지. 미리 말해두네만 한사람도 그안에서 안 나올걸세. 해볼테면 나하구 해보라구!》
고함소리들이 터졌다. 남정들이 밀치고 녀인들이 앞으로 나갔다. 감독은 급히 발판에서 뛰여내려 자기 몸으로 문을 막아섰다.
그러자 마여가 입을 열었다.
《여보시오, 령감. 이건 우리네 권리요! 동무들이 우리하구 일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하지 않구서야 어떻게 총파업을 하겠소?》
로인은 잠간 말이 없었다. 정확히 말해서 동맹에 대한 그의 무식은 탄부의 무식인것이다. 드디여 그는 대답했다.
《물론 그건 자네네 권리지. 사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지시를 받았으니 그대로 집행할뿐이야. 난 여기 혼자 있단 말일세. 탄부들은 굴안에 3시까지 남아있어야 하네.》
마지막말마디들을 고함소리들이 삼켜버렸다.
그들은 주먹으로 늙은 감독을 위협했으며 아낙네들은 그 새된 고함소리로 그의 귀를 메게 했다. 그들의 뜨거운 입김이 얼굴에 확확 안기였다. 그러나 로인은 굳건히 서서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높이 들고 흰 턱수염을 쳐들고있었다. 그의 대담성은 그 소란한 속에서도 그의 말이 똑똑히 들리도록 목청을 돋구어주었다.
《넨장, 못 들어갈줄 알게!… 이건 저 해가 비치는것처럼 틀림없는 일이네! 자네들이 쇠바줄에 손을 대게 할바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어. 더 밀지 말라구. 정 그러면 난 자네들 눈앞에서 갱에 떨어져 죽구말겠네.》
군중은 흠칠하고 물러섰다. 로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돼지새끼가 아니라면 이 사정을 알아줄걸세.… 나도 자네네 같은 로동자야, 나보고 지키라고 해서 지키고있는게 아닌가.》
깡디에로인은 이 이상 리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반생을 어두운 탄갱에서 일하여 정기 잃은 눈을 한 무식한 로인은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막무가내였다. 동무들은 불안스레 늙은 탄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그들의 가슴속깊이에서 병사다운 복종심과 우애 그

리고 위험한 순간에는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였다. 깡디에는 파업로동자들이 아직도 동요하고있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웨쳤다.

《나는 자네들의 눈앞에서 떨어져 죽고말겠네!》

군중들속에서 심한 동요가 일어났다. 모두가 돌아서서 다시금 무연한 벌판의 곧게 뻗은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다시금 합성이 울려퍼졌다.

《마들렌느갱으로 가자! 끄레브 꿰르갱으로 가자! 작업을 중지시키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이때 대렬복판에서 난데없는 혼란이 일어났다. 알고보니 솨발이 기회를 타서 뺑소니치려고 한것이였다. 에띠엔느는 그의 팔을 틀어쥐고 그 무슨 배신할 생각만 하면 갈비대를 분질러놓겠다고 을러댔다. 솨발은 성이 나서 발악을 했다.

《왜 이러는거요? 그래 누구나 제마음대로 행동할 권리가 없단 말이요?… 난 한시간이나 이렇게 얼고있소. 난 몸을 씻어야겠단 말요. 날 놓아주오.》

아닌게아니라 그의 몸엔 석탄가루가 땀으로 해서 들어붙었고 뜨개옷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였다.

《우리와 함께 뛰잔 말이다. 정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손으로 네 몸뚱이를 씻어주구 말가부다.》 하고 에띠엔느가 대답했다.

《괜히 멋없이 피를 흘리게 할거야 없지.》

파업로동자들은 쉬지 않고 앞으로 내달았다. 에띠엔느는 용하게도 견디여내고있는 까뜨리느를 돌아다보았다. 그는 까뜨리느가 헌 남자웃옷에다 흙투성이 바지를 입고 가련하게도 자기옆에서 오돌오돌 떨고있는것을 보고 실망했다. 처녀는 극도로 피곤한 모양이였으나 그대로 계속 달리고있었다.

《썩 어데로 사라지오.》 하고 그는 끝내 말했다.

그러나 까뜨리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것 같았다. 에띠엔느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는 말없는 책망의 빛이 어려있었다. 그는 발을 멈추지 않고 달리였다. 왜 에띠엔느는 제 사내를 버리라고 한단 말인가? 물론 솨발은 자기를 좋지 않게 대했고 이따금 때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남편이며 처음으로 자기를 차지한 사나이이다. 그

래서 까뜨리느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자기 남편 한사람을 천대시하고있는것에 결이 났다. 설혹 자기가 그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해도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서 그를 옹호하지 않을수 없었다.

《썩 사라지래두!》 하고 마여가 성이 난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아버지의 고함소리는 달리는 그를 일순간 멈춰세웠다. 그는 온몸을 떨며 두눈에 눈물이 글썽해있었다. 그러더니 무서움을 무릅쓰고 달음박질을 쳐 다시 자기 위치에 되돌아갔다. 사람들은 그를 더는 건드리지 않았다.

파업로동자들은 쥬아젤도로를 지나 끄롱방향으로 전진하다가 그다음에는 꾸니로 올라갔다. 이쪽으로부터는 무연한 지평선에 공장굴뚝들이 거뭇거뭇 솟아있고 길가에는 목조창고들이 늘어서고 벽돌로 지은 먼지낀 커다란 창문들이 달린 공장건물들이 련달아 서있었다. 파업로동자들은 낮다란 오두막들이 있는 쌍 까트르 뱅마을과 쓰와쌍뜨쌔즈마을을 련이어 지났는데 나팔소리가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소리쳐부를 때마다 남녀로소 할것없이 온 가족들이 떨쳐나와 동무들에게 합류하군 했다. 그리하여 마들렌느갱에 다달을무렵에 파업로동자들의 수는 1 500명에 달했다. 탄갱으로 가는 길은 비탈졌기때문에 파업로동자들의 물결은 버럭산을 넘어가야만 탄갱구내로 들어갈수가 있었다.

때는 2시전이였다. 그러나 미리 통지를 받은 감독들은 서둘러 로동자들을 출갱시켰었다. 그리하여 파업로동자들이 당도해보니 로동자들은 이미 돌아들 가고 밑에는 스무나문명밖에 없었다. 그들은 부리나케 승강기를 기여나와 달아났다. 파업로동자들은 그들뒤에 대고 돌팔매질을 했다. 그러고 두사람을 붙잡아서 두들겨패고 또 한사람은 옷소매를 뜯어놓았다. 이렇게 사람사냥을 하는 덕분에 설비들은 무사했는데 아무도 쇠바줄이나 보이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 흐름은 어느새 이웃탄갱으로 밀려가기 시작했다.

끄레브 꿰르는 마들렌느에서 불과 500메터거리에 있었다. 일행은 역시 출갱이 한창인 때 거기에 당도하였다. 한 녀운반공이 붙잡혀 녀인들에게 매를 맞고 바지가 째져 남자들의 웃음거리가 되였다. 보조공들은 따귀를 얻어맞았고 채탄공들은 매를 맞아 옆구리에 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코피까지 흘리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다.

점점 더 조폭해지고 묵은 복수의 일념으로 제정신이 아닌 속에서 변절자들에게 죽음을 주고 품값이 보잘것없는 로동을 배척하라는 웨침소리가 주린 창자의 빵을 요구하는 울부짖음처럼 계속되였다. 쇠바줄을 끊기 시작하였으나 줄칼이 잘 들지 않아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했다. 그런데 군중들은 미친듯이 앞으로 내달렸다. 보이라의 변을 짓부시자 화구에 물이 바께쯔로 쏟아붓듯이 흘러들어 주철제불판이 터져나갔다.

밖에서는 쌩 또마로 가자는 론의가 벌어지고있었다. 그곳엔 700명가량의 사람이 일하고있었는데 거기엔 엄격한 규률이 유지되고있어서 파업은 그 탄갱에 미치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사정이 류달리 사람들을 격분시키는것이였다. 파업자들은 몽둥이질로 그들을 맞이할것이며 렬을 지어 싸움을 벌려 누가 견디여내는가 보자는것이였다.

그런데 소문이 돌기를 쌩 또마에 헌병들이, 오늘 아침에 그들이 비웃은 바로 그 헌병들이 있다는것이였다. 누가 그런 소문을 돌리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매 한가지가 아닌가! 그리하여 모두들 겁이 나서 퍼뜨리 깡뗄로 가기로 작정했다. 다시금 광기에 사로잡힌듯 한 그들모두는 길가에 나서서 나막신들을 울리며 고함을 질렀다.

《퍼뜨리 깡뗄로 가자! 퍼뜨리 깡뗄로 가자! 거기엔 아직도 겁쟁이가 400명이나 있다. 심심풀이는 된다.》

그 탄갱은 3키로메터쯤 떨어진 스까르쁘부근 골짜기에 있었다. 그들이 어느새 보니로 가는 길을 지나 쁠라뜨리에르언덕으로 올라섰는데 누구인지 거기 퍼뜨리 깡뗄탄갱에는 룡기병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내놓아 대렬끝에서 끝까지 그 소리가 되풀이되였다. 동요가 일어나 걸음을 늦추었다. 수세기동안 그들이 일해온 파업으로 고요해진 이 고장은 점차 공포에 휩싸였다. 어찌하여 그들은 아직까지 병사들과 맞다들지 않았던가? 이때까지는 자기네가 무사했지만 머지않아 탄압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에 그들은 유난히 마음이 불안스러웠다.

어디서 내렸는지 모를 명령이 사람들을 다른 탄갱에로 내몰았다.

《빅뜨와르로 가자, 빅뜨와르로!》

그러면 빅뜨와르에는 헌병도 룡기병도 없단 말인가? 누구나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모두들 거기는 마음을 놓는것 같았다. 그들은 돌아

서서 보료쪽에서 내려와 들판을 가로지나 쥬아젤로 가는 길을 단축했다. 도중에 철도로반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다. 그들은 울타리를 넘어뜨리며 철길을 건너갔다.

그들이 몽쑤로 다가감에 따라 땅의 완만한 굴곡은 점점 낮아지면서 무연한 사탕무우밭이 저 멀리 마르쉬엔느의 검은 집들이 늘어선쪽으로 펼쳐져있었다.

이번에는 5키로메터가 실히 되는 달리기였다. 그들은 얼마나 강한 충동을 받았던지 극도로 지쳐서 다리가 부러지는듯 하고 멍이 든것을 감촉하지 못하였다. 도중에 마을을 지나면서 동무들이 또 합류하여 대렬은 점점 늘어갔다. 그리하여 운하에 놓인 마가슈다리를 지나 빅뜨와르앞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인원이 2천명이상이나 되였다. 그러나 이미 3시가 지난 때여서 빅뜨와르의 탄부들은 한사람 남지 않고 죄다 흩어진 뒤였다. 실망한 군중들은 공연히 으르대기만 하다가 마침 교대를 나오는 토역로동자들을 깨진 벽돌장으로 맞이할수밖에 없었다. 다 도망치고 텅빈 탄갱은 그들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그들은 어느 한 변절자의 상판도 때려주지 못한것이 몹시 분했다. 그래서 설비나마 부시려들기 시작했다. 은근히 곪아오던 울분의 종처는 드디여 터진것이였다. 한없이 굶주려온 세월은 살륙과 파괴의 욕망으로 그들을 몹시 괴롭혔다.

에띠엔느는 창고뒤에서 두바퀴수레에 석탄을 싣고있는 적재공들을 발견했다.

《당장 여기서 썩 물러들 가오.》 하고 그는 소리쳤다.

《한덩어리의 석탄도 실어내가지 못하오!》

그가 웨치는 소리를 듣고 100명의 파업로동자들이 달려왔다. 적재공들은 간신히 도망을 쳤다. 어떤 사람들은 말들에게서 굴레를 벗기고 채찍질을 했다. 말들은 깜짝 놀라 내뛰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수레를 뒤집어엎고 수레채를 분질러놓기도 했다.

레바끄는 잔교를 짓부시려고 삼각받침대에 달려들어 사납게 도끼질을 했으나 잘되지 않자 이번에는 레루들을 들어내여 철길을 몽땅 끊어버릴 생각을 했다. 이윽고 나머지 파업로동자들도 이 일에 달라붙었다. 마여는 쇠몽둥이를 들고 그것을 지레대로 써가며 레루의 고정쇠들을 뽑았다. 이때 브률레로파는 녀인네들을 등불보관고로 끌고가

막대기들을 휘둘러 그 방안은 삽시간에 온 바닥이 유리쪼각으로 뒤덮였다. 마여의 안해는 몹시 격분하여 레바끄의 안해처럼 힘있게 몽둥이를 막 휘둘러댔다. 모두들 기름투성이가 되였다. 무께뜨는 치마에다 손을 씻으면서도 자기의 꼴이 이렇게 어지러워진것이 못내 우스운 모양이였다. 쟝렝은 장난으로 그의 목덜미에 등불기름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풀이로는 먹을것이 생기지 않았다. 빈 창자는 더욱더 견디기 어려웠다. 다시금 요란한 웨침이 일어났다.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전에 감독으로 있던 한사람이 빅뜨와르탄갱에서 음식점을 차려놓고 있었다. 그는 분명 혼비백산하여 자기 가게를 버리고 달아난 모양이였다. 아낙네들이 등불보관고에서 돌아오고 남자들이 철길을 파괴했을 때 그들은 일제히 음식점으로 달려들어 곧 덧문을 뜯어버리였다. 거기에는 빵은 없고 생고기 두덩이와 한포대의 감자가 있을뿐이였다. 다만 뒤지는중에 찾아낸 쉰병가량의 향나무술이 모래밭에 떨어진 한방울의 물처럼 순식간에 없어졌다.

에띠엔느는 자기 물병의 술을 마저 마시고 새로 술을 가득 채워넣을수 있었다. 빈속에 술이 들어가 점점 취한 그는 눈에 피발이 서고 파리해진 입술사이로 승냥이같은 이발을 드러내였다. 문득 그는 쇼발이 없어진것을 깨달았다. 에띠엔느가 욕질을 하자 동무들은 달려가 까뜨리느와 함께 장작가리뒤에 숨은 도망군을 붙잡았다.

《이 더러운 놈! 망신을 당하기가 두렵냐?》 하고 에띠엔느가 호통을 쳤다.

《네 입으루 숲에서 기계운전공들이 뽐프들을 세울것을 요구하고 이제 와서는 우리를 해치려구! 이 주릴 틀 놈아! 가스똥 마리갱으로 돌아가 네놈의 손으로 뽐프를 부시게 할테다. 빌어먹을 놈같으니! 네 손으로 뽐프를 부시게 한단 말이다!》

에띠엔느는 취해있었다. 그는 몇시간전만 해도 자기가 구원한 배수뽐프에로 동무들을 내몰았다.

《가스똥 마리로 가자! 가스똥 마리로 가자!》

모두들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내달았다. 쇼발은 어깨를 붙잡힌채 끌리고 떠밀리여가면서 제발 제 몸을 좀 씻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썩 없어지래두!》 하고 마여가 역시 모든 사람을 따라서 뛰여가는 까뜨리느에게 소리를 쳤다.

그러나 처녀는 멈추어서지도 않고 불타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계속 뛸뿐이였다.

그들은 뒤돌아서서 다시 기다란 직선도로를 따라 무연한 벌판을 주름잡으며 달렸다. 때는 4시가 되여 해는 지평선으로 기울어지면서 미친듯이 날뛰는 사람들의 기다란 그림자를 얼어붙은 대지에 던지고있었다.

파업로동자들은 몽쑤를 피하여 더 높은 쥬아젤도로로 다시 잡아들었으며 푸루슈 오 버프로 돌지 않기 위해서 삐올랜느의 벽밑을 지나갔다. 바로 이때 그레그와르부처가 거기에서 나왔다. 그들은 쎄씰과 만나게 되여있는 엔보씨댁에 저녁식사하러 가기 전에 공증인을 방문할 필요가 있었던것이다. 령지는 잠든듯 하였다. 보리수 늘어선 대통로에는 인적기가 없었고 남새밭과 과수원은 겨울철이라 벌거숭이가 되였다.

집안은 무엇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며 꼭 닫긴 창문들은 방안의 더운 김때문에 뿌옇게 되였다. 깊은 정적속에서는 온화한 안락이 느껴졌으며 훌륭한 침대와 푸짐한 식탁, 집주인들의 흘러넘치는 리지적인 행복이 감촉되였다.

파업로동자들은 발길을 멈추지 않고 음울하게 창살들을 바라보았고 집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유리쪼박들을 박아놓은 담장을 쭉 훑어보았다. 또다시 부르짖는 소리들이 울렸다.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오직 단마르크종의 황갈색개 한쌍이 일어서서 아가리를 벌리고 짖어댈뿐이였다. 닫긴 덧창문안에는 웨치는 소리를 듣고 나온 식모 멜라니와 몸종 오노리느가 숨어있었다. 그들은 파업로동자들을 보자 공포에 질려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고 진땀을 흘리고있었다. 돌멩이 하나가 옆창문의 유리 한장깨는 소리를 듣고 두 하녀가 무릎을 꿇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였다. 그것은 쟝렝의 장난이였다. 그는 노끈으로 고무총을 만들어 그레그와르부처에게 문안을 드린 다음 즉시에 또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했다. 군중들은 이미 멀어지고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하는 고함소리도 사라져갔다.

가스똥 마리에 도착했을 때는 오는 도중 인원이 다시 불어서 2천 500명이나 되였다. 그들은 격랑처럼 모든것을 부시고 쓸어버리였다. 헌병들은 한시간전에 여기로 왔다가 농민들에게 속히워서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고 탄갱의 초소에 몇사람 남겨둘것도 잊어버린채 급급히 쌩 또마쪽으로 떠나갔었다. 15분도 못되여 화구들이 깨여지고 보이라들이 속이 비였으며 점거된 건물들은 파괴되였다. 그러나 특별히 위험으로 되는것은 배수뽐프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멈춰세우고 마지막김까지 뽑아버렸을뿐아니라 마치 산사람을 죽이기나 한듯이 거기에 그냥 덤벼들었다.

《네가 먼저 부셔라!》 하고 에띠엔느는 솨발의 손에 망치를 쥐여주면서 거듭 말했다.

《자, 어서! 다른 사람들앞에서 맹세하지 않았어.》

솨발은 부들부들 떨면서 물러났다. 밀치고닥치고 하는통에 그의 손에서 망치가 떨어졌다. 그러는새 다른 사람들은 기다릴 사이도 없이 쇠몽둥이며 벽돌장이며 무엇이고간에 닥치는대로 집어들고 뽐프를 부시기 시작했다. 기계를 내리치다가 몽둥이가 부러진 사람도 있었다. 나사못들이 날아나고 강철과 구리부속품들이 떨어진 손발처럼 너덜너덜했다. 내리친 곡괭이에 무쇠동체가 구멍이 뚫리여 물이 콸콸 쏟아져나왔다. 그 소리는 림종시의 딸꾹질을 련상시켰다.

이것이 마지막이였다. 미친듯 한 군중들은 솨발을 놓아주지 않고있는 에띠엔느의 뒤로 밀려들었다.

《변절자들을 죽여라. 그놈을 수직갱에 처넣어라, 수직갱에!》

백지장처럼 얼굴이 창백해진 가련한 그는 몸을 씻어야겠다고 같은 소리만 머저리처럼 지꿎게 되뇌이고있었다.

《가만 있거라.》 하고 레바끄가 말했다.

《네가 정 생각이 간절하다면 저리 가자. 여기에 물통이 있잖니!》

거기에는 뽐프에서 새여나오는 물이 고여 두툼하니 얼어붙어있었다. 그들은 솨발을 떠밀어다가 얼음을 까고 찬물에다가 그의 머리를 박아넣었다.

《몸을 잠가!》 하고 브률레로파가 말했다.

《어서 잠가! 안 잠그면 우리가 처넣을테다! 이번엔 마셔! 그래그래, 어서 마셔. 돼지가 뜨물통에 주둥이를 박고 마시듯이 말이다!》

그는 네발로 엎드려서 웅뎅이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되였다.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잔인한 웃음이였다. 한 녀인은 쇠발의 귀를 잡아당기고 또 한 녀인은 길가에서 금방 눈 말똥을 한줌 가져다 그의 얼굴에 들씌웠다. 그의 헌 뜨개옷이 갈기갈기 찢어져 너덜거렸다. 그러나 사나와진 그는 달아나려고 안깐힘을 쓰며 버티고있었다.

마여가 그를 한대 쥐여박았다. 그의 안해도 격노한 녀인들축에 들어있었다. 그들내외는 쌓이고쌓인 원한을 풀었다. 평소에는 이전의 자기 정부들과 좋게 지내고 그에게 반했던 무께뜨까지도 그를 불한당이라고 욕질을 하고 이자가 사내가 맞는지 바지를 벗겨보아야겠다고 야단을 쳤다.

에띠엔느가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그만하오. 무리를 지어 대들건 없어! 이봐, 너 나하구 1대 1루 결판을 내자.》

그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그의 눈에는 살기가 불타고있었다. 취한 나머지 그는 죽이고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던것이다.

《할테야? 우리들중에서 한사람은 여기서 죽어야 해. 저놈에게 칼을 주오. 나는 내 칼이 있소.》

까뜨리느는 그만 맥이 탁 풀리고 겁에 질려서 에띠엔느를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에띠엔느가 실토하던 말이 생각났다. 에띠엔느는 취하기만 하면 ㅡ그런데 그는 석잔만 들어가면 취하는것이였다.ㅡ 살인할 욕망이 솟구친다고 했었다. 이는 주정뱅이들인 그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그에게 길러준 악습이였다. 까뜨리느는 달려들어 녀인의 두손으로 그의 뺨을 후려갈겼다. 그리고는 분노에 치를 떨면서 맞대놓고 그에게 내쏘았다.

《이 비렬한 놈아, 이 비렬한 놈아, 이 비렬한 놈아. 도대체 이 모든 가증스러운짓이 지나치지 않아? 저렇게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그를 죽이려고 해!》

그는 자기의 부모와 다른 파업로동자들을 향해 부르짖었다.

《당신들은 비렬해요! 비렬해요!… 나도 이 사람과 함께 죽여줘요. 당신들이 저 사람을 또 건드려봐요. 난 당신들의 얼굴을 물고 늘어질테야요! 아! 비렬한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자기의 사내를 막아나섰다. 그는 자기가 그에

게 매를 맞은 일도, 또 그 가난한 생활도 잊어버리고 이 사람은 자기 사람이며 그가 자기를 차지한 이상 이처럼 그 사람이 굴욕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수치라는 한가지 생각에 격분하였다.

에띠엔느는 그에게 따귀를 얻어맞고 낯이 해쓱하게 질렸다. 그는 하마트면 그 녀자의 목을 조일번 하였다. 이윽고 그는 술이 깬 사내의 동작으로 얼굴을 한번 문지르고 괴괴한 침묵을 깨뜨리며 쇄발에게 말했다.

《저 녀자의 말이 옳다. 그만 하자. 어서 썩 물러가!》

쇄발은 거기서 얼른 달아났다. 까뜨리느도 그의 뒤를 따라 달아났다. 군중들은 아연실색하여 그들이 길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지는 모양을 바라보고있었다. 오직 마여의 안해만이 이런 소리를 했다.

《그놈을 붙잡아두어야 하는걸 자네가 잘못했네. 그놈은 틀림없이 무슨 배반하는짓을 할거네.》

그러나 파업로동자들은 이미 걷기 시작했었다. 벌써 5시가 가까왔다. 수평선에서는 불덩이같은 지는해가 무연한 벌판을 벌겋게 물들이고있었다.

지나가던 행상인이 끄레브 꿰르쪽에서 룡기병들이 내려오고있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 바람에 파업로동자들은 가던 길을 되돌아섰다. 이윽고 《몽쑤로 가자, 리사회로 가자!…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하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5

엔보씨는 자기 서재 창문앞에 서서 자기의 처를 태운 마차가 마르쉬엔느의 오찬회로 떠나가는것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말을 타고 마차의 문옆을 속보로 달려가는 네그렐을 힐끗 바라보고는 조용히 서탁으로 돌아와앉았다. 안해와 조카녀석이 없어서 집안이 흥성거리지 않을 때면 집안은 텅 빈것 같았다. 이날도 바로 그러했다. 마차부가 부인을 데려가고 새로 온 하녀인 로즈마저 5시까지 시간을 주어 내보내고나니 이칸저칸으로 실내화를 끌며 다니는 하인 이뽈리뜨와 저녁에 주인님이 베푸는 저녁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이른새벽부터 남비들을 가지고 부산을 피우고있는 식모밖에 남질 않았다.

이리하여 엔보씨는 빈집의 고요한 정적속에서 옹근 하루를 사업에 바칠수 있었다.

아무도 접수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시경에 이뽈리뜨는 당싸에르가 소식을 가지고왔다고 알렸다. 이리하여 지배인은 비로소 전날 숲속에서 있은 집회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보고가 어찌나 상세했던지 엔보는 당싸에르의 말을 들으면서 그와 삐에롱의 처와의 치정관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였다. 그의 추행은 세상에 잘 알려져있어서 지배인은 한주일에도 두세번씩이나 도감독의 이 추행을 고소하는 닉명의 편지를 받았다. 그가 제공한 정보는 잠자리에서 전달된것 같은데가 있었다. 확실히 그 남편이 루설을 한 모양이였다. 엔보는 지어 이 기회를 리용하여 도감독에게 자기는 모든것을 다 알며 그러니 추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할것을 권고하는것으로 그쳤다. 당싸에르는 실무적인 보고를 하는 도중에 지적을 받자 당황하여 그것을 부인하면서 변명비슷이 무어라고 중얼거렸으나 갑자기 새빨개진 커다란 코는 그의 죄를 폭로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일이 이쯤으로 끝난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더 우기려고 하지 않았다. 평소에 지배인은 고운 처녀들을 갱에서 희롱하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무자비한 결백한 사람이였다. 파업에 관한 담화는 계속되였다. 사실 숲속에서 있은 집회가 흰소리군들의 허풍에 지나지 않은것인만큼 아무런 심각한 위험도 없으며 군대의 아침순찰에 겁을 먹은 마을들이 며칠동안은 온순하게 처신하리라는것을 확신할수 있었다.

엔보씨가 방안에 혼자 남게 되자 지사에게 전보를 급시 보내려던 때였다. 그러나 이것이 무근거한 불안을 주게 될지 모른다는 위구가 그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기가 모든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것이 스스로도 용인할수 없는 일이였다. 사실 그자신은 파업이 고작해서 두주일밖에는 가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했고 지어는 서면으로 리사회에 보고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파업은 정말 놀라웁게도 벌써 근 두달이나 계속되고있는것이다. 그는 이것으로 하여 실망했고 날마다 자기의 영향이 약화되고있다는것과 자기가 망신을 당한 이상 다시금 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그 무슨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리라는것을 느끼고있었다.

싸움이 벌어질수 있는 만약의 경우를 고려하여 마침 그는 그들에게

지시를 줄것을 이미 요구했었다.

그 회답이 늦어져 엔보씨는 그것이 낮우편으로 오기를 기다리였다. 그렇지만 그는 만일 주인들의 의사가 그렇다면 탄갱을 군대가 장악하도록 전보를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피와 희생이 있는 싸움으로 되리라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그는 일상적으로는 정력적인 인간이였지만 이러한 책임은 두려웠다.

11시까지 엔보는 평온하게 일을 보았다. 고요한 집안에는 이뽈리뜨가 2층에서 양초막대기로 어느 방을 닦는 소리밖에는 다른 바스락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이윽고 두장의 전보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한장은 쟝 바르갱이 몽쑤에서 온 군중들에게 탈취되였다는 소식이였고 다른 한장은 쇠바줄들이 끊어지고 보이라는 불이 꺼졌으며 모든것이 파괴되였다는것이였다. 그는 통 무슨 판국인지 알수가 없었다. 어찌하여 파업로동자들은 회사의 탄갱을 습격할 대신에 데넬랭에게로 갔단 말인가? 게다가 그들이 방담을 파괴할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구상하고있는 그 탄갱을 차지할데 대한 계획을 무르익혀주는것이다. 12시에 그는 그 커다란 식당안에서 말없이 음식을 차려주는 하인의 실내화 끄는 소리도 듣지 못한채 혼자 점심을 먹었다. 고독한 환경에서 그의 근심은 더 심해졌으며 그로 하여 가슴은 마구 조여드는것 같았다. 그런데 별안간 감독이 뛰여들어와 파업로동자들이 미루로 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가 커피를 다 마시기가 바쁘게 이번에는 마들렌느와 끄레브 꿰르가 위험에 처했다는 전보가 도착했다. 이렇게 되자 그는 극도로 당황망조했다. 우편물은 2시에 도착할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즉시에 부대들을 요구할것인가? 리사회의 지시가 있기 전에 움직이지 않도록 기다리는게 좋지 않을가? 엔보는 서재로 돌아와 전날 자기가 네그렐에게 작성하도록 위임했던 지사에게 보내는 문건을 훑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 문건을 손에 넣지 못한 그는 젊은이가 자기 방에다 그것을 두고간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종종 밤에 자기 방에서 일하군 했다. 어쩌면 좋을지 결심을 내릴수 없는 엔보는 이 문건생각에만 골똘하여 그것을 찾아볼 생각으로 황망히 웃층 조카의 방으로 올라갔다.

조카의 방에 들어간 엔보씨는 흠칠 놀랐다. 방은 아직도 거두지 않은채로 있었다. 이뽈리뜨가 틀림없이 잊어버렸거나 게으른탓이였다.

환기를 하지 않은 침실에는 지난밤의 눅눅한 온기가 그대로 차있었다. 그 공기는 열어놓은 열풍로로 해서 한층 더 답답했다. 그런데 어떤 자극성이 강한 향수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세면기에 가득차있는 화장수냄새로 믿었다. 방안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옷들이 되는대로 널려있고 젖은 수건들이 의자등받이에 걸려있었으며 침대도 거두지 않아 하불이 주단우로 흘러내렸다. 이밖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눈으로 스치고 곧장 종이가 쌓여있는 책상쪽으로 가서 문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두번이나 종이를 하나하나 뒤져보았지만 종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도대체 이 경솔한 뽈은 그 문건을 어데다 건사했단 말인가?

그리하여 방 한가운데로 되돌아와 가구마다 눈길을 돌리던 그는 문득 이불들이 걷힌 침대우에서 마치 불꽃처럼 반짝이는 하나의 점을 발견하였다. 그는 무심코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다. 구겨진 홑이불의 주름사이에 금빛의 조그만 향수병이 떨어져있었다. 그는 이것이 안해가 항상 몸에 지니고있는 에텔이 든 향수병임을 인차 알아차렸다. 그러나 어떻게 되여 이 물건이 뽈의 침대에 와있는지 모를 일이였다. 별안간 그는 얼굴이 무섭게 해쓱해졌다. 그의 안해가 여기에 와서 자고간것이다.

《미안합니다, 주인님.》 문밖에서 이뽈리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님께서 올라오시는것을 보았기에…》

하인은 들어오며 방안이 어지러운것을 보고 어쩔줄을 몰라했다.

《원 이런! 이걸 어찌하노! 그만 이 방은 제가 미처… 로즈가 나가면서 이것들을 다 청소하라고 했는데!》

엔보는 향수병을 손에 감추고 부스러지라는듯이 꽉 쥐였다.

《그래, 무슨 일인가?》

《또 사람이 왔습니다, 주인님… 끄레브 꿰르에서 편지를 가지고왔습니다.》

《알았네. 시끄럽게 굴지 말구 기다리라게.》

여기서 그의 안해가 자고간것이다. 그는 문을 잠그고나서 향수병을 쥔 손을 펴보았다. 손바닥에는 불그레하게 향수병자리가 나있었다. 대번에 그는 모든것을 보았고 모든것을 깨달았다. 이런 추잡한 일이 벌써 몇달째나 여기 그의 집안에서 벌어지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자기가

오래전부터 문을 스치는 소리와 밤에 고요한 집안을 맨발로 걸어다니는 소리에 의혹을 품었던 일이 기억에 되살아났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안해가 이 방으로 자러 올라오는 소리였다.

침대앞에 있는 의자에 펄썩 주저앉은 그는 침대를 바라보며 한참동안 맥이 탁 풀려있었다. 그는 방문을 열려고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는 하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주인님, 아이구 문이 잠겼구만. …》

《또 무슨 일이야?》

《저기 일이 급한것 같습니다. 로동자들이 모조리 짓부시는 판입니다. 밑에 사람이 둘씩이나 와서 주인님을 기다리고있습니다. … 또 전보가 왔지요.》

《시끄럽게 굴지 말어! 이제 나간다!》

엔보는 이뽈리뜨가 아침에 이 방안을 청소했더라면 그자신이 이 향수병을 발견할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듯했다.

하기야 하인이 모를수 없으며 그는 스무번도나마 따뜻한 간통의 침대, 베개에 남아있는 부인의 머리카락, 내의의 더러운 자욱을 발견했을것이다. 고집스레 그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심술사나운것이다.

아마도 그는 주인들의 방탕한 생활에 호기심이 나서 문에 귀를 대고있을것이다.

엔보씨는 꼼짝하지도 않고 앉아서 침대만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오랜 기간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떠올랐다. 이 녀자와의 결혼, 인차 생긴 몸과 마음의 불일치, 그가 짐작 못한 안해의 정부들, 앓는 녀자의 추악한 취미를 허용하듯이 10년간 허용해준 남자가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그리고 몽쑤로 이사온 일, 안해가 개준하리라고 허망한 기대를 품고있던 일, 거의 꿈속에서처럼 보낸 지루하고 괴로운 생활의 몇개월, 미구에 나이가 들면 마침내 안해가 자기에게 돌아오리라고 희망을 품고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으로 스치고 지나갔다. 그 다음에 조카 뽈이 나타났다. 안해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영원히 재속에 묻힌 자기의 죽은 심장에 대해서 그에게 말하군 했다. 그런데 어리석은 남편인 그는 아무것도 예견하지 못했고 뭇사람들이 차지했지만 유독 자기만이 그렇게 하지 못한 제것인 이 녀자를 열렬히 사

랑하였던것이다.

이 순간에 멀리서 초인종소리가 울리였다.

엔보는 소스라쳤다. 그것은 자기 지시대로 우편배달부가 왔음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그는 일어나 저도 모르게 목이 터질듯 한 욕설을 퍼부었다.

《내겐 그따위것들이 상관없다, 상관없어. 그 편지고 전보고 상관없어.》

엔보는 미친듯 한 분노에 휩싸여 이 더러운 모든것을 시궁창에 처넣고 짓밟아버리고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 녀인은 다름아닌 화냥년이였다. 그는 녀인의 뺨을 후려갈기는것 같은 가장 상스러운 말을 골라서 퍼부었다. 문득 그는 그 녀인이 태연자약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뽈과 쎄씰의 결혼을 추진시키고있다는것을 상기했다. 그러자 이 생각은 그의 격분을 폭발시키고말았다. 그러니 음욕속에 정열도 질투심도 아무것도 없는것이다. 이 시각 그 녀인은 퇴폐적인 인형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녀인에게는 습관이 되여있는 식후 다과처럼 놀음거리로서 남자가 필요한것이다.

엔보는 모든 죄를 녀인에게만 전가시키고 조카를 거의나 변호하고 있었다. 그 녀인은 맛을 들이자 마치 길가에서 훔친 설익은 과실을 먹듯이 그를 깨물었던것이다. 만일 자기들의 가정에서 먹을것과 잠자리와 녀자를 구하는 실무적이고 친절한 조카들이 없었다면 그 녀인은 또 누구를 사로잡고 어디까지 굴러떨어지겠는가?

조심스럽게 문을 긁는 소리가 났다. 이뽈리뜨가 자물쇠구멍으로 소곤거리는것이였다.

《주인님…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리구 당싸에르씨도 오시구요. 그이의 말이 사람들을 저기서 죽인답니다. …》

《내려간다, 빌어먹을것!》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하여야 한단 말인가? 그들이 마르쉬엔느에서 돌아오면 더는 자기 집에서 기르고싶지 않은 악취나는 집짐승의 무리처럼 그들을 내쫓아야 한다. 멱살을 움켜쥐고 여기를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야 할것이다. 그들의 숨결과 입김때문에 이처럼 방안이 눅눅하고 미적지근한것이다.

숨이 막힐듯 한 이 코를 찌르는 냄새는 그의 안해의 몸에서 풍기는

사향냄새였다. 그 녀자는 향수를 몸에 뿌리지 않고는 못 견디는 악취미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또한 흩어져있는 병들과 아직까지 가득차있는 물그릇들, 되는대로 줴버린 속옷들과 가구들, 방탕으로 얼룩진 온 방안에서 더운 기운과 죄악에 찬 간음과 생동한 간통의 냄새를 다시금 느꼈다. 그는 헛되게 격분을 안고 침대로 달려가 주먹으로 두드리고 짓뭉개놓았으며 그들이 누웠던 자리를 뒤집었다. 그는 이불을 벗기고는 밤의 환락에 지친듯이 부드럽고 하르르한 홑이불을 짓구겼다.

문득 또 이뽈리뜨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창피스러운 생각이 들어 멈춰섰다. 그는 씨근거리면서 이마를 문지르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한순간 지체하였다. 그는 거울앞에 서서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얼마나 모습이 변했는지 자기 얼굴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무진 애를 써서 점차 진정된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래층에서는 당싸에르외에도 다섯사람이나 기다리고있었다. 모두들 파업자들이 탄갱들을 지나간 중대한 소식들을 가지고 왔다. 도감독이 미루갱에서 있은 일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거기서는 깡디에로인이 처신을 잘하여 모든것이 구출되였다. 엔보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의 생각은 웃층의 그 방에 가있었다. 마침내 그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나서 전부 돌려보냈다. 책상앞에 홀로 앉은 그는 진정되는듯 두손에 머리를 파묻고 눈을 감았다. 책상우에는 우편물이 놓여있었다. 그는 기다리던 리사회의 회답편지를 찾아들었다. 처음에는 글줄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하지만 그는 이 나리들이 하찮은 쟁의로 여긴다는것을 알았다. 물론 사태를 격화시키라고는 권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배인에게 혼란은 단호한 탄압을 야기시켜 파업의 중지를 앞당기게 된다는 암시는 주고있었다. 이때로부터 엔보는 더는 주저하지 않고 릴르의 지사와 두에주둔 군부대, 마르쉬엔느의 헌병대 등 사방으로 전보를 쳤다. 이것으로 위안이 된 그는 지어 관절성신경통으로 앓는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집안에 들어박혔다. 온 오후동안 그는 일체 면회를 거절하고 자기 서재에 들어앉아서 비발처럼 날아드는 편지와 전보를 읽는것으로 그쳤다. 이리하여 그는 마들렌느로부터 끄레브 꿰르로, 끄레브 꿰르로부터 빅뜨와르로, 거기로부터 다시 가스똥 마리

로 옮겨가는 파업로동자들의 움직임을 멀리에서 따를수 있었다. 다른 한편 그에게는 헌병과 룡기병들이 당황해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들은 줄곧 길을 헛갈리여 매번 습격을 받은 탄갱들의 반대방향으로 향하고있었다. 목을 조이고 모든것을 파괴할수 있었다. 그는 다시 두손에 머리를 파묻고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우고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빈집안에는 괴괴한 침묵이 흘렀다. 다만 이따금 저녁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불우에 올려놓은 곤로의 남비소리가 들려올뿐이였다. 방안은 이미 황혼으로 어둑시근했다. 5시였다. 여전히 문서우에 팔꿈치를 고이고 얼떨떨해서 맥없이 앉아있던 그는 별안간 들려오는 요란한 소음에 놀라 후닥닥 뛰쳐일어났다. 그는 그 두 비렬한것들이 돌아온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소란은 점점 더 커졌으며 그가 창가로 다가간 그 순간에는 고함소리가 울렸다.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이것은 파업로동자들이 몽쑤로 달려온것이였다. 그런데 헌병들은 이들이 보료를 들이치는줄 알고 그 탄갱을 차지하려고 반대로 달려간것이였다.

엔보부인과 아가씨들은 대도로와 방담도로가 교차되는 네거리로부터 좀 아래 맨 첫 집에서 뒤키로메터 되나마나한 곳에서 군중들의 행렬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들은 그날 하루를 마르쉬엔느에서 흥겹게 보냈다. 포르쥬의 지배인댁의 친절한 식사, 그다음 오후시간에 그 공장 직장들을 구경하고 이웃 유리공장을 구경한것도 흥미있었다. 드디여 겨울의 맑은 저녁녘에 돌아오는 길이였는데 문득 쎄씰이 길가의 자그마한 농가에서 우유 한잔씩 마시고 가자는 기발한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모두들 마차에서 내렸다. 네그렐은 가볍게 말에서 뛰여내렸다. 농가의 녀주인은 이와 같은 귀빈들의 방문에 황송해서 부산을 피우며 식탁보를 먼저 펴려고 했다. 그러나 쟌느와 류씨는 젖짜는것을 보고싶어해서 모두 손에 잔을 든채 소우리로 갔다. 깃속에 들이박혀 실컷 웃어대는것이 야유회의 한 기분이였다. 상냥한 어머니의 기색으로 엔보부인은 우유잔을 입술에 가져다대는 때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불안해졌다.

《저게 도대체 뭘가?》

소우리는 길가에 있었는데 그 문은 수레가 드나들만큼 넓었다. 소

우리는 동시에 건초칸으로도 쓰고있었다. 처녀들은 벌써 왼쪽으로부터 밀려오는 무질서한 시커먼 군중들의 물결이 아우성을 치면서 방담의 도로로 진출한것을 놀라서 목을 늘이고 바라보았다.

《제기랄!》 하고 역시 네그렐도 나오면서 중얼거렸다. 《우리 소동군들이 끝내 성들이 난 모양인가?》

《저건 아마 탄부들일거예요.》 하고 농가의 녀주인이 말했다. 《그들은 벌써 두번이나 여기를 지나갔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저 사람들이 이 지방의 주인이 되였어요.》

그는 한마디한마디 조심스럽게 말을 하며 그 말이 어떠한 인상을 주는가 눈치를 살폈다. 그는 그들모두의 얼굴에서 이 탄부들과 만나 생기는 공포와 불안의 빛이 어린것을 보자 황급히 덧붙여말했다.

《저런 거지같은 가난뱅이들!》

네그렐은 마차로 몽쑤로 돌아가기에는 때가 너무 늦은것을 깨닫고 마차부에게 마차를 농가안마당에 급히 들여다가 세우고 말은 창고뒤에 숨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나서 소년이 고삐를 쥐고있는 자기 말을 손수 그 창고안에 끌어다가 매였다. 그가 돌아와보니 극도로 당황해하는 숙모와 처녀들은 자기 집에 숨으라고 하는 녀주인을 따라갈 차비였다. 그러나 네그렐은 그들이 소우리안에 숨는것이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그들이 건초칸에 숨어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것이였다. 그런데 문이 꽉 닫기지 않아서 틈새들과 벌레먹은 널판지사이로 길을 내다볼수 있었다.

《용기들을 내시오!》 하고 네그렐은 말했다. 《우리들은 헐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진 맙시다.》

이 롱담은 공포심을 더해줄뿐이였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으나 소음은 점점 더 커지고있었다. 빈 길우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기전의 돌풍과 같은 광풍이 휘몰아치고있는듯싶었다.

《아니, 싫어요. 난 그자들을 보고싶지 않아요.》 하고 쎄씰은 건초더미속에 숨으러 가면서 말했다.

자기의 즐거움을 망친 이 사람들로 하여 성이 난 엔보부인은 매우 창백한 얼굴로 뒤에 서서 혐오스러운 눈으로 힐끔힐끔 가로보고있었다. 류씨와 쟌느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이 구경거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문틈에 눈을 가져다대였다.

우뢰소리는 다가오고 대지는 진감하는듯 했다. 쟝렝은 나팔을 불어대며 앞장서 달렸다.

《향수를 뿌리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의 땀내가 나는군요.》 하고 네그렐이 속삭였다.

그는 공화주의자의 신념을 가지고있었지만 부인들과 함께 미천한 사람들을 야유하기를 즐겨했다. 그러나 그의 재치있는 말은 몸짓과 고함의 동란속에 잦아들고말았다. 약 천명의 아낙네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뛰여다니느라 머리칼들이 풀어지고 헝클어져있었다. 누데기를 걸친 탓에 맨살, 극빈자를 낳느라고 지친 아낙네들의 알몸뚱이들이 드러나보였다. 어떤 녀인들은 갓난애들을 안고있었다. 마치 조기와 복수의 기발인듯이 그들은 애들을 쳐들고 흔들었다. 보다 젊은 다른 녀인들은 당당히 가슴들을 내밀고 몽둥이들을 휘둘렀고 보기에도 끔찍한 늙은이들은 어떻게나 큰소리로 웨쳐대는지 그들의 여윈 목에서 금시 피줄이 터져나올것만 같았다. 그들의 뒤로 보조공, 채탄공, 수리공 등 약 2천명의 격노한 남자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따르고있었다. 이 밀집된 군중들은 얼마나 빽빽이 뭉쳤는지 색이 난 바지도 꿰진 모뜨개옷도 똑같은 흙빛이 들어 구별할수가 없었다. 눈들이 불타고 오직 《마르세이유》를 부르느라고 벌린 검은 입들이 보일뿐이였다. 그 노래의 구절들은 굳은 땅을 구르는 나막신소리와 아울러 떠들썩하는 고함소리에 뒤섞여버렸다. 머리우에는 숲처럼 총총히 솟은 쇠몽둥이들사이로 곧추 든 도끼 하나가 번뜩이고있었다. 이 무리의 기발과도 같은 이 하나밖에 없는 도끼는 날카로운 단두대의 칼날처럼 밝은 하늘에 비끼였다.

《얼마나 무서운 얼굴들인가!》 하고 엔보부인이 중얼거렸다.

《대관절 어떻게 된 도깨비들이야. 한놈도 알아보지 못하겠군그래! 이 악당들은 어디서 나타났을가?》 네그렐이 이사이로 말했다.

사실 그들은 알아볼수가 없었다. 분노와 굶주림과 2개월에 걸치는 고통과 미친듯이 탄갱들을 돌아다닌것으로 하여 몽쑤탄부들의 평화스런 모습은 맹수턱처럼 길죽하게 되였다. 해는 이미 떨어져 이 순간 지는해의 마지막해빛이 검붉은 피빛으로 벌판을 물들이고있었다. 그리하여 도로는 온통 피로 물든것 같았고 그우를 달리는 남녀들은 피칠갑을 한 도살장의 백정들같이 보였다.

《오! 멋진데!》 하고 류씨와 쟌느는 귀속말로 소곤거리였다. 그들은 예술가적 취미로 하여 이 무시무시한 광경의 아름다움에 격동되였다.
그러나 그들도 겁이 나서 구유를 의지하고 서있는 엔보부인곁으로 물러섰다. 엔보부인은 저자들중에서 누구든 찌그러진 문틈으로 이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다 몰살하리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치였다. 네그렐도 역시 낯이 창백해지는것을 느꼈다. 평소에 매우 대담한 그도 여기서는 의지보다 더 강한 미지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쎄씰은 건초속에서 까딱하지도 않았다. 그밖의 사람들은 눈길을 돌리고싶었지만 어째선지 보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것은 혁명의 붉은 환영이였다. 혁명은 현세기가 저물어가는 이 피어린 저녁에 피치 못한 숙명으로서 그들모두를 휩쓸어버릴것이였다. 그렇다! 때가 오면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로와진 인민이 이처럼 대로를 달리며 부르죠아지들의 피를 흘리게 할것이고 그들의 목을 자르고 궤짝들을 털어내서 금을 쥐여뿌릴것이다. 녀인들은 웨쳐댈것이며 사나이들은 승냥이같은 턱을 물겠다고 벌릴것이다. 바로 이러한 누데기들과 이러한 나막신소리와 이처럼 무서운 혼잡을 이룬 더러운 몸과 악취가 나는 숨결들이 억제할수 없는 포악한 힘으로 세계를 쓸어버릴것이다. 가난뱅이들이 하루밤사이에 녀인들을 바짝 말리우고 부자들의 지하실을 털어 주연을 치른 후 화재가 일고 도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것이고 사람들은 다시 숲속의 미개인들의 생활에로 되돌아갈것이다. 한푼의 재부도, 이미 얻었던 지위의 자격도 아무것도 아마도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는 그날까지 남아있지 않을것이다. 바로 이러한것이 자연의 힘처럼 길우로 지나갔으며 그로부터 일어나는 무서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후려쳤다.
《마르세이유》 노래를 커다란 웨침소리가 제압하였다.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류씨와 쟌느는 기절할듯 한 엔보부인을 꼭 그러안았다. 네그렐은 마치도 자기의 몸으로 그들을 보호나 하려는듯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런즉 당장 오늘 저녁에 낡은 사회가 무너지는것이나 아닐가? 그들이 본 광경은 그들을 완전히 얼떨떨하게 만들었다. 군중들은 이미 거의다 지나가고 뒤떨어진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무께뜨가 불쑥 나타났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면서 정원문들과 집창문가에서 부르죠

아지들을 엿보았다. 그는 그러다가 그들을 발견하면 얼굴에 침을 뱉을수 없어 자기로서는 최대의 멸시를 표현하는짓을 그들에게 보여주군 하였다.

모든것이 사라졌다. 이 흐름은 얼럭덜럭하게 뼁끼칠들을 한 낮다란 집들사이의 우불구불한 길을 따라 몽쑤로 밀려갔다. 마차를 마당에서 끌어냈다. 그러나 마차부는 만일 파업로동자들이 길을 차지하고있으면 감히 부인과 아가씨들을 무사히 모시고갈 엄두를 내지 못하겠다는것이였다. 가장 공교로운것은 다른 길이 없는것이였다.

《그래도 가야 해요. 저녁식사가 우리를 기다리구있으니까요.》 하고 엔보부인은 공포에 질려 멍해서 말했다.

《그 못된 로동자들은 하구 많은 날에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는 날을 하필 고를건 뭐람. 그런즉 이것을 도와야지!》

류씨와 쟌느는 건초속에서 쎄씰을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그는 이 포악한 사람들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은줄 알고 손을 뿌리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보고싶지 않노라고 되뇌였다. 드디여 모두가 마차에 올라탔다. 네그렐은 말에 오르자 레끼아르 골목길로 빠지리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천천히 가게.》 하고 그는 마차부에게 일렀다. 《거긴 길이 나쁘니까 만일 군중들이 방해하거들랑 낡은 탄갱뒤에다 세우게나. 그럼 우리는 걸어서 정원문을 통해 들어갈테니. 마차하고 말들은 자네가 어느 려인숙 창고 아무데나 맡겨둘수 있겠지.》

그들은 길을 떠났다. 군중들은 저 멀리 몽쑤방향으로 밀려가고있었다. 주민들은 헌병과 룡기병들을 두번이나 본 순간부터 공포에 질려 불안해하였다. 무서운 소문들이 떠돌았고 부르죠아지의 배를 가르겠다고 위협을 한 손으로 쓴 광고문들에 대한 말들도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읽어본 사람은 없었지만 그 광고문의 구절들을 문자그대로 인용하였다. 특히 공증인의 공포는 극도에 달하였다. 그것은 그가 문가에서 받은 닉명으로 된 편지에 그의 집 지하실에다 화약통을 하나 설치해놓았는데 만일 그가 인민을 위한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그를 날려보내겠다고 경고하였기때문이다.

바로 이 편지때문에 그레그와르부처도 저녁식사에 늦었다. 그들은 이 글을 두고 의논한 결과 이것이 어느 장난꾸러기의 소행이라고 짐

작했다. 이때 군중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온 집안의 공포는 사라졌다. 미소를 띠고 그들은 가만히 창가림자락을 들치고 내다보면서 어떤 위험이 닥치고있다고 믿지 않았으며 모든것이 무사히 끝나리라고 확신하고있었다. 시계가 5시를 알리였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길이 빌때까지 기다려도 늦을 념려는 없다. 쎄씰이 틀림없이 돌아와 그들을 기다리고있는 맞은편의 엔보댁의 저녁식사에 가면 될것이다. 그러나 몽쑤에서는 누구도 그들처럼 안심하고있는 사람은 없는것 같았다. 사람들은 제정신을 잃고 뛰여다녔으며 창문과 문을 거칠게 닫아걸었다. 그레그와르부처는 길 건너편에서 저의 상점문에 철창을 든든히 대는 메그라를 보았다. 그는 낯이 어찌나 창백하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하고있었는지 도리여 그의 연약한 안해가 손수 나사못을 조여야만 했다. 지배인네 집앞에 군중들이 멈추어섰다.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엔보는 창문앞에 서있었다. 이때 이뽈리뜨가 돌이 날아들어 유리를 깨뜨릴가봐 덧창문을 닫으려고 들어왔다. 1층의 다른 방들은 이처럼 닫아놓았다. 그는 2층에 올라갔다. 창문자물쇠들이 삐걱거리고 덧창들이 닫기는 소리가 들렸다. 안타깝게도 지하실부엌의 근심스러운 창문은 이렇게 닫을수가 없었다. 그것은 남비가 끓고 고기를 굽는 불에 벌겋게 보였다.

엔보는 아무 생각없이 바깥을 내다보려고 3층의 뽈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 방은 왼쪽으로 멀리 회사의 작업장들로 뻗은 길이 한눈에 보이는 좋은 자리였다. 그는 덧창문안에 비켜서서 군중들을 굽어보았다. 그는 말끔하게 정리된 세면대에 깨끗하게 빤 홑이불을 쭉 펴놓은 싸늘한 침대며 방안의 모양을 보니 다시금 흥분이 되살아났다. 그는 고독한 깊은 정적속에서 부아통이 터져 노발대발했지만 이제는 극도로 지쳤다. 아침에는 마치 오물통같던 이 방이 이미 싸늘하게 식고 정리되여 평상시의 단정한 모양으로 되돌아간것처럼 그는 평소의 태도를 회복하게 되였다. 무엇때문에 추문을 일으킨단 말인가? 그에게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단지 자기 안해에게 정부가 한명 더 늘었을뿐이다. 안해가 자기 집에서 정부를 골랐다는것은 사실자체를 별로 더 엄중하게 하는것도 아니였다. 어쩌면 그것은 더 나은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안해는 체면을 유지하기때문이다. 그는 정신

없이 자기가 질투하던 일을 생각하니 스스로 자신이 가련해졌다. 이 침대에 주먹질을 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였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허용했는데 이 녀석이라고 내가 허용 못할것이 있는가. 좀 더 경멸할 일일따름이다. 그는 입이 몹시 쓰거웠다. 모든것이 부질없는것으로 여겨졌으며 일생의 영원한 고통, 자기가 그 녀자를 그 더러운 진창속에 버려두고도 그를 사랑하며 그의 주인이 되려고 한 자신에 대한 수치감을 맛보았다.

창밑에서 웨치는 소리가 갑절이나 더 세차게 터졌다.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바보녀석들!》 하고 엔보는 이를 사려물고 중얼거렸다.

그는 자기를 보고 엄청난 봉급을 받는 배뚱뚱이건달, 로동자들은 굶어죽고있는데 고량진미만 처먹는 더러운 돼지라고 욕질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낙네들은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꿩고기를 굽는것을 보자 저주의 폭풍이 터졌다. 군침이 도는 쏘스냄새는 주린 창자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더러운 부르죠아놈들! 놈들의 배때기에 밸이 터지도록 샴팡주와 버섯료리를 채워넣어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바보녀석들!》 하고 엔보는 되뇌였다. 《나는 행복한줄 아느냐?》

그는 아무것도 리해하지 못하는 이 인간들에 대한 분노가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그는 그들처럼 살가죽이 줄고 안온하고 유감없는 부부생활을 위해서라면 거액의 자기 봉급을 기꺼이 선사할것이였다. 어찌하여 자기는 그들을 자기 식탁에 청하여 꿩고기로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은 음탕한짓을 하려 담장밖으로 나가 처녀들을 얼싸안고 주무르며 그보다 앞서 처녀들을 어루만지던 녀석들을 조롱할수 없단 말인가? 그는 자기의 모든것—자기의 교양, 자기의 안락, 호화로운 생활과 지배인의 권력을 다 내줄지언정 단 하루라도 자기에게 복종하는 천한 사람들의 마지막사람이 되여 자기의 육체에 대한 자유를 누리며 안해의 뺨을 치고 이웃집 녀인네들을 롱락하는 아주 무례하고 비렬한 존재로라도 되여보고싶었다. 그리고 역시 죽을 지경으로 굶주리고 허기진 배를 붙안고 현기증이 나도록 주린 창자의 발작을 체험해보고싶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끝없는 고통을 가셔줄것이다. 그렇

다! 짐승처럼 살며 아무것도 가진것없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녀운 반공과 함께 밀밭을 싸다니며 거기서 만족을 맛보고싶었다.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결이 난 엔보는 이 떠들썩한 속에서 미친듯이 부르짖었다.

《빵을 달라구, 그래 빵이면 다되는줄 아느냐, 이 얼뜨기들아?》

빵은 항상 먹는 그였지만 그라고 과연 고통이 적단 말인가? 그의 불행한 부부생활, 고통스러운 일생이 림종의 딸꾹질처럼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랐다. 빵을 먹는다고 모든것이 원만한것은 아니다. 그럴진대 어떤 바보가 사람들의 행복이란 부를 나누어가지는데 있다고 생각하는가?

공상을 즐기는 혁명가들은 사회를 파괴하고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지만 그들도 매 개인에게 빵이나 한쪼각씩 나누어주어서는 인류에게 아무런 기쁨도 더해주지 못할것이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할것이다. 지어 그들은 지구상에 불행을 증대시킬것이며 언제인가는 개들까지 평온한 본능적만족에서 벗어나 흥분하여 성차지 않아 절망에 울부짖을것이다. 아니다! 유일한 행복인즉 생존하지 않는것이고 일단 존재하는 이상은 나무가 되고 돌로 되고 지어는 그보다도 작은것으로서 지나가는 행인의 발밑에서도 피를 흘리지 않는 모래알이 되여야 한다.

견딜수 없는 고민으로 하여 엔보의 눈은 눈물로 부어오르고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은 황혼에 뒤덮여있었다. 집정면으로 돌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이 굶주린 인간들에 대한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어이는듯 한 가슴의 상처로 하여 신음하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리는것이였다.

《바보녀석들! 바보녀석들!》

그러나 창자의 웨침은 폭풍이 휘몰아치듯 모든것을 뒤덮어버리였다.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6

에띠엔느는 까뜨리느에게서 따귀를 맞고 제정신이 들었다. 그는 동료들의 선두에 서있었다. 그런데 그가 갈린 목소리로 그들에게 몽쑤

로 갈것을 호소하고있을 때 그의 가슴속에서 다른 목소리―리성의 목소리는 이러한 모든 일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고 묻고있었다. 그는 이러한 행동에서 전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셈인지 랭정하게 행동하며 재난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쟝 바르갱으로 갔던 그가 폭행을 거듭하고 이 하루의 마감에 지배인의 집을 포위하게 되였던것이다.

실은 그자신이 《그만두라!》고 고함을 지르기는 했으나 처음에는 단지 회사의 작업장들을 부시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그랬을뿐이였다. 그런데 이 집의 정면으로 돌들이 날아가고있는 지금 그는 보다 더 큰 불행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합법적인 희생물을 목표로 군중을 내몰아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에띠엔느가 길 한가운데 서서 어찌할바를 몰라 주위를 돌아보고있는데 술집 띠종의 문턱에 서있던 웬 사람이 그를 부르는것이였다. 술집녀주인은 열린 출입문 하나만을 남겨놓고 황급히 덧문들을 닫았다.

《날세, 나야… 여보게…》

그것은 라스너르였다. 아침에는 나오지 않았던 뛔 쌍 까랑뜨마을 주민의 거의 전부인 30명가량의 남녀들은 파업로동자들이 다가오는것을 보자 호기심이 나서 이 술집으로 달려왔었다. 자샤리가 자기 처 필로멘느와 함께 식탁 하나를 차지하였고 그 저쪽에는 삐에롱과 그의 안해가 문을 등진채 얼굴들을 감추고서 앉아있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들 단지 숨기 위해 이 술집에 들어와있을 따름이였다. 에띠엔느는 라스너르인것을 알고 물러섰다.

《자넨 내가 있는것이 방해가 되나?》 하고 술집주인이 말했다. 《내 경고했지만 자네들이 이젠 큰 봉변을 당하게 됐네. 글쎄 자네들이 빵을 달라고 하지만 받을건 빵이 아니라 총알일걸.》

그러자 에띠엔느는 그에게로 돌아서서 대답했다.

《팔짱이나 끼구 우리가 목숨을 내대는걸 바라보고만 있는 비겁쟁이들은 정말로 내게 방해가 되네.》

《그러니까 자네는 내놓고 략탈을 하겠다는건가?》

《나는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동무들과 떨어지지 않기로 결심했네.》

에띠엔느는 필사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군중들속에 다시 들어갔

다. 그런데 길에서 세 아이가 돌팔매질을 하고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한대씩 박아대고는 자기 동무들을 향해 유리나 깨서 속시원할건 없다고 소리를 쳤다.

베베르와 리디는 쟝렝을 따라와 그에게서 돌팔매질하는 법을 배우고있었다. 그리고는 저마다 누가 더 큰 피해를 주는가고 경쟁을 하고 있었다. 리디는 솜씨가 서툴러서 혼잡속에 한 녀인의 머리를 맞혔다. 사내애들은 배를 그러안고 웃어댔다. 그들의 뒤에는 본느모르와 무끄가 긴의자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고있었다. 본느모르는 팅팅 부은 다리를 겨우 가누면서 거기까지 왔다. 그의 얼굴은 그가 말 한마디없이 잠자코 있을 때면 항상 그렇듯 흙빛이였다. 도대체 무슨 호기심이 났기에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를 일이였다.

더는 누구도 에띠엔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돌들은 계속 우박처럼 날아갔다. 그는 바로 자기자신이 선동한 이 사람들, 앞에서 쉽게 감동되지 않는 그들이 격분하여 무섭게 사납고 완강해진데 대해 놀랐다. 오랜 플랑드르인의 진하고 고요한 피가 몇달동안을 끓어오르다가 오늘 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포악성에 취한 짐승처럼 끔찍하고 야만적인 행동에 뛰여든것이다. 에띠엔느의 고향인 남방에서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폭발하지만 행동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레바끄와 싸움을 하다싶이 해서야 그가 쥔 도끼를 빼앗아냈다. 그는 두손으로 연신 돌을 주어던지는 마여네를 어떻게 제지시켰으면 좋을런지 몰랐다. 무엇보다도 에띠엔느에게 무서운것은 레바끄의 처와 무께뜨 등 아낙네들이였다. 그들은 분노에 휩싸여 필사적이였다. 그들은 이를 갈면서 닥치는대로 누구나를 손톱으로 쥐여뜯을 기세로 개들처럼 브률레가 추기는대로 짖어대고있었다. 브률레는 여윈탓에 그들속에서 드러나보였다.

별안간 모든것이 잠잠해졌다. 에띠엔느가 아무리 설복하여도 듣지 않던 군중들이 뜻하지 않은 일로 한동안 가라앉게 되였다. 알고보니 그레그와르부부가 공증인과 작별하고 맞은편 지배인네 집으로 왔던것이다. 그들은 옹근 한세기나 운명에 순종하여 자기 가족을 먹여살려온 정직한 탄부들이 순수한 롱질을 하는것으로 어찌나 믿는 기색이고 태평스러워보였던지 군중들은 하늘에서 강림한것 같은 이 늙은 부처가 어데 상할가싶어 돌팔매질을 그만두었다. 그들은 이들이 정원으로

들어가 유유히 계단을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도록 내버려두었다. 안에서는 닫아건 문을 인차 열어주지 않았다. 바로 이때에 하녀 로즈가 분노한 탄부들을 웃는 얼굴로 바라보면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몽쑤에서 나서자랐기때문에 그들모두를 잘 알고있었다. 로즈는 두주먹으로 문을 두드려 이뽈리뜨로 하여금 빠끔히 문을 열게 했다. 그레그와르부처가 미처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돌들이 우박처럼 날아들기 시작했다. 한순간 어리둥절했던 군중들은 정신을 차리고 더욱 소리높이 웨쳤다.

《부르죠아들에게 죽음을 주라! 사회공화국 만세!》

로즈는 마치도 이 모든 사건이 재미있기라도 한듯이 현관안에 들어서서도 방글거리며 웃고있었다.

《저 사람들은 악하지 않아요. 난 그들을 알아요!》 하고 그는 겁에 질린 하인에게 말했다. 그레그와르씨는 중절모를 벗어서 걸고는 자기 부인을 도와 그의 라사직외투를 벗겨주면서 말했다.

《그럼, 원래 온순한 사람들이지. 좀 고함들을 치다가는 가서 더 식욕이 나서 저녁들을 먹겠지.》

이때 엔보씨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는 모든것을 목격한 뒤라 여느때와 같이 침착하고 례절있는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오직 그의 창백해진 얼굴만이 방금전에 그가 흥분해서 흘린 눈물을 말해주고있었다. 자제력이 있는 그는 자기 의무를 수행하려고 결심한 정직한 행정관일따름이였다.

《글쎄 부인들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제서야 그레그와르부처는 근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쎄씰이 돌아오지 않았다니! 만약 이 탄부들의 장난질이 쉬 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집으로 돌아온단 말인가?

《저는 집을 호위할 대책을 강구하려 했습니다만.》 하고 엔보가 부언했다. 《글쎄 여기에는 저 혼자 있다보니 어데로 하인을 보내서 네댓명의 병사와 오장쯤 보내달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고있습니다. 그들만 있으면 당장 이 부랑배들을 쫓아버릴수 있을텐데.》

그 자리에 있던 로즈는 또 소심스럽게 중얼거리였다.

《아이 나으리, 그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래두요.》

지배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러는 동안 바깥은 더 떠들썩해지고 돌들이 날아와 쾅쾅 벽에 부딪치군 했다.

《저는 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저들을 용서해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의 불행에 열중한다고 생각하려면 그들처럼 바보가 되여야 하지요. 다만 저는 안전에 대해서만 담보를 하지요. … 도로마다 헌병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침부터 한명의 헌병도 받지 못했답니다!》

그는 하던 말을 중단하고 그레그와르부인앞을 비켜서며 계속했다.

《부인, 어서 응접실로 들어갑시다. 여기 계시지 말고.》

그런데 이때 지하실에서 올라온 식모가 잠시 그들을 지체하게 하였다. 그는 부아가 나서 자기는 저녁식사에 대하여 도저히 책임을 질수가 없노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 리유는 마르쉬엔느의 과자장사가 4시까지 가져오라고 주문한 기름에 구은 만두를 지금까지도 가져오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분명히 과자장사는 이 악당들이 무서워서 길을 잘못들었다. 지어는 도중에서 략탈을 당했을수도 있었다. 그는 어느 수풀뒤에서 만두를 빼앗는것과 빵을 달라던 3천명의 불쌍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배를 채우는것을 직접 목격한 일도 있었다는것이였다. 이렇든저렇든 그는 주인에게 예고하기를 혁명때문에 저녁식사를 망치게 되면 차라리 그것을 불속에 처넣는것이 나을것이라고 했다.

《조금 더 기다려보우.》 하고 엔보씨가 말했다. 《아직 희망은 있소. 과자장사가 나타날지 알겠소.》

응접실문을 열고 그레그와르부인에게로 돌아서던 그는 놀랍게도 현관의 의자에 한 사나이가 앉아있는것을 보았다. 어둠이 짙어가는 속에서 그때까지 그를 가려보지 못했던것이다.

《아니, 이게 메그라가 아니요? 어떻게 된 일이요?》

메그라는 일어났다. 공포에 이그러진 그의 유들유들하게 생긴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다. 이 몸집 좋고 평온한 사람은 어깨가 축 처져서 악당들이 자기의 상점을 습격하는 경우에 방조와 보호를 청하려고 지배인댁에 들어왔노라고 설명했다.

《보다싶이 나자신도 위험에 처해있지 않소. 게다가 우리 집엔 아무도 없구려.》 하고 엔보씨가 대답했다. 《오히려 집에서 당신의 상품들을 지키고있는편이 더 나을걸 그랬소.》

《그러찮아도 저는 쇠살창을 대고 녀편네를 집에 남겨두고 왔지요.》

지배인은 참을성을 잃고 경멸의 빛을 숨기지 않았다. 매를 맞아 여위고 허약한 그 녀자가 참 든든한 파수군이겠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방조도 줄수가 없소. 자체로 지키도록 노력하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권고하는데 그들이 계속 빵을 내라고 하는것만큼 인차 집으로 돌아가시오. 들리지 않소?》

아닌게아니라 다시 소음이 커지기 시작했다. 메그라는 그 고함속에서 자기의 이름도 들리는것 같이 생각되였다. 집으로는 아무리해도 돌아갈것 같지 않았다. 자기를 사지를 찢어죽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그는 파산당하리라는 생각에 정신이 미쳐날것 같았다. 그는 유리문에 얼굴을 대고 땀을 흘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재난을 기다리고있었다. 한편 그레그와르부처는 마침내 응접실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엔보는 짐짓 태연한 거조로 친절한 주인의 역을 놀고있었다. 하지만 그가 손님들에게 앉기를 권하는것은 부질없는 노릇이였다. 문들을 꽉꽉 닫아걸고 밖은 아직 낮인데도 등불을 둘씩이나 켜놓은 방안은 그들의 공포심을 자아냈던것이다. 특히 거리쪽에서 고함소리가 들려올 때면 더구나 그러했다. 휘장을 쳐서 답답한 속에서 군중들의 노호소리가 한층 더 불안하고 무시무시하게 위협조로 들려왔다. 그러나 담화는 벌어졌으며 그것은 줄곧 리해할수 없는 이 소동에로 되돌아가군했다. 엔보는 놀랍게도 전혀 아무것도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자기의 안전감시기구가 어찌나 한심하게 일하였던지 탄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있다고 인정되는 라스너르에 대하여 특히 분개했다. 그러나 헌병들은 곧 나타날것이며 자기를 운명에 내맡겨둘수는 없는것이다.

그레그와르부처는 오직 자기들의 딸 생각만 하고있었다. 그 가엾은것이, 그렇게도 겁많은것이! 어쩌면 마차부가 위험한줄 알고 마르쉬엔느로 마차를 돌려세운것이나 아닐가? 15분간 또 기다렸다. 모두가 길가에서 나는 떠들썩한 소리와 이따금 닫긴 덧문들에 돌들이 날아와 부딪쳐 북처럼 울리는 소리에 안절부절 못하고있었다. 엔보씨가 그대로 앉아있을수가 없어 급기야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법석 고아대는자들을 혼자서 쫓아버리고 마차를 마중하겠다고 말하고있는데 마침내 이

뽈리뜨가 나타났다.

《주인님, 주인님, 부인님이 오셨습니다. 부인님을 죽이려고들 합니다.》 하고 그는 소리를 쳤다.

그들을 위협하는 군중들때문에 마차는 레끼아르골목을 지날수가 없었다. 그래서 네그렐은 지배인댁까지 100메터되는 거리를 도보로 가서 곁채근처에 있는 정원으로 나있는 작은 문을 두드릴 생각을 따랐다. 그러면 원예사가 그 소리를 들을것이며 거기에는 항상 문열어줄 사람이 누구든 있을것이였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그런데 엔보부인과 아가씨들이 막 문을 두드리는데 아낙네들이 알고 골목으로 달려들었다. 이바람에 일은 다 파탄되고말았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네그렐은 어깨로 그것을 부시느라고 공연한 애를 썼다. 아낙네들의 물결은 늘어나 그는 그속에 말려들가 겁이 나서 자기 숙모와 처녀들을 앞으로 밀며 포위군들을 뚫고 현관으로 빠져나가려고 무모한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술책은 혼란을 조성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한패는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뒤를 쫓았다. 군중은 아직 영문을 모르고 어데서 이렇게 곱게 차린 녀인들이 싸움판에 나타났는가고 놀라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였다. 이 순간 모든것이 어떻게나 뒤범벅이 되였는지 당황망조한 가운데 그야말로 무어라 설명할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류씨와 쟌느는 계단까지 다달으자 하녀가 방싯이 열어준 문으로 새들어갔다. 엔보부인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수 있었다. 그들뒤로 들어선 네그렐은 쎄씰이 맨 먼저 들어온줄로만 알고 문고리를 걸어버렸다. 그러나 처녀는 들어오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처녀는 길에서 사라져 집 반대편으로 달아나 스스로 위험을 맞받아갔던것이다.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사회공화국 만세! 부르죠아에게 죽음을 주라! 죽음을!》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쎄씰을 엔보부인으로 잘못 보았다. 베일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엔보부인의 친우인 자기 로동자들의 증오를 받는 이웃 공장주의 젊은 안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것은 아니였다. 파업로동자들로 하여금 격분케 한것은 비단옷이며 모피외투며 모자의 흰 깃털까지였다. 처녀는 몸에서 향수냄새를 풍기고 시계를 차고있었으며 그의

부드러운 살결은 석탄이라고는 만져보지도 못한 건달군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가만있어!》 하고 브률레가 부르짖었다. 《내 이제 네 궁둥이를 드러내고 레스를 보여주마!》

《이년들은 우리에게서 이것을 훔쳐.》 하고 레바끄의 안해가 말을 받았다. 《이것들은 털가죽을 걸치구 다니지만 우린 얼어죽을 지경이거던… 어서 이년을 벌거벗겨놔요. 좀 살아가는 본때를 배우게!》

무께뜨가 드디여 달려들었다.

《그래그래, 이년을 늘씬하게 때려놔야 해!》

그리하여 아낙네들은 조급한 경쟁속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자기들의 누데기옷들을 늘어뜨리고 누구나 어떻게 하든지 이 부자집 딸에게서 한점이라도 떼내려고 했다. 틀림없이 그의 엉뎅이도 다른 녀자들보다 나을것이 없을것이였다. 누거리들을 걸치고 썩는 녀인은 한둘이 아니다. 그만큼 억울하게 살았으면 됐다. 이제는 치마를 빠는데도 50쑤나 쓰며 지내는 이런 년들에게도 강제로 로동자들처럼 옷을 입혀야 할것이다.

쎄씰은 이 성난 아낙네들의 포위속에 들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그는 돌아가지 않는 혀로 스무번이나 같은 말을 되뇌일뿐이였다.

《마나님들, 제발 저를 다치지 말아줘요.》

그러나 그는 갈린 목소리로 비명을 올렸다. 차디찬 손이 그의 멱살을 거머쥐였다. 바로 본느모르할아버지가 자기앞으로 밀려온 처녀의 목을 움켜쥐였던것이다. 로인은 굶주림에 취한것 같았다. 장구한 빈궁으로 어리벙벙해졌던 그가 갑자기 어디서 북받치는지 모를 원한에 떠밀리여 영원한 순종의 처지를 벗어난것이였다.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 붕락과 가스사고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두명의 동료들의 생명을 구해낸 그였건만 이 처녀의 하얀 목을 누르고싶은 유혹은 물리칠수 없었다. 어째서 그런 유혹에 견디지 못했는지 그자신도 말할수 없었을것이다. 이날 진종일 말 한마디 없던 그가 늙은 병신의 짐승낯을 해가지고 쎄씰의 목을 조이면서 어떤 추억에 잠긴듯 하였다.

《안돼요! 안돼요!》 아낙네들은 아우성을 쳤다. 《그년의 궁둥

이를 벌거벗겨야 해요! 궁둥이를 벌거벗겨야 해요!》

집에 있던 네그렐과 엔보는 거리에서 벌어지고있는 이 광경을 보고 대담하게 문을 다시 열어제끼고 쎄씰을 구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이 정원살창으로 우 밀려들어서 나가기가 헐치 않았다. 거기서 싸움이 벌어진 동안 겁에 질린 그레그와르부처가 현관으로 나왔다.

《그를 놓아줘요, 아버지! 그는 삐올랜느에서 온 아씨야요!》 하고 마여의 안해가 쎄씰을 알아보고 할아버지에게 소리쳤다. 한 아낙네가 쎄씰의 베일을 찢어버렸던것이다.

젊은 처녀에 대한 이와 같은 복수에 아연실색한 에띠엔느는 군중들이 그를 놓아주게 하려고 했다. 피뜩 하나의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 그는 레바끄의 손에서 빼앗은 도끼를 휘두르며 웨쳤다.

《제기랄, 메그라를 치자!… 그 집엔 빵이 있다! 메그라의 가게방을 부시자!》

그리고 재빨리 첫 도끼질로 가게방문을 내리쳤다. 레바끄와 마여 그리고 몇명의 동무들이 그를 따랐다. 그러나 아낙네들은 집요하였다. 쎄씰은 본느모르할아버지손에서 브률레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리디와 베베르는 쟝랭이 이끄는대로 네발걸음으로 궁둥이를 보려고 치마들사이로 기여들어갔다. 쎄씰은 사방에서 쥐여당기는 바람에 옷이 갈가리 찢어졌다. 이때 말을 탄 한 사나이가 나타나 군중들속으로 말을 들이몰면서 미처 비키지 못한 사람들을 채찍으로 후려갈겼다.

《야 이 악당들아, 네놈들이 우리 딸들을 때릴 지경이 되였구나!》

그것은 약속한 저녁식사에 오는 데넬랭이였다. 그는 얼른 말에서 뛰여내려 쎄씰의 허리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말굴레를 잡았다. 그는 비상한 힘으로 재치있게 그 말을 산 쐐기처럼 앞세우고 군중들을 뚫고 나갔다. 군중들은 말발굽에 물러섰다. 쇠살창앞에서는 싸움이 계속되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팔다리들을 짓뭉개며 나갔다.

이 뜻하지 않았던 도움이 욕설과 뭇매질속에 위험하게 된 네그렐과 엔보씨를 구원해주었다. 드디여 네그렐이 의식을 잃은 쎄씰을 두팔로 안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현관에서 그 장대한 체구로 지배인을 가리우고있던 데넬랭이 돌에 맞아 하마트면 어깨죽지가 떨어져나갈번했다.

《그래.》 하고 그는 부르짖었다. 《네놈들이 내 기계를 부시더니

이제는 내 뼈다귀까지 부스러뜨리는구나!》

그는 황급히 집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짝에 돌들이 우박처럼 날아왔다.

《저런 미친놈들이라구야!》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하마트면 저놈들 돌에 내 대가리가 호박처럼 박살이 날번 했는걸… 저런 놈들하군 이야기를 할게 없어.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지 못하거던, 그저 족쳐야 해.》

응접실에서 그레그와르부처는 의식이 회복되는 쎄씰을 보면서 눈물만 흘리고있었다. 그는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고 허물 하나 벗겨진 자리도 없었으며 단지 베일을 잃었을뿐이였다. 그러나 그들의 놀라움은 이 무리가 어떻게 삐올랜느를 무너뜨렸는가를 이야기하는 자기 집 식모 멜라니앞에서 더욱 커졌다. 멜라니는 공포로 미칠 지경이 되여 주인어른들에게 알리려고 달려온것이였다. 그도 역시 한창 싸움이 벌어지고있을 때 방싯이 열린 문짬으로 감쪽같이 숨어들어왔었다. 한정없는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쟝렝이 던진 하나의 돌멩이가 유리 한장 깬것이 벽들이 갈라지게 한 규칙적인 포사격으로 되였다는것이였다. 그래서 그레그와르의 모든 생각은 뒤집어졌다. 자기 딸의 목을 조르고 그의 집을 짓부시고 하는것인즉 정말로 탄부들이 그가 저들의 로동으로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그에게 원한을 품었단 말인가?

하녀가 수건과 향수를 가져왔다.

《참 이상해요.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닌데요.》 하고 그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엔보부인은 백포같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서 금시 겪은 마음의 흥분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네그렐을 축하할 때 간신히 미소를 지었을뿐이였다.

누구보다도 젊은 기사를 감사히 여기는것은 쎄씰의 부모였다. 혼사는 이젠 완전히 결정된셈이였다. 엔보씨는 묵묵히 앉아서 시선을 안해에게서 아침에 자기가 죽일것을 맹세했던 안해의 정부에게로, 다음에는 처녀에게로 돌리고있었다. 오래지 않아 이 처녀는 그를 이로부터 벗어나게 해줄것이다. 엔보씨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가 오직 한가지 두려워하는것은 자기의 안해가 더욱 타락하여 하인에게 붙지 않을가 하는 그것이였다.

《그래 내 귀여운 딸들아, 너희들은 아무데도 상한데가 없느냐?》 하고 데넬랭이 딸들을 향해 물었다.

류씨와 쟌느는 매우 겁에 질렸댔지만 그것을 본데 대하여 만족해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웃고있었다.

《제기랄!》 하고 그들의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이런 고약한 날이라구야!… 너희들은 지참품이 필요하면 제 손으로 그걸 벌어야 하겠구나. 그리고 나를 먹여살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리라는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롱담으로 한 말이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였고 딸들이 달려와 그의 품에 안기였을 때에는 두눈에 눈물이 글썽해있었다.

엔보씨는 그의 망했노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하나의 강렬한 생각에 얼굴빛이 대뜸 환해졌다. 그러면 방담은 곧 몽쑤에로 넘어올것이다. 그것은 바라던 보상, 리사회 리사들에게 잘 보일수 있게 해주는 우연한 기회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재난이 있을 때마다 지시를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무사하였으며 군대와 같은 규률을 세우고 그속에서 살면서 다행스럽게 되였다.

어쨌든 모두들 진정하였다. 두개의 등불의 부드러운 광선에 비치인 답답한 응접실안은 지루한 정숙이 깃들었다. 밖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있었는가? 고함을 치던 사람들은 조용해지고 돌들도 던지지 않았다. 다만 멀리 숲속에서 나무를 찍는것 같은 웅글은 소리가 들릴뿐이였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알고싶었다. 그리하여 모두들 다시 현관으로 나가 유리문으로 내다보는 모험을 했다. 지어 부인들과 처녀들까지도 2층의 덧창문사이로 내다보려고 올라갔다.

《저 라스너르라는 악당놈이 보이지요? 저기 맞은편 술집문턱에 서있는 놈 말입니다.》 하고 엔보가 데넬랭에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모든 일에 저놈의 작간이 있는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메그라의 상점문을 도끼로 까부신것은 라스너르가 아니라 에띠엔느였다. 그는 줄곧 동료들에게 호소했다. 저안의 상품들이 탄부들의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들은 회사의 말 한마디로 그들을 굶기고 그처럼 오래동안 자기들을 착취해온 이 도적놈에게서 자기의 재물을 되찾을 권리가 없단 말인가? 모두들 점차 지배인네 집을 버리고 이웃집 가게를 략탈하러 달려갔다. 다시금 고함소리가 울렸다. 《빵을 달

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 그 문안에는 그것이 적지 않게 있을것이다! 그들은 마치 이 길가에서 갑자기 죽게 되여 더는 기다릴수가 없는듯 한 심한 굶주림에 못이겨 일떠섰다. 그들이 얼마나 들이밀며 문짝에 달려들었던지 에띠엔느는 도끼로 누구를 다칠가봐 겁이 났다.

한편 메그라는 지배인댁의 현관에서 나와 처음에는 그 집 부엌에 숨어있었다. 그러나 거기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을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 가게방에 대한 무서운 기도가 있는것 같이만 생각되였던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우로 올라와 밖에 있는 뽐프뒤에 숨었다. 이때 그는 문이 마사지는 소리와 집을 털어가면서 욕지거리를 하는 소리를 똑똑히 가려들었다. 그속에는 자기의 이름도 섞여있었다. 그러고본즉 그것은 악몽이 아니였다. 비록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기네 가게방을 짓부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귀안이 멍멍해졌다. 쾅쾅 내리치는 도끼소리는 그대로 자기의 심장을 치는것 같았다. 돌쩌귀 하나가 떨어진 모양이였다. 아직 5분은 더 견디였다. 드디여 가게방은 점거되고말았다. 그의 머리속에는 무시무시한 장면이 훤하게 떠올랐다. 강도들이 뚫고들어가 빼람들을 부시고 포대들을 털어 있는대로 먹고 있는대로 마셔버린 다음 집을 몽땅 무너뜨린다. 모든것을 략탈당하였으니 구걸을 하러 마을로 돌아다니자고 해도 짚고다닐 지팽이 하나도 없다. 아니다, 그놈들에게 집을 파괴하도록 내맡겨둘수는 없다. 그럴바엔 차라리 내 목숨을 바치는편이 나을것이다. 메그라는 여기에 와서 숨은 순간부터 자기 집의 한쪽뒤창문유리로 어렴풋이 나타나보이는 안해의 가냘픈 모습을 내내 지켜보고있었다. 틀림없이 그는 매를 맞는 가련한 존재의 말없는 기색으로 매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밑에 창고가 있었다. 그 창고는 지배인네 집에서 두 집사이에 있는 그물울타리로 기여올라갈수 있도록 되여있었다. 거기서 지붕을 타고 쉽사리 창문으로 기여넘어갈수 있었다. 메그라는 그리로 해서 집으로 넘어들어갈것인가 하는 생각에 골똘해있었다. 그는 자기가 가게방에서 나온것을 후회하였다. 혹시 가구들을 쌓아 문을 막을 시간이 있을지 모른다. 그는 다른 최후의 방어수단들도 생각해보았다. 끓는 기름이나 불붙는 석유를 우에서 들씌울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자기 상품들에 대한 애착과 공포간에 투쟁이 벌어지고있었다.

비겁성이 머리를 쳐들어 그는 고통스럽게 헐떡거렸다. 갑자기 류달

리 요란스러운 도끼소리를 들은 순간 그는 용단을 내렸다. 린색한 마음에 사로잡힌 그는 차라리 안해와 더불어 포대들을 몸으로 막을지언정 한덩어리의 빵도 잃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고함소리가 들렸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지붕에 고양이가 있구나! 고양이를 때려라!》

군중들은 창고지붕우에 올라간 메그라를 발견했던것이다. 그는 몸이 무거웠지만 열이 올라 나무가 부러지는것도 마다하고 재치있게 그물울타리를 올라가 엉금엉금 기여서 창문쪽으로 다가가려고 했다. 그러나 지붕이 몹시 가파롭고 배가 거치장스러웠으며 손톱이 온통 벗겨졌다. 그래도 돌에 맞을가봐 떨지만 않았어도 꼭대기까지 기여올라갈수 있었을것이였다. 보이지 않는 군중들은 그냥 밑에서 소리를 치고있었기때문이였다.

《고양이를 때려라! 고양이를 때려라! 저놈을 죽여야 한다!》 갑자기 두손을 동시에 놓친 그는 공처럼 데굴데굴 굴러내려 배수관에 걸렸다가 두 집사이의 벽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신수가 사나왔던지 길쪽으로 다시 튀여나 대가리가 돌모서리에 박산이 나고말았다. 골수가 탁 터져나왔다. 메그라는 죽어있었다. 웃층에 있던 그의 안해는 창백해진 얼굴을 유리창에 대고 여전히 바라보고있었다.

처음에는 모두들 어안이 벙벙했다. 에띠엔느는 손을 멈추었다. 쥐였던 도끼가 미끄러졌다. 마여와 레바끄를 비롯한 그외 사람들은 가게방일은 잊어버리고 가느다랗게 선지피가 흐르고있는 벽쪽으로 돌아섰다. 고함소리들이 그치고 짙어가는 어둠속에 정적이 깃들었다.

곧 함성은 다시 시작되였다. 피를 보고 취한 아낙네들이 달려들었다.

《그러고보니 하느님도 없진 않나보군! 이 돼지야, 네가 이렇게 뒈졌구나!》

그들은 아직도 온기가 있는 시체를 둘러싸고 죽은자의 박산이 난 머리를 더러운 상통이라고 욕질을 하면서 웃어댔고 굶주리며 살아온 오랜 원한을 죽은자의 얼굴에 대고 퍼부었다.

《네놈한테 내가 60프랑의 빚을 졌지. 자 어서 받아라, 응. 이 도적놈아!》 하고 마여의 안해가 악이 나서 부르짖었다. 《이젠 네놈이

내게 돈을 안 꿔주겠단 말도 못하겠구나. 가만있거라! 가만있어! 네놈에게 또 먹여줄게 있다!》

그리고는 두손으로 땅을 허비더니 흙을 한줌 파서 그의 입에다 마구 다져넣었다.

《옜다, 어서 처먹어라. 어서 처먹어! 우리를 못살게 굴더니, 이젠 이걸 좀 먹어봐!》

욕설은 더해만 가는데 죽은자는 벌렁 나가 자빠져서 까딱하지 않고 큰 눈으로 밤의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하늘을 응시하고있을뿐이였다. 그의 입에 처넣은 흙은 바로 그에게 청을 들였다가 거절당한 그런 빵인셈이였다. 이제는 그가 이러한 빵만을 먹게 된것이다. 그는 가난뱅이들을 굶주리게 했지만 행복은 얻지 못했다.

그러나 아낙네들은 좀더 앙갚음을 하여야만 했다. 그들은 승냥이들처럼 냄새를 맡으며 돌아갔다. 모두가 후련하게 잔인한 폭행을 가하려고 하였다.

브률레의 새된 목소리가 울렸다.

《이놈을 고양이처럼 불을 까버려라. …》

《옳아, 옳아. 고양이처럼 말이지! 고양이처럼! 이 개자식은 너무나도 더러운짓을 많이 했거던!》 로파는 또 깔깔 웃음을 웃었다.

《자 이놈을 보게, 이놈을!》

사람들은 그 혐오스러운 몸뚱이를 보자 무섭게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다.

《야 이 불한당아, 더는 우리네 딸을 건드리지 못하게 됐지!》

《그렇구말구. 짐승취급을 당하며 너에게 대가를 지불하던것도 끝장이다. 빵값으로 아낙네들의 치마를 걷어올리지 못하게 됐지!》

《이봐, 내가 입자한테 6프랑을 빚진게 있는데 지금 받을 생각이 없나? 아직두 받을 생각이 있다면 줍세!》

이 우스개소리에 그들은 몹시 유쾌하게 몸을 흔들었다. 그들은 마치 자기네를 괴롭힌 못된 짐승을 드디여 죽여버리기나 한듯이 그 피가 흐르는 몸뚱이를 서로서로 보라고 했다. 이제는 그것이 꼼짝 못하고 그들의 손안에 든것이였다. 그들은 거기에 퉤퉤 침을 뱉고 턱을 비죽이 내밀고 격분에 찬 멸시의 말을 되풀이했다.

《저놈이 이제는 아무짓도 못하게 됐다! 아무짓도!… 이제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겠군그래. 땅속에 묻혀 썩어져라!》 메그라부인은 아직도 웃층의 창문가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마지막지는해에 불타는 유리창들때문에 그의 해쓱한 얼굴이 이그러져서 마치 웃고있는것 같이 보였다. 항상 매 맞고 배반당하여왔으며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장부책우에만 엎드려있던 그는 아낙네들의 무리가 죽여버린 음탕한 짐승같은것을 보고 웃고있는것만 같았다. 이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모두가 공포에 질려 망연자실하고말았다. 마여도 에띠엔느도 그밖의 남자들도 미처 말릴 사이가 없이 이 미친듯 한 발작앞에 못박힌듯 그 자리에 서있었다. 다방 띠종의 문으로 얼굴이 창백해지도록 격분한 라스너르와 놀란 자샤리와 필로멘느가 머리들을 내밀었다. 늙은 본느모르와 무끄는 침울하게 고개를 가로저을뿐이였다. 오직 쟝렝만이 시시덕거리며 베베르를 팔굽으로 툭툭 치고 리디가 머리를 억지로 쳐들게 했다. 아낙네들은 어느새 되돌아서서 이번에는 지배인네 창문밑을 지나갔다. 그런데 부인들과 아씨들은 덧창문의 틈으로들 내다보고있었다.

아낙네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엔보부인은 소스라쳐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레그와르부인이 무릎으로 그를 꾹 찔렀다. 두 녀인은 기가 막혀 입을 쩍 벌리고말았다. 처녀들이 낯이 새파랗게 질리여 더는 묻지도 않고 어둠속에서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에띠엔느는 다시 도끼를 휘둘렀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체가 이제는 길을 가로막고 가게방을 보위하고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물러섰다. 모두들 마치 욕망이 충족되여 진정된듯 했다. 마여는 음울한 표정이였다. 갑자기 누구인가 그의 귀에 대고 달아나라고 속삭이는것이였다. 그는 돌아서서 여전히 그 낡은 남자덧저고리를 입은 까뜨리느를 알아보았다. 숨을 헐떡거리는 그는 낯이 온통 새까맸다. 마여는 딸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를 콱 밀치며 때리겠다고 을러댔다. 그러자 까뜨리느는 실망한 태도를 짓더니 주저하다가 에띠엔느에게로 달려갔다.

《어서 달아나요. 달아나요. 헌병들이 와요!》

에띠엔느 역시 욕질을 하며 그를 쫓아버리였다. 그에게 따귀를 맞은 생각을 하니 에띠엔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러나 까뜨리느는 물러서지 않았다. 까뜨리느는 에띠엔느로 하여금 도끼를 버리게

하고는 어쩔수 없는 힘으로 그의 두팔을 잡아당겨 끌고갔다.
《헌병들이 왔다지 않아요. 그런즉 내 말을 들어요. 알고싶다면 말하지요. 쇄발이 가서 그들을 이리로 끌고 왔어요. 나는 그가 진절머리나서 왔어요. 어서 달아나요. 난 당신이 붙잡히는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하여 까뜨리느가 마침내 그를 끌어간 그 순간 멀리 포석도로에서 육중한 말발굽소리가 울렸다. 고함소리가 터졌다. 《헌병들이 온다! 헌병들이!》 어찌나 제정신없이 달아났던지 마치 질풍이 휩쓸어간듯 길은 삽시간에 말끔해졌다. 오직 메그라의 시체만이 허연 땅우에 검은 반점을 남기고있을뿐이였다. 띠종다방앞에는 라스너르가 혼자 남아있었다. 그는 한시름놓고 밝은 낯으로 무력으로 쉽게 얻어진 승리를 기뻐했다. 한편 불이 꺼지고 인적기가 없는 몽쑤의 부르죠아지들은 짝짝 닫아건 쥐죽은듯 한 방안에서 공포에 질려 진땀들을 흘리면서 코도 내밀지 못하고있었다. 벌판은 짙은 어둠속에 잠겼다. 오직 용광로와 해탄로들만이 비애에 찬 하늘밑에서 불타고있었다. 헌병들의 무거운 말발굽소리가 가까와왔다. 그들은 어둠속에 알릴듯말듯 시커멓게 무리를 지어 전진했다. 뒤이어 마르쉬엔느의 과자장사의 마차가 그들의 호위밑에 마침내 당도했다. 그안에서 부엌심부름군이 뛰여내려 태연자약하게 기름에 구운 만두를 풀어내리기 시작했다.

제 6 장

1

2월도 절반이 지나갔건만 겨울은 의연히 위세를 부리여 가난뱅이들의 사정을 모르는 혹독한 추위는 계속되였다. 당국자들—릴르의 지방장관이며 검사며 장군들은 다시금 주변의 도로들을 순회하였다. 헌병이 부족해서 몽쑤부대의 일부가 차지하였다. 옹근 한개 련대의 군대가 보니로부터 마르쉬엔느에 주둔했다.
탄갱들은 무장부대들이 경비하고있었으며 모든 기계옆에는 병사

들이 서있었다. 지배인저택과 회사의 작업장들, 지어 일부 부자들의 집까지도 총검으로 호위했다. 포석도로에서는 순찰병들의 발걸음소리만이 들리였다. 보료에 있는 버럭산우에도 마치 평탄한 벌판을 감시라도 하듯이 휘휘 휘몰아치는 찬바람을 맞으며 항시 보초가 서있었다. 마치 적국에서처럼 2시간만에 한번씩 보초병들의 고함소리가 울리군 했다.

《누구야?… 군호!》

작업은 어디서도 다시 시작되지 않았다. 오히려 파업은 점점 확대되고있었다. 보료, 퍼뜨리 깡뗄 및 빅뜨와르에서와 마찬가지로 끄레브 꿰르, 미루 마들렌느에서도 석탄채굴이 중지되였으며 날이 감에 따라 일하러 나오는 사람이 점점 적어졌다. 지어는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쌩 또마에서도 로력이 부족하였다. 지금 이것은 탄부들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무력에 대한 말없는 반항이였다. 사탕무우밭 한가운데에 있는 부락들은 텅 빈것 같았다. 아무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어쩌다 혼자 나온 로동자를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도 붉은 바지를 입은 병사들곁을 지날 때엔 그들을 힐끔 쳐다보고는 외면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침울한 정적과 군대에 대한 행동없는 반항에서는 마치 저를 길들이려는 사람을 노려보다가 그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의 목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맹수와도 같이 그들은 거짓으로 순한체 하고있으며 마지못해 참고 순종하고있었다. 파업때문에 파산의 위험에 직면한 회사에서는 벨지끄국경에 있는 보리나쥐에서 탄부들을 고용해올데대한 론의가 있었지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이렇게 탄부들은 집에 들어앉아있고 빈 탄갱들은 병사들이 호위하고있는 정도에 싸움이 머무르고있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무서운 날이 지난 다음날부터 갑자기 정적이 깃들었다. 여기에는 피해와 잔인한 행동에 대하여 될수록 말을 삼가하려는 그러한 공포가 숨어있었다. 조사한 결과 메그라는 자기가 떨어져서 사망했다는것이 판명되였다. 그러나 누가 시체를 온전하게 두지 않았는가 하는것이 종시 해명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벌써 하나의 전설이 떠돌기 시작했다. 회사측에서는 자기가 입은 손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레그와르부처는 자기네 딸이 추악한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망신당하는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몇명의 부차적인물들이 체포되였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항용

그러하듯이 그들은 어리뻥뻥해서 겁에 질려있을뿐 무엇이 어떻게 되는줄은 알지 못했다. 착오로 인하여 삐에롱도 수갑을 차고 마르쉬엔느까지 갔다. 동무들은 이 사실을 알고 요절을 했다. 라스너르도 하마트면 두명의 헌병에게 끌려갈번 했었다. 탄광당국에서는 해고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에 근거하여 많은 로임수첩들을 돌려주는 일에 그치였다. 뒈 쌍 까랑뜨마을에서만도 마여, 레바끄를 위시하여 그밖에도 34명이 로임수첩을 돌려받았다. 그리고 모든 엄중성은 싸움이 있은 그날 저녁 사라진 에띠엔느에게 집중되였다. 각방으로 수색을 해보았지만 종적을 알수 없었다. 앙심을 먹은 쇄발이 그를 밀고했던것이다. 그러나 그외 사람들의 이름은 불기를 거절했었다. 그것은 부모들을 살려달라는 까뜨리느의 간청이 있었기때문이였다. 날은 하루하루 흘러갔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것을 느낄뿐이였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가슴을 조이며 결말이 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이때로부터 몽쑤에서 부르죠아지들은 밤마다 놀라 잠에서 깨여나군했다. 그들의 귀에는 마치 경보가 울리는듯 했고 지어는 화약냄새까지도 나는듯 했다.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시끄럽게 만든것은 신부 쥬아르의 후임으로 새로 온 몸이 강파르고 눈이 이글이글한 신부 랑비에의 설교였다. 쥬아르의 미소짓는 점잖은 모습은 만인이 평화와 화목속에서 사는것만이 유일한 관심사로 되여있는데 이 몸집좋고 부드러운 인간과 얼마나 거리가 먼것인가? 과연 신부 랑비에는 제 고장일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있는 가증스러운 강도들을 비호할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극악무도한 파업자들을 용서하고 무자비하게 부르죠아지를 공격하였고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였다. 바로 부르죠아지 자신이 교회를 악용하기 위하여 예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자유를 박탈하고 세계를 부정의와 고통의 저주로운 장소로 전변시켰다. 모든 오해는 부르죠아지때문에 지속되고있다. 바로 신을 믿지 않는 부르죠아지가 교회의 품으로, 첫 그리스도교도들의 박애의 전통에로 되돌아갈것을 거절함으로써 무서운 파국에로 끌어넣고있다. 신부는 그러면서 부자들을 감히 위협했었다. 만일 앞으로도 그들이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아마 하느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 자기를 믿지 않고 쾌락을 즐기는자들의 재물을 빼

앗아서 자기 영광의 승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가짜 신자들은 부들부들 떨었으며 공증인은 거기에 가장 나쁜 사회주의가 있다고 언명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부가 그 도당의 선두에 서서 십자가를 흔들며 1789년이래의 부르죠아사회를 크게 부시고있는것으로 보였다.
이것을 알게 된 엔보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는것이였다.
《저 사람이 정 우리를 못살게 굴면 주교가 우리에게 그의 성화를 안 받도록 해줄거요.》
온 들판에 공포가 떠돌고있을 때 에띠엔느는 레끼아르탄갱에 있는 쟝렝의 피난처에서 지하생활을 하고있었다. 그는 바로 거기에 은신하고있었다. 누구도 그가 이처럼 가까운 곳에, 이 페갱을 한 낡은 굴속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러한 피신은 너무나도 당돌한것이여서 수색은 실패하였다. 우에는 무너진 탑의 골조들사이에 자란 산오얏나무와 아가위나무들이 굴을 덮어주고있었다. 아무도 감히 그리로 들어가볼 생각을 못했다. 들어가려면 숙련이 필요했다. 마가목뿌리를 잡고 매달렸다가 아직까지 든든한채로 남아있는 사다리에 닿자면 대담하게 내리뛰여야 했다.
다른 장애물들도 그를 보호해주고있었다. 즉 탄갱의 본선갱안은 찌는듯이 무더운데다 아슬아슬한 사다리를 120메터 타고내려와서 좁다란 갱도의 벽짬으로 4분의 1마일이나 실히 되는 거리를 엎디여 기여가야 비로소 훔쳐온 물건들이 그득한 피난처가 나타나는것이였다. 에띠엔느는 매우 유족한 생활을 하고있었다. 그는 지하에서 향나무술과 마른 대구쪼각과 그밖의 식료품을 얻을수 있었던것이다. 건초무지는 그의 훌륭한 잠자리였다. 공기는 목욕탕안처럼 미지근하고 일정한 온도에서 바람기 하나 느껴지지 않았다. 한가지 부족을 느끼는것은 불이였다. 헌병들을 골려주는데 마음이 사로잡힌 쟝렝은 지금 그의 뒤를 대여주는자가 되여 조심성과 신중성을 다해 뽀마드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나 다 구해들였지만 양초 한갑만은 구하지 못했다. 닷새째부터 에띠엔느는 끼니때에만 불을 켰다. 어두운데서 먹자니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한가닥 광선도 새여들지 않는 이 끝없는 밤은 그에게 커다란 고통으로 되였다. 잠도 걱정없이 잤고 먹을것도 있고 몸도 덥혀주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우에 이처럼 괴

롭게 어둠이 드리운적은 일찌기 없었다. 어둠은 그의 생각마저 짓누르는것 같았다. 이제는 도적질하여 사는 처지가 되다니! 그의 공산주의리론에도 불구하고 교양있는 사람의 오랜 량심상가책이 되살아났다. 그는 마른 빵으로 만족하면서 그 량을 줄이고있었다. 어떻게 하겠는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의 임무는 수행되지 않았다. 다른 하나의 수치가 그를 괴롭혔다. 야만적인 취기, 그 맵짠 추위에 빈속에 들어간 향나무술 그리고 칼을 들고 솨발에게 달려들었던것이 후회되였다. 이것은 그에게 알지 못할 공포, 단 한방울의 알콜을 마시고도 흥분하여 살인을 치는 세습적인 나쁜 버릇,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타고난 술주정을 련상시켰다. 그런즉 끝내 살인을 치고야말것인가? 실컷 폭행을 하고난 에띠엔느는 깊고 고요한 지하에 은신처를 잡고 실컷 처먹고 자빠진 짐승처럼 이틀씩이나 눈 한번 뜨지 않고 곯아떨어졌다. 그러나 불쾌감은 가셔지지 않고 질탕치듯이 술을 마시고난 뒤처럼 계속 입안이 씁쓸하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셔났다. 이렇게 한주일이 지나갔다. 마여일가는 그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에게 양초 한대를 보내줄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젠 끼니때조차 불을 켤수 없게 되였다.

지금 에띠엔느는 몇시간씩 건초우에 길게 늘어져 누워있군 했다. 그는 이전에는 자기가 가져보지도 않았던 그런 막연한 생각에 시달리고있었다. 그것은 동료들과 자기를 따로 놓는 우월감이였으며 자기가 지식을 쌓을수록 자기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희열이였다. 에띠엔느는 이제껏 한번도 이렇게 많은것을 생각해본적은 없었다. 그는 탄갱들을 맹렬히 습격하고난 이튿날 자기가 어째서 그러한 혐오감을 느꼈는가고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감히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속한 탐욕, 횡포한 본능, 흔들리는 갈대처럼 경박하다는 평판—이러한 회상들이 그에게 혐오감을 일으켰다. 에띠엔느는 자기를 괴롭히는 어둠속에서도 자기가 마을로 돌아가게 될 그때를 두려워하며 생각하고있었다. 대야 하나를 공동으로 쓰면서 살아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구역질나는가!

누구 하나 신중히 정치를 함께 론할 사람도 없다. 짐승과 같은 생활과 역시 그 숨막힐듯 한 파냄새가 밴 공기! 그는 그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그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부르죠아지보다 못하지 않은 체모를 갖추게 하여 그들을 주인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릴것인가! 그리하여 그는 이 굶주린 도형살이에서 승리를 기다려낼 용기가 자기에게 없다는것을 느꼈다. 점차 자기가 그들의 우두머리라는 허영심, 항상 그들의 처지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고있다는것은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그가 저주하고있는 저속한 감정을 그에게 불어넣어주었다.

어느날 저녁에 쟝렝은 마부의 초롱불에서 훔쳐낸 켜다 남은 초꽁다리를 그에게 가져왔다. 에띠엔느에게는 그것이 큰 위안물이 되였다. 어둠이 그를 얼떨떨하게 만들다못해 금시 정신이 나갈 지경으로 머리를 짓누를 때면 그는 잠간씩 초불을 켜군 했다. 이렇게 악몽을 털어버리고나서 그는 생활에서 빵만치나 긴요하게 된 빛을 아끼느라고 그 불을 끄는것이였다.

그의 귀는 정적속에서 잉잉 울었다. 그는 오직 쥐들이 뛰여다니는 소리와 낡은 동발목들이 딱딱 트는 소리와 거미가 줄을 치는 가는 소리를 들을뿐이였다.

이 무심한 어둠속을 눈이 멀개서 들여다보고있느라면 밖에서 자기의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있을가 하는 한가지 생각이 되살아나는것이였다. 자기편에서 절개를 지키지 못한다는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비렬한 행위로 생각되였다.

비록 그가 지금 숨어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직 자유로운 몸으로 남아서 조언을 주고 행동하기 위한것이였다. 오랜 그의 사색은 그의 신심을 굳게 해주었다. 보다 좋은것을 기대하던 나머지 그는 쁠류샤르처럼 되기를 바랄것이며 일을 그만두고 순전히 정치에만 몰두하되 정신로동은 인간의 정력전부를 필요로 하며 최대의 안정을 요구한다는 구실밑에 깨끗한 방에서 혼자 살기를 원할것이다.

두번째 주일이 시작되는 날 헌병들이 에띠엔느를 벨지끄로 넘어간것으로 믿고있다는 말을 쟝렝이 전해주었다. 그리하여 에띠엔느는 어둡자마자 여기를 기여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세를 알아보고 더 요구를 주장할것인가 살펴보고싶었다. 그자신으로서는 실패한 일로 인정하고있었다. 그는 파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원래 그 결과에 대해선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다만 사건에 끌려들었을뿐이였는데 폭동에 도취했다 난 지금은 다시 종전의 그 의혹이 되살아나 회사가 양보하리라는데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아직 자인하지 않고있었다. 실패에 뒤따르는 가난과 그에게 지워질 고통의 그 무거운 모든 책임을 생각하기만 하면 극도의 불안이 그를 괴롭히였다.

파업의 종결—이는 그에게 있어서 자기 역할의 종말이며 그의 야심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라는 존재는 탄갱의 짐승같은 생활에로, 마을에서의 그 혐오스러운 생활에로 되돌아가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는 정직하게, 위선적이고 저속한 타산이 없이 다시금 잃어버린 신심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며 아직도 항거할수 있다는것과 자본은 로동의 영웅적자기희생앞에서 견디여내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한다는것을 자기자신에게 증명하려고 애썼다.

사실 파산은 전국에 긴 메아리처럼 퍼져갔다. 밤마다 수림에서 나온 승냥이처럼 어둠에 잠긴 농촌을 돌아다니는 에띠엔느는 온 벌판에서 파산되여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듯 했다. 길을 걸어가는 그는 길 좌우편에서 문을 닫고 멎어버린 공장들밖에 보지 못했다. 그 건물들은 납덩이같은 하늘아래서 썩어가고있었다. 특히 피해를 당한것은 사탕공장들이였다. 오똥의 공장과 포벨의 공장은 처음에 로동자수를 축소했다가 나중에는 련이어 문을 닫고말았다. 뒤띠이엘제분소에서는 이달 두번째 토요일에 마지막제분기가 섰으며 갱도용쇠바줄들을 생산하던 블레즈의 공장은 할일이 없어서 완전히 파산되고말았다. 마르쉬엔느쪽에서도 날이 감에 따라 사태는 더욱 악화되여갔다. 가즈브와의 유리공장에서는 불이 몽땅 꺼졌고 쏜느빌의 기계제작공장들에서는 부단히 로동자들을 해고하고있었으며 포르쥬의 석대의 용광로중에서 하나에만 불이 살아있었고 지평선에 보이는 어느 해탄로에서도 불빛이 비치지 않았다. 최근 2년간에 특히 첨예화된 산업공황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몽쑤탄부들의 파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파멸을 촉진시켰을뿐이였다. 고통의 원인인 미국으로부터의 주문의 중지와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본의 동결에 이번에는 조업을 계속하고있는 약간의 증기보이라들에 필요한 예견하지 못했던 석탄부족이 첨가되였다. 이제야말로 진짜 림종이였다. 기계들에 빵이 부족한것이였다. 탄광들에서 더는 석탄을 공급하지 못했다. 회사는 전반적인 파국에 놀라 석탄채취량을 줄이고 자기 탄부들을 굶주리게 하던 끝에 12월말부터는 갱바닥에 한덩어리의 석탄도 남지 않는 어쩔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

였다.
  모든것이 련쇄반응을 일으켰다. 재난은 멀리서부터 닥쳐왔다. 하나의 파산은 곧 다른 파산을 초래했다. 산업의 파국이 계렬별로 얼마나 급속도로 련달아 일어나는지 충격은 이웃도시들인 릴르, 두에, 발랑씨엔느들에까지 미쳤다. 거기서는 은행가들이 달아나서 무수한 가정의 파산을 초래했다.
  에띠엔느는 가끔 굽인돌이에 멈추어서서 차디찬 어둠속에서 폐허가 무너져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밤의 대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허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 기쁨은 낡은 세상을 끝장내고 낫질한 땅의 결면처럼 빈부의 차이가 더는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해질 날이 올것이라는 희망으로부터 오는것이였다. 그러나 이 파괴상가운데서 그의 관심을 끄는것은 회사의 탄갱들이였다. 어둠으로 하여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는 다시 발길을 옮겨 탄갱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았다. 그는 그 어떤 새로운 피해상을 발견할 때마다 기쁨을 느끼군 했다. 버려두는 탄갱들이 오래 감에 따라 붕락은 더욱 심하게 계속되였다.
  미루의 북쪽갱도우에는 얼마나 심하게 지층이 내려앉았는지 쥬아젤로 가는 도로가 지진이라도 일어난것처럼 100여메터나 꺼져들어갔다.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일어난 소동에 불안을 느낀 회사는 흥정도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없어진 땅값을 물어주었다. 끄레브 꿰르와 마들렌느에서는 몹시 약한 암반이 점점 더 무너져 갱이 막히였다. 빅뜨와르에서는 두명의 감독이 파묻혀버렸다는 소문도 돌았다. 탄갱 퍼뜨리 깡뗼은 물에 잠겼으며 쌩 또마에서는 썩은 동발들이 견디여내지 못하고 도처에서 부러져내리기때문에 한키로메터나 되는 구간에 동발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와 같이 시간마다 주주들의 리익배당금에서 막대한 비용이 나가고 구멍이 났으며 갱들의 급속한 파괴는 100년동안에 100배로 증가한 유명한 몽쑤의 주권들을 삼켜버리고말것 같았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러한 재난은 에띠엔느의 가슴속에 희망을 소생시켜주었다. 그는 싸움을 시작한 세번째 달에는 보이지 않는 성당속깊이에 우상처럼 웅크리고있는 포식하고 늘어진 짐승인 그 괴물이 끝장나리라고 믿고말았다. 그는 몽쑤에서의 혼란이 빠리신문들에 요란하게 취급되고있음을 알고

있었다. 인터나쇼날을 고무추동하던 어용신문들과 야당신문들이 놀라서 격렬한 론쟁이 붙었으며 특히 인터나쇼날을 반대하는 무시무시한 기사들이 게재되였다. 리사회는 이 이상 무관심한체 할수 없어 두사람의 관리인이 조사차로 왕림하게 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유감스러운 기색으로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근심이 없어보였으며 어찌나 무관심하였던지 사흘만에 그들은 더할나위없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다고 선언하고 돌아가버렸다. 그런데 곁에서 에띠엔느에게 일러주는 말에 의하면 이 나리들은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 줄곧 틀고앉아서 사건에 깊이 침투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렸다. 그들이 무슨 일에 그토록 몰두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들곁에 있은 누구도 일언반구 없었다. 에띠엔느는 그자들이 표시한 안심이 가면이였다고 비난하였으며 그들이 떠나간것을 얼빠진 도주로 취급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 무서운 인간들이 모든것을 쥐버린것으로 보아 그는 승리를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밤 에띠엔느는 다시금 락담하지 않을수 없었다. 회사의 등뼈는 너무나도 굳어 쉽사리 분질러버릴수가 없었다. 회사는 수백만금을 잃을수가 있었다. 그러나 후에 로동자들을 짜내여 그것을 보충할 심산이였다.

이날 쟝바르갱까지 갔던 그는 진실을 알아내였다. 한 감독이 일러주기를 방담탄갱이 몽쑤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돈다는것이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데넬랭일가는 무서운 빈궁, 부자들의 막다른 빈궁에 빠졌는데 데넬랭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의식으로 심화병에 걸리고 돈근심에 늙었고 딸들은 장사군들과 아웅다웅 다투면서 자기네 살림을 지탱하려고 기를 쓰고있다는것이였다. 굶주리는 마을들에서도 이 부르죠아의 가정처럼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맹물도 숨어서 마시였다. 쟝바르에서는 작업이 다시 시작되지 못했으며 가스똥 마리의 뽐프를 교체해야만 했다. 서둘러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되여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였다. 드디여 데넬랭은 그레그와르에게 10만프랑을 대부해줄것을 요구하는 모험을 했다. 예견한대로 거절당하여 그는 완전히 파산되게 되였다.

그레그와르부처는 다름아닌 그를 동정하여 그가 불가능한 경쟁을 하지 않게 이 청을 거절했으며 탄갱을 팔아버리라고 권고했다. 그랬지

만 데넬랭은 완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을 청산해야만 했는데 이때문에 그는 미칠듯 했다. 처음에 그는 분통이 터져 목을 졸라매여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였었다. 그러나 수가 있는가? 그는 가격제안을 받게 되였다. 사람들은 수리하고 설비를 갱신한 후 단지 선불이 부족하여 채굴을 하지 못하고있는 이 훌륭한 탄갱을 노리고 값을 낮추면서 데넬랭을 괴롭혔다.

빚이나 갚을수 있는 돈을 거기서 건지면 그나마 다행이였다. 그는 몽쑤에 온 리사회의 관리인들과 이틀동안을 싸웠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곤난한 처지를 태연히 악용하고있는데 격분한 그는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절대로 안된다고 그들에게 소리를 쳤다. 그리하여 이 일은 거기에 머무르고말았다. 그들은 빠리로 돌아가서 인내성있게 그가 가쁜숨을 몰아쉬기를 기다렸다. 에띠엔느는 파산으로 보상하게 되는 기미를 알아차리고는 타승할수 없는 대자본의 위력앞에서 다시금 용기를 잃었다. 그 대자본은 어찌나 경쟁력이 강하였던지 자기 발밑에서 쓰러진 약자들의 송장을 파먹으면서 그들의 파산으로 비대해졌다.

다행히도 이튿날 쟝렝이 그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보료의 수직갱벽의 판자들이 부러질 위험에 처하고 모든 련결부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것을 수리하자면 목수조를 하나 급히 동원해야만 하리란것이였다.

에띠엔느는 그때까지 보료를 피해왔었다. 그는 온 벌판을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버럭산우에 늘 서있는 보초병의 검은 자태에 불안을 느꼈던것이다. 그를 피할수는 없었다. 보초는 련대기와도 같이 공중에서 굽어보고있었다. 새벽 3시경에 하늘이 컴컴해지자 에띠엔느는 탄갱에 갔다. 거기서 동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널판자들의 상태가 한심해서 자기들 생각에도 그것을 몽땅 다시 대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서너달은 채굴을 중지하리라는것이였다. 에띠엔느는 수직갱에서 목수들이 나무마치질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래동안 돌아다녔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이 상처를 처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것이다.

그는 날이 샐녘에 되돌아오다가 버럭산에서 또 보초를 보았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보초도 그를 발견한 모양이였다. 에띠엔느는 계속 걸음을 옮기면서 인민들속에서 나와서 바로 인민을 반대해 무장하고있

는 병사들을 생각해보았다. 만일 군대가 당장 혁명의 편에 선다면 얼마나 용이하게 승리를 달성할수 있을것인가! 그러자면 병영에 있는 로동자와 농민들이 자기의 출신에 대하여 명심하기만 하면 되는것이다. 이것은 부르죠아지들이 군대가 반란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생각할 때면 전률을 금치 못하는 최대의 위험이며 커다란 공포였다.

그때에는 2시간도 못되여 부르죠아지가 청산될것이며 그 불공평한 생활의 쾌락과 혐오스러운 모든것이 소탕될것이다. 벌써 많은 련대들 전체가 사회주의사상에 감염되였다는 말도 있었다. 그것이 사실인가? 부르죠아지가 나누어준 탄약의 힘으로 정의의 시대가 다가온단 말인가? 어느덧 다른 또 하나의 희망을 품게 된 젊은이는 탄갱들을 경비하고있는 련대가 파업로동자들의 편으로 넘어와 회사에 몰사격을 가하고 탄광을 탄부들의 수중에 넘겨주는 꿈을 꾸었다.

이 생각으로 머리가 뗑해진 그는 자기가 버럭산으로 오르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어째서 자기는 저 병사와 이야기를 하지 못할것이냐?

생각을 타진해보리라.… 그는 마치 쓰레기에서 땔나무쪼각을 줏는 사람같은 무심한 얼굴로 계속 다가갔다. 보초는 옴짝하지 않고 서있었다.

《친구! 참 날씨 고약하군! 그렇지 않아?》 하고 에띠엔느는 드디여 말을 걸었다. 《아무래도 인차 눈이 내릴것 같군.》

병사는 키가 작고 어질게 생긴 창백한 얼굴에 주근깨가 다닥다닥한 금발머리였다. 외투를 입은 그는 어느 신입대원이나 그러하듯이 동작이 둔했다.

《네, 그럴것 같군요.》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파란 눈을 쳐들어 연기에 싸인 새벽의 희끄무레한 하늘을 오래동안 바라보았다. 연기는 저 멀리 벌판우에 납덩이처럼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이게 무슨 얼빠진 짓이람!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드는데 사람을 이런 곳에 세워놓다니!》 하고 에띠엔느는 말을 이었다. 《까자크들이라도 기다리는것 같군!… 여긴 늘 이렇게 바람이 사나운데!》

병사는 우들우들 떨면서도 불평은 말하지 않았다.

하기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본느모르로인이 날씨 사나운 밤이면 와서 묵는 토굴이 있었다. 그러나 버럭산정점에 서있으라는 명령을 받

았기때문에 병사는 총을 감촉할수 없으리만치 손이 얼어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것이였다. 그는 보료를 경비하는 60명 보초병중의 한사람이였다.

그래서 이 엄격한 보초를 자주 서게 된 그는 하마트면 발에 동상을 입을번 했었다. 그러나 근무는 이것을 요구하고있었으며 그는 거기에 맹종하다나니 둔해졌다. 에띠엔느가 묻는 말에 그는 졸음이 오는 어린애처럼 중얼중얼 알지 못할 말로 대답했다.

에띠엔느는 15분가량이나 그에게 정치에 관한 담화에로 그를 유도하려고 해보았으나 부질없는짓이였다. 병사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대답할뿐이였다. 그러나 보건대 그는 아무것도 리해하지 못한 기색이였다. 동무들은 자기네 중대장이 공화주의자라고 하였다. 그로 말하면 아무런 견해도 가진것이 없으며 또 관계도 없었다. 사격명령이 내리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그는 사격을 할뿐이였다.

이야기를 듣는 로동자는 인민의 증오가 끓어올랐다. 그것은 군대에 대한 증오이며 붉은 바지를 입음으로써 마음이 변한 이 형제들에 대한 증오였다.

《당신은 이름이 뭐요?》

《쥴르라고 하지요.》

《어디 출신이요?》

《저기 쁠로고프에서 왔지요.》

그는 손으로 어딘가 먼곳을 가리켰다. 그는 단지 그곳이 브류따뉴에 있다는것밖에는 아무것도 더 알지 못했다. 불현듯 그는 작고 창백한 얼굴에 생기를 띠며 활기있게 웃기 시작했다.

《거기엔 어머니하고 누이가 있지요. 물론 나를 기다리고있지요. 하지만 아직 멀었지요.… 내가 떠나올 때 어머니와 누이는 뽕 라베까지 나를 바래주더군요. 우린 레빨메끄네 집에서 말을 빌려가지구 왔는데 그놈의 말은 오디에른근방에 있는 언덕에서 하마트면 다리가 부러질번 했다니까요. 사촌 샤를이 우리가 오기를 기다려서 더운 순대를 대접했는데 아낙네들이 얼마나 큰소리로 울어대는지 먹은게 목이 메여 넘어가야지요. 오 주여 주여, 참말 우리네 고장은 멀기도 하지요!》

그는 두눈에 눈물이 글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웃고있었다. 쁠로고

프의 황무지, 항상 폭풍이 휘몰아치는 이 사나운 갑 라즈가 그에게는 해빛이 흘러넘치고 꽃이 붉게 만발하는 고장으로 생각되는것이였다.

《당신 생각엔 어때요?》 하고 그는 물었다. 《내가 처벌만 안 받으면 2년쯤 지나서 한달가량 집에 갔다올수 있는 허가를 해줄가요?》

그러자 에띠엔느는 자기가 어렸을 때 떠나온 프로방쓰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날이 밝아왔다. 잔뜩 흐린 하늘에서는 함박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문득 에띠엔느는 덤불속으로 돌아다니는 쟝렝을 발견하고 불안에 사로잡혔다. 소년은 버럭산우에 그가 있는것을 보자 깜짝 놀라는것이였다. 그는 손짓으로 에띠엔느를 자기에게로 불렀다. 병사들과 친근해지려는 그 꿈이 무슨 소용있단 말인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아직 장구한 기간이 걸리게 될것이다.

에띠엔느는 마치 성공할것을 타산하기나 하였던것처럼 자기의 무모한 시도가 실패한데 락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쟝렝의 몸짓을 알아차렸다. 보초교대가 오는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달아났다. 그는 급히 레끼아르에 있는 굴속에 돌아가려고 달려갔다. 모든것이 실패하였다고 확신하게 되자 그는 또다시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소년은 그와 나란히 껑충껑충 달려가면서 저 더러운 몹쓸놈의 병사가 자기들을 사격하게 초소에 불렀을것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쥴르는 버럭산정점에서 내리는 눈만 멍청하게 바라보며 꼼짝하지 않고 서있었다. 중사가 교대병을 데리고 다가왔다. 정해진 웨침소리를 주고받았다.

《누구야?… 군호!》

돌아가는 무거운 발걸음소리가 마치 정복된 지방에서처럼 울리였다. 날이 밝아왔다. 그러나 마을들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군화에 짓밟혀 격노한 탄부들은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2

이틀전부터 내리던 눈은 아침에 멎었다. 심한 추위가 무연한 벌판을 얼어붙이였다. 먹물같은 도로와 석탄가루에 뒤덮인 벽과 나무들로

해서 시커맸던 이 지방이 온통 새하얗게 되여 끝이 없는것 같았다. 뒈쌍 까랑뜨마을은 눈에 파묻혀 자취를 감춘듯 했다. 어느 한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지 않았으며 길가의 돌들처럼 차디찬 집집마다 지붕의 두터운 눈을 녹이지 못하였다. 탄갱마을은 흰 채석장과도 흡사했다. 백설이 뒤덮인 벌판을 배경으로 한 이 탄갱마을은 흰 수의에 싸인 죽은 마을처럼 보였다. 오직 거리를 지나다니는 순찰병들만이 눈우에 더러운 발자취들을 남기고있었다.

마여네 집에서는 전날 밤에 남았던 석탄을 마저 때버렸다. 지금 참새도 풀검불 하나 찾을수 없는 이런 혹독한 추위에는 버럭산으로 석탄덩이를 주으러 갈 엄두도 낼수가 없었다. 알지르는 이악하게 그냥 손으로 눈속을 파헤치며 석탄을 줏다가 병이 나 누운것이 지금은 살것 같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누데기같은 헌 이불로 그를 둘러싸놓고는 의사 방데르하겐이 오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벌써 두번이나 달려가보았지만 그는 집에 없었다. 그러나 그 집 하녀는 날이 저물기 전에 의사선생이 마을에 들릴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앓는 소녀는 일어나겠다고 하고 일어나더니 거기가 제일 더운 곳으로 착각하고 싸늘하게 식은 난로곁의 의자에 와앉아 오돌오돌 몸을 떨고있었다. 그의 앞에서는 본느모르할아버지가 졸고있는듯 했다. 그는 다리가 또 쏘는것이였다. 레노르도 앙리도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쟝렝과 함께 길거리로 돌아다니며 구걸하고있었다. 마여만이 홀로 빈 방을 왔다갔다 하며 마치 제 우리도 잘 모르는 둔한 짐승처럼 매번 벽에 부딪치군 했다. 석유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밖의 눈이 어찌나 흰지 어둠이 깃들었지만 그 반사광에 방안은 훤했다.

나막신소리가 나더니 레바끄의 안해가 문을 활짝 열며 나타났다. 그는 문턱에서부터 성이 독같이 나서 마여의 안해에게 달려들었다.

《그래, 네년이 그런 소릴 했단 말이지. 내가 우리 하숙인하고 자구 그한테서 20쑤를 달라고 했다구!》

마여의 안해는 어깨를 으쓱했다.

《귀찮게 굴지 말어. 난 아무 말도 안했어. 먼저 말해. 누가 너보고 그따위 소리를 해?》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년이 그랬다더라. 누가 그런 소릴 했건 그

건 알 필요가 없어. … 뭐 우리가 별 추잡한짓을 다 하는걸 이 방에서 똑똑히 들었노라구까지 말했다지. 우리 집엔 내가 밤낮 딩굴고있기때문에 때가 앉았다구 하면서… 어디 그런 말 하지 않았노라구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응, 어서!》

아낙네들의 끊임없는 사설질들로 해서 날마다 싸움이 벌어지군 했는데 특히 문을 마주하고 사는 가정들사이에서 늘 이런 말다툼을 하고 화해를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처럼 심한 욕설이 오고간적은 없었다. 파업이 시작된이래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하여 앙심만 더해가고 저마다 서로 맞붙어 해보고싶은 심정에 싸여있었다. 수다스런 아낙네들의 싱갱이질은 남편들의 죽기내기로 끝났다.

레바끄가 때마침 부뜰루를 끌고와서 달려들었다.

《자, 여기 본인이 왔으니 얘기를 시켜보자구. 이 사람이 20쑤 주고 내 녀편네하구 함께 잤는가.》

하숙인은 턱수염속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반격하며 말을 더듬었다.

《저런! 아니요. 그런 일은… 없지요. 절대루 그런 일이라곤 없었지요!》

드디여 레바끄는 위협조로 마여의 코에 주먹을 들이댔다.

《너도 알지, 난 이런걸 좋아 안해. 녀편네가 이러면 허리를 분질러버려. 그래, 넌 네 녀편네가 하는 수작을 믿느냐?》

《정말 이런 못된 자식!》

마여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성이 나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건 또 무슨 소동이야? 가난에 진절머리가 나지도 않아? 썩 물러가라, 내 네놈을 박살내기 전에!… 대관절 우리 녀편네가 그따위 소릴 했다구 누가 떠들고 다녔단 말이야, 응?》

《누구냐구?… 삐에롱의 처가 그러더라, 어째.》

그 말에 마여의 안해는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레바끄의 안해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니, 삐에롱의 처가 그랬단 말이지!… 좋아, 그럼 그년이 내게 한 소리를 해주지, 그래! 그 년이 내게 뭐라고 했는고 하니 네가 두 사내를 단꺼번에 끼구 잔다더라!》

이때부터 더는 서로 알아들을수 없게 떠들어댔다. 모두들 미친듯이

성이 났다. 레바끄내외는 그 대답으로 마여내외에 대해서 삐에롱의 처가 한 말을 몽땅 털어놓았다. 그에 의하면 그들은 까뜨리느도 팔아먹었으며 어린것에 이르기까지 온 식구가 볼깡에서 에띠엔느가 한 추잡한 짓과 더불어 썩었다는것이였다.

《그 년이 그렇게 말했어, 응? 그 년이 그렇게 말했어?》 하고 마여가 으르렁거렸다. 《어디 가보자. 제가 그런 소릴 지껄였다고 말하면 내 그년의 상판대기를 후려갈길테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레바끄내외는 무릎맞춤을 하러 따라갔다. 싸움에 겁을 먹은 부뜰루는 슬그머니 돌아가버렸다. 그런 말을 듣고 속에 불이 인 마여의 안해도 역시 나가려고 했으나 알지르의 신음소리를 듣고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오돌오돌 떨고있는 딸의 몸에 이불을 끌어덮어주고 다시 창가에 서서 멀리 앞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의사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삐에롱네 집 문앞에 이른 마여와 레바끄내외는 눈우에서 발을 구르고 서있는 리디를 만났다. 집은 문이 잠겨있었다. 덧창문틈으로 한가닥 불빛이 새여나오고있었다. 여러가지 묻는 바람에 소녀는 처음에는 점직해하다가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고 옷보퉁이를 가지러 간 브률레할머니를 도우러 세탁소로 마중갔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고있느냐는 말에는 당황해하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나중에는 슬그머니 원망스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죄다 실토를 했다. 어머니는 당싸에르씨가 와서 이야기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자기를 문밖으로 내몰았다는것이였다. 당싸에르는 아침부터 두명의 헌병을 데리고 탄갱마을을 돌아다녔었다. 그는 비교적 약한자들을 괴롭히고 로동자들을 끌어모으려고 애쓰면서 만일 탄부들이 월요일까지 보료에 일하러 나오지 않으면 회사는 벨지끄인들을 고용해온다는 말을 가는 곳마다에서 퍼뜨렸다. 그러다가 삐에롱의 처가 혼자 있는것을 보아둔 그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헌병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은 뜨거운 난로옆에 앉아서 향나무술이나 한잔 마시려고 그 집을 찾아온것이였다.

《쉿! 조용하게. 그들이 하는짓을 좀 들여다봐야겠네.》 하고 레바끄는 음탕한 웃음을 웃으며 소곤거렸다. 《이 자리에서 다 알아낼수 있지… 저리 가, 이년아!》

리디는 몇걸음 물러났다. 레바끄는 덧창문틈에다 한눈을 가져다댔

다. 그는 소리치고싶은것을 참느라고 허리를 구부리고 몸을 떨었다. 레바끄의 처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는 마치 배라도 아픈듯이 자기는 구역질이 난다고 말했다. 마여도 그를 떠밀치며 구경을 하려 했다. 그는 그것이 비싼 구경거리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 연극이라도 구경하듯이 번갈아가며 틈새로 들여다보았다. 깨끗하고 윤기가 나는 방안은 따스한 난로로 하여 흥겨웠다. 식탁우에는 과자며 술병이며 잔같은것들이 놓여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주연을 베풀고있었다. 그 방안에서 보이는 광경은 남자들을 극도로 격분시켰다. 다른 때 같으면 그들은 반년을 두고 이것을 조롱했을것이였다. 잔뜩 처먹고 치마를 들친 꼴이란 가관이였다. 빌어먹을것들! 동료들은 한쪼각 빵이 없어서, 한덩어리의 석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들은 따뜻한 방안에 들어앉아서 실컷 처다리고 이따위 놀음을 하고있다니 과연 비루한짓이 아니란 말인가?

《저기 아버지가 와요!》 하고 리디가 부르짖으며 달아났다.

삐에롱은 옷보퉁이를 어깨에 둘러메고 유유히 세탁소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마여는 다짜고짜로 그에게 따져물었다.

《여보게, 듣자니 내가 까뜨리느를 팔아먹었다, 또 우리 집 식구는 온통 썩었다구 자네 녀편네가 말하며 돌아다닌다는데… 그래, 자네 좀 말해보게! 대관절 지금 자네 녀편넬 끼고 누운 저 나리는 그 값으로 자네에게 몇푼씩이나 삯을 치르나?》

삐에롱은 통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얼떨떨해졌다. 그러는 사이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동소리에 겁을 먹은 삐에롱의 처가 제정신없이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보려고 문을 빠끔히 열었다. 그는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된데다가 앞가슴이 드러나고 치마를 허리띠에 끼워넣어 들린채였다. 한편 당싸에르는 구석에서 정신없이 바지를 춰올리였다. 도감독은 이 일이 지배인의 귀에 들어갈가봐 걸음아 날 살려라 꽁무니를 뺐다. 이 추문으로 웃음과 웨침소리, 욕설이 일어났다.

《네년이 밤낮 남의 더러운 흉만 보고 돌아가더니!》 하고 레바끄의 처가 삐에롱의 처에게 호통을 쳤다. 《과연 깨끗하다구— 나리들하구만 붙어돌아가니깐.》

《정말 그에게는 지껄여대는게 어울려!》 하고 레바끄가 맞장구를 쳤다. 《그 주제에 저년은 뭐 내가 하숙인을 하나는 올라타고 하나는

올려놓고 잔다구!… 그래그래, 네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
그러나 삐에롱의 안해는 욕설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제가 가장 아름답고 부유하다고 확신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고있었다.
《하고싶은 말이니 했소. … 성가시게들 굴지 말아요! 남의 일에 웬 참견들이요! 원, 심술들두 사납기라군!… 그래, 우리가 돈을 모아두는게 배들이 아파서 그러누만! 썩들 물러가요, 썩들 물러가래두! 아무 소리나 지껄이고싶은대로들 하구려. 내 남편은 당싸에르어른이 무슨 일로 해서 우리 집에 왔다간줄 잘 알구있으니깐.》
삐에롱은 정말 분개해서 제 안해의 편역을 하려들었다. 이렇게 되자 싸움은 방향이 달라지고 모두들 그를 돈에 팔린 녀석이라느니, 끄나불이라느니, 회사의 개라느니 하며 그가 집에 들어앉아서 변절행위의 값으로 우에서 받는 빵부스레기나 얻어처먹고있다고 욕들을 했다. 삐에롱은 이를 반박하여 마여가 자기 집 문지방밑으로 죽은 사람의 뼈를 두개 어기게 놓고 그우에 단도를 올려놓은 종이를 들이밀어 위협했다고 했다. 이리하여 항상 그러하듯이 아낙네들이 일으킨 싸움은 남편들의 격투로 끝이 났다. 기아는 가장 온순한 사람들까지도 광란을 일으키게 한것이였다. 마여와 레바끄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삐에롱에게 달려들었다. 결국은 그들을 뜯어말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세탁소에서 돌아온 브률레로파는 자기 사위가 코피를 콸콸 쏟고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그는 영문을 알자 다만 이렇게 말할뿐이였다.
《그 개같은 년이 어미망신을 시키지.》
거리는 다시 텅 비였다. 흰눈우에는 단 하나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은 다시금 기아와 추위에 신음하며 죽은듯 한 정적에 휩싸였다.
《의사는 어떻게 됐소?》 하고 마여가 들어와서 문을 닫으며 물었다.
《안 오는구려.》 하고 안해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대답했다.
《아이들은 들어왔소?》
《아니요, 안 들어왔어요.》
마여는 다시금 육중한 걸음으로 이구석저구석을 괴로운 기색으로 거

닐었다.

본느모르할아버지는 의자에 얼어붙은듯이 앉아서 고개도 쳐들지 않았다. 알지르도 역시 아무 말이 없이 그저 부모들이 상심할가봐 몸을 억지로 떨지 않으려고 할뿐이였다. 소녀는 참을성있게 고통을 견디여내려고 하다가도 어찌나 심하게 몸을 떨었던지 불구인 소녀의 여윈 몸이 모포밑에서 오한에 떨고있는것이 알리였다. 크게 뜬 두눈은 천정을 바라보고있었는데 천정에는 흰눈덮인 정원의 희미한 반사광이 비껴 달빛처럼 방안을 희끄무레하게 비쳐주고있었다.

이제는 마지막혼수상태였다. 집이 텅 비고 방안에는 아무것도 남은것이 없었다. 침대깔개에 넣었던 양털에 뒤이어 침대깔개천이 넝마장사의 손에 넘어갔다. 그다음에는 홑이불, 그다음엔 내의들—모든것을 팔아먹었다. 어느날 저녁에는 할아버지의 손수건까지 2쑤에 팔아버렸다. 이 가난한 집안에서는 물건을 내놓게 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남편에게서 선물로 받은 장미빛 마분지곽을 어느날 자기가 치마폭에 싸서 내다 판 일을 아직도 키울수 없어 남의 집 문가에 버린 어린 자식처럼 생각하며 한탄하고있었다. 마여의 집에서는 가진것이라고는 몽땅 팔아먹었다. 남은것은 알몸뚱이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너무 파리하고 앙상하여 누구도 피천 한잎 줄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그 무슨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더는 아무것도 없다는것, 종말이 다가왔다는것을 그들은 알고있었다. 더는 기대를 걸 아무것도 없었다. 집에는 초대 하나, 석탄 한덩이, 감자 한알 생길데가 없었다.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며 다만 아이들때문에 화를 냈다. 그들은 부질없이 몰인정한 운명을 슬퍼하고있었다. 어차피 죽을 팔자를 타고난 아이에게 저런 병이 걸려들것이야 뭐란 말인가.

《드디여 오는구나.》 하고 마여의 안해가 말했다.

창문앞으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다. 문이 열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방데르하겐의사가 아니였다. 그들은 새로 온 신부 랑비에를 알아보았다. 신부는 등불도 온기도 빵도 없는 이런 다 죽은듯 한 집에 들어서고도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세집이나 이웃집을 들려오는 길이였다. 신부는 헌병을 데리고 돌아다니던 당싸에르처럼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끌어당기고있었다. 그

는 곧 열광적인 신도처럼 열렬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의 가엾은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당신들은 일요일에 례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당만이 당신들을 구원해줄수 있는것입니다. … 다음일요일에는 례배를 오겠다고 약속들을 하십시오.》

마여는 힐끔 그를 쳐다보고는 아무말없이 다시 그 무거운 걸음으로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를 대신하여 안해가 대답을 했다.

《신부님, 례배를 보아서 무엇한단 말이예요? 아니 그래 하느님이 우릴 조롱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글쎄, 내 딸이 무슨 죄를 졌기에 저렇게 떨고있단 말인가요? 우리에게 그래, 가난이 부족하다는건가요? 하느님은 저 애에게 내가 따끈한 약물 한모금 줄수 없을 때에 병을 주어야 하는군요.》

그러자 신부는 선채로 길게 이야기했다. 그는 파업과 무서운 가난, 굶주림으로 하여 격화된 원한을 리용하여 미개인에게 자기의 종교의 명예를 위하여 설교하는 전도사와 같은 열정으로 말을 했다. 그의 말인즉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편에 서있으며 정의가 승리하도록 하느님의 분노를 불러 부자들의 무법행위를 단죄할 날이 온다는것이였다. 그리고 그날은 미구에 밝아올것인데 그 리유는 부자들이 하느님의 지위를 차지하고 종교를 반대하여 권력을 장악하고는 하느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통치하려 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로동자들이 지상의 부를 공정하게 나누어가지려거든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도들주위에 뭉친것처럼 당장 신부들에게 의거해야 한다. 무수한 근로자대중이 복종한다면 법왕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질것이며 승려계급은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질것인가! 악당들은 한주일이내에 세계에서 청산되고 파렴치한 통치자들은 추방될것이며 마침내는 진정한 하느님의 왕국이 도래할것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자기의 공로에 따라 표창을 받을것이며 로동의 법은 전세계의 행복을 조절할것이다.

마여의 안해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마치 지난 가을 저녁마다 그들의 불행이 끝장나리라고 예고하던 에띠엔느의 말을 듣는것 같은감을 느꼈다. 다만 그는 신부들을 믿지 않을뿐이였다.

《신부님, 신부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건 아주 훌륭하지만》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 아마 신부님이 부르죠아와 의가 나빠서 하시는 말씀일걸요.… 전에 있던 신부들은 지배인네 집에 가서 늘 식사랑 하면서 우리가 빵을 달라기만 하면 지옥에 간다고 엄포를 놓군 하던데요.》

그러자 신부는 교회와 민중간의 통탄할 불화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향락에 도취하고 권세욕에 사로잡히고 눈뜬소경처럼 어리석은 탓으로 자기의 세계지배권을 빼앗은자가 바로 부르죠아지라는것도 모르고 무모하게 자유주의부르죠아지와 결탁을 하고있는 고관 승려들과 도시의 신부들과 주교들에 대하여 두리뭉실한 말로 비난했다. 그는 해방을 가져다줄 사람은 오직 농촌의 신부들일것이며 모든 신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왕국을 부활시키려고 궐기할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부는 벌써 자기가 복음서의 선도자, 혁명가처럼 그들의 선두에 서있는것으로 여기고있었다. 그리하여 뼈만 앙상한 그의 몸이 쭉 펴지고 두눈에는 어두운 방안을 밝혀줄것 같은 불길이 타오르는것이였다. 그가 자기의 열렬한 설교에 도취되여 신비스러운 말을 하기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의 말을 통 리해할수 없었다.

《실없이 긴 말을 할건 없지요.》 하고 돌연히 마여가 말했다. 《우선 우리에게 빵이나 가져다주는게 좋을거요.》

《일요일에 례배보러 오시오.》 하고 신부는 부르짖었다. 《하느님은 모두에게 배려를 베푸실거요!》

신부는 그 집을 나와 이번에는 레바끄내외를 설복하려고 집을 찾아갔다. 그는 교회의 종국적승리를 꿈꾸면서 어찌나 자기를 높이 세웠던지 이러한 경멸을 받으면서도 그자신이 불쌍한 존재로서 동냥을 주지 못하고 빈손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 마을들을 돌아다녔다. 그는 고통을 구원의 수단으로 보고있었던것이다.

마여는 계속 방안을 거닐고있었다. 방안의 돌바닥을 밟는 그의 발걸음소리는 웅글게 울렸다. 마치 녹쓴 활차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것 같은 소리가 났다. 그것은 본느모르할아버지가 싸늘하게 식은 난로에 가래침을 뱉는 소리였다. 그리고는 다시 발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열때문에 지친 알지르는 졸면서 낮은 소리로 헛소리를 하기 시작

했다. 그는 날씨가 덥고 자기는 해빛아래서 놀고있다고 생각하며 웃고있었다.

《이런 기막힌 팔자라구야!》 하고 마여의 안해는 소녀의 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온몸이 불덩이같구나. … 내 이젠 그 개자식을 더는 기다리지 않아. 보나마나 그 강도녀석들이 우리 집엘 오지 못하게 했을걸 뭐!》

그는 의사와 회사를 두고 하는 말이였다. 그랬지만 다시 문이 열리는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환성을 올렸다. 그러나 그의 두손은 곧 맥없이 늘어졌다. 몸을 쭉 펴고 선 그의 얼굴엔 검은 그림자가 비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에띠엔느가 들어와 문을 꼭 닫으며 입속말로 인사를 했다.

에띠엔느는 종종 어두운 밤에 이렇게 찾아오군 했다. 마여의 집에서는 사변이 있은 그 이튿날로 에띠엔느가 숨어있는 곳을 알았지만 그들은 비밀을 지키였다. 마을에는 누구도 이 젊은이가 어떻게 되였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설이 떠돌고있었다. 사람들은 계속 그를 믿었으며 그에 대하여 기이한 소문들을 돌리고있었다. 그는 오래지 않아 대부대를 거느리고 금이 가득찬 상자들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리라는것이였다. 이것은 역시 기적을 바라는 그 종교적인 기대였으며 리상이 실현되여 에띠엔느가 그들에게 약속하던 그 정의의 왕국이 돌연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것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에띠엔느가 웬 신사 세사람과 함께 마차를 타고 마르쉬엔느로 가는것을 보았노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틀동안 영국을 다녀오러 갔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는데 익살군들은 에띠엔느가 어느 움속에 숨어서 무께뜨의 따뜻한 품에 안겨있을것이라고 장담을 했다. 이 관계를 알게 되여 그는 좋지 않은 사람으로 되였다. 이것은 그의 인기가 한창인 때에 희망이 없다고 단정한 사람들이 은근히 퍼뜨린 그에 대한 불만이였다. 그런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갔다.

《참, 더러운 날씨로군.》 하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그래 좋은 소식은 없구 형편만 더 어려워지겠군요?… 듣자니까 뭐 네그렐이 로

동자들을 모집하려 벨지끄로 떠나갔다나봅디다. 제기랄! 그게 사실이라면 우린 망했지.》 에띠엔느는 이 싸늘하고 어두운 방에 들어서자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는 눈이 어둠에 익숙될 때까지 어렵풋하게 있는줄이나 겨우 짐작이 되는 그 불행한 사람들을 곱절이나 어두워진 속에서 알아볼수 없었다. 교육을 통해 세련되고 야심을 품고 로동을 한 그는 자기의 계급과 동떨어진 로동자로서의 혐오감과 어색함을 느꼈다. 얼마나 가난하고 냄새 또한 역하며 비좁게 사는가! 그는 동정심에 목이 메였다. 무서운 이 최후의 광경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그는 이 사람들에게 굴복을 하라는 권고를 하려고 적당한 말을 고를 정도였다. 그러나 마여는 그의 앞에 멈춰서서 노기 띤 목소리로 소리쳤다.

《벨지끄놈들을 모집한다구! 개자식들, 어디 그따위짓만 해봐라. … 벨지끄놈들을 쓰기만 하는 날엔 탄갱들을 짓부셔버리구말테다!》

에띠엔느는 거북한 낯으로 탄갱들을 경비하고있는 병사들이 벨지끄로동자들을 보호할것이므로 어쩌는 수가 없을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마여는 주먹을 부르쥐고 그가 말한것처럼 잔등이 그 총창에 찔리운듯이 성을 냈다. 그래, 탄부들이 이제는 제 고장의 주인이 아니란 말인가? 탄부들을 도형수처럼 취급하며 총을 재워들고 일터에 내몬단 말인가? 마여는 자기의 탄갱을 사랑하고있다. 그래서 벌써 두달째나 거기에 내려가보지 못한것이 여간만 괴롭지 않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는 탄갱에 외국사람들을 데려온다는 모욕적인 위협을 듣고 격분했던것이다. 그러나 자기는 이미 로임수첩을 돌려받은 사람이라는것을 뒤미처 생각한 그는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나도 모르겠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글쎄 난 이미 그자들의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자들이 여기서 나를 내쫓으면 난 거리에서 굶어죽는수밖에 없네.》

《그런 소리 마오.》 하고 에띠엔느가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들은 래일이라도 취직시켜줄거요! 좋은 로동자는 내쫓지 않는거요.》 그는 열에 뜬 알지르가 나직이 웃는 소리에 흠칫 놀라 문득 말을 끊었다. 지금까지 본느모르할아버지의 움직이지 않는 륜곽밖에 보지 못하고있던 그는 앓는 어린애의 명랑한 목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어린애들마저 죽게 된다면 이것은 지나친것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심을 말했다.

《더는 이대로 있을수 없소. 이러다간 우리는 죽고말게요.… 항복합시다.》 이 말을 듣자 이제껏 끔짝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있던 마여의 안해가 버럭 성을 내며 사나이처럼 해라를 하며 맞대놓고 욕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응?… 네가 그따위 소릴 하니? 에끼, 망할 녀석같으니…》

에띠엔느가 변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녀자는 한마디도 말을 시키지 않았다.

《어디 다시 그런 소릴 해봐라, 빌어먹을 놈! 내가 아낙네이니 말이지 너같은 놈은 따귀를 쳐야… 그래 우리가 두달동안이나 죽도록 굶고 또 있는 재물을 몽땅 팔아먹구 내 아이들을 골병을 들여놓게 한게 죄다 그 억울한 생활을 다시 하자구 그랬단 말이냐?… 그 생각만 하면 난 치가 떨려! 안된다, 안돼. 난 이제 몽땅 불사르구 몽땅 없애버리면 버렸지 무릎을 꿇진 못하겠다!》

그는 무섭게 팔을 내저으며 어둠속에서 마여를 가리켰다.

《잘 들어둬. 만일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탄갱으루 다시 일하러 가면 나는 길목에 지켜섰다가 얼굴에 침을 뱉구 겁쟁이취급을 할테니!》

에띠엔느는 그 얼굴을 볼수 없었지만 짖어대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것 같은 그의 뜨거운 입김을 감촉했다. 그는 자기가 할일을 놓고 이처럼 격분하는데 놀라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마여의 안해는 알아볼수 없게 사람이 변했다. 전에는 항상 신중한 녀성으로서 에띠엔느를 혹독하다고 타이르면서 그 누구의 죽음도 바라서는 안된다고 말하던 그가 지금은 시비를 가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짓부시려는것이였다.

이제 와서는 에띠엔느가 그러는것이 아니라 그 녀자가 정치를 말하면서 일격에 모든 부르죠아들을 소탕하기를 원하고있으며 공화국과 단두대를 요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로동으로 살진 부자들의 략탈로부터 세계를 해방하려고 하고있었다.

《난 내 손으루 그놈들의 가죽을 벗기려네! 우린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어! 이젠 우리네 차례가 되였지. 자네자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

았나…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있는 모든 고통을 당해왔구 이제 또 우리의 아들, 손자들까지 그런 고생을 할 생각을 하면 난 미칠 지경이야. 난 막 칼을 움켜쥐지. 우리는 그날 충분히 해내지를 못했어. 그때 몽쑤를 깡그리 짓부셔버렸어야 했을거네. 여보게, 알겠나? 난 지금 한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네. 다른게 아니라 저 로인이 삐올랜느의 계집년을 죽이지 못하게 한것 말일세. 내 아이들은 굶주려 죽게 하구!》

어둠속에서 그의 말마디는 도끼소리처럼 울려퍼졌다. 일단 막힌 식견은 열리지 않았다. 고통으로 이지러진 머리속에서는 실현할수 없게된 리상이 독소로 변해버렸다.

《내 말을 잘못 리해하시는군요.》 싸움에서 물러서는 에띠엔느는 아직 이렇게 말할수 있었다.

《회사측과 타협을 해야지요. 난 탄갱들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는걸 알고있지요. 그러니 틀림없이 회사에선 양보를 할게란 말입니다.》

《안되네, 한걸음두 물러서선 안되네.》 하고 그 녀자는 부르짖었다.

이때 레노르와 앙리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기는 그들은 어느 나리에게서 2쑤를 받았었다. 그런데 누이가 나이어린 동생에게 발길질을 하다가 결국은 돈을 눈속에 떨어뜨리고말았다. 그들은 쟝렝과 함께 찾아보았으나 종시 헛일을 하고만것이였다.

《쟝렝은 어디 갔니?》

《오빤 달아났어요. 어머니, 무슨 볼일이 있다구 그래요.》

에띠엔느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한땐 자식들이 동냥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것을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노라고 위협하던 어머니가 이제 와서는 자신이 자식들을 거리로 내보내는것이다. 그 녀자는 몽쑤의 일만명 탄부모두가 거러지처럼 지팽이를 짚고 전대들을 하나씩 차고 나서서 이 무서운 고장을 돌아다닐것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어두운 방안에서 근심은 더욱 커졌다. 허기가 져서 돌아온 아이들은 저녁을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먹을것을 주지 않는다. 애들은 칭얼거리며 방안을 오락가락하다가 죽어가는 자기 누이의 다리를 밟아놓고야말았다. 소녀는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는 그만 분통이 터져서 어두운데서 어림대고 아이들의 뺨을 쳤다. 그런데 아이들이 더욱 극성스레 울부짖으며 빵을 달라고 졸라대자 어머니는 통곡하며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아이와 앓는 소녀를 함께 그러안았다. 그는 한참동안 실컷 울고나서야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운없는 목소리로 스무나문번이나 줄곧 같은 말을 되뇌이며 죽음을 청하는것이였다.

《주여, 왜 당신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나이까? 주여, 우리들을 가련하게 여기시와 어서 데려가주옵소서!》

할아버지는 비바람에 꼬인 고목처럼 움직일줄을 몰랐다. 한편 아버지는 머리도 돌리지 않고 난로와 찬장사이를 왔다갔다하고있었다.

문이 열리더니 이번에는 방데르하겐의사가 들어왔다.

《제기랄…》 하고 그는 말했다.

《초불쯤 켠다고 눈들이 멀겠소. … 어서 어서, 난 바쁜 사람이요.》

그는 볼일이 아주 많아서 버릇대로 투덜거리고있었다. 다행히도 그는 성냥을 가지고있었다. 마여는 성냥 여섯가치를 련달아 그어들고 의사에게 앓는 딸을 진찰할수 있도록 해주었다. 덮었던 이불을 벗겨놓자 소녀는 흔들리는 불빛아래 눈속에서 얼어죽어가는 가련한 새처럼 오돌오돌 떨었다. 소녀는 너무도 몸이 여위여 잔등의 혹부리만이 두드러져보였다. 그러나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야릇한 림종의 미소를 지으며 가냘픈 손은 움푹 꺼져들어간 가슴우에서 경련이 일었다. 어머니는 억이 막혀 집안살림을 거들어주고 그렇게도 령리하고 온순하던 이 애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다니 이게 옳은가고 하소연을 했다. 의사는 그 말에 버럭 성을 냈다.

《그만두시오. 이 애는 숨을 모으고있소. … 당신의 이 불행한 애는 굶어죽는단 말요. 하기는 이 애 하나만이 아니지. 난 옆집에서도 이런 애를 또 보았소. … 당신들은 모두가 나를 불러대지만 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단 말이요. 당신들을 추켜세우자면 고기가 있어야 한단 말이요.》

마여는 손가락이 뜨거워 성냥가치를 떨어뜨렸다. 어둠이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조그만 시체우에 드리웠다. 의사는 황급히 돌아가버

렸다. 어두운 방안에서는 다만 어머니의 통곡소리만이 들리였다. 그는 끊임없이 죽음을 청하고있었다. 에띠엔느에게는 그칠줄 모르는 이 서러운 하소연만이 들리였다.

《오 주여, 이제는 내 차례니 나를 데려가주옵소서.… 주여, 내 남편을, 우리 온 식구를 데려가주옵소서. 우리를 가련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데려가주옵소서!》

3

바로 그 일요일저녁 8시부터 아방따즈의 홀에는 쑤바린 한사람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늘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있었다. 어느 탄부에게나 맥주 한조끼 마실 단돈 2쑤도 없었고 영업도 이처럼 심한 불경기를 만난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래서 라스너르의 안해도 역시 매대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화가 나서 입을 다물고있었다. 라스너르는 주철난로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긴듯 불그레한 석탄연기를 바라보고있었다. 지나치게 덥힌 방들의 무거운 침묵속에서 문득 창문유리를 똑똑똑 세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쑤바린은 몸을 돌리며 일어났다. 그는 에띠엔느가 창문으로 빈 식탁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자기를 들여다보고 여러번 불러내면서 사용하군 하던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 그러나 기계운전공이 미처 문으로 다가가기 전에 라스너르가 먼저 문을 활짝 열었다. 그는 창문으로 내비치는 불빛을 받고 서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자네를 고해바칠가봐 겁이 나는가? 자네들은 밖에서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편이 더 안전할걸세.》

에띠엔느는 안으로 들어갔다. 라스너르의 안해는 그에게 맥주조끼를 점잖게 권했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손을 저으며 그것을 사양했다. 술집주인은 덧붙여말했다.

《난 자네가 어디서 숨어지내는지 오래전에 짐작했네. 만일 자네 친구들이 나를 두고 말하는것처럼 내가 앞잡이라면 난 벌써 한주일전에 자네에게 헌병들을 보냈을거네.》

《그렇게 자신을 변호할 필요는 없지.》 하고 젊은이가 대꾸했다.

《난 당신이 그런 위인이 아니라는걸 알고있소. … 견해를 달리하면서도 어쨌든 서로 존경할수는 있는것이니까.》

다시금 침묵이 흘렀다. 쑤바린은 벽에 등을 기대고 다시 의자에 앉아서 담배연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나 흥분한 그의 손가락은 불안으로 하여 떨리고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쓸어만지는 품이 이 저녁에 없는 토끼, 뽈스까의 따뜻한 털이라도 찾는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알수 없는 불안, 자신도 딱히 알수 없는 자기에게 부족한 그 무엇을 말해주는것이였다.

에띠엔느는 식탁맞은편에 앉아 드디여 말을 하였다.

《래일 보료에서는 일들을 시작한다오. 네그렐이 벨지끄사람들을 데려왔다는구려.》

《그래, 날이 어두울녘에 이리루 데려오더군.》 하고 라스너르가 선채로 중얼거렸다. 《또 싸움이나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니 그는 목소리를 높여 덧붙여말했다.

《아무렴. 여보게, 난 우리의 론쟁을 계속하고싶진 않네. 그러나 자네들이 더 고집한다면 이 모든 일은 좋지 못한 결말을 가져올걸세. 자네네가 하는 일은 신통히도 인터나쇼날의 일과 비슷하단 말일세. 그저께 나는 볼일이 있어서 릴르에 갔다가 거기서 쁠류샤르를 만났네. 그의 조직은 혼란된 모양이네.》

그는 자세히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부르죠아지를 전률케 하는 열렬한 선전자로 전세계로동자들을 쟁취하였던 협회는 허영과 야심으로 인한 내부싸움으로 약해지고 날과 더불어 무너져가고있었다. 그 싸움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승리하고 종전의 진화론자들을 추방한 후 모든것은 붕괴되였다. 임금제도를 개혁하려던 최초의 목적은 분파적알륵속에 파묻히고말았다. 한다하는 간부들은 규률을 싫어한 나머지 와해되였다. 그리하여 이제는 한때 썩어빠진 낡은 사회를 단숨에 소탕해버릴것 갈던 그 대중운동이 종국적으로 류산되리란것을 예견할수 있었다.

《쁠류샤르는 이 모든 일때문에 병이 들었어.》 하고 라스너르가 말을 이었다. 《그것으로 하여 비록 연설은 계속하고있지만 그는 완전히 발언권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는 빠리로 가겠다는거야. … 그는 우리의 파업은 실패라고 세번씩이나 나에게 거듭 말하더군.》

에띠엔느는 눈을 내리깐채 라스너르가 말을 중단하지 않고 다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전날 에띠엔느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에 대한 원망과 의심 즉 패배를 예고하는 첫 징조인 인기가 없어지는것을 감촉했다. 그의 기색은 우울했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군중자신이 저들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간데 대하여 복수하게 되는 날 이번에는 그에게 욕설을 퍼부을것이라고 예언하던 그 사나이앞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싶지 않았다.

《물론 파업은 실패했소. 그것은 나자신도 쁠류샤르만 못지 않게 알고있소.》 하고 에띠엔느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예견했던 일이요. 우리는 마지못해 파업하기로 했던거요. 우리는 회사와 관계를 끊으려고 한것은 아니요. … 다만 도취되여 여러가지 기대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은것도 아니란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재난이 떨어지기라도 한것처럼 한탄을 하고 말다툼을 할뿐이지.》

《아니, 일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하고 라스너르가 물었다. 《어째서 동무들을 일깨워주지 않어?》

젊은이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그만둡시다!… 당신에겐 당신의 견해가 있구 내겐 내 견해가 있소. 내가 당신을 찾아온것은 어쨌든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지만 나는 변함없이 생각하오. 설혹 우리가 투쟁속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은 당신과 같은 령리한 사람들의 모든 정치에보다 인민의 위업에 더 복무하리란것을 생각하오… 아, 어느 귀축같은 병사놈이 내 가슴에 총알을 박아준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 얼마나 용감한 종말이겠소!》

그의 두눈에는 눈물이 글썽해졌다. 이 부르짖음속에 영원히 자기의 고통을 잊을수 있는 피신처를 구하려는 패배자의 숨은 소원이 터졌다.

《참 훌륭하게 말했어요!》 하고 라스너르의 처가 자기의 근본적인 견해로부터 오는 경멸에 찬 시선을 남편에게 던지며 말했다.

쑤바린은 눈을 감고 신경질적으로 손더듬을 하면서 아무 말도 듣지 않는것 같았다. 가느다란 코에 이발까지 잘고 뾰족한 금발머리의 처녀같은 그의 얼굴은 피어린 환영들이 떠도는 신비로운 몽상속에서 야

생적으로 변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소리내여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전의 이야기에서 인터나쇼날에 관한 라스너르의 말만이 기억에 남아 지금 그 말에 대답하는것이였다.

《그들은 모두가 비겁쟁이요. 오직 한사람만이 그들의 조직을 무서운 파괴의 무기로 만들수 있을거요. 그러자면 의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없소.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은 또 한번 실패를 당해야 할거요.》

그가 혐오에 찬 목소리로 인간이 우매한데 대하여 계속 한탄하는 사이에 다른 두사람은 몽유병환자의 이 마음속 이야기에 당황하였다. 로씨야에서는 아무 일도 되여가지 않았다. 그가 받은 소식들은 그를 실망하게 했다. 그의 옛 동무들모두는 유럽을 전률케 하는 정객, 유명한 허무주의자로 전락되였다. 그들은 모두 승려의 자제, 소부르죠아, 장사아치들로서 민족해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전세계의 해방을 폭군을 없애는데서만 보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낡은 인류를 무르익은 곡식을 베듯이 베여버릴데 대하여 이야기하면서부터, 지어 공화국이라는 유치한 말을 하면서부터 그는 곧 옳게 인정받지 못하고 불안스럽고 금후 자기 지위에서 떨어져 실패한 혁명적세계주의공작들에게 가붙은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자로서의 그의 심장은 고동치고있었으며 그는 쓰라린 마음으로 자기가 즐겨쓰는 말을 되뇌이고있었다.

《어리석은 짓이요!… 결코 저들의 어리석은짓으로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할거요!》

그리고나서 쑤바린은 목소리를 낮추어 자기의 오랜 꿈인 박애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말하였다. 그가 자기의 지위와 재부를 버리고 로동자들의 대렬에 들어선것은 오직 집단로동에 기초한 새로운 제도가 서는것을 보려는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그는 자기 주머니의 모든 푼돈을 오래동안 마을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는 형제와 같은 애정으로 탄부들을 대했으며 그들의 의심을 호의로써 대했다. 세련된 보통 로동자다운 그의 침착한 태도와 과묵한 성미로 해서 그는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참말로 융합되지 못하고 온갖 구속을 멸시하며 허영과 향락을 떠나서 정직성을 유

지하는 의사로 해서 탄부들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인물로 남아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아침에 읽는 여러가지 신문기사에 격분하고있었다.

그는 목소리가 변하고 눈이 번쩍거렸다. 에띠엔느를 유심히 바라보고있던 그는 맞대놓고 그에게 말하였다.

《알겠나? 마르세이유의 모자제조공들이 추첨에서 당첨되여 10만프랑이 차례졌단 말요. 그래서 그들은 당장에 공채를 사가지고 이제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겠다고 내놓고 말하고있어! 이것이 당신들의 생각, 모든 프랑스로동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요. 보물을 찾아 외딴 곳에서 혼자서 그걸 리기적으로 먹겠다는거요. 당신들이 부자들을 반대하여 웨쳐대야 공연한 짓이야. 당신들자신부터 운수가 좋아 생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용기가 없거던. … 당신들이 자기 소유가 있는 한, 부르죠아지에 대한 증오가 오로지 자신들이 그들대신에 부르죠아지가 되려는 열망에 기초하고있는 한 행복할 자격이 없어.》

라스너르는 웃음보를 터뜨렸다. 두명의 마르세이유로동자가 막대한 액수의 당첨을 거절하리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어리석은것 같았다. 그러나 쑤바린은 새파랗게 낯이 질리였다. 얼굴이 이그러지고 무섭게 되였다. 그것은 인민을 몰살시키려는 광신적인 분노의 일종이였다. 그는 부르짖었다.

《당신들은 모두다 소탕되고 전복되여 쓰레기통에 들어갈것이요. 때가 되면 당신네같은 비겁쟁이들과 건달들을 일소하는 사람이 나타날게요. 들어들 두시오! 여기 내 손이 있소. 만약 할수만 있다면 나는 이 손으루 이 땅을 움켜쥐고 가루를 내여 당신네들을 모조리 폐허속에 파묻어버리고말겠어!》

《참 훌륭한 말이예요!》 하고 라스너르의 처가 언제나 그러하듯이 정중하고 리해가 된다는 낯으로 되뇌이였다.

또다시 침묵이 깃들었다. 에띠엔느는 다시금 보리나쥐의 로동자들의 말을 꺼내며 보료에서는 어떤 결정들을 채택했느냐고 쑤바린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기계공은 다시 자기 사색에 잠겨 건성 대답을 했다. 그는 단지 갱들을 경비하는 병사들에게 탄알을 나누어주었으리라는것만을 알고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신경질적으로 쓰다듬다가 익숙된 토끼의 부드럽고 포근한 털이 없음을 깨달았다.

《뾜스까는 도대체 어디 있소?》 하고 그는 물었다. 술집주인은 다시 웃음을 머금고 자기 안해를 바라보았다. 그는 잠간 당황해하다가 대답을 해주기로 작정했다.

《뾜스까요? 난로안에 있지.》

쟝렝과의 사건이 있은 이후, 분명히 상한 살진 토끼는 죽은 새끼밖에 낳지 못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군식구를 덜려고 마침 이날 그놈을 잡아서 감자를 넣고 볶아먹기로 했던것이다.

《오늘 저녁에 자네가 그 다리를 먹지 않았나. … 생각이 안 나는가? 손가락까지 빨면서 먹던데!》

쑤바린은 처음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더니 낯이 새하얗게 되고 구역질이 나서 아래턱이 이그러졌다. 그는 의지가 강했으나 두개의 커다란 눈물방울이 눈에 괴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흥분한 마음을 알아차릴 사이없이 문이 소란스럽게 열리고 솨발이 까뜨리느를 앞으로 떠밀면서 나타났다. 몽쑤의 술집이라는 술집을 모조리 돌아다니며 맥주에 취해서 허세를 부리던 솨발은 아방따즈에 들리여 옛친구들에게 자기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것을 시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들어서면서 까뜨리느에게 말했다.

《제기랄! 너도 한잔 마시라구 하지 않아. 너를 가로 보는 녀석만 있으면 당장 그놈의 목을 비틀어놓을테니!》

까뜨리느는 에띠엔느를 보자 어쩔줄을 몰라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솨발은 그를 보자 적의를 품고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라스너르부인, 두조끼만 주시우! 일을 다시 하게 된걸 축하해서 마시게.》

라스너르의 안해는 아무말없이 맥주를 따랐다. 그는 누구에게도 거절하는 일이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술집주인도, 다른 두사람들도 못박힌듯이 움직일줄을 몰랐다.

《누가 나보고 밀정이라고 그랬는지 난 알아.》 하고 솨발은 거만하게 말을 이었다. 《난 그들이 내앞에서 맞대놓구 다시한번 그따위 말을 했으면 하오. 그러면 완전히 해명을 할수 있겠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머리를 돌려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건달을 부리고있지만 건달을 부리기 싫어하는 사

람도 있소.》 하고 그는 더 큰소리로 말을 이었다. 《숨길 필요가 없으니 하는 말인데 난 래일 데벨랭의 더러운 갱을 버리구 12명의 벨지끄인들과 함께 보료갱에 들어가오. 난 그 사람들을 인솔할 위임을 받았는데 그건 나를 알아주기때문이요. 누구든지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말을 하시오. 우리 의논해봅시다.》

그는 자기가 싸움을 걸고들려는데 사람들이 멸시의 침묵으로 대하는것을 보자 까뜨리느에게 행패를 했다.

《마시지 않구 견딜것 같애, 빌어먹을것!… 일을 거절하는 더러운 놈들의 죽음을 위해서 나와 잔을 찧잔 말이다!》

까뜨리느는 잔을 맞찧었지만 어찌나 손이 떨리였던지 잔부딪치는 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쑈발은 주머니에서 은화를 한줌 꺼내서 취한김에 자랑삼아 펴놓았다. 이 돈은 제땀을 흘려서 번 돈인데 이 건달들에게 10쑤라도 있으면 보여달라고 도전해나섰다. 동무들의 태도에 부아가 난 그는 인신공격에로 넘어갔다.

《흥! 그러니까 두더지들은 밤마다 나다니는구나! 강도들을 만날수 있는걸 보니 헌병들은 틀림없이 잠자리에 든게로군.》

에띠엔느는 매우 침착하고도 단호한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봐, 난 너같은 녀석은 시끄럽다.… 너야 밀정이구말구. 네 돈에서 아직도 변절의 썩은 냄새가 풍기거던. 난 너같은 변절자를 건드리기도 징그럽다만 그러나 하는수가 없지! 난 너의 적수다. 이미 오래전에 둘중 하나는 죽었어야 했어.》

쑈발은 두주먹을 부르쥐였다.

《좋다! 너의 부아를 돋구자니 이 말을 하게 된거다. 비렬한 자식 같으니!… 너 혼자서 해보겠단 말이지. 좋다, 그럼 나에게 한 그 모든 비루한 짓에 대해서 네가 값을 치르어라!》

까뜨리느는 애원하듯 두손을 쳐들고 그들사이로 뛰여들었다. 그러나 두 사나이는 누구도 그를 비켜세울 필요가 없었다. 그자신이 결투는 불가피하다는것을 리해하고 천천히 물러섰던것이다. 벽에 기대서서 말이 없는 까뜨리느는 어떻게 공포에 질렸는지 더는 떨지도 않고 오직 눈이 둥그래서 자기때문에 싸우려고 하는 두 사나이를 바라볼뿐이였다.

라스너르부인은 매대우의 맥주잔들이 깨질 념려를 하고 천진하게 그

것들을 치웠다. 그리고나서 그는 의자에 다시 앉아 무례하게 호기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옛동무들이 달려들어 서로 목을 조이는것을 방관시할수는 없어서 라스너르가 껴들려고 했다. 그러나 쑤바린은 그의 어깨를 붙잡고 식탁쪽으로 끌고가서 일렀다.

《이건 당신에게 상관없는 일이요.… 저들중 한사람은 무용지물이니까 강한자가 살아남을게요.》

쇄발은 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주먹을 허공에 내질렀다. 그는 키가 컸지만 동작이 서툴었다.

그는 얼굴을 면바로 겨누고 마치 두개의 검을 쓰듯이 량손으로 연거퍼 타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경군앞에서 우쭐대기나 하듯이 쉴새없이 말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는데 그 욕설은 그자신을 흥분시키는것이였다.

《이 빌어먹을 녀석, 내 네놈의 코를 터뜨려놓구말테다! 난 바로 네 코를 쥐여박겠다. 자 어서 내대라, 그 상판을 내. 그 상판을 돼지먹이로 만들테다. 그래두 화냥년들이 네뒤를 쫓아다니나 보자!》

에띠엔느는 이를 악물고 묵묵히 몸을 도사리고 정확한 자세를 취하면서 두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막고있었다. 그러다가 틈을 엿보아 용수철처럼 두주먹을 내밀어 무서운 타격을 가했다.

처음에는 둘이 다 상대방에게 큰 타격들을 주지 못했다. 하나는 떠들썩하게 주먹을 휘두르고 상대방은 랭정하게 대기하다나니 싸움은 오래 끌었다. 의자가 나자빠졌다. 바닥타일에 깐 흰모래가 투박한 신들밑에서 짓뭉개졌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동안 숨을 헐떡거렸다. 그들의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리였으나 그들의 상기된 얼굴은 마치 속에서 불이 이글거리는듯 부풀어오르고 그들의 밝은 눈확에서는 그 불길이 내비치는것 같았다.

《자!》 하고 쇄발은 부르짖었다. 《뼈도 못 추릴줄 알아라!》

정말로 그는 마치 도리깨로 후려갈기듯이 적수의 어깨를 쥐여질렀다. 에띠엔느는 앗소리가 나가는것을 꾹 참았다. 단지 근육이 얻어맞는 퍽 소리가 났을뿐이였다. 그는 곧바로 앙가슴에 본때있게 대응해서 타격을 가했다. 쇄발은 줄곧 염소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몸을 피했기망정이지 가슴에 구멍이 뚫어졌을것이다. 하지만 그는 왼쪽옆구리를 얻어맞았다. 어떻게도 타격이 강했던지 그는 숨이 막혀 비틀거

렸다. 그는 아파나서 두팔에 맥이 탁 풀렸다. 이에 약이 오른 그는 짐승처럼 에띠엔느에게 달려들어 신뒤축으로 배를 차눕히려고 했다.

《가만있거라.》 하고 그는 헐떡거리면서 중얼거렸다. 《네놈의 밸을 빼놓구말테다!》

에띠엔느는 그의 발길질을 피했다. 그러나 그는 결투의 규칙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는데 격분하여 드디여 입을 열었다.

《닥쳐라! 이 개자식아, 더는 발질을 말아. 빌어먹을 놈! 또 그러면 의자루 네놈을 까눕히겠다!》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분개한 라스너르는 또다시 참견하려고 했으나 안해가 엄한 눈초리로 그를 제지했다. 이 두 손님이 자기 집에서 결산을 짓지 못할 까닭이 있느냐는 눈치였다. 라스너르는 그들중 누구 하나가 불우에 처박히지 않을가 념려해서 난로앞에 막아섰다. 쑤바린은 언제나와 같이 태연자약하게 담배를 말았지만 불을 붙이는것을 잊었다. 까뜨리느는 벽에 기대선채 꼼짝하지 않고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허리에 올리고 비틀면서 발작적으로 자기의 옷을 쥐여뜯었다. 그는 소리를 치지 않으려고 안깐힘을 썼다. 그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써 그중의 한사람을 죽일수 있다고 생각한것이였다. 하긴 그는 누가 더 자기에게 귀중한 사람인지 스스로도 알수 없을만치 망연자실해있었다.

이윽고 쇄발의 기운이 진했다.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무턱대고 주먹을 휘둘렀다. 에띠엔느는 악이 오를대로 올랐지만 모든 타격을 거의 피하면서 여전히 방어를 하고있었다. 몇번인가 스쳐맞았다. 그는 한쪽귀가 째지고 목은 손톱에 할퀴였다. 얼마나 아파났던지 이번에는 에띠엔느가 정확하게 무서운 타격을 하나 가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쇄발은 한번 껑충 비켜서서 가슴팍에 들어오는 주먹을 피할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세가 낮아져 에띠엔느의 주먹이 그의 면상에 가닿아 코를 짓뭉개고 한쪽눈을 쥐여박았다. 코피가 쏟아지고 맞은 눈이 퉁퉁 부으면서 시퍼래졌다. 코피가 흘러 앞이 안 보이고 호된 타격에 머리가 뗑해진 가련한 쇄발은 마구 두손을 허우적거렸다. 이 순간 다시 가슴팍에 면바로 한대를 맞은 그는 아주 나가떨어지고말았다.

쇄발은 석회가마니를 부리는듯 쿵 소리를 내며 뒤로 나자빠졌다.

에띠엔느는 서서 기다렸다.
《일어나라! 아직도 생각이 있거든 그냥 해보자.》
정신이 떨떨해진 솨발은 얼마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는 바닥에서 꿈틀꿈틀하더니 팔다리를 폈다가 간신히 몸을 웅크리고는 한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그는 슬그머니 주머니를 뒤지더니 무엇인지 꺼내들었다. 그 다음 일어서자 사납게 고함을 치면서 다시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것을 본 까뜨리느는 자기도 모르게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큰소리로 웨쳤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소리를 지른것에 놀랐다. 마치 자기스스로도 모르던 사랑하는 사람을 고백한것 같았다.
《조심해요! 저 사람이 칼을 쥐였어요!》
에띠엔느는 팔로 겨우 첫 타격을 피할수 있었다. 회양목손잡이에 구리쇠로 든든히 고리까지 한 넙적한 칼날에 그의 뜨개옷이 푹 찢어졌다. 그는 벌써 솨발의 손목을 틀어쥐였다. 그들사이에는 필사적인 싸움이 벌어졌다. 에띠엔느는 솨발이 자기를 찌르기 위해 빼내려고 하는 그 손을 놓아주기만 하면 자기는 죽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흉기는 차츰차츰 밑으로 내려갔다. 두 적수는 힘을 쓰기에 맥이 풀렸다. 에띠엔느는 둬번 칼날이 선뜩 몸에 닿는것을 감촉했다. 그는 안깐힘을 써야 했다. 솨발의 손목을 어찌나 세차게 틀어쥐였던지 솨발은 손가락에 맥이 풀리여 칼을 떨어뜨렸다. 두사람은 땅바닥에 딩굴었다. 이 찰나에 에띠엔느는 칼을 움켜쥐고 이제는 자기가 그것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한 무릎으로 솨발을 깔고앉아 그의 목을 찌르려고 했다.
《에끼 이 망할놈의 변절자야, 이젠 내가 네놈을 처단할테다!》
그 어떤 끔찍한 내심의 목소리가 귀가 멍멍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배속에서 올라와 그의 머리속에서 망치질하듯 울렸다. 그는 불시로 죽이고싶은 욕망, 피를 보고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작해본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취하지 않았다. 그는 이 타고난 악습과 싸우고있었다. 그는 폭행을 저지를 지경에서 미쳐날뛰는 미친자마냥 실망하여 몸을 부르르 떨었다. 드디여 에띠엔느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칼을 자기뒤로 내동댕이치며 목갈린 소리로 내뱉았다.
《냉큼 일어나 물러가거라!》
이번에는 라스너르가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한대 얻어맞을가봐

두려워서 그들사이에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내댈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살인이 나는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매대앞에 꼿꼿이 서있는 안해가 항상 너무나 미리 소리를 지른다고 주의를 줄만큼 분개했다. 쑤바린은 다리를 칼에 찔리울번 하고 마침내 담배불을 붙일념을 냈다.

모든것이 결국 끝난셈인가? 까뜨리느는 아직도 망연자실하여 두사람을 바라보고있었다. 두사람이 다 살아남은것이다.

《썩 물러가라!》 하고 에띠엔느가 되뇌였다. 《물러가래두, 안가면 숨통을 끊어버리구말테다!》

솨발은 일어나서 그냥 흘러내리는 코피를 손등으로 훔치고는 피투성이가 된 턱주가리며 눈까지 퉁퉁 부은 몰골을 하고 발을 질질 끌면서 패배로 인한 울분을 안고 나갔다. 까뜨리느는 무심코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자 솨발은 허리를 쭉 펴더니 악에 받쳐 욕설을 퍼부었다.

《오지 말아! 오지 말어! 저 녀석이 네 마음에 드는바에야 같이 살려무나, 더러운 년! 그리구 네 목숨이 아깝거든 다시는 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

그는 악이 올라 문을 쾅 하고 닫았다. 미지근한 홀안에 무거운 침묵이 드리웠다. 이제는 난로에서 빠직빠직 석탄이 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땅바닥에는 뒤집힌 의자가 나딩굴고있었다. 피가 흥건히 배여있었다. 그 피는 돌바닥에 깐 모래에 한방울한방울 잦아들고있었다.

4

에띠엔느와 까뜨리느는 라스너르의 술집에서 나와 아무말없이 걸었다. 눈석이가 시작되였다. 눈을 시꺼멓게 더럽히기만 하고 녹이지는 못하는 차겁고 느린 눈석이였다. 흐릿한 높은 하늘에는 사나운 바람에 휼날려 넝마쪼각처럼 마구 찢긴 검은구름뒤에 둥그런 달이 가리워있었다. 그런데 땅우에는 바람소리 하나없이 애오라지 지붕에서 고르롭게 떨어지는 물방울소리와 점차 녹기 시작한 눈덩이들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뿐이였다.

에띠엔느는 자기한테 몸을 떠맡긴 녀인과 나란히 걸어가면서 점직해서 할말을 찾지 못하였다. 까뜨리느를 차지하고 레끼아르갱에 함께 누웠으면 하는 생각이 그에게는 어리석은것 같았다. 에띠엔느는 까뜨리느를 마을의 저의 부모한테 데려다주려 했으나 처녀는 공포에 떨며 그것을 거절했다. 아니다, 아니다, 수치스럽게 부모를 내버린 자기가 그들에게 다시 부담을 끼치기보다는 아무렇게 되여도 좋다! 두사람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창이 도랑처럼 흐르는 길을 정처없이 걸어갔다. 처음에 그들은 보료쪽으로 내려가다가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버럭산과 운하사이를 걸어갔다.

《어차피 어데서든 자야 하지 않아.》 하고 드디여 에띠엔느가 말을 했다. 《나한테 방이 있다면 기꺼이 데리고가겠는데…》

그러나 야릇하게도 수줍은 생각이 들어서 그는 말을 다 맺지 못했다. 자기들의 지난 일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지난날에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던 열렬한 소원과 미묘한 관계, 함께 걷는데 방해되던 수집음이 회상되였다. 그는 이처럼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점차 심장이 새로운 욕망으로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니 이 처녀를 열렬히 그리고있는것이 아닌가? 까뜨리느가 가스똥 마리갱에서 귀뺨을 치던 일도 이제와서는 그를 원망하게 하지 않았고 도리여 흥분시켜주었다. 에띠엔느는 처녀를 레끼아르로 데려가려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고 헐하게 이루어질수 있는것으로 되여 놀랐다.

《이봐, 어떻게 결정지어야 하지 않어, 어디로 데려다줄가?… 나하구 같이 가고싶지 않다면야, 그건 내가 싫단 말이지?》

처녀는 나막신을 신은 발이 길에 패인 바퀴자리에 미끄러져서 뒤떨어져 천천히 에띠엔느의 뒤를 따랐다. 처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을 뗐다.

《정말 내겐 괴로움이 너무 많아요. 날 더 괴롭히지 말아줘요. 이제와선 나에게도 좋아하는 사나이가 있고 당신도 당신대로 다른 녀자와 관계를 맺고있는데 그런 말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까뜨리느가 무께뜨를 념두에 두고 한 말이였다. 그는 에띠엔느가 그 녀자와 관계를 가지고있는것으로 믿고있었다. 두주일째나 그런 소문이 돌고있기때문이였다. 에띠엔느는 그렇지 않다는것을 다짐했으나 까뜨리느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을뿐이였다. 까뜨리느는 에띠엔느가

무께뜨를 만난 날 밤 그들이 서로 힘껏 입맞추던것을 상기했던것이다.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야. 유감스럽지 않아!》 에띠엔느는 우뚝 멈춰서면서 낮은 소리로 다시 이었다. 《우리는 서로 아주 잘 리해할수 있었는데!》
까뜨리느는 가볍게 몸을 떨며 대꾸했다.
《그걸 후회하진 마세요. 당신이 손해볼것은 별로 없어요. 내 몸은 2쑤짜리 빠다만큼도 크지 못한 허약자임을 안다면. 몸이 어찌나 한심한지 녀자구실을 할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털어놓고 말하였는데 여태 성숙한 몸이 못됨으로 하여 자기자신을 책하는것 같았다. 남자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몸은 도리여 위축되고 소녀로밖에 인정받지 못하는것이다. 아이라도 낳을수 있다면 얼마쯤 변명으로는 되겠지만.
《참 안됐군!》 하고 에띠엔느는 깊은 련민의 정에 휩싸여 속삭이였다. 그들은 버럭산밑 커다란 석탄더미의 그늘밑에 와있었다. 달이 검은구름속에 가리워져서 그들은 피차의 얼굴도 알아볼수 없었다. 그들은 몇달을 두고 그처럼 애타게 바라던 입을 맞추려고 서로 입술을 찾았고 숨결은 하나로 화합이 되였다. 그런데 갑자기 달이 또다시 얼굴을 내밀어서 머리우의 달빛으로 허옇게 보이는 바위우에 보료탄갱을 감시하는 보초가 우뚝 서있는것이 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처 입을 맞추지 못했다. 수치감으로 해서 그들은 떨어졌다. 그 묵은 수치감에는 분노와 막연한 혐오감 그리고 크나큰 우정이 깃들어있었다. 발목까지 진창에 빠지면서 그들은 무거운 걸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럼 결심했어? 싫단 말이지?》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그래요.》 하고 까뜨리느는 대답했다. 《처음엔 솨발이 그러더니 이번엔 당신이 또 그러는군요. 당신 다음에는 그 누가 또?… 필요없어요. 난 그런것에 진절머리가 나요. 조금도 즐겁지 않아요.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은 또 말 한마디 서로 하지 않고 잠자코 백걸음쯤 더 걸어나갔다.
《자기가 가는 곳이나 알고있어?》 하고 에띠엔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런 밤중에 당신을 밖에 그냥 그대로 버려둘수는 없어.》
까뜨리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집으로 가겠어요. 솨발은 어쨌든 내 남편이예요. 그의 집외에 다

른 어데서 잘수 없어요.》

《하지만 그자식은 죽으라고 당신을 때리지 않겠어?》

다시금 침묵이 흘렀다. 까뜨리느는 할수 없다는듯이 어깨를 추슬렀다. 그렇다, 그는 자기를 때릴것이다, 그러다가 때리기에 지치면 가만있을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지처럼 거리를 헤매는것보다는 나을것이 아닌가! 그리고 까뜨리느는 따귀를 맞는데 익숙되였다. 까뜨리느는 처녀들의 열의 여덟명은 자기보다 더 불행할수 있다는것으로 자신을 위안하고있었다. 그 사나이가 언제든 그와 결혼을 해준다면 그것은 그 사나이로서는 매우 친절한것이다.

어느덧 에띠엔느와 까뜨리느는 몽쑤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는데 목적지가 가까와옴에 따라 그들은 더욱 말수가 적어졌고 마치도 이미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같지 않았다. 에띠엔느는 까뜨리느가 또다시 솨발에게 돌아가려는게 가슴이 아팠으나 그를 말리자면 어떻게 타일러야 할지를 몰랐다. 그는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다. 그가 무슨 좋은 안을 내놓을수 있단 말인가? 초라하고 항상 도망쳐다녀야 하는 존재, 병사의 총알이 그의 머리를 뚫으면 래일이 없는 밤인것이다. 다른 고통을 가져오지 말고 겪어야 할 고통을 고스란히 참아가는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에띠엔느는 고개를 푹 숙이고 까뜨리느를 자기 사내의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다방 삐께뜨에서 20메터쯤 떨어진 작업장모퉁이에서 처녀는 그를 멈춰세우고 《더 오지 마세요. 그가 당신을 보면 또 비렬한 일이 생길거예요.》 하고 말했다.

교회당에서 11시 종이 울리고 다방은 문을 닫았으나 틈새로 불빛이 새여나왔다.

《잘 가요.》 하고 그 녀자는 속삭였다.

처녀가 그에게 손을 내밀자 에띠엔느는 그것을 꼭 쥐고 놓지 않았다. 까뜨리느는 그와 헤여지려고 힘겹게 손을 빼야만 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작은 문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그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고있었다.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집을 바라보며 거기서 일어날 일을 근심에 잠겨 상상해보았다. 그는 귀를 기울이고 매를 맞는 처녀의 웨치는 소리가 이제 곧 들려오리라는 생각에서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 집은 고요했고 어둑컴컴했다. 그는 2층의 한 창문에만 불빛이 비치는것을 보았다. 이윽고 그 창문이

열리자 에띠엔느는 길쪽으로 몸을 숙인 가냘픈 그림자를 알아보고 앞으로 더 다가갔다.

까뜨리느는 들릴락말락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난 자리에 눕겠어요. … 제발 돌아가요!》

에띠엔느는 돌아섰다. 눈석이가 더 심해져서 큰비가 내릴 때처럼 지붕에서는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벽과 울바자들, 공장밖의 희미한 건물들이 습기를 머금고있었다. 처음에 에띠엔느는 레끼아르로 향했다. 그는 피로와 쓸쓸함으로 해서 아주 녹초가 된듯싶었으며 애오라지 땅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의 생을 끝마치고싶은 생각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윽해서 그는 보료탄갱을 상기하고 래일 입갱할 벨지끄로동자들의 일이며 동료들이 병사들이 나타난데 격분하면서 저들의 탄갱에 외국인들을 넣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하고있는 일들을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금 운하를 따라 눈 녹은 물웅뎅이에 빠지면서 계속 걸어갔다.

그가 다시 버럭산으로 다가갔을 때 숨었던 달이 다시 나타나서 사위는 아주 훤해졌다. 에띠엔느는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높은 하늘에서는 구름이 휘몰아치는 바람에 몰리여 줄달음쳐 지나가고있었다. 더욱 엷아진 그것들은 달을 지나며 뿌연 물기로 하여 희읍스름해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달은 언뜻언뜻 자취를 감추는듯 하다가는 다시 나타나군 했다.

그 밝은 빛이 눈에 가득찬 에띠엔느는 머리를 수그렸다. 그때 버럭산우에서 일어나고있는 광경을 보고 그는 멈춰섰다. 추위로 해서 몸이 언 보초가 거기서 오락가락하고있었는데 그는 마르쉬엔느쪽으로 스물다섯걸음을 걸어갔다가는 몽쑤쪽으로 되돌아서군 했다. 희미한 하늘을 배경으로 병사의 검은 영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총검이 달빛을 받아 그의 머리우에서 번뜩거렸다. 그러나 에띠엔느의 관심을 끈것은 다른것이였다. 그것은 바람이 사나운 밤에 본느모르가 몸을 피하군 하던 오두막뒤에서 얼씬거리는 하나의 그림자, 무엇인가를 노리고 살금살금 기여가는 굶주린 짐승같은 그림자였다. 길고 연약한 등이 흡사 수달과 같은것으로 미루어 에띠엔느는 그것이 쟝렝이라는것을 인차 알아보았다. 보초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 졸망구니악당이 뭣

인가 좋지 않은 일을 꾀하고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한없이 병사들을 증오했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총을 가지고 이곳에 파견되여온 이 살인자에게서 언제면 탄부들이 구원되겠는가고 줄곧 물어왔었다.

순간 에띠엔느는 소년이 어리석은짓을 하지 못하게 그를 불러세우는것을 망설였다. 달이 가리워졌다. 에띠엔느는 쟝렝이 당장 뛰여오를듯이 몸을 쪼크리고앉은것을 보았다. 그러나 달이 또다시 나타나서 소년은 계속 꼭같은 자세를 취하고있었다. 보초는 매번 오두막까지 바싹 다가갔다가는 되돌아서군 했다. 구름이 어둠을 몰아오자 쟝렝은 도적고양이처럼 병사의 어깨에 와락 달라붙어서 그의 목에다 단도를 찔렀다. 털깃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소년은 두손으로 단도의 손잡이를 꽉 쥐고 온몸의 무게를 주어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자주 목장뒤에서 닭을 붙잡아 멱을 따군 했었다. 이 일이 어찌나 빨리 진행되였던지 야밤에 숨막혀 부르짖는 소리와 총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에띠엔느는 몹시 놀라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바라보았다. 그는 부르고싶었으나 가슴이 마구 짓눌리운것 같았다. 버럭산웃쪽은 텅 비였고 미친듯이 밀려가는 구름밑에는 아무런 그림자도 더는 보이지 않았다. 드디여 에띠엔느는 우로 달려올라갔다. 거기에는 두팔을 벌리고 나자빠진 시체의 옆에 쟝렝이 엎드려있었다. 눈우에는 붉은 바지와 재빛외투가 밝은 달빛을 받아 뚜렷이 드러나보였다. 한방울의 피도 보이지 않았으며 죽은 사람의 목에는 아직 단도가 칼자루까지 깊숙이 박혀있었다.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에띠엔느는 리성을 잃고 소년을 주먹으로 쳐서 시체옆 땅우에 쓸어눕혔다.

《왜 이런짓을 했어?》 에띠엔느는 정신없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쟝렝은 겨우 몸을 일으키더니 고양이마냥 여윈 등을 구부리고 벌벌 기여갔다. 그의 큼직한 두귀와 앞으로 쑥 나온 턱이 떨리고 푸른 두눈이 번뜩거렸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못된짓에 몸서리를 쳤다.

《빌어먹을것, 무엇때문에 이런짓을 했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싶더군요.》

쟝렝의 대답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는 온 사흘동안이나 병사를 죽이고싶은 생각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는 너무나 그런 생각에 골똘해서

뒤통수가 아팠다. 자기들의 고향땅에서 탄부들을 박해하고있는 이 돼지같은 병사들에게 손대기를 꺼려할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숲속에서 있은 열렬한 론쟁이며 탄갱들에서 울려오던 파괴와 살륙에 대해서 웨치던 소리중에서 쟝렝의 머리에 대여섯마디의 말들이 남아있어서 그는 혁명놀음을 하는 소년마냥 그 말들을 되뇌여왔었다. 실지로 그는 그 이상 아무것도 몰랐다. 누구도 그를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지 않았다. 밭에서 양파를 훔쳐오고싶은 생각이 생기듯이 그러한 욕망이 스스로 생겼던것이다.

에띠엔느는 이 어린이의 의식속깊이에 저도 모르게 죄악이 자라나고있는데 공포를 느끼고 무모한 짐승을 대하듯이 소년을 발로 걷어찼다. 그는 보료초소에서 병사의 비명을 듣지 않았을가 두려워하면서 구름속에서 달이 나타날 때마다 갱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사위는 고요했다. 그래서 에띠엔느는 몸을 수그리고 식어가는 병사의 손을 만져보면서 이미 고동을 멈춘 심장에 귀를 기울였다. 단도는 《사랑》이라는 한마디의 점잖은 좌우명이 검은 글자로 새겨져있는 뼈로 만든 자루만이 보였다.

에띠엔느는 죽은 사람의 몸으로부터 얼굴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자 그는 뜻밖에도 그 병사가 신입병인 젊은 쥴르라는것을 알았다. 에띠엔느는 어느날 아침 그 병사와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다. 에띠엔느는 연한 밤빛머리칼을 한 량순하고 주근깨투성이의 그 얼굴을 들여다보자 깊은 련민의 정에 사로잡혔다. 크게 부릅뜬 푸른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에띠엔느와 이야기를 하던 때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시선으로 지평선 저쪽에 있는 고향땅을 찾고있는듯 했다. 그에게 해빛이 흘러넘치는 고장으로 여겨지던 쁠로고프란 곳은 대체 어디 있을가? 멀리멀리 떨어져있을것이다. 폭풍우가 일고있는 이밤에 저 멀리 바다가 노호했다. 높은 하늘에서 구름을 몰아가는 저 바람은 그의 고향 벌판을 지나왔으리라. 거기에는 어머니와 누이—두 녀인이 바람에 벗겨진 머리수건을 쥐고서서 수마일이나 떨어져있는 곳에서 이 청년이 이 시각 무엇을 하고있는가를 볼수 있기나 한듯이 역시 먼곳을 바라보고있을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그를 영원히 기다려야 할것이다. 부자들때문에 가난뱅이들이 서로 죽이게 된다는것은 얼마나 통분할 일인가.

그러나 시체는 치워야 했다. 처음에 에띠엔느는 그를 운하에 내던지려고 생각했으나 거기에 버리면 후에 시체가 발견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만두었다.

에띠엔느의 불안은 극도에 이르렀다. 몇분이 지났다. 어떻게 할것인가? 문득 그는 시체를 레끼아르까지 날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영원히 묻어둘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리 와.》 하고 에띠엔느는 쟝렝에게 말을 건늬였다.

소년은 의심쩍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싫어요. 날 때리려는거지요. 그리고 내겐 일이 있어요. 잘 있어요.》

실지로 쟝렝은 보료에 예비로 쌓아놓은 통나무밑의 어느 한 으슥한 곳에서 리디와 베베르와 만나기로 되여있었다. 그들은 벨지끄인들이 입갱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할 때 자기들도 거기 한몫 끼울 생각에서 밖에서 자기로 결심했던것이다.

《이봐.》 하고 에띠엔느가 다시 말했다. 《얼른 이리 와. 그렇지 않으면 병사를 불러서 네 머리를 잘라버리겠다.》

쟝렝이 드디여 다가오자 에띠엔느는 자기의 손수건을 길게 꼬아서 상처에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칼을 그냥 꽂아놓은채 병사의 목을 꼭 동여맸다. 눈이 녹고 땅우에는 피가 고인것도, 싸운 흔적도 남지 않았다.

《다리를 잡아!》

쟝렝은 죽은 사람의 다리를 들었고 에띠엔느는 먼저 총을 등뒤에 메고 어깨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이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천천히 버럭산에서 내려갔다. 다행히도 달은 가리워져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운하를 따라 걸어갈 때 달은 다시금 훤하게 내비치였다. 초소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것은 기적이였다. 에띠엔느와 쟝렝은 잠자코 갔으나 몹시 서둘렀다. 그러나 시체가 흔들리여서 걷기 거북했다. 100메터씩 걸어가서는 시체를 땅우에 내려놓고 숨을 돌려야 했다. 레끼아르골목길모퉁이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그들은 섬찍하였다. 그들은 벽뒤로 몸을 숨기고 겨우 순찰병을 피하였다. 다시 걷다가 또다시 어떤 사나이를 만났는데 그는 술이 잔뜩 취하여 욕지거리만 하면서 멀리 갔다. 드디여 그들은 묵은 탄갱까지 이르렀다. 그

들은 땀에 흠뻑 젖고 어찌나 놀랐던지 이발을 떨떨 맞쪼았다.

에띠엔느는 사다리로 시체를 내려보내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였다. 쟝렝은 밖에 남아서 시체를 미끄러뜨려야 했고 에띠엔느는 가름대들이 부러진 첫 두층의 사다리를 시체와 함께 내려가야 했다. 그다음에도 그는 사다리마다에서 이와 꼭같은 일을 하며 먼저 아래로 내려가서 팔로 시체를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쉴새없이 시체가 자기의 머리에 떨어지는것 같은감을 느끼면서 30개의 사다리 210메터를 내려갔다. 총이 그의 등가죽을 벗겨놓았다. 에띠엔느는 쟝렝을 시켜서 자기가 아껴둔 초꽁다리를 가져오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좁은 통로에서 초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도리여 방해로 될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저탄장에 이르렀을 때에 숨이 턱에 닿은 에띠엔느는 초꽁다리를 가지러 소년을 보내였다. 그리고 자신은 어둠속의 시체옆에 앉아서 소년을 기다렸다. 그는 심장이 터지는것 같았다.

쟝렝이 초불을 가지고 돌아오자 에띠엔느는 그와 의논했다. 소년은 이 묵은 작업장들을 샅샅이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사람이 빠져나갈수 없는 그런 짬까지 알고있었다. 그들은 시체를 페허로 된 갱도의 복잡한 길로 약 1키로메터 끌고갔다. 드디여 천정이 낮아졌다. 그들은 한절반 부러진 동발로 유지되고있는 무너져내린 암반밑에서 무릎을 꿇었다. 거기는 그 어떤 길죽한 궤짝과 같았다. 그들은 어린 병사를 관속에 넣듯이 거기에 눕혔다. 그리고 그의 옆에 총을 놓은 다음 자신들이 파묻히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발뒤축으로 힘껏 차서 동발을 부러뜨렸다. 곧 암반이 무너져내려서 그들은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여나올 시간적여유를 겨우 얻었다. 에띠엔느가 볼 필요가 있어 뒤돌아섰을 때 천장이 계속 내려앉으면서 큰 압력으로 시체를 천천히 내리누르는것이 보였다. 그리하여 거기에 더는 아무것도 남은것이 없고 큼직한 땅덩어리가 있을뿐이였다.

지칠대로 지친 쟝렝은 자기 소굴에 돌아와서 중얼거리면서 건초우에 몸을 던졌다.

《젠장! 한시간쯤 자자! 걔들은 좀 기다리라지.》

에띠엔느는 거의다 타버린 초꽁다리의 불을 껐다. 그도 역시 아주 녹초가 되여버렸지만 좀처럼 잠들수 없었다. 악몽과도 같은 괴로운 생

각들이 마치 메질을 하듯이 그의 머리를 두드렸다. 어째서 자기는 솨발을 단도를 들고 깔고앉아서도 그를 찌르지 못했을가? 그런데 어째서 이 어린 아이는 이름도 모르는 병사를 찔러죽였는가? 이것은 에띠엔느의 혁명적신념과 사람을 죽일수 있는 대담성과 그럴 권리를 뒤집어놓았다.

정말 그는 겁쟁이던가? 쟈렝은 건초우에서 잠들어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것은 술취한 사람이 코를 고는 소리와 같았다. 쟈렝은 마치도 살인행위의 취기를 잠으로 깨게 하려는듯 했다. 에띠엔느는 노여움과 혐오감을 느꼈다. 그는 쟈렝이 어떤짓을 했는지를 아는 처지로서 그의 옆에 있는것이 괴로왔다.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의 바람이 지나갔다. 가벼운 스침소리와 통곡소리가 땅속에서 울려오는것 같았다. 저기 암반밑에 총과 함께 묻혀있는 젊은 병사의 영상이 머리에 자꾸 떠올라서 에띠엔느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머리칼이 곤두섰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였다. 온 탄갱이 무슨 소리들로 가득차있는듯 했다. 그래서 에띠엔느는 다시 초불을 켜고 희미한 불빛으로 갱도에 아무도 없다는것을 확인하고서야 진정했다.

그는 여전히 번민속에 모대기면서 타들어가는 초불심지에서 눈을 떼지 않고 15분동안 더 생각에 잠겨있었다. 별안간 빠직빠직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심지의 불이 꺼지고 모든것이 어둠속에 다시 잦아들었다. 그는 또다시 오싹하였다. 그는 쟈렝이 그토록 크게 코를 골지 못하도록 한대 쥐여박았어야 했을것이였다.

쟈렝이 옆에 있는것이 어찌나 참을수 없었던지 그는 바깥이 그리워 마치도 자기 등뒤에 유령이라도 쫓아오는듯이 서둘러 갱도를 내달려 사다리를 통해서 우로 올라갔다.

드디여 에띠엔느는 폐허의 한복판에 나와서 한껏 숨을 들이쉬였다. 그가 사람을 감히 죽일수 없다면 그자신이 죽어야 한다. 이전에도 그에게서 피뜩 떠올랐던 죽음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되살아나 최후의 희망처럼 그의 뇌수에 뿌리박았다. 용감하게 죽는것, 혁명을 위해 죽는것—이것이 모든것을 결말지을것이며 좋건나쁘건 이것이 마지막총화로 될것이다. 그리고 더는 골치아프게 생각할것이란 없을것이다. 만약에 동무들이 벨지끄사람을 공격하면 에띠엔느는 그들과 함께 제일선에 설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총에 맞아죽을것이다. 그는 굳건한

걸음걸이로 되돌아섰다. 그리고 보료탄갱부근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시계가 2시를 쳤다. 탄갱을 경비하는 초소로 된 감독들의 방에서는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초가 사라져 이 초소가 발칵 뒤집혔다. 중대장을 깨우러 사람을 보내고 현장을 세밀히 조사한 끝에 드디여 병사가 도주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둠속에 숨어있던 에띠엔느는 젊은 병사에게서 들은 공화주의자인 이 중대장에 대해서 상기했다. 어쩌면 그를 설복해서 인민의 편으로 넘어오게 할수도 있지 않을가? 군대가 총부리를 돌리면 이것은 부르죠아지에게 죽음을 주는 신호로 될것이다. 새로운 공상이 에띠엔느를 사로 잡았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더는 생각하지 않고 두어깨에 눈석이의 이슬비를 맞으면서 몇시간 동안 진창속에 서있었다. 그는 아직 승리할수 있다는 기대로 해서 흥분해있었다.

5시까지 에띠엔느는 벨지끄사람들을 엿보았다. 그다음에 그는 바로 보료에 벨지끄사람들을 재운 회사의 간교한 기도를 알게 되였다. 입갱이 시작되였다. 그러나 정찰초소에 서있던 뒈 쌍 꺄랑뜨마을의 몇명의 파업로동자들은 동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것인가, 말것인가 하며 망설이고있었다. 그러자 에띠엔느가 그들을 돌려세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쏜살같이 달려갔다. 한편 에띠엔느는 버럭산뒤에 있는 운하의 배끄는 길에서 기다렸다.

6시가 되자 흙빛하늘이 희읍스름해지고 불그레한 노을이 비꼈다. 이때 에띠엔느는 오솔길에서 길다란 승려옷을 가느다란 다리우로 걷어올리고 나오는 랑비에신부를 보았다. 그는 월요일마다 탄갱너머에 있는 수도원에 아침설교를 하러 가군 했다.

《안녕하시오!》 하고 그는 불타는듯 한 눈길로 젊은이를 훑어보며 큰소리로 웨쳤다.

에띠엔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멀리 보료탄갱의 잔교사이로 한 녀자가 지나가는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불안에 잠겨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 녀자가 까뜨리느라는것을 그는 확신하고있었던것이다.

아닌밤에 까뜨리느는 눈 녹은 진창길을 헤매였다. 집에 돌아온 솨발은 자리에 누워있는 그를 보자 뺨을 때려서 일궈세웠다. 솨발은 그에게 썩 물러가라고 호통을 쳤다. 그는 창문으로 집어내던지기 전에 문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발로 들이찼다. 그 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옷도 미처 못 입은채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는 나오면서 매를 또 호되게 맞았다. 이렇게 갑작스레 헤여져 어안이 벙벙해진 그는 길가의 말뚝우에 앉아서 집을 바라보며 줄곧 쏴발이 다시 자기를 부르기만 기다렸다. 쏴발이 자기를 엿보고 버림을 받고 맞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이 이렇게 얼고있는 자기를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할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다음 2시간이나 집에서 쫓겨난 개처럼 까딱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몸이 죽도록 얼어드는것을 느낀 까뜨리느는 거기서 물러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몽쑤에서 나왔다가 다시 되돌아갔으나 거리에서 쏴발을 부르거나 문을 두드릴 용기가 감히 나지 않았다. 드디여 그는 넓고 곧은 신작로를 걸어갔다. 마을의 부모네한테 돌아가고싶은 생각이 피뜩 머리에 떠올랐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모네 집까지 오자 너무 부끄러워서 뜨락을 따라 달려갔다. 꽉 닫아건 덧문안에서는 모두들 깊이 잠들어 깨여날줄 몰랐건만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차릴가봐 두려워했다. 까뜨리느는 그때부터 길을 헤매면서 조그마한 소음에도 놀랐고 몇달동안이나 무서운 악몽처럼 그를 괴롭히던 마르쉬엔느의 유곽에 창부로 끌려갈수 있다는 생각이 미치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두번이나 보료로 돌아왔으나 그때마다 보초의 거칠게 웨치는 소리에 겁을 먹고 자기를 따라오지 않나 해서 그냥 뒤를 돌아보며 헐떡헐떡 도망질을 했다. 레끼아르로 가는 골목에는 항상 술취한 사람들로 가득찼으나 그는 몇시간전에 자기가 물리친 사람을 만날수도 있지 않을가 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리로 다시 갔다.

이날 아침 쏴발은 작업을 하러 나오기로 되여있었다. 이 생각에 까뜨리느는 자기들의 관계는 끝났으므로 그에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것을 의식하면서도 탄갱으로 갔다. 쟝 바르탄갱에서는 사람들이 더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쏴발은 까뜨리느가 보료탄갱에서 다시 일을 하면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때문에 자기의 위신이 떨어질수 있기때문이였다.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할것인가? 다른 고장에 가서 굶주리면서 만나는 모든 사나이들의 무례한짓을 참아야 한단 말인가? 그는 지쳐서 맥빠진 다리를 끌고 바퀴자리가운데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그리하여 그는 허리까지 진탕투성이가 되였다. 눈석이로 해서 행길은 질적질적한 진창으로 덮였다. 두다리가 죄다 거기에 빠져들어갔지만 까뜨리느는 길가의 돌우에라도 앉으려 하지 않고 앞

으로 걷기만 했다.

날이 밝았다. 까뜨리느는 버럭산을 조심히 돌아가는 쇄발의 등을 알아보았다. 그때 그는 리디와 베베르가 예비동발목밑의 자기들의 은신처에서 머리를 내미는것을 보았다. 리디와 베베르는 쟝렝이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기때문에 감히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온밤 거기서 망을 보고있었던것이다. 쟝렝이 레끼아르에서 잠을 자면서 살인행위의 취기를 풀고있을 때 두 아이는 몸을 녹이려고 서로 끌어안고 앉아있었다. 밤나무와 참나무의 통나무들새로 바람이 휙휙 불어와서 두 아이는 벌목공들이 내버린 막속에 있는듯이 몸을 옹크리고앉아 얼고있었다. 리디는 쟝렝이 빰을 때려도 소리를 내여 투덜거리지 못했으며 그와 꼭같이 베베르도 두령한테 주먹으로 얻어맞으면서도 불평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쟝렝은 그들로 하여금 가장 모험적인 습격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게 하고서도 얻은것은 죄다 자기가 차지함으로써 자기의 세력을 지나치게 악용하는것 같았다.

갑자기 나팔소리가 울렸다. 까뜨리느는 흠칫 몸을 떨었다. 그는 몸을 폈다. 보료초소에서 병사들이 총을 잡는것이 보였다. 에띠엔느가 달려갔다. 베베르와 리디는 은신처에서 껑충 뛰여나왔다. 저기 멀리서 격노한 남녀의 한무리가 날이 밝는 가운데 마을에서 내려왔다.

5

보료탄갱의 모든 출입구들은 조금전에 차단되였다. 60명의 병사들이 세워총을 하고 유일하게 출입을 할수 있는 입구를 막아서고있었다. 그 입구는 좁은 층계를 따라 저탄장으로 통하고있었는데 거기서 감독들의 방과 휴계실에 들어갈수 있었다. 중대장은 뒤로 달려드는것을 막기 위해 병사들을 벽돌담벽앞에 두줄로 세워놓았다.

처음에 마을에서 모여온 탄부들은 좀 떨어져 서있었다. 그들은 기껏해서 서른명쯤 되였는데 토론을 하느라 법석 떠들어댔다.

마여의 안해가 맨먼저 왔다. 그는 서둘러 머리를 손수건으로 동여매다나니 헝클어져있었다. 그의 팔에는 에쓰뗄이 안겨서 자고있었다.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고 내놓지도 말고 그안에서 모조리 잡아야해요!》 하고 마여의 안해는 열이 올라 되뇌이였다.

마여가 지지해나섰다. 때마침 레끼아르에서 무끄할아버지가 왔다. 사람들은 그를 들여놓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말들에게 귀밀을 먹여야 하며 자기는 혁명에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탄갱에서는 말 한필이 죽었는데 무끄가 와서 거들어주어야 그것을 치우겠다고 기다리고있다는것이였다. 에띠엔느가 로인을 빼내여주었다. 그리고 병사들은 그를 탄갱에 들여보냈다. 15분후에 파업군중이 점차 불어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있을 때 1층에서 넓은 문이 열리더니 로동자들이 수레에 죽은 말을 싣고 나타났다. 아직 그물로 얽어맨 짐승의 몸뚱이를 눈석임물웅뎅이에 내던지는 광경은 처참하였다. 이 광경이 너무나 강한 인상을 주었기때문에 누구도 그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안쪽으로 문을 막는것을 제지시키지 못하였다. 옆구리쪽으로 숙이고 굳어진 머리를 보고 죽은 말을 알아차릴수 있었다. 사람들은 소곤거렸다.

《아니, 뜨롬뻬뜨가 아닌가? 뜨롬뻬뜨야.》

정말 그 말은 뜨롬뻬뜨였다. 입갱을 한 이후 그 말은 탄갱에 길이 들지 못했다. 그놈은 항상 침울해서 일하기 싫어하고 지상의 해별만 그리워하는것 같았다. 탄갱에서 가장 오랜 바따이가 10년동안을 갱내에서만 살아온 운명을 그에게 넘겨주려고 자기의 옆구리로 다정스럽게 그를 문질러주고 그의 목을 핥아주었으나 보람이 없었다. 애무는 뜨롬뻬뜨의 애수를 더해주었을뿐이였고 어둠속에서 늙은 동료의 속내를 알고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군 했다. 말들이 서로 만나 냄새를 맡으며 돌아갈 때면 늙은 말은 아무것도 회상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어린 말은 아무것도 잊어버릴수 없다는데 대하여 서로서로 하소연을 하는것 같았다. 마구간에서 말들의 구유는 서로 맞붙어있었다. 둘은 머리를 수그리고 마주서있어서 코에서 나오는 숨기가 서로 오고갔는데 마치도 그들이 지상의 생활—푸른 풀이며, 흰 도로며, 끝없는 광야며 그리고 황금빛해별에 대한 영원한 공상을 서로 나누고있는듯 했다. 뜨롬뻬뜨가 깃우에 누워서 땀에 흠뻑 젖어 죽어가고있을 때 바따이는 절망에 빠져 그의 냄새를 맡으면서 흐느껴우는듯이 가볍게 투레질을 했다. 바따이는 뜨롬뻬뜨의 몸이 식어가는것을 느꼈다. 탄갱은

그의 마지막기쁨인 자유로운 대기속에서 보낸 청춘시절을 상기시켜주는 맑은 향기를 풍기면서 지상에서 내려온 벗을 그에게서 앗아갔다. 뜨롬뻬뜨가 더는 움직이지 않는것을 보고 바따이는 공포에 질려 울면서 비끄러맨 고삐를 끊어버렸다.

무끄는 벌써 한주일전에 말이 병이 났다는것을 도감독에게 미리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그때 그에 대해서 걱정할 형편이 못되였다. 그 나리들은 말을 바꾸는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전날에 마부는 다른 두사람과 함께 한시간동안이나 뜨롬뻬뜨를 동여맸다. 그런 다음에 승강기가 있는데까지 나르기 위해 죽은 말을 바따이에게 메웠다. 늙은 말은 자기의 죽은 동료를 끌고 천천히 걸었다. 갱도는 너무 좁아서 군데군데 살가죽을 찢기울 위험을 느끼면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기진한 말은 도살장으로 가는 죽은 동료가 벽에 스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머리를 내젓군 했다. 저탄장에서 마구를 벗기자 말은 끌어낼 준비를 하고있는것을 침울하게 바라보는것이였다.

죽은 말을 하수장우의 가름대에 밀어올리고 승강기밑에 바줄로 만든 그물에 올려놓았다. 드디여 적재공들은 신호종을 울리여 소고기가 간다는것을 예고했다. 바따이는 고개를 들고 뜨롬뻬뜨가 우로 올라가는것을 바라보았다. 처음에 뜨롬뻬뜨는 천천히 움직이더니 갑자기 어둠속으로 자취를 감추면서 어두운 지하에서 영영 사라졌다. 바따이는 목을 쭉 뽑고 그대로 서있었다. 그의 동물다운 애매한 기억에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희미하게 떠올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모든것의 끝장을 본것이다. 그는 더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것이다. 그리고 그자신도 역시 묶이여 보잘것없는 짐짝처럼 지상으로 끌리여올라갈 날이 올것이다. 바따이의 두다리는 떨렸다. 그는 먼 들판에서 불어오는 대기를 감촉하고 취한듯 무거운 걸음걸이로 마구간으로 돌아왔다.

바깥에서는 탄부들이 깊은 생각에 잠겨 침울하게 서서 죽은 뜨롬뻬뜨를 바라보고있었다. 느닷없이 한 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또 한사람 입갱시켰어요! 내려갈테면 내려가라지!》

마을에서 군중들이 또 달려왔다. 레바끄가 앞장을 서고 그의 안해와 부뜰루가 그의 뒤를 따랐다.

《벨지끄놈들을 죽여라!》 하고 레바끄가 웨쳤다. 《외국인들을 때

려부셔라! 죽여라! 죽여!》

모두가 앞으로 달려나갔다. 에띠엔느는 그들을 멈춰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중대장한테로 다가갔다. 중대장은 스물여덟의 키가 크고 여윈 젊은이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락심과 결심의 빛이 어리여있었다. 에띠엔느는 그에게 진상을 설명하여 그를 쟁취하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 말이 어떤 효과를 내는가 엿보았다. 무의미한 살륙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과연 진리가 탄부들측에 있지 않단 말인가? 모두가 형제니만치 서로 리해해야 한다. 《공화국》이라는 말을 듣자 중대장은 신경질적으로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군인의 엄격성을 유지하며 느닷없이 웨쳤다.

《뒤로 물러가! 임무수행을 방해하지 말아.》

에띠엔느는 세번이나 그와 이야기를 하려고 해보았다. 그의 뒤에서는 동료들이 욕설을 퍼부었다. 엔보씨가 탄갱에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사람들은 그를 갱에 거꾸로 집어넣어 자기 석탄을 제가 팔수 있겠는가 어디 보자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헛소문이였다. 그곳에는 네그렐과 당싸에르만이 있었다. 두사람은 저탄장창문앞에 잠간 나타났다. 도감독은 뒤에 서있었다. 그는 자기와 삐에롱의 안해와의 관계가 알려진 사정으로 해서 저으기 점직해했다. 기사는 대담하게 자기의 팔팔한 눈으로 군중을 바라보면서 웃음을 지었는데 그의 비웃는듯 한 웃음은 모여선 사람들과 벌어지고있는 일들에 대한 그의 경멸을 표현하고있었다. 함성이 높아지자 두 사나이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에는 쑤바린의 아마빛머리밖에 보이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오늘 그는 당직을 서고있었다. 파업이 시작되였을 때부터 그는 하루도 자기 기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점차 한가지 생각에만 골똘하여 그의 희끄무레한 두눈에서는 강철못이 번뜩이고있는듯 했다.

《뒤로 물러가!》 하고 중대장은 큰소리로 되뇌였다. 《아무 말도 듣지 않을테다. 난 수직갱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지킨다.… 우리 사람들에게 달려들지 말아, 달려들면 너희들을 힘으로 물리칠테다.》

중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하였지만 그는 심한 불안에 휩싸여있었다. 탄부들이 더욱 늘어나는것을 보자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12시

에 그는 교대를 하기로 되여있었는데 그때까지 견디여내겠는지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증원대를 요구하느라고 탄갱의 보조공 한명을 몽쑤로 보냈다.

웨침소리가 그의 말에 대답했다.

《외국놈들에게 죽음을 주라! 벨지끄놈들을 죽여라!… 우리가 우리 고장의 주인이 되련다!》

에띠엔느는 절망에 빠져서 한쪽으로 물러섰다. 모든것이 마지막이다. 싸우다가 죽는 길밖에 없었다. 그는 더는 동료들을 말리지 않았다. 군중들은 얼마 안되는 병사들에게 밀려들었다. 탄부들은 약 400명으로 되였다. 이웃마을들도 비워놓고 그리로 달려왔다. 모두가 꼭같이 웨쳐댔다. 마여와 레바끄는 병사들을 향해서 성이 나서 말했다.

《물러가오!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려는게 아니요, 물러가오!》

《당신들에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요!》 하고 마여의 안해가 맞장구를 쳤다. 《우릴 방해하지 마오. 우리스스로가 자기 일을 할테요.》

그의 뒤에서 레바끄의 안해가 더 날카롭게 덧붙였다.

《여기를 지나가는데 너희들과 싸워야 한단 말이냐? 제발 좋게 말할 때 여기서 물러가라!》

베베르와 함께 군중속깊이 들어가있던 리디의 째는듯이 야무진 목소리도 들려왔다.

《바보같은 병사놈들이다.》

좀 떨어져서 까뜨리느가 이러한 새로운 폭력행위에 어리벙벙하여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얄궂은 운명이 이 폭력행위속에 그를 밀어넣은것이다. 그는 이미 지나친 고통을 치르지 않았던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처럼 불행이 그를 괴롭히는것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파업로동자들의 이러한 분노를 리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기 몫으로 매를 맞았으면 더 맞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증오하고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부풀어올랐고 에띠엔느가 언젠가 저녁에 그들에게 들려준 모든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에띠엔느가 병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를 썼다. 그는 병사들을 동무라고 불렀고 그들자신이 인민에게서 나왔으니까 가난뱅이들을 압

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여 인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군중들속에서는 오래동안 동요가 일어났다. 어떤 로파가 앞으로 달려나왔다. 그는 무섭게 여위고 팔과 목을 드러내놓은 브률레였다. 로파는 너무나 급히 달려와서 하얀 머리가 마구 헝클어지고 눈을 덮어씌워서 앞을 보지 못했다.

《에익! 더러워서, 그래두 난 오구야말았는걸!》 하고 그는 헐떡거리면서 말했다. 《그놈의 변절자 삐에롱이란 놈이 날 움속에 가둬넣었단 말이요.》

그리고 그는 대뜸 병사들에게 달려들어 시커먼 입으로 욕을 퍼부었다.

《고얀놈들, 악당들 같으니, 상관의 장화나 핥고 가난뱅이들하고나 해볼 용기밖에 없는 놈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그와 목소리를 합쳐 욕설을 퍼부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병사 만세! 장교들을 탄갱속에 집어처넣으라!》 하고 웨쳤다. 그러나 곧 하나의 웨침으로 합류되였다. 《붉은 바지들을 타도하라!》 마구 퍼붓는 거친 말마디속에서 병사들은 랭담해서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박애를 호소하고 자기편으로 끌려는 친절한 말을 잠자코 들었으며 무표정한 엄격성을 여전히 유지하고있었다. 뒤쪽에 서있던 중대장은 칼을 뽑아들었다. 군중들이 점점 조여들면서 그들을 벽에 짓뭉갤듯이 위협하자 중대장은 총창을 비껴들고 막으라고 명령했다. 병사들이 명령에 복종했다. 파업자들앞에는 강철제총창들이 두줄로 막아섰다.

《아! 이 바보같은 놈들!》 하고 브률레로파가 뒤로 물러서면서 웨쳤다.

벌써 모두가 흥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었다. 녀인들이 먼저 달려들었고 마여의 안해와 레바끄의 안해가 웨쳤다.

《죽일테면 죽여봐라!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요구한다!》

레바끄는 자기가 찔리울 위험을 무릅쓰고 량손으로 세개의 총창을 한꺼번에 낚아쥐고 흔들면서 그것을 뺏으려고 자기쪽으로 잡아당겼다. 격분한 나머지 10배나 강해진 힘으로 그는 총창을 비틀었다. 한편 부뜰루는 동무들을 따라온것이 혐오스러워 멀리 서서 태연하게 레바끄

를 바라보았다.

《그래, 쏠테면 쏴라.》 하고 마여가 되풀이했다.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쏴봐라.》

그리고 그는 웃옷의 단추를 벗기고 샤쯔의 앞섶을 열어젖히고 석탄이 들어박힌 털부숭이 맨 가슴을 드러내놓았다. 그는 총창앞에 달려들었다. 앞뒤를 헤아리지 않는 그의 무서운 용감성은 병사들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했다. 누군가의 총창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분별없이 총창이 자기 몸을 꿰뚫고 갈비대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는듯이 계속 덤벼들었다.

《비겁쟁이들 같으니, 쏠 용기가 없군그래!… 우리뒤에는 만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 너희들은 우리를 죽일수 있다. 그리고 만명을 또 죽여야 할것이다.》

병사들의 형편은 위험하게 되였다. 그들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총을 사용하라는 엄명을 받았던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총창에 찔리우며 달려들어오는 이 분격한 사람들을 어떻게 막는단 말인가? 뿐만아니라 병사들과 군중들의 거리가 좁아들어오면서 병사들이 밀리여 벽에 붙게 되여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설 자리도 없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의 소부대이기는 하나 늘어가는 탄부들의 공격에 견디여내며 중대장의 간단한 명령을 침착하게 집행했다. 신경질적으로 입술을 오무리고 눈이 빛나는 중대장은 한가지 일만을 두려워했다. 병사들이 탄부들의 욕설을 오래 참아낼것 같지 않았던것이다. 벌써 키가 크고 여위고 코수염을 비틀어올린 젊은 중사가 불안스레 눈을 깜빡거렸다. 그의 옆에 서있는 수십차례의 전투에 참가한듯싶은 거무틱틱한 혁띠를 두른 늙은 병사가 자기의 총창이 짚오래기처럼 비틀리는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보습을 잡다가 얼마전에 입대한듯싶은 다른 한 병사는 자기를 방탕한 놈으로, 악한으로 취급할 때마다 얼굴이 벌겋게 되였다. 란폭한 말은 그치지 않았다. 주먹을 내들고 마구 퍼붓는 규탄과 위협적인 말들은 곧바로 병사들의 면상을 때리는것 같았다. 병사들을 군사규률로 거만하면서도 침울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이처럼 버티게 하자면 힘있는 명령이 필요했다.

충돌은 피하지 못할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이때 병사들의 등뒤에서 헌병처럼 생긴 백발의 감독 리숍의 흥분된 얼굴이 나타났다.

《제기랄!》 하고 그는 큰소리로 입을 뗐다.

《결과는 어리석은짓이야! 이렇게 어리석은짓을 허용해선 안돼.》

그리고 그는 총창과 탄부들사이에 뛰여들었다.

《동무들, 내 말을 들으시오. … 당신들도 알지만 나도 오랜 로동자로서 항상 당신들의 한 성원이였소. 그런데 제기랄! 관리인들이 당신들을 정당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겠소. 약속할수 있소. … 그러나 이건 너무 지나치단 말이요. 당신들은 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상말들을 뇌까리고 자기 배를 꿰려고 하는데 그건 아무 소용없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저하였다. 재수없게도 웃쪽에 젊은 네그렐의 뾰족한 얼굴이 또 나타났다. 그는 틀림없이 자신이 직접 모험을 하지 않고 감독을 내보냈다고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지 않을가 두려워했다. 그는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린 소란이 어찌나 무서웠던지 그는 간단히 어깨를 으쓱하고 창문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때부터 리숍이 그의 이름으로 문제를 동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아무리 되풀이해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의심을 샀다. 그는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그들속에 남아있었다.

《빌어먹을! 당신들과 함께 내 머리도 꿰뚫으라지. 당신들이 어리석은짓을 그만두지 않는 한 난 당신들한테서 물러가지 않겠네!》

그는 에띠엔느에게 탄부들을 알아듣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자기는 무기력해졌다는 몸짓을 해보였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탄부들은 벌써 500명이 넘었다. 벨지끄인들을 내쫓으려고 달려온 격분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멈춰선 사람들, 이 싸움을 장난거리로 아는 익살군들도 있었다. 거기서 좀 떨어져서 한무리를 지은 사람들가운데에 있는 자샤리와 필로멘느는 구경이나 하러 온듯이 아쉴과 데지레 두 아이까지 데리고와서 태평스레 정경을 바라보고있었다.

레끼아르로부터 새로운 군중들이 밀려왔다. 그속에는 무께와 무께뜨가 있었다. 무께는 곧 자기 친구인 자샤리에게 다가와서 싱글거리면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무척 흥분한 무께뜨는 그중 사나운 사람들이 있는 앞으로 달려갔다.

그동안 중대장은 몽쑤로 향한 길을 바라보고있었다. 그가 요구한 증원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의 60명 되는 병사들은 더 견디여낼수 없었다. 드디여 그는 군중을 놀래우려고 모두가 보는데서 장탄을 명령했다. 병사들은 명령을 집행했다. 그러나 허장성세라 조소로 가득찬 소동은 커졌다.
《옳지! 이 건달뱅이들이! 쏘겠단 말이지!》 하고 브률레로파며 레바끄의 안해며 기타 녀인네들이 조롱을 했다.
마여의 안해의 젖가슴에는 잠이 깨서 울기 시작한 에쓰뗄의 작은 몸이 안겨져있었다. 마여의 안해가 너무나 병사들에게 바싹 다가붙으니까 중사는 어린것을 안고 어델 다가드느냐고 했다.
《넌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마여의 안해는 대꾸했다. 《용기가 있으면 이 애를 쏘아봐라.》
사나이들은 설마 그러랴는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자기들을 쏠수 있다고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저자들의 탄창엔 탄알이 없어.》 하고 레바끄가 말했다.
《그래, 뭐 우리가 까자크기병이냐?》 하고 마여가 웨쳤다. 《프랑스사람들을 쏘지 말아, 빌어먹을!》
다른 사람들은 크림전쟁때 사람들은 탄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웨치였다. 모두가 계속 병사들한테 밀려들었다. 이 순간에 일제사격하였더라면 온 군중을 쓸어눕혔을것이다.
앞줄에 선 무께뜨는 병사들이 녀인들을 찌르려 한다는 생각에 더 사나와졌다. 그는 이미 큰소리로 자기가 아는대로 욕설을 죄다 퍼부었다. 완전히 상스러운 욕설을 찾지 못한 그는 병사들의 면전에 극단적인 모욕을 퍼부으려고 엉뎅이를 보이였다.
《자, 이걸 먹어라. 이것도 너희들에겐 너무 깨끗해, 이 더러운 자식들아!》
그는 더욱 몸을 구부리고 누구에게나 다 보이도록 엉뎅이를 사방으로 돌리면서 웨쳤다.
《이건 장교나 먹어라! 이건 중사나 먹어라! 이건 졸병들이나 먹어라!》
폭풍같은 웃음이 터졌다. 베베르와 리디는 배를 그러안고 웃어댔다. 침울해있던 에띠엔느도 그렇게 벌거숭이로 모욕을 주는데 박수를 쳤

다. 격분한 사람들뿐만아니라 익살군들까지도 이제는 병사들이 오물이라도 뒤집어쓴것처럼 떠들어댔다. 따로 떨어져서 낡은 동발목우에 서있던 까뜨리느만이 극도로 흥분하여 끓어오르는 증오에 휩싸여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 이때 혼란이 일어났다. 중대장은 자기 병사들을 진정시키려고 몇명의 탄부들을 체포하기로 결심했다.

무께뜨가 한달음에 동무들의 다리사이로 뛰여들며 빠져나왔다. 사나운 탄부들중에서 세명, 레바끄와 다른 두명의 로동자가 붙잡혔다. 그들은 감독실로 끌려가 감시를 받았다.

네그렐과 당싸에르는 자기들한테로 올라오라고 중대장에게 소리쳤다. 중대장은 문을 채우지 않은 건물이 즉시 점거되고 무장해제를 당할 수치를 느끼고 그것을 거절했다. 그의 소부대는 이미 참을성을 잃고 으르렁댔다. 나막신을 신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무리앞에서 물러설수는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장탄한 총을 쥔 60명의 병사들은 바로 벽앞에서 군중과 얼굴을 맞대고 그냥 서있었다.

처음에 탄부들은 뒤로 물러섰다. 괴괴한 침묵이 흘렀다. 파업로동자들은 이러한 무력행사에 놀랐다. 다음 웨침소리가 일어났다. 체포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라는것이였다. 그들을 거기서 죽이려 한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모두는 하나의 충동과 하나의 복수심에 사로잡혀 약속이나 한듯이 가까이에 있는 벽돌더미로 달려갔다. 벽돌들은 탄광지대에 많았던 니회석 점토로 만들어 그 자리에서 구워냈던것이다. 아이들은 벽돌을 하나씩 날랐고 녀인들은 치마자락에 가득 담아왔다. 곧 탄부들앞에는 벽돌들이 쌓이고 돌싸움이 시작되였다.

브륄레로파가 앞장섰다. 브륄레는 뼈가 앙상한 무릎우에 벽돌을 올려놓고 깨더니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한쪼각씩 들고 병사들에게 내던졌다. 레바끄의 안해는 어깨가 빠지는듯 했다. 그는 너무나 살이 지고 힘은 없어서 아주 가까이까지 다가가지 않으면 목표물을 맞힐수 없었다. 부뜰루는 남편이 갇힌 지금 그에게 싸움을 그만두라고 간청을 하면서 뒤로 끌고가려고 애를 썼으나 허사였다. 녀인들은 몹시 흥분해있었다. 무께뜨는 자기의 살진 무릎우에 벽돌을 올려놓고 깨느라고 피투성이가 되여 벽돌을 옹근채로 던졌다. 아이들도 싸우는 사람들편에 휩쓸렸다. 베베르는 리디에게 돌이 더 잘 날아가도록 팔매질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그야말로 우박이였다. 커다란 우박이 떨어지는 둔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날뛰는 녀자들사이에 까뜨리느가 나타났다. 그는 두손으로 벽돌쪼각을 높이 쳐들어 조그마한 팔로 힘껏 내던졌다. 그는 자기가 어째서 이렇게 하는지 자신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죽이고싶은 충동으로 숨을 할딱거렸다. 과연 이 저주롭고 비참한 생활이 영원히 끝장나지 않는단 말인가?

그는 자기 사람한테서 매를 맞고 쫓겨나서 집없는 개처럼 진창길을 헤매는것이 진절머리가 났다. 아버지한테 국 한그릇 달라고 하려 해도 그 역시 자기처럼 먹을것이 없는 처지였다. 생활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것이다. 그가 알기에는 생활은 반대로 어려워지고있는것이다. 까뜨리느도 무엇이든 깡그리 쓸어버리고싶은 일념으로 벽돌을 깨서 자기앞으로 내던졌다. 그의 두눈은 너무나 충혈이 되여 누구의 턱을 짓뭉개놓는지 그것도 보지 못했다.

에띠엔느는 아직도 병사들앞에 서있었다. 하마트면 그는 머리를 깰번 했다. 한쪽귀가 부어올랐다.

몸을 돌린 그는 제정신이 없는듯 한 까뜨리느의 손이 그 벽돌을 던졌다는것을 알고 흠칫 몸을 떨었다. 에띠엔느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서서 까뜨리느를 바라보았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싸움에 흥분해서 손을 흔들거리며 제정신없이 서있었다. 무께는 《오오, 저건 잘 맞았다. 이건 실수했구나!》 하고 마치 던지기놀음구경을 하는듯이 평가를 하고있었다. 그는 익살을 부리며 팔꿈치로 자샤리를 쿡쿡 찔렀다. 자샤리는 필로멘느와 다투고있었다. 아쉴과 데지레도 볼수 있도록 잔등에 올려놓으라고 한것인데 그는 도리여 애들의 뒤통수를 쥐여박았던것이다. 멀리 길을 따라서 구경군의 한무리가 있었고 마을어구의 언덕우에 본느모르할아버지가 보였다. 그는 지팽이를 짚고 까딱 않고 서있었다. 그의 영상은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드러났다.

처음에 벽돌장이 날아오자 감독 리숌은 다시금 병사들과 탄부들사이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 간청도 하고 훈계도 했는데 너무나 절망에 빠져서 두눈에서는 큰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리고있는듯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소음속에 사라지고 길다란 흰 코수염이 떨리는것이 보일뿐이였다.

남자들이 녀자들의 본을 따르게 되여 벽돌들은 더 많이 날아갔다.

마여의 안해는 돌아서자 뒤에 자기 남편이 맨손으로 서있는것을 보았다. 마여의 얼굴은 침울했다.

《웬일이예요?》 하고 그 녀자가 소리를 쳤다.

《겁나요? 당신은 동무들을 감옥에 집어넣는것을 보고만 있을테예요?… 내가 아이만 안지 않았어두 당신은 내 본땔 좀 봤을거예요!》

에쓰뗄이 어머니의 목에 달라붙으며 큰소리로 울어서 마여의 안해는 브률레로파며 다른 녀인들과 휩쓸리지 못했었다. 마여가 자기 말을 듣지 못하는것 같아 안해는 발로 벽돌들을 그에게 밀어주었다.

《제기랄! 벽돌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모두가 보는데서 당신의 얼굴에다 침을 뱉어야 알겠어요? 그래야 용감해지겠어요?》

마여는 얼굴이 다시 시뻘개지더니 벽돌을 깨여던졌다. 안해는 남편을 채찍질하며 얼떨떨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뒤에서 죽어라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경련이 이는 팔로 딸을 숨이 막힐 정도로 제 가슴에 꽉 끌어안았다. 마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드디여 바로 총앞에 서게 되였다.

우박처럼 날아오는 돌때문에 병사들의 소부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도 돌들은 지나치게 높이 날아서 담벽에 온통 패인 자리만 남겨놓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자기들이 뒤로 물러서서 퇴각할가 하는 생각에 중대장의 창백한 얼굴은 졸지에 새빨개졌다. 그러나 퇴각은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군중은 곧 그들을 짓부셔버릴것이다. 벽돌 하나가 방금전에 그의 모자채양을 꺾어버렸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의 병사들속에서는 몇명의 부상자가 났다. 그는 병사들이 격분하여 상관의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자기 방위를 할수 있다는것을 느꼈다. 중사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빨래방치질같은 둔한 타격에 왼쪽어깨가 한절반 떨어져나가는듯 하고 살에 멍이 졌다. 신입병은 두번 맞으면서 엄지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오른쪽무릎에 상처를 입어 그 자리가 불에 덴것처럼 화끈거렸다. 이런 난처한 형편을 아직도 오래 참아야 한단 말인가? 돌 하나가 무엇인가에 부딪쳐 튀여올랐다가 경험많은 병사의 배아래에 맞았다. 병사의 얼굴은 새파래지고 총이 떨리더니 연약한 팔앞으로 쭉 뻗어나갔다. 중대장은 세번이나 사격구령을 내리려

고 했었다. 불안한 마음이 그의 목을 조이였다. 한없는 내심의 투쟁이 잠시동안 그의 사상과 의무, 사람과 군인으로서의 신념과 충돌하였다.

벽돌벼락은 곱절로 늘었다. 중대장이 입을 열고 《쏴!》 하고 구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총들은 절로 사격을 개시했다. 처음에는 3발이 울리고 다음에는 5발, 그다음에는 일제사격이 일어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죽은듯 한 정적속에서 또 한발의 사격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아연실색하였다. 병사들이 사격을 했던것이다. 군중들은 일어난 사태를 믿지 않는듯이 입을 쩍 벌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명이 커지고 사격중지를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울리자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혀 사격을 받는 짐승의 무리처럼 진탕속에서 정신없이 달아났다.

처음 3발에 베베르와 리디가 련이어 쓰러졌다. 계집애는 얼굴에 총알을 맞았고 사내애는 왼쪽어깨밑이 관통되였다. 계집애는 당장 죽어 넘어져서 옴짝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베르는 안깐힘을 쓰며 림종의 마지막발작을 하면서 두팔로 리디를 끌어당겼다. 바로 이때 드디여 쟝렝이 나타났다. 그는 아직 잠에 취해서 레끼아르쪽으로부터 탄약연기속을 절름거리면서 달려와 베베르가 자기의 어린 동무의 옆에서 죽는것을 보았다.

다음의 5발은 브률레로파와 리숌을 거꾸러뜨렸다. 감독은 동무들에게 간절하게 애원하던 순간 등에 총알을 맞았던것이다. 그는 무릎을 꺾었다가 넘어져서 가쁜숨을 몰아쉬였다. 그의 두눈은 울어서 눈물이 가득찼다. 로파는 목에 총알을 맞고 마른 장작단처럼 뻣뻣해져서 우지끈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그는 피가 꾸르륵꾸르륵하는 속에 마지막욕설을 중얼거렸다.

그런데 일제사격은 땅우를 쓸어버렸다. 총알은 백걸음쯤 떨어져서 싸움을 호기심에 차서 구경하던 사람들을 쓸어눕혔다. 무께는 입에 총알을 맞고 자샤리와 필로멘느의 발앞에 뒤로 나자빠졌다. 필로멘느의 두 어린 아이들은 피방울을 뒤집어썼다. 바로 이 순간 무께뜨도 총알 2개를 배에 맞았다. 그는 병사들이 총을 겨누는것을 보자 마음씨고운 처녀의 본능적인 동작으로 까뜨리느의 앞으로 뛰여들어 조심하라고 소리를 쳤었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비틀거리다가 뒤로 풀썩 넘어졌다. 에띠엔느가 달려가서 그를 일궈세워 데리고가려고 했으

나 처녀는 몸짓으로 자기는 끝장이 났다는 시늉을 했다. 그는 마치도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 지금 에띠엔느와 까뜨리느가 함께 있는것을 보는것이 기쁜듯 끊임없이 미소를 지어보이며 딸꾹질을 하였다. 모든것이 끝장이 난것 같았다. 일제사격한 총알들이 폭풍처럼 멀리 마을의 집집에까지 날아갔을 때 뒤늦게 개별적으로 마지막총탄이 하나 발사되였다.

면바로 심장을 맞은 마여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서 석탄으로 시꺼멓게 된 물웅뎅이에 얼굴을 박고 거꾸러졌다.

안해는 놀라서 몸을 굽혔다.

《여보, 일어나요! 상한데는 없지요, 예?》

그는 에쓰뗄을 안고있었기때문에 남편의 고개를 쳐들려면 계집애를 겨드랑이에 껴야만 했다.

《말을 좀 해요. 어디가 아파요?》

마여의 두눈은 정기가 없었고 입은 피거품을 물고있었다. 안해는 남편이 죽은것을 알았다. 그는 어린아이를 꾸레미처럼 겨드랑에 낀채 진창속에 그냥 주저앉아서 얼빠진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탄갱은 텅 비였다. 중대장은 날아온 돌에 채양이 꺾인 모자를 신경질적으로 벗었다가 다시 썼다. 그는 자기 일생에 처음 보는 재난앞에서 얼굴이 창백해진채 엄격성을 유지하고있었다. 그의 병사들은 말없는 얼굴로 총에 다시 장탄을 했다. 저탄장의 창문가에는 네그렐과 당싸에르의 놀란 얼굴들이 보였다. 그들의 뒤에 쑤바린이 서있었다. 마치도 못처럼 그의 머리속에 박혀있는, 그의 사상이 새겨져있는듯 한 깊은 주름살이 그의 이마에 위협조로 건너갔다. 지평선 맞은쪽의 언덕기슭에는 본느모르할아버지가 한손으로 지팽이를 짚고 다른 한손은 아래쪽에서 쓰러지는 자기 사람들을 더 똑똑히 보려고 눈섭우에 대고 못박힌듯이 서있었다. 어지러워진 눈덩이들밑에 보이는 시꺼먼 탄덩이들과 진흙이 섞여 여기저기 녹은 진탕속에 험상하게 된 부상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몸이 식어갔다. 한평생 가난에 시달려 이제는 뼈만 앙상한 이 하잘것없는 사람들의 시체들 틈에 괴물같고 가엾어보이는 죽은 고기무지같은 뜨롬뻬뜨가 누워있었다.

에띠엔느는 죽지 않았다. 그는 극도의 피로와 근심으로 해서 쓰러진 까뜨리느의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있었다. 이때 그는 누군가의 떨

리는 목소리에 소스라쳤다. 랑비에신부였다. 그는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였다. 그는 두팔을 쳐들고 예언자와 같이 맹렬하게 살인자들에게 천벌을 내리라고 하느님에게 호소했다. 그는 정의의 시대가 올것이며 또한 부르죠아지는 이 세상의 로력자들과 불행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모진 악행을 하고있기때문에 머지않아 하늘이 내리는 불에 타버리리라고 예언했다.

제 7 장

1

몽쑤의 총소리는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빠리까지 퍼져갔다. 반대파신문들은 4일전부터 격분해서 무시무시한 보도들로 제1면을 채웠다. 부상자가 25명, 사망자 14명, 그중 아이가 2명, 녀자가 3명 그리고 그외에 검거된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전했다. 레바끄가 예심판사에게 한 대답을 고대의 중요한것처럼 제공하여 그는 일종의 영웅과도 같은 인물로 되였다. 제국은 이 몇발의 총탄에 심한 타격을 받고서도 절대적권력을 믿고 평온하였다. 제국자체도 입은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알지 못하였다. 이것은 다만 유감스러운 충돌로서 여론이 환기된 빠리의 포장도로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있는 한 어두운 지방에서 입은 손실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 사건은 곧 잊혀질것이다. 회사는 그 사건을 진압하고 사회적위험으로 되고있는 파업이 더 오래가지 않도록 끝장내라는 공식적지시를 받았다.

그리하여 수요일 아침에 몽쑤에 3명의 리사들이 내려왔다. 이때까지 벌어진 살륙에 대해서 감히 기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괴로운 심정이던 소도시는 안도의 숨을 쉬며 자기가 드디여 구원된 기쁨을 맛보았다. 날씨도 좋아졌다. 밝은 해가 비쳤다. 2월의 따뜻한 해별에 라이락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났다. 리사회건물은 덧문들이 열리고 소생한듯 했다. 거기서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다. 파국적인 사건을 몹시 가슴아파하는 리사들이 로동자마을에서 길을 잘못들어 헤매고있는

탄부들을 자애로운 어버이처럼 두팔을 벌려 포옹하고저 이리로 왔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것보다 틀림없이 더 심한 타격이 가해진 지금 구원자로서의 사업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그들은 비록 늦어지긴 했지만 아주 좋은 조치들을 하달했다. 우선 벨지끄사람들을 해고하고나서 로동자들에게 최대의 양보를 한것으로 크게 떠들었다. 다음으로 진압된 파업자들이 더는 위협하지 않는 탄광을 경비하던 부대를 철수시켰다. 행불된 보료탄갱의 보초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게 했다. 주변을 죄다 수색했으나 아무데서도 총도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혐의는 있었지만 그 병사가 탈주한것으로 결론지었던것이다. 그들은 낡은 세계의 낡아빠진 구조에 도전해나선 군중의 억누를수 없는 잔인성을 인정하는것을 위험으로 보고 래일에 대한 공포에 떨면서 되도록이면 모든 일을 무마시키려고 애썼다. 그밖에 이러한 화해공작은 순전한 행정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데는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데넬랭이 다시금 리사회로 다니면서 엔보씨와 만나고있다는것을 알고들있기때문이였다. 방담탄갱의 양도에 관한 담판이 계속되고있었는데 데넬랭이 이들의 제의를 받아들이리라는것은 확실하였다.

그러나 이 지방을 특별히 소란하게 만든것은 리사들이 담벽마다에 수많이 내붙이게 한 누런빛의 큰 게시문이였다. 게시문들에서는 커다란 글자로 씌여진 다음과 같은 몇줄을 읽을수 있었다.

《몽쑤의 로동자들이여, 최근에 당신들은 그릇된 행동의 비참한 후과를 보았다. 그러한 행동으로 신중하고 성실한 로동자들이 생존수단을 빼앗기게 되는것을 우리 회사는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월요일 아침에 전체 탄갱을 다시 열어놓을것이다. 일이 다시 시작되면 우리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조건들을 세심하게 호의적으로 검토할것이다. 우리는 정당하고 가능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할것이다.》

하루아침나절에 1만명의 탄부들모두가 게시문앞으로 다가갔다. 누구도 아무 말이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느린 걸음으로 물러갔는데 그들의 얼굴은 주름살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뒈 쌍 까랑뜨마을은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탄갱의 진탕을 붉게 물들인 동무들의 피가 다른 사람들의 탄갱에로의 길을 막고

있었다. 겨우 여라문명이 갱에 들어갔다. 삐에롱과 그와 같은 변절자들이였다. 탄부들은 그들이 작업에 나가고 돌아오는것을 아무런 의사도 위협도 나타냄이 없이 침울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교회당담벽에 나붙은 게시문은 역시 말없는 의혹을 샀다. 돌려준 로임수첩에 대해서는 거기에 아무런 지적도 없었다. 그러니 회사는 로임수첩을 도로 받는것을 거부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복수받을것 같은 공포와 누구보다 혐의를 많이 받고있는 사람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련대적인 항거의 사상이 모든 탄부들로 하여금 여전히 완강하게 뻗치게 했던것이다. 이 일은 의심스러웠다. 더 기다려봐야 했다. 리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툭 털어놓고 설명해준 다음에야 탄갱으로 돌아갈것이다. 침묵이 낮은 집들을 짓누르고있었으며 기근 그자체는 더는 아무것도 아니였고 무서운 죽음이 이미 지붕우를 지난 지금에는 살아남은 누구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온 마을에서 특히 어둡고 말이 없는 집은 비애에 잠긴 마여의 집이였다. 마여의 안해는 남편을 묘지로 떠나보내고나서는 이를 악물고 입을 열지 않았다. 싸움이 있은 이후에 에띠엔느가 진흙투성이에 반주검이 된 까뜨리느를 집에 데리고온것을 마여의 안해는 너그럽게 대했다. 딸을 침대에 눕히려고 젊은이가 있는 앞에서 옷을 벗겼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 딸도 배에 총알을 맞은줄로만 생각했었다. 그것은 까뜨리느의 샤쯔가 피에 얼룩져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그는 곧 알아차렸다. 그것은 이 무서운 날의 충격에 드디여 터지고만 사춘기의 피였다. 그렇다, 하나의 행운이였다. 이 상처, 이것은 훌륭한 선물이다. 아이를 낳을수 있는것이다. 그러면 후에 헌병들이 그들을 또 죽일것이 아닌가! 마여의 안해는 까뜨리느에게나 에띠엔느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에띠엔느는 검거될 위험을 무릅쓰고 쟝랭과 잠자리를 같이했다. 레끼아르의 어둠속으로 돌아갈것을 생각하니 에띠엔느는 소름이 끼쳤다. 그보다는 감옥이 더 나을것 같았다. 그는 치를 떨었다. 그것은 이 모든 죽음이 있은 날 밤에 오는 무서움과 암반밑에 잠든 어린 병사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은것으로부터 오는 공포였다. 뿐만아니라 에띠엔느는 패배의 괴로운 감정을 못이겨 감옥을 피난처로 삼을 꿈까지 품고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불안하게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참을수 없는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무슨

육체적피로라도 느끼고싶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이따금 마여의 안해는 에띠엔느와 까뜨리느를 원한에 찬 눈으로 자주 바라보았는데 그들이 자기 집에서 하는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색이였다.

또다시 모두가 몸을 움츠리고 코를 골게 되였다. 본느모르할아버지는 두 어린것이 쓰고있던 침대를 차지했고 그 두 아이는 자기의 곱새등으로 언니의 옆구리를 찌르던 불행한 알지르가 없게 된 지금에 와서는 까뜨리느와 함께 자게 되였다. 어머니는 자리에 눕자 지나치게 넓어진 침대가 싸늘해서 집안이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에쓰뗄을 옆에 눕힘으로써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지만 보람이 없었다. 어린애가 죽은 남편을 대신할수 없는것이다. 그는 몇시간이고 소리없이 흐느껴울었다. 그런 후 하루하루 이전과 같은 나날이 흘러갔다. 여전히 빵이 없었고 죽어버릴 가망도 보이지 않았다. 어데서건 두루 얻어다 먹는것이 비참한 그들의 잔명을 연장시켰다. 그들의 생활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자기 남편이 없어졌을뿐이였다.

말없는 이 녀인을 보면서 절망에 빠진 에띠엔느는 닷새째 되는 날 오후에 집을 나서서 포장된 마을의 거리를 천천히 거닐었다. 아무것도 할일이 없는 그는 산보를 계속했다. 에띠엔느는 줄곧 한가지 괴로운 생각에 골똘하여 두팔을 내려드리우고 고개를 푹 숙인채 걸어갔다. 이렇게 30분쯤 걸었을 때 그는 동무들이 집앞에 나와서 자기를 바라보는것을 느끼고 더욱 불쾌해졌다. 에띠엔느의 얼마 남지 않았던 인기는 사격바람에 사라져버려서 그는 자기를 쏘아보는 불타는듯 한 눈과 마주치지 않고는 지나갈수가 없었다. 그가 고개를 들면 위협적인 사나이들뿐이였고 녀인들은 창문의 창가림을 헤치였다. 그는 계속되는 말없는 비난과 굶주림과 눈물때문에 더 둥그래진 그 눈들에 비낀 분노를 보고는 거북스러워 더 걸어갈수 없었다. 그의 등뒤에서는 들리지 않는 비난이 계속 높아갔다. 그래서 에띠엔느는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거리에 뛰쳐나와 자기를 향하여 저희들을 불행에 빠뜨렸다고 웨치는 소리를 듣게 되지나 않을가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떨면서 되돌아섰다.

그러나 마여의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있는 광경은 그를 몹시 놀라게 했다. 본느모르할아버지는 살륙이 있은이래 다 식은 난로옆에서 꼼짝

못하고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날 이웃에 사는 두사람이 벼락맞은 고목처럼 땅우에 쓰러진 로인을 동강난 지팽이와 함께 발견하여 집에 데리고왔었다. 레노르와 앙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허기를 면하여보려고 전날 저녁에 양배추국을 끓인 헌 남비를 요란스레 빡빡 긁어내고 있었고 마여의 안해는 에쓰뗄을 식탁에 앉히고 까뜨리느를 주먹으로 위협하고있었다.

《다시한번 말해봐, 망할 년! 이제 한 말을 다시 말해봐!》

까뜨리느는 보료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자기 의향을 말했었다. 제밥벌이도 하지 못하고 거치장스럽고 쓸모없는 짐승처럼 어머니의 집에서 부담으로 되게 하고있다는 생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참을수 없게 그를 괴롭혔다. 쇄발에게 맞을 근심만 없었다면 까뜨리느는 벌써 화요일에 입갱을 했을것이였다. 그는 중얼중얼 대꾸를 했다.

《어찌하라는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지 않아요. 일을 하면 적어도 빵이라도 생기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딸의 말허리를 끊었다.

《이봐! 너희들중에서 먼저 일하러 나가는 년놈이 있으면 난 목을 눌러 죽일테다.… 안돼, 건 너무해.… 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자식들까지 계속 부려먹다니! 안돼, 그만하면 됐어! 차라리 먼저 떠나간 그이처럼 너희들도 죄다 매장해버리지.》

여태 침묵을 지켜오던 그의 입에서 성이 난 말소리가 쏟아져나왔다. 까뜨리느가 어머니에게 가져다줄 로임이란 뻔하다. 겨우 30쑤나 될것이다. 웃사람들이 망나니 쟝렝에게 무슨 일자리를 준다면 20쑤가 더 보태질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두 50쑤인데 식구는 일곱이다! 어린아이들은 그저 먹기만 하는것들이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는 땅에 넘어진 이후로 머리가 어디 잘못되였는지 지금은 등신이 되여버렸다. 어쩌면 병사들이 동무들에게 사격하는것을 보고 아주 얼빠졌는지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아버님. 그놈들이 아버님을 그렇게 만들었지요? 아버님은 팔이 아직 든든하다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버님은 이젠 아무것도 못해요.》

본느모르는 영문을 몰라 생기없는 눈으로 멍하니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몇시간이고 한점을 응시하고 앉아서 마루를 더럽히지 않

도록 자기옆에 놓아준 재를 담은 접시에 가래만 뱉고있었다.

《년금을 아직 해결해주지 않고있어요.》 하고 마여의 안해가 말을 이었다. 《분명히 그자들은 우리의 사상을 구실로 거절할거예요. 아니예요. 됐어요. 그자들은 너무나 많은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어요!》

《허지만 그 사람들은 게시문에 약속하고있지 않아요. …》 하고 까뜨리느가 감히 이야기에 끼여들었다.

《그자들의 게시문이야긴 내앞에 아예 내놓지도 말아!… 건 우릴 잡아먹으려는 미끼야. 우리 가죽을 뚫러놨으니깐 이젠 어루만지자는거야. …》

《그러면 우린 어데로 가야 해요, 어머니? 마을에도 우릴 그대로 두지 않을게 안야요.》

마여의 안해는 막연하고도 무서운 몸짓을 해보였다. 어디로 갈것인가? 그는 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으며 그것을 생각하는것조차 피하려고 했다. 그것을 생각하면 미쳐날것만 같았다. 어데건 다른 곳으로 갈것이다. 남비를 긁는 소리가 참을수없이 귀에 거슬렸다. 마여의 안해는 레노르와 앙리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때렸다. 기여다니며 놀고있던 에쓰뗄이 넘어져서 방안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어머니는 어린애를 주먹으로 쥐여박으면서 울음을 그치게 했다. 차라리 그 애가 심히 다쳐서 죽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으랴! 마여의 안해는 알지르를 상기하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운명이 닥쳐올것을 바랐다. 그다음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에띠엔느는 감히 말참녜를 하지 못했다. 지금 그는 이 집에서 존재가 없었다. 아이들마저 의심을 품고 그를 경원시했다. 그러나 불행한 녀인의 눈물은 그를 흥분시켰다. 그래서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괜찮아요. 기운을 내시오! 어떻게 하든 빠져나갑시다!》

마여의 안해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한듯 이제는 계속 낮은 소리로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참 기가 막히군! 이게 어디 있을법이나 한 일이요! 이런 참사가 있기 전에는 그래도 이럭저럭 살았소. 마른 빵을 먹었지만 그대신 모두 함께 살았소. 아아, 하느님맙소사.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소? 무슨 못할짓을 했기에 우린 불행을 맛보아야 하오? 어떤 사람은 저승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곳으로 갈것인가만 생각하고있으니 말이요.… 물론 우린 말처럼 일에 매여있었소. 그러나 우리에겐 매질만 차례지고 부자놈들은 자기 재산을 끊임없이 불쿠었소. 우리는 좋은것을 맛볼 희망조차 가지지 못했소. 이것은 불공정한 일이였소. 희망이 사라지면 삶의 즐거움도 사라지는거요. 물론 그렇소. 그렇게 계속될수는 없었소. 좀 숨을 돌려야 했소.… 그러나 이렇게 될줄 미리 알았더면… 정의 하나를 바라고 이런 무서운 불행을 겪다니, 과연 생각이나 할수 있는 일이겠소!》

탄식이 그의 목까지 북받쳐올랐고 커다란 슬픔으로 해서 목소리가 끊어졌다.

《별의별 망나니들이 계속 나타나서는 조금만 참으면 모든것이 제대로 될수 있다고 약속을 하군 했지.… 사람들은 흥분했고 사는것이 너무나 괴로우니 없는것을 바라게 되였지. 나도 바보처럼 꿈꾸며 생각했소, 사람들이 화목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그래서 정말 허공에 떴던거요! 그러나 또다시 시궁창에 빠져서 만신창이 됐지.… 그 모든것은 거짓이였소. 공상하고 그려보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소. 있을것이란 역시 가난뿐이였소! 아! 바라던것은 안되고 그만큼 가난만 더해진데다 설상가상으로 사격까지 받으라는거요!》

에띠엔느는 이러한 하소연을 들으면서 그 녀자의 한방울, 한방울의 눈물에서 량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는 자기의 공상이 깨여져 길을 잃은 마여의 안해를 무슨 말로 진정시켜야 할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 그 녀자는 다시금 방안 한복판에 나서서 에띠엔느를 쳐다보면서 격분해서 해라를 하며 말을 이었다.

《너도 우리모두가 그안에서 망해버린 탄갱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난 너를 조금도 나무라지 않아! 다만 내가 네 처지에 있다면 동무들에게 그처럼 큰 불행을 가져다준 고민때문에 벌써 죽었을게다.》

에띠엔느는 대답을 하려다가 말고 할수 없다는듯이 어깨를 추슬렀을뿐이다. 그 녀자가 고통속에서 리해하지 못한 설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에띠엔느는 너무나 괴로와서 다시금 밖으로 나와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마을은 여전히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있었던듯 했다. 사나이들

은 문턱에 서있었고 녀인들은 창문가에 서있었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 불평소리가 들려왔고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나흘전부터 커지던 수군거리는 험담이 전반적인 욕설로 터졌다. 모두가 에띠엔느에게 주먹질을 했으며 어머니들은 원한에 찬 동작으로 아이들에게 그를 가리켰고 로인들은 그를 보고 침을 뱉았다. 그것은 패배한 다음날 급변하는 인기의 숙명적인 역전이였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참아온 모든 고통으로 해서 격화된 증오였다. 에띠엔느는 굶주림과 동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지고있었다.

필로멘느와 함께 온 자샤리는 에띠엔느가 나오자 그를 떠밀면서 악의에 찬 조소를 했다.

《야! 살이 졌군그래! 남의 목숨을 팔아 제 배를 채웠군!》

레바끄의 안해는 벌써 부뜰루를 데리고 문턱에 나와있었다. 그는 총에 맞아 죽은 자기 아들 베베르의 이야기를 하면서 웨쳐댔다.

《그렇다. 어린아이도 죽이는 비렬한이 있다. 땅속에 가서라도 내 아이를 데려와야 해!》

그는 잡혀간 남편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가정살림은 부뜰루가 있어 유지해나가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레바끄에 대해서도 상기하고 새된 목소리로 고아댔다.

《그렇다! 그래! 정직한 사람들은 갇히고 죽고 했는데 망나니들은 싸다니고있거던!》

에띠엔느는 레바끄의 안해를 피하려다가 뜨락들을 가로질러 달려온 삐에롱의 안해와 부딪쳤다. 그 녀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자기들이 살고난것처럼 생각하고있었다. 사나운 로파는 그들을 매달듯이 위협했던것이다. 그 녀자는 못된짓을 하던 자기 딸 리디가 죽은데 대해서도 그야말로 시원섭섭하게 여기고 울지 않았다. 그러나 그 녀자는 이웃 녀인들과 화해하려는 생각으로 그들편에 섰다.

《우리 어머닌 어떻거구? 딸은 또? 그들은 네대신에 총알을 맞았어. 그때 네가 그들뒤에 숨은걸 사람들이 보았어.》

어떻게 할것인가? 삐에롱의 안해와 모든 다른 사람들을 목눌러죽일것인가? 온 마을을 상대로 싸울것인가? 한순간 에띠엔느에게는 바로 이러한 욕망이 떠올랐다. 머리속에서는 피가 용솟음쳤다. 지금 그는 자기 동무들을 짐승처럼 취급했다. 그는 동무들이 사건의 론리적결과

를 자기의 잘못으로 치부할만치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데 화가 났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는 사람들을 다시 복종시킬수 없는 자기의 무능력이 혐오스러웠다. 그는 욕설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처럼 걸음만 다우쳤다. 미구하여 그는 정말 도망질을 했다. 그가 집집의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에게 고함을 쳤으며 그의 뒤를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목청껏 욕설을 퍼부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증오가 극도에 이르렀기때문이였다. 그들은 에띠엔느를 착취자이며 살인자라 했고 모든 불행의 유일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미칠듯이 된 에띠엔느는 달음박질로 마을에서 빠져나왔다. 군중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그의 뒤를 따랐다. 드디여 많은 사람들이 신작로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집요하게 그의 뒤를 따랐다. 아방따즈앞의 경사면아래쪽에 이르러서는 보료탄갱에서 나오던 다른 사람들의 무리와 마주쳤다.

거기에는 무끄로인과 솨발이 있었다. 로인은 딸 무께뜨와 아들 무께가 죽은 후에 한마디의 슬픈 말이나 하소연도 없이 계속 마부일을 하고있었다. 갑자기 에띠엔느를 보자 무끄로인은 분노에 휩싸이고 두눈에는 눈물이 글썽하였다. 항상 담배를 씹어서 피가 나오고있는 꺼매진 그의 입에서 욕설이 쏟아져나왔다.

《개자식! 돼지같은 놈! 더러운 놈! 이제 넌 나의 가엾은 애들에 대한 값을 나에게 치르어야 해. 내가 네놈을 혼쌀낼테다!》

그는 벽돌 한장을 집어들고 두쪼각을 내여 련이어 던졌다.

《그렇소, 그렇소! 바로 저놈을 없애치웁시다!》 이런 복수에 기뻐서 어쩔줄 모르는 솨발은 몹시 흥분하여 조소하면서 웨쳤다. 《누구나 제 차례가 있는거야. 이젠 네놈이 꼼짝 못하게 됐지, 더러운 놈!》

그도 에띠엔느에게 돌을 던지면서 달려들었다. 사나운 웨침소리가 높아지고 모두들 병사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던 때처럼 그를 초벌주검을 만들려고 벽돌을 깨뜨려 던졌다.

에띠엔느는 어리둥절하여 이젠 도망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앞에 곧바로 서서 말로써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그렇게도 열렬한 갈채를 받던 이전의 연설들이 그의 입가에 다시 떠올랐다. 그는 자기가 충실한 군중들을 수중에 장악하고있을 때 그들을 도취시키던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의 권위는 이미 힘을 잃었고 그대신 돌만이 날아

왔다. 돌 하나는 그의 왼팔에 상처를 입혔다. 그는 커다란 위험속에 뒤로 물러서서 아방따즈의 정면까지 오게 되였다. 라스너르는 얼마전부터 문턱에 서있었다.

《들어오게.》 그는 이렇게 한마디 했을뿐이였다.

에띠엔느는 거기에 피신하면 숨막힐것 같아서 망설였다.

《어쨌든 들어오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하지!》

에띠엔느는 할수없이 방구석에 몸을 감추었다. 그러자 술집주인이 넙적한 등으로 문을 막았다.

《가만 친구들, 좀 분수있게 행동해야 하오.… 당신들은 내가 절대로 당신들을 속이지 않았다는것을 잘 알게요. 난 평온한것을 언제나 지지해왔소. 당신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물론 지금같은 그러한 처지엔 빠지지 않았을게요.》

그는 어깨와 배를 흔들면서 오래동안 계속했다. 따뜻하고 조용하면서도 달콤한 말로 류창한 웅변을 쏟아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전처럼 다시 성공할수가 있었다. 그는 마치도 한달전에 아무도 자기에게 고함을 치며 비겁분자로 취급하지 않았던것처럼 아무런 품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시 인기를 회복했다. 《옳소! 찬성이요! 바로 그렇게 말해야 하오!》 하는 긍정의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리고 요란한 박수소리가 울렸다.

에띠엔느는 뒤에서 정신이 아뜩해지고 마음이 쓰거웠다. 그는 숲속에서 라스너르가 군중들의 배신을 받게 되리라고 위협하던 말을 상기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자들의 란폭한짓인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일을 한 사람을 못 알아주다니 얼마나 가증스러운 배은망덕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서로 물어뜯는 무지막지한 힘이였다. 그런데 자기들의 위업을 훼손시키는 미개한 그들을 보고 느끼는 격분에는 자기자신의 패배, 자기 야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극적종말을 가져온것으로부터 오는 절망이 스며있었다. 뭐라고! 모든것이 벌써 끝장이란 말인가? 에띠엔느는 숲속의 너도밤나무밑에서 3천의 심장이 자기와 함께 고동치는 소리를 들었던것을 상기했다. 그날에 그는 인기를 자기 수중에 장악했고 군중들을 자기에게 소속시켜 자기가 그들의 지도자로 된듯이 느꼈었다. 그때 에띠엔느는 공상에 취해있었다. — 몽쑤는 바로 발밑에 있고 빠리는 그 저쪽에 있다. 아마

도 자기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여 연단에서 부르죠아를 공격할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것이 끝장이다! 그는 버림받았음을 느꼈다. 그 군중이 손에 벽돌장을 쥐고 그를 따라오고있는것이다.

이때 라스너르의 목소리가 높이 울렸다.

《폭력은 성공한적이 없소. 하루동안에 세계를 개조할수는 없는거요. 모든것을 단번에 변화시키겠다고 당신들에게 약속한 사람들은 협잡군이든가 또는 건달군들이요!》

《옳소! 옳소!》 하고 군중들이 웨쳤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가? 에띠엔느가 스스로 제기한 이 문제는 그를 줄곧 괴롭히였다. 그자신도 피를 흘린 이 불행, 빈궁에 허덕이는 사람들, 죽음을 강요당하는 여윌대로 여위고 빵이 없는 녀인들과 아이, 이 모든 일이 과연 그의 잘못이란 말인가? 아직 불상사가 있기 전 어느날 밤 그의 앞에는 이러한 비참한 환상이 떠올랐었다. 그러나 그 어떤 힘이 동무들과 그를 충동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결코 그들을 지도하지 않았다. 그들자신이 그를 끌고갔으며 뒤에서 떠밀었다. 그렇지만 않았더면 그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것이다. 폭력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를 아연실색케 했다. 그것은 어느 한 사건도 그가 예상했거나 바라지도 않았기때문이였다. 례를 들어 마을에 사는 자기의 추종자들이 어느날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쫓아오리라고 그가 예견할수 있었겠는가? 이 분격한자들은 배불리 먹고 놀수 있는 생활을 자기가 약속했다고 비난하고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량심의 가책을 억누르고저 꾸며낸 이러한 변명과 구실에는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말할수 없는 불안감이 숨어있었다. 지식이 깊지 못하다는 의혹이 항상 그를 괴롭혔던것이다. 그는 정말 용기가 진한것을 느꼈다. 그는 지어 동무들과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고 그들이 두려웠다. 규칙과 리론을 벗어나서 모든것을 쓸어버리는 자연의 힘처럼 전환된 무분별하고 억누를수 없는 대중의 거대한 무리를 그는 무서워했다. 그의 세련된 취미에 대한 불쾌감, 상류계급쪽으로 그의 존재가 천천히 기울어지는데서 오는 혐오감때문에 그는 점차 대중으로부터 리탈되였다.

이때 사람들의 열광적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라스너르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라스너르 만세! 저 사람밖에 없소. 옳소! 옳소!》

술집주인이 문을 닫자 군중들은 흩어져갔다. 라스너르와 에띠엔느는 잠자코 서로 쳐다보았다. 두 사나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결국 그들은 맥주를 한조끼씩 같이 마시고야말았다.

이날 삐올랜느에서는 네그렐과 쎄씰의 약혼을 축하하는 큰 연회가 있었다. 그전날 그레그와르부부는 하인들에게 식당의 마루를 닦게 하고 손님방의 먼지를 털어내게 했다. 멜라니는 부엌에서 분주히 돌아치면서 군고기를 살피고 쏘스를 치군 했는데 그 냄새는 다락방까지 풍겨왔다. 마차부 프랑씨는 오노리느를 도와서 식탁에 료리를 나르고 원예사의 안해는 식기를 씻고 원예사자신은 손님들에게 대문을 열어주기로 되여있었다. 부유하고 가부장적인 이 집은 아직 한번도 이런 축하연으로 이렇게 버쩍 끓은적이 없었다.

모든 일이 더할나위없이 훌륭히 진행되였다. 엔보부인은 쎄씰에게 아주 다정스러웠으며 몽쑤의 공증인이 앞날의 부부의 행복을 위해 잔을 들것을 정중하게 권했을 때에는 네그렐에게 미소를 지었다. 엔보씨도 아주 친절했다. 그의 기쁨에 넘친 모습은 손님들을 놀라게 했다. 다시금 리사회의 신임을 얻은 엔보씨가 파업을 정력적으로 진압한 공로로 레지옹도네르훈장을 내신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손님들은 최근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것을 피하고있었으나 여럿의 기쁨은 그들의 승리를 말해주었고 결국 연회는 승리의 축하연으로 변했다. 드디여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다시금 편안히 먹고 살수 있게 되였다! 아직도 그 피가 보료탄갱의 진탕속에 채 스며들지 않은 피살자들에 대하여 누구인가 암시비슷이 조심조심 이야기했다. 그 교훈은 필요한것이다. 그레그와르부부가 이제 와서는 마을들이 입은 상처를 가셔주는것이 각자의 의무라고 덧붙이자 모두가 감동했다. 그레그와르부부자신은 이전의 평온과 선량함을 되찾고 벌써 탄갱에 들어가 세기적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고있는 저들 성실한 탄부들을 용서해주었다. 더는 공포에 떨지 않게 된 몽쑤의 주지들은 로임제도문제가 신중하게 연구되여야 한다는것을 요구하는데 모두 동감이였다. 군고기를 먹을 때 엔보씨가 랑비에신부의 조동을 알리는 주교의 편지를 읽자 승리는 절정에 이르렀다. 지방의 모든 부르죠아지들은 병사들을 살인자로 취급한 이 목사의 이야기를 열렬하게 비평했다. 그런데 식후다과가 나왔을 때

공증인은 자기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것을 단호하게 언명했다. 데넬랭은 두 딸과 함께 참석했다. 그는 여러 사람의 기쁨속에서 되도록 자기의 파산의 슬픔을 감추려고 애썼다. 이날 아침 그는 방담을 몽쑤회사에 양도하는 판매계약을 체결했던것이였다. 막다른 골목에 빠진 데넬랭은 리사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드디여 오래전부터 그리고있던 이 먹이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채권자들에게 물어야 할 돈을 겨우 뽑아냈다. 지어 마지막에는 부문담당기사격으로 그를 붙들어두려는 회사의 제의도 행운으로 여기고 접수했다. 그리하여 그는 평범한 직원으로서 자기의 재산을 탕진한 이 탄갱을 감독하는 운명에 처하였다. 그것은 소규모적인 개인기업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 대주식회사들의 불어나는 흐름속에 잠겨 항상 굶주리고있는 자본에게 하나씩 먹히게 될 기업주들에게 다가오는 멸망이였다. 그만이 파업이 가져온 손실을 보상하였다. 지금 사람들이 엔보씨의 훈장수여를 위해 축배를 드는것도 그에게는 자기의 파산을 위해 축배를 드는것으로 느껴졌다. 몸에 꼭 맞게 옷을 고쳐입은 매력있는 류씨와 쟌느의 허세를 부리는 아름다움만이 그를 위로해줄뿐이였다. 아름답고 활발한 처녀들은 파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돈따위는 안중에도 없는듯 유쾌하게 웃고있었다.

커피를 마시려고 손님방으로 옮겨가자 그레그와르는 사촌동생을 한옆으로 끌고가서 대담한 결심을 내린데 대하여 그를 축하했다.

《별수 있나? 자네가 꼭 한가지 잘못한건 몽쑤의 주권에서 얻은 백만프랑으로 방담에서 모험을 한거야. 자네스스로가 자기에게 그런 기막힌 손해를 입게 했지. 돈은 그 진저리나는 일에 녹아 없어지고말았지. 궤속에 넣어둔 내 주권은 내가 아무 일을 안해도 날 여직껏 먹여주고있어. 또 그렇게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을 먹여줄것이네.》

2

일요일 날이 어두워지자 에띠엔느는 슬그머니 마을에서 빠져나왔다. 별들이 총총한 맑은 하늘은 황혼의 푸른빛으로 대지를 비쳐주었다. 에띠엔느는 운하쪽으로 나가서 그 기슭을 따라 마르쉬엔느쪽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이것은 그가 즐기는 산보였다. 잔디가 덮인 20리오솔길은 은을 녹여 부은듯이 끝없이 펼쳐져 질서정연하게 흐르는 물을 따라 곧게 뻗었다.

거기서 그는 누구도 만난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은 한 사나이가 자기에게 오는것을 보고 좋지 않아했다. 그런데 희미한 별빛아래에서 외롭게 산보하는 두 사나이는 서로 얼굴을 맞대게 돼서야 상대편이 누구인가를 알아차렸다.

《아! 임잔가?》 하고 에띠엔느가 중얼거렸다.

쑤바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머리만 끄덕하였다. 한순간 그들은 까딱하지 않고 섰다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르쉬엔느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걸어가는 두 사나이는 서로 무척 멀리 떨어져있기라도 한듯이 제각기 자기 사색을 계속하고있는것 같았다.

《쁠류샤르가 빠리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있는지 신문에서 읽어봤나?》 하고 드디여 에띠엔느가 물었다. 《그가 밸빌의 집회에서 나왔을 때 거리에서 그를 기다리고있던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는거야. 그는 감기에 걸렸지만 시작했단 말이야. 앞으로 그는 가고싶은 곳은 어디라도 갈거네.》

기계공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말재주로 년금을 벌려고 변호사가 되듯이 정계에 나서는 말잘하는 약삭바른 사람들을 경멸했다.

에띠엔느는 요즈음 다윈주의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5쑤짜리 소책자에 요약된 통속화된 단편적인것들을 읽었었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의 혁명적사상을 그릇되게 리해하였다. 여윈자가 살진자를 잡아먹고 강력한 인민대중이 약한 부르죠아지를 뜯어먹는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쑤바린은 과학적불평등론의 사도이며 귀족철학가들에게나 쓸모있을 악명높은 도태설을 수립한 다윈의 학설을 어리석게 받아들이고있는 사회주의자들을 격분하여 공격했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자기 립장을 고집하면서 론쟁을 하려고 했다. 그는 하나의 가설을 통해서 자기의 의혹을 표명했다. 즉 낡은 사회가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그마한것에 이르기까지 쓸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나 움트기 시작한 새 사회는 옛날과 같은 부정의에 의해 서서히 썩어갈 위험이 없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앓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할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보다 재치있고 지혜로와 그저 살만 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고 게을러서 다시금 노예로 될것이다, 기계공은 영원한 빈궁의 정경을 제 눈으로 보는듯이 머리에 그려보고나서 사나운 목소리로 정의가 인간에게 실현불가능한것이라면 전인류는 소멸되여야 한다고 웨쳤다. 부패한 사회제도가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마지막존재까지 쳐부셔야 한다. 다시금 침묵이 흘렀다.

쏘바린은 머리를 숙이고 오래동안 가느다란 풀우를 걸어갔는데 어찌나 깊이 사색에 잠겼던지 처마밑을 따라가는 꿈을 꾸는 잠든 사람처럼 태연하게 확신을 가지고 물가에 바싹 접근하여 걸었다.

문득 그는 그 어떤 환영이라도 본듯이 아무 까닭없이 흠칫 몸을 떨었다. 그가 눈을 쳐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다. 그는 동행자를 향하여 조용히 말했다.

《그 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네에게 말했지?》

《누구 말인가?》

《내 처 말이네. 저기 로씨야에서 말이야.》

평시에 랭담하고 남들과 자기자신에 대하여 굳센 이 사나이가 뜻밖에도 속을 털어놓으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떼는데 놀란 에띠엔느는 막연한 몸가짐을 해보였다. 에띠엔느는 모스크바에서 교수형을 당한 녀인이 그의 애인이라는것밖에 알지 못했다.

《우리 일은 파탄되였어.》 하고 쏘바린은 푸른 나무들사이로 흰 띠처럼 흘러가는 운하에 초점없는 눈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두주일이나 땅밑에 있으면서 철길을 폭파시키려고 했었지. 그러나 짜리의 렬차가 아니라 려객렬차가 날아났단 말일세. … 그때 안누쉬까가 체포되였지. 저녁마다 농민복을 갈아입고 우리한테 빵을 가져왔네. 도화선에 불을 단것도 그였네. 남자들이면 당장 발견될수 있으니까. … 나는 군중들속에 숨어서 내내 재판에 참석했었지. 그 재판은 엿새동안이나 계속되였어. …》

그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숨이 막힌듯 한 기침이 발작했던것이다.

《두번이나 나는 소리를 치며 사람들의 머리우로 그에게 달려가고싶은걸 참았지. …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한사람이 줄면 투사 한사람이 주는것으로 된단 말일세. 우리의 눈길이 서로 마주쳤을 때 나는 멈춰선 그의 큰 두눈에서 그 역시 〈안돼요.〉 하고 말하는것을 틀림없이 알아볼수 있었어.》

그는 또다시 기침을 깇었다.

《마지막날에도 나는 광장에 갔었네. … 비가 억수로 퍼부어서 놈들은 손이 잘 놀려지지 않았지. 당황해들 하더군. 안누쉬까의 차례가 되기까지 4명을 교수형에 처하는데 20분이나 걸렸지. 바줄이 끊어져서 그들은 네번째 사람은 목을 맬수 없었지. … 안누쉬까는 곧게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있었어. 그는 날 보지 못하고 군중들속에서 찾고있더군. 내가 길가의 표말우에 올라서자 그는 드디여 날 보았지. 그 순간부터 우리의 눈은 서로 떨어지지 않았네. 죽어서도 그는 계속 날 쳐다보았어. … 난 모자를 흔들고 물러갔네.》

다시금 침묵이 흘렀다. 운하옆으로 난 하얀 오솔길은 끝없이 뻗어있었다. 두사람은 다시 헤여진듯 제각기 무거운 걸음을 옮겨놓았다. 희여스름한 물은 지평선에 이르러 가느다란 빛줄기를 하늘에 뚫어놓은것 같았다.

《그건 우리에 대한 처벌이였네.》 쑤바린은 힘겹게 말을 계속했다. 《우린 서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것이였네. … 그래, 그가 죽은것은 잘된 일이야. 그의 피에서 영웅들이 탄생하고있네. 또 나에게는 더는 비렬성이 없어졌네. … 아! 아무것도 없네. 량친도 녀인도 벗도 없네! 남의 목숨을 앗아내야 한다든가, 자기 목숨을 바쳐야 할 때도 손떨리게 할 아무것도 없네!》

에띠엔느는 밤의 찬 공기에 몸을 흠칫 떨고 멈춰섰다. 그는 론쟁을 하고싶지 않아 그저 이렇게 말을 했다.

《우리는 퍼그나 멀리 왔네. 되돌아가지 않겠나?》

그는 역시 천천히 보료쪽으로 되돌아섰다. 그리고 몇걸음을 걸어가다가 덧붙였다.

《새 공시문을 봤나?》

그는 그날 아침에 회사가 또다시 내붙인 누런빛의 큰 공시문을 념두에 두고 말한것이였다. 그 공시문은 보다 구체적이고 타협적이였다. 회사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입갱하는 탄부들에게서 로임수첩을 다시 받아들이겠다는것을 약속하고있었다. 모든것을 잊어버릴것이며 주모자들도 용서하리란것이였다.

《응, 봤어.》 하고 기계공이 대답했다.

《그래, 임잔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네. … 오합지졸은 다시금 입갱할거네. 자네들은 죄다 심한 겁쟁이들이야.》

에띠엔느는 개별적인 사람은 용감할수 있으나 굶어죽어가는 군중은 힘이 없다고 하면서 동무들을 열렬하게 변명했다. 그들은 한걸음, 한걸음 보료탄갱까지 다가갔다. 탄갱의 꺼먼 석탄무지앞에서 에띠엔느는 자기는 결코 다시 입갱하지 않겠지만 다시 입갱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말을 계속했다. 이윽고 에띠엔느는 목수들이 갱내에 둘러친 판자들을 미처 수리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아 알고싶어했다. 그는 수직갱골조의 외피를 이루는 나무가 지압때문에 안으로 휘여들어 승강기가 5메터이상 되는 구간의 벽을 스치면서 지난다는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또다시 말이 없던 쑤바린은 간단하게 대꾸했다. 어제 그가 작업을 할 때 승강기는 마찰을 일으켰다. 그래서 기계공들은 승강기가 그 자리를 빨리 지나가도록 속도를 배가시켜야 했었다. 그러나 웃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누가 보고하면 언제나 성난 말로 대하였다. 필요한것은 석탄을 파내는 일이고 보수는 후에 할 일이라는것이였다.

《금이 가는걸 보지 못했나!》 하고 에띠엔느가 속삭였다. 《이제 혼이 날거야!》

쑤바린은 어둠속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탄갱을 주시하면서 태연하게 말을 맺었다.

《금이 가면 동무들이 알게 될걸세. 자네가 그들에게 입갱하라고 권하고있으니까 말이야.》

몽쑤의 종루에서는 9시종을 쳤다. 에띠엔느가 돌아가서 자야겠다고 말하자 쑤바린은 악수도 청하지 않고 덧붙였다.

《그럼 잘 있게. 난 떠나가겠네.》

《뭐라고, 떠나간단 말인가?》

《난 로임수첩을 찾았어. 다른 곳으로 가겠네.》

에띠엔느는 놀라고 흥분해서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쑤바린은 두시간동안의 산보를 하고나서야 에띠엔느에게 그토록 평온한 목소리로 그것을 알려주었던것이다. 갑자기 헤여지게 된다는 소리에 에띠엔느는 가슴이 죄여들었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함께 많은 고생을 겪었던것이다. 더는 만나지 못할 리별을 할 때는 언제나 괴로운 법이다.

《떠난단 말이지, 어데로?》
《저기로, 나자신도 몰라.》
《하지만 우린 또 만나겠지?》
《아니, 그렇게 될것 같지 않아!》
그들은 입을 다물고 서로 할말을 찾지 못하고 얼굴을 마주하고있었다.
《그러면 잘 가게!》
《잘 있게!》
에띠엔느가 마을로 올라가는 동안 쑤바린은 돌아서서 운하제방으로 다시 왔다. 홀로 남은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끝없이 걸어갔다.
그의 모습이 어찌나 어둠속에 잠기였던지 야밤의 움직이는 유령같았다. 그는 이따금 멈춰서서 멀리서 치는 시계소리를 세여보군 했다. 2시를 치자 그는 운하의 제방에서 떨어져서 보료탄갱쪽으로 향했다.
이때 탄갱은 텅 비여있었다. 쑤바린은 졸다가 눈이 둥그래진 한 감독을 만났을뿐이였다.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2시에야 불을 지피게 되여있었다. 처음에 그는 장속에 웃옷을 놓고왔다는 핑게로 올라갔다. 웃옷에는 드릴, 짧고도 단단한 톱, 마치와 정 등 도구들을 싸두었었다. 그다음 그는 휴계실을 지나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다리가 있는 갱도에로 통하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웃옷을 겨드랑이에 끼고 등불없이 사다리가름대수로 깊이를 가늠하면서 조용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아래로 다섯번째 층의 374메터의 깊이에서 승강기가 벽에 스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는 54개째의 사다리가름대를 세고나서 손으로 벽을 더듬어 쑥 삐져나온 나무를 감촉했다. 바로 그곳이였다.
그는 자기 일에 대해서 오래동안 구상한 숙련된 로동자의 솜씨로 침착하게 일에 착수했다. 그는 즉시 채탄장과 통하도록 간막이벽 판자하나에 톱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확 켜졌다가 이내 꺼지는 성냥불의 도움을 받아 수직갱에 둘러친 판자들의 상태와 최근에 진행된 보수정형을 알수 있었다.
깔래와 발랑씨엔느사이에서 수직갱굴착작업은 전대미문의 장애에 부닥치게 되였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계곡과 꼭같은 높이에서 무연하게 펼쳐져 고여있는 지하수를 뚫고 지나가야 하기때문이였다. 나무통의 쪽널처럼 서로 맞물려 둘러친 판자들만이 흘러드는 지하수를 막고

있었다. 판자들이 물을 막고있음으로 하여 땅속깊이에서 검은 파도를 일으키며 벽을 때리는 호수의 한복판으로 수직갱이 지나갈수 있었다. 보료탄갱을 뚫을 때는 2층의 안벽을 만들어야 했었다. 웃층은 백악층과 린접한 무너져내리기 쉬운 모래와 흰점토층을 지나는데 그것은 물때문에 해면처럼 부풀어오르고 사방에 틈이 생겼다. 다른 탄층바로 우에 있는 아래층은 액체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밀가루같이 보드라운 노란 모래속에 설치되였다. 바로 거기에 북쪽탄갱의 공포의 대상으로 되여있는 지하바다 또랑이 있었다. 그것은 지상에서 300메터나 되는 깊이에서 시꺼먼 파도를 일으키며 폭풍우가 휘몰아치고있는 알수도 측정할수도 없는 바다였다. 커다란 압력을 받으면서도 보통때는 수직갱의 안벽들이 잘 견디였다. 수직갱에 둘러친 나무들은 메워지는 낡은 채탄장에서 작업을 계속하여 흔들리면서 가까이에 버럭이 쌓여도 거의나 위험하지 않았다. 암반이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이따금 틈새가 생겨 천천히 골조까지 터져 결국에는 수직갱안쪽으로 밀어 그것을 변형시켰다. 바로 거기에 위험이 있었다. 붕락할수도 침수될수도 있는 위험, 온 탄갱이 매몰되고 물에 잠길 위험이 있었다.

쑤바린은 자기가 뚫은 구멍을 가로타고앉아서 판자를 댄 다섯번째 층이 심히 변형된것을 목격했다. 목재부분품들이 틀밖으로 휘였고 지어 많은것들이 벽에서 빠져나왔다. 탄부들이 《홈》이라고 부르는 많은 물이 판자들의 련결부를 틀어막은 타르칠을 한 삼부스레기새로 뿜어나오고있었다. 목수들은 서두른 나머지 모난 부분에 각철만 박아놓고 나사를 죄다 죄여놓지 않았었다. 그 뒤쪽의 또랑모래속에서 무시할수 없는 움직임이 일고있었다.

쑤바린은 나사틀개로 조금만 다쳐도 빠져나오게끔 각철나사들을 풀어놓았다. 이것은 아주 대담한 작업이였다. 그는 이 작업중에 180메터나 되는 높이에서 밑으로 떨어질 위험을 몇번이고 겪었다. 승강기가 미끄러져가는 두꺼운 참나무판자궤도를 잡지 않으면 안되였다. 쑤바린은 일정한 간격을 둔 가름대들을 잡고 허공에 매달려 움직이군 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침착하게 팔꿈치나 무릎으로 몸을 유지하고 앉기도 하고 미끄러져가기도 하고 뒤로 몸을 젖히기도 했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그는 떨어질수 있었다. 그는 세번이나 놓쳤던 가름대를 다시 잡았는데 무서워하는 기색은 한번도 보이지 않았다. 그

는 우선 손으로 나무를 더듬어보고나서 일을 시작했는데 끈적끈적한 대들보들사이에서 방향을 잃은 경우에만 성냥불을 켰다. 쑤바린은 나사를 풀어놓고 부분품들에까지 손을 댔다. 위험은 더 커졌다. 그는 기본고리 즉 다른 나무들을 유지하고있는 가름대를 찾았다. 그것을 찾아가지고는 구멍을 뚫고 톱으로 켜고 깎아 견디여내지 못하도록 했다. 구멍들과 틈새들에서는 얼음같은 물이 분수처럼 뿜어나와 그의 눈을 뜨지 못하게 했다. 성냥을 두가치 켰으나 꺼졌다. 모두 누기가 찼다. 캄캄해졌다. 끝없는 어둠의 심연이였다.

그는 이 순간부터 광포해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결이 그를 취하게 했다. 폭우가 쏟아져내리는 이 심연의 무시무시한 어둠이 그에게 파괴열을 더욱 돋구어주었다. 그는 손에 잡히는대로 벽에 달라붙어서는 당장 그의 배를 갈라놓고싶어서 나사틀개를 돌리고 톱으로 켜고 구멍을 뚫었다. 쑤바린은 마치도 자기가 증오하는 생물체에 대고 칼부림을 하듯이 사납게 그 일을 했다. 그는 항상 아가리를 벌리고 많은 인명들을 삼켜버리고있는 보료갱이라는 이 흉악한 짐승을 죽여버리려는것이였다! 쑤바린은 종루의 골조사이를 날아다니는 박쥐처럼 몸을 쭉 펴고 기여가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우로 올라오기도 했다. 그의 도구들이 물어뜯는 소리만이 들렸다.

쑤바린은 일을 끝마치자 자기자신에 대한 불만을 느꼈다. 과연 이 모든 일을 더 랭정하게 할수 없었단 말인가? 그는 천천히 사다리로 돌아와서 톱으로 오려낸 판자를 제자리에 대고 구멍을 막아놓았다. 그만하면 충분했다. 그는 지나치게 큰 손상을 주어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하고 곧 그것을 보수하게 하는것을 바라지 않았다. 짐승은 배에 상처를 입었다. 그것이 저녁에도 살아있을것인지 두고보아야 할것이다. 쑤바린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이 짐승이 저절로 고이 죽은것이 아님을 알게 될것이라고 단정했다. 쑤바린은 시간을 들여 공구들을 질서정연하게 웃옷에 싸가지고 천천히 사다리를 다시 올라갔다. 그다음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고 갱에서 나와서도 그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겠다는것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시계가 3시를 쳤다. 쑤바린은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길에 멈추어섰다.

바로 이 시각에 잠들지 못하고있던 에띠엔느는 캄캄한 방안의 어둠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불안에 잠겨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가는 숨소리며 본느모르할아버지와 마여의 안해의 코고는 소리를 똑똑히 알아들었다. 그의 옆에서는 쟝렝이 플류트음악처럼 길게 뽑는 숨소리를 내였다. 틀림없이 꿈을 꾸었을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드러누웠다. 그러나 바스럭거리는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그것은 침대깔개에서 나는 소리였다. 누구인가가 일어나면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있었다. 에띠엔느는 까뜨리느가 몸이 편치 않은것이라고 생각했다.

《까뜨리느야? 왜 그래?》 하고 그는 속삭이는 말로 물었다.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았고 코고는 소리만 계속 들려왔다. 5분동안 누구도 까딱하지 않았다. 이윽고 다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착각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는 방안을 가로지나가서 맞은편에 있는 침대를 찾으려고 어둠속에서 손을 더듬거렸다. 그는 까뜨리느가 깨여나 숨을 죽이고 앉아있는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래! 어째서 대답을 하지 않아? 뭘하고있어?》

드디여 까뜨리느가 입을 뗐다.

《일어나려구요.》

《지금이 몇신데 일어나?》

《탄갱에 일하러 갈래요.》

몹시 흥분한 에띠엔느는 침대깔개의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까뜨리느는 그에게 그 까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에게 질책하는 눈초리가 쏠리는것을 항시 느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것은 너무나 괴롭다는것이였다. 그럴바에는 저기 가서 솨발에게 맞고 지내는편이 나으리라는것이였다. 만약에 벌어오는 돈을 어머니가 거절하면 다 큰 자기는 제 살림을 따로 꾸리겠다는것이였다.

《저리로 가요. 옷을 입겠어요.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 되려거든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아요.》

그러나 에띠엔느는 물러가지 않고 근심과 동정으로부터 그를 애무하며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샤쯔바람에 서로 껴안은 그들은 미지근한 밤잠자리의 가장자리에서 따뜻한 맨살을 감촉하였다.

드디여 까뜨리느가 먼저 몸을 빼려고 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두팔로 에띠엔느의 목을 껴안고 그를 자기한테서 떨어지지 못하게 할뿐

만아니라 절망적으로 더 꽉 끌어안고 낮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불행하고 충족되지 못한 자기들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뿐 그외의 다른 욕망은 느끼지 않았다. 과연 모든것이 영원히 끝장났단 말인가? 자유로운 몸으로 된 지금에도 그들은 서로 사랑할수 없단 말인가? 그들스스로가 뚜렷이 알지 못하는 각이한 상념으로 해서 느끼는 수치감, 그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어색한 기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많지 않은 행복이 그들에게 차례지면 될것이다.

《가서 누워요.》 하고 까뜨리느는 속삭였다. 《난 불을 켜고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깰거예요. … 시간이 됐어요, 놔줘요.》

그는 말을 듣지 않았다. 얼빠진 사람처럼 계속 까뜨리느를 끌어안고있었다. 그의 심장은 애수로 가득찼다. 그는 평화스러운 생활에 대한 갈망, 행복에 대한 어찌할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조그맣고 아담한 집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자기자신을 그려보았다. 그런 집에서 까뜨리느와 함께 살다가 죽는것외에 더 바랄것이 없었다. 그들은 빵만으로도 만족할것이다. 만약 빵이 한사람분밖에 안되면 그것을 까뜨리느에게 줄것이다. 뭣이 또 그들에게 필요하겠는가? 과연 인생에 그 이상의 가치가 있겠는가?

그러나 처녀는 자기의 맨 팔을 풀었다.

《제발 놔줘요!》

그러자 에띠엔느는 심장의 충동을 받고 까뜨리느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좀 기다려. 나도 같이 가겠어!》

에띠엔느는 제 말에 스스로 놀랬다. 그는 입갱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것이다. 그의 입에서 우연히 나온 이 뜻밖의 결심은 어디서 생긴것인가! 그는 잠시도 그런것은 생각하지 않았던것이다. 지금 그는 자신의 마음속이 아주 편안하며 온갖 의혹을 완전히 벗어난것처럼 느꼈고 우연히 구원을 받은 사나이처럼, 드디여 자기의 괴로운 상태로부터의 출구를 발견한 사나이처럼 자기 의견을 완고히 주장했다. 그래서 까뜨리느가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탄갱에서 그를 좋지 않게 대할것이 두려워 걱정을 해도 그는 그런 말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에띠엔느는 모든것을 꿈만하게 여겼다. 공시문에는 용서해줄것을 약속하고있지 않는가. 그것이면 충분했다.

《난 일하고싶소. 이건 나의 생각이요.… 옷을 입자구, 소리는 내지 말구.》

그들은 어둠속에서 조심조심 옷을 입었다. 까뜨리느는 이미 어제 자기의 작업복을 몰래 준비해두었었다. 에띠엔느도 장에서 웃옷과 바지를 꺼내였다. 그들은 대야소리를 낼가봐 세면을 하지 않았다. 모두 자고있었다. 좁은 통로로 어머니의 옆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은 나가다가 공교롭게도 의자에 부딪쳤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잠결에 물었다.

《거 누구야?》

까뜨리느는 몸을 떨면서 에띠엔느의 손을 꼭 잡고 멈춰섰다.

《접니다, 안심하십시오.》 하고 에띠엔느가 대답했다. 《가슴이 답답해서 밖에 나가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요.》

《나가보우.》

마여의 안해는 다시 잠이 들었다. 까뜨리느는 공포에 질려 움직일수 없었다. 드디여 그는 아래방으로 내려가서 몽쑤의 어느 한 부인한테서 얻어 간수해두었던 빵쪼각을 둘로 나누었다. 이윽고 그들은 소리없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쑤바린은 행길모퉁이에 있는 아방따즈옆에 그냥 서있었다. 그는 이미 온 30분동안이나 탄부들이 다시 일하러 나가는것을 보고있었다. 그들은 어둠속에서 어렴풋하게 보이고 떼를 지어 지나가면서 웅글은 발소리만을 내였다. 그는 고기장사가 도살장문앞에서 짐승들을 세듯이 그들을 세고있었다. 그들의 수에 그는 놀랐다. 비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그는 겁쟁이가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꼬리는 계속 늘어섰다. 쑤바린은 완강하게 버티고서서 차겁게 이를 악물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쑤바린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얼굴들을 분간할수 없는 줄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속에서도 걸음걸이로 미루어 한사람만은 알아보았던것이다. 그는 앞으로 걸어나가서 그 사나이를 멈춰세웠다.

《어델 가나?》

에띠엔느는 당황해하면서 대답대신에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자넨 아직 떠나지 않았나?》

그런데 그는 탄갱으로 간다는것을 고백했다. 물론 그가 탄갱으로 돌

아가지 않겠다고 맹세는 했지만 아마도 백년후에야 이루어질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살수는 없지 않는가! 뿐만아니라 그에게는 남다른 개인의 사정이 있는것이다.

쑤바린은 몸을 떨면서 에띠엔느의 말을 듣고있었다. 그는 에띠엔느의 어깨를 잡고 마을쪽으로 떠밀었다.

《집으로 돌아가게. 난 그걸 바라네. 알겠나!》

그런데 이때 까뜨리느가 다가왔다. 쑤바린은 그도 알아보았다. 에띠엔느는 누구도 자기 행동을 운운할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계공의 눈길은 까뜨리느로부터 에띠엔느에게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별수 없다는 몸짓을 해보이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남성의 심장속에 녀성이 자리잡으면 그 사나이는 마지막이다. 그는 죽을수 있다. 쑤바린의 눈앞에는 모스크바에서 교수형을 당한 자기 애인의 영상이 피뜩 떠오른것이나 아닐가? 그는 자기 삶의 이 마지막지탱점이 사라져서 남들과 자기자신의 생명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되였다.

그는 《가게.》 하고 말했을뿐이였다.

에띠엔느는 난처하여 헤여지면서 어떤 친절한 말이라도 찾으려고 애썼다.

《그러면 자넨 떠나가겠나?》

《응.》

《그러면 이 사람 악수나 하세! 잘 가라구, 성은 내지 말게!》

쑤바린은 자기의 차디찬 손을 내밀었다. 벗도 안해도 필요없다.

《이젠 정말 안녕히.》

《응, 안녕히.》

쑤바린은 어둠속에 까딱 않고 서서 보료탄갱으로 들어가는 에띠엔느와 까뜨리느를 계속 바라보았다.

3

4시부터 입갱이 시작되였다. 당싸에르는 자신이 직접 등불보관실의 기록원책상앞에 앉아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등록하고 등

불을 내주고있었다. 그는 공시문에 약속된대로 아무 군말없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접수구에 에띠엔느와 까뜨리느가 나타난것을 보자 그는 흠칫 놀라 낯이 몹시 붉어지고 입을 벌린채 등록을 거부하려고 하다가 그저 제 얼굴에 비웃음이 섞인 승리의 빛을 보이는것으로 그치고말았다. 옳지, 가장 강한자들도 굴복하고야말았군! 몽쑤의 무서운 투사가 돌아와서 빵을 구걸하게 되였은즉 회사는 좋은 점이 있지 않는가? 에띠엔느는 잠자코 등불을 받아들고 까뜨리느와 함께 수직갱입구로 올라갔다.

까뜨리느는 자기가 바로 저탄장에서 동무들의 좋지 않은 말을 들을가봐 두려웠다. 마침 그는 입구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있는 20명쯤 되는 탄부들속에서 솨발을 발견했다. 솨발은 노발대발하여 까뜨리느한테로 다가오다가 에띠엔느를 보자 우뚝 멈춰섰다. 그는 모욕적으로 어깨를 몇번 으쓱하고 도전적으로 조소를 머금었다. 좋다! 다른자가 그 따뜻한 자리를 차지했다면 좋다, 한시름 덜었으니 일은 잘되였지! 찌꺼기를 먹을테면 먹으라지, 그런건 내가 알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멸시를 겉으로 나타내면서 그는 또다시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의 두눈은 불타고있었다. 동무들은 아무말없이 눈을 내리깔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 온 사람들을 흘끔흘끔 쳐다볼뿐이였다. 그리고 사기가 떨어진 그들은 성도 내지 않고 등불을 그러쥐고 넓은 실내에 끊임없이 불어드는 바람에 몸을 후들후들 떨면서 갱구쪽을 다시 주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얇은 웃옷을 입고있었던것이다.

드디여 승강기가 제동기우에 멎자 올라타라는 구령이 내렸다. 까뜨리느와 에띠엔느는 이미 삐에롱과 다른 두명의 채탄부가 탄 탄차에 올랐다. 옆의 탄차에서는 솨발이 무끄령감에게 탄광당국이 탄갱을 좀먹는 망나니들을 없애기 위해 유리한 기회를 리용하지 않은것은 대단히 잘못한짓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있었다. 그러나 늙은 마부는 이미 이 비참한 생활에 순종하여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 더는 격분하지 않고 화해하라는 시늉만 할뿐이였다.

승강기가 움직여 어둠속으로 내려갔다. 모두가 잠자코 있었다. 3분의 2쯤 내려갔을 때 갑자기 무서운 마찰이 일어났다. 쇠가 삐걱거리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서로 부딪쳤다.

《제기랄!》 에띠엔느가 중얼거렸다. 《우릴 편포장을 만들려는건가? 놈들의 역증나는 안벽판자때문에 우린 모두 저밀에서 매장되여버릴거야. 그래도 보수를 했다고 떠벌이고있거던!》

그러나 승강기는 장애물을 지나갔다. 이제는 승강기가 억수로 퍼붓는 비를 맞으며 내려갔는데 비가 너무 세차서 로동자들은 불안스럽게 그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런즉 련결부들에 수많은 틈새들이 새로 난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미 며칠동안 일을 해온 삐에롱에게 물었으나 그는 자기의 공포심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 말이 회사에 대한 공격으로 인정될가봐 두려워서였다. 그래서 그는 그저 이렇게 대꾸했다.

《아니, 위험할건 아무것도 없어. 이건 늘 그래. 물론 아직 틈새들을 다 막진 못했지.》

그들의 머리우에서는 좔좔 물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물줄기가 쏟아지는 속에서 그들은 갱도밑에 다달았다. 어느 한 감독도 사다리에 올라가서 사태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물은 배수뽐프로 퍼낼것이며 다음날 밤에는 동발공들이 모든 련결부들을 검사할것이다. 갱작업을 재조직했지만 아주 두통거리였다. 기사는 채탄부들을 채탄장에 보내기 전에 우선 5일동안은 그들에게 긴급한 동발작업을 시키기로 결심했다. 도처에서 붕락할 위험이 있었다. 갱들은 너무나 혹심하게 피해를 입어서 수백메터에 걸쳐 동발목을 고쳐세워야 했다. 그래서 갱내에서는 열명씩 조들을 짰는데 매개 조는 감독이 지도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였다. 입갱이 끝난 후 세여본즉 입갱한 탄부는 전부하여 322명이였다. 즉 탄갱의 완전조업시에 취업한 로동자수의 약 절반이였다.

솨발은 마침 까뜨리느와 에띠엔느가 있는 작업조에 보충되였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그는 동무들의 뒤에 숨어있다가 일부러 감독에게 그렇게 해주도록 한것이다. 그들의 작업조는 약 3키로메터 떨어져있는 북쪽갱도끝에 굴이 무너져 메워진 18뿌쓰(1뿌쓰는 약 2.7센치메터) 탄층의 통로를 치우러 갔다. 그들은 무너진 암반에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달라붙었다. 에띠엔느와 솨발은 다른 5명의 탄부들과 함께 무너져내린것을 치웠고 까뜨리느와 2명의 보조공들은

버럭을 갱정으로 실어날랐다. 그들은 말을 드물게 하였고 감독은 그들결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녀운탄공에게 사랑을 품고있는 두 젊은이는 임의의 순간에 서로 싸움을 할 준비가 되여있었다.

에띠엔느가 까뜨리느를 다치지 말라고 솨발을 주먹으로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까뜨리느를 차지했던 솨발은 이런 화냥년에게서 더 바랄것이 없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슬그머니 건드리군 하였다.

두사람의 시선이 서로 마주칠 때면 그들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옆에서 그들을 말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8시경에 당싸에르는 작업정형을 보려고 지나갔다.

그는 심히 기분이 좋지 않은듯 감독에게 성을 냈다. 일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점차 동발을 교체해야 할텐데 이렇게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나서 그는 기사와 함께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물러갔다. 그는 아침부터 네그렐을 기다리고있었는데 그가 어째서 지체되는지 알수 없었다.

또 한시간이 지났다. 감독은 버럭처리작업을 그만두고 천정을 버티라고 했다. 녀운탄공과 보조공들도 동발부분품들을 준비했다가 뒤를 대주어야 했다. 그들의 작업조는 전초에라도 선것처럼 탄광의 맨 끝에서 일하고있어서 다른 작업장과 아무런 련계도 없었다. 멀리에서 달려가는 이상야릇한 소리에 로동자들은 서너번 머리를 돌렸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통로들을 텅 비워놓고 동무들이 벌써 달려가 올라가는듯 했다. 그러나 소음은 죽은듯 한 정적속에 사라졌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은 무거운 마치소리에 귀가 멍해져서 다시금 동발목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드디여 버럭처리작업이 다시 시작되여 운탄공들은 또 탄차들을 밀었다.

첫 차부터 까뜨리느가 깜짝 놀래여 돌아와서 갱정에 아무도 없다고 알려주었다.

《내가 불렀는데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모두가 없어졌어요.》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열사람이 죄다 도구를 내던지고 달려갔다. 버림받고 승강기에서 멀리 떨어진 갱밑에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미칠것 같았다. 남자, 소년, 녀운탄공 할것없이 그들은 등불만을 들고 줄을 지어 달려갔다. 끝없이 뻗어나간 갱들이 조용하고 인적이 없는데 점

점 더 놀란 감독도 정신없이 구원을 찾아 웨쳤다. 한사람도 보이지 않으니 무슨 일이 생겼는가? 무슨 사고가 있어서 모든 동무들이 도망쳤을가? 그들은 위험을 느꼈지만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 위험이 바로 어떠한것인가를 알지 못해서 더욱 무서웠다.

그들이 승강기가 있는데로 가까이 왔을 때 거세찬 물의 흐름이 그들의 길을 막았다. 물은 곧 무릎까지 올라와 그들은 달리지도 못하고 간신히 물을 헤가르며 일분이라도 지체되면 죽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제기랄, 이건 안벽판자가 파괴되였군!》 하고 에띠엔느가 웨쳤다. 《내가 아까 우린 여기서 죽을것이라고 말했지.》

입갱할 때부터 불안에 잠겼던 삐에롱은 우에서 떨어지는 물이 더 불어만 가는것을 보았다. 그는 다른 두명의 탄부들과 함께 탄차에 탄을 실으면서 고개를 쳐들었다. 큰 물방울들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고 귀에서는 우에서 울부짖는 폭풍우와 같은 소리가 잉잉 울렸다.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 공포를 느낀것은 자기의 발밑에 있는 10메터깊이의 배수용구뎅이에 점차 물이 차올라오는것을 봤을 때였다. 물은 이미 바닥에 난 틈새를 거쳐 우로 올라와 주철제바닥타일을 잠그고있었다. 그것은 뽐프의 배수능력이 흘러드는 물량에 비하여 부족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삐에롱은 뽐프가 지친듯 딸꾹질을 하면서 숨가빠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당싸에르에게 미리 경고를 했다. 그러나 당싸에르는 성이 나서 욕을 하면서 기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뿐이였다. 삐에롱은 두번이나 말을 했으나 당싸에르는 막무가내였다. 그는 분개해서 어깨를 으쓱했을뿐이였다. 그럴수밖에! 물이 올라오는데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무끄가 바따이와 함께 나타나서 일을 시키러 끌고갔다. 그는 두손으로 말고삐를 유지해야 하였다. 잠에 취했던 이 늙은 말은 갑자기 뒤발로 서서 수직갱쪽으로 머리를 뽑아들고 죽는듯이 울어댔다.

《왜 그러니, 똑똑한 놈이! 뭣이 무서워? 아, 물이 흘러내리기때문이군! 어서 가자, 넌 관계없어.》

그러나 말은 몸을 떨고있었다. 그래서 로인은 말을 억지로 탄차가 있는데로 끌고갔다.

무끄와 바따이가 갱속으로 사라지는것과 거의 동시에 공중에서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나고 뒤이어 내려앉는 소리가 길게 들렸다. 안벽의

목재부분품이 빠져나와 180메터의 높이에서 떨어져 안벽에 부딪쳐 튀여오르면서 내는 소리였다. 참나무판자가 떨어져 빈 탄차만 마사버렸다. 삐에롱과 기타 적재공들은 요행 피할수 있었다. 그 순간 물줄기가 터진 제방으로 넘쳐나오듯이 콸콸 쏟아져나왔다. 당싸에르가 올라가서 보려고 했으나 그가 미처 말을 끌내기 전에 다시 판자가 떨어져 내려왔다. 그는 참사가 빚어질 위험앞에서 당황하여 더는 주저하지 않고 올라가라는 지시를 내리고 탄부들에게 알리라고 감독들을 온 막장들로 보냈다.

무서운 혼란상태가 벌어졌다. 모든 갱들에서 로동자들이 달려나와 승강기에 달려들었다. 모두가 빨리 갱밖으로 나가려고 몹시 붐비였다.

어떤 탄부들은 사다리로 오르다가 통로가 벌써 막혔다고 웨치면서 다시 내려왔다. 승강기가 올라갈 때마다 모두들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이번에는 승강기가 올라갔지만 다음승강기는 과연 수직갱에 삐져나온 장애물사이를 무사히 통과할수 있을가? 도중에 걸리지나 않을가? 우에서는 계속 내려앉고있어 벽이 무너지는 웅글은 소리와 나무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계속 세차게 쏟아지는 비소리가 더 높아갔다. 마침내 승강기 하나는 못쓰게 되였다. 밀빠진 승강기는 틀림없이 꺾어진 궤도로 미끄러져내리지 못했다. 다른 한 승강기는 어찌도 마찰이 심한지 쇠바줄이 끊어질것 같았다. 그러나 아래에는 아직 100명가량의 탄부들이 남아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피투성이가 되여 승강기에 매여달리고있었다. 두명의 로동자가 우에서 떨어지는 판자에 맞아죽었다. 승강기에 매여달린 또 한명의 로동자는 50메터의 높이에서 떨어져서 갱도의 배수용구뎅이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당싸에르는 어떻게 해서라도 질서를 세우려고 애썼다. 그는 곡괭이를 들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머리를 찍어놓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줄을 세우려고 하면서 적재공들은 동무들을 다 태우고 마지막에 나가야 한다고 웨쳤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진 삐에롱이 선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것을 옆으로 밀쳤다. 승강기가 올라갈 때마다 그의 따귀를 쳐야만 했다. 그러나 그자신도 이를 덜덜 떨고있었다. 일분만 잘못 놓치면 그자신이 죽는것이다. 우에서는 모조리 무너져 강이 범람

하는것 같았고 골조들은 비물처럼 사정없이 허물어져내렸다. 몇명의 로동자들이 아직 승강기쪽으로 달려오고있었건만 당싸에르는 공포에 얼이 빠지다싶이 되여 저도 모르게 저 먼저 탄차에 뛰여올라갔고 삐에롱이 자기를 따라올라오는것도 가만두었다. 승강기는 올라갔다.

이때 에띠엔느와 솨발의 작업조가 그리로 다가왔다. 그들은 승강기가 사라지는것을 보고 앞으로 막 달려왔다. 그러나 안벽이 마지막으로 모두 무너져내려 그들은 거기서 물러서야 했다. 수직갱은 막혔으며 승강기는 다시 내려올수 없게 되였다. 까뜨리느는 목메여울었고 솨발은 욕설을 퍼붓느라 목이 메였다. 그들은 20명이였다. 비렬한 상층부놈들은 이렇게 그들을 여기에 버려두는것인가? 그곳으로 바따이를 천천히 끌고온 무끄로인은 말고삐를 쥐고있었다. 로인과 말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물이 높아지는데 놀래였다. 물은 이미 허벅다리까지 올라왔다. 에띠엔느는 이를 악물고 말없이 까뜨리느를 팔에 안아올렸다. 20명의 탄부전체가 머리를 들고 울부짖었다. 모두가 메워진 구멍—수직갱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거기서는 강물처럼 물이 흘러내렸고 어떤 구원의 손도 기대할수 없었다.

건천에 올라온 당싸에르는 승강기에서 내리자 달려오는 네그렐을 보았다. 엔보부인이 공교롭게도 아침에 그를 붙잡아두었었다. 엔보부인은 결혼식선물을 사려고 그로 하여금 상품목록을 보게 했던것이다. 시간은 10시였다.

《그래, 무슨 일이요?》 하고 네그렐은 멀리서부터 소리를 쳤다.

《탄갱은 파멸입니다.》 하고 도감독이 대답했다.

도감독은 말을 더듬거리며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기사는 그의 말이 못미더워서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수 있는가, 과연 안벽이 그렇게 파괴될수 있단 말인가? 도감독은 과장을 하고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

《물론 갱도엔 아무도 남지 않았겠지?》

당싸에르는 당황했다. 그렇다, 아무도 없다! 그는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몇명의 탄부들이 늦어졌을수 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왔소, 빌어먹을?》 네그렐이 꽥 소리쳤다. 《사람들을 그렇게 버려둘수 있소?》

그는 곧 등불을 세보라고 지시했다. 아침에 322개를 내여주었는데

지금은 255개밖에 없었다. 하긴 몇명의 로동자들은 복새통에 등불을 손에서 떨구었다고들 했다. 점명을 해보았으나 역시 정확한 수자를 밝힐수 없었다. 어떤 탄부들은 벌써 꽁무니를 뺐고 또 어떤 탄부들은 제 이름을 듣지 못했다. 부족되는 인원수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2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명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갱도속에 사람들이 남아있다는것만은 확신할수 있었다. 무너진 골조를 통해 콸콸 쏟아져내리는 물소리가운데서도 수직갱입구에 몸을 수그리면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을수 있었다.

네그렐은 우선 엔보씨에게 사람을 보내고 탄갱을 닫아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수직갱이 무너져내리는 소리에 쫓기우기라도 하듯이 탄부들은 뒈 쌍 까랑뜨마을로 달려가서 가족들을 놀라게 했던것이다. 녀인네들과 로인들과 아이들이 울고불고하면서 떼를 지어 달려왔다. 감독들로 탄갱을 삥 둘러싸게 하고 그들을 막아야 했다. 그들은 필요한 대책을 취하는데 방해될것이였다. 수직갱에서 나온 많은 로동자들은 옷을 갈아입을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있었다. 그들은 하마트면 자기들자신이 생명을 잃을번 했던 그 무서운 구멍을 보기만 해도 공포에 사로잡혔다. 녀인네들이 그들의 주위에 모여들어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애걸하다싶이 하면서 캐여묻고있었다. 그 누구는 어떻게 되였는가? 또 누구는 어떻게 되였는가? 그리고 또 누구는? 아무도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은 뭐라고 알지 못할 말로만 중얼거리고있을뿐이였다. 그들은 지꿎게 떠오르는 무서운 환영을 물리치려는듯 몸서리를 치면서 미친듯 한 시늉을 하고있었다. 군중들은 급격히 불어갔으며 길에서는 한탄소리가 높아갔다. 그런데 웃쪽의 버럭산에 있는 본느모르할아버지의 막안에는 한 사나이가 맨땅에 앉아있었다. 그는 쑤바린이였다. 그는 물러가지 않고 벌어지고있는 광경을 바라보고있었다.

《이름을 대주오! 이름을!》 녀인네들이 눈물에 목이 메여 웨쳤다.

네그렐이 얼핏 나타나서 웨쳤다.

《이름을 알아내는 즉시로 알려주겠소. 락심할것 없소. 모두가 구출될게요. … 내가 직접 내려갈테요.》

군중들은 불안한 가슴을 조이며 입을 다물고 기다렸다. 기사는 정말 용감하고도 침착하게 입갱을 준비했다. 그는 승강기를 떼놓고 그

대신 권양장치가 달린 통을 쇠바줄끝에 달아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자기의 등불에 물이 떨어질것을 고려하여 통밑에 또 하나의 등불을 달아매게 했다.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서 떨고있던 감독들이 그의 준비작업을 거들어주었다.

《나와 함께 내려갑시다, 당싸에르.》 하고 네그렐은 엄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모두들 겁에 질려있으며 도감독도 공포에 술에 취한것처럼 비틀거리고있는것을 보고 네그렐은 경멸하듯 손으로 그를 밀쳐버렸다.

《아니, 그만두시오. 당신은 방해가 되겠소. … 나 혼자가 낫겠소!》

네그렐은 쇠바줄끝에서 흔들거리는 좁은 통속에 들어서서 한손에 등불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신호끈을 꼭 쥔 다음 기계운전공에게 웨쳤다.

《천천히 하오!》

기계가 쇠바줄을 감은 축을 돌리자 네그렐은 불행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여전히 들려오는 심연속으로 사라졌다.

갱의 웃부분은 조금도 피해를 입지 않았었다. 네그렐은 그곳 판자들은 상태가 좋다는것을 확인했다. 그는 수직갱가운데서 흔들거리는 통안에서 돌아가면서 안벽들을 불로 비쳐보았다. 련결부에서 흐르는 물은 그다지 많지 않아서 등불은 계속 타고있었다. 그러나 그가 300메터를 내려가서 아래층판자가 있는 곳에 이르자 예상한대로 등불이 꺼졌다. 스며나온 물이 통을 채웠다. 이제 와서 그는 통밑에 달려서 자기보다 먼저 탄갱의 어둠속으로 내려가는 등불밖에 리용할수 없었다. 분별없이 뛰여든 그도 무서운 재난앞에서 몸서리를 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몇개의 판자만이 제자리에 남아있을뿐 나머지 판자들은 죄다 틀과 함께 떨어져나갔었다. 그뒤에 커다란 구멍이 나고 거기서 누런 잔모래가 쏟아져나왔다. 심한 폭풍이 일고 미지의 조난을 당하고있는 지하바다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열려진 수문으로 쏟아져나오듯 콸콸 흘러나오고있었다. 끊임없이 넓어지는 이 공간에서 방향을 잃고 그는 샘줄기에 얻어맞고 빙빙 돌아가면서 더 내려갔다. 밑에서 먼저 내려가는 등불의 붉은빛은 너무나 희미하게 비쳐주어 맞받아 달려오는 그림자들속에서 네그렐은 거리와 십자길이 있는 파괴된

도시를 보는것 같았다. 거기서는 인간의 그 어떤 작업도 할수 없었다. 그가 유일하게 바라는것은 죽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였다. 그가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극복할수 없는 장애때문에 멈추어서야만 했다. 뽐프에서 빠져나온 부분품들과 뒤섞인 골조무지, 부러진 궤도용 참나무판자들, 짜개진 간벽들이 수직갱을 막고있었다. 그는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심장이 터지는것 같았다. 울부짖는 소리가 뚝 멎었던것이다. 만약 벌써 물에 잠기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급속히 불어가는 물을 피해서 올리굴로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네그렐은 자기를 끌어올리도록 신호끈을 잡아당기지 않을수 없었다. 그다음 그는 끌어올리는것을 다시 멈추게 했다. 그는 원인불명의 그 급작스런 사고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일어난 사고의 원인을 똑똑히 알려고 아직 튼튼한 판자들을 살펴보았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무에 새겨진 톱자리와 칼자리들이 그를 놀라게 하였다. 물에 젖은 등불은 거의 꺼져가고있었다. 그러나 네그렐은 손가락으로 판자들을 더듬어보고 파괴하려고 톱과 드릴로 무서운짓을 했다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었다. 누군가가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기를 바랐다는것이 분명했다. 놀란 기사는 그 자리에서 까딱하지 않았다. 이때 부분품들이 다시 우지직소리를 내면서 틀들과 함께 아래로 떨어져서 그자신도 하마트면 거기에 휩쓸려 내려갈번 했다. 네그렐은 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일을 감행한 사나이를 생각만 해도 머리칼이 곤두섰다. 그는 악에 대한 종교적공포심에 몸이 오싹해졌으며 이처럼 엄청난 악행을 한 장본인이 아직도 여기 어둠속에 몸을 숨기고있는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그는 웨치며 미친듯이 신호끈을 잡아당기였다. 사실 서둘러야 했다. 그것은 이번에는 그에게서 100메터되는 우에서 안벽이 움직이기 시작하였기때문이다. 련결부가 갈라지고 틈새에 틀어막았던것이 빠져나와 물이 흘러내렸다. 이제는 수직갱의 안벽이 완전히 없어지고 무너지는것은 시간문제로 되여있었다.

건천에서는 엔보가 근심에 싸여 네그렐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래, 어떻던가?》 하고 엔보가 물었다.

그러나 기사는 목이 메여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주춤거렸다.

《그럴수 없어, 어느때도 그런 일은 없었어. … 직접 봤나?》

네그렐은 경계하는 눈으로 사위를 둘러보면서 수긍하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는 감독들이 듣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싶지 않아 삼촌을 10메터쯤 옆으로 데리고갔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는 더 멀리 물러가서야 그의 귀에 대고 음모가 있었다는것을 말했다. 판자에 구멍을 뚫고 톱질을 했다는것, 그 결과 탄갱은 목이 잘리여 피를 흘리며 딸꾹질을 하게 된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지배인도 얼굴이 창백해져서 그러한 극악무도한 태업과 범죄에 대하여 떠들어대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역시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리고 몽쑤의 1만명 로동자들앞에서 공포를 드러내보일 필요가 없었다. 차차 알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두사람은 그런 무서운 일을 감행하기 위하여 아래로 내려가서 허공에 매달려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한 용감한 사나이가 있다는데 놀래여 계속 소곤소곤 말을 이었다. 그들은 파괴를 하려고 이런 무모한 용감성을 발휘하는것을 리해조차 할수 없었다. 그들은 지상에서 30메터나 되는 높은 곳에 있는 창문으로 뛰여내린 죄수들의 유명한 도주사건을 사람들이 믿지 않듯이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엔보씨가 감독들한테로 다시 다가갔을 때 그의 얼굴의 근육은 신경의 경련으로 해서 푸들푸들 떨고있었다. 그는 절망적인 몸짓으로 곧 갱에서 물러들 가라고 지시를 했다. 탄갱에서 물러가는 그들은 침울해서 마치 장례행렬과도 같았다. 아직은 서있으나 그 무엇도 앞으로는 구원할수 없는 육중한 건물들을 모두 뒤돌아보면서 묵묵히 걸어갔다.

지배인과 기사가 저탄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자 군중들은 그칠줄 모르는 울부짖음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이름을! 이름을! 이름을 부르오!》

이번에는 거기에 마여의 안해도 다른 녀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밤중에 어렴풋이 들은 소리를 상기했다. 딸과 하숙인이 같이 나간것임에 틀림없고 지금 그들은 갱도속에 있을것이다. 이리로 달려온 그는 박정한 비렬한이고 겁쟁이인 그들은 그래 마땅하다고 웨쳤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줄에 나서서 불안에 떨고있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주위에서 벌어지고있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사태가 어떻게 되였는가를 알수 있었다. 그렇다, 까뜨리느는 그곳에 남아있다.

에띠엔느도 그렇다. 어느 동무가 그들 둘을 봤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한사람이 누굴 보았노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부정하는것이였다. 어쩌면 쇄발도 그렇다, 하긴 한 보조공이 그와 함께 올라왔다고는 했지만. 레바끄의 안해와 삐에롱의 안해는 자기들 집식구는 아무도 위험에 처해있지 않았지만 여느 사람들 못지 않게 가슴을 치며 넉두리를 했다. 자샤리는 그 무엇이나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그였건만 어머니와 안해를 그러안고 눈물을 흘리였다. 그는 누이동생에 대한 애정이 불시에 솟구쳐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어머니처럼 몸을 떨고있었다. 그는 탄광주인들이 정식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누이동생이 거기에 남아있다는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름을! 이름을! 제발 이름을!》

네그렐은 초조해져서 감시원들에게 큰소리로 웨쳤다.

《저 사람들을 입 좀 다물게 하오! 근심스러워 죽겠소. 우리자신도 아직 모른단 말이요.》

벌써 두시간이 지났다. 처음에는 당황하여 다른 수직갱, 레끼아르의 낡은 수직갱에 대해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엔보씨가 그쪽에서 구출해보겠다고 알렸다. 이때 5명의 로동자들이 이전 통로의 못쓰게 된 썩은 사다리로 기여올라 홍수를 피했다는 소리가 돌았다. 무끄로인이름도 있다고들 하였다. 그가 갱도속에 있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기때문에 그 소식은 사람들을 무척 놀라게 했다. 5명의 살아나온 로동자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눈물만 더 흘리게 했을뿐이였다. 다른 15명의 로동자들은 갱이 허물어지는 속에서 길을 잃고 갇혀서 그들의 뒤를 따라오지 못했던것이다. 뿐만아니라 레끼아르에는 물이 벌써 10메터나 불어올라서 그들을 구원할수 없다는것이였다. 이제 와서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알려졌고 대기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가득찼다.

《저 사람들을 입 좀 다물게 하오!》 네그렐은 결이 나서 또 말했다. 《뒤로 물러가게 하오! 그래그래, 100메터쯤! 여기는 위험하오. 그들을 몰아내오! 몰아내오!》

불쌍한 사람들과 싸움질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숨기려고 자기들을 몰아내는것이라고 생각했다.

감독들은 수직갱이 탄갱을 삼켜버리게 된다는것을 그들에게 설명해야 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기겁을 하여 입을 다물고 한걸음한걸음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을 막는 경비원들의 수를 두곱으로 늘쿠지 않으면 안되였다.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탄갱쪽으로 다시 밀려왔기때문이다. 길에서는 약 천명의 사람들이 붐비였다. 모든 탄갱마을들에서 지어는 몽쑤에서까지 사람들이 달려왔다. 그런데 버럭산우에는 계집애같은 얼굴에 금발머리를 한 사나이가 앉아서 맑은 눈매를 탄갱에서 떼지 않고 연신 담배를 피우면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사람들은 또 기다리기 시작했다. 한낮이 되였건만 누구도 아직 조반을 먹지 못했고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흐리멍텅한 재빛하늘에는 녹쓴 쇠빛을 띤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고있었다. 라스너르의 집뜨락 울타리안에서는 큰 개 한마리가 군중들의 세찬 숨결에 놀래여 끊임없이 사납게 짖어대고있었다. 군중들은 점차 주변에 퍼져서 탄갱을 가락지모양으로 삥 둘러쌌다. 반경이 100메터나 되는 원의 중심에는 보료탄갱이 솟아있었다. 그곳에는 모든것이 죽은듯 사람도 없었고 그 무슨 음향도 들리지 않았다. 열려진 창문들과 문들은 안이 비였음을 보여주고있었다. 버림받은 붉은 고양이 한마리가 인적없는것에서 위험을 냄새맡고 안에서 뛰여나와 사라졌다. 발전기보이라실의 불은 방금전에 꺼졌다는것을 높은 벽돌굴뚝이 검은구름밑으로 가느다란 연기를 올리고있는것을 보고 알수 있었다. 탑우의 풍향기가 바람결에 작으면서도 아츠러운 소리를 내고있었다. 그것은 죽음의 운명을 지닌 거대한 건물에서 들려오는 유일하고 쓸쓸한 소리였다.
  2시가 되였으나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엔보씨며 네그렐이며 그리고 이곳으로 달려온 다른 기사들은 군중들앞에서 코트와 검은 모자를 쓴 신사들의 한무리를 이루고있었다. 그들도 지쳐서 두다리가 후들거리고 이와같은 참사앞에서 무력하다는 의식으로 해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지만 어디로도 물러가지 않았다. 그들은 죽는 사람의 머리말에라도 있는듯이 이따금 몇마디씩 말을 조용히 주고받을뿐이였다. 무엇이 높은데서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갑자기 들려오다가 끊어지고 이윽토록 잠잠한데 상층 안벽판자들이 완전히 무너진것 같았다. 탄갱이 받은 상처는 더 커져갔다. 밑에서 시작된 락반은 올라오면서 표면까지 접근해오고있었다. 네그렐은 그만 참지 못하여 무서운 심연속으로 홀

로 내려가 사태를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람들이 그의 두 어깨를 잡았다.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가 내려가서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한 탄부가 감시원의 눈을 속이고 휴계실까지 달려갔다. 그러나 곧 그는 태연하게 되돌아왔다. 그는 자기의 나막신을 가지러 갔던것이다.

시계가 3시를 쳤다. 모든것이 여전했다. 폭우가 쏟아졌으나 군중들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 라스너르의 개는 또다시 짖어대기 시작했다. 3시 20분이 되여서야 첫 진동이 땅을 흔들어놓았다. 보료탄갱은 흔들렸으나 견고한 건물들은 그냥 서있었다. 뒤이어 둘째번 진동이 곧 뒤따르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꺼먼 선탄장건물이 두차례나 뒤흔들리더니 우지직하는 무서운 소리를 내며 넘어갔다. 심한 압력에 골조들이 부러지고 어찌도 세차게 맞부딪쳤는지 불꽃이 튀였다. 이 순간부터 땅이 계속 뒤흔들리며 진동이 련이어 일어났다. 땅이 꺼져내리고 화산이 분출할 때와 같이 땅속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개는 멀리에서 더 짖어대지 않고 다가오는 진동을 감각한듯이 애처로운 비명만 울리고있었다. 녀인들과 아이들, 거기에 모인 모든 군중들은 자기들이 우로 튕겨오를 때마다 아우성을 치면서 바라보고있었다. 10분도 못 지나서 탑의 스레트지붕이 무너졌으며 저탄장과 기계실은 갈라지고 크게 구멍이 터졌다. 이윽고 소음은 멎고 무너지는것도 그쳤으며 다시금 정적이 깃들었다.

한시간동안 보료탄갱은 야만적군대의 폭격이라도 받은듯이 이렇게 상처를 입은채로 남아있었다. 아무도 더는 웨치지 않았고 더 넓게 원을 짓고 바라보고만 있었다. 선탄장의 무너진 대들보밑에서 부러진 하차장치와 터지고 꼬인 투입구를 분간할수 있었다. 특히 저탄장에 벽이 통채로 넘어지면서 널려진 벽돌가운데 잔해가 쌓였다. 주동바퀴가 설치된 철제골조는 구부러져 절반이나 갱속에 박혀있었다. 승강기 한대가 공중에 걸려있었고 빠져나온 끊어진 쇠바줄의 한쪽끝이 건들거리고있었다. 탄차며 바닥철판이며 사다리들이 되는대로 널려있었다. 왼쪽곁에 등불들을 훤하게 세워놓은 등불관리실만이 의연히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벌어진 기계실구석에는 축조한 기초우에 든든히 앉은 기계가 보였다. 그의 구리부분품들이 번쩍이였고 커다란 강철부분품

들은 굳은 근육처럼 보였고 공중에서 구부러진 커다란 련결대는 제힘을 믿고 누워있는 태평스런 거인의 튼튼한 무릎같았다.

이 한시간동안 별일이 없으므로 엔보씨는 희망이 되살아나는것을 느꼈다. 땅의 진동은 멎은것 같으니 기계와 남아있는 건물은 견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탄갱에 접근하는것을 여전히 금지하고 30분을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기다리는것이 참을수없이 괴로왔다. 희망은 불안을 배가해주었고 심장은 더 빨리 고동쳤다. 지평선에 검은구름이 떠올라 때이른 땅거미가 들기 시작했다. 륙지의 폭풍에 파괴된 잔해우에서 불길한 하루가 저물어갔다.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7시간이나 떠나지 않고 그곳에 서있었다.

기사들이 조심조심 앞으로 걸어나가는데 갑자기 세찬 대지의 진동이 다시 일어나 그들을 줄달음을 치게 했다. 지하폭발이 일어났다. 땅속깊이를 포격하는 무서운 포소리였다. 건천에서는 마지막건물들이 통채로 나가넘어지면서 주저앉았다. 처음에 회오리바람은 선탄장과 저탄장의 잔해들을 날려보냈다. 다음에는 보이라실이 무너져 없어졌고 다음에는 배수뽐프가 가쁜숨을 몰아쉬고있는 네모난 탑의 차례가 왔다. 그것은 총알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처럼 정면으로 넘어졌다.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무서운 광경을 보았다. 기초에서 분리된 기계가 사지가 온통 찢기여서 죽음과 싸우고있었다. 기계는 마치 걸음을 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듯이 거인의 무릎같은 련결대를 내뻗치였다. 그것은 마지막숨을 내쉬고 부서져 삼키우고말았다. 유독 30메터높이의 굴뚝만이 폭풍을 만난 배의 마스트처럼 흔들리면서 계속 서있었다. 그것도 산산쪼각이 나서 날아갈것으로 생각되였으나 큰 초대가 녹아나듯이 통채로 땅속으로 빠져들어가 졸지에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지면에는 아무것도 더는 솟아있지 않았다. 피뢰침도 보이지 않았다. 굴속에 숨어서 그처럼 많은 인명을 삼켜버린 맹수에게 마지막이 왔다. 그의 씩씩거리던 깊은 숨소리는 멎었다. 보료탄갱은 완전히 심연속에 사라졌다.

군중들은 비명을 올리며 달아났다. 녀인들은 눈을 가리고 달렸다. 공포는 회오리바람이 가랑잎을 쓸어가듯이 사람들을 밀어냈다. 누구도 웨치고싶진 않았으나 굉장히 크게 뚫어진 구멍앞에서 목청이 터

질듯이 공중에 팔을 휘두르며 비명을 올리지 않을수 없었다. 깊이가 15메터나 되는 불꺼진 화산의 이 분화구는 적어도 40메터너비로 운하에까지 이르렀다. 탄갱의 건물과 함께 짚처럼 삼켜버린 예비동발목, 갈라놓은 큰 나무들은 말할것도 없고 커다란 교각레루가 붙어있는 철길다리, 탄차들로 무어진 완전한 하나의 렬차, 3개의 화차등 지상의 모든것이 련이어 사라져갔다. 밑바닥에서는 들보, 벽돌, 철쪼각, 깨여진 벽미장덩어리들, 심한 재해속에서 부서지고 뒤죽박죽이 된 지저분한 잔해, 이외에 아무것도 알아볼수 없었다. 구멍은 둥그렇게 되였고 그 가장자리로부터 전야에까지 땅이 쭉쭉 갈라져나갔다. 작은 금 하나는 라스너르의 집에까지 이르러 건물정면에 틈을 냈다. 탄갱마을마저 땅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가? 이 무서운 날이 저물어가는 지금 온 세상을 짓누르려는듯 한 납덩이같은 구름아래에서 어디까지 달아나야 피신할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네그렐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울렸다. 뒤로 물러가던 엔보씨가 눈물을 흘렸다.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운하의 기슭이 터져 물이 용솟음치면서 땅이 갈라진 한 틈바구니로 갑자기 흘러들어갔다. 운하가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는 폭포처럼 거기로 사라졌다. 탄갱이 그 강물을 마시고있었다. 갱들은 몇해를 두고 물에 잠기게 될것이다. 미구하여 분화구에는 물이 찼다. 그리하여 그 언제인가 보료탄갱이 있던 자리에는 저주로운 도시들이 그밑에서 잠든듯 한 더러운 호수가 생겼다. 무서운 침묵이 깃들고 땅속에서 떨어지는 락수물소리만이 들려왔다. 드디여 쑤바린은 뒤흔들리는 버럭산에서 일어섰다. 그는 마여의 안해와 자샤리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저 갱밑에서 죽음의 운명을 지닌 불행한 사람들의 머리우를 그토록 무겁게 내려누르는 구뎅이앞에서 통곡하고있었다. 쑤바린은 피우던 담배꽁초를 내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캄캄한 밤의 어둠속으로 멀어져갔다. 저 멀리 그의 검은 몸집은 점점 작아지다가 드디여는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가 가는 곳은 미지의 고장이였다. 그는 평온한 기색으로 도시들과 사람들을 날려보낼 폭파약이 있는 모든 곳으로 몰살시키려 가고있었다. 림종에 직면한 부르죠아지는 걸음마다 거리의 포장도로가 날아나는 소리를 듣게 될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의 소행이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4

엔보씨는 보료탄갱이 무너진 그날 밤으로 빠리로 떠나갔다. 신문에 이 소식이 실리기 전에 자기가 직접 리사들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이튿날로 돌아온 그는 정확한 관리인의 여전한 모습으로 아주 태연했다. 분명 그는 책임을 면했고 그의 인기는 떨어지지 않았다. 도리여 24시간후에는 레지옹도네르훈장을 그에게 수여할데 대한 결정이 비준되였다.

지배인은 무사히 책임을 벗어났지만 회사자체는 이 무서운 타격으로 해서 비틀거렸다. 문제는 수백만프랑의 손실에 있는것이 아니였다. 수직갱 하나가 사라짐으로써 회사는 심대한 상처를 입었으며 래일에 대한 은근한 공포와 불안을 끊임없이 느끼게 된것이였다. 회사는 몹시 놀래여 침묵을 지켜야겠다는것을 다시한번 느꼈다. 이 혐오스러운 일을 파고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악당을 찾아내여 수난자로 만들면 그의 무서운 영웅성은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자극하겠는데 무엇때문에 방화자들과 살인자들을 산생시키겠는가? 뿐만아니라 회사는 진범인이 있음을 의심치 않았다. 회사는 한사람의 용감성과 힘만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할수 없다고 인정하고 결국 공범자의 무리가 있다고 믿었다. 탄갱들의 주위에서 위협이 앞으로 커질것이라는 바로 여기에 회사의 골치거리가 있었다. 지배인은 광범한 정탐망을 조직하여 이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아지는 위험분자들을 눈에 띄지 않게 한사람한사람 해고해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회사는 정치적으로 심중히 고려하여 그러한 숙청으로 만족할수밖에 없었다.

즉시 해고를 당한것은 도감독 당싸에르뿐이였다. 삐에롱의 안해와의 추행이 있은 후로 그를 탄갱에 그냥 둘수 없었다. 더우기 위험앞에서 자기 사람들을 버린 그의 비겁한 태도가 구실로 되였다. 다른 한편 이것은 그를 증오하는 탄부들에 대한 은근한 양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항간에 여러가지 소문이 떠돌았다. 그래서 탄광당국은 파업로동자들이 한통의 화약을 폭파시켰다는 보도를 반박하는 글을 신문사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벌써 정부에서 파견된 기사는 급히 조사를

한 후 흙이 쌓이면서 안벽판자들이 자연적으로 파손되였다고 결론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회사는 감시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접수하고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재해후 사흘만에는 빠리출판물들에 잡보가 훨씬 늘었다. 모든 화제는 탄갱속에서 죽어가는 로동자들에게 집중되였으며 사람들은 매일 아침 공개되는 전보들을 열심히 읽었다. 몽쑤의 부르죠아지들까지도 보료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가장 대담하다는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는 귀에 대고 서로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한다는 전설이 생겨났다. 온 지방사람들이 희생자들에게 깊은 동정을 표시했고 파괴된 탄갱에로의 려행을 조직하였는데 사람들은 가족단위로 거기에 밀려들어 생매장을 당한 불쌍한 사람들의 머리우로 무거운 걸음을 옮겨놓으면서 잔해를 보고 전률하였다.

담당기사로 임명된 데넬랭은 재해와 때를 같이하여 자기 직무수행에 착수했었다. 그가 먼저 생각한것은 운하를 이전의 강바닥으로 도로 끌어가는 일이였다. 그것은 이 물의 급한 흐름이 시간이 갈수록 피해를 증대시켰기때문이다. 대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곧 제방공사를 위해 100여명의 로동자들을 배치했다. 물의 세찬 흐름에 처음에 쌓아올린 둑들이 두번이나 밀려났다. 뽐프를 설치하고 완강한 투쟁을 벌려 물밑에 사라진 땅들을 한치한치 힘겹게 도로 찾았다.

그러나 매장된 탄부들의 구조작업은 사람들을 더 흥분시켰다. 네그렐은 이 작업에 최선을 다하라는 위임을 받았다. 게다가 일손이 모자라지 않았다. 우정의 충동을 받은 모든 탄부들이 달려와 희생성을 발휘했다. 그들은 파업은 잊어버렸고 보수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했다. 그들은 사경에 처한 동료들을 구원하고저 목숨을 내대겠다고 할뿐이였다. 모두가 도구들을 들고나와서 몸을 떨며 뚫어나갈 장소를 지시해주기를 기다렸다. 많은 사람들은 재해후의 공포로 해서 앓고 신경들이 쇠약해지고 끊임없는 악몽의 괴로움을 받으며 식은땀을 흘리고있었으나 그래도 일어나서 무엇인가 복수를 하려는듯이 땅과 투쟁하려는 최대의 열정을 발휘하였다. 불행히도 그들은 어떤 일이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문제앞에서 당황하여 망설이기 시작했다.

무엇을 할것인가? 어떻게 아래로 뚫고내려갈것인가? 어느쪽으로

부터 암반들을 뚫을것인가?

네그렐의 의견은 그 불행한 사람들중의 어느 누구도 살지 못했으며 의심할바없이 15명은 물에 빠졌든가 질식을 해서 죽었다는것이였다. 다만 탄갱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속에 묻힌 사람들이 벽에 붙어 살아있는것으로 간주하는것이 규칙으로 되여있었다. 때문에 네그렐은 이러한 방향에서 론리를 세워 생각했다. 그가 자기에게 제기한 첫 문제는 그들이 피했을수 있다고 보아지는 곳을 규정하는 일이였다. 그가 의논을 한 감독들과 오랜 탄부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의견들이 일치했다. 즉 재해가 발생하자 동료들은 틀림없이 높은 곳을 찾아 이갱저갱을 거쳐 가장 높은 막장에 올라가 우에 있는 통로끝에 이르렀으리라는것이였다. 더우기 그것은 무끄로인의 정보와 일치했다. 그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들이 정신없이 달아나면서 작은 패로 갈라졌고 도중에 각층에 뿔뿔이 흩어졌다는것을 믿을수 있었다. 그러나 그다음 가능한 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감독들은 의견을 달리하였다. 가장 지면에 가까운 통로로 150메터의 깊이에 위치하고있었기때문에 수직갱을 뚫는다는것은 도저히 생각할수 없었다. 가능한 방도는 접근할수 있는 유리한 지점인 레끼아르갱을 리용하는것뿐이였다. 그런데 안된것은 오랜 이 탄갱 역시 물에 잠겨서 보료탄갱과 더는 통하지 않게 된것이다. 레끼아르갱에서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이라곤 첫 저탄장에서 시작되는 갱도들의 짧은 구간뿐이였다. 배수를 하려면 몇해가 걸려야 한다. 그러니만큼 가장 좋은 방도는 그 갱도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이 재해를 입은 사람들이 끝에 있다고 예측되는 그 침수된 통로들과 린접해있는지 알아보는것이였다. 론리적으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론의를 하고 실행할수 없는 많은 안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때부터 네그렐은 먼지속에서 묵은 문서를 뒤져 두 탄갱의 낡은 도면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탐색을 추진시킬 지점들을 결정했다. 그 탐색은 점차 네그렐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워낙 사람들과 만사에 비양조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였으나 이 일에서는 자기희생적인 열정에 사로잡혔다. 레끼아르갱으로 내려가는데서 첫 난관에 부딪쳤다. 수직갱입구를 정리하고 나무들을 베고 떨기나무숲과 산오얏과 아가위나무들을 잘라야 했다. 뿐만아니라 사닥다리를 고

쳐야 했다. 그다음 더듬질이 시작되였다. 기사는 10명의 로동자를 데리고 갱도에 내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정해주는 몇개 지점을 공구의 쇠붙이로 두드리게 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 모두 탄층에 귀를 가져다대고 멀리에서 응답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지 들어봤다. 그들은 통과할수 있는 모든 갱도를 돌아보았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 전혀 응답이 없었다. 장애가 커졌다. 탄층을 어데서 뚫을것인가, 아무도 없는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 뚫는단 말인가? 그러나 모두들 커지는 불안으로 흥분하여 꾸준히 탐색을 계속했다.

마여의 안해는 첫날부터 매일 아침 레끼아르로 왔다. 그는 수직갱앞 통나무우에 앉아서 저녁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누가 갱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는 일어나서 눈으로 이렇게 묻군 했다. 《아무 소식도?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 앉아서 겁질기고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말없이 기다렸다. 쟝렝도 사람들이 자기의 소굴로 달려드는것을 보고 자기의 략탈물이 발각될가봐 근심하는 짐승마냥 주변을 감돌고있었다. 그는 암반밑에 누워있는 어린 병사에 대해서 생각했으며 사람들이 그의 교묘한 잠을 깨워버리지 않을가 두려워했다. 그러나 갱의 그쪽은 침수되여있었고 수색은 왼쪽의 서켠 갱도쪽으로 진행되고있었다. 필로멘느도 처음에는 구조작업을 하는 자샤리를 따라서 왔었다. 그러나 얼마후부터는 불필요하고 결과도 없는 일에 감기에나 걸릴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니지 않았다. 이 병든 녀인은 마을에 남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없이 앉아서 기침만 하면서 그날그날을 보냈다. 그와 반대로 자샤리는 애오라지 누이동생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다. 그는 땅을 물어뜯기라도 할 기세였다. 그는 밤마다 소리를 질렀고 굶주려 여위고 목이 터지도록 끊임없이 구원을 부르짖는 처녀를 보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바로 자기가 틀림없다고 느끼는 자리를 파야 한다고 하면서 두번이나 지시를 어기고 다른 곳을 파려고 했었다. 기사는 그의 입갱을 금지했다. 그러나 자샤리는 자기가 쫓겨나온 수직갱에서 물러가지 않았다. 그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에 골똘하여 어머니곁에 앉아있지 못하고 줄곧 앞뒤로 서성거리고있었다.

사흘째되는 날 네그렐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저녁에는 모든 수색작업을 포기할것을 결심했다. 한낮에 점심을 먹고 탄부들과 함께 작업

장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시도해보려 할 때 그는 자샤리가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손을 휘두르면서 갱에서 나오는것을 보고 몹시 놀랬다.

자샤리는 이렇게 웨쳤다.

《그 애가 저기 있소! 그 애가 대답했소! 오시오! 오시오!》

자샤리는 감시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닥다리로 내려갔었다. 귀욤탄맥의 첫 통로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확언했다.

《허지만 당신이 말하는 곳을 우리는 이미 두번이나 지나가지 않았소.》 하고 네그렐이 반신반의하면서 말했다. 《그러나 좋소, 가서 봅시다!》

마여의 안해도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의 입갱을 막아야만 했다. 그는 갱구의 한녘에 서서 캄캄한 심연속을 들여다보았다.

아래로 내려간 네그렐은 자기가 직접 충분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세번 두드렸다. 그리고나서 그는 로동자들에게 조용하라고 주의를 주고 탄층에 귀를 가져다대였다.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도리질을 했다. 물론 가련한 젊은이에게 그렇게 느껴진것이다. 분격한 자샤리는 자기가 직접 두드렸다. 그는 이번에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것 같았다. 그는 두눈이 반짝이고 온몸이 기쁨으로 해서 떨렸다. 그러자 모든 로동자들이 차례차례 두드려보고 귀를 기울였다. 모두 흥성거렸다. 멀리에서 응답하는 소리를 알아들었기때문이다. 기사는 아주 놀랐다. 그도 또 한번 귀를 가져다대였다. 드디여 그는 률동적인 가벼운 소리를 겨우 분간하였다. 그것은 탄부들에게 알려진 위험에 처했을 때 탄층을 두드리는 신호였다. 석탄은 수정처럼 아주 먼 거리로 맑은 음향을 전하는것이다. 거기에 있던 한 감독은 자기들과 동무들의 사이가 50메터나 실히 된다고 타산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벌써 구원의 손길을 뻗칠수 있는듯이 느껴졌다. 기쁨이 터졌다. 네그렐은 곧 거기에 접근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여야 했다.

자샤리가 건천에 올라와서 어머니를 만나자 두사람은 서로 굳게 그러안았다.

《너무 좋아들 말아요.》 호기심에 산보삼아 나왔던 삐에롱의 안해가 잔혹하게 말했다. 《그게 까뜨리느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땐 더 괴로울거예요.》 사실 까뜨리느는 다른 곳에 있을수도 있는것이다.

《썩 물러가오!》 하고 자샤리가 격분해서 웨쳤다. 《그 애가 거기 있는건 내가 아오.》

마여의 안해는 다시 제 자리에 가서 아무말없이 까딱 않고 앉아있었다. 그는 다시 기다리기 시작했다.

새 소식이 몽쑤마을에 퍼지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다. 아무것도 볼수 없었건만 어쨌든 물러가지 않았다. 그래서 호기심을 품은 그들을 일정한 거리에 세워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갱내에서는 낮이고 밤이고 사람들이 일을 했다. 기사는 장애물에 부딪칠수 있다는것을 고려하여 묻혀있는 탄부들이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지점에서 합치될수 있는 세개의 내려가는 통로를 개척하도록 했다. 갱도가 너무 좁아서 탄층을 파는 작업은 한명의 채탄부밖에 할수 없었다. 그래서 로동자들은 2시간씩 사이를 두고 교대를 했으며 광주리에 퍼담은 석탄은 한줄로 늘어선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다. 사람들의 줄은 통로가 탄층으로 깊이 들어감에 따라 더 길어졌다. 처음에는 작업이 매우 빨리 진행되였다. 하루에 6메터 뚫었다.

자샤리는 이 작업에 뽑힌 채탄부들축에 끼울수 있었다. 이것은 영예로운 작업이여서 사람들은 그 작업을 하려고 서로 다투었다. 자샤리는 규정된 2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교대하려고 하면 역증을 냈다. 그는 동료들의 차례를 가로챘으며 곡괭이를 손에서 놓기를 거절하였다. 그의 통로는 곧 다른 통로들을 앞섰다. 그는 어찌나 열성스레 땅을 팠던지 그의 배속에서는 야장간에서 울리는 소리와도 같은 으르렁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석탄먼지에 새까매진채 너무 지쳐서 밖에 나오기만 하면 그만 땅우에 쓰러지군 했다. 그래서 담요로 그를 덮어주어야 했다. 그다음 그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또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다. 크고 웅글은 곡괭이소리와 숨막히는 하소연이 들려왔고 무리죽음을 막으려고 초조해하는것이 알렸다. 무엇보다 곤난한것은 석탄이 더 굳어진것이였다. 자샤리는 가뜩이나 빨리 나가지 못해 악이 나는데 곡괭이까지 두번씩이나 부러졌다. 그는 또 한메터한메터 들어갈수록 더 견딜수없이 심해만 가는 더위에도 시달렸다. 굴이 좁아서 공기가 통할수 없었던것이다. 수동송풍기가 잘 돌았으나 환기가 잘되지 않아 세번이나 가스에 질식되여 실신상태에 빠진 채탄공들을 끌어냈다.

네그렐은 갱내에서 나오지 않고 로동자들과 함께 거기서 살았다. 식사는 그곳으로 날라다주었다. 그는 갱내에서 이따금 외투를 덮고 짚우에 누워서 둬시간씩 눈을 붙였다. 용기를 잃지 않게 해준것은 불행한 탄부들이 어서빨리 와달라고 애원하듯 하는 점점 더 뚜렷해지는 응답신호였다. 지금은 그 음향이 아주 뚜렷했으며 하모니카금속판을 두드리는듯 한 음악적울림이였다. 그 응답소리를 따라 방향을 잡아나갔다. 전투에서 포성을 따라 전진하듯이 이 수정같은 소리를 향하여 전진했다. 채탄부들이 교대를 할 때마다 네그렐은 내려가서 탄층을 두드려보고 귀를 가져다대군 했다. 지금까지 매번 응답소리가 빨리 그리고 성급하게 들려왔다. 작업이 옳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가 없었다. 그러나 작업은 얼마나 굼뜨게 진행되는것인가! 절대로 제때에 가닿지 못할것이다. 첫 이틀간에는 13메터를 잘 뚫었는데 사흘째되는 날에는 5메터, 나흘째되는 날에는 3메터밖에 뚫지 못했다. 지금은 석탄이 너무 굳어서 하루에 2메터이상을 뚫을수가 없었다. 아흐레째되는 날 초인간적인 노력으로 굴진을 한 전체 거리가 32메터였는데 아직도 추산에 의하면 약 20메터가 남아있었다.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열이틀째날이 시작된것이다. 얼음장같이 찬 어둠속에서 빵도 없이 옹근 열이틀을 보내는것이다! 이런 무서운 생각에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일손을 다그쳤다.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이어간다는것은 불가능한것 같았다. 멀리서 두드리는 소리가 전날부터 약해져서 사람들은 그 소리가 멎어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마여의 안해는 여전히 정확하게 수직갱입구앞에 와서 앉았다. 그는 에쓰뗄을 하루종일 집에 홀로 남겨놓을수 없어서 안고왔다. 그는 매시, 매시 진행되는 작업을 주시하면서 희망과 절망을 함께 나누었다. 무리지어 멈춰선 사람들, 지어는 몽쑤의 사람들까지 열이 올라 기다리며 끝없이 설명을 해댔다. 이 지방 전체사람들의 심장은 그곳 지하에서 고동치고있는것 같았다.

아흐레째되는 날 점심시간이 가까와와서 사람들이 교대를 하려고 자샤리를 불렀을 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요즘에 와서 그는 아주 미친듯이 되여 사납게 욕질만 했다. 네그렐은 그를 복종시키지 못한채 밖으로 잠시 나갔다. 거기에는 한명의 감독과 세명의 로동자

들만이 있었다. 틀림없이 자샤리는 흔들거리는 불빛이 어두워 일이 지체되는데 화가 나서 경솔하게도 등불의 안전망을 벗겼다. 그러나 엄격한 지시는 내려져있었다. 그것은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통로에 막대한 량의 가스가 차있기때문이였다. 갑자기 우뢰와 같은 소리가 터지고 굴안에서 산탄을 재운 대포에서처럼 불길이 터져나왔다. 끝에서 끝까지 온 갱도의 공기는 화약과 같아서 모든것이 불길에 휩싸여버렸다. 불길은 감독과 세명의 로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직갱을 따라 솟구치면서 한낮의 화산분출처럼 뿜어나왔고 돌과 나무토막들이 밖으로 날려나왔다. 구경군들은 사방으로 도망갔으며 마여의 안해는 놀란 에쓰뗄을 가슴에 꼭 그러안고 일어났다.

네그렐과 로동자들은 돌아와보고 머리끝까지 성이 났다. 그들은 무턱대고 무자비하고 어리석게 변덕을 부리며 아이들을 박대하는 이붓어미처럼 발을 동동 굴렀다. 사람들은 동무들을 구원하려고 희생적으로 일했으나 목숨을 바쳐야 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세시간동안이나 애를 쓰고 위험을 겪은 후에야 겨우 갱도에 들어갈수 있었다. 희생자들을 끌어내는 작업은 처참했다. 감독과 로동자들은 아직 살아있었으나 무서운 화상을 입었으며 살이 탄 내가 풍겼다. 그들은 불을 삼켜서 목안이 다 탔었다. 그들은 줄곧 비명을 올리면서 자기들을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는것이였다. 세명중 한 탄부는 파업시에 가스똥 마리갱의 뽐프를 곡괭이로 단숨에 까부시던 사나이였다. 다른 두 탄부의 손에는 병사들에게 벽돌쪼각을 열심히 내던지다가 살가죽이 벗긴 자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몸을 떨고있던 군중들은 그들을 날라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면서 뒤로 비켜섰다.

마여의 안해는 서서 기다리고있었다. 드디여 자샤리의 시체가 나타났다. 그의 옷은 타버리고 온몸은 알아볼수 없게 새까만 숯으로 변했다. 머리는 폭발할 때 부서져서 붙어있지도 않았다. 이 보기에도 끔찍한 유해를 들것으로 날라가자 마여의 안해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는 눈두덩이 빨갛게 충혈되여있었다. 그러나 눈물은 한방울도 떨구지 않았다. 그는 잠든 에쓰뗄을 안고 비참하게 걸어갔다. 머리칼이 바람에 마구 흩날렸다. 마을에 남아있던 필로멘느는 얼빠진 사람처럼 멍청해서 눈물만 흘리더니 곧 진정했다. 어머니는 이미 같은 걸음걸이로 레끼아르에 되돌아왔다. 그는 아들을 보내고 딸

을 기다리려고 되돌아온것이였다.

사흘이 또 지났다. 전례없는 어려운 조건밑에서 구조작업이 계속되였다. 가스가 폭발했을 때 다행히도 통로는 메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붙는듯 한 공기가 너무 무겁고 나빠서 다른 송풍기들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채탄부들은 이젠 20분에 한번씩 교대를 했다. 앞으로 계속 파들어갔다. 그들과 동무들간의 거리는 겨우 2메터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차디찬 심정으로 일했고 복수심으로 오직 검질기게 두드렸다. 그것은 응답을 하는 소리가 멎었기때문이였다. 가락맞는 낮은 음향, 구원을 청하는 신호가 전혀 들리지 않았기때문이였다. 작업이 시작된지 열이틀이 되고 재해가 있은 때로부터 열닷새가 되던 날은 아침부터 죽은듯이 잠잠했다.

새로운 불상사는 몽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부르죠아지들은 유람을 조직했다. 그레그와르부부도 몹시 신이 나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가보기로 했다. 그들은 자가용마차를 타고 보료탄갱으로 가고 엔보부인은 자기 마차로 류씨와 쟌을 데리고 가기로 약정했다. 데넬랭이 그들에게 자기가 일하는 탄갱을 보여줄것이며 그런 후에 그들은 레끼아르에 가서 구조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였으며 성공할 가망이 있는가 하는것을 네그렐에게서 알아보기로 되여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에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었다.

그레그와르부부와 딸 쎄씰은 3시경에 파괴된 탄갱에 도착하여 마차에서 내리자 엔보부인을 만났다. 엔보부인은 항행하는 푸른 옷차림을 하고 2월의 약한 태양광선을 막으려고 양산을 쓰고있었다. 하늘이 아주 맑아서 봄날같았다. 엔보씨와 데넬랭도 거기 있었다. 엔보부인은 운하의 제방을 쌓는데 얼마만한 노력이 들었는가 하는것을 이야기하는 데넬랭의 설명을 건성으로 듣고있었다. 언제나 그림첩을 가지고 다니는 쟌은 참화주제에 열중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류씨도 그와 나란히 화차잔해우에 앉아서 그 모든것을 굉장하다고 생각하여 기쁨의 환성을 올리고있었다. 제방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아 거품 이는 많은 물이 새여 무너진 탄갱의 큰 구멍으로 폭포처럼 떨어졌다. 그러나 분화구는 점차 물이 말라갔다. 물은 땅속에 스며들면서 무서운 밑바닥을 드러내보였다. 맑은 날의 연한 푸른 하늘밑에서 그것은 하나의 시궁창이였고 파괴되여 진탕속에 사라

진 도시의 폐허였다.
《이런것을 보려고 일부러 올 필요가 있었는가?》 그레그와르씨는 실망하여 이렇게 웨쳤다.
건강으로 온몸이 발기우리한 쎄씰은 맑은 공기를 마실수 있게 된것을 기뻐하면서 유쾌하게 롱을 했다. 그러나 엔보부인은 혐오를 느끼는듯이 얼굴을 찡그리고 중얼거렸다.
《어떻든 여기엔 아름다운것이란 아무것도 없군요!》
두 기사는 웃기 시작했다. 그들은 방문객들을 여기저기로 데리고다니면서 흥미를 불러일으키려고 애썼고 뽐프의 운동과 말뚝박는 기구의 작용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부인들은 근심스러워했다. 그들은 탄갱을 복구하고 거기서 물을 죄다 퍼내려면 뽐프가 6～7년을 일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몸을 떨었다. 아니다, 다른 일을 생각하는것이 나을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무서운 일은 꿈자리에까지 나타날것이다.
《갑시다.》 엔보부인은 마차로 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쟌과 류씨는 반대하여 웨쳤다. 어떻게 벌써 떠난단 말인가? 그림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여기에 남아있으려 했다. 아버지가 식사하러 그들을 데리고 갈것이였다. 엔보씨 혼자만 안해와 둘이서 사륜마차를 탔다. 그 역시 네그렐에게 알아볼것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럼 먼저 가보십시오.》 하고 그레그와르씨가 말했다.
《뒤로 따라가겠습니다. 5분쯤 마을에 들릴 일이 있어서… 자 어서, 우린 당신들과 같은 시간에 레끼아르에 도착할겝니다.》
그레그와르씨는 부인과 쎄씰의 뒤에 다시 올랐다. 다른 마차는 운하를 따라 달렸고 그들의것은 천천히 둔덕을 올라갔다.
유람에 자선사업을 보충할 생각이였다. 자샤리가 죽은 후에 그레그와르부부는 이 지방 사람들이 걱정하고있는 마여의 가정의 비극적운명을 몹시 동정하고있었다. 그들은 악당이고 병사를 살해한 마여는 가엾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자는 승냥이처럼 때려눕혀야 한다. 다만 그들을 감동케 한것은 불행한 녀인, 마여의 안해였다. 그는 남편을 잃은 후에 아들까지 잃었고 이제 또 어쩌면 땅밑에서 딸의 시체만을 발견하게 될수도 있는것이다. 그외에도 불구자로 된 할아버지, 붕락사고로 다리를 절고있는 아들, 또한 파업시에 굶주려죽은 딸이 있다. 물

론 그 집에서는 나쁜 사상을 품고있는만큼 그러한 불행에 빠져서 마땅하다. 그러나 그레그와르부부는 자기들의 자비심의 너그러움과 모든것을 잊어버리고 화해하려는 희망을 증명하려고 자기들이 직접 선사품을 가져가기로 결심했다. 마차의 한 좌석밑에는 알뜰하게 싸놓은 두개의 꾸레미가 놓여있었다.

어떤 로파가 마여의 집이 제2구역 16호라고 마차부에게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그레그와르의 가족들은 꾸레미를 들고 내려 헛되게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으나 역시 대답이 없다. 죽음이 온 집안을 말끔히 쓸어간듯 했다. 그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지 않은듯이 초상난 집처럼 어두워 침울했다.

《아무도 없군요.》 하고 쎄씰이 락심해서 말했다. 《참 귀찮게 됐군요! 이젠 이걸 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웃집문이 열리며 레바끄의 안해가 나타났다.

《아 나리님, 부인님, 용서하세요! 미안합니다, 아씨… 그 집 녀인을 만나렵니까? 그 사람은 없어요. 레끼아르로 갔답니다.》

그는 수다스럽게 그 집의 이야기를 했고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구조작업장에서 기다릴수 있도록 자기는 레노르와 앙리를 돌봐주고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꾸레미를 보자 과부로 된 자기의 불행한 딸이며 자신의 빈궁에 대해서 늘어놓았다. 그의 두눈은 부러움으로 불탔다. 이윽고 그는 주저주저하면서 중얼거렸다.

《제가 열쇠를 가지고있어요. 나리님과 부인님이 꼭 들어가야겠다면… 집에는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레그와르부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 할아버지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아무런 대꾸도 없지 않았는가, 그런즉 그는 잠자는것일가! 레바끄의 안해가 문을 열자 그들은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문턱에 멈춰섰다.

본느모르할아버지가 혼자서 눈을 크게 뜨고 불이 꺼진 난로앞 의자에 까딱 않고 앉아서 한점을 응시하고있었다. 그를 둘러싼 방안은 더 크게 보였다. 전에 방안에 활기를 주던 뻐꾹새시계도, 와니스칠을 한 전나무가구들도 없었다. 제대로 꾸리지 않은 푸르스름한 벽에는 장미빛입술에 공식적인 호의의 웃음을 담은 황제와 황후의 초상만이 남아있었다. 로인은 까딱하지 않고있었으며 열려진 문으로 빛이 들어와도

눈 한번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들어온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얼빠진 기색이였다. 그의 발치에는 고양이의 변을 받기 위해 놓는것과 같은 재를 담은 접시가 놓여있었다.

《개의치 마세요. 저이는 례의를 모른답니다.》 레바끄의 안해가 친절하게 말했다. 《저이는 머리가 잘못된것 같아요. 벌써 보름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 본느모르할아버지가 온몸을 떨었다. 그리고 배속에서 솟구쳐올라오는듯 한 목갈린 소리가 들려왔다. 로인은 새까맣게 덩이진 가래를 접시에 뱉었다. 가래에 재가 젖었다. 그것은 그가 탄갱에서 흡수한 석탄감탕을 목에서 뽑아낸것이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까딱하지 않았고 그저 가래를 뱉기 위해 이따금 몸을 움직일뿐이였다.

그레그와르부부는 구역질이 올라오는것을 누르면서 몇마디라도 다정한 위안의 말을 해주려고 했다.

《아니, 령감님.》 하고 그레그와르가 말을 건넸다. 《당신은 감기에 걸렸군요?》

로인은 벽을 뚫어지게 바라볼뿐 머리를 돌리지 않았다.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저 로인에게 약물을 끓여주어야 하는걸.》 하고 그레그와르부인이 덧붙였다.

로인은 그냥 잠자코 있었다.

《저, 아버지.》 하고 쎄씰이 중얼거렸다. 《그가 불구자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후에 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지요. …》

그는 몹시 당황하여 입을 다물었다. 그는 식탁우에 국남비와 포도주 두병을 올려놓고 두번째 꾸레미를 풀어서 한컬레의 큰 구두를 꺼냈다. 이 선물은 할아버지를 위한것이였다. 쎄씰은 량손에 구두를 한짝씩 쥐고 어리둥절해서 이제는 영영 걸어다닐수 없는 불행한 로인의 퉁퉁 부어오른 발을 살펴보았다.

《그래요! 이 구두는 좀 늦어졌지요. 그렇지 않아요, 령감님?》 그레그와르씨는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말을 뗐다. 《일없어요, 쓸모가 있을테니.》

본느모르할아버지는 역시 아무 말도 듣지 못한듯 대꾸가 없었고 그저 돌처럼 굳고 쌀쌀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앉아있을뿐이였다.

그러자 쎄씰이 구두를 슬그머니 벽에 기대여놓았다. 그가 조심하느라고 했으나 구두는 징소리를 내였다. 결국 그 큰 신발은 그 방에서 시끄러운것이였다.

《저이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을겝니다!》 레바끄의 안해는 구두를 보고 몹시 부러워하면서 웨쳤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오리에게 안경을 선물하는것과 같아요.》

그는 동정을 할것을 기대하면서 그레그와르의 가족을 자기 집에 들리게 하려고 계속 애썼다. 드디여 그는 구실을 생각해내여 앙리와 레노르를 그들에게 자랑했다. 그 애들은 아주 착하고 놀랄만치 귀엽고 령리해서 그들한테 무슨 말을 묻기만 하면 천사처럼 대답한다는것이였다. 그리고 그 애들은 나리님과 부인님이 알고싶어하는것을 말해줄것이라고 했다.

《좀 들려볼가, 애야?》 아버지는 거기서 나갈수 있게 된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좋아요, 곧 뒤따라 가겠어요.》

쎄씰은 본느모르할아버지와 단둘이 남았다. 쎄씰이 몸을 떨면서도 무엇인가에 홀린듯이 꼼짝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선것은 그 로인이 어딘가 낯이 익어보였기때문이다. 대체 모가 나고 창백하며 석탄먼지가 배여든 이 얼굴을 어디서 보았을가? 문득 그는 모든것이 생각났다. 그는 울부짖는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있는 자기를 보았고 차디찬 손이 자기의 목을 누르는것을 느꼈다. 그 사람이였다. 쎄씰은 그 사람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웅크리고 앉아 무릎우에 올려놓은 그의 손을 보았다. 그것은 늙었으나 모든 힘이 집중된 아직 억센 로동자의 손목이였다. 본느모르할아버지는 천천히 잠에서 깨여나 쎄씰을 알아본듯 했다. 그는 멍청한 눈으로 그를 살펴보았다. 로인의 량볼에는 홍조가 떠올랐고 입은 신경질적으로 떨리더니 거기서 새까만 침이 가늘게 흘러내렸다. 그들은 눈을 떼지 않고 서로 바라보았다. 쎄씰은 그 가문의 장기간의 무위도식과 안락으로 해서 살이 지고 생기있고 건강한 반면에 로인은 수종으로 해서 몸이 부석부석하고 지칠대로 지친 짐승처럼 몰골이 흉하고 대를 이어 백여년동안 로동과 기아에 시달려 병들었다.

10분이 지나 쎄씰이 보이지 않는데 놀라 마여의 집으로 되돌아온 그레그와르부부는 무서운 비명을 올렸다. 그들의 딸은 목을 눌리

여 땅우에 쓰러졌는데 얼굴은 새파랬다. 그의 목에는 큰 손가락자국이 벌겋게 보였다. 다리를 쓰지 못하여 그냥 서있지 못하는 본느모르할아버지는 쎄씰의 옆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그의 두손은 아직도 갈구리처럼 꼬부라져있었다. 그는 멍한 두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쳐다보고있었다. 그는 넘어지면서 접시를 깨뜨려 재를 사방에 흩어놓고 시꺼멓게 범벅이 된 가래를 온 방안에 뿌려놓았다. 커다란 신발은 그대로 벽에 기대여있었다.

진상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불가능했다. 어째서 쎄씰이 로인한테 다가갔을가? 꼼짝 않고 자기 걸상에 앉아있던 본느모르가 어떻게 쎄씰의 목을 잡을수 있었을가? 그는 쎄씰과 함께 넘어가면서 찍소리도 못하게 마지막 가래끓는 소리가 멎을 때까지 처녀의 목을 조인것 같았다. 무슨 소리 하나, 하소연 한마디도 이웃집과의 얇은 간벽을 거쳐 들려오지 않았었다. 처녀의 하얀 목을 보고 갑자기 일어난 정신착란과 무엇이라 말할수 없는 살인기도로 추측할수밖에 없었다. 정직하고 온순한 동물처럼 살아오면서 새로운 사상을 반대해온 늙은 불구자의 이 야만적행위는 놀라운것이였다. 서서히 침습한, 그자신도 알수 없는 무슨 원한이 대관절 내장에서 뇌수로 올라갔단 말인가? 공포감이 그 범죄를 무의식적인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그것은 백치의 범죄였다.

그러나 그레그와르부부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고통으로 가슴이 미여지는듯 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귀여운 딸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복을 가득 채워주던 딸, 그들이 숨을 죽이고 잠자는것을 보러 가던 딸! 그들이 보기에 딸은 언제나 충분히 먹이지 못하여 살이 지지 못한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들의 생활은 전혀 무의미한것으로 되였다. 딸이 없이야 무슨 재미로 산단 말인가?

레바끄의 안해는 제 정신을 잃고 웨쳤다.

《아이구, 늙다리악당같으니! 무슨 일을 저질렀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며느리는 저녁에야 돌아오겠는데! 내가 달려가서 데려올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리둥절하여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래 어때요?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는데요… 제가 달려가지요!》

그러나 그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구두를 집어들었다. 온 탄갱마을

이 법석 떠들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런즉 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것이다. 뿐만아니라 마여의 집에는 그 구두를 신을 사나이가 더는 남지 않았다. 레바끄의 안해는 슬그머니 그것을 가지고 갔다. 그 구두는 부뜰루의 발에 꼭 들어맞을것이였다.

엔보부부는 레끼아르에서 네그렐과 함께 그레그와르부부를 한참동안 기다렸다.

탄갱에서 나온 기사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였는가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저녁에는 매몰된 사람들이 있는데까지 이를것이나 갱도가 여전히 죽은듯 조용한것으로 미루어 물론 시체만을 꺼내게 될것이다. 네그렐의 뒤에 앉아있던 마여의 안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여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이때 레바끄의 안해가 와서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마여의 안해는 성급하고 성난 몸짓을 해보였으나 어차피 레바끄의 안해를 따라갔다. 엔보부인은 기절할번 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가엾은 쎄씰! 이날 그렇게 명랑했으며 한시간전만 해도 그렇게 생기발랄하지 않았던가! 엔보씨는 안해를 무끄로인의 오막살이안으로 잠간 들여보내야 했다. 그는 열려진 옷섶에서 풍기는 사향냄새에 당황하여 서툰 솜씨로 그의 옷의 단추를 끄르려고 했다. 엔보부인은 눈물에 잠겨 결혼을 일시에 파탄시킨 이 죽음에 무등 놀란 네그렐을 꼭 그러안았다. 근심에서 벗어난 남편은 그들이 함께 슬퍼하는것을 바라보았다. 이번 불행으로 모든것이 해결되였다. 그는 마차부가 두려워 조카를 붙들어두기로 작정했다.

5

갱도속에 남은 불행한 사람들은 공포에 싸여 울부짖고있었다. 물은 벌써 허리까지 찼다. 급한 물흐르는 소리가 그들의 귀를 멍하게 했고 마지막안벽판자가 무너져내리는것은 지구가 완전히 깨여지는것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또 마구간에 갇혀있는 말들의 울음소리가 그들을 완전히 미치게 했다. 그 소리는 도살을 당하는 짐승의 무섭고 잊을수 없는 죽음의 비명같았다.

무끄는 바따이를 놓아주었다. 늙은 말은 몸을 떨면서 눈을 크게 뜨고 물을 내려다보았다. 물은 점점 더 높아갔다. 저탄장은 급속히 물에 잠겨들고있었다. 아직 천정밑에서 타고있는 세개의 붉은 등불이 불어나는 푸르스름한 물을 비치였다. 갑자기 얼음같이 찬것이 자기의 털에 닿는것을 느낀 말은 네발굽으로 땅을 차고 미친듯이 앞으로 내달려 어느 한 운반갱속으로 사라졌다.
그러자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짐승의 뒤를 따랐다.
《여기에 더 있어야 별수 없어!》 하고 무끄가 웨쳤다. 《레끼아르로 빠져보아야 해!》
통로가 막히기 전에 가닿으면 낡은 이웃탄갱을 거쳐 빠져나갈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20명의 사람들은 물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높이 쳐들고 줄지어 달려갔다. 다행히도 갱도는 약간 경사지고있었다. 사람들은 물의 흐름을 거슬러 200메터의 구간을 전진했다. 물은 더는 높이 올라오지 않았다. 혼란에 빠진 그들의 머리속에는 잠들었던 미신이 되살아났다. 그들은 대지에게 구원해달라고 빌었다. 그것은 자기의 동맥을 잘리우고 혈관에서 피를 뿌리게 된 대지의 보복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다. 어느 한 로인은 탄갱의 악령을 달래기 위해 엄지손가락들을 구부리고 중얼거리며 잊어버렸던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첫 십자갱에서 의견상이가 생겼다. 마바리군은 왼쪽으로 가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는것이 더 가깝다고 우겨댔다. 그때문에 1분은 실히 잃었다.
《자! 거기에 목숨을 내대오! 내가 알바 아니요!》 하고 솨발이 거칠게 웨쳤다. 《난 이쪽으로 가겠소!》
그는 오른쪽으로 접어들었다. 두명의 동무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다른 사람들은 레끼아르탄갱에서 자라난 무끄로인의 뒤를 따라 달렸다. 그러나 무끄로인자신도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다. 모두들 길을 잃었다. 지어는 오랜 탄부들까지도 앞이 흐려진듯 복잡하게 엉킨 통로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갈림길마다에서 의심스러워 멈춰섰으나 결심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에띠엔느는 지치고 공포에 사로잡혀 마비상태에 들어간 까뜨리느때문에 지체되여 맨뒤에서 달려갔다. 그도 솨발이 길을 바로잡았다고 믿고 그와 함께 오른쪽으로 달려갔을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각

오하고 그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도망질은 계속되고 몇몇 동무들은 또다시 저들의 방향을 잡았다. 그리하여 이제는 무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일곱명밖에 되지 않았다.

《내 목을 끌어안아, 안고 갈테니.》 까뜨리느가 아주 기진한것을 보고 에띠엔느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예요, 날 두고 가요.》 하고 까뜨리느는 중얼거렸다. 《더는 못 가겠어요. 차라리 빨리 죽는편이 낫지.》

그들은 다른 탄부들보다 50메터나 뒤떨어졌다. 에띠엔느는 싫다는 처녀를 안아들었다. 그순간 갑자기 갱도가 막혔다. 커다란 바위덩이가 떨어져서 그들과 동무들의 사이를 막아놓았던것이다. 홍수가 벌써 암반을 적셔 사방에서 붕락이 되였다. 되돌아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제와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는 방향을 더는 알지 못하였다. 모든것이 끝장이다. 레끼아르갱으로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물이 줄면 자기들을 구원해줄수도 있을 웃층 막장을 차지하는것이였다.

에띠엔느는 드디여 거기가 귀욤탄층임을 알아보았다.

《일이 참 잘되는군!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 아까 가던 길이 옳았어, 허지만 이젠 틀렸어.… 이봐, 곧바로 가자구, 통풍용사갱으로 빠져나가자구.》

물이 가슴을 쳐서 까뜨리느와 에띠엔느는 아주 굼뜨게 나아갔다. 그들은 등불이 있는 동안은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다. 기름을 아꼈다가 다른 쪽에 부어넣으려고 등불 하나는 꺼버렸다. 그들은 통풍사갱에 이르자 뒤에서 들리는 그 무슨 소리에 돌아섰다. 그런즉 이번에는 동무들이 길이 막혀 되돌아오는것일가? 멀리서 거센 숨소리가 들려왔다. 거품을 튕기면서 다가오고있는 그 폭풍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수 없었다. 그들은 어둠속에서 좁은 동발목사이에서 찢기우면서 자기들을 따라잡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 어떤 희끄무레한 큰 물체가 어둠속에 나타나는것을 보고 비명을 올렸다.

그것은 바따이였다. 말은 저탄장에서 나와서 어두운 갱도를 따라 필사적으로 내달렸다. 그놈은 자기가 열한해동안이나 살아온 이 지하도시의 길을 잘 알고있는듯 했다. 이 영원한 어둠속에서 그의 두눈은 무엇이나 잘 알아보았다. 그놈은 머리를 수그린채 다리를 모으고 자기

의 커다란 몸집이 가득차는 지하의 좁은 통로를 달리고 또 달렸다. 길이 련이어 바뀌여지고 십자갱과 갈림길이 나타나군 했으나 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놈은 어데로 달려가는것인가? 어쩌면 저기 청춘시절의 환영이 있는 곳으로, 자기가 나서자란 스까르쁘강기슭의 물방아간으로, 커다란 등불처럼 하늘에서 불타고있는 태양에 대한 희미한 추억의 세계로 달리고있는지도 모른다.

말은 살고싶었다. 그에게는 옛추억이 되살아났다. 들판의 대기를 다시한번 마시고싶은 욕망에 그는 뜨거운 하늘아래 밝은 곳으로 나가는 출구—구멍을 발견할수 있는 곳으로 곧장 내달렸다. 이전의 운명에 대한 순종심대신에 새로운 반발이 일었다. 탄갱은 그의 눈을 멀게 하더니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것이다. 물은 뒤에 바싹 붙어 밀려오면서 그의 넙적다리를 때렸으며 엉뎅이를 적셨다. 그런데 깊이 들어감에 따라 갱도는 더욱더 좁아지기만 했다. 천정은 낮아졌으며 량쪽 벽들의 사이가 좁아졌다. 그러나 말은 계속 내달렸고 동발목에 걸려 살가죽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졌다. 탄갱이 그를 붙잡아 숨통을 누르려는듯이 사방에서 그에게 조여드는것 같았다.

바따이가 에띠엔느와 까뜨리느가 있는데까지 달려왔을 때 그들은 바따이가 암반사이에 끼운것을 보았다. 그는 발부리를 채워 앞다리가 부러졌다. 말은 마지막안깐힘을 써서 몇메터를 더 빠져나왔으나 더는 그의 옆구리가 통과하지 못했다. 그는 흙에 덮이고 꽉 끼워 오도가도 못하게 되였다. 그런데도 피투성이가 된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크고 흐려진 눈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있었다. 말은 빠른 속도로 물에 잠겨 마구간에서 먼저 죽은 말들처럼 참기 어려운 숨가쁜 소리로 길게 울기 시작했다. 그놈은 처참하게 죽어갔다. 이 늙은 말은 뼈가 부서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여 해빛과 멀리 떨어진 깊은 땅속에서 몸부림치고있었다. 말의 구슬픈 울음은 그칠줄 몰랐다. 갈기가 물에 잠겼건만 그래도 크게 벌린 주둥이를 내들고 목이 쉰 소리로 더욱더 울어댔다. 물이 가득차가는 나무통에서 나는 소리같은 울림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리더니 모든것이 조용해졌다.

《아아! 절 데려다줘요!》 하고 까뜨리느가 통곡을 터뜨렸다. 《아, 맙소사! 난 무서워요! 난 죽고싶지 않아요. … 날 데려다줘요! 데려다줘요!》

까뜨리느는 죽음을 보았다. 무너진 수직갱과 침수된 탄갱도 죽음을 앞둔 바따이의 울음소리처럼은 그렇게 공포를 주지는 않았던것이다. 까뜨리느는 아직도 바따이의 울음소리를 듣는것만 같았다. 그는 귀가에서 그 소리가 여전히 울리는듯 하여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날 데려다줘요! 데려다줘요!》

에띠엔느는 그를 붙잡고 이끌었다. 그들은 한시도 지체할수 없어서 어깨죽지까지 푹 물에 젖어서 통풍사갱으로 올라갔다. 에띠엔느는 줄곧 까뜨리느를 부축해주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처녀는 동발목을 붙잡을 힘조차 없었다.

처녀는 세번이나 그의 손에서 빠져 그들의 뒤에서 출렁이는 깊은 바다속으로 굴러내릴번 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첫 통로에 이르렀을 때 거기는 아직 물에 잠기지 않아서 몇분동안 숨을 돌릴수 있었다. 물이 또 가까이로 밀려왔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우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다음에도 몇시간동안 물이 계속 불어 그들은 통로를 옮겨가면서 우로 올라갔다. 여섯번째 통로에 이르자 수면이 더 높아지지 않는것처럼 느껴져 그들은 희망에 들떴다. 그러나 곧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이 올라와 그들은 일곱번째 통로로, 다음에는 여덟번째 통로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제 한 통로밖에 남지 않았다. 거기에 이르러 그들은 한치한치 불어나는 물을 불안에 잠겨 주시했다. 물이 계속 불으면 그들은 천정에 짓눌리우고 물에 잠겨 늙은 말처럼 죽게 될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어디선가 붕락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온 탄갱이 침수되면서 생긴 거대한 압력이 폭발하면서 좁은 막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체 탄광을 뒤흔들었다. 갱끝에는 압축된 공기가 축적되여 암반을 깨뜨리고 땅덩이를 뒤집어엎는 무서운 폭발이 일어나군 했다. 그것은 지하의 대참사가 빚어내는 무시무시한 소동이였으며 노아의 대홍수가 설레이면서 산을 무너뜨려 벌판으로 만들어놓던 고대의 전장을 련상케 했다.

계속 무너져내리는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얼이 빠진 까뜨리느는 두 손을 맞잡고 쉬임없이 꼭같은 말을 더듬었다.

《난 죽고싶지 않아요. … 난 죽고싶지 않아요. …》

에띠엔느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물이 더는 불어나지 않는다고 단언

했다. 그들은 6시간이상이나 쫓겨다녔으니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올것이였다. 그런데 그는 짐작으로 6시간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시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사라졌기때문이였다. 실지에 있어 그들은 귀욤탄갱을 온 하루동안 올랐던것이다.

그들은 옷이 푹 젖어 추위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를 잡았다. 까뜨리느는 부끄러운것도 모르고 옷을 벗어 쥐여짰다. 그리고나서 그는 입은채로 말리우려고 옷을 다시 입었다. 그가 맨발이여서 에띠엔느는 억지로 그에게 자기의 나막신을 신겼다. 이제와서 그들은 기다릴수 있었다. 그들은 등불의 심지를 낮추어 침실 등불처럼 희미하게 만들어놓았다. 그러나 두사람은 허기져서 굶어죽게 되였음을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삶에 대한 그 어떤 느낌도 없었다. 재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들은 미처 점심을 먹지 못했었다. 이제야 그들은 물에 젖어 거의 죽처럼 된 빵쪼각을 상기했다. 까뜨리느는 억지로 에띠엔느에게 그에게 차례진 몫을 먹게 했다. 기진한 까뜨리느는 요기를 하고나서 차거운 땅우에서 그냥 잠들어버렸다. 불면증에 시달리고있는 에띠엔느는 그의 옆에 앉아서 두손으로 이마를 고이고 한점을 응시하고있었다.

에띠엔느는 이렇게 몇시간이 흘렀는지 알수 없었다. 그가 알수 있는것은 앞쪽 통풍사갱의 구멍으로 보이는 또다시 나타난 움직이는 검은 물결이였다. 그것은 마치도 그들에게 다가오는 등이 계속 커지는 짐승같았다. 처음에 그것은 뱀처럼 뻗어오는 가느다란 띠에 불과했으나 조금 지나서는 넘실거리며 올라와 그들을 따라잡았다. 잠든 까뜨리느의 두발은 물속에 잠겼다. 근심에 싸인 에띠엔느는 까뜨리느를 깨우는것을 망설였다. 지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처녀를 깨우는것은 혹독하지 않은가? 처녀는 밖에서 해빛을 받으며 요람속에 있는 꿈을 꾸고있을수도 있지 않는가. 어데로 피할것인가?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구역의 사갱이 웃층 저탄장의 사갱과 련결되여있다는것을 상기했다. 그는 까뜨리느를 되도록 오래 자게 내버려두고 점점 불어나는 물을 보면서 그것에 쫓기울 때까지 기다렸다. 드디여 그는 까뜨리느를 조용히 안아올렸다. 처녀는 흠칫 몸을 떨었다.

《아, 맙시사! 정말!… 또 시작되는군요!》

처녀는 제정신이 들어 또다시 다가온 죽음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침착하라구.》 하고 에띠엔느가 속삭였다. 《빠져나갈수 있어, 꼭.》

사갱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몸을 구부리고 어깨까지 다시 물에 잠겨서 걸어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전부 동발을 세운 100메터길이의 좁은 통로를 올라가는것은 더욱 위험했다. 처음에 그들은 쇠바줄을 당겨다가 밑에 한대의 밀차를 고정시키려고 했다. 그것은 그들이 우로 올라갈 때 다른 한대의 밀차가 아래로 내려오면 그들이 깔려죽을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기계장치가 그 어떤 장애물에 걸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방해가 되는 이 쇠바줄을 감히 리용하지 못하고 미끄러운 골조에 손톱으로 의지하면서 모험을 했다. 에띠엔느는 까뜨리느의 뒤를 따라갔는데 처녀의 피투성이가 된 손이 미끄러지면 머리로 그를 떠받들군 했다. 문득 그들은 사갱을 막아선 골조토막들에 부딪쳤다. 흙이 그곳으로 떨어져내려왔다. 굴이 무너져 그들은 더 올라갈수 없었다. 다행히도 입구가 하나 열려있어서 그들은 옆에 뚫린 그 굴로 빠져나갔다.

그들앞에서 등불이 번쩍거렸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웬 사나이가 분연히 그들을 향하여 웨쳤다.

《옳지, 나같은 바보가 또 있었구나!》

그들은 붕락으로 사갱이 매몰되여 길이 막힌 솨발을 알아보았다. 그를 따라간 두 동무는 도중에 머리가 터져서 죽었다. 솨발은 팔꿈치만 다쳤는데 그는 담차게 죽은 사람에게 무릎으로 기여가서 몸을 뒤져 등불과 빵을 죄다 거두었다. 그가 빠져나올 때 그의 뒤에서 갱도가 마지막으로 무너져 메워졌다. 솨발은 땅속에서 솟아나듯 나타난 이 사람들과 자기의 량식을 나누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다. 가능하면 그들을 죽여버리고싶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자 솨발의 분노는 잦아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심술궂게 비웃기 시작했다.

《아, 너로구나, 까뜨리느로구나! 실패를 했군그래! 또 나한테 왔어? 됐어! 됐어! 그래 이제 함께 죽지!》

그는 에띠엔느를 못 본척 했다. 이렇게 만나 아연실색한 에띠엔느는 자기한테 꼭 붙어선 까뜨리느를 보호할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사태에 순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한시간전에 벗으로서 헤여졌던듯이 천연스럽게 솨발에게 물었다.

《아래쪽을 봤어? 막장을 거쳐서 나갈수 없을가?》

쇼발은 계속 비웃었다.

《무슨 소릴! 막장을 지나 빠져! 그것들도 죄다 무너졌어, 우리는 벽사이에 끼워 그야말로 덫에 걸렸어. … 허지만 네가 자맥질을 잘하면 사갱을 따라 돌아갈수 있지.》

사실 물이 올라오고있었다. 물결이 찰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퇴로는 이미 끊어졌다. 그런즉 쇼발의 말이 옳았다. 이것은 하나의 덫이였다. 땅이 크게 무너져내리면서 앞뒤로 막힌 갱의 한쪽끝이였던것이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들 셋은 꼼짝 못하게 되였다.

《그래 여기에 그냥 있을테야?》 하고 쇼발이 비양조로 물었다.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게야, 임자만 나한테 치근거리지 않으면 나도 가만있을테야, 여기엔 우리 둘이 앉을 자리가 넉넉해, 그렇게 지내노라면 우리 둘중에서 누가 먼저 죽는지 알게 될테지, 물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말일세, 거의 기대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벽을 두드리면 저쪽에서 그 소리를 들을수도 있지 않어?》 하고 에띠엔느는 말을 이었다.

《난 벌써 두드리는데 지쳤어. … 그래 좀 해보라구. 이 돌로 두드려봐!》

에띠엔느는 쇼발이 이미 두드리던 사암덩이를 쥐고 탄층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탄부들이 막장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위치를 알려주는 구조신호였다. 그런 후에 그는 귀를 대고 들었다. 그는 검질기게 이런 일을 스무번이나 되풀이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쇼발은 랭정한 태도로 자그마한 살림살이를 폈다. 그는 우선 벽에 세개의 등불을 세워놓았다. 하나는 불이 켜져있었고 두개는 예비로 남겨두었다. 그런 후에 그는 나무쪼각우에 두덩이의 빵을 올려놓았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의 찬장이였다. 잘만 하면 이틀은 지낼수 있을것이다. 그는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다.

《이봐, 까뜨리느, 너 정 배가 고프면 이걸 절반 주지.》

까뜨리느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이 두 사나이사이에 끼우게 되여 불행이 막심하였다.

무시무시한 생활이 시작되였다. 쇼발과 에띠엔느는 서로 몇걸음 떨

어진 땅우에 앉아서 입을 열지 않았다. 솨발의 말대로 에띠엔느는 자기 등불을 껐다. 그것은 부질없는 사치로 여겨진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침묵속에 잠겼다. 까뜨리느는 에띠엔느의 옆에 누웠다. 전에 사랑하던 사람이 던지는 눈길은 까뜨리느에게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 물은 소리를 내면서 끊임없이 우로 올라왔다. 때때로 갱도는 무슨 충격을 받아 뒤흔들리군 했다. 탄갱이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등불이 다 타서 다른 등불을 켜야 했다. 그들은 그곳에 가스가 있을수 있다는것을 생각하여 한순간 몹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속에 있느니 가스폭발로 죽는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가스는 없었다. 그들은 다시 드러누웠다. 여전히 시간은 흘렀다.

에띠엔느와 까뜨리느는 그 어떤 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쳐들었다. 솨발이 음식을 먹기로 결심한것이였다. 그는 빵쪼각을 절반 갈라가지고는 그것을 한입에 삼켜버리지 않으려고 천천히 오래 씹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있는 에띠엔느와 까뜨리느는 솨발을 바라보았다.

《그래, 넌 싫단 말이지?》 하고 솨발이 도전조로 녀운반공에게 말을 건넸다. 《네가 잘못했어.》

까뜨리느는 유혹에 끌릴가봐 두려워서 눈을 떨구었다. 그는 위가 너무 쓰려서 두눈에 눈물이 글썽했으나 솨발이 바라는것이 무엇인지는 알고있었다. 벌써 그날 아침에 그는 목덜미에 솨발의 뜨거운 숨결을 느꼈던것이다. 솨발은 까뜨리느가 다른 사나이와 같이 있는것을 보고 이전과 같은 심한 정욕에 사로잡혔다. 그가 까뜨리느에게 던지는 눈길에서는 불꽃이 튀였는데 그것은 질투심에 사로잡힌 솨발이 어머니의 하숙인과 함께 혐오스러운짓을 한다고 비난하면서 주먹을 쳐들고 까뜨리느에게 달려들던 때의 그런 불꽃이였다. 까뜨리느는 모두가 함께 죽음을 기다려야 할 이 좁은 굴속에서 두 사나이가 자기때문에 서로 싸움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맙소사! 좋은 친구로 이승을 떠날수 없단 말인가!

에띠엔느는 말라죽으면 죽었지 솨발에게서 빵쪼각을 구걸할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희망이 없는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더디게 지나가서 한없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것 같았다. 그들이 함께 갇혀있은지 하루가 지나갔다. 둘째번 등불도 희미해져서 세

번째 등불을 켰다.

쇼발은 두번째 빵을 쪼각내며 욕지거리를 했다.

《이리 오라니까, 바보같으니!》

까뜨리느는 흠칫 몸을 떨었다. 에띠엔느는 까뜨리느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돌아누웠다. 그러나 처녀가 까딱하지 않았기때문에 에띠엔느는 속삭였다.

《가라구, 어서!》

처녀의 눈에서는 여태 참고있던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일어설념을 못하고 자기가 배고픈것도 알지 못하고 온몸의 고통을 느끼며 오래동안 울기만 했다. 에띠엔느는 이 가증스러운 적수와 함께 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할것을 생각하니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일어서서 앞뒤로 서성거리면서 공연히 탄층을 두드려 신호를 해보기도 했다. 거기에는 마지막죽음을 앞두고 서로 멀리 떨어질만 한 넉넉한 자리도 없었다! 겨우 열걸음쯤 걸어갔다가는 되돌아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나이와 부딪치든가 해야만 했다. 지하에서까지 그들을 싸우게 한 가련한 처녀 까뜨리느는 더 오래 살아남는 사나이가 차지할것이다. 만약에 에띠엔느가 먼저 죽으면 쇼발은 그에게서 그 처녀를 앗아갈것이다. 한시간 또 한시간 련이어 흐르는 시간은 끝이 없는것 같았다. 할수없이 함께 있는것만 해도 몹시 불쾌한데 호흡으로 공기가 나빠지고 대소변에서 악취가 풍겼다. 에띠엔느는 마치 주먹으로 열기라도 할듯이 두번이나 암반에 달려들었다.

하루가 또 지나갔다. 쇼발은 까뜨리느의 옆에 앉아서 마지막빵 반쪼각을 그와 나누었다. 까뜨리느는 간신히 그것을 씹었는데 매 한쪼각의 값을 애무로써 치르어야 했다. 쇼발은 집요한 질투심이 움직였다. 그는 에띠엔느앞에서 다시한번 처녀를 자기것으로 하기 전에는 죽고싶지 않았다. 힘이 진한 처녀는 반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쇼발이 자기를 그러안으려고 하자 그는 신음소리를 내였다.

《놔요! 뼈를 다 부스러뜨리겠어요.》

에띠엔느는 치를 떨면서 보지 말자고 동발에 이마를 기대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칠 지경이 되여 홀짝 돌아섰다.

《놔라! 빌어먹을 자식같으니!》

《넌 무슨 상관이냐?》 하고 쇼발이 말했다.

《내 녀편네란 말이다. 그는 내것이야!》

그러나 에띠엔느는 입술이 새파래지면서 웨쳤다.

《놓지 않으면 죽여버릴테다.》

솨발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에띠엔느의 목갈린 소리를 듣고 그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것을 알았다. 죽음이 그들에게는 너무 더디게 다가오는것 같아 둘중의 한사람은 굴복해야 하였다. 그들이 서로 나란히 누워서 마지막잠을 자야 할 여기 땅밑에서 이전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였다. 자리가 너무 좁아서 서로 주먹질을 하면 살가죽이 터질 정도였다.

《명심하라.》 하고 솨발이 으르렁댔다. 《이번엔 죽여버리고말겠어.》

에띠엔느는 이 순간 미칠듯 하였다. 그의 두눈에는 피발이 서고 목구멍에는 피가 솟구쳐올랐다. 억제할수 없는 죽이고싶은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것은 육체적요구로 되였으며 심한 기침발작을 일으키는 점막의 출혈성자극과도 같았다. 그것은 유전된 병적현상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떠올라 터진것이였다. 그는 벽에서 지붕암 한장을 움켜잡고 흔들어서 매우 넙적하고 대단히 무거운 쪼각을 뽑아냈다. 그리고는 두손으로 힘껏 솨발의 머리를 깠다.

솨발은 미처 피할 겨를이 없이 그 자리에 넘어졌다. 얼굴이 터지고 두개골이 깨졌다. 뇌수가 갱도의 천정에 뿌려졌고 상처에서는 빨간 피가 샘솟듯 흘러내렸다. 땅우에는 곧 피가 고이고 그을음을 피우는 등불빛이 거기에 비끼였다. 밀페된 땅굴에는 어둠이 깃들었다. 땅우에 쓰러진 시체는 꺼먼 버럭무데기같았다.

에띠엔느는 몸을 굽혀 두눈을 크게 뜨고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결국 일을 저질렀다. 그는 사람을 죽였던것이다! 그의 기억속에는 이전의 싸움이 모두 되살아났다. 그것은 자기의 혈통에 서서히 축적되여 그의 근육속에 자리잡은 알콜독소와의 부질없는 싸움이였다. 그러나 그는 굶주림에 취했을뿐이였다. 조상대대로 오래동안 내려오는 일을 저지르기엔 충분한 취기였다. 이러한 끔찍한 살인행위에 에띠엔느는 머리칼이 곤두섰으나 그의 수양으로부터 오는 반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은 드디여 구미를 충족시킨 동물적인 기쁨으로 고동쳤다. 그다음에는 강자의 긍지감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는 목에 칼을 맞고 소

년에게 죽은 나어린 병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역시 사람을 죽인것이다.

까뜨리느가 몸을 일으키고 웨쳤다.

《아이유 맙소사! 죽었군요!》

《가엾소?》 하고 에띠엔느가 성난 어조로 물었다.

숨이 막힌듯 하던 까뜨리느는 무엇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나서 그는 비틀거리면서 에띠엔느의 가슴에 와안기였다.

《아아, 나도 죽여주어요, 둘이 같이 죽읍시다!》

까뜨리느는 그의 두어깨를 꼭 끼여안고 매여달렸다. 에띠엔느 역시 그를 꼭 그러안았고 그들은 곧 죽기를 원했다. 그러나 죽음은 서두르지 않았다. 두사람은 팔을 내리였다. 그리고 까뜨리느는 얼굴을 돌렸다. 그러자 에띠엔느는 자기와 까뜨리느가 아직도 살아야 할 자리를 내기 위해 시체를 들어다가 물속에 처넣었다. 발치에 시체를 그대로 두고서는 못 견딜것이였다. 물거품이 튕기면서 시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구멍에는 이미 물이 가득찼던것이다. 물이 갱도에 넘쳐나는것이 보였다.

그리하여 다시금 투쟁이 시작되였다. 에띠엔느는 마지막등불을 켰다. 등불은 점차로 검질기게 끊임없이 불어가는 물을 비치면서 다타들어가고있었다. 물은 처음에 복사뼈까지 올라오더니 다음에는 그들의 무릎까지 올라왔다. 통로가 올리막이여서 그들은 맨끝에 피신하여 몇시간동안 숨을 돌릴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도 물은 그들을 따라잡았다. 그들은 허리까지 물에 잠겼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빠져 벽에 등을 붙이고 물이 불어나는것을 그냥 보고있었다. 물이 입까지 올라오면 마지막인것이다. 걸어놓은 등불이 급한 잔물결을 누르스름하게 비치고있었다. 등불은 점점 희미하게 되여 끊임없이 줄어드는 반원만을 분간할수 있었다. 그 반원도 물이 올라옴에 따라 마치 커지는것 같은 그림자에 밀리는듯 하였다. 그러더니 불시에 모든것이 어둠속에 잠겨들었다. 등불은 마지막기름방울을 빨아들이고 꺼져버렸다. 지하의 밤, 아주 캄캄한 밤이 왔다. 그들은 거기서 잠들어 영원히 해빛을 보지 못하게 될것이다.

《제기랄!》 하고 에띠엔느는 웅글은 소리로 투덜거렸다.

까뜨리느는 어둠이 자기를 붙잡으려고나 하는것 같아 에띠엔느에게

몸을 의지하였다. 그는 속삭이듯 탄부들의 주문을 외웠다.

《죽음이 등불을 꺼버린다!》

그러나 어쨌든 열렬한 생의 본능은 그들로 하여금 닥쳐오는 위협과 투쟁을 하게 했다. 에띠엔느는 등불의 손잡이로 지붕암을 파기 시작했다. 까뜨리느는 손톱으로 그를 거들어주었다. 그들은 높은 긴의자 비슷한것을 만들고 그우에 올라가서 몸을 구부리고 두다리를 드리운채 함께 앉았다. 낮은 천정이 몸을 펴지 못하게 했던것이다. 그들은 물에 발뒤축이 써늘했으나 곧 발목, 장딴지, 무릎이 끊어지는듯이 차거웠다.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왔다. 평탄치 못한 긴의자는 물에 푹 젖어서 거기서 미끄러져내리지 않고 앉아있기란 여간만 힘든 일이 아니였다. 마지막순간이 닥쳐왔다. 모험을 하지 않고서는 조금도 움직일수 없는 이 벽속의 공간에서 그들은 빵도 불빛도 없이 굶주리고 지친 몸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류달리 그들을 괴롭힌것은 어둠이였다. 어둠은 그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죽음을 살피지 못하게 했다. 죽은듯 한 적막이 깃들었다. 물로 가득찬 갱에서는 조그마한 움직임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밑에 있는것이 바다처럼 느껴졌다. 바다는 끊임없이 불어나고 갱바닥으로부터 소리없는 조수가 밀려드는것 같았다.

암흑의 시간이 또 흘렀다. 그들은 정확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수 없었고 점점 더 시간계산이 헛갈리였다. 괴로움속에 지루하게 느껴져야 할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갔다. 벌써 사흘째 되는 날이 끝나가고있었건만 두사람은 이틀낮과 하루밤을 땅속에 갇혀있은것으로 알고있었다.

구원의 손길에 대한 기대는 죄다 사라졌다. 그들이 여기 있는것을 아무도 모를것이며 누구도 그들이 있는데까지 내려오지 못할것이다. 홍수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해도 그들은 굶어죽을것이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신호를 두드려볼 생각이 떠올랐으나 돌은 물밑에 있었다. 하긴 누가 그 소리를 들을수 있겠는가!

자기를 운명에 내맡긴 까뜨리느는 아픈 머리를 탄층에 기대였다가 흠칫 놀라 몸을 다시 일으켰다.

《들어봐요!》 하고 그는 말했다.

에띠엔느는 처음에 그가 끊임없이 불어나는 가벼운 물소리에 대해

서 말하는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처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아니야, 그건 내가 다리를 움직이는 소리야.》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러찮아요. … 저기서 나요, 들어봐요!》

그는 다시금 귀를 탄층에 가져다대였다. 에띠엔느도 알아차리고 그가 하는대로 했다. 몇초동안 기다리는 사이에 그들은 숨이 막혔다. 이윽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두드리는 소리가 약하게 세번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것이 자기들의 귀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또 어쩌면 탄층이 갈라지는 소리가 아닐가 하고도 생각했다. 그들은 무엇으로 두드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드디여 에띠엔느는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막신을 신고있지, 그걸 벗어서 뒤축으로 두드려봐.》

까뜨리느는 탄부들의 구조신호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세번의 신호소리를 분간할수 있었다. 그들은 20번이나 두드렸다. 그러자 저쪽에서도 20번 그 소리에 대답했다. 그들은 균형을 잃고 떨어질 위험을 무릅쓰고 울면서 서로 부둥켜안았다. 저쪽에 동무들이 있다. 그들은 에띠엔느와 까뜨리느에게로 다가오고있다. 두사람은 기쁨과 사랑의 감정이 넘쳐흘렀고 찾아주기를 기다리던 고통과 마치도 구원자들의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고 그들을 구출하려고나 한듯이 오래동안 보람없이 구원의 손을 부르면서 품었던 분노는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어때요!》 하고 까뜨리느는 유쾌하게 웨쳤다. 《내가 귀를 기울여보길 잘했지요!》

《그래! 귀가 아주 밝은데!》 하고 에띠엔느가 대답했다. 《나같으면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을거야.》

이때부터 그들은 서로 교대를 하면서 벽을 두드렸다. 그리고 한사람은 조그마한 신호에도 응답을 할수 있게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들은 곧 곡괭이질하는 소리를 알아들었다.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것이였다. 그들은 하나의 갱도를 뚫었다. 에띠엔느와 까뜨리느는 하나의 음향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사라졌다. 아무리 웃고 아무리 자기자신을 속이려고 해도 그들은

또다시 점차 절망에 빠지지 않을수 없었다. 처음에 그들은 그 소리가 레끼아르갱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며, 통로를 탄층에 뚫고있고 세명의 채탄부가 일하는것이 명백한것으로 보아 몇개의 통로를 동시에 뚫고있는것으로 판단했다. 그다음에 그들은 점점 말이 적어졌는데 나중에는 자기들과 동무들을 갈라놓는 탄층이 아주 두텁다고 생각한즉 전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까뜨리느와 에띠엔느는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사색은 중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만큼 두터운 탄층을 며칠이면 뚫을수 있겠는가를 계산해보았다. 제때에 사람들이 그들한테 당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였다. 그때까지는 두사람이 20번도 죽을수 있을것이다. 그들은 불안이 점점 커갔으며 신호소리가 들려오면 그저 묵묵히 나막신을 두드려 그에 대답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더는 기대하지 않았으며 다만 자기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뿐이였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까뜨리느와 에띠엔느는 벌써 엿새째 땅밑에 있었다. 물은 그들의 무릎까지 와서 멎고 더는 올라오지도 내려가지도 않았다. 얼음같이 찬 물속에 잠긴 다리는 녹아내리는것 같았다. 그들은 한시간동안은 다리를 쉽게 들수 있었지만 너무나 자세가 불편해져서 참기 어려운 경련이 일었고 또다시 발뒤꿈치를 떨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은 돌이 미끄러워서 10분에 한번씩 허리를 써서 몸을 춰올렸다. 석탄을 긁어낸 자리가 잔등에 배기고 머리를 깨지 않으려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있다나니 목덜미가 몹시 아팠다. 뿐만아니라 점점 더 숨이 막혀왔다. 그들이 갇혀있는 종처럼 생긴 공간에 물에 밀린 공기가 압축되여있었던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게 울려 멀리서 들려오는것 같았다. 그들은 경종이 울려퍼지는듯 귀가 윙윙 울어서 우박과 함께 폭우가 쏟아질 때 달려가는 집짐승떼의 끝없는 발굽소리를 듣는것 같았다.

처음에 까뜨리느는 허기증에 몹시 시달렸다. 그는 경련이 이는 빼빼 마른 손을 가슴에 얹고 깊은 한숨을 짓고는 집게로 위를 꼬집어내기라도 하듯이 끊임없이 애처로운 하소연을 하군 했다.

역시 같은 고통을 겪고있던 에띠엔느는 발작적으로 어둠속을 손으로 더듬어 반나마 썩은 동발목쪼각을 찾아내였다. 그는 그것을 손톱으로 잘게 쫄았다. 그리고 그것을 한웅큼 까뜨리느에게 주었다. 까뜨

리느는 게걸스럽게 그것을 집어삼켰다. 옹근 이틀동안 그들은 이 벌레먹은 나무를 뜯어먹으며 살았다. 그것을 다 먹어치우자 그들은 절망에 빠져서 뜯어내기 어려운 더 굳고 섬유질이 질긴 다른 나무토막에 달라붙었다. 그들의 고통은 심해졌다. 그들은 자기 옷을 씹어먹을수 없음에 부아가 났다. 허리를 졸라맸던 혁띠가 그들을 얼마간 진정시켜주었다. 에띠엔느는 이발로 그것을 잘게 뜯어놓았다. 까뜨리느는 그것을 깨물어 바수고 오래동안 씹어서 삼켰다. 이것은 턱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무엇인가 먹는듯 한 환상을 자아냈다. 혁띠를 요정내자 그들은 옷에 달라붙어 몇시간이고 그냥 천을 빨았다.

그러나 이 심한 발작은 곧 멎었다. 주림은 뿌리깊고 둔한 아픔만이 아니였으며 지어 그들의 기력을 천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하였다. 물이 그처럼 풍부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그들은 그렇게 오래 견디지 못했을것이다. 그들은 다만 몸을 굽히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실수 있었다. 목이 타는듯 한 갈증에 20분이나 이렇게 물을 마셔도 갈증을 풀수 없었다.

이레째 되는 날 물을 뜨려고 몸을 굽힌 까뜨리느는 자기앞의 물우에 떠있는 물체에 손이 부딪쳤다.

《보아요. … 이게 뭐예요?》

에띠엔느는 어둠속에서 손을 더듬었다.

《모르겠는데, 통풍구문의 씌우개같군.》

까뜨리느는 물을 마셨다. 그러나 두번째 모금을 뜰 때 그 물체는 다시 그의 손에 닿았다. 그는 무서운 소리를 질렀다.

《아이유, 하느님 맙소사, 그 사람이예요!》

《누구 말이여?》

《그 사람이예요. 잘 알지 않아요?… 난 그의 코수염을 감촉했어요.》

그것은 솨발의 시체였는데 물이 불어나면서 사갱을 따라 또다시 그들한테로 밀려와 떠오른것이였다. 손을 뻗쳐 에띠엔느도 곧 코수염과 깨진 코가 손에 닿는것을 감각하였다. 그는 공포와 혐오감으로 해서 몸이 오싹했다. 까뜨리느는 심한 구역질이 나서 입에 물었던 물을 도로 뱉았다. 그는 자기가 피를 마셨고 이제는 자기앞의 깊은 물이 그 사람의 피처럼 느껴졌다.

《좀 기다려.》 하고 에띠엔느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가 밀어내지.》
그는 시체에 발길질을 했다. 시체는 밀려나갔다. 그러나 곧 그들은 또다시 그것이 다리를 건드리는것을 감촉하였다.
《빌어먹을것! 썩 사라져라!》
세번째로 시체가 떠왔을 때 에띠엔느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을수 없었다. 보건대 그 어떤 물흐름이 시체를 도로 밀어오는 모양이였다. 죽은 솨발은 물러가려고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싸우려고 하였다. 이 끔찍한 동행자는 공기를 아주 흐리게 했다.
그들은 갈증으로 해서 죽는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이날 온종일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에는 괴로운나머지 결심을 하였다. 그들은 한모금의 물을 뜰 때마다 시체를 밀어내야 했지만 그렇게나마 물을 마셔야 했다. 집요한 질투심으로 해서 그 사나이가 그들한테 다시 돌아왔다면 그를 죽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죽어서도 끝까지 거기 남아서 그들이 같이 있는것을 방해할것이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 물이 철썩거릴 때마다 에띠엔느가 죽인 사람이 가볍게 그를 건드렸다. 그것은 마치 옆에 앉은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상기시키려고 팔꿈치로 쿡 찌르는것과도 같았다. 그는 그때마다 몸을 떨었다. 그에게는 퍼렇게 퉁퉁 부어오르고 깨여진 얼굴에 붉은 코수염이 붙은 시체가 계속 보였다.
그다음 그는 아무것도 더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그를 죽이지 않았고 그놈이 헤엄쳐와서 자기를 물려고 하는것이다. 지금 까뜨리느는 오래동안 울음이 다시 터져 들먹이더니 기진맥진하였다. 나중에는 그는 무기력상태에 빠졌다. 에띠엔느가 깨우면 그는 눈도 뜨지 않은채 무엇인가를 웅얼거리고 곧 다시 잠들어버리는것이였다. 에띠엔느는 그가 물에 떨어질가봐 두려워 허리를 그러안았다. 이제는 그가 동료들에게 대답했다. 곡괭이소리는 점점 가까와져서 그는 등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도 지쳐서 두드릴 용기가 없었다. 밖에서는 자기들이 여기 있는것을 알고있지 않는가! 무엇때문에 계속 힘을 뽑겠는가! 자기에게로 사람들이 올수 있다는것도 이젠 그의 흥미를 끌지 않았다. 기다리다못해 그는 정신이 흐려지면서 자기가 무엇을 기다리고있는지를 잊어버렸다.

하나의 위안거리가 생겨 조금 그들의 힘을 돋구어주었다. 물이 줄어들고 솨발의 시체가 물러간것이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작업은 벌써 아흐레나 계속되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굴속에서 몇걸음 떼였다. 그순간 무서운 진동이 일어 그들은 땅우에 넘어졌다. 그들은 웬 영문인지 모른채 얼빠진 사람처럼 서로 더듬어찾아 팔을 붙잡았다. 그들은 탄갱이 다시 무너지는줄로 생각했다. 다시금 모든것이 조용해졌다. 곡괭이소리도 멎었다. 그들이 나란히 앉은 구석에서 까뜨리느가 가볍게 웃었다.

《바깥은 참 좋을거예요!… 어서 나가요.》

에띠엔느는 처음에 이 정신착란과 싸웠다. 그러나 그의 든든하던 머리도 감염되여 흔들렸다. 그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감각을 잃었다. 그들의 모든 감각은 헝클어졌다. 까뜨리느에게서는 그것이 류달리 뚜렷이 나타났다. 흥분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놓았다. 그는 지금 마구 지껄이고 움직이고싶은 욕망을 느꼈다. 그의 귀가에서 잉잉 울리는 소리는 흐르는 물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지저귀는 새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는 짓이겨놓은 풀의 짙은 향기를 맡았으며 눈이 밝아지고 눈앞에서는 누런 반점들이 어찌나 넓게 날아다녔던지 밖에 나와 해빛 밝은 날 운하근처의 밀밭에 있는듯이 느껴졌다.

《아이, 더워… 내 손을 잡아줘요. 언제나 함께 있어요, 네!》

에띠엔느는 그를 꼭 그러안았다. 까뜨리느는 오래동안 그의 품에서 애무를 받으며 행복에 겨워 연신 지껄였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다니! 나는 당신의것으로 되는데 즉시 동의할수 있었는데 당신은 뿌루퉁해서 전혀 몰라주더군요. …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밤이면 잠 못이루고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때 말이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서로를 바랐는지 생각나지요?》

까뜨리느가 유쾌해지는 바람에 에띠엔느도 덩달아 유쾌해졌다. 그는 그때의 그 말없는 애정의 표현을 상기하고 롱담을 했다.

《한번 날 때린 일이 있지. 그래, 그래! 량쪽뺨을 말이야!》

《그건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때문이예요.》 하고 까뜨리느가 속삭였다. 《이봐요, 난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댔지요. 끝장이 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어느날 우리가 같이 있

게 되리라는걸 알고있었어요. … 다만 그렇게 되려면 운수가 좋은 기회가 필요했어요, 그렇지요?》

에띠엔느는 소름이 끼쳤다. 그는 그 꿈을 깨우려고 천천히 말했다.

《아무것도 결코 끝나지 않았소. 약간의 행운이면 모든것이 다시 시작될수 있소.》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놓아주지 않겠지요? 좋은거예요.》

까뜨리느는 힘이 진하여 미끄러져내렸다. 그는 쇠약해진 나머지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깜짝 놀란 에띠엔느는 까뜨리느를 가슴에 꼭 안았다.

《몸이 말째오?》

까뜨리느는 놀란듯이 몸을 다시 일으켰다.

《아니예요, 전혀 아니예요. … 어째서?》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그가 꿈에서 깨여나게 하였다. 그는 멍하니 어둠속을 바라보고 손을 비틀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하느님 맙시사! 얼마나 어두워요!》

이제는 밀밭도 풀향기도 종달새의 노래도 크고 노란 태양도 사라졌다. 무너지고 물에 잠긴 탄갱과 캄캄한 밤과 그토록 여러날 신음해온 굴속의 퀴퀴한 썩은 냄새가 있을뿐이였다. 이제는 까뜨리느의 의식에 생긴 이상은 자기들의 처지에 대한 공포를 더해주었다. 어린시절에 듣던 환영이 또다시 그를 괴롭혔다. 방탕한 처녀들의 목을 비틀어놓기 위해 탄갱속에서 나온다고 하던 죽은 늙은 탄부인 《검은사나이》가 보였던것이다.

《이봐요, 들려요?》

《아니, 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아니예요, 〈검은사나이〉를 알지요?… 그가 저기 있어요. … 땅이 동맥을 잘리운 앙갚음을 하려고 피줄에서 피를 쏟은거예요. 바로 여기 그가 있어요, 보이지요? 봐요! 그는 밤보다 더 새까매요. … 난 무서워요.》

그는 입을 다물고 온몸을 떨었다. 이윽고 그는 다시 속삭였다.

《아니예요, 저건 다른 사람이예요.》

《다른 사람이란건 누구요?》

《여기에 함께 있다가 없어진 사람 말이예요!》

솨발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하여 그 녀자는 그에 대해서 똑똑치 않은 말을 하였다. 그 녀자는 개와 같은 저들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는 쟝 바르에서 단 한번 자기를 살뜰하게 대해주었을 뿐 나머지 날들은 트집과 매질로 보냈고 때린 후에는 애무로 자기를 괴롭히였다는것이였다.

《그가 온다고 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가 함께 있는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는 또다시 샘을 하고있어요. … 그를 쫓아보내요! 나를 맡아주세요! 나를 맡아줘요!》

까뜨리느는 단숨에 에띠엔느의 목에 매달려 정열적으로 그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가져다 대였다. 어둠은 밝아지고 그는 태양을 또다시 보았으며 진정되여 애인의 웃음을 되찾았다. 샤쯔와 짧은 바지가 누데기로 되여 반라체가 된 그가 자기 살에 닿는것을 감촉하고 에띠엔느는 정욕에 몸을 떨며 그를 부둥켜안았다. 드디여 그들은 이 무덤과도 같은 구석의 진탕침대에서 자기들의 결혼의 첫밤을 맞은것이였다. 그들은 행복을 맛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려는 욕망, 살아서 마지막으로 삶을 향락하고싶은 집요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다가오는 죽음앞에서 완전히 절망에 빠진 그들은 서로 몸을 맡기였다.

그다음은 아무것도 없었다. 에띠엔느는 여전히 꼭같은 구석의 땅우에 앉아있었다. 까뜨리느는 그의 무릎우에 까딱않고 누워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에띠엔느는 그가 지금 자고있다고 오래동안 믿었다. 다음 그가 까뜨리느를 손으로 다쳤을 때 그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있었다. 까뜨리느는 숨이 져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그의 잠을 깨울가봐 두려워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그에게 처음으로 안해가 생기고 그가 임신할수 있다는 생각에 에띠엔느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따금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그와 함께 떠나고싶은 욕망이며 자기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것인가에 대한 즐거운 공상이 그것이였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아주 막연한것으로 하여 꿈결에서처럼 그의 머리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는것 같았다. 쇠약해진 그는 싸늘하게 굳어져서 어린아이처럼 잠자고있는 까뜨리느가 거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나 손을 약간 움직일 기력밖에 없었다. 모든것이 몽롱해지고 지어 밤까지도 아리숭하였다. 그는 자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있는듯

이 느꼈다. 그의 머리가까이로 무엇이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다가오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몹시 지친 나머지 온몸이 나른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는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까뜨리느가 자기앞으로 걸어가고 자기는 그의 또닥거리는 가벼운 나막신소리를 듣는 꿈속에서 헤맬뿐이였다. 이렇게 이틀이 지났다. 까뜨리느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에띠엔느는 그가 아주 편안하다는것을 확인하느라 기계적으로 그의 몸을 어루만지군 하였다.

에띠엔느는 충격을 느꼈다. 말소리들이 울리고 부서진 암석이 그의 발밑까지 굴러내렸다. 그는 등불을 보고 울었다. 그의 깜박거리는 두눈은 지칠줄 모르고 빛을 주시하고있었다. 그는 어둠속에서 겨우 눈에 띄우는 그 불그레한 점을 보고 황홀경에 잠겼다. 그러나 동료들은 그를 날라갔다. 그들은 그의 꽉 다문 입에 죽을 몇술 떠넣었다.

레끼아르갱에 이르러서야 그는 자기앞에 서있는 기사 네그렐을 알아보았다. 서로 경멸해오던 두 사나이—반항해나선 로동자와 의심많은 주인은 요란스레 통곡하며 서로 부둥켜안았다. 두사람에게 있던 모든 인간적인 감정이 움직였던것이다.

그것은 한없는 슬픔이였으며 대대로 물려온 불행이였으며 인생이 맞다들릴수 있는 극도의 고통이였다.

갱밖에서는 마여의 안해가 죽은 까뜨리느의 옆에 쓰러져서 소리를 지르고 또 지르며 그칠줄 모르는 한탄을 길게 하고있었다. 몇사람의 시체는 벌써 꺼내다가 땅우에 나란히 눕혀놓았다. 그것은 솨발과 한명의 보조공과 두명의 채탄공의 시체였다. 사람들은 솨발도 보조공이나 채탄공들처럼 무너지는 돌에 두개골이 깨져 골이 흩어지고 배는 물이 가득차 불어난것으로 믿었다. 군중들속에 있던 녀인들은 리성을 잃고 치마를 마구 찢으며 손톱으로 얼굴을 허비였다.

등빛에 익숙해지고 영양을 취한 에띠엔느를 밖으로 내왔을 때 그의 머리는 모두 새하얘지고 살이 몹시 빠진 상태였다. 모두가 그에게서 물러섰다. 사람들은 이 늙은이를 보고 몸서리를 쳤다.

마여의 안해는 소리를 지르던것을 그치고 눈을 크게 뜨더니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6

새벽 4시였다. 서늘한 4월의 밤은 날이 밝아오면서 따뜻해졌다. 맑은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거렸고 동녘하늘에는 려명이 불그레하게 비꼈다. 잠든 어두운 들판은 잠에서 깨여나기 전의 어렴풋한 소리로 알릴락말락하게 설레이고있었다.

에띠엔느는 방담으로 가는 길을 스적스적 걸어가고있었다. 그는 몽쑤의 병원침대에서 6주일을 보냈다. 아직 얼굴이 누렇고 무척 수척한 그는 떠날만 한 힘이 생겼다고 느껴져 길을 떠났다. 회사는 여전히 탄갱일로 겁에 질려 계속 해고하면서 에띠엔느도 그냥 두어둘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회사는 그더러 힘에 부치는 탄갱일을 그만두라고 어버이다운 권고를 하고 그에게 구제금 100프랑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그 100프랑을 거절했다. 그는 이미 쁠류샤르에게서 회답을 받았었다. 쁠류샤르는 그를 빠리로 부르고 려비까지 보내왔었다. 말하자면 그의 오래전의 꿈이 실현되였던것이다. 그는 떠나기 하루전에 병원에서 나와서 과부 데지르의 술집 봉 쥬와이어에서 하루밤을 지냈다. 그는 이른아침에 일어났다. 그는 마르쉬엔느로 8시차를 타러 가기 전에 동무들과 작별인사를 하고싶었던것이다.

에띠엔느는 장미빛이 도는 길가에 잠시 멈춰섰다. 이른봄의 맑은 대기를 들이마시는것은 상쾌하였다. 오전날씨는 아주 좋은것 같았다. 천천히 날이 밝아왔다. 태양이 솟아오르면서 땅우의 생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띠엔느는 산수유나무지팽이를 힘있게 두드리면서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걸으면서 그는 밤의 안개속에서 나타나는 벌판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아무도 만나지 못했었다. 마여의 안해는 단 한번 병원에 왔다. 분명히 더는 찾아올수 없었던 모양이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 뒈 쌍 까랑뜨마을사람들이 이제는 쟝 바르탄갱에 들어가며 마여의 안해도 거기서 일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텅 빈 도로에 점차 탄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창백한 얼굴을 하고 묵묵히 에띠엔느의 옆을 계속 지나갔다. 들리는 말과 같이 회사는 자기들의 승리를 악용하였다. 두달반동안 파

업을 해오던 로동자들은 끝내 굶주림을 이겨내지 못하고 탄갱으로 돌아와 동발에 대한 임금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것은 동료들의 피로 얼룩져 이제는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은폐된 로임삭감이였다. 이처럼 로동자들은 매일 한시간분의 품삯을 략탈당하게 되였으며 굴복하지 않겠다던 저들의 맹세를 어기게 되였다. 이렇게 맹세를 지켜내지 못하게 된것이 곰의 열처럼 쓰고 그들의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미루에서도 마들렌느에서도 끄레부꿰르에서도 빅뜨와르에서도 어데서나 일이 다시 시작되였다. 어둠에 덮인 길을 따라 아침안개속에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집짐승처럼 고개를 숙이고 줄지어 걸어가는 탄부들의 발걸음소리였다. 얇은 옷을 입은 그들은 추위에 몸을 떨며 팔짱을 끼고 뒤뚱거리면서 걸어갔다. 등어리의 샤쯔와 웃옷사이에 밀어넣은 점심빵쪼각이 혹처럼 두드러져나왔다. 그러나 조금도 옆을 보지 않고 침울한 표정으로 작업에 다시 나가고있는 말없는 검은 그림자들의 행렬에서 분노로해서 이를 사려물고 심장은 증오로 가득찼으며 오직 주림에 순종했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에띠엔느는 탄갱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탄부들의 수가 늘어나는것을 보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따로따로 걸어갔다. 패를 지어오던 사람들도 벌써 기진맥진하고 다른 사람들과 저들자신에 대한 권태감을 느끼고 뒤떨어지면서 길게 늘어서는것이였다. 에띠엔느는 창백한 이마밑에서 석탄처럼 눈이 빛나는 한 로인을 보았다. 다른 한 젊은이는 폭풍을 간직한듯 한 숨을 쉬고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나막신을 들고갔다. 투박한 털양말을 신은 발로 스륵스륵 땅을 밟는 발소리가 들릴락말락하게 들려왔다. 이 끊임없는 흐름은 여전히 머리를 숙인채 싸움을 다시 벌리고 복수하고싶은 욕망으로 은근히 격분한 상태에서 패주하는 패전한 군대가 강제로 끌려가는 행렬이였다.

에띠엔느가 도착했을 때 쟝 바르탄갱은 어둠속에서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삼각다리에 걸린 등불들은 려명이 비끼기 시작했으나 아직 타고있었다. 어두운 건물들의 우로는 붉은 물이 살짝 든 하얀 왁새같은 흰연기가 피여오르고있었다. 에띠엔느는 저탄장으로 가려고 선탄장계단을 지나갔다. 입갱이 이미 시작되여 로동자들이 휴게실에

서 올라오고있었다. 에띠엔느는 왁자지껄하는 소음과 혼잡속에 잠시 까딱않고 서있었다. 탄차들이 철판우로 덜커덩거리면서 굴러갔고 바퀴가 돌아가면서 쇠바줄을 풀었으며 확성기에 대고 웨치는 소리와 종소리, 신호장치를 때리는 마치소리들이 들려왔다.

에띠엔느는 사람을 삼켜버리는 괴물을 또다시 보았다. 승강기는 쉬임없이 오르내리며 사람들을 밑으로 실어갔다. 탄갱은 게걸스러운 거인처럼 그것을 게눈감추듯 삼켜버리는것이였다. 곤경을 치른 이후로 에띠엔느는 탄갱에 대하여 신경과민과도 같은 공포감을 느끼고있었다. 승강기가 밑으로 내려가는것을 보자 그는 내장이 온통 뒤집히는듯 했다. 그는 머리를 돌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만큼 수직갱은 그에게 참을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다.

에띠엔느는 기름이 다 탄 등불이 희미하게 비치고있는, 어슴푸레한 넓은 방에서 상냥한 얼굴을 한 사람은 하나도 볼수 없었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탄부들은 등불을 들고 맨발로 서있었다. 그들은 불안한 눈으로 에띠엔느를 쳐다보다가 창피한듯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물러갔다. 물론 그들은 에띠엔느의 얼굴을 알아본것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 대하여 더는 원한을 품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도리여 그를 두려워하는것 같았으며 그가 자기들의 비겁성을 질책할수 있다는것을 생각하고 얼굴을 붉히는것이였다. 그러한 그들을 보는 에띠엔느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이 불행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졌다는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며 스스로 자기를 삼켜버리는 이 자연적력량인 대중을 이끌어나갈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였다.

승강기가 또 한무리의 사람들을 태우고 아래로 사라졌다. 다른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에띠엔느는 드디여 죽기를 맹세한 파업때의 한 용감한 조력자를 알아보았다.

《자네도 저리로 가나?》 하고 에띠엔느는 침통하게 말을 건넸다.

그 사나이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을 떨었다.

이윽고 그 사나이는 미안한 몸짓을 해보였다.

《어떻게 하겠나! 난 처가 있어.》

휴계실에서 올라온 또 한패의 사람들을 에띠엔느는 이제는 다 알아보았다.

《자네도! 자네도! 자네도!》

모두 몸을 부르르 떨면서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중얼 대답했다.

《난 어머니가 있어. … 난 아이들이 있어. … 빵이 있어야겠네. …》

승강기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탄부들은 승강기를 기다리면서 패배한것이 너무나 괴로와 눈길이 서로 마주치는것조차 피하였고 수직갱에서 고집스레 눈을 떼지 않고있었다.

《헌데 마여 아주머니는?》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가 올것이라고 몸짓을 해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동정하여 떨리는 두팔을 쳐들었다. 얼마나 가엾은 녀인인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아무도 침묵을 깨뜨리지 않았다. 에띠엔느가 작별의 손을 내밀자 모두가 그 손을 굳게 잡아주었는데 그 마지막악수에 자기들의 패배에 대한 말없는 분개와 복수에 대한 열렬한 희망을 담는듯싶었다. 승강기가 올라오자 그들은 아래로 내려갔다. 심연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삐에롱이 이미 와있었다. 그의 가죽모자에는 감독들이 가지고다니는 안전망이 없는 등이 달려있었다. 그는 8일전부터 저탄장의 반장을 하고있었다. 로동자들은 그를 멀리했다. 그는 한자리 한 이후로 거만해졌기때문이였다. 삐에롱은 에띠엔느를 만나는것이 싫었지만 그에게로 다가갔다. 에띠엔느가 자기는 그곳을 떠난다고 말을 하자 삐에롱은 안심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삐에롱의 안해는 지금 자기를 호의로 대하는 신사들의 지원을 받아 카페 《쁘로그레》를 경영하고있었다. 삐에롱은 말을 하다말고 무끄로인을 보고 그가 말의 똥오줌을 제정된 시간에 올려오지 않았다고 욕을 했다. 로인은 어깨를 수그리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다음 이러한 질책에 숨막히듯 그도 입갱을 하기 전에 에띠엔느와 악수를 했다. 무끄로인의 악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래였으며 참고 새겨버린 분노, 앞으로 있게 될 반항으로 떨리였다. 자기의 손아귀에서 떨리는 그 로인의 손, 자기의 두 자식을 죽인 그를 용서해주고있는 이 로인에게 너무나 감동되여 에띠엔느는 무끄로인이 아래쪽으로 사라지는것을 바라볼뿐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마여 아주머니가 나오지 않소?》 하고 에띠

엔느는 잠시후 삐에롱에게 물었다.
삐에롱은 처음에 말을 못 알아들은척 했다. 그것은 그 녀자에 대한 말만 해도 운수가 여러번 나빴기때문이였다. 이윽고 그는 그 무슨 지시를 주어야 하겠다는 구실밑에 물러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마여의 안해 말이요?… 저기 오누만.》
아니나다를가 짧은 바지에 웃옷을 입고 작은 모자를 눌러쓴 마여의 안해가 등불을 들고 휴계실에서 오고있었다. 마여의 안해에게는 례외적인 자비심을 베풀었다. 회사는 극심한 타격을 받은 그 녀인의 운명을 가엾이 여기여 이미 40을 넘은 그에게 탄갱에서 일할수 있도록 허락해주었다. 그를 운반공으로 일시키기는 어려울것 같아 따르따레밑의 통풍이 안되는 지옥과 같은 북쪽갱에 얼마전에 설치한 소형통풍기의 운전공으로 배치했다. 그는 연약한 허리를 가지고 살이 익는듯한 40도의 고열속의 좁은 통로에서 10시간동안 바퀴를 돌려야 했다. 그는 30쑤를 벌었다.
에띠엔느는 남복을 한 그가 가엾어보였다. 그의 배와 가슴은 막장의 습기를 머금어 부풀어오른것 같았다. 에띠엔느는 충격이 커서 자기가 떠나게 되여 작별인사를 하러 왔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다.
마여의 안해는 에띠엔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하다가 드디여 친근한 어조로 입을 뗐다.
《나를 보고 놀랬지?… 정말 난 가족들중에서 제일먼저 작업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목매겠다고 을러댔었지. 그런데 바로 나자신이 나왔어. … 나부터 목을 맸어야지, 그렇지?… 정말이지 로인과 아이들만 달리지 않았으면 벌써 그렇게 했을거야!》
마여의 안해는 지치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았고 사실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들은 모두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마을에서 쫓겨날수 있었기때문에 그렇게 결심했다는것이였다.
《할아버지는 어때요?》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여전히 아주 태연하고 깨끗하지. 허지만 머리는 아주 망쳐버렸어. … 그는 자기의 죄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았지. … 알고있어? 그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문제도 제기되였으나 내가 반대했지. 거기서 그는

끝장이 나고말테니까. … 아무튼 그때 일때문에 우린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였어. 그가 영영 년금을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한 어른이 내게 말하기를 그에게 년금을 주는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나.》
《쟝렝은 일을 합니까?》
《하지. 그에게 갱밖의 일을 시켜주더군. 20쑤씩 받아. … 아, 난 불평이 없어. 회사에선 내게 아주 좋게 대해주고있어. 그들자신이 내게 말하는것처럼… 쟝렝이 20쑤, 내가 30쑤 합하면 전부해서 50쑤야. 식구만 여섯이 아니면 먹을것은 떨어지지 않을거야. 지금 에쓰뗄은 게걸스레 먹어대지. 제일 딱한건 레노르와 앙리가 탄갱에서 일하게 될때까지 4～5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것이야.》
에띠엔느는 괴로운 몸짓을 억제할수 없었다.
《그 애들까지요!》
마여의 안해의 창백한 두볼에는 홍조가 떠오르고 두눈이 반짝거렸다. 그러나 운명의 압박에 짓눌리운듯 그는 두어깨를 떨구었다.
《어떻게 하겠나! 그 애들도… 누구나 거기에 목숨을 내댔지. 이제는 그 애들 차례야.》
그는 입을 다물었다. 밀차공들이 탄차를 밀어가면서 그들을 방해했다. 먼지가 낀 큰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그래서 조명등들이 희미해졌다. 3분씩 간격을 두고 기계가 움직이면서 쇠바줄이 풀리였고 그때마다 승강기는 계속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여, 건달군들, 빨리!》 하고 삐에롱이 웨쳤다.
《타오, 그렇잖으면 오늘 종일 걸려도 다 못 내려가겠어!》
삐에롱은 마여의 안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마여의 안해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3대의 승강기를 그냥 보냈다. 이윽고 그는 잠에서 깨여난듯 처음에 에띠엔느가 하던 말을 상기하고 이렇게 말을 건넸다.
《그래 떠나는가?》
《떠납니다, 오늘 아침에.》
《옳아, 가능하다면 어디 다른 곳에 가는것이 좋지. 임자를 만나니 난 기뻐. 내가 임자를 조금도 노엽게 여기지 않는다는것을 임자도 알겠기때문이야. 그 모든 죽음이 있은 후에 한동안 나는 임자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니 누구도 잘못이 없더란 말이야. … 그

렇다마다, 그건 임자의 잘못이 아니야. 모두의 잘못이야.》
그는 남편이며 자샤리며 까뜨리느 등 죽은 가족들에 대해서 태연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알지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두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기의 리지적인 녀성다운 평온을 되찾았고 모든것을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고있었다.
공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그처럼 많이 죽인 부르죠아지들에게 행운이 차례지지 않을것이다. 모든것은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만큼 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지어는 참견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가게방들은 스스로 날아날것이며 병사들은 한때 로동자들을 쏘던것처럼 주인들을 쏘게 될것이기때문이다.
세기적인 순종과 그로 하여금 또다시 허리를 굽히게 한 세습적인 복종속에서 이처럼 진행된 로동은 부정의가 더는 지속될수 없으며 하느님이 없다면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불행한 사람들의 원을 풀어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마여의 안해는 경계하는 눈으로 흘깃흘깃 주위를 살피면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삐에롱이 다시 가까이에 오자 그는 큰소리로 말했다.
《가려거든 우리 집에서 자네 물건들을 가지고 가게.… 우리 집에 아직 임자의 샤쯔 두벌하구 손수건 세개하구 낡은 짧은바지 하나가 있어.》
에띠엔느는 넝마장사에게 넘어가지 않은 이 낡은 옷가지들을 거절하는 시늉을 하였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을 입히세요.… 빠리에 가면 또 갖추지요.》
승강기가 또 두번 내려갔다. 드디여 삐에롱은 직접 마여의 안해에게 말했다.
《이보우, 아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고있소! 곧 이야기가 끝나겠소?》
그러나 마여의 안해는 그에게 등을 돌려댔다. 무엇때문에 이 변절자는 이렇게도 열성을 부리는가? 로동자들의 입갱은 그가 관계할바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잖아도 저탄장에서 사람들은 그를 증오하고있는것이다. 마여의 안해는 등불을 들고 에띠엔느와 함께 그냥 서있었다. 온화한 철이건만 그는 바람에 몸이 얼어들었다.
에띠엔느도 마여의 안해도 더는 할말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 마주 서있을뿐이였다. 그들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무슨 말이든 더 하

고싶었다.

드디여 마여의 안해가 이야기줄거리를 끄집어냈다.

《레바끄의 안해가 임신을 했어. 남편은 아직 감옥에 갇혀있지. 그 동안에 부뜰루가 그를 대신하고있지.》

《아, 그래요, 부뜰루가요!》

《그리고 또… 이봐, 내 임자에게 이야기 안했던가?… 필로멘느가 떠났네.》

《떠나다니요?》

《응, 빠 더 깔래의 한 탄부허구 같이 떠났어. 그 애가 두 아이를 내게 두고 갈가봐 난 걱정했었지.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더군, 어때? 그 앤 피를 토하고도 계속 입을 다물고 있지!》

마여의 안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나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풍문이 돌았지!… 생각나지, 내가 임자허구 잔다고 소문이 퍼졌댔지, 아아 정말이지! 혹시 내가 좀더 젊었다면 남편이 죽은 후에 그런 일이 있을수 있지, 안그래!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은것이 이젠 잘됐어. 그런 일이 있었더면 후에 우리는 꼭 후회했을테니까.》

《그렇지요, 후회하지요.》 하고 에띠엔느가 그 말을 되받았다.

이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더 이야기하지 않았다. 승강기가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벌금을 받겠다고 위협하면서 성이 나서 그를 불렀다. 마여의 안해는 결심을 하고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에띠엔느는 몹시 감동해서 그의 뒤모습을 계속 바라보았다. 얼마나 부대끼고 지친 녀자인가! 얼굴은 창백했고 푸른 모자밑으로는 빛바랜 머리칼이 삐여져나와있었다. 새끼낳이를 잘하는 좋은 짐승과도 같은 그의 몸매는 짧은 바지와 아마천 웃옷을 입은탓에 모양없이 되였다. 그러나 에띠엔느는 오래동안 말없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손을 꼭 잡고있는데서 투쟁이 다시 시작되는 그날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는 동지적악수를 또다시 느꼈다. 그 녀자의 두눈에 고요한 확신이 어리여있음을 그는 완전히 알아보았다. 곧 다시 만나 이번에는 커다란 타격을 안기자.

《저렇게도 꾸물거린다구야, 빌어먹을!》 하고 삐에롱이 소리쳤다.

이리 밀리우고 저리 밀리면서 마여의 안해는 네명의 다른 로동자들과 함께 탄차 구석에 배좁게 자리잡았다. 신호끈을 잡아당겼다. 승강

기가 움직여 어둠속으로 떨어져내리고 쇠바줄만이 급속히 움직이는것이 보였다.

에띠엔느는 탄갱을 떠났다. 그는 아래쪽 선탄장창고밑에 있는 두터운 석탄층가운데서 두다리를 펴고 땅에 앉아있는 웬 사람을 보았다. 그것은 정선공으로 채용된 쟝렝이였다. 그는 석탄덩이를 허벅다리사이에 놓고 마치로 지붕암쪼각들을 까내고있었다. 보드라운 석탄가루가 그의 땀흐르는 몸을 까맣게 뒤덮고있어서 두귀가 축 처지고 크지 않은 푸르스름한 눈을 한 원숭이같은 얼굴을 그가 들지 않았더라면 에띠엔느는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것이다. 쟝렝은 익살섞인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으로 석탄덩이를 쳐서 깨뜨렸다. 피여오르는 까만 석탄먼지가 그의 자태를 감추어버렸다.

에띠엔느는 그곳에서 나와서 잠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길을 걸었다. 온갖 상념들이 그의 머리속에서 맴돌고있었다. 그러나 대기는 맑고 하늘은 한없이 높았다. 그는 한껏 숨을 들이켰다. 찬란한 태양이 지평선우에 떠올랐다. 온 대지가 기쁨속에 깨여났다. 가없는 들판에는 동에서 서로 황금물결이 흘러가고있었다. 뜨거운 활기가 청춘의 약동인양 넘쳐나 널리 퍼져가고있었다. 거기서는 대지의 숨소리와 새들의 노래소리, 강과 숲의 속삭임이 울리고있었다. 삶은 역시 좋았다. 그래서 낡은 세계는 또 한번 봄을 맞으려고 한것이다.

그러한 희망으로 가득찬 에띠엔느는 걸음을 늦추었다. 그는 봄날의 희열에 취하여 길 좌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다. 탄광에서 쌓은 어려운 경험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강해지고 원숙해졌다고 느꼈다. 그의 공부는 끝났다. 혁명의 리지적인 전사로서 무장된 그는 자기가 그만큼 보아오고 규탄하고있는 사회에 대하여 싸움을 선언하면서 떠나는것이다. 자기가 쁠류샤르를 만날것이며 쁠류샤르처럼 공인된 지도자로 되리라는 기쁨은 그가 여러가지 연설들을 하게 된다는것을 속삭여주었다. 그는 이 연설들의 문구들을 준비했다. 그는 자기의 강령의 폭을 넓힐것을 구상했다. 그를 자기의 계급우에 올려세운 부르죠아적세련은 도리여 부르죠아지에 대한 그의 증오를 조장했을뿐이였다. 로동자들이 처해있는 빈곤이 이제는 그를 괴롭히였고 그는 그들에게 영예감을 북돋아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그들만이 위대하고 옳바른 사람들이며 그들만이 인류를 갱신할

수 있는 고결함과 힘을 지녔다는것을 보여줄것이다. 그는 민중이 자기를 배척하지만 않으면 그들이 승리하는 그날에 연단앞에 나서게 될 자기의 모습을 벌써부터 머리에 그려보았다.

높은 하늘에서 지종지종 울어대는 종달새의 노래를 듣고 에띠엔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에서 마지막밤안개, 작은 장미빛구름들이 사라져가고있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쑤바린과 라스너르의 얼굴들이 어렴풋하게 떠올랐다. 결정적으로 각자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면 모든것은 파탄된다. 세계를 개혁할 사명을 지닌 그 유명한 인터나쇼날도 무력하여 류산되고있다. 내부분쟁으로 굉장한 부대가 분렬되고 와해된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는 종의 개선과 계승을 위한 약육강식의 싸움일뿐이라는 다윈이 옳단 말인가? 그는 자기 지식에 만족하고있는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풀긴 했지만 그것은 역시 그를 당황하게 했다. 그러나 한가지 생각이 그의 의심을 풀고 그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것은 자기가 처음으로 하게 될 연설에서 그 리론에 대한 이전의 자기의 해설을 다시 하는것이였다. 만약에 어느 한 계급이 타도되여야 한다면 삶으로 가득찬 청소한 민중이 포만한 부르죠아지를 타도할것이 아닌가? 새로운 류혈이 새 사회를 건설할것이다. 로쇠한 민족들을 재생시킬 야만족들의 공세를 기대하는데서 도래할 진정한 혁명, 근로대중의 혁명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이 되살아났다. 혁명의 화광은 솟아오르는 태양의 붉은빛으로 세기의 종말을 불태울것이다. 에띠엔느는 그것이 피를 흘리는것을 하늘에서 보는것만 같았다.

에띠엔느는 이런 생각에 잠겨 산수유나무지팽이로 길가의 돌을 툭툭 치면서 걸어갔다. 자기 주위로 눈길을 돌릴 때마다 그는 이미 낯익은 장소들을 알아볼수 있었다. 프루슈 오 버프에 이르렀을 때 그는 탄갱을 들부시던 날 아침 자기가 바로 거기로부터 군중들을 이끌고갔다는것을 상기했다. 오늘은 또다시 야만적이고 살인적이며 품삯은 적은 로동이 시작되였다. 그곳 700메터의 지하에서 고르롭고 끊임없이 울리는 웅글은 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았다. 그것은 조금전에 입갱하는것을 본 새까맣게 된 그의 동료들이 말없는 분노속에 탄층을 까내고있는 소리다. 물론 그들은 패배를 당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돈과 많은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빠리는 보료탄갱의 총성을 잊지 않을것이며 제국 또한 그 아물수 없는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야말것이다. 공황

이 끝나고 공장이 하나둘 다시 문을 연다 해도 금후로는 평화가 불가능한만큼 전쟁은 어차피 선포될것이다. 탄부들은 자기들의 력량을 타산하고 시험해보았으며 자기들의 정의의 웨침으로 온 프랑스의 로동자들을 격동시켰다. 이처럼 그들의 패배는 아무도 안심시켜주지 않았다. 몽쑤의 부르죠아는 승리는 했지만 래일에 다시 일어날 파업에 은근히 불안을 느끼고있었다. 그들은 탄부들의 깊은 침묵속에 자기들의 불가피한 종말이 다가오지 않았는지 뒤를 돌아보는것이였다. 그들은 혁명이 끊임없이 다시 도래할것이며 어쩌면 래일이라도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렇게 되면 총파업이 또다시 시작될것이고 자기의 구제은행을 가진 모든 로동자들은 단결하여 빵을 먹으면서 몇달이고 견디여낼수 있을것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이번 파업은 무너져가는 사회에 대한 첫 타격에 불과한것이다. 그 사회가 그들의 발밑에서 깨여지는 소리를 들었고 무너져서 물속에 잠긴 보료탄갱처럼 낡은 제도가 흔들리여 무너져서 삼키울 때까지 새롭고 새로운 타격이 뒤따르리라는것을 그들은 느끼고있었다.

에띠엔느는 왼쪽의 쥬아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그는 자기가 거기에서 가스똥마리로 달려가는 군중들을 저지시키려던것을 상기했다. 밝은 해빛이 비치는 여러 탄갱들의 탑이 멀리 보였다. 오른쪽에 미루탄갱이 있고 마들렌느탄갱과 끄레브 꿰르탄갱이 나란히 서있었다. 사방에서 작업이 진행되고있었다. 곡괭이질을 하는 소리가 땅속에서 그에게까지 들려오는것 같았다. 이제는 그 소리가 끝에서 끝까지 온 들판에 울리고있었다. 해빛을 받아 웃음짓는 들판과 길, 마을밑에서는 계속 곡괭이질을 하고 또 했다. 지하도형장의 암흑속에서의 로동은 거대한 암석층에 어찌나 짓눌리웠던지 고통스러운 탄식을 분간해 들어보려면 그밑에서 진행되고있는 일을 알아야 하였다. 이제 와서 에띠엔느는 아마도 폭력이 모든것을 촉진시키지 못할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토막난 쇠바줄, 끊어진 궤도, 깨여진 등불들, 이 모든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페허로 만들려고 무리지어 3마일이나 달려갈 필요가 있었던가! 그는 그 언제인가는 합법적투쟁이 더 무섭게 될수 있다는것을 막연하게 짐작하였다. 그의 리성은 성숙하고있었다. 그렇다, 마여의 안해가 분명히 옳게 말하였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때에 조용히 묶어세우고 의식화하여 로동조합에 뭉친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서

로 돕게 되는 시기에 몇천에 불과한 게으름뱅이들과 맞서 정권을 쟁취하고 주인으로 되는것은 큰 타격으로 될것이다. 아! 진리와 정의의 놀라운 소생이다! 그렇게 되면 불행한 사람들이 한번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살점을 섬기는 어딘가 아득히 먼 제 소굴에 깊숙이 숨어있는 살진 귀신같은 괴물은 드디여 죽게 될것이다.

에띠엔느는 방담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포석도로로 나왔다. 오른쪽에는 언덕아래로 무연하게 펼쳐진 몽쑤가 보였다. 맞은편에는 저주로운 구멍, 보료갱의 페허가 있었다. 거기서는 석대의 양수기가 쉬임없이 물을 퍼내고있었다. 그뒤로는 지평선우에 빅뜨와르, 쌩 또마, 퍼뜨리 깡뗼탄갱들이 보였고 그리고 북쪽에는 용광로들의 높다란 탑들과 해탄로들이 보였다. 그 로들의 우에서는 맑은 아침공기를 뚫고 연기가 뭉게뭉게 오르고있었다.

에띠엔느는 아침 8시차에 늦어지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했다. 아직도 6키로메터를 더 걸어야 했기때문이였다.

그의 발밑에서는 곡괭이질이 땅속깊이에서 집요하게 계속되였다. 거기에는 그의 모든 동료들이 있었다. 에띠엔느는 매 걸음마다 그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는듯 했다. 이 사탕무우밭밑에서는 통풍기의 동음속에서 마여의 안해가 등을 구부리고 거쉰 숨을 몰아쉬며 일하고있는것이 아닐가? 왼쪽과 오른쪽, 더 멀리 밀밭과 생울타리, 어린 나무들밑에서 그는 자기의 동료들을 알아보고있다고 믿었다. 하늘 한복판에서 4월의 태양이 광휘롭게 빛나며 어머니－대지를 덥히고있었다. 그의 품에서는 삶이 샘솟듯 하며 나무움들이 푸른 잎으로 피여났고 풀들이 자라나는 들판이 태동하고있었다. 도처에서 씨앗이 부풀어오르고 싹이 자라 온기와 빛을 갈망하여 땅을 터치고 솟아나오고있었다. 생기가 속삭이듯 하며 넘쳐흐르고있었으며 싹트는 소리는 오래동안 입맞추는 소리로 울려퍼졌다. 동료들의 곡괭이소리는 마치도 땅우로 가까이 다가오는듯 점점 더 뚜렷해졌다.

젊음이 넘쳐나는 이 아침의 불타는 해빛을 받은 대지는 바로 이 소리를 배태하고있었다. 새 세기에 열매를 맺게 될 복수의 검은 부대가 땅속에서 천천히 싹트고 자라고있었다. 이 싹은 머지않아 땅을 터치고 솟아오를것이다.

제 르 미 날

저 자 에밀 졸라
역 자 최 일 룡
편 집 박 건 일
편 성 리 설 희
교 정 김 정 옥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100(2011)년 4월 20일
발 행 주체100(2011)년 4월 25일

ㄱ―06764ㄴ 값 360원